E-Book

지봉유설 1

이수광 저 | 남만성 역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백과사전. 실학(實學)의 선구자로 불리는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은 '서울 속의 산림(山林)'을 자처했던 당대의 선비이자 명신(名臣)이었다. 《지봉유설》은 저자의 폭넓은 학식과 국제적 견문을 바탕으로 17세기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교양을 집대성한 대저작이다. 민족문화추진회 번역위원을 역임했던 한학자 남만성 선생이 고풍스럽고 유려한 문장으로 옮긴, 국내 유일의 완역본이다.



OLJE CLASSICS

OLJE CLASSICS
71

지봉유설 1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지봉유설1》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 남만성 님께 감사드리며,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남영태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차 례

지봉유설1

차 례

지봉유설2

일러두기

1. 이 책은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 발행 영인본《지봉유설芝峰類說》을 저본으로 했다.
2. 이 책은 귀중한 고전을 완전한 형태로 계승하려는 성의에서 전문全文을 완역했다.
3. 어려운 어구나 낱말에는 간단한 주해를 붙였다.

작품 해설

전통과 세계를 껴안은 문화 백과사전, 《지봉유설》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최초의 문화 백과사전

조선 중기의 학자 이수광李睟光(1563~1628)이 쓴 《지봉유설芝峰類說》은 최초의 문화 백과사전으로 평가받을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가 젊은 시절 틈틈이 기록한 내용들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지봉유설'의 지봉芝峯은 이수광의 호를 의미하며, 유설類說은 '분류별로 하고 싶은 말'이란 뜻이다. 즉, 유형별로 책을 편집했음을 말한다. 백과사전류의 책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성호가 쓴 보잘 것 없는 이야기'란 뜻이다. 이러한 책들은 제목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수광이 《지봉유설》을 썼던 까닭은 무엇일까? 선조에서 인조에 이르는 조선시대 중기는 정치적 ·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닥쳐오는 시기였다. 안으로는 본격적인 붕당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 세력 간의 정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밖으로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왜란과 17세기 초반 북방 여진족의 흥기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세력 판도가 점차 재편되어가는 시기였다. 이수광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 학문을 연구하고 국가의 중흥을 위한 사회 · 경제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실천 · 실용의 학문에 힘썼다. 그 스스로 무실務實의 학문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

리하였다. 이러한 학문을 위해서는 옛 선현들의 지혜와 동서고금의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했다.
이수광은 선현들의 사적을 모으는 한편, 이를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의 저술《지봉유설》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세상에 전해야 할 사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지봉유설》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힌 서문을 보면, 우리나라가 박학博學의 전통이 있었던 나라지만 그 문헌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그 문헌들을 찾아 새롭게 고증하겠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옛 것을 모범 삼아 새로운 것을 창출함)이 바로《지봉유설》을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2. 저자 이수광은 누구인가?

이수광의 본관은 전주全州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4대 동안 관직 진출이 막혔다가 그의 아버지 이희검李希儉(1516~1579)에 이르러서야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이희검은 명종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때에는 판서를 지냈고 청백리에도 뽑혔다. 이수광은 어린 시절을 흥인지문興仁之門(지금의 동대문) 밖에서 보냈다. 그의 호 지봉芝峯은 집 부근에 있는 상산商山의 한 봉우리에서 따온 것으로, 그가 평생 이곳에 깊은 애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창덕궁 서쪽의 계곡인 침류대枕流臺 일대에서 유희경, 차천로, 신흠, 유몽인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하였다. 이수광은 '비록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산림에 있다'라는 뜻으로 '성시산림成市山林'을 자처하였으며, 음악과 여색, 이욕利慾에 대해서 담담한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선비 학자의 풍모를 보였다.
이수광의 학문 형성에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은 중국 사행使行의 경험이었다. 이수광은 외교력과 문장 능력을 인정받아 28세 때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35세 때 진위사로, 49세 때인 1611년(광해군 3년)에는 주청사로 각각 중국을 다녀왔

다. 세 차례의 사행을 통해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배우는 한편 1611년의 사행 때는 안남安南(베트남), 유구琉球(오키나와), 섬라暹羅(태국) 사신들과 교유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광해군 대에 잠시 관직에서 물러난 이수광은 1623년 인조반정 후 다시 복귀하여 도승지 · 대사간 · 대사헌 · 이조참판 · 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1628년 이조판서로 재직 중에 사망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 장흥리에 있다.

이수광의 학문은 한마디로 '실實'을 강조하는 실학이다. 이수광은 비록 성리학자의 입지를 지켰지만 성리학에서 실용적 · 실천적 요소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리학 이외의 학문이라도 국부의 증진이나 민생의 안정에 유용한 것이라면 모든 학문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개방성을 보인 것이 주목된다.

이수광은 성리학을 이해하면서 실용 · 실천의 측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론 탐구만을 고집하는 학풍이나 출세의 도구로 활용되는 성리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봉유설》 곳곳에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실천에 힘을 기울여야지 구담口談에만 치중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폭넓게 섭렵하는 한편, 비록 이단 사상이라 할지라도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것이 갖는 유용성에 가치를 두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보여준다.

이수광은 성리학의 이념을 버린 방외인적인 사상가는 아니었다. 그가 1625년에 국가의 중흥을 위한 방책으로 올린 상소문에는 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하여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성리학자로서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이수광은 이 상소문에서 왜란으로 무너진 국가 기강과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사족士族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선비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도덕적 정화를 통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신이 명실 공히 관철되는 이상적 유교 정치의 재건을 목표로 하였다. 기묘사화를 평가한 권15의 〈인물부人物部〉의 '소인小人' 항목을 보면 사림파의 사상을 계승한 그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기묘년의 당적黨籍은 자못 자세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적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차라리 기묘년의 제현록諸賢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이수광은 기본적으로 사림파의 사상을 계승한 성리학자였다. 그러나 성리학의 모든 측면을 신념화하지 않고 성리학에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가 하면 성리학 이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 체계의 수용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가 양명학 · 도교 · 불교 등에 대해서도 개방적 입장을 취한 것은 이들 사상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권18의 〈외도부外道部〉 '선문禪門' 항목에는 이단 사상에 대한 이수광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이단異端은 진실로 해롭지만 또한 취해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 도가의 무위無爲는 유위자有爲者의 경계가 되고 그 양생養生은 삶을 버리는 자에게 경계가 된다. 석씨釋氏의 견심見心은 곧 방심放心하는 자의 경계가 되고 그 살생을 경계하는 것은 곧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경계가 된다."

도가나 석가와 같은 이단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활에 유용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수광의 사상은 상당히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은 의약과 점술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한다. 권18의 〈기예부技藝部〉 '방술方術' 항목을 보자.

"의약과 복서卜筮는 함께 일컬어진다. 의원은 죽는 사람을 구하고, 살아 있는 사람도 구제한다. 점쟁이는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데로 나아가게 한다. 그 시초는 모두 성인聖人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본래부터 작은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수광은 〈문장부文章部〉의 시인을 소개하는 항목에서도 사대부 학자뿐만 아니라 방외인 · 승려 · 천인 · 규수閨秀 · 기첩妓妾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시까지 소개하는 신분적 개방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수광과 동시대의 인물인 신흠이나 유몽인, 한백겸 등의 학풍에서도 성리학과 이단 사상을 서로 절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학자들의 존재에서 조선시대 중기의 사상계는 성리학 일변도의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보다 폭넓고 다

양한 사상이 공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제적 감각이 드러난 저술

《지봉유설》의 〈제국부諸國部〉 '불랑기국佛狼機國(포르투갈)' 항목을 보면 "불랑기국은 섬라暹羅의 서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서양의 큰 나라다. 그 나라의 화기火器를 불랑기라고 부르니, 지금 병가兵家에서 쓰고 있다. 또 서양포西洋布라는 베는 지극히 가볍고 가늘기가 매미의 날개와 같다"라는 기록이 있다. 불랑기국은 포르투갈을 지칭하는데, 이수광은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포르투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번국南番國 사람이 만력 계묘년간에 왜인의 배를 따라 우리나라에 표류하여 도착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을 보니 눈썹이 속눈썹과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수염은 염소의 수염과 같았으며, 그가 거느린 사람은 얼굴이 옻칠한 것처럼 검어서 형상이 더욱 추하고 괴상하였다. …… 왜인들은 그곳에 진기한 보물이 많기 때문에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토를 떠난 지 8년 만에 비로소 그 나라에 도착하곤 하였으니, 아마 멀리 떨어진 외딴 나라인 모양이다."

이수광이 이처럼 서양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의 사행 경험이었다. 그는 뛰어난 외교력과 문장 능력을 인정받아 28세 때 성절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35세 때 진위사陳慰使로, 49세 때인 1611년(광해군 3년)에 세 번째로 각각 중국을 다녀왔다.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보고 배운 문화 경험과, 세 차례의 사행을 통해 오늘날의 베트남과 타이 등의 사신들과 교유하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인조실록仁祖實錄》에 나오는 그의 졸기에는 "그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안남 · 유구 · 섬라의 사신들이 이수광의 시문을 구해 보고 그 시를 자

기 나라에 유포시키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이수광이 당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리학을 보다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이단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인 이수광의 사상은 당시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인 외국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봉유설》 권2의 〈제국부諸國部〉 '외국外國'조에는 안남安南(베트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유구琉球(오키나와)·섬라暹羅(Siam, 태국)·진랍眞臘(캄보디아)·방갈라榜葛剌(방글라데시)·석란산錫蘭山(스리랑카)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역사·문화·종교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회회국回回國(아라비아) 및 불랑기국佛浪機國(포르투갈), 남번국南番國(네덜란드), 영길리국永吉利國(영국)·대서국大西國(이탈리아) 등 유럽의 나라들에 대한 정보까지 소개되어 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영역의 정보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특히 포르투갈이나 영국에 대해서는 군함이나 화포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 이수광이 서양의 국방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에 대한 항목에서는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와 《천주실의》를 소개했다는 내용이 주목을 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최초로 천주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이수광 사후에 수많은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났음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것에서 그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은 명나라 사행을 통하여 외국의 문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봉유설》을 통해서 외국의 많은 나라를 소개했던 까닭은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비추어 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 조선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발전해 갈 조선을 상정하고 그 모델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구해 본 것이었다. 그에게서 특징적으로 지적되는 박학풍博學風과 개방적인 사상은 무엇보다 국가의 발전이나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실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개방적인 인식은 북학파를 비롯한 후대의 실학자들의 학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를 실학의 선구자로 공식적으로 위치를 잡은 것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의 국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이익의《성호사설》과 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등의 저술이 바로《지봉유설》의 체제를 발전시킨 것을 감안한다면, 실학자들은 이미 이수광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스승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4.《지봉유설》의 구성과 주요 내용

《지봉유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백과사전으로 손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지봉유설》은 저자의 나이 52세 때인 1614년(광해군 6년)에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저술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자가 오랜 시일에 걸쳐 견문한 사실과 많은 자료들을 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이후《지봉유설》은 1633년(인조 11년) 그의 아들 성구와 민구에 의하여《지봉선생집芝峯先生集》과 함께 출간되었다.《지봉유설》의 서두에는 벗인 김현성金玄成의 서문과 이수광 스스로 지은 서문, 편찬 원칙을 밝힌 3칙의 범례가 수록되어 있다.
범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루고 있는 항목이 3,435조에 달한다는 것, 가능한 전거를 밝혔다는 것과 인용된 서적이 348가家이며 유교 경전에서 최신의 자료까지 활용했다는 것 등이다. 그만큼 자료 조사에 치밀성을 기하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지봉유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천문 · 지리 · 역사 · 정치 · 경제 · 경학 · 시문 · 신형 · 언어 · 잡사 · 기예 · 외도 · 궁실 · 복용 · 식물 · 금충 등 인간이 갖추어야 할 인문적인 교양과 생활사 및 자연에 관한 것 등 거의 모든 내

용이 망라되어 있다. 오늘날과 체제가 조금 다르지만 그야말로 문화 백과사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항목을 설명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수광은 성리학자인 까닭에 〈경서부經書部〉나 〈문장부文章部〉와 같은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리학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항목까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 대목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 우선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신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는 서문에서, "우리 동방의 나라는 예의로써 중국에 알려지고 박아博雅한 선비가 뒤를 이어 나타났으되 전기傳記가 없음이 많고 문헌이 찾을 만한 것이 적으니 어찌 섭섭한 일이 아니랴"라고 하면서, 《지봉유설》의 편찬 동기가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와 뛰어난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본국〉에서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역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서술한 후에 《산해경》 등의 저술을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군자국이라는 점과 동방은 전통적으로 착한 품성을 가진 곳임을 강조한다. '고려'라는 국호에 대해서도 '산고수려山高水麗'의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중국인들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 보기를 원한다는 시가 있으며 금강산의 이름이 온 천하에 떨친 것은 오래다"라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에 자부심을 보였다.

그 밖에도 〈관직부官職部〉 '사신使臣'에서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반열班列은 우리나라가 제일이고 안남과 유구 등 여러 나라의 사신은 모두 감히 우리와 나란히 서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예의지국이며 시서詩書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일로서 중국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부녀의 수절, 천인의 장례와 제사, 맹인의 점치는 재주, 무사의 활 쏘는 재주 등이다." 또

〈어언부語言部〉 '잡설雜說'에서 "우리나라에는 나고 중국에는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경면지鏡面紙, 황모필黃毛筆, 화문석花紋席, 양각삼羊角蔘 등이다"라고 하여 우리의 좋은 전통이나 물산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중국 북경에 갔을 때 안남과 유구의 사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귀국의 붓과 먹은 천하의 제일 좋은 물건이라고 하며,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수광은 실록의 보관을 위한 사고史庫의 설치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권4의 〈관직부官職部〉 '사관史官' 항목에서 실록 보관에 만전을 기한 당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아조我朝의 실록을 평시에 중앙에서는 춘추관春秋館에, 지방에는 충주·성주·전주 등의 각처에 나누어 보관했다. 그런데 임진년의 병화兵火가 있은 뒤에 오직 전주에 감추었던 것만이 화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강화에 옮겨 놓았다가 계묘년(1603년)에 이르러 인서국印書局을 설치하고 여러 부를 베껴 내어서 나누어 강화와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에 수장하였다. 그것은 환란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욱 깊은 것이다."

실제 《선조실록》의 선조 39년(1606년)의 기록에, "실록은 지금 봉심奉審하고 분류하였습니다. 구건舊件은 그대로 강화江華에 보관하고 새로 인출한 3건은 춘추관 및 평안도 묘향산妙香山과 경상도 태백산太白山에 나누어 보관하며, 방본傍本 1건은 바로 초본草本인데 지금 보관할 만한 지고地庫가 없으나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수광이 국가의 중대사인 실록 편찬과 보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는 생활의 곳곳에까지 자신의 견해를 들면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문화 백과사전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식물부食物部〉 '주酒'에서는 "함부로 술을 마시는 사람치고 일찍 죽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술이 사람을 상하는 것이 여색보다 심하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술의 폐단을 언급한다. 그

리고 〈식물부〉 '과果(과일)' 항목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일로 거창의 감, 보은의 대추, 밀양의 밤, 충주의 수박, 회양의 해송자, 안변의 배를 들고 있다. 담배에 대해서는 〈식물부〉의 '약藥' 항목에서, "담바고淡婆姑라는 것은 풀의 이름이다. 또한 이것은 남령초南靈草라고도 한다. 근래에 와서 왜국에서 나는데, 잎을 따서 바싹 말리고 불에 태운 것을 병든 사람이 대통으로 그 연기를 빨았다가 곧 도로 내뿜는다. 그 연기는 콧구멍으로 내뿜는다"라고 기록하여, 이수광 당대에 담배가 처음 들어와 보급되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담배를 '약' 항목에 분류하여, 현재에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해악이 강조되는 것과 자못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금충부禽蟲部〉 '수獸'에서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고양이를 기르는 풍습을 본 경험을 기록한 내용이 있다. "고양이는 다른 동물을 해치는 짐승이다. 그런데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사람의 집에 고양이 기르는 것을 보았다. 모두 꼬리를 잘랐고 그 성질이 매우 온순했다. 병아리와 같이 거처하면서도 조금도 해칠 마음이 없어 보였다." 이어서 "《사문옥설事文玉屑》을 보면 고양이는 중국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서쪽 지방 천축국에서 난다. 쥐가 불경을 뜯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승려들이 이것을 길렀다. 당나라 삼장이 서쪽 땅에 가서 불경을 얻어 올 때 고양이도 가지고 온 것인데 그 씨가 퍼진 것이다"라고 하여, 고양이의 전래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을 인용하고 있다.

권4의 〈관직부〉에서는 상신相臣, 장수將帥, 학사學士, 사관史官, 사신使臣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역대의 중요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재상 중에서는 황희를, 장수 중에는 이순신을 역대의 인물로 거론하고 있는데, 특히 이순신에 대해서는 그를 천거하여 적재에 활용한 유성룡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순신은 무인武人 속에 있어서 이름과 칭찬이 드러나지 않더니, 신묘년에 유서애柳西崖(유성룡)가 정승이 되어서 그를 쓸 만한 인재라고 하여 정읍현감井邑縣監에서 차례를 뛰어넘어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를 제수했다. 드디어 중흥의 제

일 명장이 되었다. 아아, 지금 세상엔들 어찌 또한 이와 같은 인물이 없겠는가. 특히 인재를 알아 추천하는 자가 없을 뿐이다.”

《지봉유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 인물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수광은 당대 제일의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었음에도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던 것이다.

5. 《지봉유설》을 계승한 저술들

《지봉유설》은 조선시대 문화 백과사전의 시초를 이루는 저술로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자신이 살아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부의 증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적 모색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다. 이수광은 순수 성리학을 지향하는 동시대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잡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사회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제기되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학문적 풍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봉유설》의 뒤를 이어 저술된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은 백과사전적인 학풍이 조선시대 후기 학자들에게 상당히 풍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저술에서는 다양한 학문을 두루 탐구하는 박학풍과 함께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한 포용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서양의 학문과 과학기술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점이 발견된다. 이들 저술들은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학풍, 즉 실학이 조선 후기의 사상계에 일정하게 자리를 잡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지봉유설》은 실학과 백과사전적인 학풍이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봉유설》을 통하여 외래문화에 탄력적이면서도 적극적이었던 조선시대 지식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란으로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당쟁으로

정국이 어지러웠던 힘든 현실에서도 우리 문화의 긍지를 찾으려 했던 모습이나, 서양의 진보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그것의 수용에 앞장섰던 모습은 이수광을 조선시대 지성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고 있다.
'서울 속의 산림'을 자처하면서 청빈한 생활을 했지만, 그는 결코 나약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면서 한 줄 한 줄 정리해 나갔던 《지봉유설》은 조선시대 중기 지식인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후대의 학자들은 《지봉유설》을 계승한 저작들을 연이어 출간함으로써 이수광의 선구적인 모습에 보답했다. 결국 《지봉유설》은 실학과 백과사전적인 저술의 선구로 기억되고 있다.

2016.4.

역자 해제

1. 저자

《지봉유설芝峰類說》의 저자 이수광李睟光의 자字는 윤경潤卿, 호號는 지봉芝峰, 시호諡號는 문간文簡,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아들 경녕군敬寧君의 6세손이다.

1563년(명종明宗 18년) 2월에 경기도 장단長湍에서 아버지 이희검李希儉과 어머니 문화文化 유씨柳氏의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다. 뛰어난 재질을 타고났으며 명문名門의 가정지학家庭之學이 있어서 일찍부터 학문이 성숙했다. 13세에 이미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16세에는 진사과進士科의 초시初試에 합격할 수 있었다.

선조宣祖 15년에 20세로서 진사과에 합격했고 선조 18년에는 23세로 대과에 급제하였으니 이때부터 지봉芝峰은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부정자副正字의 벼슬에서 출발하여 그의 사환생활仕宦生活은 약 40여 년간 계속되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벼슬을 거쳤으며 요직要職·청직淸職을 거의 빠짐없이 역임했다. 그중 중요한 것만을 열거하면,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대사성大司成·대사간大司諫·홍문관 부제학副提學·안변부사安邊府使·홍주목사洪州牧使·순천부사順天府使·도승지都承旨·대사헌大司憲·예조참판禮曹參判·형조참판刑曹參判·홍문관 제학提學·공조판서工曹判書·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이다.

선조 23년에는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동同 30년에는 진위사進慰使로, 광해군 3년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전후 3차에 걸쳐 중국 북경에 다녀왔다.

지봉이 벼슬길에 있었던 40여 년간은 실로 다사다난한 때였다. 국제적으로는 선조 25년의 임진왜란, 선조 30년의 정유재란이 있었으며, 인조 5년에는 정묘호란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선조 22년의 기축옥사, 광해군 5년의 계축옥사가 있었고, 동 10년에는 폐모 사건이 있었다. 인조반정이 있었고 인조 2년에

는 이괄의 난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내우외환이 거듭되고 당쟁과 옥사가 소용돌이치는 기간에 처하여 지봉은 당쟁에 치우침이 없고 형옥刑獄에도 휩쓸림이 없었다. 권력에 아첨함이 없고 벼슬을 탐함이 없었다. 한때 벼슬에서 물러나 광해光海의 폭학暴虐에 항의하였으나 인조반정 후에 다시 불리어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는 자신을 잘 보전하면서 인격과 지조에 오점을 남긴 일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중정中正하고 충신忠信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 지봉유설의 저술

지봉의 가장 뛰어난 점을 든다면 역시 그의 학식과 문장일 것이다. 그는 박람강기博覽强記하여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였으며 문장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임진왜란 중에 그는 선조를 호종하여 행조行朝에 있으면서 모든 조정의 문자는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한 소지素地를 가진 위에 세 번이나 중국 북경을 왕래하면서 그곳의 문물을 접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중국에 수입된 외국의 문화에도 눈을 돌렸던 것이다. 또 중국에 온 각국의 사신들과도 교유하였으니 그의 안목은 세계적인 시야를 살피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방대한 저술이 있다. 《지봉집芝峰集》 31권, 부록 3권이 있고, 《승평지昇平志》 2권이 있고 《지봉유설芝峰類說》 20권 10책이 있다.
《지봉유설》은,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만력 42년 7월에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바로 광해군 6년으로 지봉의 52세 때이다. 그러나 이 저서가 한 해나 두 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랜 시일에 걸쳐서 많은 문헌을 보고 견문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적어둔 것이 모이고 쌓여서 방대한 이 저서가 된 것이다. 저자는 범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 유설類說은 모두 3,435조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기억에서 나왔으나, 얻는 대로 곧 적어둔 것이, 편질篇秩이 이미 많아졌으므로 비로소 종류별로 나누었다. 그러니 박잡駁雜함을 면치 못한다.

● 적은 것이 고서古書와 견문見聞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그 출처를 적었다. 그러나 자못 나의 자의自意로 망단妄斷한 것도 있다. 출처를 말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의 망의妄意로 된 것이다.

● 인용한 서적은 육경六經에서부터 근세의 소설 · 제집諸集에 이르기까지 모두 348가家의 서적에 의거했다. 기록한 사람의 성명은 상고上古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2,265인이다. 모두 별권別卷에 기재했다. 그중에 간혹 성姓만 적은 것은 이름을 바로 쓰고 싶지 않아서이다. 또한 숨겨야 할 바가 있기도 한 때문이다.

그러니 육경 이하 348가家의 문헌에서 뽑아 모으고 2,265인의 성명을 들먹였으며, 그 밖에 저자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오랜 시일과 막대한 노력이 바쳐진 것이 이 《지봉유설》이다. 《지봉유설》은 지봉의 사후, 인조 11년(1633)에 이르러 그의 아들 성구聖求와 민구敏求에 의하여 《지봉선생집芝峰先生集》과 함께 출간되었다. 이것을 숭정본崇禎本이라고 한다. 지금은 숭정본을 소장한 이가 극히 드물다. 세상에는 조선고서간행회본朝鮮古書刊行會本, 조선연구회본朝鮮研究會本이 있고, 최근에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가 발행한 영인본이 있다.

3. 지봉유설의 내용

1) 대백과사전적大百科事典的 문헌

《지봉유설》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유별類別이 광범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대백과사전적 문헌이다. 첫 머리에 실린 목차를 참조하기 바란다.

천문 · 지리에서 시작하여 초목 · 곤충에 이르기까지 망라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 이때까지의 우리나라의 모든 고전 중에서 전례가 없는 특이한 문헌이다.

2) 실학사상의 개척

《지봉유설》의 고증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태도는, 지금까지 공리공론을 일삼던 우리나라의 학계에 하나의 획기적인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차의 실사구시 사상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국 《지봉유설》은 우리나라 실학사상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문화에의 자극

《지봉유설》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식을 소개한 것이 많다. 특히 권2의 〈외국〉편에는 유럽의 지도를 소개했다. 영결리국永結利國(영국)을 소개하고 기상과 풍속과 군함과 대포를 소개했다. 불랑기국佛浪機國(포르투갈)을 언급하고 그 나라의 화기火器와 비단을 설명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지리와 산물과 풍속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때까지 중국과 그 주변 몇 개의 나라만이 전세계인 줄 믿고 있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러한 광대한 새 세계가 있고 그나마 선진한 물질문명이 있다는 소식은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경이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식에의 관심과 동경을 자극하였을 것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우리의 새로운 문화에의 정신적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천주실의天主實義》의 소개와 신문화新文化에의 공헌

《천주실의》라는 2권의 책에서 천주교의 교지敎旨 등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소개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 뒤 실학자實學者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천주교는 이 《천주실의》를 통하여 전교傳敎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신문화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적을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최초로 소개한 《지봉유설》의 공적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5) 문학평론文學評論의 건재健在

옛날 우리나라에는 평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지봉유설》의 많은 시문詩文의 평評은 우리나라에 평론이 건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명론탁설名論卓說이 많다. 그 가운데에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새 경지를 개척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매거枚擧하려면 끝이 없다.

6) 《지봉유설》에 저류底流하는 것

끝으로 우리가 범연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지봉유설》에 저류하는 일관된 것이 있음이다. 그것은 애국심이다. 《지봉유설》 자체에는 남에게 애국심을 설교하거나, 자신의 애국심을 피력한 글은 한마디도 없다.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사물을 기술하고 고증하고 해설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불타는 애국심의 혈조血潮가 관류貫流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당시 당론黨論과 옥사獄事와 외우와 내환으로 나라는 퇴폐하고, 공리공론만 일삼는 구태의연한 학문의 타성惰性에 지치고 분개마저 하였을 지봉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그 애국심이 뭉쳐 3,435조의 이 유설類說을 쓰게 하였을 것이다. 마치 싸움에 나갈 장수가 불타는 적개심으로 또박또박 칼을 갈고 창을 닦고 화살을 매만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지봉유설》을 완역하는 일이 필자에게는 벅찬 것이었다. 많은 오역誤譯과 졸역拙譯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며, 독자의 많은 질정叱正이 있기를 바란다.

무학산장舞鶴山莊에서

남만성南晩星

서문

전일에, 지봉공芝峰公이 저술한 유설類說이 있다는 말을 듣고 좇아가 보기를 청하였더니, 다행히 천하게 여기지 않고 전질全帙을 보여주는 후의를 입었다. 두세 번 자세히 읽어보니, 대체로 공께서 처음부터 저술하려는 뜻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고, 곧 놀이 삼아 적어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 천시天時를 살피고 아래로는 인사人事를 바탕으로 하여 뜻과 사리의 정미精微함과, 문장의 잘되고 못된 것을 보이며, 곤충 · 초목의 화육化育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수집하고 남김없이 분석했다.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총명을 개발開發하고 지혜를 더욱 진보하게 하니, 귀머거리에게 3개의 귀가 생기고, 장님이 4개의 눈을 얻는 것과 같아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벽과 마주앉은 지 여러 해만에 백수서래柏樹西來[1]를 깨달은 것 같다. 채중랑蔡中郎의 이서異書[2]가 이것만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매우 탄복함을 이기지 못하며, 한 벌을 베껴서 책상 위에 두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길 뿐이다.

이 글이 반드시 후세에 전해질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니, 터럭만큼이라도 미진한 데가 있게 하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베껴 쓸 즈음에, 간혹 글자가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었으므로 자구字句를 수정하여 여쭈어 보

1 어떤 중이 조주화상趙州和尙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가 대답하기를, "뜰 앞에 있는 잣나무이지"라고 했다. 중이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벽을 마주보며 참선參禪하다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불교의 설화에서 온 말이니, 오랫동안 알려고 애쓰던 의혹이 갑자기 시원스럽게 풀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2 후한後漢의 채옹蔡邕이 오吳나라에 들어가 이상한 서적을 구하여 가지고 돌아와서, 항상 비장秘藏하여 자기 혼자서 보고는 담론談論의 도움으로 삼았다는 고사.

았더니, 공은 즉석에서 하나하나 좋다고 하시고 고치기를 인색해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공이 고루하고 촌스런 사람의 말까지도 채택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볼 수 있다. 책을 빌려 보고 돌려줌에는 마땅히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감히 이 두어 말로써 사례에 대신한다.

김현성金玄成

자서自序

우리나라는 예의의 나라로서 중국에 알려지고, 박학하고 아존雅尊한 선비가 거의 뒤를 이어 나왔건만 전기傳記가 없음이 많고, 문헌에 찾을 만한 것이 적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대체로 역대의 소설小說이나 여러 가지 서적이 있는 것은 고실故實을 듣고 고증함이 많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니, 또한 그 효용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전조前朝의《보한집補閑集》·《역옹패설櫟翁稗說》, 아조我朝의《필원잡기筆苑雜記》·《용재총화慵齋叢話》등 열두어 사람의 것이 있음에 지나지 않으며, 그 동안에 세상에 전하여야 할 사적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어찌 감히 망령되이 책을 저술하는 축에 들기를 흉내 낼 수 있겠는가. 오직 한두 가지씩을 대강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대비하려는 것이 진실로 나의 뜻이다. 일의 신비하고 괴이한 것에 이르러서는 일체 기록하지 않았으되, 옛 사람의 시문詩文에 대하여는 간혹 나의 좁은 소견을 적어 두었으니 본래부터 매우 외람되고 지나친 일임을 안다. 그러나 감히 나의 의견이 옳다고 하지는 않는다. 오직 안식眼識이 높은 이가 가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광해군光海君 5년 7월 중순
이수광李睟光

원문의 범례

1. 적어둔 글은 모두 3,435조목으로, 처음에는 나의 기억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그러나 편질篇帙이 이미 매우 많아졌으므로 비로소 분류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혹 뒤섞이어 정제整齊되지 못하였음을 면치 못했다.

2. 적어둔 바는 고서古書에서 나왔거나 문견聞見에서 온 것은 반드시 그 출처를 써놓았다. 그리고 꽤 많은 것이 나의 뜻으로 망단妄斷되었으니 그 출처를 말하지 않은 것은 곧 나의 망령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3. 인용한 서적은 육경六經 이하 근세의 소설과 여러 문집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348가家의 글을 참고하였으며, 기록한 사람의 성명은 상고上古에서 본조本朝까지 2,265인인데, 모두 별권別卷에 기재했다. 그중에 간혹 성姓만을 적은 것은, 그 이름을 바로 부르고 싶지 않거나 또는 숨기는 바가 있기도 한 때문이다.



올재 후원하러 가기

1. 천문부天文部

1-1 천天

《설부說郛》[1]에서 말했다. "맑은 기운이 아직 상승하지 아니하고, 탁한 기운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으며, 유신游神[2]은 아직 신령하지 아니하고, 오색五色은 아직 나눠지지 않았을 때에, 가운데에 그것(物)이 있었으니, 드러나지도 않고 은미隱微하나 성性[3]이 존재했다. 이것을 혼돈混沌이라고 말한다. 태시太始[4]의 수數는 하나인데, 그 하나를 태극太極이라고 한다. 태극이라는 것은 천지의 어머니이다. 태역太易[5]의 수는 둘인데, 그 둘을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형체이다. 태소太素[6]의 수는 셋인데, 그 셋을 삼재三才[7]라고 한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갖춤이다. 이것이 즉 노자老子가 말한 바,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았다고 한 것이다."

1 책 이름. 명나라의 도종의陶宗儀가 편찬한 것으로, 명나라 이전의 소설사지小說史志 등을 기술하고 있다. 모두 100권이며 뒤에 욱문박郁文博과 청나라의 도정陶珽이 증보增補했다.

2 여기에서는 부유浮游하는 우주의 신령한 기운을 가리켜 말한 것.

3 여기에서는 본질本質 · 본성本性을 지칭한 말.

4 천지天地가 비롯할 무렵. 형태形態의 시초.

5 우주가 혼성混成되기 이전. 아직 기氣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有太易, 有太初, 有太始, 有太素, 太易者 未見氣也, 太初者 氣之始也, 太始者 形之始也, 太素者 質之始也" 천지의 변동. "太易者 天地之變也"

6 물질物質의 시초. 천지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때, 즉 개벽 이전. 이상의 태시太始·태역太易·태소太素를 《열자列子》의 〈천서天瑞〉에서나 공영달孔穎達의 《주역周易》〈정의서正義序〉에서는 태역太易 → 태초太初 → 태시太始 → 태소太素의 순위로 설명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책에서는 태시 → 태역 → 태소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7 하늘 · 땅 · 사람을 일컫는 말.

왕세정王世貞이 《태극도설太極圖說》[8]을 논평하여 말하기를, "《태극도설》에 '무극은 태극이다(無極而太極)'라고 하였는데 나는 감히 그것을 좇지 못하겠다. '움직여서 양陽을 낳고, 정지하여 음陰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나는 감히 그 '낳는다'는 설을 좇지 못하겠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감주弇州(왕세정의 호)의 이 말은 또한 자기로서의 견해가 있는 것이나, 다만 주돈이周敦頤의 말한 뜻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패사稗史》[9]에 말하기를, "하늘은 하루 운전運轉하여 한 번 만난다. 그러니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미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한계 밖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비록 다시 백천만억百千萬億 개의 천지天地가 있더라도 끝이 없어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나는 6, 7세 때에 이미 이 일을 근심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성현聖賢도 또한 이것에 대하여는 궁구窮究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의 크기는 밖이 없고, 그것의 작기는 안이 없다"라고 한 것이나, 또 "무극은 태극이다"라고 한 것은 다만 이치로서 말하였을 뿐이고, 아마 이 의문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장자莊子는, "육합六合[10]의 밖을 성인聖人은 알고도 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사유四維[11]의 상하上下는 생각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8 책 이름. 송宋나라 주돈이周敦頤가 태극도太極圖라는 도형을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글이다. 즉 우주의 근본을 도해하여 만물의 발전의 이유를 설명한 것. 천지만물의 본원을 태극이라 하고, 여기에서 음양陰陽 이기二氣가 생기고, 이기가 나뉘어 목木 · 화火 · 토土 · 금金 · 수水의 오행五行이 되는데, 오행의 정精이 응합凝合하여 인류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도설은 겨우 228자에 지나지 않지만, 주자朱子는 이것을 《역경易經》·《중용中庸》과 함께 유학儒學의 심오를 발양發揚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9 패관稗官이 소설과 같은 형식으로 꾸며서 쓴 역사 기록, 즉 야사野史와 같은 것.

10 천지天地와 사방四方, 곧 천지와 동서남북東西南北을 이름.

11 건서북乾西北·곤서남坤西南·간동북艮東北·손동남방巽東南方의 네 방위를 말한 것.

《열자列子》에 말하기를, "온종일 하늘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정지한다"라고 했다. 장담張湛이 주해하기를, "땅에서부터 그 이상은 다 하늘이다"라고 했으니 이 말이 옳다. 대개 하늘이라는 것은 실지의 형체가 없으니, 땅 위의 공허한 곳은 곧 하늘인 것이다.

《사기史記》의 주에 말하기를 소자邵子는, "천지가 처음 있던 때부터 마지막 없어질 때까지를 1원元이라고 했고, 1원에는 12회會(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가 있으며, 1회는 1만 800년씩이다. 자회子會에 하늘이 생기고, 축회丑會에 땅이 생기며, 인회寅會에 사람이 생긴다. 술회戌會에 이르면 만물은 폐쇄되고 하늘은 사라지며, 해회亥會가 되면 하늘도 땅도 소멸한다. 자회子會에 이르면 또다시 하늘이 생기고 무궁하게 순환한다. 인회寅會로부터 오회午會에 이르기까지는 4만 5,600년에 해당하는 바, 바로 당요唐堯가 갑진甲辰년에 일어난 때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으로써 계산한다면, 인회寅會에서부터 묘회卯會·진회辰會·사회巳會까지는 합해서 4만 3,200년이 되며 나머지가 2,400년이 되니, 이것이 오회午會에 들어간 때에 당요唐堯의 세상이 된 것이다. 당요가 일어난 갑진년에서 명나라 만력萬曆 계축년까지는 또 4,000년이 되니 합계가 6,400년이 된다. 지금으로부터 오회의 종말까지는 4,400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미 오회의 반은 지난 것이다. 그래서 양기는 점점 쇠하고 음기가 저절로 승세勝勢하는 것일까.

《속박물지續博物志》에 말하기를, "사방의 안에는 총계 38만 7,000리의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하늘의 중앙, 상하上下의 각 절반의 위치에 있는 19만 3,500리 되는 땅은 가운데에 있는 땅이다. 이것이 땅과 하늘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이다. 또 《역상집曆象集》에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17만 8,500리"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편에서 말한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를 올라간다"고 한 것은 하늘 거리의 반

쯤을 가리켜 말한 것이 된다.

《오학편吾學編》에 말했다. "천문天文의 7요曜 3원垣 28수宿(별)는 중대한 것이다. 7요曜(해 · 달 · 일륜日輪 · 월교月較 · 일도日道 · 월도月道 · 오성五星)를 말한다면 해는 대단히 밝다. 이것은 양陽의 정광精光으로서 군주君主의 상징이다. 달은 밤에 밝다. 이것은 음陰의 정광으로서 후비后妃의 상징이다. 해바퀴(日輪)는 크고 달의 둘레(月較)는 작다. 해가 운행하는 길(日道)은 하늘에 가까워서 위에 있고, 달이 운행하는 길(月道)은 사람에게 가까워서 아래에 있다. 5성星은 수水 · 화火 · 금金 · 목木 · 토土로서 인간이 날마다 쓰는 5부府[12]의 정광이다. 3원垣은 천시天市 · 태미太微 · 자미紫微를 말한다. 천시는 명당明堂[13]의 위치, 태미는 조정朝廷의 위치, 자미는 궁궐의 위치이다. 28수宿(별)는 나뉘어 사방에 벌여 있어서 각각 자기의 분야를 지켜 자미궁紫微宮에 있는 상제上帝에게 봉사奉仕한다……"라고 했다.

내가 일찍이 유럽 사람 풍보보馮寶寶가 그린 《천형도天形圖》를 보니 거기에 말하기를, "하늘엔 아홉 층이 있는데, 맨 위의 것을 별의 하늘(星行天), 그 다음 것을 태양의 하늘(日行天),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달의 하늘(月行天)이라 한다"고 했다. 그 설이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천문유초天文類抄》에서 말하기를, "천하天河(하늘의 하수, 즉 은하수의 다른 이름)은 천한天漢이다. 대체로 하늘의 한 생성 현상으로서 엉기어 커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은 이것으로 동서남북의 옷깃과 띠와 같은 한계限界를 삼는다. 하늘 아래의 하수河水 · 한수漢水의 근원은 대체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또 말

12 명당明堂과 같다.

13 천자가 정사政事를 행하거나 제후諸侯를 인견引見하는 당堂. 고대에는 상제上帝를 제사하고 선조를 봉사奉祀하며, 제후의 조회를 받고 늙은이를 기르고, 어진 이를 존대하는 등 국가의 큰 예절과 제사는 모두 명당에서 행했다. 명당에는 문조文祖 · 신두神斗 · 현기顯紀 · 현구玄矩 · 영부靈府의 오실五室이 있기 때문에 오부五府라고도 한다. 하夏나라에서는 세실世室, 은殷나라에서는 중옥重屋, 주周나라에서는 명당明堂, 또는 청묘淸廟라고 불렀다.

하기를, "만물의 정기精氣가 위로 올라가 별이 되었고, 하수 · 한수의 정기가 올라가서 천한이 되었다"고도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1-2 일월日月

《열자列子》에 말하기를, "공자孔子는 어린아이를 보고 해의 멀고 가까운 것을 분별했다"라고 했다. 송宋나라의 주일용周日用이 말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있으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기운이 바로 내리쬐기 때문이다." 비유하여 말하면, 불기운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가 양쪽 가에 있을 때의 이 이치로 미루어 보아 그 뜨겁고 서늘함은 모두 밝혀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해가 처음 나올 때는 가깝고 하늘 가운데에 오면 멀어진다. 하늘은 가운데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달은 본래 빛이 없는데 햇빛을 받아서 밝은 것이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짐이 있기 때문에 광선을 받는 것이 더하고 덜함이 있다. 오직 달과 태양이 정면으로 마주 대하면 빛은 가장 가득 찬다. 그런 까닭에 초하루에서 보름에 이르기까지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에 이른다. 그 때문에 빛이 점점 더 생겨서 만월滿月이 된다. 만월을 극한極限으로 하여 보름에서부터 초하루에 이르기까지는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에 이른다. 그 때문에 빛이 점점 줄어져서 허虛의 극도에 이른다. 이것이 천지 음양의 소장消長과 차고 비는 이치인 것이다"라고 했다. 또 소자邵子가 말하기를, "달의 본체는 검은 것인데, 태양광선을 받아서 희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달이 개기식皆旣蝕을 하면 그 빛이 어둡고 검다. 이것으로 달이 검은 것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말하기를, "달 가운데에 무엇인가 어른거리는 것이 있다. 그

것은 바로 산과 하수河水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그 빈 곳은 바닷물의 그림자이다"라고 했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말하기를, "달 가운데의 계수나무 같은 것은 땅의 그림자이고, 빈 곳은 물의 그림자이다"라고 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그것은 지구의 그림자가 아니고 지형地形이 가려져 막힌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달의 본질은 본래 검은 것이니 비록 외면이 일광日光의 조사照射를 받더라도 거기에 검은 무리가 있는 것은 대체로 그 속의 검은 본질 때문인 것이다.

《태현경太玄經》에서 말하기를, "해와 달은 암컷 · 수컷의 차례와 같은 것으로, 해는 크고 달은 작은 것이다"라고 했다.
《소문素問》에는 "달이 죽고 산다는 것은 달의 이지러짐과 가득 차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초하루를 사백死魄이라 하고 16일을 생백生魄이라고 한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초하루 이후에는 밝음이 살아 나오고 백魄이 죽어가며, 보름 뒤에는 밝음이 죽어가고 백魄이 살아난다"라고 했으며, 《예기禮記》에 "해는 동쪽에서 나오고 달은 서쪽에서 생긴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소동파蘇東坡가 말하기를, "옥천자玉川子의 월식月蝕 때는, 달을 먹는 것은 달 가운데 있는 두꺼비라고 했고, 매성유梅聖俞의 일식日蝕 때는, 해를 먹는 것은 발이 3개 있는 까마귀라고 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원래 근거 없는 세상의 전하는 말이다. 그러나 상고하여 보니 《전국책戰國策》에 말하기를, "해와 달이 밖으로 광휘光輝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것을 좀먹는 것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회남자淮南子》에는 "달이 천하를 비추지만 첨저詹諸[14]에게 먹힌다"고 하고, 그 주註에 "첨저는 달 가운데 있는 두꺼비다"라고 했다. 그러니 그 설도 또한 오래된 것이다.

14 달 속에 산다는 두꺼비. 변전變轉하여 달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환우잡기寰宇雜記》에 말했다. “7정政은 월月 · 일日 · 목성木星 · 화성火星 · 토성土星 · 금성金星 · 수성水星을 말하고, 4요曜[15]는 나후羅睺 · 계도計都 · 자기紫氣 · 월패月孛를 말한다. 사요와 칠정을 통틀어 11요曜가 된다. 남두육성南斗六星은 천부天府 · 천상天相 · 천동天同 · 천량天梁 · 천추天樞 · 천기성天機星을 말한 것이고, 북두칠성北斗七星은 탐랑貪狼 · 거문巨門 · 녹존祿存 · 문곡文曲 · 염정廉貞 · 무곡武曲 · 파군성破軍星을 일컫는다. 12시時라는 것은 반야半夜를 자시子時라고 하고, 닭이 울 때를 축시丑時, 이른 아침을 인시寅時, 해 돋을 때를 묘시卯時, 아침밥 먹을 때를 진시辰時, 우중禺中(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을 사시巳時, 해가 중천中天에 온 때를 오시午時, 햇빛이 아직 저물지 않은 때를 신시申時, 해가 지는 때를 유시酉時, 황혼을 무시戌時, 인정人定을 해시亥時라고 한다. 지금, 세상에서 초경初更에 종이 울리는 것을 인정人定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때문인 것이다. 《회남자》를 참고해 보니, “해가 몽곡蒙谷[16]에 빠지는 것을 정혼定昏[17]이라고 한다”고 했다.

도경道經에 말하기를, “해의 성姓은 장씨張氏, 이름은 표表, 자字는 장사長史라고 하고, 달의 성은 문씨文氏, 이름은 중中, 자는 자광子光이라고 한다. 또 해 가운데에는 청제靑帝 · 적제赤帝 · 백제白帝 · 흑제黑帝 · 황제黃帝가 있고, 달 가운데에는 청제부인靑帝夫人 · 적제부인赤帝夫人 · 백제부인白帝夫人 · 흑제부인黑帝夫人 · 황제부인黃帝夫人이 있다. 오악五嶽[18]과 사해四海와 오성五星[19]에 이르기

15 성명가星命家들이 말하는 4개의 별. 즉 나후羅睺 · 계도計都 · 자기紫氣 · 월패月孛이다.

16 북방에 있는 산의 이름. 해가 여기에 오면 정혼定昏이라고 한다.

17 일묘日暮. 해가 몽곡蒙谷에 이른 때를 정혼이라고 한다. “日至于 虞淵 是謂黃昏 日至於蒙谷 是謂黃昏”《회남자》

18 중국에 있는 5개의 높은 산. 즉 태산동악泰山東嶽, 산동성山東省 · 화산서악華山西嶽, 섬서성陝西省 · 형산남악衡山南嶽, 호남성湖南省 · 항산북악恒山北嶽, 산서성山西省 · 숭산중악嵩山中嶽, 직예성直隸省.

19 오행五行의 정精이라고 일컫는 다섯 별. 곧 목성세성木星歲星 · 화성형혹성火星熒惑星 · 금성태백성金星太白星 · 수성진성水星辰星 · 토성전성土星塡星.

까지 다 성명姓名과 자字가 있다"고 했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보면, "28수宿에 모두 성姓이 있다. 또 태산泰山의 성은 원씨圓氏, 이름은 상룡常龍이고, 형산衡山의 성은 단씨丹氏, 이름은 영치靈峙이며, 화산華山의 성은 호씨浩氏, 이름은 울수鬱狩, 항산恒山의 성은 징씨澄氏, 이름은 징정澄渟, 숭산嵩山의 성은 수씨壽氏, 이름은 일군逸群이니, 이렇게 부르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으며, 또 사해四海의 해신海神도 성명이 있다"라고 했다. 그 설이 허탄함이 많다. 그런 까닭에 모두 다 기록하지 않는다.

1-3 성星

5성星으로 목성木星을 세성歲星, 화성火星을 형혹熒惑, 토성土星을 전성塡星, 그리고 금성金星을 태백太白, 수성水星을 진성辰星이라고 한다.

12진辰으로 말하자면, 자子의 성좌星座를 현효玄枵라 하고 천원天黿이라고도 하는데, 제齊나라의 분야分野에 해당한다. 축丑의 성좌星座를 성기星紀라고 하는데 오吳·월越의 분야에 해당한다. 인寅의 성좌를 석목析木이라고 하는데, 연燕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묘卯의 성좌를 대화大火라 하는데 송宋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진辰의 성좌를 수성壽星이라고 하는데, 정鄭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사巳의 성좌를 순미鶉尾라고 하는데 위衛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오午의 성좌를 순화鶉火라고 하는데 주周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미未의 성좌를 순수鶉首라고 하는데 진秦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신申의 성좌를 실침實沉이라고 하는데 진晉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유酉의 성좌를 대량大梁이라고 하는데 조趙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술戌의 성좌를 강루降婁라고 하는데, 노魯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해亥의 성좌를 추자娵訾라 하고, 다른 이름으로 시위豕韋라고도 하는데 위衛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

또 28수宿 가운데서 두성斗星을 남두南斗라 하고, 우성牛星을 견우牽牛라고 하

며, 여성女星을 수녀須女 또는 무녀婺女라 하고, 실성室星을 영실營室이라고 하며, 벽성壁星을 동벽東壁이라 하고, 자성觜星을 자휴觜觿, 참성參星을 참벌參伐, 정성井星을 동정東井, 귀성鬼星을 여귀輿鬼라고 부른다. 또 28수를 경經으로 하고, 오성五星을 위緯로 삼는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세상에서 28수宿를 12주州의 분야로 배정配定했고, 겨우 필성畢星·묘성昴星 두 별만으로 이역異域의 여러 나라를 관할하게 하였으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12주의 안은 동서남북이 12만 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이 덮고 있는 것은 넓은데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우성牛星·여성女星의 아래에 있는 12국國뿐이다"라고 했다.
우성牛星과 여성女星은 동남에 있다. 그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남섬부주南贍部州라고 한다. 이 설이 비슷한 것 같다. 참고하여 보니 부주部州의 주州는 주洲로 쓰기도 하는데, 대체로 중국도 또한 바다로 둘려진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별을 배정配定한 지명은 각성角星·항성亢星·거성氐星은 정鄭나라의 연주兗州, 방성房星·심성心星은 송宋나라의 예주豫州, 미성尾星·기성箕星은 연燕나라의 유주幽州, 두성斗星·우성牛星·여성女星은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양주楊州에, 허성虛星·위성危星은 제齊나라의 청주靑州에, 실성室星·벽성壁星은 위衛나라의 병주幷州에, 규성奎星·누성婁星은 노魯나라의 서주徐州에, 묘성昴星·필성畢星은 조趙나라의 기주冀州에, 자성觜星·참성參星은 위魏나라의 익주益州에, 정성井星·귀성鬼星은 진秦나라의 옹주雍州에, 유성柳星·성성星星·장성張星은 주周나라의 삼보三輔에, 익성翼星·진성軫星은 초楚나라의 형주荊州에 속한다. 이것이 28수宿의 분야이다.

참고하여 보니, 항성亢星의 항亢은 강岡과 같이 발음하며 평성平聲이다. 저氐는 상성上聲으로 읽는다. 자觜는 자訾로 발음하며 평성平聲이니, 고항高亢의 항亢이

나 저강氐羌의 저氐나, 구취口觜의 취觜와는 같지 않다.

《설부說郛》에 말하기를, “양정陽精(양기)의 정수精粹가 해가 되고, 해가 나뉘어서 별이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 글자가 일日 밑에 생生을 써서 별 성星 자로 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북두칠성은, 첫째 것을 천추天樞, 둘째 것을 선璇, 셋째 것을 기璣, 넷째 것을 권權, 다섯째 것을 옥형玉衡, 여섯째 것을 개양開陽, 일곱째 것을 요광瑤光이라고 하며, 첫째 것에서 넷째 것까지를 괴魁라 하고, 다섯째 것에서 일곱째 것까지를 표杓(자루)라고 한다”고 했다.

청구성靑丘星의 이름을 상고하여 보니, 《천문유초天文類抄》에 말하기를, “청구靑丘는 동방東方 삼한三韓의 나라를 관할한다”고 했다. 이것은 땅 이름을 가지고 별 이름을 지은 것이다. 또 조부造父니, 백악伯樂이니, 왕량王良이니, 천사天駟니 하는 것은 모두 별의 이름으로서, 이들은 모두 천자天子의 말을 부리는 관원이었는데, 사람 이름을 가지고 별 이름을 지은 것이다.

《패해稗海》에 말했다. 28수宿의 숙宿 자는 수秀라고 발음한다. 만약 그 뜻을 고구考究한다면 마땅히 숙宿의 본 뜻대로 해야 할 것이다. 숙宿이라는 것은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이 유숙하는 곳이다. 그러나 한창려韓昌黎의 〈남산시南山詩〉에는 “아득히 멀리 달은 수宿를 지나간다(落落月經宿)”라고 하여 수宿의 발음을 또한 거성去聲인 ‘수’로 쓰고 있다.

유자후柳子厚의 《걸교문乞巧文》에 말하기를, “천녀天女의 손녀孫女가 하고河鼓에게 시집가서 직녀織女라고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천문지天文志》에, “직녀성은 천녀天女이다”라고 했다. 지금 유자후는 직녀성을 천녀의 손녀라고 말하였으니 따로 근거한 곳이 있는 것 같다. 또 《이아爾雅》에서는 “견우성牽牛

星은 이것을 하고河鼓라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천문지》에서는, “하고성河鼓星은 견우의 서쪽에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하고河鼓와 견우牽牛는 같은 별이 아닌 것이다.

선조宣祖 임진년壬辰年은 세성歲星이 우리나라의 분야를 지킨다는 해다. 그런데 왜적이 침구해 오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가가 비록 상란喪亂·패잔敗殘하였으나 마침내는 반드시 일어나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더니 그 말이 과연 맞았다.

1-4 풍운風雲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울리지 못하는 것은 40리, 큰 가지를 꺾는 것은 400리, 큰 나무를 꺾는 것은 5,000리에 미친다. 사흘 낮 사흘 밤을 불면 온 천하에 모두 바람이 부는 것이고, 이틀 낮 이틀 밤을 불면 천하의 반에 바람이 부는 것이며, 하루 낮 하룻밤을 불면 그 바람은 만 리를 간다”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건대, 다만 바람뿐이 아니라 비도 또한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봄바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여름바람은 공중을 옆으로 불어가고, 가을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겨울바람은 땅에 붙어서 간다”라고 했다. 내가 바다로 다니는 사람에게 들으니 이 말이 진실로 옳다고 했다.

《감주고弇州稿》에 말하기를, “왜인의 선박이 오는 일은 항상 청명淸明 이후에 있다. 이보다 앞서면 바람과 날씨의 변화가 많고, 청명 이후가 되면 바야흐로

동북풍이 많으며 또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 5월을 지나면 바람이 남쪽에서 오기 때문에 행선行船하기에 불리하다. 중양重陽 이후의 바람은 또한 동북풍이 있고, 10월을 지나면 바람은 서쪽에서 온다. 그런 까닭에 바다를 방비하는 3 · 4 · 5월을 대신大汛으로 하고, 9 · 10월을 소신小汛으로 한다"라고 했다. 들으니 조완벽趙完璧도 또한 말하기를, "큰 바다 가운데서 배는 바람의 힘에 편승해 간다. 그런 까닭에 매년 3 · 4 · 5월에는 갈 수 있으나, 6월 이후에는 행선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례周禮》에 "보장씨保章氏는 구름의 5가지 빛으로 길흉과 수해水害 · 한재旱災와 풍년 들고 흉년 들 징조를 미리 알았다"라고 했고, 그 주註에 말하기를, "춘분春分과 추분秋分, 그리고 하지夏至와 동지冬至에 구름의 기운을 관찰하여 푸른 기운이 있으면 그해는 병충해가 있고, 흰 기운이 있으면 상喪이 있고, 붉으면 병환과 흉년의 징조이고, 검으면 수해水害의 징조, 누르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했다. 이른바, "남쪽 들판의 누른 구름으로 풍년이 들 것을 안다(南畝黃雲知歲熟)"라는 것이 이것이다. 다만 왕개보王介甫의 시詩에 "누른 구름을 다 베어버리니 벼가 항상 푸르구나"라고 한 것은, 보리가 누렇게 익은 것을 가리켜 황운黃雲이라고 한 것이다.

1-5 우설雨雪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상순上旬의 달이 바뀌는 날을 초하루라고 한다. 초하루에 비가 오면 그달 안에 비가 많이 온다. 25일에 비가 오면 오래도록 비가 온다. 또 4월 초하루에 비가 오면 가문다"라고 했다. 그러나 모두 맞지는 않는다.

옛말에, 봄의 갑자일甲子日에 비가 오면 1,000리가 적토赤土가 되고, 여름 갑자일에 비가 오면 배를 타고 저자에 들어가며, 가을 갑자일에 비가 오면 벼 이삭

에 싹이 나고, 겨울 갑자일에 비가 오면 소와 양이 얼어 죽는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갑신일甲申日에 비가 오면 쌀이 귀하고, 임자일壬子日에 비가 오면 오래도록 흐리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갑신일에 비가 오면 오히려 좋으나 을유일乙酉日에 비가 오면 사람을 죽일까 두렵다"라고도 했다. 두시杜詩에, "어둡고 어두운 갑자일의 비, 이미 입춘立春을 지났는데〔冥冥甲子雨 已度立春時〕"라고 했다. 대체로 이미 입춘이 지났으므로 봄 갑자일의 비를 근심한 것이다.

《소문素問》에 말하기를, "땅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하늘 기운이 내려와서 비가 된다"라고 하고, 주註에 "음陰이 엉기어 위에서 맺으면 모여서 구름을 이루고, 양陽이 흩어져 아래로 흐르면 쏟아져 비가 된다. 비는 구름을 좇아 화육化育을 베풀고, 구름은 기氣에 의지하여 교합交合한다……"라고 했다. 세상에서는 남녀가 교합하는 것을 운우雲雨라고 하니, 대체로 이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무산신녀巫山神女의 조운모우朝雲暮雨의 고사故事[20]에 관련시켜 옛 사람들은 운우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러나 이것은 신녀가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비가 된다고 한 것을 말한 것이고, 남녀교합男女交合의 뜻을 가진 말은 아니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섣달에 눈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들고, 봄에 눈이 오면 모질게 보리의 흉년이 드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이것으로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라고 했다. 옛말에 "납일臘日 전에 세 번 눈이 온다"라는 것과 한시韓詩에서 말하는 "쌓인 눈이 풍년을 징험한다"라고 한 것들은 모두 겨울눈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매성유梅聖俞의 봄눈을 축하하는 시詩가 있어서, "삼공三公은 꾸

20 옛날 초楚나라의 회왕懷王이 고당高唐에 유람하다가 낮잠을 자는데 꿈에 무산巫山의 신녀神女와 만나 드디어 교정交情했다. 떠날 때에 말하기를, "첩妾은 무산의 양지 쪽 고구高丘의 험준한 곳에 있어서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저 양대陽臺의 아래에서 산답니다"라고 했다. 초왕이 아침저녁으로 살펴보니 그러한 구름이 있었으므로 조운묘朝雲廟를 세워 제사하게 했다는 고사.

중을 면하고 백성들은 기뻐하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나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것이나 가뭄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기설제祈雪祭(눈 오기를 비는 제사)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퇴계李退溪나 이율곡李栗谷의 문집에는 기설제문祈雪祭文이 있다. 들으니 중국에서도 또한 기설제를 지낸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만력년간萬曆年間에 장거정張居正의 하설표賀雪表(눈 온 것을 축하하는 표문)가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김이 이와 같다. 옛말에 "겨울에 눈이 오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질병이 많다"고 했다. 전염병의 기운이 사라지고, 땅이 윤택하게 되며, 해충이 없어지고 모맥牟麥을 잘되게 해주는 것은 모두 눈이 많이 쌓인 공효功效인 것이다. 또 《이몽양집李夢陽集》에는 비가 내린 것을 감사하는 제문이 있다. 지금은 날씨가 개기를 빌거나 비 오기를 빌어서 소원대로 되었을 때에도 보사報祀하는 제사가 없으니, 또한 궐전闕典[21]이라고 하겠다.

1-6 홍虹

장태악張太嶽의 글에 말하기를, "무지개 홍虹, 무지개 체蝃, 무지개 동蝀 자를 다 벌레 충虫 변에 쓰는 것을 보니, 무지개는 아마 무슨 동물이 있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유자儒者들이 음양陰陽의 사특하고 음란한 기운이 무지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억설이다"라고 했다.

심존중沈存中은 필담筆談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무지개는 도랑물을 마실 줄 안다고 한다. 진실로 그런 것 같다. 일찍이 비가 갠 뒤에 무지개를 보니 양쪽 머리가 다 도랑물(澗) 속에 드리워 있었다. 또 한 늙은 중이 말하기를, 산중에서, 비가 온 뒤에 큰 두꺼비 같은 한 생물이 배를 두드려 기氣를

21 완비되지 못한 의식儀式. 규정 또는 문서 등에 빠진 데가 있는 것.

토하고 드디어 무지개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사로 기를 토하여 무지개를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 아니다. 중이 본 것은 도마뱀(蜥蜴)일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무지개가 도랑물을 마실 줄 안다는 것은 무지개가 능히 물을 마실 줄 안다는 것이 아니다. 아마 물속에 무슨 생물이 있어서 기氣를 뿜어서 형상을 이루는 것이 신기루蜃氣樓[22]나 해시海市[23] 따위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상고하여 보니, 무지개 예霓 자를 《이아爾雅》에는 예蜺로 쓰고 있으니 암무지개라는 뜻이다.

1-7 뇌雷

장태악張太嶽이 말하기를, 우뢰(雷)라는 글자를 옛날 글자로는 우雨 밑에 회回 자를 써서 용과 뱀이 구불구불 서린 형상으로 했다. 《역경易經》에, "우뢰는 지중地中에 있다. 우뢰는 땅에서 나와서 떨친다"라고 한 글이 있는데, "있다"고 말하고, "나와서"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무슨 물物이 있어서일 것이니, 아마 교룡蛟龍의 등류等類인 순양純陽의 지정至精한 것을 지닌 자가 양기陽氣의 출입에 따라 칩거蟄居에서 일어나는 것일 것이다. 오행五行[24]에 오직 화火의 성질은 혹독하고 포악하다. 가령 총포화약銃砲火藥 같은 것은 일발一發에 쇠나 돌들이 모두 타서 파열破裂한다. 우뢰는 화火의 정기精氣를 얻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기氣가 돌에 부딪치면 파열하고, 나무에 닿으면 부러지고, 가옥을 치면 파훼破毁된다. 그 기운이 생물에 닿으면 당장에 죽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이나

22 바다 위나 사막에서 기온의 이상한 분포 때문에 광선이 굴곡屈曲하여 먼 데 있는 물체가 거꾸로 비쳐 보이는 현상.

23 광선의 굴곡에 의하여 바다 위에 시가市街나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는 일.

24 우주간宇宙間에 쉬지 않고 운행하는 다섯 원소. 곧 금金 · 목木 · 화火 · 수水 · 토土. 이 오행五行의 상생상극相生相剋에 의하여 만물이 소장消長 · 생존한다 함.

가축이 벼락에 죽은 것은 다 몸이 타서 무늬가 부전符篆[25]과 같다. 이것은 화기火氣가 태운 것이다. 그것은 죽은 자가 우연히 벼락과 서로 만난 것이지, 벼락이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 간혹 그것에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부상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은, 그 화독火毒이 몸에 닿지 않았던 때문이다. 이것을 미루어 말한다면, 벼락이라는 것은 음양陰陽이 서로 치는 기운을 이룬 것이고, 죄 있는 자를 벌주어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억설인 것이다"라고 했다.

주일용周日用이 말하기를, "벼락 맞은 나뭇가지로 새의 그림자를 치면 그 새가 당장에 땅에 떨어진다"라고 했다. 이것은 사수射手가 사람의 그림자를 쏘는 것과 그 이치가 같을 것이다.

1-8 화火

《불서佛書》에 말하기를 "용龍의 불이 물을 얻으면 기세 좋게 타오르고, 사람의 불은 물을 얻으면 꺼진다"라고 했다. 《심괄필담沈括筆談》에는 말하기를, "벼락불에 쇠나 돌도 다 녹아버리지만 풀과 나무는 그슬리거나 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서경잡기西京雜記》에 보면 "한漢나라 혜제惠帝 7년에 남산南山에 벼락이 떨어져 숲과 나무가 모두 끝까지 불타버렸다"라고 했다. 《장자莊子》에 말한 바, "물속에 불이 있어서 드디어 큰 괴목槐木을 불태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포박자抱朴子》에 말하기를, "물의 성질은 순수하게 차가운 것인데 온곡溫谷의 끓는 샘이 있고, 불의 성질은 순수하게 치열熾熱한 것인데 소구蕭丘의 차가운 불꽃이 있다"라고 했다. 낙빈왕駱賓王의 글에 말하기를, "소구의 불이 점점 뜨거워진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남해의 소구 위에 저절로 생긴 불이 있어서 봄에 일어나 가을에 꺼진다"라고 했고, 또 《습유기拾遺記》에는 말하기를,

25 전자篆字로 쓴 주문呪文.

"해서海西의 천옥산泉玉山 동혈洞穴 속에 비밀한 물이 있으니 그 빛이 불과 같아서 이름을 음화陰火라고 했다"고 하였다. 조당曹唐의 시詩에 "바닷물이 불어나고 조수潮水가 생기니 음화가 꺼진다漲海潮生陰火滅"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2. 시령부時令部

2-1 세시歲時

지간支干의 이름으로 갑甲을 알봉閼逢, 을乙을 전몽旃蒙 또는 단몽端蒙, 병丙을 유조柔兆 또는 유조游兆, 정丁을 강어强圉 또는 강오强梧, 무戊를 착옹着雍 또는 도유徒維, 기己를 도유屠維 또는 축리祝犁, 경庚을 왕장王章 또는 상횡商橫, 신辛을 중광重光, 또는 소양昭陽, 임壬을 횡애橫艾 또는 현익玄黓, 계癸를 소양昭陽 또는 상장尙章이라고 한다. 자子를 곤돈困敦, 축丑을 적분약赤奮若, 인寅을 섭제격攝提格, 묘卯를 단알單閼 또는 단안亶安, 진辰을 집서執徐, 사巳를 대황락大荒落, 오午를 돈장敦牂 또는 대률大律, 미未를 협흡協洽, 신申을 군탄涒灘, 유酉를 작악作噩, 술戌을 엄무閹茂, 해亥를 대연헌大淵獻이라고 한다.

양승암楊升庵이 말하기를, "세양歲陽의 이름은 처음으로 《이아爾雅》에 보이는 것으로서 섭제격攝提格 이하 22가지의 명칭이 그것이다. 후세에선 서로 전하여 고갑자古甲子라고 한다. 그런데 홀로 《사기史記》의 〈역서기曆書紀〉에 보일 뿐이다. 아마 한漢나라 시대에 술가術家가 이 명칭을 창작한 것을 후인이 《이아》에 몰래 써 넣은 것으로 의심된다. 요순堯舜이나 삼대三代 때에는 아마 이러한 명칭은 없었을 것이다. 《초사楚辭》에 '섭제정우맹추攝提貞于孟陬'라고 한 것은 대체로 역가曆家의 말을 사용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고갑자古甲子를 써서 《통감通鑑》의 기년紀年에 사용하였더니, 《통감강목通鑑綱目》에서는 모두 고쳤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10간干을 양명陽名이라 하고, 12지支를 음명陰名이라고 한다. 승암升庵이 이른바 섭제攝提 이하 22가지 이름을 양명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소문素問》에서 10간干을 논하여 말하기를, “갑을甲乙은, 초목草木이 갑甲에서 생성이 시작되고 을乙에서 굴복屈伏한다. 병정丙丁은 만물이 환하게 빛이 나서 드러나 보이고 굳세다. 무기戊己는, 무戊는 무성한 것이고 기己는 일어나는 것이니, 만물의 빼어남을 간직한 것이 굴복함을 누르고 일어난다. 경신庚辛은, 경庚은 고치는 것이고 신辛은 새롭게 하는 것이니, 만물이 무성하고 결실하여 새로이 이룬다. 임계壬癸는 만물이 닫아 감추고, 아래에 임신하여 법칙대로 싹 튼다”라고 했다.
12지支를 논하여 말하기를, “자子는 일양一陽이 일찍이 생기는 시초이니 임신하여 태胎가 되는 것이다. 축丑은 음陰이 아직 잡고 맺는다. 인寅은 진津을 상징하는 것이니 만물의 진도津渡를 말한 것이다. 묘卯는 무茂를 상징하니 양기가 왕성하여 번식하고 무성하다. 진辰은 진震을 상징하니 만물이 진동震動하여 성장한다. 기己는 기起를 상징하니 만물이 다 없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午는 장長과 대大를 상징하니 만물이 다 가득 차서 길고 크게 된다. 미未는 미味를 의미하니 만물이 이루어져서 맛이 있다. 신申은 신身이니, 물체가 모두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유酉는 유緧를 상징하니 만물이 다 발을 묶인 것처럼 움츠려 수축한다. 술戌은 멸滅을 상징한다. 만물이 모두 소멸한다. 해亥는 핵劾의 뜻이니 음기가 만물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양생서養生書》에, “신시申時 이후의 밥은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 있으니 역시 식도食道도 유시酉時에 이르면 움츠려 닫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을 금한 것인가 한다.

12진辰에서 자子는 쥐〔鼠〕, 축丑은 소〔牛〕, 인寅은 호랑이〔虎〕, 묘卯는 토끼〔兎〕, 진辰은 용龍, 사巳는 뱀〔蛇〕, 오午는 말〔馬〕, 미未는 양羊, 신申은 원숭이〔猿〕, 유酉는 닭〔鷄〕, 술戌은 개〔狗〕, 해亥는 돼지〔猪〕를 상징한 것이다.
《설부說郛》에 말하기를, “자子 · 인寅 · 진辰 · 오午 · 신申 · 술戌은 모두 양陽이다. 그런 까닭에 기수奇數를 가진 동물을 인용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즉

쥐 · 범 · 용은 모두 발가락이 5개씩이고, 말은 단제單蹄(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며, 원숭이 · 개도 또한 발가락이 5개씩이다. 축丑 · 묘卯 · 사巳 · 미未 · 유酉 · 해亥는 모두 음陰이다. 그런 까닭에 우수偶數를 가진 동물을 인용하여 이름을 붙였다. 즉 소는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고, 토끼는 입술이 갈라졌으며, 뱀은 혀가 2개이고, 양과 닭과 돼지는 모두 발톱이 4개이다"라고 했다. 그 설이 이치가 있는 것 같다.

정월正月을 단월端月 · 추월陬月이라 하고, 2월을 영월令月 · 시월始月이라고 하며, 3월을 가월嘉月 · 숙월宿月 · 잠월蠶月이라고 한다. 4월을 정양월正陽月 · 여월餘月 · 음월陰月이라 하고, 5월을 서월暑月 · 고월皐月이라고 하며, 6월을 계월季月 · 조월朝月이라고 한다. 7월을 양월凉月 · 상월相月이라 하고, 8월을 장월壯月 · 계월桂月이라고 하며, 9월을 현월玄月 · 국월菊月이라고 한다. 10월을 양월陽月 · 양월良月이라 하고, 11월을 고월辜月 · 창월暢月이라고 하며, 12월을 제월除月 · 도월涂月 · 엄월嚴月이라고 한다. 또 갑甲 · 병丙 · 무戊 · 경庚 · 임壬 자가 있는 날을 강일剛日이라 하고 을乙 · 정丁 · 기己 · 신辛 · 계癸 자가 있는 날을 유일柔日 또는 척일隻日 · 쌍일雙日이라고 한다.

윤월閏月은 2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만력萬曆 정축년丁丑年에 윤8월이 있었고, 병신년에 이르러 또 윤8월이 있었다. 경진년에 윤4월이 있었고, 기해년에 이르러 또 윤4월이 있었다. 계미년에 윤2월이 있었고, 임인년에 이르러 또 윤2월이 있었다. 대략 이 같은 것이다.

《동방삭점서東方朔占書》에, "정월 초하룻날은 닭날, 2일은 개날, 3일은 양날, 4일은 돼지날, 5일은 소날, 6일은 말날, 7일은 사람날(人日), 8일은 곡식날(穀日)이니, 청명하고 온화하면 번식하고 태평할 징조이고, 음한陰寒함이 몹시 심하면 질병이 퍼지고 쇠약하게 될 징조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원일元日에서 인일人日에 이르도록 흐리지 않은 때가 없구나(元日至人日 未有不

陰時)"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이 《동방삭점서》의 뜻을 끌어다 쓴 것일 것이다.

《차곡전서差穀全書》에 말하기를, "정월의 신미일辛未日은 글자를 창작한 창힐蒼頡[26]이 죽은 날이므로 이날에는 입학入學하지 아니하며, 2월의 신미일은 유명한 의원醫員 편작扁鵲[27]이 죽은 날이므로 이날에는 복약服藥하지 않는다. 8월의 첫 경일庚日은 하백河伯[28]이 죽은 날이므로 배를 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포박자抱朴子》에 말하기를, "풍이馮夷[29]가 하수河水를 건너다가 익사溺死했다" 하고, 혹은 풍이가 화팔석花八石[30]을 복용하고 물의 신선이 되었다"라고 했다. 이런 말은 모두 잡서에 나오는 것으로서 아마 믿을 만한 것이 못 될 것이다.

《패해稗海》에서 말하기를, "세상 풍속에 매월 초5일 · 14일 · 23일을 꺼리는 불길한 날로 하여, 먼 길 떠날 때는 반드시 이날을 피한다. 그러나 그 설은 떳떳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세상 풍속에서 이날들을 삼파일三破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정양월正陽月에 일식日食하다'라고 한 정양월을, 선유先儒가 4월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정正은 4월이고 양陽은 10월인 것이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정월正月에 서리가 많이 왔구나"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세월歲月에 양기陽氣가 그친다"라고 했다. 대체로 4월은 순수한 양陽의 달

26 중국 고대 황제黃帝의 신하. 새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창작했다고 한다. 창힐倉頡이라 쓰기도 한다.

27 전국시대의 막鄚의 사람. 성姓은 진秦, 이름은 월인越人이니 뛰어난 명의名醫이다. 노의盧醫라고도 한다. 장상군長桑君에게서 의술을 배웠다고 한다.

28 하수河水의 신神. 물귀신(水神).

29 수신水神인 하백河伯의 이름.

30 꽃 모양의 팔석八石으로, 도가道家에서 복용하는 8가지의 약품, 즉 주사朱砂 · 웅황雄黃 · 공청空靑 · 유황硫黃 · 운모雲母 · 융염戎鹽 · 초석硝石 · 자황雌黃인데, 신선이 되는 약이라고 한다.

이므로 음기陰氣가 침노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10월은 순수한 음陰의 달이므로 지나쳐서 양陽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모두 달의 그믐날을 피했다. 말하는 이가 설명하기를, "그믐날은 음陰의 궁극이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다"라고 한다. 춘추시대에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언릉鄢陵에서 싸울 때에 "갑자월 그믐날"이라고 특서特書하여 조롱을 받은 것이 이것이다. 예전에는 제향祭享도 또한 이날을 피했다고 한다.

《속박물지續博物志》에 말하기를, "목일木日에 누룩을 만들면 술이 시어지고, 수일水日에 장을 담그면 벌레가 생기며, 구초일九焦日에 곡식을 파종하면 싹이 나지 않고, 육합일六合日[31]에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가지 않으며, 화일火日에 꿀벌을 안치시키면 꿀이 쓰고, 토일土日에 삼[麻]을 심으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진실로 그러하구나, 이 말이여. 옛사람들이 모든 동작에 반드시 날을 가린 것은 대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2 절서節序

월령月令에, "중춘仲春에 접동새鶗鴂 운다"라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접동새의 다른 이름을 자규子規라고 한다. 이

31 음양가陰陽家의 설說로서 자子와 축丑, 인寅과 해亥, 묘卯와 술戌, 진辰과 유酉, 사巳와 신申, 오午와 미未가 서로 합하는 날. 가령 해와 달이 자子에서 만날 때는 두병북두칠성斗柄北斗七星의 자루 쪽이 축丑을 가리키고, 해와 달이 축丑에서 만날 때는 두병斗柄이 자子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子와 축丑을 합合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

새가 춘분에 울면 온갖 꽃다운 것이 나고, 추분에 울면 온갖 꽃다운 것이 그친다”라고 했다. 《초사楚辭》에서 말하기를, “접동새가 먼저 울어 온갖 풀이 그 때문에 꽃답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7월에 격鶪이 운다”라고 했다. 격은 박로博勞(때까치)이며, 또한 결鴂이라고도 한다. 음기陰氣가 움직이면 울고 양기陽氣가 회복되면 그치는 음적陰賊한 새다. 격鶪과 제결鶗鴂은 이것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월령에, “중춘仲春에 복숭아꽃이 처음 핀다”라고 했다. 《소문素問》의 주註에 소도화小桃花라 쓰고 있으니 아마 지금 세상에서 소도小桃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월령에, “비둘기〔戴勝〕가 뽕나무에 내려오다”라고 했고, 주註에 이 새는 머리 위의 털이 화관花冠을 이루었으므로 대승戴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부賦에 말하기를, “서왕모西王母가 깨끗한〔暠然〕 흰 머리에 승勝을 이고 동혈洞穴에 산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승이라는 것은 부인들의 머리꾸미개로서 화승華勝이라고도 한다.
당나라 제도에, 입춘 때에는 재상과 친왕親王들에게 금은번승金銀幡勝(금은빛 수건으로 된 머리꾸미개)를 하사했고, 인일人日에는 채루인승綵縷人勝(오색 비단실로 된 인형人形 머리꾸미개)을 하사했다고 한다. 마회소馬懷素의 시詩에, “삼양三陽의 계절에 금金으로 수식首飾을 한다〔三陽候節金爲勝〕”라고 했고,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머리 위의 은번銀幡을 조카들이 웃는다〔頭上銀幡笑阿咸〕”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소정蘇頲의 시에, “초년初年에 다투어 의춘승宜春勝을 붙였다〔初年競帖宜春勝〕”라고 했다. 《형초기荊楚記》를 고증하여 보니, “입춘에 오색 비단을 끊어서 제비 모양을 만들어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거기에는 의춘宜春(봄에 알맞다는 뜻인 듯)이라는 두 글자가 씌어 있다. 대체로 당唐나라의 풍속이다”라고 했다.

월령에, “왕과王瓜가 난다”라고 했다. 《운회韻會》를 참고하여 보니, “왕과는 뿌리를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과瓜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왕과의 열매는 작다. 그런데 왕이란 칭호를 붙여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왕과는 바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적전籍田(임금이 몸소 농사하는 밭) 참외다. 그 외의 종류는 본래 잘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참외들보다 먼저 나기 때문에 임금에게 진상한다. 그런 까닭에 왕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라고 한다. 아직 진실로 그런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월령에, “여름은 벌레와 우류羽類들이 왕성한 때”라고 했다. 왕혁王奕이 말하기를, “봉鳳은 우충羽蟲(날개 있는 동물)의 장長이다. 그런 까닭에 남방의 별을 주조朱鳥라고 한다. 또 《금경禽經》에서는 적봉赤鳳을 순鶉이라고 한다. 대체 봉鳳은 단혈丹穴에서 나매, 순鶉은 봉 중의 붉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조朱鳥(붉은 새, 즉 봉鳳)로써 남방의 성상星象으로 정한 것이다. 오흥吳興 심씨沈氏가 주조를 단순丹鶉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월령에, “기러기는 기후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네 번 있다”라고 했다. 우보于寶를 고증하여 보니, “8월에 기러기가 오는데 그것은 큰 기러기로, 기러기의 부모이다. 9월에 기러기가 와서 손님이 되는데 그것은 작은 기러기로, 기러기의 아들이다. 12월에 기러기가 북쪽을 향하여 가는데 역시 큰 기러기로, 기러기의 부모다. 정월에 기러기가 북쪽으로 기후를 따라 이동해 간다. 역시 작은 기러기로, 기러기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기러기가 온다는 것은 기러기가 처음으로 남쪽을 향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기러기가 와서 손님이 된다는 것은 이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모두 와서 남쪽 지방의 손님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손님이라고 한 것은 주인에 대하여 일컫는 말이니, 기러기는 북쪽 지방의 새로서 남쪽 지방에 와서 손님처럼 머무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기러기가 북향北鄕한다고 한 향鄕은 향向과 같은 뜻이니, 기

러기가 처음으로 북쪽을 향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계절을 따라 기러기가 북쪽으로 간다고 한 것은 이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모두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후안候雁이라고 한다. 후안은 기러기가 기후를 따라 이동하는 일을 통칭하는 말이다.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하소정夏小正(《예기》의 편명)〉에 10월에 검은 새가 목욕한다고 하였으니, 검은 새는 까마귀이며, 목욕한다는 것은 잠깐 날아 올라갔다가 잠깐 날아 내려오곤 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상말에 까마귀는 바람에 목욕하고 까치는 비에 목욕한다고 한다. 또 닭은 흙에 목욕한다”라고 했다.

월령에, “중동仲冬에는 갈단鶡旦(할단새)이 울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갈단은 밤에 울어서 아침을 찾는 새다”라고 했다. 역서曆書에는 단旦을 단鴠으로 쓰고 있고, 두시杜詩에 괄갈鴰鶡이 샛별을 재촉한다〔鴰鶡催明星〕”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괄갈은 접동새 같으나 작으며, 날이 새기를 재촉하는 새다. 대체로 괄갈은 바로 갈단일 것이다. 기記에서는 또한 합단盍旦이라고 썼다.

구양공歐陽公의 시에, “오직 하계夏鷄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밤마다 새벽달 가는 것을 들을 뿐이다〔惟聽夏鷄聲 夜夜耕曉月〕”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하계夏鷄는 비겹鵯鵊이라는 새로, 날이 새기를 재촉하는 새라고 한다. 괄갈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월령에, “중동仲冬에 여정荔挺이 나온다”라고 했다. 정현鄭玄의 주註에 “여정은 마해馬薤이다”라고 했다. 지금 11월을 여월荔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역周易》 쾌괘夬卦의 효사爻辭인 현륙쾌쾌莧陸夬夬(자리 콩풀을 시원스럽게 제거한다는 뜻)의 주에 “지금의 마치현馬齒莧(쇠비름)이니 음기陰氣를 감응感應함이 많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양용수楊用脩가 말하기를, "채옹蔡邕이나 고유高誘는 모두 여지荔枝가 정출挺出(싹이 나옴)한다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여정荔挺(백합과의 다년초)이라고 하여 한 낱 명사로 쓴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예기禮記》 월령에, "정조征鳥는 사납고 빠르다〔征鳥厲疾〕"라고 했고, 그 주에, "새매의 등류等類는 잘 치기〔擊〕 때문에 정조征鳥(치는 새라는 뜻)라고 한다"고 했다. 《운회韻會》에서 말하기를, "정은 새 이름이다. 제齊나라 · 노魯나라 등지에서는 제견題肩을 정이라고 하며, 정征과 통용한다"라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서는 말하기를, "제견題肩은 요鷂(새매)다"라고 했고, 또 《예문유취藝文類聚》에는 '정조려질征鳥厲疾'이라는 말 대신에 '지조鷙鳥(사나운 새매)려질厲疾'이라고 쓰여 있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용성龍星은 목木의 위치이고, 봄은 동방東方에 속한다. 그런데 심성心星은 창룡蒼龍, 즉 동방칠수東方七宿의 하나로 대화성大火星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봄철에 불이 성盛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불을 금한다. 그런 까닭에 한식寒食날에는 용기龍忌라는 금기禁忌가 있어서 불을 금하는 것이고, 개자추介子推[32]가 불타 죽은 것을 애도하기 위하여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당시唐詩에서 한식을 화기火忌라고 한 것도 역시 이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주관周官의 사훤씨司烜氏는 중춘仲春에 목탁을 치고 온 나라 안을 순행巡行하면서 불을 금했다. 계춘季春에 장차 출화出火하기 위함이었다. 그

32 춘추시대의 진晉나라 사람으로 개지추介之推라고 쓰기도 한다. 진晉나라 문공文公을 수종隨從하여 19년 동안을 망명亡命했다. 문공文公이 귀국歸國하여 왕이 된 후에 봉록封祿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면산緜山에 은거했다. 문공이 그의 착함을 알고 그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면산에 불을 질렀더니 끝까지 나오지 않고 불에 타죽었다고 한다. 그 뒤 면산을 개산介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렇다면 금화禁火하는 일은 주周나라가 남긴 풍속이 아닌가 한다.

24절기 중에 소만小滿과 망종芒種이란 이름의 뜻은 알 수 없다.
《설부說郛》에 말하기를, "소만은 보리[麥]의 기운이 이때에 이르러 바야흐로 조금 찼으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이고, 망종은 까끄라기가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이라는 말이니 보리를 말한 것이다. 이때가 되면 보리는 당연히 성숙한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때가 되면 보리는 수확할 수 있으나 벼는 이때가 돼도 심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 2가지 설도 역시 명확하지 않다.

《풍토기風土記》에 말하기를, "남중南中[33] 6월에는 멀리서 불어오는 동남풍이 있다. 이 바람을 황작풍黃雀風이라고 한다. 이때 바다고기가 변화하여 황작黃雀(참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완위여편宛委餘編》을 참고하여 보니 거기에 말하기를, "9월에 오는 비를 황작우黃雀雨라고 한다. 이것은 월령月令에서, 9월이면 참새가 큰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체로 2가지의 생물이 서로 변화하는 것은, 마치 벼룩과 이가 때를 따라 서로 변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남중 6월이라고 한 6월은 5월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동방삭전東方朔傳〉에 말하기를, "복일伏日에 고기를 하사한다"라고 했고, 양운楊惲의 글에는, "세시歲時와 복일伏日과 납일臘日에 양羊을 삶고 염소를 굽는다"라고 했다. 고증해 보니, 진秦나라가 처음으로 복날에 제사하는 사당을 짓고, 복날에 제사했다. 한漢나라의 풍속에서도 진秦나라의 풍속을 그대로 좇아서 이날 사육賜肉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33 남쪽 지방을 두루 일컬은 말.

《한서漢書》를 고찰하여 보니, “복伏이라고 한 것은 음기陰氣가 장차 일어나고자 하나 남은 양기陽氣에 압박되어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여 음기가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복일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화제和帝 때에 처음으로 온종일 복폐伏閉하라고 명령했다” 하고, 그 주註에 말하기를, “복날에는 온갖 귀신들이 횡행한다. 그런 까닭에 온종일 문을 닫고 다른 일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효程曉의 〈복일시伏日詩〉에 말하기를, “평소의 삼복三伏 때에는 언제나 한길에 지나가는 수레가 없었다. 문을 닫고 더위를 피하여 누웠으니, 드나들며 서로 찾는 일이 없었다. 지금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분수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같은 더위를 무릅쓰고 남의 집을 찾아가니, 주인은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리며, 이 일을 어찌할까 하고 불쾌해한다”라고 했다.

생각하여 보니 7월에 가을바람이 일어나고, 8월에 바람은 높아가고, 9월에는 바람이 떨어진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8월 가을에 높은 바람이 성내 울부짖는다” 했고, 또 말하기를, “가을바람이 동정호洞庭湖에 떨어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채옹蔡邕이 말하기를, “청제靑帝(봄을 맡은 동쪽의 신神)는 미일未日로 납일臘日을 삼고, 적제赤帝(여름을 맡은 남쪽의 신)는 술일戌日을 납일로 삼으며, 백제白帝(가을을 맡은 서쪽의 신)는 축일丑日로 납일을 삼고, 흑제黑帝(겨울을 맡은 북방의 신)는 진일辰日로 납일을 삼으며, 황제黃帝(중앙을 맡은 신)는 진일辰日로 납일을 삼는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일未日을 납일로 쓰고 있으니 아마 동쪽은 목木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중국에서는 동지冬至 후의 셋째 술일戌日을 납일로 한다고 한다.

고찰하여 보니, “공공씨共工氏의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전염병 귀신이 되었

는데 붉은 팥을 두려워한다. 그런 까닭에 이날에는 붉은 팥으로 죽을 쑤어서 귀신을 물리친다"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니 중국 사람들은 동짓날에 붉은 팥죽을 쑤지 않는다.
유자휘劉子翬의 지일시至日詩를 살펴보니, "팥죽으로 염승주술厭勝呪術하는 형荊나라의 풍속이 어여쁘다(豆糜厭勝憐荊俗)"라고 했다. 형초荊楚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을 알겠다.

장설張說의 모일耗日[34] 음시飮詩에 말하기를, "정월이 오늘 아침에 감減하는구나. 세월이 흘러서 모마진耗磨辰이 되었네. 도리어 일 아닌 일을 가지고 세속사람들과 같이 취하네(正月今朝減 流轉耗磨辰 還將不事事 同醉俗中人)"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정월 16일을 옛날에는 모마절耗磨節이라 하고, 이날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며, 창고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당唐나라에서는 2월 초하루를 중화절中和節이라고 하였으니, 지금 사람들이 2월 초하루를 아직 속절俗節로 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당나라의 제도를 습용襲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옛날 풍속에 원조元朝와 정월의 첫째 자일子日, 오일午日, 2월 초하루를 신일愼日(조심하는 날)이라고 했다. 또 상고하여 보니, 신라 때에 용龍은 능히 비를 일으키고, 말은 능히 노역에 복무할 수 있고, 산돼지와 쥐는 곡식을 소모한다고 하여 매년의 첫 진일辰日 · 오일午日 · 해일亥日 · 자일子日에 제사를 지내서 기양祈禳[35]하고, 모든 일을 금하고 서로 함께 놀고 즐기면서 '달도怛忉'라고 말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말하기를, 달도는 슬피 근심하여 금기하는 말이라고 했다.

중국 조정에서는 원단元旦의 전후 15일 동안은 모든 관원에게 휴가를 주며, 각

34 음력 정월正月 16일.

35 신명神明에게 기원祈願함. 축원함.

관아에서는 인印을 봉해 두고 일체의 공무를 정지했다. 고려 때에는 원단을 전후해서 모두 7일씩 휴가를 주었다. 그런데 아조我朝에서는 이러한 일을 한 사례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에 정월 보름날, 과일을 섞은 밥을 먹으며 이것을 약밥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진기하게 여긴다. 신라 때에는 정월 보름날에 까마귀가 글 쓴 종이를 물고 온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날이면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하였으니, 대체로 이것으로 인해 풍속을 이룬 것이다.

《고려사高麗史》를 참고하여 보니, 나라의 풍속이 왕궁과 국도國都에서부터 시골 고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에는 이틀 밤 동안 등燈을 달았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했다. 그런데 최이崔怡는, "4월 8일에 등을 달고 즐겨한다"라고 하여 양설兩說이 같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속은 4월 8일에 등을 다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佛家에서 나온 풍속으로서, 이날이 석가모니의 생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풍속에 상월上元(정월) 보름의 달 돋는 것을 보고 그해에 풍년이 들고 안 드는 것을 점친다. 또 이 밤에 다리 밟는 놀이(踏橋之戲)를 하는데 이것은 전조前朝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태평한 때에 있어서 매우 성행하여 남자와 여자들이 극성스럽게 붐벼 밤을 새우며 그치지 아니하니, 법관이 금지하고, 듣지 않는 자를 잡아가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다. 강극성姜克誠의 시詩에 "젊어서 상원 명절을 기억하여, 다리를 밟고 달구경 하며 향기로운 술에 취한다(年少佳辰記上元 踏橋玩月醉芳樽)"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풍속이 없어졌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농가에는 오행五行이 없어서 수해가 나고 한재가 날 것을 개구리 소리로 점을 친다〔農家無五行 水旱卜蛙聲〕”라고 했다. 조사하여 보니, 3월 초3일, 즉 상사일上巳日에 개구리 소리를 듣고 수해나 한재를 점쳤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속 말에 “개구리〔田鷄〕가 울부짖으나 벙어리가 되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가물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논에선 좋은 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개구리가 울부짖어서 소리가 나면 수해가 날 것이므로 논 안에서 배를 부리기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

6월 15일을 세상에서 유두流頭라고 한다. 고증하여 보니, 《여지승람》에 말하기를, “신라의 옛 풍속에, 이날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욕하고, 이어 계음禊飮[36]하였는데, 그것을 유두연流頭宴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 유두는 그 유래가 오랜 것이다. 다만 수단병水團餠[37]을 먹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아마 옛날 괴엽냉도槐葉冷淘[38]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2-3 주야晝夜

한漢나라의 옛 제도 중에서 황문黃門(궁궐의 문)에 시각을 표시하는 오야五夜의 법은, 갑 · 을 · 병 · 정 · 무로 구분되어 있었다. 《안씨가훈顔氏家訓》에 말하기를, “한漢나라, 위魏나라 이래 갑야甲夜 · 을야乙夜 · 병야丙夜 · 정야丁夜 · 무야戊夜라고 말했고, 또 오야五夜라 일컫기도 하며, 경更이라고도 했다. 그러기에

36 상사절上巳節, 즉 음력 3월 3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주연酒宴을 여는 것. 계禊는 악액惡厄을 제거하는 행사라는 뜻이다.

37 경단. 백단白團이라고도 한다.

38 괴화나무의 잎을 따서 즙을 내어 보리 가루를 섞어 만든 떡, 즉 괴엽병槐葉餠이다.

한漢나라의 《천문지天文志》에는 무오일戊午日 을야乙夜에 월식이 있고, 형혹성熒惑星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진晉나라의 《천문지天文志》에는 영희永熹 3월 병야丙夜에 달이 개기식皆旣蝕을 하고 정야丁夜에 또 개기식을 했다고 기록했다"라고 했다.

《상소잡기緗素雜記》에서 말하기를, "오야五夜라는 것은 한밤중의 시점을 말한다. 두시杜詩에서 '오야의 누고漏鼓 소리 새벽을 재촉한다'고 한 것이 바로 오야이다"라 하였는데, 내 생각에 이 설은 아마 틀린 것 같다. 이 오야라는 것은 오경五更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한시韓詩의 주註에, "밤중을 오午라 한다"라고 한 것이나, 이하李賀의 시에 "비단 장막에 오야의 수심"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당唐나라의 제도에, 경성京城 안을 금오위군金吾衛軍이 초저녁과 새벽에 전호傳呼(전하여 부름)하였으며, 또 여섯 가닥의 가로街路에는 가고街鼓를 설치하여 간악한 도둑을 방지했다. 이 법이 가장 잘 완비된 법이다. 일찍이 중국 북경北京의 성안을 보니, 밤이면 가졸街卒이 각기 담당한 곳을 지켜 전호傳呼하다가 새벽에 이르러 그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순경법巡更法은 가장 소홀하다. 허다한 성내의 골목을 4, 5명의 잔약한 군졸들이 한 번 순찰하고 지나가니 어찌 능히 간세奸細를 금지하고 도둑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득책得策이라고 하겠다.

하루를 12시간, 1시간을 8각으로 나누고, 자시子時와 오시午時에는 각각 2각씩 보탠다. 그리하여 1주야는 모두 100각이 된다. 한시韓詩에 말하기를, "120각이 잠깐 사이로구나(百二十刻須臾間)"라고 했다. 지금의 일주야는 100각인데 어찌 당唐나라 때의 누각漏刻이 지금의 누각과 다를 리가 있겠는가. 대체로 낮이니 밤이니 하고 말하는 것은 일출 후에서 일몰 전까지를 낮이라 하고,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를 밤이라 한다. 이것은 역가曆家의 법이다.

이영李郢의 시詩에, "25번 누점漏點 소리에 가을밤은 길구나〔二十五聲秋夜長〕"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패사稗史》에, "하룻밤의 5경更이, 1경을 5점點씩으로 하여 25점이 되는데,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 5경 뒤의 2점을 떼어 버리고, 또 초경初更의 2점을 병합하여 처음에서 끝까지를 21점으로 했다. 그것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체로 중국의 누점 제도漏點制度는 우리나라와 같다.

3. 재이부災異部

3-1 재생災眚[39]

《박물지博物志》에 말하기를, "기린麒麟이 싸우면 일식이 있고, 고래가 죽으면 혜성慧星이 나타나며, 갓난아이가 울면 부녀婦女의 젖이 난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유신庾信의 글에 말하기를, "구름은 복별伏鼈(엎드린 자라)을 낳고, 별鼈은 고래를 내보낸다"라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순시旬始는 별의 이름이니 요기妖氣라고도 한다. 북두北斗의 곁에 자라가 엎드린 것 같은 형상의 검푸른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진서晉書》에 "하늘이 복별을 드리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논형論衡》에 말하기를, "주周나라 소왕昭王 26년 갑인甲寅 4월 8일에 우물과 샘물이 넘치고, 궁전이 진동하며 밤에 항성恒星이 보이지 않으니, 태사太史 소유蘇繇가 점을 쳐보고 서방西方에 성인聖人이 났다"라고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부처의 탄생은 곧 중국의 큰 변이므로 이것을 변이變異로 기록한 것이다. 《열자列子》에서도 "서방에 성인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 주나라 때에 이미 부처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경방역점京房易占》[40]에 말하기를, "을유일乙酉日에 일식日蝕하면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성하여, 나라의 군사를 맡은 사마司馬의 장병이 도리어 그 임금을 친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위魏나라의 고귀향공高貴鄉公 5년 정월 초하루

39 재해와 환난.

40 책 이름. 경방京房은 인명人名이니 한漢나라 때 돈구頓丘의 사람으로 자字는 군명君明인데 역학易學에 밝았다. 《경방역점》은 그가 지은 책이다.

을유일에 일식이 있었는데, 5월에 성제成濟의 변란이 있었으니, 그 응험應驗하는 것이 매우 신묘하여 《초역焦易》[41]에 못지않다.

고증하여 보니 "한漢나라의 성제成帝 때에 궁중에 푸른 사슴 1마리가 비처럼 떨어졌으므로 먹었더니 매우 맛이 좋았다"라고 했다. 옛날에 금金비 · 돈비 · 물고기비 · 돌비가 내린 일은 있으나, 사슴비가 내린 것은 더욱 괴이한 일이다. 또 손오孫吳 때에는 금릉金陵에 오곡五穀비가 내렸는데, 가난한 집에만 오고, 부잣집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하다, 누가 이런 일을 주장主張하여 하는 것일까.

《한서漢書》에, "영제靈帝 때에 수도首都에서 말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했다. 《풍속통風俗通》에 말하기를, "말을 사육하는 오랑캐의 하인이 말과 교접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고, 또 《당서唐書》에는 "건부乾符 2년에 하북河北에서 말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하였으며, 《경방역점京房易占》에는, "위로는 천자가 망하고, 제후가 서로 정벌하며, 패역悖逆된 요기妖氣는 말이 사람을 낳는다"라고 했다. 들으니 근년에 달단의 군사가 암탕나귀와 교합했다고 한다. 옛날 반호盤瓠[42]의 후예는 만족蠻族이 되었고, 흰 이리가 낳은 것이 돌궐족突厥族이며, 푸른 사슴이 낳은 것이 몽고족蒙古族이라고 한 것이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일 것이다.

41 한漢나라의 초연수焦延壽가 지은 책인 《역림易林》을 말한다. 《역림》은 모두 16권卷으로, 《역경易經》의 한 괘卦마다 64괘卦로 풀이하여 총계 4령 96괘卦를 만들었는데, 길흉화복을 점치게 되어 있다. 역易이 술수의 책이 된 것은 《역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42 반호盤弧라고 쓰기도 한다. 고신씨高辛氏 때에 견융犬戎이라는 도적이 있었다. 고신씨가 천하에 포고하기를 견융의 장수 오장군吳將軍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 황제인 고신씨에게는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 그 털빛이 오색五色이며 이름을 반호盤瓠라고 불렀다. 황제의 명령이 있은 뒤에 개가 오장군의 머리를 물고 왔으므로 황제가 약속대로 딸을 내주었더니 반호가 그 여자를 업고 남산南山의 석실石室에 들어갔는데, 3년 뒤에 아들 여섯과 딸 여섯을 낳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부부가 되고 그 자손들이 불어나서 만이蠻夷라 불렀다 한다.

동진東晉 때에 땅에서 흰 털이 나오니 손성孫盛이, "사람이 노고勞苦할 조짐을 보이는 이변이다"라고 했다. 송나라 고종高宗 때에 땅에서 흰 털이 나니 아이들이 노래하기를, "땅 위에 흰 털이 생기니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간다"라고 했다. 강항姜沆이 왜중倭中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터럭을 비처럼 내려보내어 며칠 동안 그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근년에 있어서도 무신 · 기유년 사이에 하늘에서 나무 열매가 비처럼 쏟아진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 무슨 징조인지 알지 못하겠다.

《필담筆談》에 말하기를, "희녕熙寧 9년에 은주恩州 무성현武城縣에 회오리바람이 동남쪽에서 크게 불어온 일이 있었는데, 큰 나무가 송두리째 뽑히고, 관청사와 백성의 집들이 거의 모두 부서지고 휘말리어 하늘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현령의 어린 노비들이 바람에 말려 갔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죽고 부상한 자가 수명數名이나 되었고, 민간인의 사상자와 실종된 자의 수는 이루 다 셀 수 없었으며, 현성縣城은 폐허가 되었다"라고 했다. 괴이한 일이다.

《동각잡기東閣雜記》[43]에 보면, 우리나라 중종中宗 무인년 5월 15일에 중앙과 지방에 큰 지진이 있어서, 종묘 지붕의 기와가 흔들려 떨어지고, 궁궐 안의 담들이 무너졌으며, 백성들의 가옥도 간혹 무너지는 것이 있어서 남녀노소가 다 집 밖에 나와 있으면서 무너지는 집에 짓눌리는 것을 모면했다. 임금이 이것을 재이災異라고 하여 대신과 육경六卿과 삼사三司를 연문延問[44]했다. 그 뒤에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의 문견록聞見錄 가운데에 말하기를, "소주蘇州의 상숙현常熟縣에 흰 용 1마리, 검은 2마리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43 우리나라 고대부터 조선조朝鮮朝 선조宣祖 때까지의 사실史實을 책이나 견문見聞에 의하여 연대순으로 수록한 책. 선조宣祖 때 이정형李廷馨이 지었으며 내용과 문장이 훌륭하다. 《대동야승大東野乘》에 들어 있다.

44 불러들여서 물음.

입으로 불꽃을 뿜으면서 우뢰와 번개와 바람과 비를 동반했다. 그 곁에 가까이 있던 민가 300여 호와 선박 수십 척이 바람에 휘말려 반공중에 나부껴 들어갔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분쇄되었다"라고 했다. 바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던 날과 같은 날이었다고 한다. 용의 위력이 이와 같기에 이르렀구나. 역시 이상한 일이다.

신라 태종왕太宗王 때에 토함산에서 땅이 불타기 시작하여 3년 만에 꺼졌는데, 북쪽의 바위가 무너지더니 부서져서 쌀이 되었다. 그것을 먹어보니 묵은 쌀 같았다고 한다.
근세에는 숙청문肅淸門 밖 암석巖石의 틈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는데, 맑은 것은 술 같고 진한 것은 떡 같아서, 사람들이 다투어 먹는다고 했다. 내가 그걸 가져다가 보니 견고하게 엉겨서 먹을 수가 없었다. 아마 일광日光을 쐬었기 때문일 것이다. 땅이 불탄다든가 땅이 함몰하는 것과 같은 변이는 근년에도 또한 많이 있었다.

《천문지天文志》에 말하기를, "적병敵兵이 있는 위에 명주 필을 펴놓은 것 같은 기운이 보이면, 이것은 웅장한 군대의 기운이니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기氣가 만약 아군 위에 있다면, 싸우면 반드시 크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세종조世宗朝에 최윤덕崔閏德이 서쪽을 정벌할 때에, 장차 싸우려고 하는데 군軍의 위에 갑자기 흰 기운이 있어서 명주 필을 펼친 것 같았다. 일관日官이 말하기를 "크게 승리할 징조다"라고 하더니, 과연 크게 승리했다.

선왕조先王朝 때에 일찍이 혹심한 한재旱災가 있었다. 교령敎令을 내려 말하기를, "옛날 우 공于公[45]은 3년의 한재가 있는 것을 자기가 형옥刑獄을 잘못 다스

45 한漢나라 동해東海 사람. 벼슬은 군郡의 결조決曹. 재판을 공평하게 한 것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승상丞相 우정국于定國의 아버지.

렸기 때문이라고 하여 통곡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몇 사람의 옥리獄吏가 우공처럼 통곡하겠는가” 하고, 즉일로 죄수들을 관대하게 처결하여 석방했다. 임금의 은덕이 지극하여 사람들이 모두 감격했다.

만력萬曆 정축년에 치우기蚩尤旗(전란의 징조를 알리는 별 이름)가 미수尾宿와 기수箕宿에 나타났으니, 그것은 연燕나라의 분야分野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분야이다. 그 길이가 하늘 끝까지 뻗쳤으며, 여러 달 동안 소멸하지 않았다. 이 해에 왜倭(일본)의 추장 평수길平秀吉이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하였으며, 그 뒤 15년 만인 임진년에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함락시키니, 중국이 천하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정토征討한 지 7년 만에 비로소 평정했다. 그 조그마한 작은 오랑캐가 섬 속에서 함부로 날뛰어 역절逆節의 징조가 잠깐 싹텄었는데, 하늘 위에 전란의 상象을 나타내 보임이 이와 같았으니, 아아, 두려운 일이로구나.

무자년 6월, 온성穩城 땅에 밤 2경更이면 사람이 궁시弓矢를 차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의 한 불덩어리가 날아서 북쪽을 향해 가는데, 천둥과 번개가 이에 따르니 얼음이 터지는 소리와 같았다. 4년을 지난 뒤에 왜구가 함부로 육진六鎭에 뛰어들어 왔으니, 이것은 기氣가 먼저 이른 것이라 하겠다.

임진년 이전에 주홍朱洪이 사직社稷의 위판位版을 훔쳐가고, 이산李山이 종묘의 금은보책金銀寶冊을 도둑질하여 불태웠으며, 또 도적이 어좌의 일월경日月鏡을 훔쳐간 일이 있었고, 이에 이어 정여립鄭汝立의 역적을 도모하는 변고가 있었다. 심지어 건원릉健元陵의 능침陵寢이 울고, 한강물이 붉어지고, 치우기가 하늘에 뻗치고, 거북이 바다에서 나오는 등, 이러한 변이에 이르러서는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계사년癸巳年 원단元旦에 세 줄기 흰 기운이 서북에서 하늘에 뻗쳐 가로 태양을

관통하였으며, 곁에는 쌍무지개가 있는데 두른 무리(暈)가 두 겹이었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적에게 승첩勝捷할 기상이라고 하더니, 7일을 지난 뒤에 명나라 군사가 평양에서 승리했다.

선조宣祖 을사년乙巳年에 내가 안변安邊의 수령으로 있었다. 7월 19일에 유시酉時부터 급우急雨가 쏟는 것 같고, 사나운 바람이 가옥을 파괴하더니 2경更에 이르러 큰물이 성안에 들어왔다. 가득찬 물이 바다 같아서 끝(涯)이 보이지 않았다. 고을 안의 여염집들은 거의 다 물속에 빠져들어 갔으며, 사람과 가축의 떠내려간 것이 매우 많아서 온 마을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된 곳이 있기에 이르렀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친 뒤에 보니, 소 · 말 · 닭 · 개 · 뱀 · 산새 · 들짐승, 물에 사는 동물들이 물가 혹은 바닷가에 무더기로 죽어 있는 것이 산과 같았다. 썩는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산은 무너지고 언덕은 허물어져서 하천과 원야原野는 변하고 옮겨졌으며, 모래와 돌은 들을 덮어서 들에는 남은 곡식 이삭이라고는 없었다. 산중山中의 큰 나무까지도 다 뿌리가 뽑혀 덕원德源의 땅에까지 떠내려가서 수십 리를 메워 막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었다. 한 달 남짓이나 걸려서 불로 겨우 다 태울 수 있었으니 이것은 천지개벽 이래 일찍이 없었던 큰 재변이었다. 어떤 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바다가 뒤집혀서 재변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선왕先王 정미년丁未年 6월에 호남과 영남에 우박이 왔는데 크기가 집오리 알만 했다. 그 우박이 새를 눌러서 으스러지게 하고 초목을 때려서 죽게 했다.
함경남도에는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내렸으며, 날씨의 차고 모질기가 겨울과 같았다. 또 유언비어가 퍼져서, 사람의 쓸개를 빼낸다는 소문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대낮에도 혼자 다니지 못했다. 이것이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어 팔도가 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두려워하여 도로에 통행하는 사

람이 끊기더니, 두어 달이나 지난 뒤에 겨우 안정되었다.

10월에는 혜성慧星이 삼태三台[46] 사이에 나타나 꼬리는 문창성文昌星과 북두괴北斗魁를 가리켰고, 길이는 10여 척尺, 빛은 창백했다. 그런 상태로 달을 넘긴 뒤에 비로소 사라지더니 다음 해에 임금이 승하昇遐했다. 이것이 그 징험이었다.

계축년癸丑年 10월에 들꿩이 도성 안에 들어와서 온 시가에 거의 골고루 흩어져서 그 수를 이루 다 알 수 없었으며, 대궐 안에까지 날아서 모여들기에 이르렀다. 시내의 소년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이것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기를 한 달 남짓 하였으니 또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안변安邊의 수령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올빼미(梟)가 관아의 남쪽 나무 위에서 울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읍내의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올빼미가 이곳에서 울면 고을의 관장官長이 반드시 해면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왁자하게 근심하는 것이었다. 내가 듣고 기이하게 여긴 나머지 손님을 보내 읍내 사람들을 타일러 말하기를, "올빼미 울음이 괴이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이 괴이하다. 나는 또 해면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찌 근심하는가"라고 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과연 해면되어 돌아왔다. 역시 괴상한 일이다.

3-2 기황饑荒

《속박물지續博物志》에 말하기를, "태세太歲가 축丑에 있으면 장醬을 빌다가 술

46 자미궁紫微宮의 주위에 있는 상태上台 · 중태中台 · 하태下台의 각각 두 별씩 도합 여섯 별. 전轉하여 삼공三公의 뜻으로 쓰임.

까지 얻으며, 태세가 사巳에 있으면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판다"라고 했다. 축년丑年에는 풍년이 들고, 사년巳年에는 흉년이 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학림옥로鶴林玉露》[47]에 말하기를, "해가 장차 흉년이 들려면 반드시 영세민들이 밥을 배나 더 먹는다. 이러한 일을 세상에서는 흉년을 만든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세상만이 그러한 것은 아닌가보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두보杜甫가 촉蜀땅에 우거寓居하였을 때에, 누에가 성숙할 무렵이 되면 매번 처자와 함께 몸소 다니며 구걸하여 말하기를, '혹시나 가엾게 여기시거든 나에게 실 한두 올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슬픈 일이다. 두자미杜子美의 빈궁함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기에 이르도록 심하였던가. 그의 〈부봉선시赴奉先詩〉에 말하기를, '문에 들어서니 울부짖는 소리 들린다. 어린 아들은 굶주려서 이미 죽었구나. 부끄러운 바는 남의 아비가 되어 밥이 없어서 요절하게 만든 일일세〔入門聞號咷 幼子饑已卒 所愧爲人父無食致夭折〕'라고 했다. 가엾어라, 가엾어라"라고 했다.

신라의 태종왕太宗王 때에는 세상이 태평하고 풍년이 들어서 베 1필 값이 벼 30섬, 혹은 50섬이더니, 고려 공민왕 때에는 서울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베 1필 값이 쌀 5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하고 쇠한 것의 양극兩極이었다.

가까이는 선왕조先王朝의 계사癸巳 · 갑오년甲午年 사이에, 새로 왜구의 침략을 겪은 다음이어서, 무명 1필 값이 쌀 2되였으며, 말 1필 값이 쌀 서너 말에 지나지 않았다. 굶주린 백성들은 백주白晝에 사람을 무찔러 죽이고, 부자父子 · 부

47 책 이름. 송宋나라 나대경羅大經이 찬撰한 것으로 전 16권. 이름 있는 학자 · 문인의 시문 · 어록에 고평考評을 가한 것. 문장과 도덕에 종지宗旨를 두고 있는데, 이론은 자세하고 고증은 소략하다는 평이 있다.

부夫婦가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위에 전염병이 겹쳐서 길에는 죽은 사람이 서로 베개를 하였으며, 수구문水口門 밖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성보다 두어 길이나 더 높았으므로 승도僧徒를 불러다가 매장하는데 을미년乙未年에 가서 겨우 마쳤다. 다음 해 병신년은 풍년이 들어 무명 베 1필 값으로 쌀은 3, 40말, 콩은 5, 60말이었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굶주린 얼굴빛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고는 술과 고기로 호사하기를 평시보다 더 심하게 했다.

계사년癸巳年에, 서울에서 왜병이 물러간 뒤에 굶어 죽은 시체가 성안에 가득하였으며 하루에 죽는 자들의 수를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선왕先王이 하교하기를, “근일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슬퍼하고 민망하게 여겨 내가 먼저 죽고자 하나 죽을 수도 없다. 담당관이 날마다 백미 6되씩을 나의 식량으로 진상하고 있으나, 나는 평일에도 본래 하루 세 끼를 먹지 않는다. 비록 서 되의 백미일지라도 내 어찌 다 먹겠는가. 이제 마땅히 6되의 진상미 속에서 매일 서 되씩을 덜어서 나누어 구휼하는 5곳에 보낸다”라고 했다. 또 내탕고內帑庫에서 백미 몇 섬을 방출하여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죽을 쑤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게 하였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뜻이 지극하다. 그때 정시庭試에 급제한 최계옥崔啓沃은 합격 증서를 받는 날, 어사화御賜花를 머리에 이고, 홍패紅牌를 가진 채 구휼장에 나가서 죽을 먹었다.

3–3 인이人異

새의 큰 것을 붕鵬이라 하고, 물고기의 큰 것을 고래(鯨)라고 하며, 뱀의 큰 것을 탄상呑象이라 하고, 게(蟹)의 큰 것을 여산如山이라고 한다. 지렁이(蚯蚓)의 큰 것은 길이가 70척尺이 된다는 것이 《고려사高麗史》에 있다. 동물이 이와 같

으니 사람도 또한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 가령 방풍씨防風氏[48]가 몸을 가로 누우면 밭 9묘畝를 차지했다고 하니 어찌 의심하겠는가.

《신이기神異記》[49]에 말하기를, "동남쪽의 대황大荒(중국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 안에 박부樸父(대인국大人國을 말함)가 있었으니, 남편과 아내가 나란히 서면 그 높이가 천 리나 된다"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본래부터 허탄한 것이다. 그러나 상고하여 보니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신라 때에 여자의 시체가 해안에 표박漂泊한 것이 있었는데, 그 신장이 50척, 혹은 36척이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박물지博物志》[50]에서 말한 용백국龍伯國 사람의 신장은 30장丈이라든가, 또한 동북극東北極 사람의 신장이 9길이라든가, 동해 밖 머나먼 곳에 대인국이 있다고 한 것 따위는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사기史記》의 주에, "시황始皇 18년, 파군巴郡에 거인이 났으니 신장이 25길 6자"라고 했고, 《한서漢書》〈오행지五行志〉에는 말하기를, "시황 26년에 거인이 있었으니 신장은 5길, 신발이 6자였다. 모두 오랑캐의 의복을 입었으며, 12인이 임조臨洮에 나타났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병기를 녹여서 쇠사람〔金人〕 12명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 신장이 25길에 이르렀다니, 괴이하고도 허탄한 이야기다.

48 하夏나라 때 제후諸侯의 한 사람. 우禹가 천하를 평정하고 제후들을 회계會稽에 소집하였을 때에 늦게 도착하여 사형당했다.

49 책 이름. 한漢나라 동방삭東方朔이 편찬했고, 진晋나라 장화張華가 주註했다고 한다. 황당하고 괴탄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다고 한다.

50 책 이름. 진晋나라 장화張華의 찬撰이라고 하나, 실은 원본이 산일散佚된 것을 후인이 그 유문遺文을 채집성편採集成篇하고, 더욱 타설他說을 수집하여 더 붙인 것. 지리략地理略 · 지地 · 산山 · 수水 · 산수총론山水總論 · 전례고典禮考 · 낙고樂考 · 복식고服飾考 · 기명고器名考 · 물명고物名考 · 이문異聞 · 사보史補 · 잡설雜說 등을 수록했다.

《후한서後漢書》에 말하기를, “동옥저東沃沮의 바다 가운데에서 베옷 하나를 주웠는데, 그 형상은 중인中人의 옷과 같았으나 양쪽 소매의 길이가 3길이나 되었다. 또 깨진 배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그 사람은 머리 위에 또다시 낯이 있었다. 서로 말을 하였으나 통하지 않았으며, 먹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다. 곽박郭璞의 장비국찬長臂國贊에 말하기를, “두 팔은 세 길이나 되고, 체격은 중인中人과 같으며,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산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구라파여지승람歐羅巴輿地勝覽》에 말하기를, “구도매국歐度寐國은 동북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장은 매우 크고 옷은 짧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아마 옛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서》에 보면, “애제哀帝 때에 예장豫章 땅에서 남자가 변화하여 여자가 되었으며, 시집가서 아들 한 사람을 낳았다”라고 한다. 사나이가 여자로 된 것도 괴이한 일인데 아들까지 낳았다니 더욱 괴이한 일이다.

송나라의 효무제孝武帝가 곤륜노崑崙奴를 총애했다고 한 글의 주에, “그 형상은 곤륜국崑崙國 사람과 흡사하다. 곤륜국은 임읍林邑의 남쪽에 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남만전南蠻傳》에 “임읍 이남은 다 고수머리에 몸은 검다. 통틀어 곤륜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대체로 바닷가의 야만인 등류等類일 것이다. 진晉나라 간문제簡文帝의 이후李后는 얼굴이 길고 검어서 곤륜이라 불렀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섬라국暹羅國의 지도를 보니, 바다 가운데 대곤륜大崑崙 · 소곤륜小崑崙이 있었다. 이곳이 곧 그곳이 아닌가 의심된다. 《본초本草》에, “계설향鷄舌香은 곤륜 · 교주交州 · 광주廣州에서 난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일 것이다.

제독提督 유정劉綎은 사천총병四川總兵이다. 만력萬曆 계사년에 촉병蜀兵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나왔다. 그의 군대에 해귀海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번南蕃 출신이다. 낯빛은 매우 검어서 검은 칠漆을 한 것 같았다. 바다의 바닥을 잠수하여 다닐 수 있고, 그 얼굴 모습이 귀신 같았으므로 해귀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으며, 형상과 체구가 뛰어나게 커서 거의 2길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고 다닐 수 없었다. 장적長狄[51]이나 거무패巨無霸[52]의 후예가 아닌가 의심된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어떤 동물인들 없겠는가. 춘추春秋 때의 장적교여長狄僑如는 신장이 3길, 혹은 5길이라 했고, 한漢나라의 장중사張仲師는 2척 2촌, 동군東郡의 작은 사람은 겨우 7촌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크고 작은 것의 판이한 것이다.

잡서雜書에 보니, 동해에 나라가 있는데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바람에 감응感應하여 아이를 배고, 북방에 나라가 있으니 남자가 없어서 우물물에 제 몸을 비추어 본 뒤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떳떳한 이치가 아니라 하여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닭이나 거위나 오리가 암컷만이 홀로 있으면서 알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니 이치에는 본래부터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여국女國에서는 홀로 음陰만이 있고 양陽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딸만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일까.

《고금주古今註》[53]에 "제齊나라의 왕후가 임금을 원망하고 죽은 뒤에 변하여 매

51 옛날 북적北狄(북쪽 오랑캐의 일종)으로 신장이 100척이나 되었다고 한다.

52 한漢나라 사람. 왕망王莽의 때에 한박韓博이 상언하기를, "기토奇土가 있으니 신장은 1장, 몸의 크기는 열 아름, 이름을 거무패巨無霸……"라고 했다.

53 책 이름. 3권이니 진晉나라 최표崔豹의 찬撰이다. 명물名物을 고증한 것으로, 내용은 여복輿服 · 도읍 · 음악 · 조수鳥獸 · 어충魚蟲 · 초목 · 잡주雜注 · 문답석의問答釋義 등으로 나뉘어 있다.

미가 되었다” 했고, 《술이기述異記》[54]에는, “초楚나라 장왕莊王 때에 궁녀가 하루아침에 들나비가 되어 날아갔다”라고 했다. 이것은 무슨 이치인가. 궁녀가 원망과 그윽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변이 있는 것일까. 또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사람이 혹은 죽어서 새나 나비로 변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무슨 이치인가.

《운남지雲南志》에 말하기를, “원元나라 때인데, 탈탈脫脫이 월수越嶲를 평정할 때 쏘아 죽인 사람을 보니, 꼬리의 길이가 3촌 남짓한 것이 있었다. 토인土人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이런 등류가 간혹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변화하여 범이 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했다”고 한다. 괴이한 일이다.

차복원車復元은 제술관製述官으로서 통신사를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일본에 있을 때 한 서적을 얻어 보니 모두 수족水族이 변화하여 사람이 된 이야기를 기록했더라”라고 했다. 대체로 섬에서 아주 오랜 옛날에는 허다한 이상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옛날 당나라의 주찬朱粲 · 장무소張茂昭와, 오대五代 때의 장종간張從簡 · 설진薛震 등은 사람의 고기를 즐겨 먹었으며, 명明나라의 신안왕新安王 유희有熺는 사람의 뇌장과 간과 쓸개를 즐겨 생식生食했다고 하니, 슬프다. 어찌 홀로 도척만이 흉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 괴이한 것은, 당나라의 좌사낭중左史郎中 임정명任正明과 서주자사舒州刺史 장회숙張懷肅은 사람의 정액精液 마시기를 좋아했고, 지복건원知福建院 권장유權長孺는 사람의 손톱을 즐겨 먹었다. 근세에서는 강릉江陵에 성을 김金이라

54 책 이름. 구본舊本은 양梁나라 임방任昉의 찬撰이라고 하나, 실은 진晉나라 조충지祖沖之의 저작이라고 한다. 망실亡失한 뒤에, 지금 전하는 것은 후인의 위작僞作이라고 한다. 내용은 이문異聞 · 이사異事를 기술했다.

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람의 불알 빨기를 즐겨하였다. 그 맛이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여 항상 산중의 절에서 중과 함께 거처하면서 날마다 그 불알 빠는 것을 일삼으니, 중들이 고통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런 것은 그 식성食性을 알 수가 없는 것들이다.

3-4 물이物異

곤충으로서 우화羽化하지 않는 것이 없음은 본래부터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날개 달린 동물이 비늘 있는 동물로 변화하고, 비늘 있는 동물이 사슴으로 변화하는 것은 무슨 이치인가. 전서田鼠(두더지)가 종달새(鴽鳥)가 되고, 개구리(蝦蟆)가 메추라기(鶉)가 되고, 게(蟹)가 되며, 잉어(鯉)와 상어(鮪)가 용이 되고, 닭이 뱀이 되며, 참새가 조개(蛤)로 변하고, 꿩이 큰 조개(蜃)가 되며, 뱀이 꿩으로 변하고, 두꺼비(蟾蜍)가 복어가 된다니 괴이한 일이다.

사람도 변화하여 범이 되고, 소가 되고, 노루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자라가 되고 새가 되기도 한다니 또한 무슨 이치인가. 고사리(蕨)와 당귀는 식물인데 또한 변하여 뱀이 된다니 이 이치는 더욱 알 수 없는 것이다.

대체 12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나고 또 나고, 변화하고 또 변화하곤 하여 뒤숭숭하고 어수선하다. 조물주는 정말 장난이 심하구나.

용龍은 뿔로 듣는다고 하니 진정 귀머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뿔로 귀를 삼은 것이다. 소는 코로 듣는다고 하니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코를 귀로 삼는 것이다. 용은 날개가 없으나 날 수 있으니 이것은 날개 아닌 것으로 날개를 삼은 것이고, 뱀은 발이 없어도 가니 이것은 발 없는 것으로 발을 삼은 것이다.

고양이가 박하薄荷를 먹으면 취한다고 하니 이것은 박하로 술을 삼은 것이고,

맥貘(짐승)은 구리쇠를 먹고 배불러 한다니 이것은 구리쇠로 밥을 삼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형상을 한 몸에서 다 찾을 수가 없고, 이치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추측할 수도 없는 것이다.

풀과 나무는 심정心情이 없다. 그런데 하수오何首烏[55]와 석남石楠은 자웅의 감응이 있고, 새나 짐승은 배우配偶가 있는 것인데, 영리靈狸는 제 몸이 스스로 암컷 · 수컷이 된다고 하니, 대체로 물物의 이상한 것이다.

벌레와 새는 난생卵生하는 것인데 노자鸕鷀(바다 가마우지)는 새끼를 입으로 토하고, 두루미는 태胎에서 나온다. 내가 눈으로 본 것으로는 두꺼비도 또한 새끼를 토했다. 사람도 또한 난생하는 일이 있으니 서언왕徐偃王과 신라의 시조가 그러했다. 팽조彭祖와 같은 자는 어머니의 가슴을 쪼개고 나왔고, 노자老子는 어머니의 왼쪽 겨드랑이를 쪼개고 나왔으며, 석가釋迦는 어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쪼개고 나왔다고 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만물이 화생化生하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다. 그러나 새 중에는 모기를 낳는 문모조蚊母鳥가 있고, 풀에도 문모초蚊母草 · 맹모초虻母草가 있으며, 과일에도 문합蚊蛤이 있다. 이것은 이치 밖의 이치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에만 국한하여, 그 작은 지혜를 가지고 천하의 온갖 이치를 다 알고자 하니 어찌 될 수 있겠는가.

《설부說郛》 등의 책에서 말하기를, "염주炎州는 남해南海 가운데 있는 곳이니 해안에서 9만 리나 떨어져 있다. 풍생수風生獸라는 짐승이 있으니 형상이 표범과 같다. 불로 태워도 죽지 않고, 칼로 찍어도 칼날이 들어가지 않는다. 쇠망치로 그 머리를 수십만 번 쳐야 비로소 죽지만, 그 입이 바람을 향하면 곧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석상창포石上菖蒲로 그 귀와 코를 막으면 죽는다. 그 뇌장腦漿을 끌어내어 국화와 섞어서 복용하면 장생할 수 있다. 또 해남海南에 자

55 박주가리과科에 속하는 다년생 만초蔓草, 뿌리는 강장제强壯劑로 쓰임. 일명 새박덩굴. 박주가리.

라와 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으니 그 머리를 끊어서 말리고, 그 이빨을 뽑아 버려도 다시 살아나서 역시 악어鰐魚가 된다”라고 했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풍모風母는 원숭이같이 생겼다. 쳐서 죽여 놓아도 바람만 만나면 곧 살아난다”라고 했다. 의방醫方에서는 말하기를, “거머리는 불에 말려서 해가 넘도록 두었던 것이라도 물만 얻으면 또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다. 대체로 이상한 종류들이다.

《영남지嶺南志》에 말하기를, “돛을 펴놓은 것 같은 물건이 바다를 지나가기에, 바다에 있던 사람이 쳤더니 바로 나비였다. 그 고기가 80근이나 되었고, 그것을 씹어보니 매우 살찐 것이 맛이 좋았다. 또 지네(蜈蚣)가 있으니 큰 것은 길이가 100보步나 된다”라고 했다. 《남월지南越志》에 말하기를, “지네의 큰 것은 그 가죽으로 북을 메울 수 있고, 그 고기로 포脯를 뜨면 쇠고기보다 맛이 더 좋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쪽 변경에는 또한 지네가 많아서 길이가 척尺을 넘는 것이 있다. 그러나 100보나 되는 것에 비교하면 아주 조그마한 것일 뿐이다.
상고하여 보니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범과 사슴과 토끼는 수명이 모두 1,000년으로, 500세가 되면 털이 흰 것으로 변한다”라고 했다. 《의학입문醫學入門》에 말하기를, “이리(狼)는 수명이 800세인데 300세가 되면 사람의 형상으로 곧잘 변화한다. 곰(熊)의 나이 500세가 되면 능히 여우나 살쾡이로 변화할 줄 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미후獼猴가 800년을 묵으면 변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500세를 지나면 확玃이 되며, 확이 1,000년을 묵으면 변하여 두꺼비가 된다”라고 했다. 《포박자抱朴子》에 말하기를, “여우의 수명은 800세다. 300세가 되면 변하여 사람의 모양을 한다”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박쥐(蝙蝠)가 유석乳石의 동굴 속에 있어서, 그 유석의 정즙精汁을 먹으면 빛이 희어지고 수명은 1,000년이 된다”라고 했다. 《상학경相鶴經》에 말하기를, “학鶴은 1,600년을 묵으면 빛이 희어지고, 또 거북과 고니(鵠)는 수명

이 다 1,000세이다"라고 했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육지肉芝라는 것은, 즉 만세萬歲나 산 두꺼비, 1,000년 묵은 박쥐, 1,000년 묵은 거북, 풍생수風生獸, 1,000년 묵은 제비 등류를 말한 것이다. 이것들을 복용하면 사람을 장생하게 한다"라고 했다. 대체로 거북 · 제비 · 박쥐 따위는 죽치고 앉아서 기氣를 마시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꺼비도 가장 장수하는 것일 것이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말하기를, "야행유녀夜行遊女의 다른 이름을 천제녀天帝女라고 한다. 밤에는 날아다니고, 낮에는 귀신처럼 숨는다. 털을 입으면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털을 벗어 놓으면 부인이 되는데, 사람의 어린아이 잡아가기를 좋아한다. 모든 약한 어린아이는 몸을 드러내놓는 곳에 거처할 수 없으며, 어린아이의 옷도 또한 드러내놓고 말릴 수 없다. 천제녀의 털이 어린애의 옷에 떨어지면 반드시 새의 병을 앓는다"고 했다. 이러한 말이 허탄할 것 같으나 지금 《의방소아문醫方小兒門》을 참고하여 보니 무고감無辜疳이라는 병이 바로 이것이다.

신묘년 여름에 삼척三陟 · 양양襄陽 · 울진蔚珍 등의 고을에 개미가 온통 바다를 덮고 나와 해안에 가득히 퍼져서는 전투하는 형상을 보인 일이 있었다. 또 서울의 유밀柳謐의 집 뜰 앞의 5, 6간이나 되는 땅에 검정 개미가 가득 퍼져서, 혹은 머리가 끊기고 혹은 허리가 끊겨서 죽었으니 그 수를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그 징조였던가.

흰 꿩(白雉)은 대체로 항상 있는 것이다. 선왕조先王朝 신묘년에 고성固城의 산중에서 흰 꿩이 나왔으며, 정미년에는 강원도에서 흰 꿩을 바쳤고, 지금 갑인년에는 황해도에서 흰 꿩을 바쳤다. 또 정미년에는 낭천狼川에서 흰 까마귀가 여러 까마귀들과 서로 각축角逐하더니, 지금 경술년에는 흰 까마귀가 성균관의 구내에 집을 짓고 뭇 까마귀들이 함께 쫓았으나 달이 넘도록 가지 아니했

다. 또 계축년에는 흰 까치가 서울의 성안에 나왔으며, 흰 기러기가 양천陽川 북쪽에 온 일이 있다. 이 일은 다 장계狀啓로 보고되었거나 혹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이다.

내가 홍주洪州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 흰 대추나무가 동헌東軒 문밖에 났는데 길이가 4, 5촌이나 되고, 줄기와 가지가 깨끗하고 희며, 잎의 영롱하기가 옥玉으로 조각한 것 같아서 매우 진기하고 구경할 만했다. 즉 무신년 5월 선종대왕宣宗大王의 국상國喪 때였다.


권2

4. 지리부地理部

4–1 지地

유염兪琰이 말하기를, “황천후토皇天后土라는 말은, 황皇은 크다는 뜻이고 후后는 후厚와 같으니 두텁다는 뜻이다. 지금 세상에서 후토부인后土夫人이라고 하여 사당에 부인婦人의 상像을 새겨 놓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좌전左傳》에 말하기를, “공공씨共工氏에게, 구룡句龍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후토后土를 삼았다”라고 했다. 옛날에는 천자天子를 원후元后라고 했다. 또 후기后夔니 후직后稷이니 하는 칭호가 있다. 그러니 후토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서》〈예악지禮樂志〉에 보면, “지지地祇[1]를 부온富媼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노파老婆라는 뜻인 온媼 자를 붙여서 일컫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풀이하는 자가 말하기를, “곤坤은 어머니의 의표義表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 말의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겠다.

《박물지博物志》에 말하기를, “명산名山으로 보좌輔佐를 삼고, 돌로 뼈를 삼으며, 냇물로 동맥動脈을 삼고 초목으로 털을 삼으며, 흙으로 살을 삼는다. 지표地表에서 석 자의 깊이까지를 분糞이라 하고, 그 이하를 땅이라고 한다” 했다. 분토지장糞土之牆[2]에서 ‘분’은 대체로 이 뜻인 것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말하기를, “지형地形에서 동서東西를 위緯라 하고, 남북을 경經이라고 한다. 산을 적덕積德이라고 하며 내[川]를 적형積刑이라고 한다. 높은 것을 생生이라 하고, 낮은 것을 사死라고 한다. 구릉丘陵을 수컷이라 하고, 계곡을 암컷이라 한다”라고 했다. 뒷세상 사람이 골[谷]을 암컷이라고 한 것이 이

1 국토의 신. 지신地神 · 사직社稷.

2 썩은 흙으로 쌓아서 다시 고쳐 바를 수 없는 담. 게을러서 가르쳐도 소용없는 사람의 비유.

것이다.

소강절邵康節[3]이 말하기를, "남극은 크게 덥고, 북극은 크게 춥다. 그런 까닭에 남극에서는 녹아 풀어지고, 북극에서는 얼어붙어서 만물의 사지死地가 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생生은 사死에 인연하고, 사는 생에 인연한다. 기氣는 굽혀지면 펴지고, 양陽은 다 없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비록 추워서 얼어붙는 때를 당하더라도 생의 의사意思가 일찍이 그쳐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른바 사지라는 바로 그것이 이른바 생지生地인 것이다.

4-2 산山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반고씨盤古氏[4]는 천지 만물의 시조始祖이다. 그가 죽으매, 머리는 오악五嶽이 되고, 눈은 일월日月이 되고, 기름은 강과 바다가 되고, 털은 초목이 되었다"라고 했다. 일설一說에는, "머리는 동악東嶽이 되고, 배는 중악中嶽이 되었으며, 왼팔은 남악南嶽, 오른팔은 북악北嶽, 발은 서악西嶽이 되었다"라고 한다. 나는 말한다. 이것은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만약 머리가 곤륜산崑崙山이 되었다면 발은 백두산白頭山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습유기拾遺記》에 말하기를, "부상扶桑[5]은 5만 리, 거기에 방당산磅磄山이 있고, 산 위에 복숭아나무가 있으니 나무의 둘레가 백 아름이나 되며, 만 년에 한 번

3 송宋나라 소옹邵雍을 일컫는 말. 범양范陽 사람이며 자字는 요부堯夫. 《역경易經》의 이치에 정통했다. 강절康節은 그의 시호諡號. 저서로 《관물편觀物篇》·《어초문답漁樵問答》·《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황극경세皇極經世》 등이 있다.

4 전설에, 천지가 처음 개벽하자 반고씨가 최초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5 해 돋는 곳. 부상扶桑은 즉 부상榑桑이니, 신목神木의 이름으로 거기에서 해가 나온다고 한다.

씩 열매를 맺는다. 울수鬱水는 방당산의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푸른 연蓮이 있어서 길이가 1,000상常이나 된다. 그런 까닭에 만세빙도萬歲氷桃니, 천상벽우千常碧藕니 하는 설이 있다"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방당磅礴과 방장方丈은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 세속에서 지리산을 방장산方丈山이라고 한다. 또 세상에 전하기를, 옛날 고성固城의 바닷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물 가운데 누워 있는 돌을 보고 거기에 방장산비方丈山碑라고 제자題字 했다 한다. 이 때문에 혹은 금강산도 방장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소위 울수鬱水라는 것은 아마 울릉도鬱陵島를 가리킨 것일 것이다. 고찰하여 보니 8척을 심尋(한 길)이라 하고, 심의 배倍를 상常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7척을 상이라고 했다.

《습유기》에 말하기를, "봉래산蓬萊山의 높이는 2만 리, 물은 얕고, 잔 돌(細石) 들이 있는데, 금 같고 옥 같아서 갈고 다듬지 않아도 자연히 광채가 나고 깨끗하며, 그 동쪽에는 울이국鬱夷國이 있다"라고 했다. 소위 잔 돌이라고 한 것은, 지금의 바둑돌 같은 따위일 것이고, 울이鬱夷는 울릉도와 발음이 서로 비슷한 것이다. 울릉도 또한 옛날 나라의 이름이었다. 왕유王維가 일본의 조감晁監을 송별하는 서문序文에 말한, "부상扶桑은 남가새 풀 같고 울도鬱島는 마름 같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말하기를, "원교산圓嶠山 위에 네모진 호수가 있으니 주위가 1,000리다"라고 했다. 지금 한라산漢拏山 위에 깊은 못이 있다. 세상에서 한라산을 원교圓嶠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중국 땅의 안에 공동산이 셋이 있는데, 황제黃帝가 신선 광성자廣成子[6]에게 장생의 도를 물은 곳은 여주汝州에 있다. 두시杜詩에서 공동에 산맥山麥이 익었다고 한 공동은 임조臨洮에 있다. 또 그 나머지의 하나는 안정安定에 있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소주蘇州에 있는 공동산은 넓지 않았다.

6 상고上古의 선인仙人. 공동산崆峒山의 석실 속에 숨어 살았다고 한다.

진자앙陳子昂의 시詩를 참고하여 보니, "북쪽으로 계구薊丘에 올라 바라보면서 옛날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가 올랐던 고대高臺를 찾아본다. 그리고 광성자가 흰 구름 덮인 한 모퉁이에 남긴 자취도 생각하노라"라고 했다. 자앙子昂이 어찌 고증함이 없이 그렇게 말했겠는가. 황제가 탁록涿鹿에 수도를 정했다는 탁록은 지금의 유주幽州로서 유주는 계문薊門과 가까운 곳이니, 자앙의 설이 옳은 것 같다.

장한상張翰翔이 말하기를, "적벽赤壁이 비록 유명하지만 실지의 경치는 그 이름만 못하다. 다만 미산眉山 사람 소동파蘇東坡의 두 편 〈적벽부赤壁賦〉로 인하여 드디어 천고千古의 승지勝地가 되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내가 노인魯訒의 말을 들으니, 그가 "중국에 있으면서 친히 등왕각滕王閣을 보았는데, 소문과 같이 매우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그러니 어찌 홀로 적벽만이 그러하겠는가.

고증하여 보니 《삼재도회三才圖會》[7]에 말하기를, "적벽기赤壁磯라고 하는 곳이 황주黃州에 있다. 소동파가 놀던 곳은 이곳으로서, 조조曹操가 싸움에서 패주한 곳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적벽은 무창武昌의 번구樊口에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소동파 같은 박식하고 성품이 우아한 이로서도 오히려 이것을 알지 못했다니 어찌된 일일까.

주자朱子가 손님과 더불어 풍수를 이야기하다가 말하기를, "기주冀州는 풍수가 좋은 곳이다. 대악岱嶽은 청룡靑龍이고, 화산華山은 백호白虎이다. 숭산嵩山은 안산案山이고, 회남淮南의 여러 산들은 안산 밖의 산들이다"라고 했다. 술자術者가 보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7 책 이름. 모두 106권, 명나라 왕기王圻의 찬撰. 천문 · 지리 · 인물을 비롯하여 온갖 사물에 대한 모든 서적의 기사와 도보圖譜를 수집하여 분류 설명한 책.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동악東嶽이란 광상산廣桑山이니 동해東海 가운데에 있다. 남악은 장리산長離山이니 남해 가운데에 있다. 서악은 여농산麗農山이니 서해 가운데에 있다. 북악은 광야산廣野山이니 북해 가운데에 있다. 중악中嶽은 곤륜산崑崙山이니 구해九海 가운데에 있어서 천지天地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오대악五大嶽이다.

방호산方壺山 · 종산鍾山은 북해北海에 있고, 부상산扶桑山 · 봉래산蓬萊山 · 옥초산沃焦山은 동해에 있다. 연석산連石山은 동남쪽에 있고, 방장산方丈山 · 원교산圓嶠山 · 대여산岱輿山은 모두 대해大海 가운데 있다. 풍도산酆都山은 구루산九壘山 아래에 있고, 현주玄州는 북해 가운데에 있다. 영주瀛州 · 목주穆洲 · 조주祖洲는 동해 가운데에 있고, 봉린주鳳麟洲 · 취굴주聚窟洲는 서해 가운데에 있다. 염주炎洲는 남해 가운데에 있고, 원주元洲 · 장주長洲는 모두 대해大海 가운데에 있다. 창해도滄海島는 대해 가운데에 있으며 높이가 5만 리다. 이상 여러 곳은 모두 신선이 사는 곳이다”라고 했다.

또 《습유기》에는 말하기를, “대여岱輿 · 원교圓嶠 · 방호方壺 · 영주瀛洲 · 봉래蓬萊 등 다섯 산은 바다 동쪽에 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광상산廣桑山은 《잡서雜書》에서 “공자孔子가 태극상진공太極上眞公이 되어서 광상산을 주재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종산鍾山은, “종산에는 용이 불을 머금고 있어서 천문天門을 비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십주十洲는 서왕모西王母가, “거해巨海 · 십주十洲는 사람의 발자취가 드물게 이르는 곳이라”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신공申功이 “천하의 명산 8개소 가운데 셋은 만이蠻夷에 있고, 다섯은 중국에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소견이 어찌 편협하고 또 작다고 하지 않겠는가.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지금 천하에서 두 화산華山은 아미산峨眉山만 못하고, 형악衡嶽은 무당산武當山만 못하고, 숭출嵩出의 소실봉少室峯은 한 흙무더기

의 작은 언덕이다. 그리고 곤륜산 · 천주산天柱山은 요황要荒(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으므로 버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홀로 산뿐이겠는가. 나는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문사文詞에 유능하다고 이름난 자는 중국 사람들에게 양보할 것이 없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아주 먼 나라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전하여 칭도稱道하는 자가 없다. 아, 어찌 다만 산뿐이겠는가. 어찌 다만 산뿐이겠는가.

《삼재도회三才圖會》에 우리나라의 산천을 기록하여 말하기를, "대흥동大興洞 · 박연朴淵은 다 천마산天磨山 · 성거산聖居山 두 산 사이에 있다. 옛날 박 진사朴進士라는 자가 그 심연深淵 위에서 피리를 불었더니 용녀龍女가 이것에 감동하여 그를 끌어들여 남편을 삼았기 때문에 이름을 박연朴淵이라고 한다. 오관산五冠山은 장단부長湍府의 서쪽에 있는데, 다섯 봉우리가 둥글게 모여 있는 것이 마치 갓과 같은 모양이다. 속리산俗離山은 보은현報恩縣에 있는데, 거기에는 문장대文藏臺 · 법주사法住寺가 있다. 빙산氷山은 의성현義城縣에 있고 동석動石은 구정봉九井峯 아래에 있다. 청학동靑鶴洞은 지리산 속에 있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최치원崔致遠이 놀던 곳이라고 한다. 삼일포三日浦는 고성군高城郡에 있고, 한계산寒溪山은 인제현麟蹄縣에 있으니 지형의 아름다움이 영서嶺西의 제일이다. 만폭동萬瀑洞은 금강산 안에 있다. 만폭동에는 보덕굴普德窟이 있는데, 절벽을 파고 구리 기둥을 밖에 세워서 작은 방 세 칸을 그 위에 만들고, 쇠사슬로 얽어서 바위에 못을 박고 매달아 공중에 떠 있다. 상운정祥雲亭은 바다 곁에 있는데, 낙락장송落落長松들이 10리를 이어 있어서 쳐다보아도 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총석정叢石亭은 통천군通川郡의 북쪽에 있으며 관동關東의 명승名勝이다. 영남루嶺南樓는 밀양부密陽府에 있으며 영남의 제일이 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산천 · 누관樓觀의 좋은 경치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도회

圖會》에 기재된 것은 다만 전해들은 것을 적었을 뿐이므로 소략하기가 이와 같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삼산三山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금강산을 봉래산蓬萊山, 지리산을 방장산方丈山, 한라산을 영주瀛洲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두시杜詩에 “방장方丈은 삼한三韓 밖에 있다”라고 한 것으로써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말한다. 삼신산三神山의 설說은 서복徐福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 서복은 일본에 들어가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하니, 삼산은 동해의 동쪽에 있어야 할 것이다. 두보가 방장산은 삼한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방장산은 삼한 밖이라고 했으니, 그 말은 마땅히 믿을 만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다 그 근본이 백두산에서 나왔다. 마천령摩天嶺 · 철령鐵嶺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금강산 · 오대산 · 태백산이 되고, 지리산에 이르러 그쳤다.
남사고南師古가 항상 말하기를, “백두산맥이 응당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땅히 바닷속에 숨어 뻗어서 일본의 여러 섬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 말에 이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의 한라산도 또한 태백산맥이 바닷속에 숨어 뻗어서 된 것의 하나일 것이다.

《요지遼志》에 말하기를, “장백산長白山은 냉산冷山의 동남쪽 천여 리의 거리에 있다. 그 산에는 새와 짐승도 모두 흰빛인데,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곳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뱀의 해침을 마련하여 놓았다. 흑수黑水의 근원이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혼동강混同江이다. 큰 나무를 쪼개어 배를 만들었으니 그 형상이 베틀에 딸린 북(梭)과 같다. 그래서 사선梭船이라고 한다. 즉 지금의 마상선亇尙船이다”라고 했다.
또 《오학편吾學編》에 말하기를, “장백산은 가로 1,000리에 뻗쳤는데, 높이가

200리나 되고, 영상嶺上에 못이 있으니 주위가 80리다. 남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서 혼동강이 된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장백산은 백두산으로서 사시四時에 항상 흰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백長白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통전通典》[8]에 말하기를, "흉노匈奴[9]의 노래에, '우리의 언지산焉支山을 잃어버리니 우리의 부인들로 하여금 얼굴에 고운 빛이 없게 하였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설부說郛》에 말하기를, '언지焉支는 연지閼支라고 한다. 또 지금 연지臙脂라고도 한다. 이 산에서 홍람紅藍이 산출되어 연지로 쓸 수 있다. 연지로 화장化粧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산을 잃으면 부인들의 얼굴에 고운 빛이 없게 된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지리산은 또한 두류산頭流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백두산의 산맥이 흘러서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산맥이 바다에 이르러 막히게 되어서 이곳에 머무른다고 하여 두류頭留라 쓴다"라고 한다. 이 산은 또 이름을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한다. 《통감집람通鑑輯覽》에 말하기를, "방장산은 대방군帶方郡의 남쪽에 있다"라고 했다. 그 대방이라고 이름한 것도 역시 방장의 이름에 인연한 것이다.

풍악楓嶽을 세속에서는 개골산皆骨山이라 부르고, 승려들은 금강산金剛山이라고 한다. 또한 열반涅槃이라 이름하고, 혹은 기달怾怛, 또는 중향성衆香城이라 하기도 한다. 상고하여 보니 《화엄경華嚴經》에 말하기를, "동북東北의 바다 가

8 책 이름. 모두 200권. 당나라의 두우杜佑가 편찬한 것. 유질劉秩의 정전政典 범위를 더욱 넓힌 것. 식화食貨 · 선거選擧 · 직관職官 · 예악禮樂 · 병兵 · 형刑 · 주군州郡 · 변방邊防의 8문門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9 옛날 북적北狄의 한 종족. 몽고족 또는 터키족의 분파라고 한다.

운데에 금강산이 있으니 1만 2천의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이 항상 그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했다. 김안국金安國의 시詩에, "영랑호永郎湖의 바람과 달에 시 삼천 수를 짓고, 무갈산無竭山의 구름과 연기에 일만 봉우리를 바라보네〔永郎風月三千首 無竭雲烟一萬峯〕"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중국 사람이 지은, "고려국에 태어나서 친히 금강산 보기를 원한다〔願生高麗國親見金剛山〕"라고 한 시가 있다. 금강산의 이름이 온 천하에 떨친 것은 오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백 리의 거리에 불과한 곳에 있으면서도 과연 한 번 유람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신기재申企齋도 또한 이렇게 시를 지어 말했다. "젊을 때는 병이 많고 지금은 늙었으니, 인생 100년 동안을 금강산 한 번 못 보았네." 근년에 동정東征해 온 중국 장수들이 금강산의 멀고 가까운 것을 묻고, 어떤 이는 가보고자 하는 것을, 멀고 궁벽한 곳이므로 잘 갈 수 없다고 말하여 사절했다.

한라산을 딴 이름으로 원산圓山이라 한다. 제주濟州에 있으며, 봉우리 꼭대기가 모두 평평하기 때문에 원산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그 산 꼭대기에 오르면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는데, 그 크기가 등불만 하다고 한다. 산정山頂에는 눈이 쌓여서 한여름에도 녹지 않으며, 큰 못이 있어서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말하기를, "한라산은 즉 원교산圓嶠山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라산을 영주산瀛洲山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한라산의 서북쪽에 따로 한 산이 있으니 이름이 영주산이다. 그런 까닭에 제주를 동영주東瀛洲라고 한다.
또 서산瑞山은 고려 때 바닷속에서 솟아나온 것인데, 주위가 40리, 산에는 초목이 없으며, 지금은 대정현大靜縣에 있다고 한다.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의 깊은 골짜기를 홍류동紅流洞이라고 한다. 동구에 무릉교武陵橋라는 다리가 있고, 또 최치원이 시를 써 놓은 돌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하다. “포개진 돌 사이를 미친 듯 달리는 물소리, 모든 산들 성내어 부르짖으니, 사람의 말소리는 지척에서도 분별하기 어렵다. 항상 옳으니 그르니 하는 세상 소리 귀에 들릴 것을 두려워하여 짐짓 흐르는 물을 시켜 산을 모두 귀먹게 하였네(狂噴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敎流水盡聾山).”
또 지리산 신흥사神興寺의 깊은 골짜기도 역시 홍류동이라고 한다.

지리산 청학동은 옛날에 푸른 학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전조前朝 때에 이인로李仁老가 신흥사에 이르러서 청학동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지팡이 짚고 산길을 걸어 청학동 찾고자 하였으나, 수풀 저편에서 헛되이 흰 원숭이 울음소리만 들려오네(策杖欲尋靑鶴洞 隔林空聽白猿啼)”라고 했다. 동洞이 청학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오래다. 살고 있는 승려가 나를 위해 이야기하기를, “태평하였을 때에 호협豪俠한 젊은이가 있어서 돌을 던져 학의 날개를 상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학은 그 때문에 다시 오지 않았으며, 학이 떠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임진란壬辰亂이 있었다”라고 했다. 아마 기틀을 미리 살피고 떠나간 것일 것이다.

송악松嶽의 처음 이름은 부소扶蘇였다. 혹은 곡령鵠嶺이라 하고, 또 혹은 신숭神嵩이라고도 하였는데,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송악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이른바, 곡령청송鵠嶺靑松이라고 한 것이 여기다. 윤소종尹紹宗의 시에, “만고萬古에 푸르고 푸른 부소산扶蘇山”이라고 한 것이나, 허침許琛의 시에, “부소산의 왕기[10]가 침륜하고자 한다(扶蘇王氣欲沈淪)”라고 한 것은 다 송악을 가리킨 것이다.

10 제왕의 덕을 갖춘 사람이 나오는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특수한 운기雲氣.

또 부소산은 부여扶餘에도 있다. 이곡李穀의 부여회고시扶餘懷古詩에 "부소산 아래에 옮겨서 나라를 세우니(扶蘇山下徙立國)"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여지승람》에 말하기를, "방암方巖은 한라산의 꼭대기, 사람의 발자취가 가지 못하는 곳에 있다. 돌의 형체는 모나고 반듯하여 사람이 다듬어 만든 것 같다. 그 아래에는 사초莎草가 계곡을 이루었으며, 아득히 관현管絃의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나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 세상에서는 신선이 항상 와서 노니는 곳이라고 전해 내려온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정의旌義 · 금령金寧 · 함덕咸德에도 신선이 많다"고 한다. 금령 · 함덕은 또한 제주의 속현屬縣의 이름이다.

청풍군淸風郡의 군청 소재지에는 병풍산屛風山이 있으며, 그 산에는 사방 2자 남짓한 굴이 있는데, 바람 기운이 매우 격렬하여, 비록 한창 더운 여름날일지라도 오히려 한기를 느끼므로 이름을 풍혈風穴이라고 한다. 굴 안은 비고 멀어서 그 깊이가 몇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더듬어 잡고 기어올라 갈 수 있는데, 불로 비춰 보면 돌 틈에 먹을 수 있는 석수石髓가 많이 있다. 동혈 밖에 가지고 나오면 엉겨 굳어져 돌이 되어버린다.
고증하여 보니 《형주기荊州記》에 말하기를, "의도宜都의 낭산狼山에는 동혈이 있는데, 입구의 크기가 두어 자나 된다. 이를 풍정風井(바람 우물)이라 한다"라고 했다. 송옥宋玉의 풍부風賦에 말하기를, "바람이 푸른 마름의 끝에서 일어나 토낭土囊의 입에서 크게 성낸다(風起於靑蘋之末 盛怒於土囊之口)"라 했고, 주註에 토낭은 큰 구멍이란 뜻이라고 했다.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것이다.

의성현義城縣에 얼음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석혈石穴이 있어서 입구는 3자이며, 풍혈이라고 한다. 또 바위 밑에 굴이 있으니 넓이가 1자이다. 입하立夏 뒤에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한여름이 되면 얼음은 굳어진다. 토우土雨가 오는 때

면 얼음이 녹는다. 봄과 가을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이 봄과 같다. 이것을 얼음 굴(氷穴)이라고 한다.
의흥현義興縣의 화산華山에도 또한 풍혈이 있는데, 매우 차가워서 매년 여름에 얼음이 언다고 한다. 이상한 일이다.

운봉雲峯의 팔량현八良峴에 혈암血巖(피 흐르는 바위)이 있다. 우리 태조太祖가 쳐서 멸망시키고, 도읍을 빼앗아버린 곳이다. 돌 위에 얼룩진 피 흔적이 지금까지도 마치 새로 떨어진 것 같다. 임진년엔 바위에서 피가 흐르더니 왜구倭寇가 왔다. 괴상한 일이다.

4-3 수水

《하원지河源志》에 말하기를, "하수河水의 근원은 토번吐蕃과 서비西鄙에 있다. 깊은 못을 이루고 있는 100여 개의 샘이 있어서 바야흐로 7, 80리는 될 것이다. 저습한 진흙 수렁이 무르고 약해서 사람의 발자취를 이기지 못한다. 바라보면 번쩍거리는 것이 마치 별들이 널려 있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이름을 성수해星宿海라고 한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니, 하수의 원류源流가 성수해에서부터 15일쯤 흘러가서 곤륜산에 이른다. 그러니 옛날에 하수의 근원이 곤륜산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원나라 때에는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서로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하수의 근원이 나오는 것을 끝까지 조사하여 이 《하원지》를 만든 것이니, 그 말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이다.

주자朱子가 황하黃河와 장강長江과 압록강을 천하의 삼대수三大水라고 했다. 대

체로 압록강은 백두산에서부터 수천 리를 달리다가 세 강으로 나뉘어서 서쪽과 남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 원류가 매우 멀기 때문에 대수大水라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패수浿水라고 말하는 것이 셋 있다. 그 하나는 《한서》에, "한漢나라가 일어나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국경을 정했다"라고 한 것과, 또 "위만衛滿이 망명하여 패수를 건넜다"라고 한 것이니, 바로 지금의 압록강이다. 또 하나는 《당사唐史》에 "평양성 남쪽의 패수라고 한 것이니 바로 지금의 대동강大同江이다." 또 하나는 《동국사東國史》에, "백제의 영토는 북으로 패하浿河에 이른다"라고 한 것이니, 바로 지금의 저탄猪灘(지금의 예성강을 말하는 듯하다)이다.

《전국책戰國策》을 고찰하여 보니, "아침에 동거東莒에서 활을 쏘고, 저녁에 패강浿江을 출발했다"라고 했다. 아마 우리나라의 패수를 가리켜서 한 말일 것이다.

《천자문》에, "금이 여수麗水에서 나온다"라고 한 것을, 어떤 이는 여수의 려麗자는 곧 고려高麗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한다. 대체로 삼차하三叉河의 다른 이름은 요수遼水로서 옛날에는 고려에 속했다고 한다. 지금 《한비자韓非子》를 상고하여 보니, "형남려수荊南麗水에서 금이 산출된다" 했고, 또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살펴보니, "남쪽 지방에 여수현麗水縣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비로소 그 글들이 본래 여기에서 나온 것을 알겠다.

하河라고 하는 말은 북방에서 흐르는 물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그런 까닭에 요遼에서부터 연도燕都(북경北京)에 이르기까지는 8개의 하를 건너야 한다. 즉 옹북하甕北河 · 삼차하三叉河 · 대소릉하大小陵河 · 사하沙河 · 심하深河 · 난하灤河 · 노하潞河 · 옥하玉河가 그것으로, 모두 '하'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저탄猪灘을

구패하舊浿河라고 일컫는 것도 아마 또한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천은 경기와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없는 곳이 없고, 평산平山 · 연안延安 · 온양溫陽 · 이천伊川 · 고성高城 · 동래東萊의 온천들이 가장 저명하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세종대왕이 안질眼疾이 있어서 중사中使에게 명령하여 여러 도道의 온천물을 길어 오게 하여 저울에 달아보니, 이천의 갈산葛山 온천물이 가장 무거웠으므로, 드디어 친히 거기에 행차하여 목욕하였더니 좋은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갈산 온천의 수질이 제일 좋다고 한다.

초정椒井이란 것도 많이 있다. 그중에도 광주廣州 · 청안淸安 등처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 매년 7, 8월이 되면 물에 후추 기운이 있어서 몹시 맵다. 병든 사람이 목욕하면 자못 신기한 효험이 있다고 한다.
《본초本草》를 조사하여 보니, "온천 밑에는 유황硫黃이 있기 때문에 물이 무겁다"라고 했고, 《의감醫鑑》에는 "냉천冷泉 밑에는 백반白礬이 있기 때문에 물맛이 시고 떫고 차고 맵다"라고 했다. 이른바 냉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초수椒水인 것이다.

해주海州에 우는 냇물이 있다. 사람을 전별餞別하는 곳이므로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기생과 이별을 하는데 기생이 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물은 우는 내의 물이 있건만 사람은 이별을 우는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다리 아래의 물을 가져다가 미인의 손수건을 젖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다.

대진大津은 경기도와 충청도 사이에 있다. 수로의 30리 가운데에 큰 돌이 있어서 배가 부딪치면 부서지므로, 세상에서 새신영공賽神令公이라고 일컫는데, 지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향화香火를 갖추어 기원하고 빈다. 새신賽神(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라는 칭호는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공令公이라는 말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혹 영공이란 즉 영군靈君이라는 말이 아닌가 의심된다.

반산半山의 시에, “10월의 차가운 강물이 바로 부조復艚의 계절이로구나(十月寒江正復艚)”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정월의 물을 해동수解凍水, 2월 물을 백빈수白蘋水, 3월 물을 도화수桃花水, 4월 물을 과만수瓜蔓水, 5월 물을 맥황수麥黃水, 6월 물을 산번수山樊水, 7월 물을 두화수豆花水, 8월 물을 적묘수荻苗水, 9월 물을 상강수霜降水, 10월 물을 부조수復艚水, 11월 물을 주릉수走凌水, 12월 물을 축릉수蹙凌水라고 한다. 김유신金庾信의 시에, “봄물에 도화桃花를 바라본다(春水望桃花)”라고 한 것이나, 장지화張志和의 시에, “도화 흐르는 물에 쏘가리가 살찌다(桃花流水鱖魚肥)”라고 한 것도, 또한 이 3월의 도화수를 말한 것이다.

4-4 해海

《이문록異聞錄》에 말하기를, “지세地勢가 서북은 높고 동남은 낮다. 이른바 동해니 북해니 남해니 하는 것이 실은 통틀어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서해라는 것은 없다.” 경전에 기재된 사해四海는 아마 이런 등류를 인용하여 한 말일 것이다.
감영甘英이 조지條支(고대의 나라 이름)에 가서 큰 바다에 임했다고 한 것은, 아마 바로 남해의 서쪽이었을 것이다. 《한서역전漢西域傳》에 말한 포류해蒲類海라는 것도 또한 정지해 있는 하나의 큰 못이 아닌가 의심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것은 성수해星宿海를 말한 것이지 서해西海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세상에서 사해四海(동서남북의 사방의 바다)라고 일컫는 것은 다만 중국을 표준으로 하여 말한 것이고, 천지天地 사이의 사해는 아닌 것이다. 만약 《삼재도회三才圖會》를 참고하여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견지夷堅志》[11]에 말하기를, "영해현寧海縣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미려尾閭[12]가 있으니, 그 물결이 사납고 급하며, 함몰하여 큰 소용돌이를 이룬 것이 십여 곳이나 있어서 배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 아마 동해의 물이 새어 나가는 곳일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영해는 즉 절강성浙江省 태주台州의 속현屬縣이다. 《장자莊子》 〈추수秋水〉편에 나오는 미려설尾閭泄의 주註에는, "미려의 다른 이름은 옥초沃焦이니, 상하 사방이 4만 리나 되는 돌 하나가 거기에 있어서 바닷물이 닿기만 하면 타버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상의 양설은 같지 않은 것 같다.

옛사람의 시문 가운데에 벽해碧海(푸른 바다)라고 한 것은 대개 동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십주기十洲記》에, "동방에 푸른 물이 있으니 짜거나 쓰지 않으며 진정 푸른빛을 하고 있다" 했고, 《산해경山海經》에 말하기를, "부상扶桑은 벽해碧海 가운데에 있다. 또 동해를 또한 창해滄海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열선전列仙傳》에 말하기를, "큰 자라가 등에 봉래산을 업고 창해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춤춘다"라고 했다. 이것이 모두 벽해는 동해를 지칭한다는 것을 뒷받침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혼동하여 바다를 모두 벽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지승람》에 경도京都를 일컬어 말하기를, "왼쪽으로 관령關嶺을 제어制御하고, 오른쪽으로 발해渤海를 둘렀다" 했고,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는 해서

11 책 이름. 모두 50권. 송나라 홍매洪邁가 지은 것으로 신선 · 괴귀怪鬼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12 큰 바다의 깊은 곳에 있어서 그칠 사이 없이 물이 샌다는 곳.

海西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북쪽으로 자비령慈悲嶺에 연접하고 남쪽으로 발해를 굽어본다"라고 하였으며, 예겸倪謙의 〈태평관부太平館賦〉에는, "한강 물 크게 흘러 발해로 돌아간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박물지》에서는 동해를 동시에 발해라고도 일컬었으며, 남해에는 따로 창해漲海가 있고, 서해 가운데에는 청해靑海가 있으며, 북해에는 따로 한해瀚海가 있다고 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서해는 중국의 동해이다. 그런 까닭에 발해와 동해를 통칭한 것이다.

중국의 동해는 즉 우리나라의 서해이다. 거기에는 본래부터 밀물 · 썰물의 현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해에는 본래 밀물 · 썰물이 없다. 이것은 이치 밖의 알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역대에 이에 대하여 논변한 사람이 없으니 중국 사람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동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양만세楊萬世라는 젊은이는 동해에 사는 사람인데 나에게 말하기를, "북해가 북쪽에서 흘러 내려와서 동해에 이르는 일을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비록 바람이 고요한 날에도 파도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이다. 길게 흐르고 있는 물에 밀물 · 썰물의 현상이 없는 것은 그 흐르는 세력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일찍이 섬라국暹羅國(지금의 타이)의 지도를 보니 동남해 가운데에 만리장사萬里長沙와 만리석당萬里石塘이 있어서 이어 뻗었으며, 둘러서 안고 있었다.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에, "제주에서 흰 바다를 바라보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4-5 도島

전횡田橫은 의사義士이다. 바다의 섬 안에서 죽으니 후인들이 그를 슬프게 여겨 그 섬을 오호도嗚呼島라고 불렀다 한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홍주洪州·해주海州의 바다 가운데에 잉질분도芿叱盆島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호조嗚呼島이다"라고 한다. 아마 방언方言에 잉질분芿叱盆이란 말이 오호嗚呼(슬프다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여서 하는 말일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의 개국 초기에, 북경에 가는 사신이 반양산半洋山을 지나가다가 배가 난파했다고 한다. 반양산은 오호도에 있으니 대체로 우리나라와는 그 거리가 멀다.

울릉도의 다른 이름을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 한다. 동해 가운데에 있어서 울진현蔚珍縣과 마주 바라본다. 섬 안에 큰 산이 있으며, 지방의 크기는 100리 정도이며 바람 편이 좋으면 2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 신라 지증왕智證王 때에 우산국于山國이라 이름하고, 신라를 높이 받들어 토공土貢을 바쳤다. 고려 태조 때에는 섬사람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바쳤고, 아조我朝의 태종 때에는 안무사安撫使를 파견하여 흘러들어 간 백성들을 모두 데려 내오고 그 땅을 비워 버렸다. 땅은 비옥하며, 대나무의 크기가 외나무다리만 하고, 쥐는 크기가 고양이만 하며, 복숭아씨는 되보다 더 크다고 한다.
임진왜란을 지낸 뒤에 가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도 역시 왜병의 불 지르고 약탈하는 일을 당하여 다시는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근래에 왜놈들이 의죽도礒竹島를 점거했다고 들었다. 어떤 이는 기죽도磯竹島라고 말하는데 즉 울릉도인 것이다.

삼봉도三峯島도 또한 동해 가운데에 있다. 성묘조成廟朝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자가 있으므로 박원종朴元宗을 보내어 탐사하게 하니, 풍랑이 거세어서 배

를 대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울릉도를 지났다고 했다. 《산해경》에 이른바, "봉래산에 명해溟海가 있으니 바람이 없어도 큰 물결의 높이가 100길이 되어 오직 날아다니는 신선만이 갈 수 있다"라고 했다. 아마 동북해의 풍랑이 매우 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것이다.

해랑도海浪島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섬에 도망해 들어가서 점점 불어나고 널리 퍼지게 되었으므로 연산조燕山朝에서 전림田霖을 보내 섬 안을 수색하니, 요동 사람이 64명, 우리나라 사람이 48명이나 되었다. 근년 이래로 해적이 출몰하여 침구侵寇와 약탈을 자행하니 양서兩西(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호남에 이르기까지 그 해를 입지 않는 달이 없었다. 조정에서 백령도白翎島의 안흥량安興梁에 군진을 설치하고, 이에 대비하니 그 화가 조금은 그쳤다. 그러나 뒷날의 우환이 염려되는 바 있다.

나주羅州에 흑산도黑山島라는 섬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송사宋史》에, "순풍을 만나면 명주明州 정해현定海縣에서 3일이면 큰 바다에 나갈 수 있고, 또 5일이면 흑산도에 닿는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남쪽 국경은 중국의 강소성江蘇省·절강성浙江省과 다만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력 정해년에 왜군이 전라도를 침범하였을 때에, 녹도만호鹿島萬戶 이대원李大元이 외로운 군사를 가지고 손죽도損竹島에서 항거하여 싸우다가 구원이 끊어지자 전패戰敗하여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슬퍼했다. 손죽도를 세상에서는 손대도損大島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에 죽竹을 '대'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대는 대원大元의 대大와 같은 음이다. 손대도는 곧 '대원을 잃은 섬'이라는 말과 통한다. 이것은 낙봉파落鳳坡라는 지명의 고사故事와 같은 참언讖言이 되는 것이다.

4-6 정井

동부東部 천달방泉達坊에 샘 우물이 있으니 물이 매우 좋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장수하는 이가 많았다. 그 방坊이 천달방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서울의 성안에서 물맛이 좋기로는 어의동於義洞 의성위댁宜城尉宅 안에 있는 우물물이 제일이라 한다. 성묘조成廟朝에 그 우물을 봉하여 놓고 물을 길어다가 임금께 진상하였으므로 어정御井이라고 했다. 뒤에 이 우물을 의성위宜城尉에게 하사했다. 그런 까닭에 사정賜井(임금이 하사한 우물)이라는 두 글자를 우물의 돌벽 위에 새겼는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전년에 당나라 관원 만경리萬經理와 형군문邢軍門이 모두 이 우물물이 제일 좋다고 하여 사람을 시켜서 날마다 길어다 마셨다고 한다.

예전에 평양의 성안에는 우물 샘이 없었다. 신묘년에 권징權徵이 감사監司가 되어 가서 우물을 팠으나 여러 길이 넘도록 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밑에 큰 반석이 있으므로 그 반석을 뚫었더니 샘이 나왔으며, 그 속에 부어鮒魚(붕어)와 연밥이 있었다. 그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술자術者가 지리를 말하기를, “평양성은 배를 가로놓은 형국이므로 우물을 파면 재화災禍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더니, 다음 해에 왜병이 왔으며, 우물물도 맛이 쓰므로 사람들이 또한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근년에 이경심李慶深이 통제사統制使가 되었을 때에, 고성固城 땅에 영문營門을 설치하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서 우물을 팠더니, 깊이가 10길 남짓하기에 이르렀으나 물이 없고, 그 아래에 반석이 있었다. 도끼를 사용하여 뚫어 깨뜨리니 그 속에 기와 5, 6장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 또 반석이 있었는데 뚫어 깨뜨리지 못했다. 어떤 이는 그 기와를 천지개벽 이전의 물건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

다.
또 근년에 황주성黃州城을 축조할 때에 산석山石을 채취하다가 돌 속에서 한 개의 작은 불상佛像을 얻었다. 이것도 또 그 이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일찍이 높은 산 위에 소라와 조개의 껍질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혹은 돌 속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 돌은 즉 옛날의 흙이었으며, 소라 · 조개는 즉 물속에 사는 생물이었는데, 낮은 곳이 갑자기 변하여 높은 곳이 되고, 부드러운 것이 문득 변하여 강강剛强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그러할 것이다.

고려高麗라는 나라 이름은, 산이 높고(高) 물이 곱다(麗)는 뜻에서 붙인 것이니, 려麗는 마땅히 거성去聲(높은 소리)으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운서韻書에서 평음平音(짧은 소리)이라고 하였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중국으로 가는 길에 고려촌高麗村 · 고려포高麗舖가 있고, 또 요동관遼東館 중에 고려정高麗井이라는 우물이 있다. 서로 전해오는 말에, 고려의 인마人馬가 그 관에 들어가면 비록 가무는 때일지라도 우물물은 반드시 넘쳐서 마르는 일이 없다. 그래서 고려정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또 일본의 무장주武莊州에 고려군高麗郡이 있고, 섭진주攝津州에는 백제군百濟郡이 있다고 한다.

4-7 전田

〈소주전蘇奏傳〉에 부곽전負郭田 2경이라는 말이 있다. 고증하여 보니, 6척이 1보, 240보가 1무畝, 100무가 1경이다. 혹은 100보를 1무라고 하기도 한다.
또 밭 가운데에 있는 도랑을 무畝라 하고, 밭 사이에 있는 길을 진畛이니 맥陌이니 한다. 내전萊田(묵은 명아주 밭)인 경우에는 원畹이니, 휴畦니, 반畔이니, 정

町이니 하는 것으로 면적을 표시한다.

기자箕子의 정전井田이 평양의 남문 밖에 있다. 밭 가운데에 우물이 있으니, 이름을 기자정箕子井이라고 한다.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이 그 제도를 연구하고자 하여 드디어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보수步數 계산법의 다르고 같은 것과, 척촌尺寸의 길고 짧은 것을 고찰하여, 한 이랑 한 이랑마다를 계산하여 그 구획을 구분하여 보니, 구區마다에 70무를 각각 작은 한계선으로 했고, 가로세로 모두 8개 구여서 통산하면 64구가 된다. 이것을 한 개의 큰 한계선으로 했다. 모나고 반듯한 모양이 수리數里 사이에 뻗쳤는데, 함구문含毬門 · 정양문正陽門 사이가 가장 분명했다. 한백겸은 드디어 정전설井田說을 지어서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전제田制가 같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그가 옛것을 좋아하는 일에 독실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아, 진秦나라가 정전井田의 제도를 폐지하고 천맥阡陌을 개간한 뒤로는 정전의 제도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알았으랴, 은나라 제도인 정전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적이 수천 년을 지나고도 없어지지 않았을 줄을. 그러나 구암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와 같이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더욱 칭찬할 만하다.

《운곡잡기雲谷雜記》에 말하기를, "원수沅水[13]와 상수湘水[14] 사이에는 산이 많아 농가에서 조(粟)를 심는 일이 많다. 산언덕에서 임목林木을 베어 뉘고, 불을 놓아 태운 뒤에, 그것이 재가 되면 즉시 조의 종자를 뿌린다. 이렇게 하면 수확이 반드시 배가 된다. 이것을 도경화종刀耕火種(칼로 나무를 베고 불을 놓아 태운 뒤에 파종한다는 뜻)이라 한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군山郡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는데, 이것을 화전火田이라고 한다.

13 호남성湖南省을 흘러 동정호洞庭湖로 들어가는 강.

14 광서성廣西省 흥안현興安縣에서 발원하여 호남성 동정호로 흘러들어 가는 강.

남만南蠻에는 수전水田이 많은데, 5무를 1쌍이라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왕감주王弇州가, "주먹만 한 두 뿔이 난 송아지를 사서 10쌍을 개간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왜국에서는 밭을 전畠이라 하고, 논을 전田이라고 하며, 화전을 전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전을 답畓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벼슬 이름에도 전산전畠山殿이 있고, 지명에 전도畑島가 있다고 한다.

5. 제국부諸國部

5-1 본국本國(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땅이 수천 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삼국시대 이전에는 50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저 중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는 상고에 100리 정도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1만은 되었으며, 주周나라 때에 이르러서도 아직 1,800국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은 오히려 상고시대이다. 그때에 50국이 있었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사기》에, "무제武帝가 조선을 평정하여 진번眞番 · 임둔臨屯 · 낙랑樂浪 · 현토玄菟의 4군郡으로 삼았으며, 소제昭帝는 그것을 병합하여 낙랑 · 현토의 2군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대체로 한漢나라가 평정한 것은 바로 위만衛滿이 점거한 땅이고, 우리나라 땅 전체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증하여 보니, 낙랑은 지금의 평양이고, 임둔은 지금의 강릉이며, 현토는 옛날의 동옥저東沃沮로서 지금의 함경도 땅이고, 진번은 치삽현治霅縣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그곳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상고하여 보면, "진번은 마땅히 요遼의 지경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일통지一統志》[15]에 말하기를, "조선朝鮮은 한漢나라 말년에 공손도公孫度에게 점거되었다가, 손자 공손연公孫淵 때에 위魏나라가 그를 멸망시켰으며, 진晉나라의 말년에 함락되어 고려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공손탁이 점거하였던 곳은 즉 요동이고 조선의 전역은 아니었다. 진晉나라 영가永嘉 말

15 중국의 전국全國 여지輿地를 기재한 책. 원元나라 때의 《일통지》는 악린嶽璘이 편찬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명나라의 《일통지》는 이현李賢 등이 칙명을 받들어 편찬했다.

기에 요동은 고구려에게 전취戰取되었었다. 《일통지》가 요동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한 것은 기록한 자가 자세히 몰랐기 때문이다.

환도성丸都城은 지금 그곳이 어디였는지 자세하지 않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영원寧遠의 검산劒山이 그것이다"라고 한다. 아마 상말에 칼을 환도라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강목綱目》[16]의 주註에, "고구려가 환도丸都의 아래에 도읍을 정하니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다"라고 했다. 또 《당지唐志》에는 "압록강 어귀에서 배를 타고 100여 리를 가서, 또 작은 배로 물결을 거슬러 동북쪽으로 500리를 올라가면 환도성에 도착한다"라고 했다.

《동사東史》를 고찰하여 보니, "백제의 땅은 동쪽으로 지리산에 이르고, 서남쪽은 바다를 한계로 하였으며, 북쪽은 한강漢江에 닿았다. 또 온조왕溫祚王 때에는 강패江浿로 경계를 삼았으니, 지금 평산부平山府의 저탄猪灘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처음에는 저탄을 경계로 했고, 뒤에는 한수漢水를 경계로 하였던 것이다. 기순祈順의 시에, "백제의 지형이 물에 임하여 다했다〔百濟地形臨水盡〕"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동국사東國史》에서 부여국扶餘國이라고 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서史書를 고찰하여 보면, "동옥저東沃沮는 북쪽으로 부여에 접했고, 남쪽으로 예맥濊貊에 접경했다" 했고, 또 "부여 왕이 고구려를 꾸짖어 말하기를, 나의 선왕先王과 그대의 선군先君 동명東明과는 서로 사이가 좋았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의 신료를 유인하여 남쪽으로 도망해 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였으며, 또 "고구려가 장성長城을 쌓았는데, 북쪽은 부여에서 남쪽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여 리가 된다"라고 했다. 그러니 부여국은 고구려의 북쪽에 경계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16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약칭이니, 중국 편년사編年史의 일종.

《요사遼史》를 참고하여 보니, "부여성은 뒤에 발해의 수도가 되었으니, 지금의 황룡부黃龍府가 이것이다" 했고, 또 "백제가 수도를 사비泗沘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南扶餘라고 하였으니, 사비는 지금의 부여현扶餘縣이다"라고 하여 서로 같지 않다.

기자조선箕子朝鮮 뒤에 비로소 삼한三韓이라는 칭호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설이 같지 않다. 고찰하여 보니 《후한서後漢書》에는, "변한卞韓은 남쪽에 있고, 진한辰韓은 동쪽에 있으며, 마한馬韓은 서쪽에 있다"라고 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마한은 즉 지금의 전라도, 변한은 지금의 충청도이고, 진한은 딴 이름을 진한秦韓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경상도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마한이 가장 커서 전라도 · 충청도가 되었고, 변한 · 진한은 모두 경상도에 있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경기 · 충청 · 황해도가 마한이었고, 전라도가 변한, 경상도가 진한이라고도 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사기》를 가지고 본다면 후설이 사실에 가까운 것 같다.
이 밖에 또 예국濊國이 있었으니 지금의 강릉江陵이고, 맥국貊國은 지금의 춘천春川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기자箕子의 봉역封域도 위만이 점거한 곳도 모두 평양의 근처이고, 삼한三韓을 모두 갖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위략魏略》에 말하기를, "기자箕子 이후 40여 대代가 되었을 때에 조선후朝鮮侯 준準이 참람히 왕王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했다. 《여지승람》에서 조선 무강왕武康王이라고 한 것은 즉 기준箕準이다. 대체로 조선이 기준에 이르러 비로소 왕이라 일컫기 시작했고, 위만을 피하여 마한馬韓에 이르러서 개국했다가 뒤에 백제 시조 온조溫祚에게 병합되었다. 이것이 서한西漢의 말기였다.

《동사東史》에, "위만이 왕검성王儉城을 점거했다"라고 한 구절의 주註에, 왕검성은 지금의 평양이니 상고의 선인仙人 왕검의 거택居宅이다"라고 했다. 《여지

승람》에 말하기를, "《고기古記》에는 단군의 이름을 왕검王儉이라 했고, 《마사馬史》에는 왕험王險이라고 썼으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신라가 나라를 향유한 것이 거의 1,000년이나 된다. 그 중엽에 이르러 삼한을 통일하고, 세상은 태평하며 해마다 풍년이 드니 사람들이 성대聖代라고 말했다. 세상에서 '신라성대新羅聖代'라고 일컫는 것이 이것이다.

《산해경》에 말하기를, "해동에 군자의 나라가 있으니,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며,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서로 다투지를 않으며, 근화초槿花草가 있으니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는다" 했고, 또 《고금기古今記》에는 말하기를, "군자의 나라로서 지역地域은 1,000리이며, 목근화木槿花(무궁화)가 많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당나라의 현종玄宗이, "신라를 군자지국君子之國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말과, 또 고려 때의 《표사表詞》에 우리나라를 일컬어 근화향槿花鄕이라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동방삭의 《신이기神異記》에 말하기를, "동방東方에 사람들이 있으니 남자는 모두 깨끗한 흰 띠에 검정 갓 차림이고, 여자는 모두 채색한 옷을 입는다. 항상 공손히 앉아서 서로 범분犯分하는 일이 없으며, 서로 칭찬하여 서로 헐뜯지 않는다. 남의 환난을 보면 죽음에 뛰어들어 구제하며, 창졸간에 그들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름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동방이라고 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를 가리킨 말일 것이다. 그런데 착한 사람의 풍습을 이제는 얻어 볼 수 없다. 어찌 이 사람과 더불어 벗이 될 수 있겠는가.

《수서隋書》에 배구裴矩가 말하기를, "고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孤竹國이니, 주周나라가 거기에 기자箕子를 봉封했다"라고 했다. 이 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여지승람》에 이첨李詹이 말하기를, "고죽국은 지금의 해주海州이다"라고 했다. 중국의 영평부永平府에 고죽고성孤竹古城이 있다. 그런데 첨詹이 해주를 고죽이라고 한 것은 또한 무엇을 근거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상고하여 보니 수양산首陽山 속에 고죽군의 옛터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그 설에 갖다 붙인 것이나 아닐까.

《당서唐書》〈신라전新羅傳〉에 말하기를, "산곡山谷에 의지하여 살면서 풀과 띠로 지붕을 덮는다"라고 했다. 동월董越이 〈조선부朝鮮賦〉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곽城廓을 만들 때에는 다 높은 산을 의지한다" 했다. 아마 중국에서는 백성들이 읍邑에 살며, 성곽은 다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것이다.

기자가 8조의 가르침을 제정했다고 한다. 《한서》를 살펴보니, "남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써 보상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하며,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적몰籍沒(죄인의 재산을 관官에서 몰수함)하여 그 집의 노비가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8조의 가르침 속의 3개 조항이다. 나머지는 고증할 수 없다. 혹시 이 3조항과 5륜을 합하여 8조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한서》에 말하기를, "마한馬韓 사람들은 흙집(土室)을 짓는데 형상이 무덤 같고, 위쪽을 향하여 창호를 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토실土室의 제도는 역시 오래된 것이다.

우리나라 제주濟州의 노래와 북도北道의 곡哭과, 영남의 시골 말소리(鄕音)가 중국의 그것과 서로 가깝다고 한다.

5-2 외국外國

안남국安南國은 중국의 서남쪽에 있으며 북경北京과의 거리는 1만 3,000리로서 진秦나라에서는 상군象郡이라 하였으며, 한漢나라에서는 교지군交趾郡을 두었다. 오대五代의 말기에 이르러 여환黎桓이 처음으로 참람히 왕이라고 불렀다. 명나라 영악永樂 때에 그 땅을 평정하였으니 동서가 1,700리, 남북이 2,800리였으나 뒤에 다시 배반했다. 가정嘉靖 초년에 막등용莫登庸이 찬시篡弒(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리를 빼앗음)하였으므로 왕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안남도통사安南都統使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그 나라의 황제 노릇을 했다.

고찰하여 보니,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교지국交趾國은 다른 이름을 안남安南이라고 한다. 국민은 바로 호견瓠犬의 남긴 종족이니 그 성질이 간사하고 교활하며, 머리를 깎고 맨발로 다닌다.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부리〔喙〕는 치켜들려 있어서 지극히 추악하게 생겼으므로 광동廣東 사람들은, 그들을 귀신 모양을 한 사람 비슷한 오랑캐"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바로 마원馬援의 군사가 남긴 종족이다.

또 노과국老撾國(라오스)은 안남安南의 서남쪽에 있다. 옛날 월상越裳의 나라이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즉 애뢰국哀牢國이라고 한다. 《오학편吾學編》에 말하기를, 그 나라의 풍속은 오랑캐들이 뒤섞여 살아서 예의를 알지 못하며, 모질고 사나워서 싸우기를 좋아한다. 오직 환연驩演 한 사람만은 순수淳秀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그 산천은 불적산佛跡山 · 구루산句漏山과, 부량강富良江이 가장 크다. 월왕성越王城 · 천사관天使館 · 낭박주浪泊柱가 있으며, 금과 구슬과 모든 향료와 물소와 코끼리와, 외뿔소〔兕〕 · 성성猩猩[17] · 비비狒狒[18] · 흰 꿩 · 비취새 · 바라밀波羅蜜(과일의 한 가지)을 생산한다. 내가 북경에 갈 때마다 번번이 그

17 유인원과에 속하는 짐승. 모양이 사람과 가장 닮았으며, 힘이 세 악어와 큰 뱀을 잡아먹는다.

18 원숭이과에 속하는 짐승. 아프리카 · 아라비아의 깊은 숲 속에서 살며 성질이 아주 흉포함.

나라의 사신과 만났는데,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涅齒〕, 머리털을 풀어헤쳤다. 문자를 꽤 이해하며, 언어는 합구성合口聲을 쓰고 있었다. 이른바 움펑눈〔窅目〕, 위로 치켜든 부리〔昂喙〕라고 한 말은 비슷했다. 다만 모두 머리를 풀어헤친 것이, 옛날 머리를 깎았던 것과 다를 뿐이었다.

유구국琉球國은 동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복건성福建省 매화소梅花所의 개양開洋으로부터 7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 임금의 궁실은 소박하여 단청의 장식이 없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대략 정전井田의 제도와 같아서, 임금과 신민이 각기 토지를 나누어서 녹봉과 식량을 마련하고, 상하 간에는 세금을 받거나 거둬들이는 일이 없다. 형벌을 사용하는 일은 매우 엄중하다. 조개껍질로 불을 때며, 사람들은 다 굳세고 건장하여 의약을 알지 못하여도 질병이 없다. 무기와 장비는 견고하고 예리하며, 활을 쏘면 200보에 이른다. 다투기를 좋아하여 이리처럼 싸운다. 곧잘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며, 살인을 저지르고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헤아리면, 곧 자기 배를 찔러 스스로 죽어버린다. 그곳의 산천으로는 원조서黿鼉嶼 · 팽호도彭胡島가 있고, 나라 서쪽에 있는 고미산古米山이 가장 험하여 배가 닿으면 곧 패선敗船한다. 산에는 맹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야마野馬가 많다. 곁에 비사나毗舍那라고 하는, 섬 속의 조그마한 오랑캐의 땅이 있는데, 섬의 언어를 쓰며 귀신 같은 형상을 하여 거의 인류人類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하여 보니, 한창려韓昌黎가 정상서鄭尙書를 송별하는 서문序文에 유구流求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들으니 그 나라는 우리나라 제주의 남쪽에 있어서 맑은 날에는 제주에서 희미하게 바라보인다고 한다. 아마 해로海路는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다.

삼불제三佛齊는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땅은 15주州가 있으니, 동쪽은 조와爪哇(자바)와 떨어져 있고 서쪽은 만랄가滿剌加(말라카)와 떨어져 있다.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사람들이 수전水戰에 익숙하며, 약을 복용하여

칼이 상해傷害를 주지 못한다. 적을 만나면 죽음을 각오하고 감투하니 이웃나라가 그들을 두려워한다. 물이 많고 땅이 적으므로 장차 거주할 육지를 얻으려고 한다. 백성들은 거의 모두 물속에 뗏목을 매고, 기둥과 도리를 걸쳐가지고 살며, 글자는 범서梵書를 사용한다. 화계火鷄라는 새가 있으니 학鶴보다 크며, 털은 푸른 양과 같고 숯을 먹는다.

또 조법아국祖法兒國이 바다 가운데에 있다. 타계駝鷄라는 새가 생산되는데, 키가 3, 4척이나 되며 다닐 때도 또한 이와 같이 3, 4척씩 걷는다. 상고하여 보니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서역에 큰 새가 있으니 타駝라고 한다” 한 것이 이것이다.

점성占城은 옛날의 임읍林邑이다. 본래 한漢나라의 상림현象林縣으로서 마원馬援이 동주銅柱를 설치한 곳이다. 한나라의 말년에 이르러 구련區連이 현령縣令을 죽이고 왕을 자칭했다. 당나라 원화元和 초년에 나라 이름을 점성국占城國이라 고쳤다. 큰 바다의 남쪽에 있어서, 남으로 진랍眞臘과 떨어졌으며, 서쪽으로 교지交趾와 상거相距했다. 사계절의 항상 뜨겁기가 여름철과 같다. 서리나 눈이 없으며, 초목은 크고 푸르다. 풍속은 모질고 사나워서 전투에 과감하며,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남자를 천시하며, 검은빛을 아름답게 여긴다. 띠로 지붕을 인 집에서 사는데, 집 높이가 3척을 넘지 못한다. 나들이를 할 때에는 말이나 코끼리를 탄다.

시두만尸頭蠻이라는 것이 있으니 부인婦人이다. 밤에 머리를 날려 보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소아小兒의 더러운 냄새를 먹고, 머리가 돌아와서 몸에 합하면 전과 같이 되살아난다. 만일 그 몸을 잃어버려서 머리와 몸이 서로 다시 합하지 못하면 즉사한다. 서犀란 짐승의 큰 것은 800근이나 되는데, 외뿔이 코끝에 있어서 길이가 1자 5치는 된다. 말은 나귀보다 작다. 상고하여 보니, 당나라 태종太宗 때에 임읍에서 오색五色 앵무鸚鵡를 바쳤다고 했으니 아마 그곳의 생산일 것이다.

섬라국暹羅國은 사방 천여 리里나 되는 나라로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여러 산들이 높이 솟아 둘러져 있고, 땅은 낮고 습기가 많으며, 기후는 바람과 더위가 일정하지 않다. 본래 섬暹과 나곡羅斛 두 나라 땅으로서 섬暹은 곧 적미赤眉의 유종遺種이다. 원元나라 지정至正 때에 비로소 합하여 한 나라로 되었으며, 불교를 숭상한다. 부인들은 지혜가 많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다고 한다. 상례喪禮에서, 귀한 사람은 수은水銀을 들이부어서 장사 지내고, 민간에서는 조장鳥葬(시체를 새에게 뜯어먹게 하는 것) 한다. 수전水戰에 익숙하며, 침구侵寇와 약탈하는 일을 좋아한다. 보석과 기이한 향료 · 사자 · 흰 코끼리 · 흰 쥐 · 여섯 발거북 등을 생산하며, 소목蘇木은 흔하기가 땔나무 같은데 빛이 뛰어나게 아름답다. 내가 일찍이 북경에 가서 그 나라의 지도를 보니, 용아산龍牙山이라는 산이 있어서 바다 가운데를 가로 끊었으며, 중간이 열려서 문이 되어 있는 것이 형세가 매우 기이했다. 그곳 사람들은 머리털을 깎으며, 낯빛은 칠흑漆黑 같은 것이 많다. 옷깃이 왼쪽으로 가도록 입으며 맨발로 다닌다.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중국의 글자를 알지 못한다. 대체로 관대冠帶를 갖춘 예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일본의 옛 이름은 왜노倭奴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처음으로 중국과 통하였으며, 당나라 때에 이르러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고쳤다. 동서의 길이가 5천여 리, 남북의 거리가 수백 리이다. 다만 동산도東山道 · 동해도東海道 등은 남북이 천여 리나 된다. 그 남북이 좁고 동서가 길기 때문에 일자국一字國이라고 말한다. 《한서》에 말하기를, "왜왕倭王이 야마대耶馬臺에 산다"라고 했고,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에는 말하기를, "왜노에 1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첫째가 야마耶馬이다"라고 하였으며, 강항姜沆의 《문견록聞見錄》에는, "왜왕의 옛 도읍을 야마대野馬臺라고 하는데, 480곳의 절이 있으며, 지극히 화려하여 대체로 남조南朝의 480곳의 절과 상등相等한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은 일주一州가 일국一國이 된다. 그런데 육오주陸奧州가 가장 커서 54군郡을 관할하는데, 동서의 거리가 60일의 도정道程이 된다. 그 바다 가운데에는 금산金山이 있고 북쪽으로는 하이蝦蛦와 접경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몸이 크며 몸에 털이 있다. 그곳에서는 문어文魚·초피貂皮 등의 물품을 생산한다. 또한 산오랑캐(山戎)가 있어서 스스로 취락을 이루었다. 그 땅이 광막하여 끝이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오주의 평화천平和泉에서 이해夷海에 이르기까지 겨우 30리로서 우리나라 야인野人과 경계를 연접했다"고 한다. 근년에 중국의 관원이 종성鍾城에 들어가서 홀로忽虜를 타이른 일이 있다. 그때에 왜인倭人이 저곳에 있었는데, 그에게서 듣고 그 일을 안다고 했다. 이해夷海는 또한 이도夷島라고도 한다. 소위 하이라는 것은, 즉 모인毛人이 아닌가 의심된다.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말하기를, "그 땅은 흑룡강의 북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일본日本 국도國圖에는 8도道, 66주州로서 일기壹岐·대마對馬 두 섬은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영량부永良部·평호도平戶島·오도五島·삼도三島·팔장도八丈島 등의 지방이 있다. 고을이 9만 2,000곳이 있고, 마을이 90만 9,800여 곳이다. 수전水田이 89만 9,160정이고, 전畠이 11만 2,148정이다. 불사佛寺가 2,958곳, 신궁神宮이 2만 7,613곳이 있다. 남자의 인구는 19억 9만 4,800명이고, 여자가 29억 4,800명이다. 모든 성지城池가 있는 곳을 향鄕이라고 일컫는다. 55간이 1정, 36정이 1리인데, 그 1리는 우리나라의 10리에 준한다고 한다.

일본의 천황은 주周나라 평왕平王 때에 처음으로 즉위하여 일성一姓이 서로 전하여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천황은 정사政事에는 간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귀를 누릴 뿐이다. 국왕의 칭호를 관백關白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국가의 정치를 관리하며, 천황을 높이 섬기는 것은, 혹시나 주나라 때 열국列國의 유

풍遺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일할 것이 없는 자를 왜황제倭皇帝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왜황倭皇의 성姓은 희씨姬氏이니 오吳나라 태백중옹泰伯仲雍의 후예라 하고, 혹은 말하기를, 성姓을 왕씨王氏라고 하는데, 진정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부산에서 동쪽으로 가면 일본의 수도에 도착하는데, 해로로 거의 4,000리나 된다. 국도國都의 동북에서 준하주駿河州에 이르는 거리가 또 1,000리는 된다. 산이 있으니 그 산을 부사산富士山(후지 산)이라고 하며, 높이가 400여 리나 되는 것이 바다 가운데에 높이 솟아 있다. 산의 반 이상은 얼음과 눈이 덮여서 한여름에도 녹지 않으므로 1,000리 이내에서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동쪽의 땅 이름은 삼도三島인데 그 삼도의 동북쪽에 준령이 있으니 상근箱根이라고 한다. 그 위에 큰 호수가 있고, 진기한 꽃과 기이한 풀들이 그 언덕에 빽빽하게 들어섰다고 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부사산을 한음漢音으로 번역하면 곧 불사산不死山이다. 그 산 위에서 불사약不死藥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까. 송경렴宋景濂의 시에, "6월에 눈송이가 소취素窾[19]에 나부끼고, 서린 뿌리는 삼주三州 사이의 땅을 두르고 있다(六月雪花飄素窾 蟠根壓地三州間)"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삼주는 왜국의 지명이다.

《후한서》에 말하기를, "서복徐福[20]이 바다에 들어가서 이단주夷澶洲에 머물렀다"라고 했다. 한韓나라의 글에 바다 밖의 이단지주夷亶之州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이夷와 단亶은 두 주州의 이름이다. 지금 왜국의 남해도

19 소素는 옛날 그대로라는 뜻, 취窾는 동혈洞穴이니 태고의 상태 그대로의 동혈.

20 서불徐市이라고도 한다. 진秦나라 때의 방사方士. 진시황秦始皇을 움직여 동남동녀童男童女 3,000명을 데리고 바닷속에 있는 삼신산三神山에 가서 불사약不死藥을 구해 오겠다고 일컫고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한다.

南海道에 기이주紀伊州 · 담주淡州가 있다. 담淡은 단亶과 음이 서로 비슷하다. 이것이 이단주가 아닌가 의심된다. 강항姜沆의 《문견록聞見錄》에 말하기를, “왜인倭人들은 이세伊勢의 열전산熱田山과 기이紀伊의 웅야산熊野山, 준하駿河의 부사산富士山을 삼신산三神山이라고 한다. 또 서복이 죽어서 신이 된 까닭에 기이주에는 지금까지 서복사徐福祠가 있다. 웅야산의 수호신은 서복의 신이고, 애탕산愛宕山의 수호신은 신라 사람 일라日羅의 신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일라라고 하는 것은 즉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연오延烏와 세오細烏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조완벽趙完璧이 말하기를, “일본 경도京都(교토)에 서복의 사당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서복의 후예가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일본은 땅이 따뜻해서 얼음이나 눈이 없다. 그러나 그 북륙도北陸道는 매우 추워서 매년 겨울이면 눈이 여러 길씩 쌓인다. 또 바다 섬이 모두 돌산에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왜인들은 전적으로 흙이 깊으냐 얕으냐를 가지고 토지가 비옥한가 척박한가를 구별한다. 만약 흙이 1척 정도로 얕으면 오곡이 성숙하지 않는다. 흙의 깊이가 7척 이상 1장에 이르는 것이 가장 두꺼운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제주도 또한 이와 같으니, 흙이 3척의 깊이 되는 곳이 없다. 그런 까닭에 매년 한재旱災로 고통을 받으며, 항상 육지의 고을에서 곡식을 사들여다가 생활한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도 관棺이 반은 땅 위에 드러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여러 왜장倭將들은 모두 식읍食邑을 가지고 있다. 가령 가강家康이 그의 식읍에서 받아먹는 것은 250만 석, 휘원輝元은 150만 석, 그 밖에 많은 자는 간혹 4, 50만 석, 적은 자는 혹은 10만 석으로서 그 수를 이루 다 셀 수 없다고 한다. 그중에 1,000석의 식읍을 가진 자는 군사 50인을 거느릴 수 있고, 1만 석의 식읍을 가진 자는 군사 500인을 기를 수 있어서, 갑병甲兵의 많고 적

은 것을 곡식의 수량에 비교하여 보면 그 나라의 부강한 정도를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

대마도對馬島는 땅이 모두 모래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왜인들은 전적으로 우리나라와 장사하는 일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평시에는 영남의 전세田稅로 수납한 곡식 반 이상이 그들에게 수출된다.
대마도는 대대로 종성장宗盛長의 집안이 전해 내려온다. 그의 조상은 본래 우리나라의 성姓을 송宋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가 그 섬에 들어가서 도주島主가 되고 성을 종宗으로 고쳤더니, 일본의 평수길平秀吉 때에 이르러 그를 멸망시키고 평의지平義智로 대신 도주를 삼고, 드디어 그를 향도嚮導로 삼아 우리나라에 침구侵寇해 들어왔으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대체로 대마도의 왜인들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또 우리나라의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속임수가 저절로 나왔을 것이다. 비록 평시에 공물貢物 바치는 것을 용납하고 서로 무역을 행하는 일을 가지고 속박하고 있었으나, 다른 날 근심거리가 될 것은 필연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의지義智가 비록 평平으로 성을 고쳤으나 실상은 종씨宗氏가 아직 멸망해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일본의 근강주近江州에 검은 흙이 있는데 벽돌처럼 덩이를 이루고 있다. 전지田地나 들 가운데에서 생산되는데 파내고 나면 땅은 도로 평평해진다. 대체로 지반이 솟아오르는 땅인 것이다. 왜인들은 그 흙을 가져다가 불을 때면서 이름을 토신土薪이라고 한다. 중국에 석탄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검정빛 꿩이 생산되며, 범 · 표범 · 새매 · 까치가 없다. 해산어물海産魚物도 또한 많지 않다고 한다.

백제가 망하니 임정태자臨政太子라는 자가 있어서 배를 타고 일본에 들어가서

대내좌경대부大內左京大夫가 되어서 주방주周防州에 도읍을 정하고 대내전大內殿이라고 불렀다. 스스로 그 가계家系가 백제에서 나왔다고 하여 가장 우리나라와 친근했다. 지금 왜장 휘원輝元의 조상은 바로 그의 수종자隨從者였다. 임정臨政의 후예가 47대를 지나고 끊어지니, 휘원의 조상이 대신 그 땅을 승습承襲하여 안예주安藝州에 도읍을 정했다. 그들의 풍속은 다른 왜인들에 비하여 너그럽고 느려서 우리나라 사람의 기상이 있다고 한다.

바다 동쪽에 모인국毛人國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온몸에 두어 치씩 되는 털이 났으며 왜국에 예속되어 있는데, 양만세楊萬世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보았다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산해경山海經》에 말하기를, "모국毛國이 큰 바다 가운데에 있다"라고 했고, 한문韓文(한유韓愈의 문장)에는 말하기를, "바다 밖의 모인毛人이란 것은 이단夷亶의 고을이 그것이다"라고 했다.
또 양만세楊萬世가 말하기를, "여국女國이라는 나라가 일본 가까이 있으며, 또한 야차국夜叉國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 곧 잡아먹기 때문에 일본이 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문옥설事文玉屑》 등의 서적에 말하기를, "여국은 동남해 중에 있으니, 그 나라 여인들은 나체로 바람에 교감交感하여 생산한다"라고 했고, 또 "우물 속의 물을 내려다보고 자기의 형체를 비춰 보아 교감한다"라고도 했다. "야차국은 유귀국流鬼國의 북쪽에 있고, 유귀국은 흑수말갈黑水靺鞨의 동북에 있는데,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임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진랍국眞臘國은 본래는 부남扶南이다. 땅이 방方 7,000여 리이고, 점성占城의 서남해 가운데에 있다. 섬라暹羅와의 거리는 15일을 걸려서 여행할 만한 거리이다. 그 나라는 매우 웅대하고 부유하며, 풍속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숭상한다. 그런 까닭에 예전에는 부귀진랍국富貴眞臘國이라고

일컫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은 사계절이 항상 5, 6월 같은 기후이다. 4월에서 9월까지는 매일 비가 오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아주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
새로는 공작과 처조翠鳥와 앵가鸚哥가 있고, 짐승으로는 무소와 코끼리와 들소와 산마山馬가 있다. 기러기 · 까치 · 꾀꼬리 · 제비는 없다. 쥐의 크기는 고양이만 하다. 정월에 연꽃이 피며, 가지나무(茄樹)와 목화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지붕을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풍토기風土記》에 나온다.

《소설小說》에, "진랍국眞臘國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술을 음사淫事처럼 숨긴다. 오직 아내와 더불어 방에서만 마신다"라고 한다.
또 서번西蕃의 홀로모국忽魯謨國에서는 술 마시는 자는 저자에서 죽인다고 한다. 저자에서 죽이는 것은 가혹하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가장 칭상稱尙할 만하다.

조와爪哇의 옛 이름은 도파闍婆이다. 그 나라는 부유하고 땅은 넓으며 사람들이 조밀하기가 동양의 여러 번국蕃國 가운데 으뜸이다. 남자의 머리털은 헝클어졌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상투를 짠다. 남자는 반드시 허리에 칼을 차는데 칼이 매우 정교하고 예리하다. 형벌에는 매로 치는 것이 없으며, 죄의 경중을 묻는 일이 없이 모두 칼로 베어 죽인다. 용기를 숭상하고 싸움을 좋아하며, 얼굴빛은 검다. 머리는 굽히고 다리는 벌겋게 드러낸다. 음식을 먹는데 수저가 없으며, 뱀 · 개미 · 벌레 · 지렁이를 씹어 먹는다. 개와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도 더럽게 여기지 않는다. 장사 지내는 법은 수장水葬 · 화장火葬, 개에게 뜯어 먹게 하는 견장犬葬이 있는데, 다만 죽은 사람의 유언에 좇아 그중 어느 것을 택한다.
《당사唐史》를 고찰하여 보니, "남만南蠻의 표국驃國을 또한 도리파闍利婆라고 부른다. 나라가 가장 부유해서 임금의 궁전은 황금으로 벽돌을 만들었으며, 지

붕은 은銀기와로 덮었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고리대국古俚大國은 서양 제번諸蕃에 인접하여 있다. 중국과의 거리는 10만 리나 되며, 임금이 불교를 좋아하고 코끼리와 소를 존경한다. 늙으면 재산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고, 외손外孫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아우에게 전한다. 외손도 아무도 없으면 선행이 있는 사람에게 전한다. 풍속은 신의信義를 숭상하며, 길 가는 사람은 길을 서로 비켜 주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는다. 호로葫蘆로 악기를 만든다. 대체로 바다 가운데에 외로이 떨어진 나라로서 상고上古 삼대三代의 유풍이 있으니 칭찬할 만하다.

만랄가滿剌加(말라카, Malacca)의 옛 이름은 오서五嶼이니 남해南海 가운데에 있다. 기후는, 아침은 뜨겁고 저녁에는 차다. 임금은 흰 명주로 머리를 동인다. 풍속은 순박하며 회회교回回敎를 숭상하고, 바다 곁에 사는 사람들은 귀룡龜龍을 겁낸다. 귀룡은 높이가 4척이고 네 발을 가졌으며, 몸에는 비늘 모양의 굳은 딱지가 덮여 있다. 사람을 만나면 곧 깨물며, 물리면 즉사한다. 산에 흑호黑虎가 있는데 범보다 조금 작다. 간혹 사람의 형상으로 변형하여 백주白晝에 떼를 지어 시가에 들어온다. 그것을 알아본 자가 사로 잡아 죽이곤 한다.
상고하여 보니, 명明나라의 급사중給事中 진가유陳嘉猷가 일찍이 그 나라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갔을 때의 시집이 있다.

방갈라榜葛剌(방글라데시)는 동인도東印度이다. 나라가 가장 크고 재물이 풍족하기가 이웃나라들 중에 제일이 된다. 임금과 여러 관원들은 다 회회교인回回敎人이다. 머리를 깎았으며, 흰 베로 머리를 동인다. 기후는 항상 덥기가 여름과 같다. 음양술陰陽術과 의약醫藥과 복서卜筮와 온갖 기예技藝가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다. 역서曆書는 1년이 12개월로 되어 있으나, 윤달이 없다. 풍속은 소박하고 순후하며, 농사짓기를 좋아한다. 1년에 곡식이 두 번 성숙한다. 부녀자들

은 연지나 분을 바르지 않으나, 자연으로 애교가 있고 살빛이 희다. 남녀가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개가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재취再娶하지 않는다. 만약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나이 많은 과부가 있으면 온 마을이 돌아가면서 부양한다. 두라금兜羅錦이라는 비단이 있으니, 너비가 4, 5척, 두께가 5분分쯤 되며, 배면背面은 모두 연하고 부드러운 융단이다.

석란산錫蘭山은 대해중大海中에 있다. 임금은 불교를 숭상하며, 코끼리와 소를 소중히 여긴다. 우유를 마시지만, 그 고기는 먹지 않는다. 소를 죽인 자는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 나라는 부유하고 땅은 넓으며, 인구의 조밀하기가 조와爪哇에 다음 간다. 백성들은 상체는 나체이고 하체는 수건을 둘렀다. 구슬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서 여러 상인들이 다투어 와서 매매한다. 그 나라에 적인도赤人島라는 섬이 있으니 주민들은 모두 동굴에서 살며, 남녀가 모두 나체여서 야수와 같다. 곡식을 먹지 않고 물고기 · 조개 · 파초 열매 · 바라밀波羅蜜을 먹는다. 상고하여 보니 바라밀은 남해 가운데서 생산되는 과일로서 모양이 우리나라의 참외와 같다고 했다.

유산溜山은 서해 가운데에 있다. 4면이 모두 바다이니, 성곽이 없고 산을 의지하여 모여 산다. 유溜라고 이름하는 것이 무려 3,000은 되며 배가 가다가 바람을 만나 잘못 유溜에 들어가면 곧 빠진다. 토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약수弱水 3,000리里라는 것이다"라고 한다.

사람들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짜고 살거나 동굴 속에서 살며, 물고기와 조개를 먹는다. 옷은 없고 초목의 잎으로 앞뒤를 가린다. 상고하여 보니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약수는 서해 가운데에 있으니, 새 날개 하나도 뜨게 할 힘이 없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이 약수일 것이다. 또 《진서晉書》에 말하기를, "부여국扶餘國은 현도玄菟의 북쪽에 있으니, 그 북쪽에 약수가 있다. 숙신씨肅愼氏는 동

쪽이 큰 바다에 닿았으며, 북쪽은 약수에까지 이른다"라고 했다. 《속선전續仙傳》에 말하기를, "봉래蓬萊는 약수 3만 리가 막혀 있어서 날아다니는 신선이 아니면 갈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동북쪽에도 또한 약수가 있는 것이다.

살마아한撒馬兒罕(사마르칸트, Samarkand)은 한漢나라 때의 계빈罽賓인데, 가욕관嘉峪關과의 거리가 만 리나 된다. 동서의 길이가 1,000리이니, 풍경이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토지는 비옥하여 자못 중원中原과 비슷하다. 서남번西南藩의 상인들이 여기에 많이 모인다. 풍속은 회회교回回教를 숭상한다. 배천옥拜天屋이 있으니, 푸른 돌에 조각한 것이 지극히 정교하다. 인물은 빼어나고 아름다우며 예능藝能이 많다. 예전에는 조세배照世杯라는 술잔이 있었으니, 광채가 나고 밝고 시원스럽게 투명해서, 그것으로 비쳐 보면 세상일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상고하여 보니 《오학편吾學編》에 그 나라 국왕의 표문表文(임금 또는 정부에 올리는 글)이 실려 있는데, 대략 중국의 문자와 서로 같은 것이었다.

천방天方의 옛 이름은 천당天堂이며, 풍속은 회회교回回教의 역서曆書를 사용한다. 풍경은 온화해서 사계절이 모두 봄과 같다. 전지田地는 비옥하고 벼는 풍요하여 주민들은 생업을 즐기며, 풍속은 선善을 좋아하여, 또한 형벌이 없어도 자연히 순화淳化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불서佛書에 말하는 천당이란 것은 이곳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갈석渴石은 살마아한의 서남쪽에 있으며 성의 주위가 10여 리나 되고, 사면이 논이다. 그런 까닭에 원元나라 부마駙馬가 살았다. 산에는 기이한 나무가 많고, 돌로 된 산협山峽이 있는데, 양쪽 언덕은 석벽이 깎아지른 듯하여 마치 도끼로 깎은 것 같다. 2, 30리를 가면 산협의 어귀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문이 있으니, 이것을 철문관鐵門關이라고 한다. 잠삼岑參이 교하군交河郡에 사자로

가며 지은 시에, “철관은 하늘을 가로막는 벼랑이로구나. 만 리 길 멀기도 하여라(鐵關控天崖 萬里何遼哉)”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토로번土魯番(투루판, Turpan)은 화주火州의 서쪽 100리 거리에 있으니, 옛날의 교하현交河縣으로서 차사국車師國이라고 하기도 한다. 기후는 따뜻한 때가 많고 비와 눈이 적다. 토지는 마(麻)와 보리의 재배에 적합하며,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불교를 믿으며, 영산靈山이 있으니 둘레가 20여 리나 되는데, 모두 5색의 모래와 돌로 이루어져서 광채가 사람을 불태우는 것 같다. 사면에 험준한 동학洞壑이 있어서 천연의 형상이 비할 데 없이 기묘하다. 그 산에는 초목이 나지 않고 새와 짐승이 드물다. 아마 불서佛書에서 말하는 영산이란 이것일 것이다.

흑루黑婁는 토로번 가까이 있다. 산천 · 초목 · 금수가 모두 검다. 남자 · 여자들도 또한 그러하다. 소금 나는 못이 있어서 돌소금을 생산하니 견고하고 희기가 돌과 같다. 쪼아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술이나 음식을 담으면 소금을 치지 않아도 짜다. 합렬哈烈 등지에서도 또한 생산된다고 한다.

합렬은 가욕관嘉峪關에서 3,000리 떨어진 곳에 있다. 4면이 큰 산으로 둘려 있고 비가 적다. 남자는 머리를 깎으며, 흰빛을 숭상한다. 상주喪主가 되면 푸른빛, 검은빛 옷으로 바꿔 입는다. 달음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에 300리를 다닌다. 기후는 항상 따뜻하다. 남녀의 풍기는 문란하고 더럽건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나 학사學舍가 있어서 경서의 뜻을 강습한다. 형벌은 적고 세금은 박하며, 다투는 일은 적고 은혜를 베푸는 일은 많다.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을 힘쓴다. 대체로 그 풍속이 또한 순박하다.

우전대국于闐大國은 총령葱嶺의 북쪽에 있다. 동서가 5,000리, 남북이 1,000리

이며, 사람들은 교지巧智가 있고 불법佛法을 좋아한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곧 꿇어앉으며, 전인前人이 남긴 글을 얻으면 머리 위에 얹었다가 열어 보는 등, 제법 존비尊卑의 예절을 안다. 얼굴 모양은 중국 사람을 닮았다. 백옥하白玉河·녹옥하綠玉河·흑옥하黑玉河의 하수河水가 있으며, 옥玉과 산호珊瑚, 그리고 해구신海狗腎(膃肭臍)을 생산한다.

화주火州는 한漢나라 때의 거사전국車師前國·거사후국車師後國이라고 부르던 왕국의 땅으로, 장안長安과의 거리는 9,000리다. 원제元帝는 무기교위戊己校尉를 두어 거사전국의 왕궁 뜰에 주둔하게 하고, 그 땅이 높고 트였다고 하여 이름을 고창高昌(高敞)이라고 했다. 당태종唐太宗이 고창을 평정하고 서주西州를 두었더니, 뒤에 토번吐蕃에게 함락되었다. 원元나라에서는 외올아畏兀兒라고 불렀고, 지금은 화주라고 이름지었다. 풍속은 흉노匈奴와 비슷하며, 천신天神을 섬기고 불법佛法을 믿는다.
상고하여 보니 《송사宋史》에 말하기를, "고창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의 다 100살을 넘기며, 요사夭死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다. 그곳의 산천은 영산靈山·포류해蒲類海·교하交河가 제일 큰 것들이다. 그곳의 산색山色은 불과 같고, 기후는 열기熱氣가 많다. 《사기》〈상여전相如傳〉 주註에, "곤륜산의 북쪽에 염화炎火의 산이 있는데, 물건을 던지면 곧 타버린다"라고 했고, 잠참岑參의 시에는, "저녁에 교하성에 투숙하니 화산이 붉고 우뚝 높구나(暮投交河城火山赤崔嵬)"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노진魯陳의 딴 이름은 유성柳城이다. 서역西域에 있는 나라이며 큰 하천河川을 지나면 사막이어서 물과 풀이 없다. 말이나 소가 여기를 지나가면 곧 죽는다.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사람과 말이 서로 잃어버리게 된다. 길가에는 해골이 많고, 귀신과 도깨비가 있으며, 행인行人이 동행을 잃으면 대낮에도 헤매다가 죽으므로 가뭄의 바다(旱海)라고 말한다. 서쪽에 유사하流沙河가 있고, 북

쪽에 화염산火焰山이 있으니 산 빛은 마치 불과 같다. 기후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땅은 마麻와 보리를 경작하기에 적당하며, 작은 포도가 있는데, 달고 씨가 없다고 한다. 이른바 유사하라고 하는 것은, 즉 〈우공禹貢〉[21]에 나오는 유사流沙인 것이다.

홀로모사忽魯謨斯는 서남해의 가운데에 있다. 땅이 두터워서 농사짓기에 적당하다. 사람들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얼굴과 체격은 크고 훌륭하다. 부처 섬기는 일을 좋아한다. 사자와 타계駝鷄 · 복록福鹿 · 영양靈羊 · 마합수馬哈獸를 생산한다.
상고하여 보니 《한시韓詩》에서, "화물貨物이 사자국獅子國과 상통한다(貨通獅子國)"라고 한 글귀의 주註에, "사자국은 남해 가운데에 있으며, 사람의 키가 1장 5척이나 되고, 배(船)는 매우 높고 커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라고 한 것이 곧 이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역사파한亦思把罕은 서남의 바다 가운데에 있는 큰 나라이니, 넓기가 1,000리나 된다. 임금의 궁전은 사치하고 화려하며, 물산은 풍족하다. 불교를 숭상하고 형벌을 두려워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즐겨하고 빼앗는 것을 미워한다. 진주와 호박琥珀은 있으나, 도稻나 기장이 없어 피(穄)와 보리를 상식常食으로 한다. 보리의 낱알은 거칠고 크며 맛이 감미롭다.

아속阿速은 서해 가운데에 있으니 또한 큰 나라이다. 부처와 귀신을 공경히 섬기며, 시주하기를 좋아한다. 물산이 유족하며, 서늘하고 따뜻한 것이 알맞다. 사람들은 굶주리거나 헐벗은 자가 없고, 밤에도 도둑이 없다고 하였으니 아마 낙토樂土인 모양이다.
이상의 여러 나라들은 《오학편吾學編》 등의 서적에 나오는 것들이다.

21 《서경》의 편명. 중국 9주州의 지리와 산물에 대하여 쓴 고대의 지리서.

또 《송사宋史》에 말하기를, “주연국注輦國은 예전부터 중국과 서로 통하지 않았으며, 수로水路로 해서 광주廣州에 도착하려면 대략 31만여 리里가 된다”라고 했다. 이 밖에 서번西番과 해외海外의 작은 나라로서 팽형彭亨 · 여송呂宋 · 아로阿魯 · 감파리甘巴利 등의 나라들은 모두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과 통하지 않아서 서적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또한 얼마나 많겠는가.

《오대사五代史》[22]에, “서역西域의 오려지五廬地에는 물이 없으며 항상 추워서 눈이 많이 오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눈이 녹아야 비로소 물을 얻을 수 있다. 또 중운계仲雲界에도 물이 없다. 땅을 파서 젖은 모래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 위에 얹어 놓아서 갈증을 견딘다”라고 했다.
또 《오학편吾學編》에는, “서역의 대사하大沙河는 넓이가 200리는 되는데 물이 없다. 혹시 물이 있더라도 사람은 마실 수 없으며, 마소에게 먹이면 곧 죽어버린다. 토래사討來思는 바다 가운데에 있다. 산 밑에 물이 있는데 그 빛의 붉기가 불이 타는 것 같다”라고 했다. 역시 이상한 일들이다.

《진서晉書》에 “숙신씨肅愼氏의 다른 이름은 읍루挹婁이다. 불함산不咸山의 북쪽에 있으니, 부여扶餘에서 60일을 가야 한다. 동쪽은 큰 바다에 닿았으며, 서쪽은 구만한국寇漫汗國과 접경했고, 북쪽은 약수弱水에 이르렀으니, 면적이 수천 리나 된다.
패리국稗離國은 숙신씨국肅愼氏國의 서북쪽에 있으며, 말을 타고 200일을 가야 하다. 양운국養雲國은 패리국에서 말을 타고 또 50일 동안 가야 하고, 구막한국寇莫汗國은 양운국에서 또 100일을 가야 하며, 일군국一群國은 막한국에서 또 150일 동안을 가야 한다니, 합계하면 숙신에서 5만여 리의 거리다. 진晉나라

22 책 이름. 신구新舊의 2가지가 있음. 《구오대사舊五代史》는 송태종宋太宗 때 설거정薛居正의 찬撰으로 모두 150권. 《신오대사新五代史》는 인종仁宗 때 구양수歐陽修가 수정修正을 가加하여 75권으로 한 것.

무제武帝 때에 각기 소부小部를 보내어, 각기의 방물方物을 바쳤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니, 흑수말갈黑水靺鞨은 즉 숙신씨이니, 흑수는 지금의 흑룡강黑龍江이다.

《오대사》에 말하기를, “글단契丹(거란)의 동쪽 바다를 사이에 둔 곳에 철전鐵甸이 있다. 그곳에는 초목이 적고, 물은 짜며 탁하기가 피와 같다.

북쪽에 우제돌궐牛蹄突厥이 있으니 몸은 사람이고 발은 소의 발이다. 또 북쪽에 구국狗國이 있으니 사람의 몸에 개의 머리를 가졌으며, 털이 길어 옷을 입지 않으며, 말을 하면 개 짖는 것이 된다. 아들을 낳으면 개가 되고 딸을 낳으면 사람이 된다. 동북쪽으로 말겁자襪劫子에 이르면 그곳 사람들은 활을 잘 쏜다. 사람을 만나면 곧 죽여서 생식生食한다.

글단契丹에서 일찍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마른 식량을 싸 가지고 북쪽 지방을 탐사하게 했다. 1년 동안을 가면서 43개의 성城을 경과하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껍질로 집을 덮은 것이 많았다. 그들의 언어를 통역할 자가 없어서 그 나라와 땅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그곳의 평지의 기후는 온화하고 산림지대는 몹시 추웠다. 33성城째에 이르러 한 사람을 만나니 철전어鐵甸語를 잘한다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이곳에서부터 북쪽은 용과 뱀과 맹수와 도깨비가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것이 북황北荒(북쪽의 먼 곳)의 막다른 곳이라고 했다” 한다.

나는 말한다. 북황의 밖에 또 《삼재도회三才圖會》에 기록한 것 같은 세계가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회회국回回國(아라비아)은 하늘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이외에 숭배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그 나라의 시詩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

僧言佛子在西空 중은 말하기를 부처님 서공에 있다 하고

道說蓬萊在海東 도가에서는 봉래산이 해동에 있다고 하네
惟有孔門眞實事 모두가 허황하다마는 오직 공문孔門에서만은 참되고 실질
적인 일 가르치고 있어서
眼前無日不春風 눈앞에 봄바람 아닌 날이 없구나

나는 말한다. 회회국은 서역에 있으면서도 그 말함이 이와 같은데, 중화中華의 선비로서 불교를 숭상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회회국의 문자에는 전서篆書 · 초서草書 · 해서楷書의 세 종류가 있으며 그들의 역법曆法은 중국의 역서曆書와 겨우 2각刻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들으니 서남쪽의 여러 나라들은 회회교를 신봉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대체로 불법佛法을 배척하고 하늘 섬기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또 그들의 풍곡은 보건 · 위생을 잘하며, 항상 외신外腎을 보호하여 차게 하지 않으며, 밤에 누워서는 손으로 움켜쥐어서 따뜻하게 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낳는 근본이니 보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 설은 일리가 있는 것이다. 회회국을 어떤 이는 옛날의 대식국大食國이고, 당唐나라 때의 회골회흘回鶻回紇[23]은 아니라고 한다. 내가 중국 수도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을 보았는데 모두 머리를 흰 베로 감은 것이 특히 이상했다.

나양국裸壤國은 일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곳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고 전신이 숯처럼 검으며, 눈은 흰자위가 많고, 이마와 코는 높이 튀어나왔으며, 머리털은 양모羊毛 같다. 왜녀倭女에게 장가들어 일본에 사는 것을 양만세楊萬世가 친히 보니 이러했다고 한다. 대체로 바다 가운데에 나양裸壤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

23 수당隋唐 시대부터 송원宋元 시대에 걸쳐 몽고 및 감숙성甘肅省 등지에서 약 1세기 동안 세력을 잡은 터키 계통의 부족.

《한서》에 말하기를, "회계會稽의 바다 밖에 동제인東鯷人이 있는데 나뉘어 30여 국이 되었다"라고 했다. 이것은 왜국을 가리켜 말한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잠鯷岑이라고 하는데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일컫는 것은 잘못이다.

천하의 기이한 보물은 서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다. 파려玻瓈 · 마노瑪瑙 · 포도葡萄 · 서과西瓜 · 호도胡桃 · 사자獅子 따위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불법佛法과 환술幻術도 모두 서역에서 나왔다. 비록 바른 도道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술과 재예才藝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곳의 산천山川으로는 유사流沙 · 약수弱水 · 곤륜崑崙 · 성수해星宿海가 있다. 중국의 황하黃河는 여기에서 근원하는 것이니 또한 영묘하고 이상하다.

불랑기국佛浪機國(포르투갈)은 섬라暹羅의 서남쪽 바다 가운데 있으니, 서양의 큰 나라이다. 그 나라의 화기火器를 불랑기佛浪機라고 부르니, 지금 병가兵家에서 쓰고 있다. 또 서양포西洋布라는 베는 지극히 가볍고 가늘기가 매미의 날개 같다.

남번국南番國(네덜란드) 사람이 만력萬曆 계묘년간癸卯年間에 왜인倭人의 배를 따라 우리나라에 표착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을 보니 눈썹이 속눈썹과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수염은 염소수염과 같았으며, 그가 거느린 사람은 얼굴이 옻칠한 것처럼 검어서 형상이 더욱 추하고 괴상했다. 아마 해귀海鬼의 등류等類일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왜인의 통역을 통해 물으니, 그들의 나라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중국에서 8만 리나 떨어진 곳이라고 했다. 왜인들은 그곳에 진기한 보물이 많기 때문에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토를 떠난 지 8년 만에 비로소 그 나라에 도착한다고 하였으니, 아마 멀리 떨어진 외딴 나라인 모양이다.

영결리국永結利國(영국)은 육지에서 서쪽 끝으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다. 낮이 굉장히 길어서 밤은 겨우 2경更이면 곧 날이 밝는다. 그 풍속은 오직 보릿가루를 먹으며,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배로 집을 삼는다. 배는 4중으로 만들어서 쇳조각으로 안팎을 둘러쌌으며, 배 위에 수십 개의 돛대를 세우고 선미船尾에 바람 내는 기계를 설치했다. 닻줄은 쇠사슬 수백 개를 사용하여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루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파선되지 않는다. 전쟁에는 대포大砲를 사용하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돌아다니며 겁탈을 감행하나 바다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감히 서로 대항하지 못한다. 근년에 일본에서 표류하여 우리나라의 흥양興陽 경계에 도착했다. 그 배가 지극히 높고 커서 층루層樓의 큰 집과 같았다. 우리나라 군사가 쳐서 깨뜨리지 못하고 물러가게 하였는데, 뒤에 왜사倭使에게 물어서 그것이 영결리 사람인 것을 알았다.

상고하여 보니 《원사元史》에, "길리길사吉利吉思는 중국에서 2만 5,0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낮은 길고 밤은 짧다. 즉 당나라 때의 골리간국骨利幹國이다"라고 했다. 결리結利는 길리吉利 · 골리骨利와 음이 비슷하니, 그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당사唐史》를 살펴보니, "골리간骨利幹은 한해瀚海의 북쪽에 있다. 그곳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은데, 해가 진 뒤에도 하늘빛은 어두컴컴할 뿐이다가, 양羊의 갈비를 삶아서 알맞게 익을 만한 시간이 지나면 해는 다시 돋는다"라고 했다. 당나라 초기엔 결골結骨이라고 불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이곳은 땅의 첨단尖端이어서 해가 땅 밑에 들어갔으나 차폐遮蔽할 곳이 없다. 그런 까닭에 항상 광명한 것이다. 그리고 해가 동쪽으로 나와 새벽이 되기까지 해가 지나가는 것을 차폐하는 곳도 또한 많지 않다"라고 했다.

구라파국歐羅巴國을 대서국大西國이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이마두利瑪竇(마테오

리치, Matteo Ricci)라는 자가 있어서, 8년 동안이나 바다에 떠서 8만 리의 풍랑을 넘어 동월東粤에 와서 10여 년이나 살았다. 그가 저술한 《천주실의天主實義》 2권이 있다. 첫머리에 천주天主가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편안히 기르는 도道를 주재主宰한다는 것을 논하고, 다음으로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것으로 금수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논하였으며, 다음에는 육도윤회설六道輪廻說(선악善惡의 응보에 의해 육도六道를 유전流轉한다는 불설佛說)의 잘못과 천당 · 지옥 · 선악의 응보를 변론하고, 끝으로 인성人性은 본래 선善하다는 것과, 천주天主를 존경해 받드는 뜻을 논하고 있다. 그 풍속에는 임금을 교화황敎化皇이라고 일컬으며, 혼인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황의 지위를 승습承襲하는 아들은 없고, 어진 이를 선택하여 세운다. 또 그 풍속은 우의友誼를 소중히 여기며 사사로운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는 《중우론重友論》을 저술했다. 초횡焦竑이 말하기를, "서역 사람인 이마두군이, '벗은 제2의 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매우 기묘하다"라고 했다. 이 일은 《속이담續耳譚》에 자세히 나온다.

만력萬曆 계묘년癸卯年에 내가 부제학의 자리에 있을 때, 중국 도성都城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 이광정李光庭 · 권희權憘가 구라파국歐羅巴國의 여지도輿地圖 1건 6폭幅을 본관本館에 보내 왔다. 아마 경사京師에서 구득求得한 것일 것이다. 그 지도를 보니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었다. 서역에 대해 특히 상세하였으며, 중국의 지방과, 우리나라의 팔도와, 일본의 60주州의 지리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곳, 크고 작은 것을 모두 기재하여 빠뜨린 것이 없었다. 이른바 구라파국은 서역에서 가장 동떨어지게 먼 곳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8만 리나 되었다. 옛날부터 중국과 통하지 않다가, 명明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2번 입공入貢했다.

지도는 바로 그 나라의 사신인 풍보보馮寶寶가 만든 것으로서, 그 말단末端에 서문을 지어 기록하였는데, 그 문자文字의 바르고 숙련됨이 우리나라의 문자와 다름이 없었다. 비로소 글과 문자가 같은 것을 믿었으며,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었다. 생각하여 보건대, 그 나라 사람인 이마두利瑪竇 · 이응성李應誠이란 자도 또한 모두 《산해여지전도山海輿地全圖》와, 왕기王沂의 《삼재도회三才圖會》 등의 서적을 가지고 있어서 자못 그 설을 채용하고 있다.
구라파의 땅의 경계는 남쪽은 지중해地中海에 이르고, 북은 빙해氷海에 이르며, 동쪽은 대내하大乃河에 이르고, 서쪽은 대서양大西洋에 이른다. 지중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천지天地의 한가운데라고 하여 그렇게 이름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문지異聞志》에 말하기를, "천하의 어느 곳이나 귀신 없는 데가 없어서, 귀신은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다. 그러나 홀로 호인국互人國 백옥성白玉城은 백옥으로 쌓았기 때문에 귀신이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대체로 귀신은 음물陰物이어서 검은 것을 즐기고 흰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 백옥성에 이르러 그 까닭을 알고 돌아가서 흰 돌로 집을 빙 둘러 담을 쌓았더니, 그때에 그 지방에 역질疫疾이 많았으나, 홀로 그 집만은 전염된 자가 없었다. 지금 사람들이 흰 흙을 문에 바르는 것은 또한 그것이 남긴 뜻인 것이다"라고 했다.
《후한서》를 상고하여 보니, 서역의 대진국大秦國은 돌로 성을 쌓고 벌려 놓은 우정郵亭에도 다 흰 흙칠을 했다고 한다. 호인互人은 역시 서역의 나라 이름이 아닌가 의심된다.

5-3 북로北虜(북쪽 오랑캐)

《사기》에 보면 주무왕周武王 때에 숙신씨肅愼氏가 호시楛矢(호목으로 만든 화살)와 석노石砮(돌로 만든 활)를 바쳤다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숙신肅愼은 곧 우리나라의 북쪽 변방에 있는 오랑캐이며, 호시는 속담에 서수라목西水羅木이라는 것을 호인胡人이 사용하여 화살을 만든 것

이라고 한다.
《오제본기五帝本紀》의 주註에, “식신息愼은 즉 숙신肅愼이다”라고 했으니 당우唐虞 시대에 이미 중국에 나타났던 것이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돌궐突厥은 금산金山의 남쪽에 살고 있다. 철공역鐵工役으로 선우禪于(흉노왕匈奴王의 칭호)에게 속하여 있다. 돌궐이라는 것은 두모兜牟(투구)이니 그들이 투구를 잘 만든다고 하여 이름한 것이다”라 했고, 또 《강목綱目》의 주註에는, “금산은 그 모양이 두무兜鍪(투구)와 같으니, 그 나라의 풍속에 투구를 돌궐이라고 부른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다”라 했다. 지금도 돌궐의 중국 발음은 우리나라의 방언인 두구頭具와 서로 비슷하다.

옛날 금金나라의 완안씨完顔氏는 본래 고려에서 나갔다고 하여 고려를 매우 후하게 대우하고 마침내 침략하거나 횡포하게 굴지 않았다. 애주愛州(지금의 의주義州)는 본래 고려의 땅으로서 요遼에게 함락되었더니, 금나라가 요를 격멸하게 되자 애주를 고려에 내주었다.
또 윤관尹瓘이 북정北征하였을 때에 우리의 군사 수백 명이 낙후落後하여 돌아오지 않은 채 그냥 호지胡地에 살면서 한 부락을 이루었다. 지금의 홀온忽溫의 추장 하질귀夏叱貴는 즉 그 후예라고 한다. 홀온이라는 것은, 즉 원元나라 때의 화온위火溫衛이다.
지금의 건주위建州衛는 즉 여진女眞의 유종遺種인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전조前朝 왕씨王氏의 후예가 노추奴酋가 되었다”라고 한다. 진정 그러한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다.

《원사元史》에 색목인色目人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개가 몽고 밖에 있는 여러 번국番國의 오랑캐 사람들이다. 상고하여 보니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불가佛家

에서 아수라阿修羅라고 말하는 것은, 즉 지금의 사이제색목四夷諸色目(동이東夷 · 서융西戎 · 남만南蠻 · 북적北狄)이 그것이다"라고 했다.

건주建州 · 모련毛憐 · 해서海西 등 위衛는 모두 본래 여진이며 건주가 가장 강하다. 영락永樂 때에 나뉘어 삼위三衛를 설치하고, 그 두목을 봉하여 도독지휘都督指揮로 했다. 그의 무리를 분산시켜서 서로 통섭統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진실로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게 하는 상책上策인 것이다. 지금 노추奴酋가 여허如許와 더불어 서로 자웅을 다투고 장長을 자랑하여 누구도 감히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그 징험徵驗인 것이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호지胡地 안에서는 소금이 나무 · 돌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들으니 지금 건주建州의 오랑캐는 소금이 없어서 유목杻木의 끄트머리로 즙汁을 짜서 맛을 조절할 때에 소금 대신으로 쓴다고 하였으니, 소금이 목석木石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아마 이런 따위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귀화한 호인胡人으로서 내지에 들어와서 사는 자는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있었다. 아마 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근년 이래로 노추奴酋 장심張甚이 번호藩胡를 사로잡아다가 지배하려 하므로 많은 번호가 우리나라에 와서 붙어살기를 원하여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이 떼를 지어 오게 되었다. 지금 경기京畿와 양호兩湖 사이에 마을을 잇따라 섞어 살고 있어서, 연기와 불빛이 거의 서로 바라보이는 상태에 있다. 뒷날 난처한 근심이 생기지나 않을까 두렵다. 나랏일을 기획하는 자들이 또한 생각이 이에 미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함경북도는 김종서金宗瑞가 처음 6진鎭을 설치한 것이 이제 막 200년이 되려 한다. 성 밑에 살고 있는 호인胡人들로 울타리를 삼아 번호藩胡라고 일러 오더

니, 근년 이래에 건주建州의 노추奴酋 장심張甚이 번호를 노략질해 잡아가서 거의 남아 있는 자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건주의 노추는 땅을 넓혀 우리나라의 국경에 이르렀으며, 깊숙이 들어와서 제멋대로 돌아다니건만 감히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한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차가운 것처럼, 번호가 없어지니 우리나라에 미치는 외구外寇의 근심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5-4 국도國都

역대 제왕帝王의 수도首都는 이러하다.

복희씨伏羲氏 · 신농씨神農氏는 진陳에 도읍했고, 황제黃帝는 탁록涿鹿에 도읍하였으니 지금의 유주幽州이다. 요堯임금은 평양平陽에 도읍하였으니 지금의 기주冀州이다. 순舜임금은 포판蒲坂에 도읍했고, 우禹임금은 평양平陽에 도읍하였으며, 상商나라의 탕湯임금은 박亳에 도읍했다가 뒤에 효囂에 옮기고, 상相에 옮기고 경耿에 옮겼다. 반경盤庚은 다시 박亳에 도읍했고, 주문왕周文王은 풍豐에 도읍하였으며, 무왕武王은 호鎬에 도읍했고, 평왕平王은 낙洛에 옮겼다.

진秦나라는 함양咸陽에 도읍했고, 한漢나라는 장안長安에 도읍하였으며, 동한東漢은 낙양洛陽에 도읍하고, 진晉나라도 낙양에 도읍했다. 동진東晉과 송宋나라, 제齊나라, 양梁나라, 진陳나라는 다 건강建康에 도읍했고, 수隋나라는 장안長安에 도읍했다가 양제煬帝가 낙양洛陽으로 옮겼다. 당唐나라는 장안에 도읍하였으며, 송宋나라는 변汴에 도읍했고, 남송南宋은 임안臨安에 도읍하였으며, 원元나라는 연燕에 도읍했고, 명明나라는 금릉金陵에 도읍했다가 성조成祖 때에 이르러 연燕으로 옮겼다.

우리나라는 단군 · 기자箕子 · 위만衛滿 · 고구려가 모두 평양平壤에 도읍했고, 신라는 경주에, 백제는 부여에, 견훤甄萱은 전주全州에 도읍했고, 궁예弓裔는 철원鐵原에, 고려는 송경松京에 도읍했다. 본조에서는 한양漢陽에 정도定都하여

영원하리라.

고증하여 보니, 고구려가 시초에는 요동의 북쪽에 살았는데, 후세에 점차 동쪽 패수浿水의 곁까지 옮겨 오고, 그 땅은 많이 발해渤海와 말갈靺鞨에 들어갔다. 패수는 즉 평양의 대동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주몽朱蒙이 도읍으로 하였던 졸본천卒本川을 가리켜 성천成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증하여 보니, 고구려가 처음에는 졸본卒本에 도읍을 정했다가 뒤에 국내성國內城으로 천도하고, 또 환도성丸都城으로 옮기고, 또 평양으로 옮겼으며, 백제는 처음에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했다가 뒤에 한산漢山으로 천도하고, 또 북한산北漢山으로 옮겼으며, 또 웅진熊津으로 옮겼고, 또 사비泗沘(지금의 부여)로 옮겼다.

주석註釋하는 자가 말하기를, 국내성은 압록강 이북에 있었으며, 한산漢山은 지금의 광주廣州이고, 북한산北漢山은 지금의 한양漢陽이며, 웅진熊津은 지금의 공주公州라고 한다.

《여지승람》에 한도십영漢都十詠이 실렸는데, 그 열 곳의 좋은 풍경은 다음과 같다.

장의莊義에서 승려를 찾는다(莊義尋僧), 제천濟川에서 달구경한다(濟川翫月), 반송盤松에서 손님을 송별한다(盤松送客), 양화楊花에서 눈을 밟는다(楊花踏雪), 목멱木覓에서 꽃을 완상한다(木覓賞花), 전교箭郊에서 꽃다운 것을 찾는다(箭郊尋芳), 마포麻浦에서 뱃놀이한다(麻浦泛舟), 흥덕興德에서 연꽃 구경을 한다(興德賞蓮), 종로鍾路에서 관등觀燈한다(鍾路觀燈), 입석立石에서 물고기를 낚는다(立石釣魚).

강희맹姜希孟 · 서거정徐居正 · 이승소李承召 · 성임成任에게 모두 이 한도십영의 시詩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장의사莊義寺는 옛날에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었

다. 흥덕사興德寺는 동부東部 연희방燕喜坊에 있었는데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때에 폐하였는지 알 수 없다. 입석포立石浦는 두모포豆毛浦 상류에 있었다.

전조前朝 때에 도선道詵의 도참圖讖을 들어, 한양漢陽에 자두나무를 심어 이씨李氏(오얏)의 운기運氣를 눌렀다. 그런 까닭에 종리촌種李村이라고 했다. 지금의 향교동鄕校洞은, 즉 옛날 한양향교漢陽鄕校가 있던 곳이다. 어의동於義洞을 옛날에는 한양동촌漢陽東村이라고도 일컫고, 혹은 양류촌楊柳村이라고도 하였으니, 거리가 가장 번성繁盛했다고 한다. 묵사동墨寺洞은 옛날 묵사墨寺가 있던 곳이다. 송송정宋松亭은 송씨宋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살던 곳으로서 송정松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한양漢陽의 부아암負兒巖(아이를 업은 모양의 바위라는 뜻)은 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산을 모악母嶽이라고 이름 짓고, 남쪽은 벌아령伐兒嶺이라고 했다. 대체로 그 가는 것을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서쪽을 병시현餠市峴이라고 한 것은 아마 떡으로 달래서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름을 붙인 자가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5-5 군읍郡邑

《사기》에, 황제黃帝가 들을 구획하여 고을로 나누어 100리 되는 나라 1만 구區를 얻었다고 했다. 중국의 땅은 동서남북이 만 리를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리의 지구 1만 구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중국에서부터 사방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억지소리인 것이다.
또 우禹임금이 제후諸侯를 도산塗山에 모으니 옥백玉帛의 예물을 가지고 모인

자가 만국萬國이었다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도산이란 곳은 동남쪽에 있는 한 낱 구석진 땅이며, 또 제후가 조빙朝聘하는 것은 일정한 때가 있는 것인데, 어찌 천하의 모든 나라가 일시에 모두 모일 수 있었겠는가. 그 만국이라고 말한 것은 또한 많은 것을 표현한 것이고, 실지의 수를 말한 것은 아니다.

우공禹貢의 주註에, "순舜임금이 9주州를 나누어 12주州로 하였는데, 기주冀州를 분할하여 동쪽을 병주并州라 하고, 동북쪽을 유주幽州라 하였으며, 청주靑州의 동북을 나누어 영주營州를 삼았으니, 영주는 즉 요동遼東이다. 한漢나라의 공손탁公孫度이 요동에 웅거하여 스스로 청주자사靑州刺史라고 불렀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요동 · 조선 등의 곳은 다 청주靑州의 땅으로서, 그 땅이 넓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 영주營州로 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병주并州는 지금의 태원太原 · 진대晉代 등의 땅이 그것이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말하기를, "유주幽州는 즉 지금의 광녕廣寧 이서以西의 땅이고, 영주는 즉 광녕 이동以東의 땅이다"라고 했다.

《성도기成都記》에, "촉蜀나라 임금 맹창孟昶이 성도성成都城 위에 부용芙蓉을 심어서 연꽃이 비단과 같았다. 그래서 이름을 금관역錦官域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설은 잘못이다. 두시杜詩 '화중금관성花重錦官城'이란 글귀의 주에 "성도부成都府는 강산의 아름다움이 비단 같기 때문에 금관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그러니 금관성이란 명칭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서 맹창孟昶의 때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는 금관이란 것은 아마 촉중蜀中에서 비단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은 이름일 것이다. 가령 동관銅官 · 염관鹽官 · 주관珠官과 같은 따위일 것이다.

《한서》〈지리지地理志〉를 참고하여 보니, 안시성安市城은 바로 요동의 속현이

다.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말하기를 “안시安市는 요동의 북쪽에 있다”라고 했다. 지금 사람들이 함부로 무리한 억지의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을 압록강 이동以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김시습金時習의 〈유관서록遊關西錄〉에 안주安州를 안시성이라고 한 것은 웃음거리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을 8도로 나누고 부府 · 목牧 · 군郡 · 현縣을 두었으니 경기도는 좌우도左右道에 4목牧, 7도호부都護府, 8군郡, 18현縣으로 모두 37관官이다. 충청도는 좌우도에 4목 12군, 38현으로 모두 54관이다. 황해도는 2목, 4도호부, 7군, 11현으로 모두 24관이다. 강원도는 1대도호부, 1목, 5도후부, 7군, 12현으로 모두 26관이다. 전라도는 좌우도에 1부, 3목, 4도호부, 12군, 37현으로 모두 57관이다. 경상도는 좌우도에 1부, 1대도호부, 3목, 8도호부, 14군, 40현으로 모두 67관이다. 평안도는 1부, 1대도호부, 3목, 6도호부, 18군, 13현으로 모두 42관이다. 함경도는 남북도에 1부, 1대도호부, 1목, 12도호부, 4군, 3현으로 모두 22관이다. 합계하면 329관이다. 그러나 지금은 혁파한 것이 5, 부府로 승격한 것이 2, 대도호부로 승격한 것이 1, 도호부로 승격한 것이 8이다.

함경도는 본래 고구려의 땅이다. 전조 때에 동북면東北面이라고 하더니, 뒤에 함주咸州 이북이 여진女眞에게 함몰되었는데 윤관尹瓘이 공격하여 쫓아버렸다. 뒤에 또 원元나라에 들어갔다가 99년 만에 비로소 회복했다.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풍패지향豐沛之鄕[24]이 되었다. 태조조太祖朝에 땅을 개척하여 두만강까지 이르렀으며, 세종조에는 6진鎭을 설치하여 그 규모와 벌여 배치한 것이 원대했다. 그러나 그 땅은 산융山戎에 가까워서 방어하고 수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다. 국가의 위세와 신령의 보우가 아니면 어찌 수백 년 동안이나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

24 제왕帝王의 고향. 한고조漢高祖가 패沛땅 풍읍豐邑 사람이었던 일에서 유래한 말.

자성慈城 · 여연閭延 · 무창茂昌 · 우예虞芮 등의 고을은 강계江界의 서북쪽에 있어서 오랑캐의 소굴에 썩 근접하여 있다. 세조조世祖朝에서 논의하여 그 땅을 포기하고 그곳을 텅 비게 만들었다. 그곳 창고의 곡식을 강계에 옮겨 두었던 것이 지금도 아직 수만 섬 남아 있으나, 묵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중묘조中廟朝에서는 야인野人들이 와서 여연 · 무창 등지에 사는 것을 군사를 출동시켜 쫓아버리게 하였으며, 또 서도西道의 수신帥臣에게 명령하여 매년 곡식을 베어버려서 침입 · 점거하는 근심을 끊었더니, 지금 노호奴胡 장일심張日甚이 점점 가까운 지경에까지 진출하고 있어서 말썽을 일으킬 것이 두렵지만, 감히 누구도 무엇이라고 하지 못하니 어찌 매우 근심할 바가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연안延安의 성안에 물이 없었다. 신묘년간에 조헌趙憲이 말하기를, "장차 왜구가 오더라도 연안은 반드시 지켜야 할 땅이다"라고 하고, 부사府使 신각申恪에게 편지를 보내어 북쪽 신당神堂의 물을 땅을 파고 끌어다가 성중에 공급하여 방어 · 수비의 계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신각이 그 계획에 좇아 실시하였더니 다음 해 임진년에 왜구가 연안을 포위하였으나, 그때에는 성중에 물이 있었으므로 굳게 지킬 수가 있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모두 신각의 공적은 알지만, 그것이 조헌의 계책에서 나온 것은 알지 못한다.

영평永平이 포천抱川을 합하여 대도호부大都護部가 되었다. 내 아들 성구聖求가 판관이 되어 포천의 옛터에 산성을 쌓았다. 성터를 닦을 때에 구리 숟가락(銅匙)과 쇠솥(鐵鼎)이 발굴되었다. 숟가락은 자루가 길고 굽으며, 솥은 형체가 좁고 길어서 지금의 형체와는 많이 다르다. 포주抱州가 폐읍된 뒤로 몇 천, 몇 백 년이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또 동인銅印 1개를 파냈는데, 인장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니 이상한 일이다.

5-6 풍속風俗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은殷나라 사람들은 흰빛을 숭상한다"라고 했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손이 오네 손이 오네, 그 말은 흰 말일세(有客有客 亦白其馬)"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는 것은 아마 또한 은나라 태사太師였던 기자箕子가 남긴 풍속일 것이다.

《장자莊子》에 말하기를, "천자天子를 모시는 여인들은 귀를 뚫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체로 귀를 뚫어 귀고리를 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였던 것으로서 홀로 우리나라만의 풍속은 아니다.

《잡서雜書》에, 부인은 귀고리(耳璫)와 지환指環(가락지)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나라 부인들의 귀고리와 지환들은 옛 제도를 모방하였을 뿐이다. 다만 부인이 상투처럼 머리를 쪽 찌는 것(髻鬟)과 아이들이 머리를 땋아 늘어뜨리는 것은 오랑캐의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예법을 아는 집에서는 중화中華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나, 옛 풍속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었으니 슬퍼할 일이다.

《일통지一統志》에 말하기를, "조선 풍속은 부드럽고 삼가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김학봉金鶴峯(김성일金誠一)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성품이 겸손하고 공손하여 집안에 들어오면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는 도리를 닦으며, 밖에 나가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위해 죽는 의리를 다한다. 사대부는 예의와 겸양을 숭상하고 염치를 엄중히 하며, 농부나 상인 · 공장工匠들도 또한 각자의 본업을 지켜, 분수를 어기거나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버릇이 없으니, 다만 《일통지》에서 말한 것처럼 부드럽고 삼가는 것만이 풍습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임진왜란 이후에 왜적이 우리나라에 깊숙이 둔거屯據한 것이 7년이나 되었으며, 그 뒤에 명

나라의 군사가 출병해 와 있어서, 그들을 대접하는 식량과 군량을 등에 지고, 머리로 이어다가 공급하는 일이 힘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벅찼건만 원망하거나 배반하는 뜻이 없었으니, 명나라의 장수와 사졸들이 아름답게 여겨 찬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때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학봉의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빈퇴록賓退錄》[25]에 말하기를, "정주靖州의 풍속은 상중喪中에 있으면 술 · 고기 · 육젓 · 낙류酪類는 먹지 않으나, 어물魚物은 채소라고 하여 먹는다. 호북湖北에서는 이것을 어채魚菜라고 한다"라고 했다. 노두백老杜白의 소시小詩에, "풍속에 물고기는 정원의 채소에 해당한다(風俗當園蔬)"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묵장만록墨莊漫錄》[26]에 말하기를, "번옹番禺의 바닷가에 귀시鬼市가 있어서, 밤중에 모였다가 닭이 울 때 헤어진다. 사람들이 여기에 좇아가서 진기한 물건을 많이 얻는다"라고 했다. 내가 중국의 도성에 가보니, 성중에 야시夜市가 열려서 날이 밝기 전에 파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소위 귀시라고 한 것은 귀신의 저자가 아니고 야시장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닌가 의심된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부녀들을 정절이 굳고 믿음성이 있으며, 음란하지 않다고 칭찬했다. 아마 기자箕子가 끼친 교화敎化라고 할까. 근년에 명나라의 군사가 처음 나왔을 때에, 한 사람이 관가官家에 예속된 창녀娼女를 강간하니, 창녀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창녀로서도 이와 같으니 정신貞

25 책 이름. 송宋나라 조여시趙與旹가 편찬한 것은 모두 10권이고, 명明나라 조선정趙善政이 편찬한 것은 모두 4권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정이 편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여염閭閻의 풍속과 구문舊聞 · 기사奇事 등이 기록되어 있다.

26 책 이름. 모두 4권. 송宋나라 장방기張邦基가 찬撰한 것. 일사逸事를 기술하고, 그중에는 소설가小說家의 말을 참작하였으며, 두보杜甫 · 한유韓愈 · 소식蘇軾 · 황정견黃庭堅 등의 시를 변정辨定했고, 명물名物을 고증하기도 했다.

信하다고 말하여 마땅할 것이다.
그러던 것이, 왜적과 명나라 군사가 10년 동안이나 나라 안에 가득히 퍼져 있어서 그들이 부녀들을 더럽히고 점점 번져 풍속을 이루니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면이 있다.

중국의 여자들은 대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 나가게 되면 반드시 명주로 그 낯을 가린다. 저자의 문에 기대서 있는 자는 은근짜뿐이다. 중화中華의 예절과 풍속의 아름다움을 이 일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서 구별이 없다. 비록 습관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으나 만약 남녀의 다니는 길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거의 예禮에 가까울 것이다.

내가 보니, 중국의 부인들은 일이 있으면 또한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에 이고 다닌다. 그런 까닭에 동월董越의 부賦에 이런 말이 있다. "머리 위에 물동이를 이고도 손으로 붙잡지 않은 자가 있으며, 열 말의 쌀을 이고도 걸음 또한 얌전하게 빨리 가는 자가 있다." 대체로 이상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옛사람들은 앉는 것이 일정한 곳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모시고 앉다', '앉으라고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한다든가, 자리를 달리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다. 관녕管寧[27]이 앉았던 자리가 뚫어졌다는 것도 또한 그 증거이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서는 것을 예禮로 한다. 앉을 때는 반드시 의자에 걸터앉는다. 부자父子가 나란히 걸터앉는 일까지 있다. 이 풍속이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선유先儒들의 위좌危坐(무릎

27 삼국시대 위魏나라 주허朱虛 사람. 자字는 유안幼安. 한말漢末의 황건적의 난 때 요동으로 피난하여 시서詩書를 강의하고 예양禮讓을 밝혀 요동 사람들이 그의 덕에 많이 감화되었음. 난리가 평정된 뒤 조정에서 누차 징소徵召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을 꿇고 몸을 바르게 하여 앉는 것)하는 법은 거의 없어졌다.

강릉江陵은 풍속이 순후하기가 다른 여러 고을과는 다르다. 명절을 당할 때마다 번번이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치 좋은 곳에 모이게 하고 위로연慰勞宴을 여는데 이름을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라고 한다. 이 잔치에는 비록 남의 노복奴僕과 같은 천인賤人일지라도 70세 이상이 된 자는 모두 참석을 허락한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여 변함이 없다고 한다.

춘천春川의 기린麒麟, 안변安邊의 영풍永豐, 이천伊川의 고미탄古未呑이란 곳은 가장 깊고 궁벽해서 사람의 발자취가 드물기 때문에 주진촌朱陳村에 비하더니, 난리가 있은 뒤에는 세금을 독촉하느라고 말을 달려 놀라게 하고 시끄러워지니 백성들은 그 피해를 당하고 풍속도 또한 각박하게 되었다.
소자첨蘇子瞻이 주진촌도朱陳村圖에 시제詩題한 것이 다음과 같다.

而今風物那堪畵 지금의 풍물을 어떻게 차마 그림 그릴 수 있으랴
縣吏催租夜打門 고을 아전들이 세금을 독촉하여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꼴을

우리나라의 풍속에, 중앙과 지방의 향읍鄕邑과 방리坊里에서 모두 계契를 만들어 서로 규찰검칙糾察檢飭한다. 이것을 향도香徒라고 한다.
《여지승람》을 고찰하여 보니, 김유신金庾信이 15세 때에 화랑이 되자 당시 사람들이 복종하였으며, 용화향도龍華香徒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 향도라는 칭호는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안동安東의 풍속은 좌수座首[28]의 직임을 가장 존중하게 여긴다. 덕행과 문벌과

28 조선조 때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두었던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고종高宗 32년에 향장鄕長으로 고침.

명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온 고을이 천거하고 심복하는 이가 아니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예전엔 정승이 노퇴老退한 뒤에 안동의 좌수가 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근세에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사인舍人의 벼슬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니, 향론鄕論이 공을 천거하여 좌수를 시켰다. 공이 병중이라 사양하고는 나가지 않다가 얼마 뒤에 조정의 명령으로 집의執義[29]가 되어 불려 가게 되니 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 이제야 비로소 벼슬의 맛을 알겠다"라고 했다.

탐라耽羅는 멀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있다. 주민들은 바다로 집을 삼아, 고기 잡고 해초 캐는 것으로 먹고 사는 업業을 삼는다. 해마다 풍랑에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서 남자는 매장埋葬할 수 있게 되는 자가 적다. 그런 때문에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아서, 한 남편이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린 자가 있다. 비록 매우 가난한 자일지라도 또한 아내가 10명 미만 되는 자는 없다. 그리고 아내가 항상 힘써 일하여 그 남편을 먹여 살린다.

제주濟州의 먼 시골의 궁벽한 거리에 있는 여자들은 배우자 있는 이가 드물다. 매년 3월에 원병援兵이 들어갈 때가 되면 여자들이 곱게 단장하고 술을 가지고 별도포別刀浦에서 기다리다가 군사에게 술을 권하고 서로 가깝게 된 뒤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지낸다. 8월이 되어 방어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울며 따라와 송별한다. 임자순林子順이 영랑송랑곡迎郎送郎曲(낭군을 맞이하고 낭군을 송별하는 노래)을 지어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계해지桂海志》에 말하기를, "그곳 사람들은 앵무새로 식혜를 담고, 공작으로 소금에 절인 포를 만든다"라고 했다. 앵무새와 공작은 그곳의 토산土産이니 그 말이 이상할 것이 없다.

29 조선조 때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태종太宗 원년元年에 중승中丞을 고쳐서 일컬었음.

5-7 도로道路

《황명통기皇明通紀》에 말하기를, "성화成化 15년에 조선 사신이 건주建州 여진女眞에게 중로中路에서 피습되었으므로, 사자使者가 공물貢物을 바치러 가는 길을 다른 곳으로 바꾸기를 청하였더니 병부낭중兵部郎中 유하대劉夏大가 불가함을 고집하여 말하기를, '조선에서 조공하러 오는 길은 아골관鴉鶻關에서부터 요양遼陽 · 광녕廣寧을 경유하고 전둔前屯을 지나서 산해山海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서너 곳의 대진大鎭을 돌아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조종祖宗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압록강에서 전둔 · 산해로 이르게 한다면 가장 가까운 길이지만, 다른 날의 근심을 끼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드디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일을 가지고 본다면 항상 압록강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인 것이다.

《여사麗史》에, "태조太祖가 친정親征하여 요동에 이르니, 요택遼澤이 진흙과 흙탕물로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없으므로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풀을 베어다가 길을 메우고 수레로 교량橋梁을 만들어 행군했다"라고 했다. 내가 사령沙嶺 · 고평高平 · 반산盤山 등의 땅을 보니, 넓은 들이 끝이 없었다. 비가 와서 장마가 지면 수백 리에 길게 담을 쌓아서 인마人馬를 통행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즉 요택이 아닌가 의심한다.

북경으로 가는 길은 서울에서 의주까지 1,186리, 의주에서 북경까지 2,012리이다. 압록강에서 요동에 이르는 중간을 동팔참東八站이라고 한다. 백안동伯顔洞은 세상에서 원元나라 장수 백안伯顔이 군사를 주둔하였던 곳이라고 하는데, 봉황성鳳凰城 · 금석산金石山 · 팔도하八渡河를 모두 경과한다. 요동은 큰 도회지로서 화표주華表柱 · 광우사廣祐寺 · 백탑白塔 · 망경루望京樓가 있다. 백탑은 세상에서 위지경덕尉遲敬德이 축조한 것이라고 전해온다.

해주위海州衛는 곧 관녕管寧이 살던 옛터이다.

안시성安市城은 요동에 있다고 하나, 지금은 그곳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안산鞍山은 즉 당태종唐太宗의 주필대駐蹕臺(임금이 거가車駕를 잠깐 멈추어 머무르던 곳)이다.

삼차하三叉河는 즉 요수遼水이니,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국경이던 곳이다. 그 서쪽은 옛날의 요서군遼西郡이다.

의무려醫巫閭는 즉 유주幽州의 진산鎭山이다. 광녕廣寧도 아마 또한 유주의 지역일 것이다. 산 위에 성수분聖水盆이 있으며, 참의參議 하흠賀欽이 살던 옛터가 있다.

산해관山海關은 요동과 계주薊州의 인후咽喉와 같은 곳이다. 망해정望海亭이 그 모퉁이를 베개 하고 있으며, 지형과 지세가 매우 웅장하다.

영평부永平府는 한漢나라 때 우북평右北平의 땅이니, 즉 이장군李將軍이 범을 쏜 곳이다.

난하灤河와 하수河水 두 물은 제비꼬리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하수 위에 고죽성孤竹城이 있고, 성안에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사당이 있다.

옥전玉田은 옛날 무종無終의 땅이니, 양옹백陽雍伯이 옥玉을 심던 곳이다.

계주薊州는 옛날의 어양漁陽으로, 성 밖에 녹산교祿山橋가 있고, 성안에 독악사獨樂寺가 있다. 절에는 큰 금부처가 있다.

공동산崆峒山은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가 선인仙人 광성자廣成子에게 도道를 묻던 곳이다. 계문연수薊門煙樹는 연대팔경燕臺八景 중의 하나이다.

황성皇城 안에 땔나무를 파는 시장이 있는데, 문승상文丞相이 죽은 곳이다. 지금 국자감國子監이 있는 곳으로서 지난날 땔나무를 팔던 곳이 여기다.

황성동로皇城東路의 왼쪽에 삼충사三忠祠가 있다. 삼충三忠은 제갈무후諸葛武侯·악무목嶽武穆·문승상文丞相을 일컬은 말이다.

황금대黃金臺는 황성皇城에 있으니 서쪽으로 30리에 뻗쳤다고 한다.

화표주華表柱는 《삼재도회三才圖會》를 참고하여 보니, 요양성遼陽城의 동쪽 60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 지금 요성遼城 안을 가리켜 화표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고시유원古詩類苑》의 주註에, "요동의 제정보諸丁譜에 '영위令威가 한漢나라 초初에 도道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지금의 진동보鎭東堡는 요양遼陽의 동쪽에 연하여 있는데, 주민 중에 정丁이라는 성姓을 가진 자가 많다. 혹시 바로 그 땅이 아닐지 모르겠다.

옛날에 중국의 도성으로 가는 사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풍천豐川·영광靈光·개양開洋을 지나서 등래주登萊州 혹은 절강浙江에 이르러 상륙했다. 그런 까닭에 세 고을에 기악妓樂이 있는 것은 대체로 사신을 영접하고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풍천이 지금은 안악安岳에 이속移屬되었다고 한다. 중국 사신 기순祈順의 시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海州隣甕津 宋使嘗經此 해주는 옹진의 이웃, 송사가 일찍이 여기를 지나갔네
東牟逢麗人 舟楫能指示 동모에서 고려 사람을 만났더니, 배 부리는 일을 능숙하게 지시하네
來從芝崗島 風便兩日耳 지강도에서부터 오니, 바람이 좋아 이틀이 걸리네

지강도芝崗島는 지금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틀 동안이라고 말하였으니 그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송宋나라 이전에는 중국의 상선들이 잇따라 왕래하였는데, 명明나라 때에 이르러 왜구에 대한 근심 때문에 해상의 통금이 매우 엄중하여 통행하지 않은 것이 200여 년이 되었다.


권3

6. 군도부君道部

6-1 제왕帝王

《설부說郛》에 말하기를, "경서經書에서 하夏나라에 대하여는 후씨后氏라고 일컫고, 은殷나라 · 주周나라에 대하여는 인人이라고 말했다. 《백호통白虎通》[1]을 상고하여 보니 거기에서는 말하기를, '하우夏禹는 선양禪讓[2]을 받아서 임금이 되었으므로 후后라 일컫고, 은나라와 주나라는 인심人心에 순응하여 정벌征伐로 천하를 얻었으므로 인人이라고 일컫는다'고 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기》에 말하기를, "하후夏后는 나라 이름이어서, 도당陶唐이니 유우有虞니 하는 칭호와 같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하후의 황제 계啓', '하후의 황제 태강太康' 하고 일컫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백호통》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

《속사시續事始》에 말하기를,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주紂를 정벌한 뒤로는 제帝라는 칭호를 깎아 없앴더니, 진시황 때에 비로소 다시 황제皇帝라고 일컬었다"라고 했다.
주무왕周武王이 황제의 칭호를 깎아 없애버렸다는 설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사기》에 탕湯을 일컬어 은왕殷王이라고 하였으니 아마 주나라의 무왕 때에 처음으로 왕이라고 일컬은 것은 아닐 것이다.

1 책 이름이니, 《백호통의白虎通義》의 약칭. 모두 4권. 육경六經 · 전기傳記를 인증引證하고, 위참緯讖에 이르기까지 옛 뜻을 전한 것이 많아 지금까지도 고증의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2 임금의 자리를 어진 이에게 양여讓與하는 것. 요堯는 순舜에게 선양했고, 순舜은 우禹에게 선양했다. 역사에서 그 시대를 선양지세禪讓之世라고 한다.

《사기》에 말하기를, “여와女媧는 아마 복희씨伏羲氏의 딸이나 혹은 누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송나라의 유염俞琰이 말하기를, “여와는 여진女眞이니 하는 것과 같은 나라 이름이다. 《좌전左傳》에서 말하는 여애女艾라든가, 《마사馬史》에서 말하는 여구女鳩·여방女防이라든가, 《장자莊子》에서 말하는 여우女偊·여상女商이라든가, 《맹자孟子》에서 말하는 풍부馮婦라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다 부인婦人이겠는가”라고 했다. 그 설說이 사리事理에 가깝다.

삼대三代의 착하고 어진 임금들을 상고하여 보니, 하夏나라에는 제우帝禹·제계帝啓·제소강帝少康·제저帝杼·제불항帝不降이 있고, 상商나라에는 성탕成湯·태갑太甲·태무太戊·조을祖乙·반경盤庚·무정武丁이 있으며, 주周나라에는 무왕武王·성왕成王·강왕康王·선왕宣王이 있다.

주周나라의 왕업王業이 800년인데, 중흥中興의 군주는 다만 선왕宣王뿐이니, 그 나라가 쇠퇴하여 떨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서경》〈무일無逸〉편을 상고하여 보니, 은나라의 어진 임금으로 칭찬한 것은 중종中宗·고종高宗·조갑祖甲·군석君奭을 말하였으며, 또 태갑太甲·조을祖乙을 말했다. 그러나 반경盤庚은 말하지 않았다.

《백호통》에 말하기를, “은나라는 질직質直하다. 그런 까닭에 생일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경우에, 태갑太甲이니 제을帝乙이니 무정武丁이니 하여 천간天干을 사용하고, 자子니 축丑이니 하는 지지地支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갑甲·을乙……은 근간根幹이고, 자子·축丑……은 가지인 것이다. 근간이란 것은 근본이다. 근본이 꾸밈새 없이 진실하기 때문에 갑·을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상고하여 보니 하夏나라 때에 공갑孔甲이니 이계履癸니 하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 은나라보다 먼저 이미 천간을 사용한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복희씨는 임금이 되어서 115년 만에 붕崩했고, 신농씨神農氏는 임금이 되어 120년 만에 붕하였으며, 황제黃帝는 재위 100년이고 수명은 111세이다. 소호少昊는 재위 100년이고, 전욱顓頊은 재위 78년, 수명은 98세이다. 제곡帝嚳은 재위 70년이며 수명은 105세이고, 요堯임금은 재위 98년이고 수명은 118세이며, 순舜임금은 재위 39년이고 수명은 100세, 혹은 110세라고 한다. 우禹임금은 재위 10년이고 수명은 100세이다. 탕湯은 천자로 있던 것이 13년이고 수명이 100세이며, 고공古公은 120세, 왕계王季는 100세이다. 문왕文王은 재위 50년이고 수명은 97세, 무왕은 재위 11년, 은殷나라를 이기고 나서 또 5년 재위하다가 붕하니 수명은 93세였다. 목왕穆王은 50세에 즉위하여 55세에 붕했다.

옛날부터 제왕으로서 40년 동안 국왕의 자리를 누린 자는 매우 드물다. 삼대三代 이하에는 오직 한무제漢武帝가 재위 54년, 양무제梁武帝가 재위 48년, 당현종唐玄宗이 재위 44년, 송인종宋仁宗이 재위 42년, 이종理宗이 재위 40년, 명明나라의 세종황제世宗皇帝가 재위 45년, 신종황제神宗皇帝가 재위 48년이다.
제왕으로서 7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린 자로는 한무제漢武帝가 72세, 양무제梁武帝가 86세, 당고조唐高祖가 71세, 현종玄宗이 78세, 송고종宋高宗이 81세, 원세조元世祖가 80세였고, 명나라의 고황제高皇帝가 70세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다만 이뿐이니 어찌 어렵지 않은가.

상고하여 보니, 가락국駕洛國[3]의 수로왕首露王[4]은 처음 탄생할 때 황금빛 알을 깨고 나온 지 며칠이 못 돼서 화化하여 남자가 되니 모양이 기걸奇傑스럽고 훌륭하고, 키가 크고 몸이 커서 나신 해에 곧 임금이 되어 158년 동안 임금의 자

3 고대 우리나라 낙동강 하류에서 일어난 나라. 가라加羅 · 가라伽羅 · 가라迦羅 · 가야加耶 · 가야伽耶라고도 한다. 6가야가 있었는데, 금관가야金官伽耶가 가장 커서 맹주盟主 노릇을 했다.

4 금관가야를 창설한 임금의 이름.

리에 있었다고 하니 기이한 일이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赫居世와 탈해왕脫解王[5]과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6]이 다 알에서 나왔다고 하니, 아마 이때의 우리나라는 천지가 처음으로 개벽되어서 원기元氣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고구려의 태조는 왕위에 있은 것이 94년, 수명이 119세이고, 장수왕長壽王은 재위 79년, 수명은 98세였다고 한다.
신라 진덕여왕眞德女王의 시대는 당나라 고종高宗 무후武侯의 시대와 서로 같다. 이것도 또한 천지간天地間의 기수氣數(스스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가 이와 같은 것일 것이다.

당요唐堯 원년인 갑진년에 명나라 홍무洪武 원년元年 무신戊申까지는 총계 3,785년이고, 단군檀君 원년元年 무진戊辰에서 아태조我太祖 원년 임신壬申까지도 또한 3,785년이니, 기이한 일이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단군 원년에서 선왕先王 정미년까지는 4,000년이 된다.

우리나라의 역년歷年이 긴 것은, 단군시대가 1,048년, 기자箕子에서 마한馬韓[7]까지가 1,071년, 백제가 678년, 고구려가 705년, 신라가 992년, 가락국이 491년, 고려가 475년이다.

5 성은 석씨昔氏. 신라 제4대 임금.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이라고 부른다.

6 고구려의 시조. 성은 고씨高氏. 즉 동명성왕東明聖王이다.

7 고대 한민족韓民族이 형성하였던 삼한三韓 중의 하나. 삼한은 마한馬韓 · 진한辰韓 · 변한弁韓이다.

6-2 세대世代

예전부터 제왕帝王의 세계世系는 모두 황제黃帝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요堯·순舜·우禹는 자신이 천자가 되었고, 계契의 후예後裔는 은殷나라의 임금이 되고, 직稷의 후예는 주周나라의 임금이 되었으며, 익益의 후예는 진秦나라의 임금이 되었다. 또 한漢나라의 임금은 요堯의 후예이고, 위魏는 주周나라의 후예이며, 제齊나라·양梁나라는 하夏의 후예이고, 진陳나라는 순舜의 후예이며, 수隋나라는 주周나라의 후예이고, 당唐나라는 고도皐陶의 후예이며, 송宋나라는 익益의 후예이다.

대체로 요·순·우는 천하를 다스렸으며, 직稷·계契·고도皐陶·익益은 임금의 정치를 보필한 자로서 모두 민생民生에 공적이 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자손들이 서로 바꾸어가며 흥성興盛함이 이와 같을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성씨보姓氏譜》에 말하기를, "고도皐陶가 이관理官(재판관)이 되었으므로 후예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이씨李氏를 성으로 하였는데, 당唐은 바로 그 후예다"라고 했다. 《강목綱目》의 주註에, "당나라에서는 고도皐陶를 추존追尊하여 덕명황제德明皇帝라 하고, 노자老子를 높여 현원황제玄元皇帝라 했다"라고 했다. 또 《완위여편宛委餘編》에서는 말하기를, "이씨는 영嬴이라는 성姓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사략史略》에 말하기를, "계契은 제곡帝嚳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강원姜嫄은 제곡의 원비元妃이다. 거인巨人의 발자취를 밟아 기棄를 낳았는데, 상서롭지 않은 일이라 하여 버렸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은殷나라가 제곡에서 나왔으니, 주周나라가 제곡의 후예는 아닌 것이다.

《사기》〈진본기秦本紀〉에 말하기를, "전욱顓頊의 후예를 대업大業이라 하고, 대업이 대비大費를 낳았다" 하였으니, 주註에, "대비는 진秦·조趙의 조상이니 다

른 이름으로 백예伯翳라고도 한다. 《상서尙書》에서는 백익伯益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열녀전列女傳》에는 말하기를, "요자陶子가 5세에 우禹임금을 보좌했다"고 하였는데, 조대가曹大家[8]의 주註에, "요자는 고도皐陶의 아들 백익이니, 대업이 즉 고도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진秦은 바로 고도의 후예인 것이다.

이율곡李栗谷이 편찬한 《기자실기箕子實記》에 말하기를, "기씨箕氏가 대대로 우리나라에 살았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기씨가 마한馬韓의 군주가 되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기자箕子는 은殷나라와 동성同姓이다. 기箕라는 것은 봉해진 나라 이름이니 미자微子라고 일컫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성姓은 아니다. 《기자실기》에 기箕를 성이라고 한 것은 아마 세상에 와전된 설을 그대로 좇아서 한 말인 것 같다.

《여지승람》에 실려 있기를, "당唐나라 숙종肅宗이 잠저潛邸(천자가 즉위하지 아니한 때)에 있을 때에 산천을 고루 유람하고자 하여 바다를 건너 송악군松嶽郡에 이르니, 보육寶育이 그의 딸을 주어 동침하게 하여, 한 달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이별했다. 드디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작제건作帝建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즉 고려 태조의 조부祖父이다"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에 있을 때에, 한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묻기를, "들으니 왕의 조상은 당나라의 숙종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 말입니까"라고 했다. 민지閔漬가 대답하기를, "숙종이 아니고

8 후한後漢 화제和帝 때의 여인. 이름은 반소班昭, 자字는 혜희惠姬. 조彪의 딸이고 반고班固 · 반초班超의 누이동생. 조수세숙曹壽世叔의 아내가 되어 조소曹昭라고도 함. 반고가 《한서》를 편찬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자, 《한서》의 표지表志의 미완성 부분을 임금의 명에 의하여 보충, 완성시켰음. 대가大家는 여인女人의 존칭임. 저서로는 《여계女誡》 · 《동정존부東征尊賦》가 있음.

선종宣宗입니다"라고 하니 학사가 그렇게 여겼다고 한다. 《주관육익周官六翼》[9]을 상고하여 보니, "선종이 상선商船을 따라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했고, 또 《사문유취事文類聚》에는 말하기를, "당나라 선종은 미시微時에 무종武宗이 시기하므로 자취를 감추고, 승려가 되어 국외에 유람했다"라고 했다. 시기時期와 세상을 생각하면 선종이 그러한 것 같다.

《소설小說》을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의 소제少帝 㬎이 원元나라에 있어서 영국공瀛國公에 봉후封侯되고,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었더니, 뒤에 승려 되기를 빌어 공주와 함께 사막에 숨어 살면서 아들 한 사람을 낳았다. 그때에 명종明宗도 또한 사막에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소제의 아들을 양자로 얻어서 후사後嗣를 삼았으니, 그가 바로 순제順帝이다"라고 했다.
명나라의 유응칙俞應則의 詩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至今兒孫主沙漠 지금까지 아손이 사막의 군주가 되었으니
吁嗟後嗣何其隆 아, 그 후사가 어떻게 그다지도 융성한가

6-3 정치政治

양성재楊誠齋가 말하기를, "못(淵)이 용龍은 아니다. 그러나 용의 신변神變(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변화)은 못에 있다. 산이 범은 아니다. 그러나 범의 위세는 산에 있는 것이다. 용으로 하여금 못에 있지 않고 육지에 있게 하며, 범

9 《주관周官》은 《주례周禮》의 본래 이름이다. 책의 내용이 주실周室의 관제官制를 기술한 것이므로 주관周官이라고 한다. 주공단周公旦이 편찬했다고 한다. 주나라의 관제官制인 춘관春官 · 하관夏官 · 추관秋官 · 동관冬官 · 천관天官 · 지관地官의 6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6익翼이라고 한 것이다.

으로 하여금 산에 있지 않고 함정 속에 있게 한다면 용의 신변神變과 범의 위세는 용이나 범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이들의 한 자 정도의 칼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정치의 권병權柄(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란 것은 남의 임금 된 자에겐 용의 못이고 범의 산인 것이다. 적어도 그 원칙을 잃어버린다면 임금의 권위는 임금 자신에게 있지 않고, 간신의 손아귀에 있게 될 것이다.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노자가 말한, "물고기는 못을 벗어날 수는 없고, 나라의 정권은 남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명나라 사람의 글에 말하기를, "남의 임금 된 자가 자기의 몸을 보전하고 백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오직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을 뿐이다. 천하로도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속에 있는 것이 나가지 아니하고 밖의 것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속의 것이 나가지 않고 밖의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귀와 눈은 총명해지고, 마음과 뜻은 편안하고 한결같을 것이니, 무슨 일인들 절도에 맞지 않으며, 무슨 공功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속의 것이 나가지 않고 밖의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곧 양성養性(자기의 성품을 육성하여 완전하게 함하는 길)인 것이다. 어찌 오직 임금만이겠는가. 모든 사람 된 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전하고자 한다면 이 길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는가.

삼대三代 이하에서는 오직 한漢나라의 소열황제昭烈皇帝(유비)만이 옛날 제왕帝王의 풍도風度가 있었다. 제갈공명을 등용하기 위해 세 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간 일은, 즉 성탕成湯의 삼빙三聘[10]의 뜻과 같은 것이다. 아들을 부탁하는 말에, "만약 내 아들을 가르칠 수 없거든 이 천하를 공公 자신이 가지시오"라고 하였

10 옛날 상商나라의 탕왕湯王이, 이윤伊尹이 착하다는 것을 알고 세 번이나 거듭 사람을 보내어 초빙했다는 고사에서 현인賢人을 열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으니 이것은 또 요순堯舜이 천하를 공유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다. 선유先儒들은 공명孔明을 삼대 때의 훌륭한 인물 이상의 훌륭한 인물이라고 한다. 나는 소열황제도 또한 그러하다고 말한다.

명나라의 고황제高皇帝가 길가의 나무 회초리를 가리키며 타이르기를, "옛날에는 이것을 사용하여 때리는 형벌을 집행했다. 그것은 상풍傷風(상해傷害로 인해 생기는 병)을 제거할 수 있어서 비록 몸을 상하게는 할 수 있으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고인古人의 마음 쓰는 것이 어질고 후하기가 이와 같다"라고 했다. 아아! 정말 착한 임금의 말이다.
상고하여 보니,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말하기를 "모형牡荊[11]은 법사法司에서는 항상 이것으로 태장笞杖을 만들어서 지체肢體의 모든 풍風을 구축한다"라고 했다. 《대명률大明律》[12]의 식례式例에, "태장은 모두 회초리로 만든다"라고 했다. 아마 대체로 사람을 지나치게 치면 상풍傷風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운서韻書에, "초楚는 형荊이다"라고 했다. 가초榎楚(싸리나무 회초리)·추초捶楚(채찍과 회초리로 침)와 같은 것도 역시 이 뜻인가.

상고하여 보니 영락永樂 연간에는 지현知縣의 주익周益이, 성화成化 연간에는 지주知州의 서부徐孚가 모두 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아뢰기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연로하니 원컨대 제가 대신 사형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여 모두 사면되었다. 홍무洪武 연간에 급사중給事中 후용侯庸은 그의 아버지의 사형을 대신 받기를 청하였으며, 감생監生 정통程通은 그의 조부의 사형을 대신 받기를 청하였더니, 모두 죄를 사면하는 은전을 입었다. 아아,

11 마편초과科에 딸린 낙엽관목落葉灌木. 중국 남방南方 원산原産으로 화단에 심음. 줄기와 잎사귀를 달여 이뇨利尿·통경通經의 약재로 씀. 인삼목人蔘木.

12 명나라의 법전法典. 우리나라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의거하여, 명률明律을 우리나라의 형법으로 적용하게 되어, 조선 500년 동안의 형법이 되었다.

착하시다. 황상皇上의 마음은 곧 요순堯舜과 같은 어진 마음이다.

태종조太宗朝에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順天의 장도獐島에 방목하였더니, 코끼리는 수초水草를 먹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며 또 울곤 했다. 감사가 보고하니 임금이 가엾게 여기시어, "데려다가 처음과 같이 사양飼養하라"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아아, 먼 곳의 동물을 귀중하게 여겨서가 아니고, 어질고 사랑함이 동물에게까지 미치게 한 것이다. 인仁과 애愛 2가지가 모두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고려의 태조가 낙타 50필을 한날에 굶어 죽게 한 것과 비교하면 어떻다 하겠는가.

아조我朝의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상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악禮樂을 정비할 겨를이 없더니,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비로소 종경鐘磬과 당악唐樂·속악俗樂의 악보樂譜와 보루각報漏閣[13]과 정시의定時儀[14]와 《칠정편七政篇》[15]과 《오례의五禮儀》[16]와 《삼강행실三綱行實》[17]과, 《명황계감明皇誡鑑》[18]과, 《치평요람治平

13 세종 16년에 누각漏刻(물시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를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 안에 세우고 그 안에 누각을 비치했다.

14 해시계. 앙부일영仰釜日影이니,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의기儀器. 1434년에 세종이 장영실蔣英實에게 명하여 처음 만들어 흠경각欽敬閣에 설치했다.

15 칠정산七政算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을 총칭한 말. 세종 때에 이순지李純之·금담金淡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역서曆書. 내편은 명나라의 역법曆法을 참조하여 우리에게 맞게 서술한 것이고, 외편은 《회회역경통경回回曆經通經》과 《가령역서假令曆書》를 개칭, 증보하여 만든 것이다.

16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약칭. 책 이름. 오례五禮에 관하여 편찬한 것. 세종 때에 허조許稠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신숙주申叔舟 등이 완성했다.

17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일컬은 것이니, 책 이름. 세종 13년에 설순 薛循 등이 왕명에 의하여 지은 책.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삼강三綱에 대하여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사적을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뽑아내어 각각 사실을 서술하고 그림을 그리고 영가詠歌와 찬讚을 붙였다.

18 책 이름. 명황현종明皇玄宗의 고사故事를 기록하고, 고금의 시詩를 덧붙여 만든 책.

要覽》[19]과 《역대병요歷代兵要》를 제작하였으니 모두 임금의 재정裁定에서 나온 것이다. 정인지鄭麟趾의 영릉英陵 비서碑序에 말하기를, "실로 동방의 요순堯舜이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비기秘記에 예전부터 전해 오기를, "황려산黃驪山에는 반드시 성인聖人을 장사 지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즉 영릉이 그것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아는 자가 있었으니, 아! 또한 기이한 일이로구나.

명묘조明廟朝에 대간臺諫이, 음양을 한 몸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베어 죽여서 상서롭지 않은 것을 제거하자고 주청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새나 짐승도 경솔하게 죽일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멀리 따로 떨어진 곳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회재晦齋(명종 때의 학자 이언적) 선생이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임금의 말씀이여, 진실로 천지 · 부모와 같은 도량이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성묘조成廟朝에 남녀男女 2가지의 신체 구조를 가진 사방지舍方智가 사족士族의 부녀를 간음하였는데, 죄는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유배시키는 데에 그친 것은 사리를 알 수 없다.

만력萬曆 기축년에 왜사倭使가 공작孔雀 한 쌍을 바치니, 서울 안의 사녀士女들이 나와서 구경하느라고 경성京城에서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혼잡하고, 마을은 거의 텅 비게 되어 매우 괴이하다고 할 만했다. 뒤에 남양南陽의 외딴 섬에 방사放飼하라고 명령했다. 아, 우리의 선왕先王들은 이상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선왕은 조정의 왕업을 계승하면서부터 학문에 유의하여 날마다 경연經筵에 납

19 책 이름. 정치 교양서.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지음.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문화의 성쇠 변천을 적음. 모두 150권.

시고, 사현四賢[20]을 포창褒彰 증직贈職하였으며, 이름난 퇴계 선생은 《성학십도聖學十圖》[21]를 올리고, 노소재盧蘇齋는 〈숙흥야매잠주소夙興夜寐箴註疏〉를 올렸으며, 이율곡李栗谷은 《성학집요聖學輯要》[22]를 올리니 특히 칭상稱賞하고 모두 간행하여 반포하게 했다. 또 유신들에게 명령하여, 《역경》·《시경》·《서경》과 사서四書와 소학小學 등을 한글로 풀이한 것을 편찬하게 했다. 그의 후학을 인도·권유하는 뜻이 진정 대단하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학聖學의 방향으로 추향趨向하는 선비가 잇따라 나오게 되어서, 거의 염락濂洛(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의 정호程顥)과 같은 모습을 보이더니, 수십 년이 못 되어서 세도가 점점 강쇠降衰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주 크게 변하고 말았다.

선조대왕宣祖大王의 성지聖智는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었다. 모든 변방의 일에 대한 기획을 다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裁斷했다. 비변사備邊司의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하문下問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상교上敎(임금의 말씀)가 윤당允當합니다"라고 답신했고, 승정원承政院에서는 임금이 재결한 일을 미처 봉행奉行하지 못하여 가끔 황공하여 대죄待罪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때 세상에서는 "황공대죄 승정원, 상교윤당 비변사"라고 말했다.

6-4 제도制度

장대악張大嶽이 말하기를, "개국의 초기에는 모든 일이 처음이어서 인정人情은

20 동방사현東方四賢.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를 일컫는다.

21 성학聖學의 대강을 도해圖解한 책.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지어서 선조宣祖에게 경연經筵에서 시강侍講했다.

22 《대학大學》의 본지에 의거하여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고증, 설명한 책.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편찬한 것.

소박하고 예스러웠다. 대체로 질박質朴한 것이 많고 화려한 형식은 적었다. 모든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만들며, 번화하고 성대한 일을 펴서 실시하게 된 것은 모두 중세中世에서 했다. 그때를 당하여 세상 사람들은 태평하고 성대하며 아름다운 세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리하여 쇠약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조짐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성인은 그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가득히 차기를 기다리지 않고 급히 부족한 상태로 되돌리며, 아로새긴 것을 찍어서 소박한 것을 만들고, 둥근 것을 헐어서 모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진정 옳다. 태양도 정오正午가 되면 기울고, 만물도 성盛하면 쇠衰하는 것이 곧 그 이치인 것이다.

명나라 사람이 말한 것이 있다. "송나라는 의논이 번다하고 형식의 제도에 견제牽制되어, 마음이 활달하고 도량이 크며 썩 훌륭한 인사人士를 등용하지 못했다. 장괴애張乖崖는 임금을 도와 왕자王者를 만들고 패자霸者를 만들 만한 큰 재략才略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당시 그의 재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홀로 송나라만이 아니다. 말세에서는 의논들이 많고 법에 견제되어, 마음이 활달하고 도량이 크며 기이하고 거룩한 선비들이 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송나라의 《섭몽득연어葉夢得燕語》에 말하기를, "모후母后에게 시호諡號를 올리는 일은 동한東漢에서 시작했다" 했다. 또 여공작呂公綽은 말하기를, "옛날에는 부인들에게 시호가 없었으며, 한漢나라 이래로 황후는 황제의 시호를 그대로 호칭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좌전左傳》의, "성자聲子가 은공隱公을 낳았다"라고 한 대문의 주註에 "성聲은 시호이다" 했고, 한漢나라의 고조高祖는 선온先媼을 높여 소령후昭靈后라고 했다. 그러니 이전에 이미 시호가 있

었던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 때의 황후의 시호는 모두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명숙황후明肅皇后는 일찍이 조정에 임어臨御하여 정사를 본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네 글자로 된 시호를 올렸다가, 뒤엔 드디어 상례常例가 되었다.

재상의 지위에 있던 신하가 죽으면 증시贈諡하는 것은 다만 은총과 포상褒賞을 한때에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또한 장래의 세상에 권장勸奬하고 훈계하는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근래 50년 동안에 시호를 주청奏請하는 집이 매우 많은데, 태상太常[23]에서 멈춰 두고, 즉시 시호를 의정議定하지 않는다. 이준경李浚慶 같은 이는 두드러지게 뛰어난 공렬功烈이 있건만, 죽은 뒤 40년이 되어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한 뒤에야 비로소 증시贈諡를 논의하였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명나라의 법제를 상고하여 보니, 친왕親王의 아들은 군왕郡王, 군왕의 자손은 차례로 점차 강등하여 진국장군鎭國將軍 · 보국장군輔國將軍 · 봉국장군奉國將軍 · 진국중위鎭國中尉 · 보국중위 · 봉국중위가 된다. 녹미祿米도 또한 체감遞減하여 1,000석에서 200석에 이르면 그친다. 종실宗室은 전지田地를 마련하여 전세田稅를 받거나 장사를 하여 영리營利를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정된 녹미도 주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빈핍貧乏하여서 생활할 수 없다. 또 친왕 · 군왕 · 장군 · 중위의 딸은 군주郡主 · 현주縣主 · 군군郡君 · 현군縣君이 된다. 그들의 녹미도 또한 800석에서부터 200석에 이르기까지 차등이 있다. 종실의 혼인 · 상사喪事 · 장례葬禮의 비용은 다 관官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종실宗室 대우는 넉넉하고 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대四代 이후에는 진사進士의 과거를 볼 수 있게 한 것은 대체로 당 · 송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다만 종실의 딸에 대하여는 비록 공주公主 · 옹주翁主일지라도 단

23 고려 때의 관청. 제사와 증시贈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곳. 여기에서는 봉상시奉常寺를 지칭한다.

한 섬의 녹미도 없으며, 부마駙馬가 죽은 뒤에라야 비로소 품록品祿을 주는 것은 법제의 불비不備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조정의 녹봉祿俸으로 정1품에겐 매월 쌀 88석을 준다. 1년을 통산하면 1,048석이 된다. 한漢나라의 2,000석에 비하면 겨우 반액이다. 그러나 말이나 섬의 크기가 한나라 때의 것보다 배는 되니 그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종9품에게는 매월 쌀 5석을 급여한다. 소위 녹祿이 송나라 때보다 적다고 하는 것이다.

《패사稗史》를 상고하여 보니, 명나라의 국토는 동쪽은 조선에 닿고 서쪽은 가욕嘉峪에 이르며, 남쪽은 영해嶺海에 인접하고 북쪽은 사막에 연접했다. 종縱으로 1만 900리, 횡橫으로 2,750리다. 남북으로 직예直隸(직할하는 곳)가 2, 포정사布政使가 13, 총부總府가 159, 주州가 334, 현縣이 1,114이다.
세입歲入은 미맥米麥이 3608만 5,000여 석, 경창京倉의 조운미漕運米가 400만 석이다. 비단이 20만 5,000여 필, 실이 19만 7,000여 근, 면화綿花가 24만 6,500근, 면포綿布가, 13만 800여 필, 은銀 149만 냥이다.
경영京營과 각 변경의 기병 · 보병인 관군을 합하면 모두 84만 5,000명, 양경兩京의 문무관文武官이 2만 400여 명이다.
각 변경에 당연히 보내야 하는 연례은年例銀이 445만, 각 왕부王府의 매년의 녹미가 852만 석, 각 부府 · 주州 · 현縣의 늠선생원廩膳生員이 3만 5,800여 명이고 아전이 5만 5,000여 명으로서 달마다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식량이 약간이다.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비교하면, 세출은 항상 많고 세입은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지 못하니 하물며 우리나라이겠는가.

고려의 녹봉 제도는 좌창左倉의 쌀 13만 9,700여 석을 가지고 나누어 준다. 안

으로는 종실宗室과 백관百官, 밖으로는 주州·군郡의 진장鎭將, 아래로는 이서吏胥·공장工匠에 이르기까지 녹祿이 없는 자는 없다. 제1과科의 녹미는 400석, 제2과의 녹미는 366석이다. 이렇게 차등을 두어 10석에 이르러 그친다.
본조本朝에서는 평시에는 광흥창廣興倉의 쌀 7만 석을 가지고 녹봉을 나누어 주었다. 전대前代에 비교하면 감손減損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비축이 항상 궁핍함을 근심하였으며, 변란 뒤에는 또 그 반을 감했다. 그러고도 세입이 세출에 부족하여 항상 다음 해 것을 앞당겨 수납하여 보충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관리에게 녹봉이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다 그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서吏胥에게 녹봉을 급여하는 규정이 없고 한정된 품계에서 거관去官(관직을 떠나는 것)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승진하거나 전근하지도 못하므로 다시 살아갈 도리가 없다. 그들이 기회를 노려 속이고 법을 농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변란變亂 이후로 아전의 정원을 줄이고, 임시로 월료月料(달마다 주는 급료)를 주고 있는데, 논의하는 자들이 오히려 경비를 아껴서 삭제하고자 하니 역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군자감軍資監에는 평시에 30만 석을 보유한다. 그런 까닭에 계사년에 왜적이 물러간 뒤에도 오히려 4, 5만 석이 남아 있어서, 군량을 보충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수 있었다.
지금 창고 안에는 곡식이 만 석도 못 되니, 만약 급박한 사태라도 생기면 무엇으로 구제할 것인가. 도대체 나라에 6년 동안 사용할 만한 비축이 없으면 옛사람들은 오히려 위급하게 생각하였던 것인데, 하물며 1년 식량의 준비도 없는 일이겠는가. 그런 까닭에 토지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농사에 힘쓰게 하고, 쓰는 것을 절약하는 것이 곧 재물을 낳게 하는 큰 방법인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고려 태조가 백성의 장長이 되는 자를 호장戶長이라 하고, 군사를 거느리는 자를 장교將校라 했다. 이것이 향리鄕吏 제도의 시초이다. 전조前朝 때의 향직鄕職은 9품을 군윤軍尹, 8품을 보윤甫尹, 7품을 정조正朝, 6품을 후윤侯尹, 5품을 정보正甫라고 했다.
그 호장戶長의 후예들로 현족顯族(드러난 집안)이 된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 장교는 그 천함이 나장羅將(하인의 일종)과 같은 것이 있게 되었다. 대체로 이름만 있고 실지는 없는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고려의 개국 초기에 주군州郡 향리鄕吏의 자제들을 뽑아서 서울에 볼모로 두게 하였는데 이것을 기인其人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인이라는 명칭은 오래된 것이다. 본조本朝에서는 기인을 사재감司宰監에 예속시켜 모든 궐내의 땔나무를 공급시키며, 혹은 복무를 면제받는 대가代價로 베를 강제 징수하곤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방납防納[24]하는 무리들이 주군州郡을 침어侵漁하게 되어 폐해가 막심하다.

전조前朝 때에 만월대滿月臺가 높고 험준하여서 연로한 재상들이 올라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출입할 때에 부액扶掖하는 하인을 주었더니, 아조我朝에서도 그에 따라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에게는 모두 등차等差있게 반당伴倘(옛날 서울의 각 관청에서 부리던 사환使喚)을 주어 반인伴人이라고 불렀다. 변란 이후에는 군의 정원이 감축되어 친공신 이외에는 폐지하고 주지 않는다.

고려의 제도에는,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역마驛馬의 수를

24 공물貢物을 바쳐야 할 사람이, 바칠 물품이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할 때에는 사서라도 바쳐야 한다. 이 경우에 상인商人이 대신 사서 바치고 폭리를 취한다. 뒤에는 상인이 관권과 결탁하여, 바칠 물품이 있는 것도 못 바치게 하고, 상인이 대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이러한 행위를 방납이라고 한다. 민간에 심대한 고통을 주었다.

재추宰樞에게는 10필, 3품에게는 7필, 참상參上(6품 이상 종3품 이하)에게는 5필, 참외參外(7품 이하)에게는 3필을 주었으며, 크고 작은 관원과 수령들이 부모를 뵈러 오고 가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또한 역마를 사용하게 했다.
본조本朝에서는 의정議政에게는 7필, 정2품 이상에게는 6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정3품 이하에게는 3필, 7품 이하에게는 2필을 주었다. 근래에는 역로驛路가 피폐한 데다가 또 각각 2필씩을 감했다. 그런 까닭에 왕래하는 사신들이 혹은 법을 범하여 더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역마의 수를 남용한 죄에 저촉되는 자가 있다.
또 근래에는 역옥逆獄 사건이 해마다 있어서 체포하러 가는 관리가 사방으로 나가게 되는데, 선전관宣傳官 등이 가끔 소를 타고 가는 일이 있다. 역로가 다시 회복될 날이 없다.

잡기雜記에 말하기를, "인묘仁廟 초년에 대신들이 말하기를, '사문사령赦文赦令을 반포할 때에 임금이 내리는 글 속에 국가에 관계되는 말을 넣는 것은 성묘조成廟朝 때부터 처음 있는 일로서 조종祖宗의 옛 법이 아니며, 또 전고前古의 사문赦文에도 실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출발부터 바로잡아가기 시작하는 때에 잘못된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고치게 하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명묘조明廟朝에 이르러 이기李芑 등이 다시 그대로 쓰기를 청하여 드디어 기성旣成의 예식例式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안貢案(공물貢物을 부과하는 원안原案 문서)은 연산조燕山朝에서 증가하여 정한 것으로서 오래도록 백성들을 병들게 했다. 선왕조先王朝 갑진년에 비로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청廳을 설치하고 고쳐 정하였으니, 각 고을의 부력富力의 정도와 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을 참고하고, 토산土産의 있고 없음을 참작하여, 이것과 저것을 서로 옮기고 바꿔서 균형 되고 적당하게 정했다. 그리하여 100년에 걸친 묵은 병폐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없어지니 백성들의 병이

거의 낫게 되었다. 그러나 방납을 교활하게 강요하는 폐해는 전일보다 몇 배나 더하다. 서리胥吏들은 사리私利를 노리고, 세력 있는 집에서는 이익을 독점하니, 공용公用은 더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힘은 거듭 곤란하게 된다. 이것은 실로 나라에 기강이 없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염치 있는 자가 드물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한번 크게 고치지 아니하면 이 폐단은 없어질 때가 없을 것이다. 나라의 병을 치료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에 대한 약을 써야 할 것이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은 전폐錢幣의 시행에 있고, 군사를 충족하게 하는 방법은 호패號牌[25]를 시행하는 데에 있다. 대체로 전폐가 통용되면 국가의 재용財用은 저절로 넉넉하게 되고, 호패의 법이 시행되면 세상에는 요행을 바라는 백성이 없을 것이니 그 이익은 반드시 클 것이다. 돈을 사용하자는 논의가 선왕先王의 말년에 일어나서, 조정의 한 신하가 헌의獻議하니 모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일이 마침내 그대로 중지되고 말았으며, 호패는 근년 임자년에 호패를 다루기 위한 청廳을 설치하고, 원부原簿를 작성하여 공경公卿 이하가 모두 차고 다니더니, 두어 달 만에 폐지해 버렸다.
우리나라의 습속이 오래도록 참고 견디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애석한 노릇이다. 그런 까닭에 일을 경영하는 자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가 어려우며,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얼음을 반사頒賜하는 법은 평시에는 문무관文武官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과, 종친宗親의 전원全員에게 나누어 주어도 일찍이 다하여 없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변란 이후로는 다만 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게만 주어도 오히려 다 없어

25 16세 이상 되는 남자가 차는 길쭉한 패. 앞면에 성명 · 나이 · 난 해의 간지干支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아官衙의 낙인烙印이 찍혔음. 신분에 따라 아패牙牌 · 각패角牌 · 황양목패黃楊木牌 · 대방목패大方木牌 · 소방목패小方木牌 등의 구별이 있음.

질 것을 근심하여, 매년 가을철이 되면 경기京畿의 각 고을에 책임을 지워 징발하게 되니 그 폐단이 매우 많다. 그것은 실로 나라에 기강이 없어서 관에서 자기의 직책을 잘 살피지 않으며, 간수하는 하인들이 함부로 훔쳐내어, 그것의 방납을 이롭게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관사官司의 폐단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귀전록歸田錄》에 말하기를, "예전에는 학사學士가 차자箚子[26]를 올릴 때에는 다만 신臣 아무개라고만 하였는데, 선조先朝 때에 성도盛度 · 정도丁度가 함께 학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성姓을 붙여 구별하게 하였더니, 그 뒤로는 드디어 모두 이름에 성姓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한서》〈곽광전霍光傳〉과 여러 서적에서 신하는 모두 다만 이름만을 일컬었다. 대체로 송宋나라 이후에 비로소 성명을 갖추어 일컫게 되었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라는 글자를 쓸 때에 모某 대신에 사厶를 쓰는데 이는 시속時俗의 간편한 것을 좇아 그렇게 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사厶는 실로 옛날의 모某 자인 것이다"라고 했다.
《곡량전穀梁傳》의 주註를 보니 거기에 말하기를, "지금 우리의 계산計算에 관계된 문서에는 반드시 끝에 인印이란 글자를 쓴다"라고 했다. 일찍이 중국의 문서를 보니 역시 그렇게 되어 있다. 대체로 모든 일은 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옛사람의 《비지碑誌》 가운데, 황조皇祖니, 황고皇考(돌아가신 황제의 아버지)니 하고 말한 것이 많다. 《소경騷經》에 말하기를, "짐의 황고를 백용伯庸이라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가례家禮》의 〈신주식神主式〉에 말하기를, "《예경禮經》과 구본舊本에는 모두 황皇이라는 글자가 있다. 대덕大德 연간에 성부省部에서 황皇자의

26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문서의 한 체體. 또는 상관上官이 하관下官에게 보내는 공문서.

사용을 금지했다. 지금은 황皇이란 글자 대신에 현顯이라는 글자를 쓰면 된다"라고 했다. 대덕大德은 원元나라 성종成宗의 연호이다.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니, '황고묘皇考廟 · 현고묘顯考廟'의 주註에, "황고는 증조曾祖이고, 현고는 고조高祖이다"라고 했다. 황皇 자는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패사稗史》를 상고하여 보니, "일壹 · 이貳 · 삼參 · 사肆 · 오伍 · 육陸 · 칠柒 · 팔捌 · 구玖 · 십拾 · 천阡 · 백陌 등의 글자는 국초國初에 형부상서刑部尙書 개제開濟가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세상에 말이 전하여 온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상고하여 보니, 《육무관필기陸務觀筆記》에 이미 있었으며, 진덕수眞德秀가 올린 《대학연의大學衍義》[27]의 기록에는 월月 · 일日을 표시하는 데에도 또한 이 글자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명나라 때에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용문서에서 쓰게 된 것은 아마 개제로부터 시작한 것일 것이다.

적籍이라고 하는 것은 1자 길이의 2개의 죽첩竹牒(대나무에 새긴 문서)이다. 사람의 나이와 이름과 얼굴 모습을 적어서 궁문에 걸어두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대조하여 본 뒤에 들어가게 한다. 이른바 금문통적金門通籍이란 것이다.

지금은 사람의 나이와 얼굴 모습을 기록한 것을 적籍이라고 하는데, 군적軍籍이니, 호적戶籍이니 하는 것과 같다. 그 밖에 물건의 이름과 수목數目(낱낱의 수)을 적은 것을 부簿라고 말한다.

27 책 이름. 송宋나라의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것으로, 43권. 군주君主의 수양修養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大學》의 정신을 경전과 사실史實에 의거하여 해설한 것임. 명나라의 구준邱濬이 이를 보충하여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160권을 저술했다.

활자活字를 주조鑄造하여 서적을 인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창조한 것이고, 중국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변란 이후에 목판을 새기기가 어렵게 되어서 활자를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교정校正하는 것이 자세하지 않으면 잘못되기 쉬우니 가히 우려되는 일이다. 들으니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모든 서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쇄를 감독하던 관리를 곧 장형杖刑에 처했다. 그러므로 절대로 착오錯誤된 글자가 없었다고 한다.
또 중국에서 책을 새기는 판목板木은 대추나무 · 배나무 및 잡목雜木으로 만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가래나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판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서적을 간행하고 반포하는 것이 널리 보급되지 못했으니 우리나라의 처리가 졸렬한 것이다.

6–5 법금法禁

한漢나라는 진秦나라의 법을 그대로 습용襲用하다가 효문제孝文帝 때에 이르러 비로소 육형肉刑(몸에 상처를 내는 형벌)과 삼이參夷(삼족을 멸하는 것) · 주륙誅戮의 법을 폐지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육형肉刑 가운데서 궁형宮刑(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음부를 폐쇄하는 형벌)은 폐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景帝는 다시 조착鼂錯을 노륙孥戮(남편 또는 아버지의 죄로 아내나 아들까지 죽임)하였으며, 무제武帝에 이르러서는 법을 쓰는 것이 더욱 엄중했고, 선제宣帝도 또한 그대로 따르더니 왕가王嘉가 정승이 된 뒤에 비로소 법률을 경감했다. 동경東京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이것이 진秦 · 한漢나라 이래로 법률을 쓰는 것이 너그럽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였던 유래이다.
지금 왜노倭奴들은 법을 쓰는 것이 지극히 혹독하여서, 사람 죽이기를 풀이나 잔디를 베듯이 한다. 또 기氣를 숭상하여 호협豪俠한 짓을 마음대로 하는 등,

전국戰國의 풍습이 있다. 또한 진秦나라가 끼친 풍속이라고 할까.

장태악張太嶽이 말하기를, "진秦나라가 제도를 창설하고 법을 세웠으니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이롭게 여긴다. 역사에서는 그것을 성인聖人의 위엄을 얻었다고 칭찬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본조本朝의 정치는 간단하고 엄숙하며 질박하였는데, 근래의 실정에 어둡고 진부하여 쓸모없는 무리들이 이에 도리어 송宋나라 말기의 폐습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조종祖宗이 세운 제도를 망령되이 비평하고 있으니, 정치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장태악이 송나라의 폐습이라고 논한 것은 옳다. 다만 그의 언론言論이 항상 엄하고 각박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한때의 사업이 있었으나 그 훌륭한 명성을 보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한서》에, "시정市井 상인商人의 자손은 관리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공장工匠과 상인과 악인樂人의 아들은 비록 공功이 있더라도 다만 물품을 상사賞賜할 뿐이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공장이나 상인의 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모리謀利하는 자일지라도 사소한 돈만 바치면 곧 신역身役이 면제되고,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나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는 자 또한 많으니, 그 명분은 어떤 것인지.

중국에서는 장관將官은 평상시에도 하인에게 말을 몰게 하지 않는다. 군중軍中에서는 문관文官도 또한 말을 몰지 못하게 한다. 법제가 그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왕조先王朝에 무신들에게 명령하여 중국의 예에 따라 말을 모는 것을 용허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사法司로 하여금 그 일을 규찰하고, 위반하는 자를 탄핵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한두 달도 못 가서 중지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금령禁令이 시행되지 않음이 번번이 이와 같았다. 상말

에, "고려의 공사公事는 다만 사흘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진정 그러하다.

소를 죽이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 까닭에 쇠고기를 금육禁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풍속에서는 양이나 돼지는 기르지 않고, 소를 잡아서 먹기 때문에 여염의 하천下賤한 백성들이 소를 잡아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안과 지방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죽는 소의 수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선왕先王의 조정에서 여러 번 거듭 엄중한 교령敎令을 내렸고 법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커다란 이익이 있는 것이어서 금지할 수가 없다. 관학館學[28]의 안에서까지 소를 도살하여 꺼림이 없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놀랄 만한 일이다. 말들 하기를, "이미 그의 노력을 먹고 또 그의 고기를 먹으니 측은하다고 할 만하다" 한다. 내 생각에는, 늙고 병든 사람이 비록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더라도 사육四肉(네발 가진 짐승의 고기)과 같은 것은 안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평시에 있어서 이조吏曹 · 병조兵曹에 분경奔競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매우 엄중하다. 그리고 천망薦望(관원으로 채용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조금만 공론에 맞지 않으면, 대관臺官이 곧 죄를 논하고 탄핵하여 추천을 맡은 관원은 추고推考를 당하고, 혹은 좌천 · 파면되곤 한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전관銓官[29]은 항상 추고를 띠처럼 띠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크게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한림翰林 두 사람이 정청政廳에 나아가서 그 잘못을 기록하며, 선온宣醞(임금이 내리는 술)이 있으면 한림은 정랑正郎(조선조 때 육조의 정5품 벼슬)의 오른쪽에 앉는다. 내가 사관史官이 되었을 때에도 또한 일찍이 참여

28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사학은 선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서울의 중앙 및 동 · 서 · 남 네 곳에 나라에서 세운 학교. 중학中學 · 동학東學 · 서학西學 및 남학南學. 태종太宗 11년에 베풀어서 고종高宗 31년에 폐함.

29 조선조 때 문무관文武官을 전형하는 직위에 있는 이조吏曹 당상관堂上官과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일컬음.

한 일이 있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다.

평시에 도성의 안팎은 금산禁山이라 하여 소나무가 울창하게 무성하더니, 임진년 병화兵火의 뒤로는 나라의 법이 해이해져서 날로 산은 벗어져 간다. 또 근년 이래로 벌레가 솔잎을 거의 다 먹어 버려서 수십 리 이내에는 어린 솔도 또한 남은 것이 없고, 사방의 산이 다 붉게 되어 보기에도 참담하다. 음양가陰陽家들이 한양漢陽의 운기가 쇠진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설을 드러내 외치게 되었으니 어찌 슬픔을 견딜 수 있겠는가.

평시에 유생儒生의 기마騎馬는 금지했다. 그런 까닭에 유생은 짚신을 신고 도보로 다녔으며, 타고 다니는 자는 드물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유생이 목이 긴 가죽신을 신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조관朝官의 모양과 똑같으며, 도보로 걸어다니는 자는 아주 없어졌다.
또 평시에는 비록 연장年長한 자일지라도 행전行纏을 치고 직령의直領衣를 입었는데, 지금은 나이 젊은 자들도 다 도포道袍를 입고, 행전을 벗어버린 채 분투分套를 입는다. 비록 자제들이 어른에게 뵐 때에라도 또한 그러한 차림을 한다. 풍습을 이루어 그것이 떳떳한 것이 되었으니 시속時俗의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록 흰옷 입기를 좋아한다고 하나, 국가에서 금지하는 금령禁令이 있다. 그런 까닭에 선왕조先王朝에서는 오히려 백의금란白衣禁亂(흰옷 입는 것을 금지 단속하는 일)이 있었다. 사인士人으로서 관직이 없는 자도 나들이할 때에는 또한 홍의직령紅衣直領을 입었으니 내가 어릴 때에 목도했다. 그러던 것이 대체로 가정嘉靖 을축년 이후 여러 번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계속해서 흰옷을 입은 것이 드디어 풍속을 이루어서 지금은 붉은 직령을 입는 이는 전연

없다. 그리고 온 나라 안이 모두 흰옷을 입으니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조소嘲笑한다.

개가改嫁한 여자의 자손에게 동반東班이나 서반西班의 벼슬을 시키지 않는 법은 성묘조成廟朝 때에 시작했다. 그래서 사대부의 집에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비록 청년 과부일지라도 절대로 개가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비록 집집마다 표창할 만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서게 된 것은 주무관원에 억눌려서 억지로 된 것으로서, 아마 고금 천하에 통용될 만한 것은 못될 것이다.

그러나 임진壬辰의 변란 때에 부인들이 정절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서, 무찔러 죽임을 당할지언정 흉악한 왜적에게 더럽히지 않은 자가 그 수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무지하고 천한 여자에게 이르기까지 적을 꾸짖고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어찌 교화敎化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본래 명분을 소중히 여긴다. 임진왜란에 온 나라는 흙 무너지는 듯하였으나, 세족대가世族大家들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적을 토벌했다. 우리나라가 회복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대체로 그 공효功效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비의 법은 신라 때에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뒤에 혹은 군사상의 공로로, 혹은 납속納粟한 대가로 곧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제하는 것을 허가하니, 거짓으로 속인 것이 많았다. 그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옥玉꾸미개를 다는 자도 허다하다. 그런 까닭에 사족士族을 멸시하며,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여 주인을 시해하는 변고가 있기에 이르렀다. 후일에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서얼庶孼이 금고禁錮(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것)를 당하게 된 것은 태종조太宗朝에

서 시작했다.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의 말을 좇아 드디어 항정恒定의 법으로 정한 것이고, 고금을 통한 제도는 아니다. 만력萬曆 계미년에 율곡栗谷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에 변환邊患으로 인하여 건언建言하기를, "서얼로서 납속한 자에게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실로 한때의 임시적인 편의에서 나온 계책이었다. 그런데 논의하는 자가 옳지 않다고 하여, 논핵論劾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일을 변통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임진 이후에 서얼들은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자가 많다.

잡기雜記에 말하기를,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첩이 자삼紫衫을 입었다가 금리禁吏에게 붙잡혔다. 대사헌大司憲 오승吳陞의 기생첩에게 뇌물을 주고 석방하기를 청하니, 오승이 금리에게 고발하지 말라고 했다. 집의執義[30] 이하가 승陞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고 인하여 죄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승의 파면을 명령했다"라고 한다. 지금은 시정市井의 천한 창녀까지도 다 사라채단紗羅彩段의 옷을 입건만 꾸짖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하물며 왕자나 대신의 첩이겠는가. 역시 세상은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은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매우 엄중하여, 평시에는 천자의 사신을 접대할 때에도 또한 토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예禮로 했다. 그러던 것이 임진 변란 뒤에는 막고 금하는 것이 해이해져서 시정의 백성들이 은으로 화폐를 삼으니, 그 뒤부터 이 폐단이 시작되었다. 근년에는 태감太監 유劉·염冉 두 중국 사신이 나왔을 때에 은 여러 만 냥을 긁어모아서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쓸어갔으며, 요사이는 왕래하는 차관差官들의 강요도 또한 심하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보기를 이利를 파내는 굴인 것처럼 하니 뒷날의 근심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30 조선조 때 사헌부의 종2품 벼슬로, 태종太宗 원년元年에 중승中丞을 고쳐서 일컬었음.

6-6 용인用人

옛사람이 말하기를, “요堯임금은 그의 보는 것을 순舜에게 합쳐서 4개의 눈으로 밝게 보았으며, 그의 듣는 것을 순에게 합쳐서 4개의 밝은 귀로 달통하게 들었다. 요와 순은 한 몸이 되어서 천하를 교화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홀로 요임금뿐만이 아니다. 제환공齊桓公은 귀와 눈을 관중管仲에게 합하여 제齊나라가 패자霸者가 되었고, 한고조漢高祖는 귀와 눈을 소하蕭何 · 장량張良에게 합하여 한나라의 황제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임금이 요堯가 아니고, 신하가 순舜이 아닐지라도 일체가 되어서 서로 호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진秦나라의 2세가 그 눈과 귀를 조고趙高에게 붙였기 때문에 사슴과 말이 형체를 바꿨건만 그것을 변별하지 못하였으며, 떼도적이 산에 가득하였으나 듣지 못하게 되어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아, 신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신임을 받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면 귀는 참소와 아첨으로 막히고, 눈은 사악함과 간사함으로 가려져서, 진秦나라의 2세처럼 되지 않을 자가 적을 것이다.

《송경문필기宋景文筆記》에 말하기를, “요순의 세상에서는 집집마다 포상할 만하다고 한 말은, 모든 사람을 다 포상할 만하다는 것은 아니다. 포상할 만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걸주桀紂의 세상에서는 집집마다 주벌誅罰할 만하다고 한 말은, 사람마다 모두 주벌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주벌할 만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잘 다스려지는 세상의 선비라고 하여 모두가 군자는 아니다. 난세의 선비라고 하여 모두가 소인小人은 아니다. 군자가 이기면 소인이 소인의 짓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해치지 못하는 것이며, 소인이 이기면 군자가 군자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세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치세治世와 난세亂世의 구분은 다만 군자와 소인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으며,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느냐에 달렸을 뿐인 것이다.

왕엄수王嚴叟가 소疏에서 말하기를, "폐하께서 오늘날 성인聖人의 학문을 배우려는 것은, 바로 사邪와 정正 두 글자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조정은 편안하고 임금은 잘못하는 일이 없고, 천하는 태평하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이 한번 조정에 진출하게 되면, 조정에는 곧 불안한 기상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악한 사람이 능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류同類의 호응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와 아래의 사이는 가로막혀서 임금이 실정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화禍와 근심이 빚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것은 진실로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그 사람의 바르고 사악함을 알고자 한다면, 오직 조정이 안정한가 위태한가,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가 어지러운가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나아가고 물러감이 세도世道에 영향을 끼침이 이와 같다. 어찌 두려워할 만하지 않은가.

송宋나라의 인종仁宗이 왕소王素에게, 누가 정승으로 적임자인가를 물으니, 왕소가 말하기를, "오직 환관宦官과 궁녀들이 그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승으로 선임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옳은 말이로구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펴보면, 간사함과 정당함이 당장에 구분될 것이니, 왕자王者의 사람 쓰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왕조先王朝에 박숭원朴崇元이 강원감사江原監司가 되니, 대간臺諫이, 숭원은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고 하여 체임遞任하라고 탄핵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상이 다 교민巧敏한데 숭원이 홀로 우졸愚拙하니 쓸만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대간의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연석筵席에서, 여러 신하들의 유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논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말씀하기를, "식湜은 우졸愚拙하고, 성箴은 고집이 있다"라고 했다. 식은 즉 신식申湜이고 성은 즉 허성許箴이다. 신 공申公은 임금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감격하여, 졸拙이란 글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한다.

6-7 청간聽諫

옛날에는 임금에게 간언하기 위한 관원이 따로 없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간언할 수 있게 했다. 그러고도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여 감히 다 말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상賞 주는 제도를 세워서 권장했다. 전傳에 말하기를, "흥하는 임금은 간신諫臣을 포상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을 주어서 말하게 하고는, 오히려 그 간언이 아첨하여 바로 간언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형벌을 제정하여 그들을 겁내게 했다. 《서경》에 말하기를, "신하가 바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형벌은 묵형墨刑[31]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후세의 간언을 싫어하는 군주는 다만 상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게 형벌을 준다. 그러니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멸망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아, 옛날의 어진 임금과 지금의 충간을 싫어하는 군주는 서로 다르구나.

구양수歐陽修가 인종仁宗에게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옛날부터 천하를 가진 이로 천하를 잘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지러워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견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일어나면

31 자자刺字하는 형벌. 즉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바늘로 찔러서 죄명罪名을 쓰고, 먹을 칠하여 글자가 드러나게 하는 형벌.

보고 듣는 것이 밖에서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혹을 가지게 되면, 충성스러운 것과 간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이 뒤섞여 혼란하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뒤섞이어 혼란하게 되면 온 나라 안의 신하들이 모두 의심스러워집니다. 그 신하들을 모두 의심하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소견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대체로 의혹하고 착란된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게 되면, 그 견해에는 잘못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신은 반드시 사리事理를 들어 다투어 간하여 그의 임금의 노여움을 격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자신의 의견을 제일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더욱 굳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뒤에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가 틈을 타서 진출하여 임금의 뜻대로 비위를 맞추고, 임금의 뜻대로 순종하여 옳은 것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도 옳다고 합니다. 오직 임금이 하고자 하는 것이면 좇아서 돕습니다. 임금은 그들이 자기를 돕는 것만을 즐겁게 여기고, 그들의 간사하고 아첨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충신을 거부해 배척합니다. 대체로 충신을 물리쳐,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신임하고서야 천하가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종仁宗은 현명한 임금이다. 그런데도 구양수가 이와 같이 경계하는 말을 올렸으니, 충성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을 알 수 있다.

명도明道(송나라 정호程顥의 호號) 선생이 말하기를 "건언建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점缺點을 보충하고, 모르고 있는 과실을 지적하여 위로는 임금의 덕화德化를 보태어 더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건언이 자기의 당파를 편들고, 자기와 다른 자를 공격하며, 착한 무리들을 상잔傷殘하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굶주려 구렁에 쓰러지는 것을 달게 받을지언정 부끄럽게 여겨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아, 착하여라, 그 말이여. 세상에는 진언하는 자가 명분으로는 결점을 보충하고 잘못을 지적한다 하고는, 실상은 자기와 같은 패를 편들고 착한 이를 손

상하게 하며, 임금의 덕화德化와 시정時政의 잘못과, 옳고 그른 것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진실로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간사함과 정당함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당唐나라의 숙종肅宗이 영무靈武에서 즉위하매, 정이천程伊川이 말하기를, "안녹산安祿山이 배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숙종이 배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호치당胡致堂이 송고종宋高宗에게 상서하여 말하기를, "폐하가 친왕개제親王介弟로서 하북河北에 출사하였을 때, 휘종徽宗 · 흠종欽宗 두 황제가 이미 북쪽으로 사로잡혀 갔으니, 마땅히 의병을 규합하여 북쪽을 향해서 청해 맞아 와야 할 것인데, 스스로 급히 존귀한 지위에 오르고 태자를 세웠으며, 정직한 신하를 무찔러 죽여서 간언의 길을 막았고, 남쪽으로 회해淮海에 순유하여 눈앞의 안일만을 구차하게 도모하여 세월을 보내니, 이것이 인심을 잃은 이유의 큰 것입니다. 운운……" 했다. 이것으로 보면 송고종의 죄가 당숙종보다 더 큰 것을 알겠다.

6–8 상공賞功

영락永樂 때에 교지交趾(남방의 나라 이름)를 평정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게 되어, 문황文皇이 하원길夏原吉에게 묻기를, "벼슬을 승진시켜 주는 것과 상을 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겠는가" 했다. 원길이 대답하기를, "상을 주는 것은 한때에 비용이 들게 되어 한계가 있지만, 승진시키는 것은 뒷날 기한도 없이 길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승진을 많이 시키는 것은 상을 후하게 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다만 원공元功만을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다 상을 차등 있게 주었다고 한다. 이 말은 진실로 사리에 맞는 이론이다.

권양촌權陽村(권근權近)이 말하기를, “신라의 법에, 전사戰死한 자는 나라에서 후하게 장사를 지내고 관작과 상을 추증追贈하며, 뇌사賚賜함이 그의 일족에게까지 미치니,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본받아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김이 옛날 전국戰國 때와 같은 기풍이 있었다”라고 했다. 지금 들으니 왜노倭奴의 풍속이 또한 이러하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한갓 풍습과 숭상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형벌과 상이 있어서 그렇게 몰아넣는 것이다. 만약 형벌할 자를 반드시 형벌하지 아니하고, 상 줄 자를 틀림없이 상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겠는가.

옛날부터 전쟁의 공은 적의 머리를 벤 머리의 수를 계산하여 상을 평정評定하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는 논의하는 자가 사살射殺한 적의 수를 계산하여 공功을 논論하기를 주장했다. 그런 까닭에 거짓으로 속여서 전공戰功을 과장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전후前後에 걸쳐 사살했다고 하는 적병의 수는 거의 적의 전체 병력을 초과했다. 그러나 적은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여전히 가득하게 차서 넘쳤으니 허위가 심하다.

우리나라는 황금의 전폐錢幣나 보물이 없는 천하의 빈국貧國이다. 대체로 군공軍功에 대한 상賞이란 것은 때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수가 출정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공과 적의 머리를 벤 것에 대한 상을 물품으로 주지 못하고,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조정에 상 주기를 주청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면 소위 논공행상을 한다는 것은, 다만 가설직금군加設職禁軍으로 뽑거나, 천인인 경우에는 천인의 신분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연한까지 신역身役을 면제하거나, 복호復戶(충신忠臣 · 효자孝子 · 절부節婦가 난 집의 호세戶稅를 면제하여 주는 것)하는 것뿐이다. 아아, 관작에는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것이니 실로 계속될 수 없는 것이며, 면천免賤이 자꾸 불어나 많아지면 정군正軍이 날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물며 1장의 관직의 사령장이란 것이 빈 형식

에 불과한 것이겠는가. 그리하여 여러 군사들의 심정에 게으름이 생기게 되건만, 격려하고 권장할 방법이 없으니 특히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후한 상의 밑에는 반드시 죽기를 맹세하는 선비가 있다”라고 했다. 지금 빈이름만을 가지고 후한 상을 삼고, 실속 없는 헛된 은혜로써 죽기를 맹세할 선비를 얻고자 하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임진왜란 때에 임금의 행차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하고, 나라 안은 텅 비었으며, 적병은 가득 차 있어서, 호령號令이 통하지 못했다. 거의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달을 넘기더니, 영남의 곽재우郭再祐, 김면金沔, 호남의 김천일金千鎰 · 고경명高敬命, 호서湖西의 조헌趙憲 등이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먼 곳, 가까운 곳에 격문檄文을 보내니, 이때부터 백성들이 비로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 주군州郡의 선비들이 여러 곳에서 의병을 불러 모으니 의병의 장군이라고 부르는 자가 무려 100명까지 세게 되었다. 왜적을 쳐서 없애고 국가를 회복한 것은 바로 의병의 힘인 것이다. 그런데 국사가 안정된 뒤에는 모두 그 의병들의 군공을 보답한다고 하여 군대의 대오를 편성하여, 혹은 방해진防海陣의 수군水軍으로 나누어 보내고, 혹은 서울에 올라와 번番을 서게 만들어, 그들의 원망과 고통이 극도에 이르렀다. 납속納粟하고 벼슬을 얻었던 무리들도 또한 다 충군充軍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다만 백성을 속이고 신임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다른 날 일이 있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랏일을 기획하는 자는 마땅히 선처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병정부兵政部

7–1 정벌征伐

소문蘇文이 말하기를, “생生을 손상시키는 일이 한 가지만은 아니다. 그러나 호색好色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백성을 해치는 일이 한 가지만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했다. 참으로 명언이다. 옛날 오吳나라의 부차夫差, 진秦나라의 시황始皇, 진秦나라의 부견符堅, 수隋나라의 양광楊廣은 모두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망했으며, 한무제漢武帝 · 당태종唐太宗은 요행으로 망하는 것을 면했을 뿐이다. 또 호색하는 화禍도 다만 몸이 죽을 뿐 아니라 멸망하기에 이른 자가 많다. 삼대三代가 멸망한 것은 다 이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齊나라의 동혼후東昏侯, 진陳나라의 숙보叔寶도 또한 망하는 데에 이르렀다. 부차夫差와 양광楊廣은 또 양쪽을 겸한 자였으며 한漢나라의 성제成帝, 당唐나라의 명황明皇은 요행으로 면하였을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호색의 화는 전쟁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여융女戎(여자는 적병과 같다는 말로서 여자의 화禍를 뜻한 것)이라는 말은 정말이다.

《오자吳子》에 말하기를, “나라가 화합하지 않으면 군사를 출동시킬 수 없으며, 군대가 화합하지 않으면 승리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울요자尉繚子》[32]에서는 말하기를, “위의 명령이 확고하면 군사들은 의심을 가지지 않으며, 위에서 신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군사들은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여 염려하는 일이 없다. 그들의 마음을 믿게 만들지 않고는 그들의 전력全力을 바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 두 사람들은 속이는 것과 힘만을 숭상하는 자이건만

32 중국 전국시대 주나라의 울요尉繚가 지은 병법서. 《손자孫子》, 《오자吳子》, 《육도六韜》, 《삼략三略》, 《사마법司馬法》,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와 함께 무경칠서武經七書의 하나이다.

그의 말이 이와 같으니, 하물며 인仁과 의義를 존중히 여기는 장수이겠는가. 이것으로 인화人和와 믿게 하는 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군대를 부리는 근본이란 것을 알겠다.

《손자》에 말하기를, "수비를 잘하는 자는 깊디깊은 땅속에 감추어 있는 것 같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높고 먼 하늘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라고 했다. 그 주註에, "구지九地의 아래에 감추었다는 것은 그윽하여서 알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고, 구천九天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공격해 오는 것을 방비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이 설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고하여 보니 《부응경符應經》에 말하기를, "양둔직부陽遁直符[33] 후일後一은 구천九天, 후이後二는 구지九地이고, 음둔직부陰遁直符 전일前一은 구천九天, 전이前二는 구지九地이니, 구천의 위는 군사를 솟아나게 하기에 이롭고, 구지의 아래는 엎드려 감추기에 이롭다" 한 것이 이것이다. 《태현경太玄經》의 주註에 소위 구지九地라고 한 것과, 굴원屈原의 〈천문天問〉에 소위 구지九地라고 한 것은 이것과는 다르다.

《회남자淮南子》에 말하기를,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묘당廟堂(조정)에서부터 싸워야 한다. 우리나라와 적국을 비교하여 임금은 어느 쪽이 더 어진가, 장수는 어느 쪽이 더 유능한가, 백성은 어느 쪽이 더 잘 다스려졌는가, 축적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사졸士卒은 어느 쪽이 더 정예한가, 갑옷과 병기는 어느 쪽이 더 튼튼하고 날카로운가, 기구와 장비는 어느 쪽이 더 편리한가를 살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묘당 위에서 계책을 세워, 천 리 밖에서 승리를 결

33 둔갑술의 하나. 둔갑은 술수術數의 일종이니, 음양陰陽의 변화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몸을 숨겨 길吉을 취하고 흉凶을 피하는 술법. 양둔陽遁은 둔갑술遁甲術로, 구궁포국九宮佈局의 법法. 일감一坎에서 구리九離까지 순행順行하는 것을 양국陽局, 역행逆行하는 것을 음국陰局이라고 함.

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이것을 일러 묘승廟勝(조정에서 승산勝算을 만듦)이라고 한다. 나랏일을 기획하는 자가 이 말을 마음에 둔다면, 적병과 칼날을 맞부딪는 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승부의 형세는 설립될 것이다.

《동각잡기東閣雜記》[34]에 말하기를, "우리 태조太祖가 일찍이 올자兀剌[35]를 정벌하였을 때에, 무너진 담 안을 보니,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서서 울먹이며, '나는 원元나라의 장원壯元 배주拜住입니다. 귀국의 이인복李仁復은 나의 동년급제同年及第입니다'라고 했다. 태조가 즉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 드디어 함께 데리고 왔다. 공민왕이 그에게 판사농시사判司農寺事를 제수除授하고, 성명을 한복韓復이라고 내려주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고사촬요攷事撮要》에, "우리 태조가 동녕부東寧府를 공격하여 원나라의 추밀부사樞密副使 배주拜住 등 300여 호戶를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대마도對馬島는 옛날에는 신라에 예속하였는데, 어느 때에 왜노倭奴가 점거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상고하여 보니, 세종조世宗朝 기해년 5월에 왜선倭船 30여 척이 침입하여 비인庇仁 · 해주海州까지 들어왔다. 임금이 빈틈을 타서 공격하고자 하여,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에게 명하여 도통사都統使를 삼고, 최윤덕崔閏德으로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삼아, 임금이 친히 한강정漢江亭에서 전송했다. 경상 · 전라 · 충청도의 병선兵船 327척, 수군水軍 1만 7,000명을 출동시켰으며, 65일 동안의 식량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 대마도 두지포豆知浦에 이르니, 적이 모두 도망하여 버렸다. 드디어 적선 129척을 쳐서 빼앗고 적의 소굴 2,000을 불태웠으며, 머리를 벤 것과 사로잡은 것이 모두 200을 넘었다. 이 전역戰役은 5월 21일에 출정出征, 6월 17일에 발선發船, 7월 초3일에 돌아왔다.

34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조선왕조 선조宣祖 때까지의 사실史實을 서적이나, 견문에 의하여 연대순으로 수록한 책. 선조 때의 이정형李廷馨이 지은 것.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있다.

35 중국 요녕성遼寧省 환인桓仁 북서쪽, 동가강佟佳江 오른쪽 지역.

진실로 신神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작전이 아니면 어찌 빠르기가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또한 조종조祖宗朝의 병력이 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로부터 수군에 전력專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3도道의 병선은 겨우 90여 척이며, 전구戰具와 수졸水卒들도 정제整齊되지 않았으니 창졸간에 일이 생긴다면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탄식할 노릇이다.

일본의 관백關白[36] 평수길平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이 여러 섬을 통합하고, 우리나라의 길을 빌려 들어가서 중국을 침범하겠다고 성언聲言하고 여러 번 사자使者를 보내와서 친화親和를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의리를 들어 설시說示하고 거절하였더니, 임진년 4월에 수길이 그의 장수 평수가平秀家(우키타 히데이에)・소서행장小西行長(고니시 유키나가)・가등청정加藤淸正(가토 기요마사)・종의지宗義智 등 34인을 보내 군사 25만 명을 거느리고 50만 명이라고 외치면서 바다를 건너왔다. 부산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 1사舍(30리 거리)마다 보루堡壘를 쌓고, 험고險固한 곳을 점거하고는 군사를 나누어서 8도道를 함락시키니, 우리나라의 군대와 백성의 살육된 자는 그 수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된 때에는 6만 명이 한날에 섬멸되었다. 산을 뒤지고 숲을 헤쳐서 사녀士女들을 죽이고 약탈함이 한限이 없었다. 이것은 천지개벽 이래로 일찍이 없던 화변禍變이었다.
계사년에 명나라의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중국 남북南北의 군사 4만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평양성을 쳐서 탈환하고 3경京(중경中京 개성開城・서경西京 평양平壤・동경東京 경주慶州)을 회복하니, 적이 물러가 바닷가의 부산 등지에 주둔했다. 정유년에 다시 날뛰므로 명나라에서 또 제독 마귀麻貴・동일원董一元・유정劉綎・진린陳璘을 보내어 육해군陸海軍 14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네 길로 나누어 진격했다.

36 일본 막부幕府 시대의 우두머리로서 국정을 전천專擅하던 지위.

무술년에 이르러 수길秀吉이 죽으니 적은 곤궁하고 위축되어서 군사를 거두고 돌아갔다.
명나라에서 전후前後를 통하여 군사 20만 명을 동원하였으며, 내탕은內帑銀(국고의 은전銀錢) 수만 냥과, 산동山東의 양곡 20만 석을 지출하여 속국屬國을 구제하였으니, 황제의 은혜가 더할 수 없다. 이것도 또한 전고前古 이래로 아직 없었던 일이다.

임진왜란의 처음에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이 상주尙州에 이르렀을 때에, 척후斥候를 밝게 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적이 가까이 왔다고 보고하니, 일鎰은 그가 여러 사람들을 의혹하게 만든다고 하여 성내며 그의 머리를 베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 보였다. 그런 까닭에 적이 이미 지경 안에 들어왔건만 감히 보고하는 자가 없었다. 이일이 적의 방포放砲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성 밖에 나와 둔屯을 치니 적병은 이미 들에 가득했다. 군사들이 놀라서 무너져 달아나니 죽은 자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이일은 겨우 달아나서 죽음을 면했다.
그때 부원수副元帥 신립申砬이 충주忠州에 주둔하고 있었다. 목사牧使 김여물金汝岉이 그의 군중軍中에 있었는데, 립砬에게 조령鳥嶺을 지켜서 적의 진로를 끊기를 청했다. 그러나 신립은 듣지 않고 달천獺川을 뒤로 하여 배수진을 쳤다. 적이 조령을 넘어서 바로 아군을 공격해 오니, 우리 군사의 시체는 강물을 덮으며 떠내려갔다. 신립도 또한 뛰어들어 죽었다.
두 사람은 다 한때의 명장이었는데, 일에 직면하여 그르침이 이와 같은 것은, 대체로 그들이 평소에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7-2 병기兵器

《역경易經》〈계사繫辭〉에 말하기를, “나무에 시위를 매어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든다"라고 하였으며, 《좌전左傳》에는, "복숭아나무의 활대와 가시 화살로 방어하는 임금의 일에 이바지한다"라고 했다. 대체로 옛날의 활과 화살은 모두 나무를 사용했다. 《열녀전烈女傳》에는 말하기를, "활에 연우燕牛의 뿔을 붙인다"라고 했고, 《좌사부左思賦》에는 말하기를, "연호燕弧가 창고에 가득하니 군사가 굳세고, 기마冀馬가 마사馬舍를 메우니 역전驛傳이 빠르다"라고 했다. 그 주註에, "연각호燕角弧는 유연幽燕의 땅에서 산출된다"라고 했다. 기창紀昌이 연각燕角의 활로 슬蝨(이)을 쏴서 관통시켰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우세남虞世南의 시가 있다.

冀馬樓蘭將 기주의 말을 탄 누란의 장수
燕犀上谷兵 연서 뿔활을 잡은 상곡의 군사로구나

이것은 아마 연우燕牛를 연서燕犀라고 한 것 같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말하기를, "치우蚩尤[37]가 5가지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5가지 무기란 것은, 과戈 · 극戟 · 수殳 · 추모酋矛 · 이모夷矛이다. 《관자管子》에 말하기를, "갈로葛盧의 산에 황금이 발굴되어 치우가 투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병혁兵革(무기와 갑옷과 투구)의 처음이다"라고 했다. 한고조漢高祖가 기병起兵할 때에 뜰에서 치우를 제사하였으니 그가 처음으로 무기를 제작했다고 하여서일까.

황제黃帝 때부터 무기 쓰기를 익혀서 치우를 베었고, 순舜임금 때엔 삼묘三苗[38]를 정벌했고, 우禹임금 때엔 방풍防風을 주륙誅戮한 일이 있다. 이것에 이어 그

37 사람의 이름. 중국 고대 황제黃帝 때에 치우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황제가 탁록涿鹿의 들에서 그와 싸워 이기고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고 한다.
38 요순堯舜시대에 있던 남방의 오랑캐. 사흉四凶의 하나.

뒤로는 반란이 서로 계속되었다. 생민生民의 불행이, 아아! 그 심함이여.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사슴의 성질은 경계하는 버릇이 있다. 떼를 지어 있을 때에는 그들의 뿔을 둘러서 진을 친 것처럼 둥글게 둘러싸서, 사람이나 짐승의 침해를 방어한다. 그런 까닭에 군중軍中에서는 영채營寨의 울타리를 만들 때에 나무를 밖으로 향하도록 묻고는 이름을 녹각鹿角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군중에서의 녹각의 제도는 또한 오랜 것이다.

병법을 말하는 자들이 차전車戰의 유리함을 말한 것이 많다. 그것은 가고자 하면 가고, 정지하고자 하면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있는 성城이라고 한다. 위청衛靑은 무강거武剛車로 승리를 얻었고, 마륭馬隆·가서한哥舒翰·마수馬燧도 다 이것을 사용하여 적을 깨뜨렸다. 대체로 안에는 군마軍馬와 양곡과 마초馬草를 감출 수 있으며, 적의 기마騎馬가 공격해 올 수 없고, 화살이 들어올 수 없다. 만약 적병이 가까이 다가오면 화포火砲를 일제히 발사하고, 기병이 이어 출격한다. 그래서 야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전술이 되는 것이다.

포砲라는 글자에는 석石 자가 따라다닌다. 포礮로 쓰기도 한다. 대체로 옛날에는 ‘포砲’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하여 돌을 날려 보내는 것이었다. 원元나라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화포가 있게 되었다. 화포를 가지고 국외를 횡행하니 가는 곳마다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없었다. 지금 서쪽과 북쪽의 두 오랑캐가 포砲의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 어찌 생민生民의 복이 아니겠는가.

조총鳥銃은 서역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참새를 잡는다. 그런데 왜노倭奴가 그 제도를 여송呂宋의 나라에서 배워서, 임진란 때에 처음으로 병기로 삼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안간에 보았으며, 만나면 당장에 죽으니, 어찌

놀라 달아나지 않겠는가. 왜노가 비록 전투에 익숙하고 진군이 가볍고 빠르다고 하나,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은 실로 이것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포는 고려 말기에 시작되었다. 판사判事 최무선崔茂宣이라는 자가 원나라의 염초장焰硝匠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선왕조先王朝에 화포장火砲匠 지수池壽라는 자가 있었다. 경원慶源의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오랑캐에게 포로가 되었다. 오랑캐들이 그에게 방포放砲의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고 보고 있었다. 수壽는 일부러 보는 자들을 한쪽 가로 모여서게 하고는, 화포를 발사하여 맞춰서 죽이니, 오랑캐가 성내어 사지四肢를 찢어 죽였다. 슬프다, 장렬한 죽음이여.

우리나라의 전함戰艦은 제도가 매우 굉장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선倭船 수십 척이 우리나라의 전선 1척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이순신李舜臣이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가 되었을 때 지혜로 새로운 배를 창조했다. 위에 판자의 뚜껑을 만들어 덮었으니, 형상이 거북이 엎드린 것 같다. 그래서 거북선이라고 한다. 임진년에 이르러 이것을 사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대체로 이 승리는 배의 유리한 것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원균元均이 이순신을 대신하여 좌수사가 되어서는 100여 척의 전함이 깨어지고 무찔러져서 남은 것이 없었다. 순신이 원균을 대신하여 다시 좌수사가 되어서는 전선 13척을 가지고 바다를 가득히 덮은 600여 척의 적선을 깨뜨렸으니, 역시 장수는 훌륭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7-3 병제兵制

상고하여 보니, 옛날에는 사람이 나서 16세가 되면 중中으로 하고, 21세가 되

면 정丁으로 했다. 진晉나라 때에 16세로 정丁을 삼으니, 범녕范甯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예禮에 19세에 죽은 자를 장상長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성인成人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6세를 전정全丁으로 하고, 12세를 반정半丁으로 하는 것은 천리天理를 손상하고 백성을 곤고困苦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땅히 20세를 전정全丁으로 하고, 16세를 반정半丁으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16세를 정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에 결원이 있으면 이것을 일정한 정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수령이 문책問責을 면하기에 급하여, 젖 먹는 어린애를 가지고 나이를 속여서 한때 미봉하여 정원을 보충하니 천리를 손상하고 민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특히 심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는 평시에 있어서 중외中外의 군대 정원 수는 18만 명이다. 호보戶保[39]를 통산하면 무려 50만 명이 된다. 그런데 왜변倭變을 겪은 뒤로는 현존 병력이 겨우 6만 명이다. 비록 해마다 법을 세워서 보충하고 있으나, 절호絶戶되고 유랑하고 도망한 자는 아직도 오히려 보충하지 못한 것이 많다. 서울 이외의 초군哨軍에 이르러서는 정원이 수만 명 이내에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원군元軍과 공사천公私賤을 모두 대오隊伍에 편입하더라도 실수實數는 또한 적을 것이다. 위급한 시기에 믿기 어려우니 매우 한심한 일이다. 이것은 비록 전란戰亂 이후에 생민生民이 늘지 않기 때문이기는 하나, 실은 사족士族으로 한가롭게 놀고 있는 자가 많고 병역에 응소할 의무를 가진 백성은 적기 때문이다. 만약 대단한 제도의 변경이 아니고는 아마 좋은 방책이 없을 것이다. 나라의 기획을 담당한 자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국三國이 솥발처럼 벌여 있을 때에는 강국强國이라고 불렀다. 당

39 군호軍戶의 보保라는 뜻이니, 보는 병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지로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가로 보포保布를 바쳐 복무하는 이를 돕게 하는 자이다.

인唐人이 말하기를 “고려는 성을 잘 지킨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남의 성을 공격하면 반드시 탈취하는 것은 고려만 한 나라가 없다”라고도 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병력이 단약單弱해서 다만 남에게서 탈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당나라의 태종太宗이 침입하였을 때 고구려의 장수 고혜진高惠眞은 15만의 군대로 고구려를 구했다. 삼국으로 나뉜 땅을 가지고도 군대의 많음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 삼한三韓이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나랏일을 맡은 자가 번번이 군사 없음을 근심하게 되니, 아아 어찌 이러한 사리事理가 있겠는가.

전조 때에 홍건적紅巾賊[40] 14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바로 송경松京을 들이치니, 전봉前鋒은 적이 왔다는 우리의 보고와 함께 도착했다. 공민왕은 피란하여 안동安東으로 달아나서, 각도의 군사 20만을 합하여 겨우 평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쇠약한 고려의 병력도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보다는 나았음을 알 수 있다.

평시에 있어서 영남嶺南의 군사는 10여만 명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처음에 내가 방어사防禦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영남에 가니, 군사들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한 사람도 오는 자가 없었다. 여러 날을 두고 불러 모았으나, 겨우 수백 명의 보병步兵을 얻었을 뿐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국력은 또 임진년에 비할 만한 정도도 못된다. 20만의 군사가 창졸간에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한심한 노릇이다.

군대를 양성하는 일은 백성을 기르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백성을 보

40 홍적紅賊이라고도 한다. 중국 원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도적. 붉은 건巾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한산동韓山童이 민심을 선동했고, 그의 부하 유복통劉福通이 대군을 일으켜 각지를 침범하여 세력이 강성하였으며, 한산동의 아들 한림아韓林兒를 맞아 황제로 일컫기에 이르렀다. 뒤에 홍건적의 일부가 쫓겨 고려를 침입한 일이 있었다.

양保養하지 않고 능히 군대를 양성한 자는 아직 없었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평소에 미리 양성하지 않고 창졸간에 징발해 쓰기 때문에, 적을 만나면 무너져 버릴 것은 사세事勢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마련인 것이다. 비록 한신韓信 · 백기白起로 하여금 장수가 되게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임진년의 지난 일로 거울을 삼을 수 있다.
지금 중앙에는 훈련도감訓鍊都監과, 지방에는 각도各道와 여러 읍邑이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로 대오를 편성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난 때에 비교한다면 군대의 모습이 조금은 볼 만한 것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의 힘이 이미 다 없어져서 곤궁과 고통은 날로 심해져만 간다. 이미 백성을 휴양休養하고 생식生息하게 하는 방도를 상실하였으니 긴급한 경우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실력은 아마 없을 것이다. 국가를 맡은 자들이 어찌 그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가.

함경북도는 군사와 마필이 정강精强하기가 우리나라의 으뜸이었다. 그러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로는 인민人民이 날로 줄고, 사병은 피폐해졌으며, 그 위에 겹쳐서 근년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거의 수만 명이나 된다. 평시에 비하면 생존한 자가 10분의 1도 못 된다. 또 본도本道의 무사武士들은 죽을 때까지 변방을 지키는 일에 고생을 하면서도 조정의 벼슬엔 오르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무과武科의 과거科擧에 나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활줄을 당기는 사람이 끊어졌다.
옛말에 이르기를, “징발한 군사 만 명이 소모召募한 군사 수천 명만 못하다”라고 했다. 사병士兵이 이와 같으니 위급한 경우에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한심하다고 하겠다.

상고하여 보니, 주周나라 때에는 거짓 봉화烽火를 든 일이 있고, 한漢나라 때에는 봉화가 감천궁甘泉宮에 통했다고 한 기록이 있다. 《한서음의漢書音義》에 말하기를, “변방에 도적이 왔을 때에 즉시 횃불을 들어서 서로 알린다. 그것을

봉화라고 한다. 낮에는 땔나무를 쌓아 놓고 불태워서 그 연기를 바라보게 한다. 그것을 수燧라고 한다"고 했다.
대체로 한漢나라 이상의 시대에서는 도적이 온 때에 봉화를 들었던 것이다. 《당서唐書》에는 말하기를, "진수鎭戍의 봉후烽候(봉화를 올리는 데에 쌓는 보루)는 대개 서로 30리의 거리를 둔다. 봉화에는 횃불을 1개 드는 것, 2개 드는 것, 3개 드는 것, 4개 드는 것이 있다. 매일 초저녁에 횃불 1개를 든다. 이것을 평안화平安火(무사함을 알리는 횃불)라고 한다. 그 밖의 것은 도적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을 둔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봉화의 제도는 대체로 당唐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7-4 구적寇賊

고려 고종高宗 때에 몽고의 군사가 해마다 쳐들어와서 남녀 20여만 명을 사로잡아 가고 죽이고 무찌른 것은 이루 다 계산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수도를 강화江華로 옮겼으며, 여러 도와 군현들은 모두 산성이나 바닷속의 섬에 들어가서 보전했다고 한다. 이때의 생민生民의 화禍는 또한 더할 수 없었다.
지금도 산성의 유지遺址가 도처에 있다. 그것은 아마 그때에 창설된 것일 것이다.

중국 사람 허의후許儀後가 포로가 되어 일본에 있었는데, 임진년 이전에 왜노가 장차 입구入寇할 것을 알고 비밀히 명나라의 조정에 보고했다. 그는 일본의 용병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치旗幟를 많이 벌여 놓아서 그것으로 적의 사기士氣를 억누르니, 군사 1명이 기旗 10개를 가진 자가 있다. 옷의 빛깔을 이상하게 꾸며서 적의 마음을 놀라게 하며, 소의 머리로 꾸민 자, 귀신의 탈을 쓴 자가 있다. 이기면 길게 몰고 들어가면서 돌아보지 않고, 지면 낙담落膽하

여 어지럽게 달아난다. 육전陸戰을 잘하지만 오직 함부로 죽이는 일만을 알 뿐이다. 수전水戰은 잘 할 줄 모른다. 화공火攻을 알지 못한다. 거짓으로 강화講和하거나 항복한다고 속여서 적국을 깨뜨린다. 성城을 잘 쌓아서 포위하여 적의 성을 함락시킨다. 급한 공격을 가장 두려워하며 완만한 싸움을 좋아한다. 급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완만하면 조용히 위엄을 기른다. 그들의 선척船隻은 또 가장 불편하다. 면面이 넓고 바닥이 첨예尖銳해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공격하기가 쉽다"라고 했다.

이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보면, 이 말은 모두 옳다. 임진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군이 능히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쳐서 가는 곳마다 모두 이긴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임진년에 왜적이 처음 도성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인할 계책으로 그들을 살육하지 아니했다. 그런 까닭에 서울 가까운 곳의 피란민들이 서로 이끌고 들어가니 거의 성안이 가득했다. 다음 계사년에 명나라의 군사가 와서 평양을 탈환하고 진격하여 경성에 바싹 다가드니, 왜적이 분憤을 내어 밤을 타서 모두 불태워 버리고 성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무찔러 죽이니, 100명에 1명도 탈출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정월 24일이었다. 매년 이날에는 흐리고 음산하고 근심스럽고 슬픈 분위기가 된다. 아마 원한怨恨의 기운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창졸간에 돌발했고, 우리나라는 지방이 작고 좁아서 적이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땅은 거의 없었다. 오직 호남일도湖南一道와 호서우도湖西右道만이 홀로 보전하니, 사녀士女들이 그곳으로 간 사람이 많았다.

또 왜적은 우리나라 사람을 앞잡이로 삼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안 간 곳이 없었다. 소위 그윽하고 험난한 곳에는 피란하는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산곡山谷에 가득 차니, 도리어 적병을 불러들이게 되어서 떼죽음을 당한 자의 수는

한이 없었다. 함경북도에 이르러서는 그곳의 지세가 병의 목과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서 적병의 칼날을 모면한 자는 매우 드물었다. 도리어 평지에 있어서 적의 가는 방향을 살펴서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달려서 피하는 것만 같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주군州郡은 임진왜란의 처음에, 혹은 힘이 모자라서 함락되고, 혹은 무너져 달아나서 지키지 못한 자는 있었으나, 한 사람도 적에게 항복하여 붙은 자는 없었다.
오직 회녕會寧의 토병土兵 국경인鞠景仁이 배반하여 부성府城을 점거하고, 두 왕자와 재신宰臣 김귀영金貴榮 · 황정욱黃廷彧, 북병사北兵使 한극성韓克誠, 회령 부사 이영李瑛 등 수십 인을 잡아서 적병을 환영했다. 적은 경인景仁으로 회령을 지키게 하고, 국세필鞠世弼로 경성鏡城을 지키게 하고 물러나와 길주吉州에 웅거했다.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 등이 군사를 일으켜 경인 등을 쳐서 베어 죽였다.
또 갑산甲山 사람들은 남병사南兵使 이혼李渾을 죽여 그의 머리를 적에게 보내, 스스로 향도嚮導가 되었다. 계사년에 이르러 조정에서 부사府使 임순林恂을 보내 토벌하게 하고, 배반한 자 중에서 드러난 자 20여 인을 잡아 베어 죽였다. 그렇게 한 뒤에 비로소 평정되었다. 북도北道 사람의 마음이 강하고 사나워서 통어統御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강항姜沆의 《문견록聞見錄》에 말하기를, 정유년에 왜적이 다시 날뛸 때에 평수길平秀吉이 여러 왜장에 명령하여 코를 베어서 수급首級에 대신하게 하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왜의 군졸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곧 죽여서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수길에게 보내면, 수길이 검열한 뒤에 모두 그 나라의 북쪽 교외에 있는 큰 절의 곁에 한 구릉을 만들고 거기에 감추어 두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였다고 한다. 피와 살의 비참한 광경을 이것으

로 알 수 있다. 이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코가 없어진 채 살아난 자도 또한 많았다.

7-5 민호民戶

백성이란 어리석으나 속일 수 없으며, 천賤하나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남의 임금 된 자가 민심을 얻으면 천자天子가 되고, 잃으면 필부匹夫가 된다. 그런 까닭에 백성을 임금의 하늘이라고 한다.

당우唐虞 때의 인구는 1333만 명이고,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의 인구는 1371만 명이며, 한漢나라 평제平帝 때의 민호民戶는 1323만, 인구는 5919만 명이고, 이 광무光武 때의 민호는 427만, 인구는 2100만 명이며, 환제桓帝 때의 민호는 2607만, 인구는 5648만 명이었다. 당唐나라의 천보天寶 때의 민호는 906만, 인구는 5288만 명이었고, 지금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年間에 천하의 민호는 1500여만, 인구는 6500여만 명이다. 역시 성대하다.

한漢나라의 법에, 이里에는 이괴里魁가 있고 민호民戶에는 십오什伍가 있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보고하게 했다. 주註에 이괴는 1리 100가家를 맡고, 십什은 열 집을 주재主宰하며, 오伍는 다섯 집을 주재하며, 백성의 선악을 검찰檢察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고 했다. 자세하고도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상고하여 보니, 태공太公의 《음부陰符》[41]에 말하기를 "임금이 되어서는 조종祖宗의 이루어놓은 왕업을 지키고, 관리가 되어서는 자기의 직책을 지키고, 백성이 되어서는 자기의 일을 지켜서 각각 자기의 도리를 다하면 나라는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지면 도시가 다스려지고, 도시가 다스려지면 마을이 다스려

41 병서兵書의 이름. 천기天機가 시기와 암합暗合한다는 뜻.

지고, 마을이 다스려지면 집이 다스려진다. 집이 다스려지면 선악이 분명해진다. 선악이 분명해지면 나라에 일이 없게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삼대三代의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십오什伍의 제도가 있었으나 닦아 시행하지 못하니 한스러운 노릇이다.

홍무洪武 초년에 호첩戶帖이란 것을 설치하여 각호各戶의 관향貫鄕 · 이름 · 나이를 쓰고, 자호字號로 감합勘合[42]하여, 반인半印이 찍힌 것을 군郡에 나누어 주고, 첩帖은 백성들에게 준다.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대조하게 하여 원부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즉시 충군관充軍官에게 고발한다. 숨기거나 속인 자는 참형斬刑에 처했다. 또 부역황책賦役黃冊이란 것을 창설하였는데, 그 제도가 자세하고도 정비되었다.
우리나라는 법금法禁이 해이하고, 호적은 가장 허위의 장부가 되어서 그 실수實數를 알 수 없었으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고구려가 망할 때에 이적李勣이 임금 장臧과 대신 등 20여만 명을 중국의 수도로 데리고 갔다. 또 고구려의 백성 3만 8,300호를 강회江淮의 남쪽과 경서京西의 여러 고을에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중국에 이민한 자가 거의 국민의 반수나 되었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개성부開城府 성내의 민호民戶가 전조前朝에는 13만이었는데, 도읍을 옮긴 뒤로는 겨우 8,000여 호였다고 한다. 지금 한양漢陽의 수도는 평시의 민호가 8만이어서 개성이 수도였을 때의 왕성함에 미치지 못한다. 난리 뒤에는 거의 다 사망하고 지금은 20여 년 동안 수만 호도 못 된다. 생민生民이 모여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

42 계인契印하는 것. 문서와 원부原簿에 걸쳐서 계인契印을 찍거나, 연월일年月日, 자호字號 등의 글자를 써서 반쪽으로 나누어 뒷날의 증거로 하는 것.


권4

8. 관직부官職部

8-1 관제官制

상고하여 보니 《우서虞書》의 질종秩宗[1]과 《주례周禮》의 종백宗伯과, 진秦나라의 봉상奉常과, 한漢나라의 태상太常은 같은 것이다. 양梁나라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경卿이라는 글자를 더 붙였으며, 후세에 와서는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일컬어 대종백大宗伯이라 하고, 태상太常과 나뉘어 2가지가 되었다.

탕湯은 두 정승을 두었으니, 이윤伊尹으로 우상右相을 삼고, 중훼仲虺로 좌상左相을 삼았다. 한漢나라에서는 주발周勃로 우상을 삼고 진평陳平으로 좌상으로 삼았다.

《운회韻會》에 말하기를, "좌左는 좌佐와 같으니 돕는다는 뜻이다. 왼손은 오른손을 돕는 것이다. 사람의 도道는 오른쪽을 높게 여긴다"라고 했다. 대체로 한漢나라 이전에는 오른쪽을 높은 것으로 했다. 그런 까닭에 벼슬의 품계가 강등하는 것을 좌천左遷이라 하고, 높은 벼슬의 지위를 우직右職이라 했다. '조정에서 그의 오른쪽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후세의 관제에 좌左를 먼저 치고 우右를 뒤로 하게 된 것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태자세마太子洗馬는 벼슬 이름이다. 상고하여 보니, 세洗는 선先과 같으니 먼저라는 뜻이다. 천자天子가 나갈 때에는 선구先驅가 있고, 태자가 출입할 때에는 선마先馬가 있다. 말을 타고 의장儀仗과 호위護衛의 앞에 선다는 뜻이다.

《순자荀子》에 말하기를, "천자가 대로大輅(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면 제후들은 천자의 수레를 호위하고 선마先馬한다"라고 했고, 주註에 선마는 인도하는 말이

1 모든 신神의 자격 · 등급을 정하거나 또는 제사를 맡은 벼슬.

라고 했다.

집금오執金吾는 한나라 군위軍衛의 관명官名이니, 즉 명나라의 금의위錦衣衛와 같은 것이다. 《사기》의 주註에 오吾는 어禦와 같다고 했다. 항상 금혁金革(무기와 갑옷)을 잡고 비상사태를 방어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금오金吾라는 것은 지팡이니, 구리로 만들어 금金으로 양쪽 끝을 바른 것이다"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금오는 새 이름이니 이 새의 기상을 따서 벼슬 이름으로 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 《패사稗史》에는 말하기를, "금오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물고기의 꼬리가 달렸으며, 두 날개가 있는 괴물로서 성질이 통령通靈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순시하고 경찰하는 데에 사용한다"라고 했다. 이 설은 본래 《산해경》[2]과 《박물지》에서 나온 것이다. 어느 설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옛날엔 땅을 분봉分封(땅을 나누어 제후에 봉함)하기는 해도 백성을 나누어주는 일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천자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토의 리수里數의 많고 적은 것으로 등차等差를 두었다.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 백성을 나누게 되어, 호구戶口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나누어 봉후封侯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천호후千戶侯 · 만호후萬戶侯의 명목이 생겼으며, 당唐 · 송宋에 이르러 또 실봉實封이니 진식眞食이니 하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옛날의 제도와는 다르다.

위魏나라 · 진晉나라 때부터 양梁나라 · 진陳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벼슬을 임명하는 데 판자板子를 사용했다. 길이 1자 2치, 두께 1치, 넓이 7치로서, 그 판자 위에 벼슬을 제수하는 사령을 써 둔다. 그것을 곡두서鵠頭書라고 한다. 상고하

2 책 이름. 모두 18권. 우왕禹王이 지었다고도 하고, 또는 백익伯益이 지었다고도 한다. 산천山川 · 초목草木 · 조수鳥獸의 기담을 적었다.

여 보니, 《강목綱目》에, "유송劉宋 때에 군공軍功으로 벼슬이 제수되는 자가 많아서 판자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처음으로 누른 종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판板은 판版과 같은 것이다. 지금 사적仕籍(관리의 원부)을 사판仕版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이것에서 나온 말이다.

장천사張天師는 장량張良의 자손이다. 장도릉張道陵 이래 대대로 부첩符牒과 기도와 초제醮祭[3]의 일을 맡더니, 송宋나라 · 원元나라로부터는 천사天師라는 벼슬을 받았으며, 명明나라 처음에는 고쳐서 진인眞人이라고 불렀다. 품계는 정2품이니, 공자孔子의 자손을 대대로 연성공衍聖公이라 하는 것과 상등相等하다. 그러나 진인眞人의 반차班次는 성공聖公의 위에 있다. 중국에서 도교道敎를 높이는 것이 성인聖人을 높이는 것보다 무겁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전조前朝 때에 밀직사密直司를 혹은 중추원中樞院이라고 일컬었는바 즉 지금의 승정원承政院이다. 지주사知奏事 1인, 좌 · 우승선左右承宣 각 1인, 좌 · 우부승선左右副承宣 각 1인, 당후관堂後官[4] 2인을 두었다. 지주사를 혹은 지신사知申事라고도 하였는데, 즉 지금의 도승지都承旨이다. 승선을 혹은 대언代言이라고도 하였는데 즉 지금의 승지承旨이다. 당후는 즉 지금의 주서注書이다. 이속吏屬으로는 별가別駕 · 주사主事 · 영사令史 · 기관記官 · 통인通引을 합하여 모두 36인을 두었다. 지금 아전들을 별가別駕라고 일컫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송宋나라 때에는 추밀원樞密院이 병정兵政을 전담하였으며, 중서中書와 함께 양부兩府라고 일컬었고 그 관원官員은 모두 지위가 높고 행동이 점잖은 대부大夫들이 했다.
우리나라의 중추부中樞府는 재신宰臣들을 산관散官으로 두는 곳이니, 즉 송宋나

3 성신星辰에 제사하는 것. 도교道敎의 의식儀式.

4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주서의 거실居室이 당후堂後에 있었으므로 생긴 명칭.

라의 추밀사樞密使와 같은 것으로서, 그 지위와 임무는 또한 높은 것이다. 지금은 의관醫官 · 역관譯官 등 미천한 무리들에게 모두 상직賞職으로 제수除授되고, 재신宰臣은 얻어 하는 것이 드물다. 관직을 함부로 흩음이 지나치다.

3년 만에 한 번씩 관원의 성적을 고사考査하는 것은 옛 제도이다. 상商나라 · 주周나라 이상은 물론이고, 한漢나라 때에는 벼슬하는 자가, 자손이 장성하고 병들어 3개월 결근하여야 비로소 해면했다. 그 직임職任을 오래도록 맡겨 성공을 책임지게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주 바꾸는 폐단이 오늘보다 더 심한 때는 없었다. 아침에 임명하고 저녁에 옮기는가 하면, 위계를 뛰어넘는 것이 차례가 없으며, 병들었다는 글을 올리면 즉시 해임하고 일정한 월수月數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니, 관작官爵을 보기를 여관旅館처럼 여긴다.
이러한 폐단이 고쳐지지 않으면, 비록 어질고 재주 있는 자로서 여러 벼슬자리에 벌여 있게 할지라도, 어느 여가에 자기의 직책을 다스리고 자기의 임무를 살필 수 있겠는가.
들으니 세종대왕은 사람을 알아서 임용을 잘하였는데, 재능은 크되 지위가 낮은 사람은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발탁하여 등용하였으나, 사람과 지위가 서로 알맞으면 10년이 되어도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일이다.

예전에는, 모든 관원은 반드시 달수를 계산하여 승진하고 전임하곤 했다. 가령 전조낭관銓曹郎官은 30삭朔이 차지 않으면 승진하여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상고하여 보니, 《점필재집佔畢齋集》에 말하기를, "정석견鄭錫堅이 이조좌랑吏曹佐郎에서 지평持平으로 승진하니 간원諫院에서 아뢰기를, '전조銓曹의 낭관으로서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승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므로 낮추어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삼았다"라고 했다.
선왕조先王朝에서는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 홍진洪進이 6품에서 20여 삭을 지난

뒤에 헌납獻納에 임명되었으나, 오히려 갑자기 승진했다고 하여 인혐引嫌했다. 근래에는 전랑이나 혹은 언관들이 달마다 승진하여 급제한 뒤 아직 5년이 못 되어서 뛰어올라 당상관堂上官이 되고, 10년이 못 되어 재상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5, 6품의 수령이 조그만 공로로 당상관의 위계位階에 붙은 자도 가끔 있기에 이르렀다. 관작官爵은 천하기가 흙과 같고, 말속末俗의 시작은 날로 불어나고 달로 심해지니, 사리事理를 아는 자는 한심하게 여긴다.

법전法典에 예조禮曹와 4관館(성균관成均館 · 예문관藝文館 · 교서관校書館 · 승문원承文院)은 문관文官으로 제수한다고 했다. 그런데 완역재玩易齋 강석덕姜碩德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도 승진하여 대사성大司成과 지례조사知禮曹事가 되었다. 아마 조종조祖宗朝에서는 관직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大典》을 반포한 뒤로 이러한 사례는 없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관직館職은 항상 박봉에 고통받고 있는데 아전들은 먹는 돈이 매우 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관省官이 성리省吏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라고 했다. 지금 괴원槐院(승문원承文院의 별칭)의 사자관寫字官(글씨를 베껴 쓰는 관리)은 3품의 봉록을 먹고, 또 월료月料와 구사가丘史價(하인을 부리는 데 필요한 비용)를 받으니, 합계한 녹봉은 대신大臣과 비슷하다. 제도와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대체로 예전부터 이와 같은 것이다.

중국의 관제에서는 5품 이상을 대부大夫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5품관이면 3대에 추은推恩함을 얻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종2품 이상의 실직자實職者만이 그 선대의 증직贈職함을 얻는다.

선조대왕宣祖大王 초년에 이르러 대신이 건의하여, 조신朝臣으로서 선대에 추증追贈을 받는 자는 그가 출계出繼한 부모에게만 추은을 허락하고, 그의 생가 부모에게 함께 추증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그것이 전례가

되었다. 아마 종통宗統을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서북西北 양계兩界의 관찰사觀察使는 가권家眷을 인솔하는 것을 허락하고, 2주년을 기한으로 하여 교체시킨다. 그것은 유래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 근년에 조정의 논의를 좇아 하삼도下三道(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도 양계의 예에 따르기로 하고, 충청감사忠淸監司 겸 공주목사公州牧師 · 전라감사全羅監司 겸 전주부윤全州府尹 · 경상감사慶尙監司 겸 대구부사大丘府使는 각기 그곳에 영문營門을 설치하고 권속을 인솔하게 하여 일을 오랫동안 맡도록 하였더니, 얼마 안 되어서 말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그 제도를 폐지했다.
우리나라가 모든 일에 오래 견디지 못함이 이와 같다. 지금 그 제도를 도로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요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데에 달렸을 뿐이다.

옥당玉堂(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의 관원은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이것을 내지제교內知製敎라 하고,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는 것을 외지제교外知製敎라고 한다. 모든 시급한 교서敎書는 반드시 옥당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짓게 한다. 선왕조先王朝에 홍 모洪某가 옥당에 있었으나, 글이 졸렬하여 지어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즉시 사임하고 갔다. 아마 공의公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2품 이상을 재상宰相이라고 말하며, 조정에서 예를 두텁게 하여 대우한다. 예전에는 재능과 명망과 공덕이 없으면서 이 지위에 이르는 자는 드물었다. 선왕조先王朝에 김 공金公 계휘繼輝가 학문에 박흡博洽하고 문장에 유능하여, 한때 높은 명망을 얻어 벼슬이 참판參判에 이르렀더니, 손 공孫公 식軾은 별다른 이력履歷이나 명성도 칭찬도 없으면서 갑자기 차례를 뛰어넘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니, 김 공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손식孫軾도 가선嘉善이요 나

도 또한 가선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아마 김 공이 시기해 미워한 것이 아니고 개탄慨嘆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평시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관원은 매우 적었으며, 정2품 이상은 10여 인에 불과하여 겨우 실직實職의 정원을 채울 뿐이었는데, 10여 년 전부터는 작상爵賞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계급을 초월하는 자가 있기까지에 이르렀다. 정1품 · 종1품이 거의 50명이나 되고, 종2품 이상은 200여 명이며, 통정대부는 몇 배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군공軍功과 납속納粟으로 된 자와, 의관醫官 · 역관譯官 · 환관宦官 등의 잡류雜類도 또한 벼슬이 1 · 2품에 이른 자가 있다. 관직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져서 남이 그다지 귀중하게 보지 않고, 재상 된 자 또한 자중하지 못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려 가는 도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국초國初 이래 관제官制에서 정2품인 목사牧使를 영목사領牧使라 하고 종2품인 목사를 판목사判牧使라고 하였으며, 통정通政인 목사를 행목사行牧使라고 하였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5]을 반포한 이후에는, 모두 위계는 높고 직임이 낮은 자는 직명 위에 행行을 붙여 일컫고, 위계는 낮고 직임이 높은 자는 직명 위에 수守를 붙여 일컫는다. 그런 까닭에 종2품 이상도 다시 영목사 · 판목사라 일컫지 않고 모두 행목사라고 일컫는다.

내금위內禁衛 · 사복司僕 · 우림위羽林衛를 금군禁軍이라고 한다. 한漢나라의 재관材官 · 궐장蹶張, 당唐나라의 호분虎賁 · 광기彍騎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전조前朝 때는 풍채가 좋은 자를 골라 뽑아서 입시入侍하게 하였는데, 사리事理를

5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 세조世祖 때에 최항崔恒 · 노사신盧思愼 등이 왕명을 받들고 편찬에 착수하여 예종睿宗 1년에 완성한 것.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의 6전典으로 나누어 편찬했다.

아는 자를 가장 우수하게 여기고, 용감한 자가 그 다음이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병조兵曹의 낭관郎官이 그 가부可否를 완의完議하여 뽑았는데, 그의 가문을 보고, 그의 체격과 신장身長을 따라 그의 무예를 시험했다. 그런 까닭에 금군禁軍이 되는 자는 모두 용감하고 헌걸찬 용사였다.
난후亂後부터는 군공軍功과 납속納粟으로 서인庶人과 천인賤人 등 잡류雜類도 금군에 제수되지 않음이 없다. 문벌이나 재예才藝가 어떻다는 것을 묻지 않고, 구차하게 그 수만 채우니 뒤섞여서 혼잡함이 더할 수 없다.

법전法典 안에, "여러 도道의 역승驛丞(관리의 호송이나 공문서의 송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벼슬)은 서리書吏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노고를 쌓은 자를 임용하여 보낸다"라고 했다. 그런데 김안로金安老가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역승을 찰방察訪이라 고치고 모두 문음자제門蔭子弟(공적이 있는 가문의 자제)들로 임명했다. 이것으로 연유하여 서리胥吏들에게 제수하는 벼슬은 오직 도승渡丞(나루터를 관리하는 종9품 벼슬)뿐이 되었으니, 이는 법전의 본뜻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한 것은 명종조明宗朝 을묘년이 시작이다. 지금에 와서는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은 일체 여기에 맡기게 되었다.
또 훈련도감訓鍊都監은 선조조宣祖朝 갑오년에 창설하여 포砲 · 창槍 등의 기술을 교습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과 권한이 점점 무거워져서 한 개의 큰 관청이 되었으니 군사軍事를 주장主掌하는 관원은 다만 군부軍簿를 관리하고, 문서를 거행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뿐이다.

국초 이래로 공신은, 태조조太祖朝의 개국공신開國功臣, 정종조定宗朝의 정사공신定社功臣, 태종조太宗朝의 좌명공신佐命功臣, 노산군魯山君 때의 정난공신靖難功臣, 세조조世祖朝의 좌익공신佐翼功臣 · 적개공신敵愾功臣, 예종조睿宗朝의 익대공신翊戴功臣, 성종조成宗朝의 좌리공신佐理功臣, 중종조中宗朝의 정국공신靖

國功臣·정난공신定難功臣까지 모두 10개의 공신 칭호가 있었다. 선조조宣祖朝에는 광국光國·평난平難·호성扈聖·선무宣武·정난공신靖難功臣 등 다섯 번의 공신 칭호를 세웠으며, 호성공신扈聖功臣에는 훈勳에 참여한 자가 86인에 이르러, 의관醫官·역관譯官·내시內侍·시어侍御 등이 모두 참여하였으니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8–2 제배除拜

《후청록侯鯖錄》[6]에 말하기를, "오대五代 때에 권신權臣이 정권을 잡으니, 공공연하게 뇌물이 오고가곤 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벼슬에 임명되는 것도 모두가 그 뇌물에 따라 각각 등차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당시의 말에, '급제하는 데는 반드시 글을 읽을 필요가 없으며, 벼슬을 하는 데에 어찌 구태여 일을 잘하여 업적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아! 옛날에도 또한 그러하였거니와 지금은 너무나 심하구나.

오대 때에 왕진王進이라는 자가 걸음을 잘 걷는 것으로 뽑혀 벼슬이 절도사節度使에 이르니 구양자歐陽子(구양수歐陽修를 높인 말)가 말하기를, "관작의 공효功效는 시대에 따라 무겁게도 되고 가볍게도 된다.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는 군자가 관작에 있어서 그 공효가 무겁지만, 세상이 어지러우면 소인이 관작을 얻게 되어 공효가 가벼워지기 쉽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군자와 소인은 항상 서로 위가 되고 아래가 되곤 한다. 소인이 위에 있으면 군자는 아래에 있게 된다. 나라의 관작이 한 번 가벼워지면 조정朝廷은 드디어 낮아져서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된다. 옛날 현인군자賢人君子가 옷을 찢어 발을 싸가지고는 멀리 가

6 책 이름. 모두 8권, 338조. 송宋나라의 조영치趙令畤가 편찬한 것으로 선배의 유사遺事·시화詩話·문평文評 등을 채록採錄했다.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오학편吾學編》[7]에 말하기를, “선덕宣德 초初에 내각內閣에서 말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권한을 이부吏部에만 전담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여, 3품 이상의 경관京官으로 하여금 지방의 풍헌風憲 · 군수郡守 중에서 추천하여 쓰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승진하기를 좋아하여 추천하여 줄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고, 금전을 주면서 청탁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감사監司 · 병사兵使 · 수사水使와 관방수령關防守令을 모두 비변사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바, 벼슬자리 하나가 비면 추천되는 자가 많아서 어떤 때는 2, 30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엽관운동獵官運動을 하는 풍습을 이루어 은과 구리의 냄새가 풍긴다. 천하의 큰 폐단의 한 가지로서 한심스러운 일이다.

고려 때에는 인사이동人事異動을 시행하는 데에 일정한 예식例式이 있었다. 12월을 대정大政이라고 하며 6월을 권무정權務政이라고 한다. 이때를 지나면 비록 결원缺員이 있더라도 일찍이 임명 · 제수하는 일이 없었다.
최충헌崔忠獻이 국정을 전단專斷하기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옛 제도를 변경하여 정방政房[8]이라고 일컫는 기관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7 책 이름. 모두 69권. 명나라 정효鄭曉가 편찬한 것으로 대정기大政記 · 손국기遜國記 동성同姓 제왕표諸王表 · 이성異姓 삼왕三王 · 공자세가孔子世家 · 이성異姓 제후표諸侯表 · 직문각直文閣 제신표諸臣表 · 양경전兩京典 전표銓表 · 명신기名臣記 · 천문술天文述 · 지리술地理述 · 예술禮述 · 백관술百官述 · 사이고四夷考 · 북노고北虜考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8 고려 고종高宗 12년에 권신權臣 최이崔怡가 처음으로 자기 집에 사사로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다루던 곳. 모든 관원의 임명 · 승진 · 파견 · 해임 · 이동에 관한 전정銓政을 장악하여 국왕은 다만 정방政房의 추천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었다. 이 정방은 최씨 무인정권이 몰락한 뒤에도 없어지지 않고 나라의 행정기구 안에 흡수되어 예전과 같이 전주銓注를 맡아 보았고, 충렬왕忠烈王 이후에는 여러 번 폐치廢置를 거듭하다가 창왕昌王 때에 상서사尙瑞司로 고쳤다. 일명 지인방知印房 · 차자방箚子房이라고도 한다.

본조本朝에서는 1년에 두 번 도목정사都目政事[9]가 있는 외에 결원이 생기는 대로 곧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날마다 인사행정을 하게 되었으니 옛날 제도와는 다르다.
들으니 중국에서는 매월 23일에 이부吏部에 모여서 전선詮選하고, 그 밖에는 오직 중대한 관직의 임명만을 모여서 추천할 뿐이라고 한다.

명종明宗 때에 신광한申光漢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니, 상신相臣 심연원沈連源·상진尙震이 아뢰기를, "신광한은 조정에 있은 지 가장 오래됐고, 나이도 많고 학문이 있으며, 오랫동안 종1품에 있었으니 청컨대 품계를 올려 주고, 영경연領經筵에 임명하여 권강勸講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특히 정1품에 승진시켰다.
지금은 현임現任 의정議政 이외에는 비록 원임대신原任大臣이라도 영경연領經筵을 겸임하지 못한다. 본래 옛 제도는 아니다.

유미암柳眉巖 희춘希春은 해남海南 사람이니 박학하고 기억력이 강했다. 선왕조에 오래도록 부제학副提學에 임용되어 전임轉任을 용허容許하지 아니한 채 뒤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했다. 이전에는 정2품을 낮추어 정3품인 부제학副提學에 임명하는 예가 없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유 모某가 그 직에 적합하니 비록 고례古例가 없더라도 그를 임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뒷날 김수金睟가 또한 자헌대부로서 특별히 부제학에 임명된 것은 이 전례를 적용한 것이다.

평시에는 처음 입사入仕하는 자는 반드시 신중히 선택하여 임명했다. 그런 까닭에 이속吏屬이나 음직蔭職(조상의 덕으로 하는 벼슬)을 제외하고는 6가지 조건이 구비된 자를 효자의 마을에서 뽑고, 선현先賢의 자손을 뽑아 등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9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이 성적을 고사하여 대인사이동을 행하는 일.

근래에는 이 규정이 모두 폐지되어 없어지고,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오직 세력이 높고 낮은 것만 비교하고, 사람과 직책이 서로 맞는지 묻지 않는다. 공정한 도리는 거의 사라져 없어졌다.

근세에 승지承旨로서 가장 연소年少하였던 자는 박동량朴東亮이다. 나이 25세에 호종扈從(임금의 행차를 뒤따름)의 공로로 순서를 뛰어넘어 정랑正郎에서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임명되었다. 윤휘尹暉는 30세에 사간司諫에서 동부승지에 승진했다.
선왕조先王朝 갑오년에는, 도승지 장운익張雲翼은 34세, 좌승지 오억령吳億齡은 43세, 우승지 구성具宬은 37세, 좌부승지 강찬姜燦은 38세, 동부승지 정광적鄭光績은 44세, 나도 또한 우부승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32세였다. 그때 세상에서, "승정원承政院은 청춘靑春이 만좌滿座하다"라고 말했다.

8-3 상신相臣

옛사람이 말하기를, "정승으로서 큰 계획과 경륜이 없으며, 장수로서 재질才質과 지략智略이 없는 자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이利를 취함이 상인들보다 몇 배나 된다"라고 했다.
지봉자芝峰子는 말한다. 아, 나라를 가진 자가 정승과 장수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이利만 취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상고하여 보니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재상宰相은 당나라 때부터 그 이래로 절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모든 관원이 그를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음의 구별 없이 모두 절한다. 재상은 바로 선 채 손을 조금 아래로 드리워 읍揖할 뿐이다. 빈객을 전송할 때에 섬돌 아래에 내려오는 일이 없고, 빈객이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아전이 곁에서 상공相公을 존중히 여기라고 호통을 친다. 그러면 빈객은 공손하게 조심하며 물러가곤 했다. 부정공富鄭公이 정승이 된 때는 비록 미미한 벼슬아치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모두 맞절로 접대하고, 보낼 때에는 문까지 나가서 그가 말에 오르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돌아왔다. 이때부터 여러 상공들은 자못 이것을 본받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의 상신相臣들이 남을 접대하는 예禮는 아마 당나라의 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당나라의 장홍정張弘靖이 3대를 이어 재상이 되니, 양거원楊巨源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伊陟無聞祖 이윤은 위로 올라가 드러난 할아버지가 없고,
韋賢不到孫 위현의 어짐도 손자에게까지 미치지는 못했는데

라고 하니, 당시의 사람들이 잘 지었다고 말했다.
지금 길천吉川 권반權盼의 선조인 양촌陽村 권근權近, 찬성贊成 권제權踶, 의정議政 권람權擥은 3대가 귀현貴顯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일찍이 그 벽상운壁上韻을 차운하여 말했다.

一時富貴公侯伯 한때의 부귀는 공후백이고
三世文衡祖子孫 삼대의 문형은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구나

또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방적龐籍이 고을의 아전이 되니, 하송夏竦이 보고 말하기를, "다른 날 마땅히 가난한 재상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방적이 말하기를, "재상이 어찌 가난할

수 있습니까” 하니, 송이 말하기를, “1등 가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뒤에 방적이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나와 시를 지어 말했다.

田園貧宰相 전원의 가난한 재상이
圖史富書生 도사로는 부자 서생이로다

이것이 한창려韓昌黎가 말한 소위 존귀하면서 능히 가난할 수 있는 자인 것이다.

명나라의 태사太史 장거정張居正이 16년 동안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사를 함부로 전단한다고 하여 한때 죄를 입었으며, 어버이의 상사喪事에 분상奔喪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비들의 여론에 득죄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집안이 파괴되고 일족이 침몰하는 것도 어렵게 여기지 않고 국가의 임무에 몸을 바쳤다. 그런데 한때의 사대부들은 비방을 분담하고, 원망을 함께 받기를 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미 집을 잊고 국사에 몸을 바쳤으니, 그 밖의 일을 돌볼 겨를이 있겠는가. 비록 덫과 함정이 앞에 가득하고, 많은 화살촉이 몸에 모여 온다고 하여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나의 평생의 학문은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데에 있다. 다만 한때의 헐뜯음과 칭찬을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후세의 시비에도 또한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장거정이 정승으로서 해놓은 업적이 어떠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관절 모든 사람이 이만한 자신이 있어야 바야흐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고려 초에 광평성廣評省을 두어 모든 관원을 통솔하게 하고 시중侍中 · 시랑侍郎 등의 벼슬을 설치하더니, 뒤에 상서성尙書省으로 고치고, 상서령尙書令 · 좌복

야左僕射 · 우복야右僕射 · 좌승左丞 · 우승右丞을 두었다. 충렬왕忠烈王 때는 이것을 중서문하中書門下에 합쳐 첨의부僉議府라 하고, 도첨의都僉議를 두었다. 그 연혁이 한결같지 않아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본조本朝의 의정부議政府라는 명칭은 아마 첨의부의 명칭을 이은 것이리라.

아조我朝 사람으로 부자父子가 이어 정승이 된 사람은 황희黃喜와 황수신黃守身, 이인손李仁孫과 이극배李克培, 정창손鄭昌孫과 정괄鄭佸, 홍언필洪彦弼과 홍섬洪暹, 정유길鄭惟吉과 정창연鄭昌衍, 그리고 정유길鄭惟吉의 조부 정광필鄭光弼도 또한 정승이어서 실로 3대 정승이다.
부자가 장원급제한 사람은, 김흔金訢과 김안로金安老이고, 3대가 장원급제한 이는 김천령金千齡과 김만균金萬均과 김경원金慶元이다. 이런 일은 진실로 드물게 있는 일이다.

황희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 김종서金宗瑞는 공조판서가 되었다. 일찍이 공회公會 때에 술과 과일을 좌석에 올리니 황희가, "어디에서 준비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아전이 대답하기를, "공조판서께서 여러분이 시장하실 것을 염려하여 약간의 판공비로 준비시킨 것입니다"라고 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예빈시禮賓寺를 의정부의 곁에 설치한 것은 대신들을 위해서 한 일이다. 만약 시장하다면 당연히 예빈시에서 준비해 올 일이지, 어째서 사사로이 공조工曹의 판공비로 준비한단 말인가"라 하고, 곧 김종서를 앞에 불러다가 엄중히 꾸짖었다고 한다. 가위可謂 대신의 체통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아조我朝에서는 남행음직南行蔭職이나 무인으로 들어와 정승이 된 자는 매우 드물다. 황수신黃守身 · 남지南智 · 한확韓確 · 한명회韓明澮 · 윤사분尹士昐 · 신수근愼守勤 · 박원종朴元宗 등 여남은 사람에 불과하다.

선왕조先王朝 41년 동안에 정승을 지낸 자는, 이준경李浚慶 · 이명李蓂 · 권철權轍 · 민기閔箕 · 홍섬洪暹 · 이탁李鐸 · 박순朴淳 · 노수신盧守愼 · 강사상姜士尙 · 김귀영金貴榮 · 정지연鄭芝衍 · 정유길鄭惟吉 · 유전柳坱 · 이산해李山海 · 정언신鄭彦信 · 정철鄭澈 · 심수경沈守慶 · 유성룡柳成龍 · 이양원李陽元 · 최흥원崔興源 · 윤두수尹斗壽 · 유홍俞泓 · 김응남金應南 · 정탁鄭琢 · 이원익李元翼 · 이덕형李德馨 · 이항복李恒福 · 이헌국李憲國 · 윤승훈尹承勳 · 김명원金命元 · 유영경柳永慶 · 기자헌奇自獻 · 심희수沈喜壽 · 허욱許頊 · 한응인韓應寅 등 모두 36인이다. 그리고 이준경은 명종明宗 때에 이미 정승으로 있었다.

만력萬曆 기축년에 왜국의 추장 평수길平秀吉이 현소玄蘇 등을 보내 와서 통신通信하기를 청했다. 임금이 조정에 있는 2품 이상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의견을 말하게 하였더니, 통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가 많았으며, 이한흥李韓興 산보山甫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하고, 윤해원尹海原 두수斗壽는 마땅히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이 마침내 그의 말에 좇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보내어 응원한 것은 앞서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때 해원 공海原公은 배척되어 외직에 나가 있었는데, 임금이 재상에게 말하기를, "윤두수尹斗壽는 재능과 지혜가 있으니 쓸 만하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는 급히 행재行在에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드디어 정승으로 임명하고 일을 맡겨 전단專斷하게 했다. 아마 또한 전일의 헌의獻議를 잊지 않은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아조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정승이 된 자는, 나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왕조의 박순 · 이산해 · 김응남은 나이 50이었고, 유성룡 · 이원익은 49세였으며, 이항복은 43세, 이덕형은 38세였다. 또 늙어서 정승이 된 사람으로는 심수경 · 이헌국이 모두 75세로서 근세에 드문 일이었다.

8-4 장수將帥

세상에는 포악한 장수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써 위엄을 기르고, 혹독한 아전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써 유능한 것처럼 뽐내며, 용렬庸劣한 의원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써 자신의 의술을 시험하는 것이니, 그들의 죄는 보통의 다른 살인범보다 더 심하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죄를 받는 자는 없으니 슬프다. 어째서 징계하지 않는가. 심하도다, 백성들의 불행함이여.

옛날 이광李廣은 항복한 군사 700명을 죽였기 때문에 봉후封侯되지 못하였으며, 우허虞詡는 항복한 도적 수백 명을 죽이고 드디어 떨치지 못했다. 근세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오로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으로 위엄을 세우고 명성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한 자들은 좋게 죽지 못한 자가 많다. 어찌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던 업보가 아니겠는가.

장언량張彦良은 무장이다. 청렴결백하여 벼슬이 2품에 이르렀다. 중종조中宗朝에 중국에서 장차 건주建州를 토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출병을 요구한다는 것을 듣고 이기李芑로 도원수都元帥를 삼고, 장언량으로 부원수副元帥를 삼았다. 임형수林亨秀를 이조랑吏曹郎에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으니, 형수가 가서 이기를 보고 어버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사퇴하려 하니, 이기가 대답하기를, “부원수에게 말하라”라고 했다. 형수가 곧 언량에게 가서 보니, 언량이 군복 차림으로 마루에 나와 의자에 걸터앉았다. 형수도 급히 군복을 차려입고 가니 언량이 이미 다른 종사관들과 같이 서서 행례行禮하고 있으므로 감히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못하고 물러 나왔다. 얼마 안 가서 일이 중지되어 가지 아니했다. 뒤에 형수가 가서 보니, 언량이 중문中門까지 나와서 영접하여 읍양揖讓하고, 좌석에 올라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는 실컷 즐기다가 파했다고 한다. 옛날 장수의 풍도風度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래에 도원수가 된 사람이 4인 있다. 김명원 · 권율은 정2품에서, 이항복은 좌의정에서, 한준겸은 종2품에서 되었다. 역시 한때의 필요에서 하는 일이고, 처음부터 벼슬의 품질品秩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이순신은 무인武人 속에 있어서 이름과 칭찬이 드러나지 않더니, 신묘년에 유서애柳西崖가 정승이 되어서 그를 쓸 만한 인재라고 하여 정읍현감井邑縣監에서 차례를 뛰어넘어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를 제수했다. 드디어 중흥의 제일 명장이 되었다. 아아, 지금 세상엔들 어찌 또한 이와 같은 인물이 없겠는가. 특히 인재를 알아 추천하는 자가 없을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관원이나 무거운 품질品秩을 좋아하지 않고, 무장武將 되기를 낚시질한다. 그리하여 무장이 된 자는 이미 그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나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몸을 사랑하여 자중하기에 힘쓰므로, 거의 모두가 적병과 맞서게 되면 먼저 달아나서 사졸들의 도주하는 앞장을 선다. 통분함을 참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갑자기 귀하게 된 무식한 사람이란, 교만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쉽고,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고, 기氣는 높아져서 지휘해 부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초야의 한미한 선비로, 용기를 떨쳐 앞장서서 공격하는 자를 쓰는 것만 못하다. 장수를 양성하는 방법은 아마 높은 벼슬로 다만 영화스럽게 해 주는 일에만 있지 않은 것 같다.

고려조 때에는 장수들이 각기 가병家兵(사사로운 군사)을 기르고 있었다. 그 때문에 가끔 제멋대로 날뛰어서 위를 침범하는 변變이 있었다. 그러나 외적을 평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그것이 힘이 되었다. 원래 예리한 무기는 상서롭지 않은 기구이다. 하물며 사삿집에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할 수야 있겠는가. 그러나 본조에서는 전란의 깊은 상처가 이같이 심한 때에도 무장으로서 성안에 있는

자가 병권에 간여하지 못했다. 봉록도 또한 적어서, 어떤 이는 겨우 하인 1명과 말 1필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쓸쓸하고 박함이 지나치다. 그런 까닭에 군대에는 오래도록 영솔領率하는 장수가 없고, 장수에게는 항상 예속된 군사가 없어서 평소에 조련과 습무習武가 될 수 없고, 이름과 낯이 익지 않은 채 창졸간에 전쟁을 당하게 되니, 어떻게 그들에게 죽을힘을 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그 제도를 점차 변경하여 늦출 것은 늦추고 긴장할 것은 긴장하게 만든다면 아마 혹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무관직武官職의 자제에게 모두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습독하게 하고, 무예를 연습하게 한다고 한다. 무경칠서라는 것은,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육도六韜》·《황석공黃石公》·《울료자尉繚子》·《이위공李衛公》 등 7가지 병서이다.
우리나라의 무예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비록 활 쏘고 말달리는 법은 익히고 있으나 병서는 읽지 않으니, 장수다운 인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8-5 학사學士

《고려사》를 상고하여 보니, 최자崔滋가 처음에 학유學諭에 임명되었는데, 문명文名이 드러나지 않아서 10년 동안 천관遷官되지 않았다. 그가 일찍이 〈수정배시水精盃詩〉라는 시를 지었더니, 이규보李奎報가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다. 하루는 최이崔怡가 규보에게 묻기를, "누가 공의 뒤를 이어 문한文翰을 맡을 만합니까"라고 했다. 규보가 말하기를 학유로 있는 최자라는 자가 있고 급제한 김구金坵가 그 다음입니다"라고 했다. 최자가 마침내 규보를 대신하여 문병文柄(국가의 학문상의 권한)을 잡았다. 그때 권흉權兇이 국정을 제멋대로 하였건만 오히려 공도公道로 인재를 뽑았던 것이다.

조종조에서는 예문藝文 대제학大提學이 문형文衡을 주관하고, 홍문弘文 대제학은 다른 사람으로 임명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중묘中廟 이후부터 두 대제학을 한 사람이 겸임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상고하여 보니, 세조조世祖朝에서는 신숙주申叔舟가 영의정으로서 두 대제학과 예조판서를 겸임하였으니, 이 말은 아마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어세겸魚世謙 · 이행李荇 · 김안로金安老는 정승으로서 대제학을 겸임했고, 선왕조先王朝의 유성룡은 좌의정으로서 대제학과 이조판서를 겸임하였으며, 또 이행李荇은 통정대부通政大夫로서 남곤南袞의 계청에 따라, 이덕형은 통정대부로서 천거되어 모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고 대제학에 임명되었다. 대체로 관제라는 것은 한때에 나온 것으로서 인재를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거정徐居正이 대제학에 있기를 26년이란 긴 기간에 이르니,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진산晉山 강희맹姜希孟, 삼탄三灘 이승소李承召 같은 이가 모두 대제학을 하지 못했다. 당시의 말하는 자가, "서 공이 오래도록 문병文柄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니, 서 공이 듣고 말하기를, "내가 그만두면 누가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공이 김점필재 · 강진산과 서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발衣鉢이 2공公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사임하지 않았다고 하나,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홍인재洪忍齋의 시에, "계회제지주항정季淮踶趾舟恒正, 어달성감개곤용魚達成勘漑袞容, 노양국창신정인老讓國昌申鄭忍, 길충순신귀무궁吉忠淳愼貴無窮"이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국초 이래 대제학을 지낸 자를 차례로 열거한 것이고,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변계량卞季良 · 윤회尹淮 · 권제權踶 · 정인지鄭麟趾 · 신숙주申叔舟 · 최항崔恒 · 서거정徐居正 · 어세겸魚世謙 · 홍귀달洪貴達 · 성현成俔 · 김감金勘 · 신용개申用漑 · 남곤南袞 · 이행李荇(호는 용재容齋) · 김안로金安老 · 소세양蘇世讓 · 김안국金安國 · 성세창成世昌 · 신광한申光漢 · 정사룡鄭士

龍 · 홍섬洪暹(호는 인재忍齋) · 정유길鄭惟吉 · 박충원朴忠元 · 박순朴淳 · 노수신盧守愼 · 김귀영金貴榮 등 모두 26인이다. 말미에 붙인 '무궁無窮'이란 두 글자는 7언으로 만들기 위해 그저 더 넣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뒤를 계승한 자는 이이李珥 · 이산해李山海 · 유성룡柳成龍 · 이양원李陽元 · 황정욱黃廷彧 · 이덕형李德馨 · 윤근수尹根壽 · 심희수沈喜壽 · 이정구李廷龜 · 이호민李好閔 · 유근柳根이다.

임명되었으나 사퇴한 이는, 이퇴계李退溪 · 홍성민洪聖民 · 이항복李恒福이고, 두 번 임명된 자는 이덕형 · 이정구이다.

의정議政으로 대제학을 겸임한 사람은, 신숙주 · 어세겸魚世謙 · 이행李荇 · 김안로 · 유성룡이다. 인재忍齋의 시에 소위 용容은 즉 용재容齋이니, 이행李荇의 호이고, 인忍은 즉 인재忍齋이니 홍섬洪暹의 호이다.

근대에 대학사大學士가 된 자로서 이한음李漢陰(이덕형李德馨)이 나이 31세로 가장 젊다. 그때 주문主文(대제학의 별칭)이 결원되니 한음은 김성일金誠一과 함께 통정通政으로 선발되었는데, 권점圈點[10] 때에 우상右相 심수경沈守慶이 홀로 한음에게 권점을 찍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 모는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다. 어찌 나이 31세에 주문이 되는 자가 있겠는가. 나는 그가 성취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선배들이 인재를 사랑하고 아낌이 이와 같았다. 한음은 마침내 승진되어 대학사를 임명받았다.

예문藝文 응교應敎는 반드시 장래에 대제학이 될 만한 사람으로 겸임시킨다. 평시에 있어서는 김귀영金貴榮 · 노수신盧守愼 · 강사필姜士弼 · 이산해李山海 · 신응시辛應時 · 유성룡柳成龍 · 허봉許篈 등이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제수하였으나, 허봉 이후부터는 항상 결원으로 두고 보충하지 않았다. 임진壬辰 이후로는

10 관원을 임명할 때에 후보자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전형위원銓衡委員들이 각기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 아래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동그라미가 많은 사람을 선발하던 제도.

오직 이호민李好閔 이외에는 절대로 겸임한 자가 없었다. 아마 그 선임選任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소양곡蘇陽谷은 신기재申企齋 · 정호음鄭湖陰과 더불어 동시대 사람이다. 그리고 이용재李容齋는 양곡陽谷을 가장 칭허稱許했다. 여러 번 임금의 앞에서 말하기를, "소세양蘇世讓은 마땅히 주문主文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아래 지위에 두어둘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양곡이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하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용재가 주청했다.

양곡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빌어서 홍주목사洪州牧使가 되었더니, 부임한 지 두어 달이 못 되어서 용재가 또 말하기를, "문장가인 선비를 외관外官으로 내보내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즉시 소환하라고 명령했다. 전배前輩가 사람을 권장하는 것을 즐겨함이 이와 같았다.

그 뒤에 소양곡 · 신기재 · 정호음은 모두 문형文衡을 맡았으며, 높은 품질品秩에 이르렀으니, 나이가 모두 80세 전후였다. 그리고 양곡은 비록 선비들의 논의가 배척하는 바 되어 일찍 물러나와 사삿집에 살고 있었으나, 청한淸閑한 복을 누린 것이 거의 20년이었다. 근세의 글 잘하는 사람으로서 편안히 몸을 마칠 때까지 부귀를 누린 자로 그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8-6 사관史官

전대의 제도에 좌사左使는 말을 기록하고 우사右使는 동작을 기록하였으며, 궁중에는 기거주記居注(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벼슬 이름)가 있었다. 한漢나라 때의 사마천司馬遷 · 반고班固는 다 대대로 내려오는 사관史官이다.

상고하여 보니, 명明나라의 한림翰林이 바로 사관史官이다. 여러 관사官司에서

상주한 문서들을 가져다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으로 구분하고, 10곳의 사관史館에서 편집한 것을 한데 합하여 부총재副摠裁가 뺄 것은 빼고 더 넣을 것은 넣으며, 내각의 대신이 전체를 총괄하여 윤색하는데, 3품 이상이라야 입안立案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기史記를 편수하는 방법은 대체로 이 방법을 본받은 것이다.

옛글에, "재상은 사람을 수십 년 치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사관史官은 사람을 천년 백년의 뒤에까지도 내세울 수 있고 아주 침몰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사관과 재상이 사람의 죽은 뒤와 살아 있는 동안에 대한 권한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라고 했다. 이 설은 타당하다. 그러나 근세에 이기李芑가 재상이 되어 사림을 몰아 죽이니, 사람이 간혹 슬며시 풍자하여, "사관의 붓이 두렵다"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동국통감東國通鑑》을 누가 얻어 볼 수 있는가"라고 했다 한다. 나는 말한다. 만약 이 말과 같다면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징계할 것이 없고, 사기史記를 쓰는 자도 또한 그 권한을 쓸 데가 없을 것이다.

선왕조先王朝에서는 일을 기록하는 직임을 가장 중하게 여겼다. 김사문金斯文 정목庭睦이 가주서假注書가 되었을 때에 글이나 글씨가 그다지 매우 졸렬하지도 않았건만 선왕先王이 하교하기를, "근래에 사관이 일을 기술하는 데에 본뜻을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글씨는 새 발자국을 그려 놓은 것 같으므로 특히 고쳐 임명하기를 명령한다"라고 했다. 그 뒤로부터는, 주서注書(승정원의 정7품 벼슬)는 문장과 학문이 모두 우수한 자가 아니면 제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관史官은 반드시 추천으로 제수하니, 그것을 비천秘薦이라고 한다. 옛날 신라 때에 사관을 비천할 때에는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유告由하였으니, 그 맹세하는 글의 끝에 말하기를, "적당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한다면 하늘이 그를 죽

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 일을 엄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에 사관이 결원되었으므로 기자헌奇自獻이 한림翰林으로서 행조行朝에 있다가 다만 한 사람만을 추천하였는데, 그 사람은 명망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다. 맹세하는 고유문告由文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속여 하늘에 고유하기를, "난리로 인해 인재가 없으므로 부득이 천거하는 데에 이 사람을 충당합니다" 운운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사국史局에서는 재신宰臣이 죽으면 반드시 아무개가 졸卒했다고 쓰고, 그가 평생에 행한 일의 옳고 그른 것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근래에 어떤 한 사람의 사관이 의논하기를, "이 일은 중대하니 모름지기 여러 사관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 뒤부터 드디어 재상이 죽어도 사적을 쓰지 않는 것이 이제 40년이 넘었으니, 한때에 이름 있던 재신의 행적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면치 못했다. 이것은 거의 사기史記가 없는 것과 같으니, 아까운 일이다.

내가 내한內翰(문필을 맡은 벼슬 이름)이 되었을 때에 서적을 바람에 쐬고 볕에 말리는 일로 인연하여 지고地庫의 여러 서적을 열람할 수가 있었다. 전조 때의 비사秘史가 쌓여 있는 것이 매우 많았는데, 그중에《해동금경록海東金鏡錄》1권이 있었다. 바로 이제현李齊賢 등이 편찬한 것으로서, 서적으로 완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사에는 자못 볼 만한 것이 있었다. 또 정총鄭摠 · 이첨李詹이 만든 사고史稿는, 즉 자기 집에 감춰 온 사초史草로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천재天災 · 시정時政 등을 바로 비판하여 숨김이 없었다. 책의 첫머리에 또 바르게 성명姓名을 써 놓았다. 그 한 일들이 옛일에 가까워서 즐겨할 만했다.

아조我朝의 실록을 평시에는, 중앙에서는 춘추관春秋館에, 지방에는 충주忠州 · 성주星州 · 전주全州 등의 각처에 나누어 수장收藏했다. 그런데 임진년의 병화가 있은 뒤에, 오직 전주에 감추었던 것만이 화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강화

江華에 옮겨 놓았다가 계묘년에 이르러 인서국印書局을 설치하고 여러 부를 베껴 내어서 나누어 강화江華와 묘향산妙香山·태백산太白山·오대산五臺山에 수장했다. 그것은 환란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욱 심원深遠한 것이다. 다만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즉위한 뒤로부터 임진년에 이르는 동안의 시정기時政記는 전혀 아무 것도 보존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야사野史를 금지하였으므로 또한 사삿집에 감추어둔 사고史稿도 없어서, 20년간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정사들은 의지하여 쓸 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 애석한 일이다.

8-7 사신使臣

양梁나라 후경侯景[11]의 반란 때에 백제百濟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양나라에 조근朝覲하게 하였더니, 사자는 양나라의 성궐城闕이 부서지고 헐어진 것을 보고 단문端門(궁전의 정문) 밖에서 부르짖어 우니 보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후경이 성내어 그를 가두었다. 후경이 패망한 뒤에 드디어 그 사신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마 또한 절의 있는 선비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기史記가 그의 이름을 잃어버렸으니 한스럽다.

당唐나라 명황明皇이 촉蜀으로 피란 갔을 때에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사신을 보내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성도成都에 이르러서 공물을 올리니, 명황이 십운시十韻詩로 된 편지를 지어 주었다. 그 시는 대략 이러하다.

11 남북조南北朝 삭방朔方 사람. 자는 만경萬景. 여력膂力이 있고, 말 타고 활 쏘는 일을 잘했다. 후위後魏 때 이주영爾朱榮에게 붙어 정주자사定州刺史가 되었더니, 고환高歡이 이주씨爾朱氏를 치매, 이에 항복하여 사도행대司徒行臺가 되고, 1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하남河南을 전제하더니, 다시 양梁나라에 항복했다. 양무제梁武帝가 하남왕河南王을 봉하였는데, 곧 군사를 일으켜 무제를 아사餓死하게 만들고, 간문제簡文帝를 세웠다가 다시 시해하고 스스로 한제漢帝라고 일컬었다. 왕승변王僧辯 등에게 토멸되었다.

衣冠知奉禮 의관은 예를 지킬 줄 알고
忠信識尊儒 충신은 높은 선비도 따를 수 없다
益重靑靑志 더욱 푸르고 푸른 송백 같은 뜻을 무겁게 하여
風霜恒不渝 바람과 서리에도 항상 변치 않네

그때의 사신의 성명을 고증할 길이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고려에서는 송宋나라의 인종仁宗 이후로 오래도록 사신의 왕래가 끊어졌더니, 신종神宗의 원풍元豐 연간에 이르러 간의대부諫議大夫 안도安燾와 기거사인記居舍人 진목陳睦이 처음으로 조서를 가지고 왔다. 고려에서는 그들에게 의대衣帶와 신발과 말과 금은金銀·미곡米穀·잡물雜物을 준 것이 이루 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장차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물건들을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얻은 물품으로 은銀을 사 가기를 청했다. 또 날마다 대접하는 반찬을 감하고 그것을 값으로 따져서 은을 사 가니, 나라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다.
근년에 고顧·최崔가 중국 사신으로 왔을 때에 처음으로 백금白金을 예물로 주었으며, 반찬을 줄이고 그것을 은으로 환산하여 가니 나라 사람들이 처음 보고, 그들의 탐욕하고 인색한 것을 괴이쩍게 여겼더니, 그 뒤로는 그것이 드디어 폐단의 전례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주 큰 폐해가 되었다.

상고하여 보니, 원위元魏 때에는 여러 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관저官邸를 설치하였는데, 제齊나라가 제일이고, 고려가 그 다음이었다고 한다. 그때에는 고려가 한창 강성하였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에는 신라가 발해의 위 서열에 있었으며, 송나라 때에는 글단契丹(거란)의 사신이 제1위이고 고려의 사신이 그 다음이었으며, 사자가 국경에 들어간 때, 교정郊亭에 도착한 때, 객관客館에 닿은 때에는 황제의 위로하는 문안사問安使가 거듭 오고 예대禮待함이 가장 융숭했다. 지금은 명나라에 외국 사신으

로 가서, 반열班列의 차례는 우리나라가 첫째이고, 안남安南 · 유구琉球 등 여러 나라의 사신들은 모두 감히 나란히 서지 못한다. 화사진감부華使陳鑑賦에 말하기를, "조선은 동번東藩의 중요한 나라이며, 예의의 지구地區이고, 시서詩書의 연수淵藪이다. 그러므로 특히 우두머리로 일컫는다"라고 했다.

《석림연어石林燕語》[12]를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가 고려를 예대禮待함이 특히 중후해서, 고려의 사신이 지나가는 곳에는 모두 객관客館을 신축하고, 따로 창고를 설치하여 그들을 접대할 공장십물供帳什物(연회에 필요한 물건과 도구와 천막)을 저장하며 사신이 도착하면 태수太守는 모두 교외에 나가 영접하고, 전송할 때에도 또한 같이 한다고 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신에 대한 객관과 양곡과 연회와 위로의 예절이 또한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사신 된 자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통역관의 무리들이 수행하여 모리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문창잡록文昌雜錄》에 말하기를, "원풍元豐 3년에 고려가 정사正使 유홍柳洪과 부사副使 박인량朴寅亮을 보내어 일본의 수레 1대를 바쳤다. 유홍이 말하기를, '제후는 거복車服을 진공進貢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가 아닌 줄 아오나 본국이 수레를 올리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공교하고 졸拙한 것을 보게 하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그가 예를 아는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유홍은 무인이다. 한마디의 말로 중국 사람에게 존중히 여김을 얻었으니, 말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책 이름. 모두 10권. 송나라 섭몽독葉夢得이 편찬한 것. 몽득은 휘종徽宗 때에 윤고綸誥를 관장管掌하여 〈조장국전朝章國典〉을 연구했다. 이 책은 당시의 장고掌故를 기술한 것으로서 관제과목官制科目에 있어서 가장 자세하다.

전조前朝의 박인량이 김근金覲과 함께 신종神宗 때에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그들이 지은 표문表文(임금 또는 정부에 올리는 글)과 서장書狀과 제영題詠(제목을 내어 시를 지음)한 것을 중국 사람들이 칭찬하여 두 사람의 시문을 간행하고 《소화집小華集》이라 일컫기까지 하였으니 존중하게 여겨짐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그들의 시문이 지금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많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북경에 간 사신의 문금門禁(문의 출입을 금함)이 매우 엄밀하여, 중국의 문인들과 서로 만나볼 수 없었으니, 비록 박인량과 같은 문재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드러날 수가 없었다.

《설부》를 상고하여 보니, 지명주知明州 장중張中이 고려 사람 박인량과 사사로이 만나 앉아서 시詩를 짓고 화답했다 하여 종신토록 폐고廢錮(벼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의 형에 처해졌다고 했다. 이것으로 금제禁制가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송나라 때부터 이와 같이 하였으니,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가는 자는 또한 마땅히 삼갔을 것이다.

《고려사》를 상고하여 보니, 봉명사신으로 가는 자가 금과 명주와 화물을 많이 가지고 가니,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려가 사대事大한다는 이름을 빌어서 실은 무역貿易을 탐내어 올 뿐이다"라고 했다. 박의중朴宜中이라는 사신이 있어서 1가지의 물품도 가지고 가지 않았더니, 요동의 반송사伴送使가 그의 청백함을 감탄하여 중국 예부禮部에 보고하니, 천자가 그를 인견引見하고 더욱 우대했다고 한다. 근세의 우리나라 사신에게 자기의 몸을 규율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장사꾼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으니 부끄럽고 욕됨이 심하다.

급사給事 장녕張寧이 예문희倪文僖에게 배웠다. 문희가 다녀간 지 10년 만에 장녕이 사신이 되어 우리나라에 나오니, 그때 나이가 24세였다. 성삼문成三問 등이 없다는 것을 듣고 탄식하고 의심하여 말하기를, "나의 스승 예 시강倪侍講이 말하기를, 동국東國에 재사才士가 많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눈에 띄는 이가

아무도 없는가"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과 수창酬唱(시문詩文을 증답贈答함)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의 〈예양론豫讓論〉이라는 논문을, 어떤 이들은 그에게 의미가 있어서 지은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공용경龔用卿이 중국의 사신으로서 올 때, 소세양蘇世讓이 원접사遠接使가 되고, 정사룡鄭士龍은 가선대부로서 평양 영위사平壤迎慰使가 되었다. 사신의 문장이 대단해서 사신으로 오는 도중에서 저작한 글이 먼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 조정의 논의가 모두 소세양이 공 사신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소세양이 의주義州에 있으면서 병을 일컫고 사임하니, 정사룡을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품하여 그의 후임을 삼았다. 정사룡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조정이 나를 비오는 날 나막신으로 쓴다"라고 했다. 아마 평상시에는 내버려 두었다가 일이 있을 때면 비로소 가져다 쓴다는 뜻일 것이다.
고천준顧天峻이 중국 사신으로서 나왔을 때에 이정구李廷龜가 원접사가 되고 이호민李好閔이 의주영위사義州迎慰使가 되었는데 이정구가 임시로 사임하자 이호민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며, 이정구는 평양 영위사가 되었다.

이용재李容齋는 원접사가 되어서 도중에 향산香山을 유람하다가, 중국 사신이 이미 강을 건너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정주定州에서 맞이했다. 용재는 풍채도 훌륭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국 사신이 성내어 예대禮待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화답하는 글을 보고 비로소 깊이 탄복했다. 당나라 사신이 부사副使에게 글씨를 써서 보이기를, "이 사람은 시단詩壇의 노장老將이니 조심하여 경솔하게 시를 짓지 말라"라고 했다. 중국에서 문장을 소중하게 여김이 이와 같다.

황홍헌黃洪憲이 중국 사신으로서 나왔을 때, 이율곡李栗谷이 원접사가 되었다. 강 위에서 조서를 맞이하던 날 중국 사신이 통역관에게 묻기를, "이 원접사는 산림처사山林處士의 기상이 있으니, 산림처사를 빌어다가 이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통역관이 대답하기를, “원접사께서는 장원급제로서 벼슬이 높은 관품에 올랐으며, 산림에 숨어 있는 처사는 아닙니다”라고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천도책天道策》을 지은 사람인가”라고 했다. 아마 공이 지은 《천도책》의 글이 중국에 흘러들어 가서, 중국 사신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난후亂後 신축년에 고顧 · 최崔 두 봉조사신奉詔使臣이 나오니, 접대하는 것을 비로소 평시의 관례에 의지하여 이월사李月沙 정구廷龜가 원접사가 되고, 박남곽朴南郭 동설東說, 이동악李東嶽 안눌安訥, 홍학곡洪鶴谷 서봉瑞鳳이 종사관이 되었으며, 차오산車五山 천로天輅, 권석주權石洲 필韠, 김남창金南窓 현성玄成이 제술관製述官이 되고, 한석봉韓石峯 호濩는 글씨를 베껴 쓰는 관리로서 또한 일행 중에 있었다. 대체로 한때의 최고 인물들을 뽑은 것이다. 내가 가장 글을 못하였으나 도사선위사都司宣慰使로 임명받았다. 임금께선 ‘선위宣慰’라고 하는 두 글자는, 사신을 존경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여 영위사迎慰使로 고쳐 일컬었다. 그 뒤로 드디어 관례가 되었다.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말하기를, “송나라 때에 고려의 사신은, 중국 황제의 궁궐에 도착한 뒤 한 달을 넘어 체류하지 못하는 법이었는데, 휘종徽宗이 그로 하여금 전시殿試의 방방放榜(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하는 것을 보게 하고자 하여, 드디어 70일 동안을 체류하게 했다”라고 했다. 아마 특별한 은전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중국의 도성에 간 사신의 유관留館 기한을 중국에서 40일로 한정했고,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30일을 경과하면 서장書狀으로 하여금 추고推考(관원의 허물을 추문推問하여 고찰考察함)하게 한다. 그러나 용무로 인하여 체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만력萬曆 신해년에 내가 면복주청冕服奏請의 용무로 140일을 유관했고, 그 뒤

로 이지완李志完 등이 고명주청誥命奏請의 용무로 유관한 것이 또 200일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다.

상고하여 보니, 당나라 때에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자에게는 주현관州縣官 10인을 지정해 주어, 사신이 그들에게서 돈을 받게 하였으며, 뒤에는 담당 관서에 명하여 그 비용을 주게 했다고 한다.
지금 북경에 가는 우리나라 사신의 반전盤纏(여비)을 조정에서는 처음부터 마련해 주지 않고, 사신으로 하여금 사사로이 스스로 지방 관청에 구청求請하게 한다. 그런데 지방관이 많이 보내지 않으므로 사신은 빈손으로 떠나게 되어 도중에서 곤경에 빠지는 자가 있다. 근년에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성문成文의 규정을 창정創定하여 담당 조曹에서 배정하여 거두어주는 것이 자못 편리하고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중지되고 말았다. 또 예전에는 중국을 여행하는 도중途中이나 예부禮部에 인정人情으로 주는 선물은 부채나 모자 등의 물품에 지나지 않았는데, 근년에는 긴급한 주청奏請으로 인해 은자銀子를 싸 보내는 것이 혹은 수만여 량兩에 이르고 쓰는 것을 함부로 어지럽게 흩는다. 그런 까닭에 중국 관청의 하리배下吏輩들은 우리나라 사람 보기를 기화奇貨로 여겨, 교활하게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면서 요구하는 폐단이 매년 더욱 심해져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전에 일본에 봉명사신으로 간 자 중에는 정몽주와 신숙주가 가장 왜노를 감복시켜서 지금까지도 칭찬해 마지않는다. 근년에 황윤길黃允吉 · 김성일金誠一이 같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는 왜의 추장이 호방하고 거만스러워서 일의 불측不測한 것이 많았다. 황윤길은 두려워하고 겁내어 매사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성일은 성질이 강강剛强하여서 바른 것을 지키고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니, 왜인들이 매우 존경하고 두려워했다고 한다. 아마 비록 이류異類(금수와 같은 무리)일망정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만력 정미년에 조정에서는 왜국과의 청화請和로 인하여 통신사로서 첨지僉知 여우길呂祐吉, 교리校理 경섬慶暹을 상사上使와 부사副使로 임명하고, 좌랑佐郎 정호관丁好寬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했다가 뒤에 통신사라는 말을 싫어하여 회답사回答使로 개칭하고, 서장관은 종사관으로 개칭하여, 온 조정이 시를 지어 전송했다.
그중에 세상에서 가장 전송傳誦되는 것은 윤 동지尹同知 안성安性의 시이다. 그 시에 말하기를,

使名回答向何之 회답사라는 이름의 사신이 어느 곳을 향하여 떠나는고
今日交隣我未知 오늘날 이웃 사귀는 일 나는 알지 못하겠네
試到漢江江上望 시험 삼아 한강 위에 이르러 바라보니
二陵松栢不生枝 선宣 · 정靖(성종成宗과 중종中宗) 두 능에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가 나지 않았네

이상국李相國 덕형德馨은 그의 시 한 연구聯句에서 말하기를,

臣子未湔陵寢辱 신자臣子는 아직 능침의 욕됨을 씻지 못하였는데
簡書先入犬羊天 간서簡書(계명戒命)는 먼저 견양犬羊의 하늘로 들어가네

라고 했다. 대체로 왜적이 선릉宣陵 · 정릉靖陵의 두 능을 발굴하여 만세에 잊을 수 없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재상이 이 시를 듣고 매우 좋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

8-8 수령守令

양성재楊誠齋가 말하기를, “요순堯舜과 삼대三代 때에는 관리로서 순리循吏(순량循良하여 법을 잘 지키는 관리)라고 이름 붙는 자가 없었다. 순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순리 아닌 자가 없었던 것이다. 관리 가운데에서 홀로 한두 사람을 지적하여 순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리 아닌 자가 많다는 말이 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순리전循吏傳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것은 사마천司馬遷에서부터 시작했다. 대체로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혹독한 관리를 숭상해 썼기 때문에 순리라는 명목이 있게 된 것이다.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한漢나라의 선성군수宣城郡守 봉소封邵가 어느 날 범으로 변신하여 고을의 백성을 잡아먹으니, 백성들이 “봉사군封使君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그는 가버리고 다시 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봉사군 같은 악독한 수령이 되지 말라, 백성을 다스리지는 않고 백성을 잡아먹는 것을 즐겨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있다. 슬프다, 세상에는 관리가 되어 백성을 먹는 자가 많다. 이런 자들은 모두 범의 무리인 것이다. 어찌 홀로 봉사군만이 그러하였겠는가.

세상에서는 태수太守를 오마五馬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당시唐詩에, “사군使君의 5필 말. 그중 1필은 총마驄馬라네(使君五馬一馬驄)”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옛날에는 4필 말이 끄는 수레를 탔었는데,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태수가 나갈 때에는 말 1필을 더 붙였다. 그런 일의 기사가 《한관의漢官儀》에 보인다.
또 말하기를, “태수의 5필 말 중에 1필은 행춘行春이라고 한다” 했다.

상고하여 보니, 명나라의 홍무洪武 때에 신화현승新化縣丞 주주周舟가 착한 행

정을 하였으므로 승진시켜 이부주사吏部主事로 삼았더니, 후에 고을의 백성들이 대궐에 나아가 그를 다시 수령으로 빌려주기를 원하므로, 특명으로 주舟를 다시 신화현승을 시키고 예부禮部에서 사연賜宴하고 보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에, 수령은 한 고을에 두 번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왕조先王朝에 대간大諫 이해수李海壽는 견책譴責으로 특히 여주목사驪州牧使를 제수하였으며, 근래에는 참판 권혜權暳가 대신의 논의에 따라서 강화부사江華府使에 제수되었고, 참의參議 유석증俞昔曾은 고을 사람의 호소로 인해 나주목사羅州牧使에 임명되었는데, 모두 두 번째의 부임이었다.

6진鎭의 수령은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사람의 선택을 신중히 했다. 그리하여 이따금씩 문관을 임명하여 여러 진鎭을 탄핵하여 누르게 했다. 선왕조에 이우직李友直이 온성부사穩城府使가 되었더니, 번방藩方의 오랑캐들이 지금까지도 그의 청렴한 덕정德政을 칭송한다. 김명원金命元 · 한준韓準 · 정엽鄭曄 같은 이들은 모두 6진의 부사府使를 거쳐서 마침내 대관大官에 오른 자들이다. 내가 임진란 때에 이 도道에 봉명奉命하였더니, 6진의 군민軍民들이 길을 막고 말고삐를 잡으며 울면서 말하기를, "원컨대 관장官長께서 빨리 이 도道의 병사兵使나 혹은 수령이 되어 오셔서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모두 이러했다. 아마 무인들의 침탈 행위에 고통받은 까닭일 것이다.
근래에 조정에서 6진을 도외시하여 탐욕한 장수와 더러운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의 것을 함부로 집어삼키게 만들고 금지하지 아니하니 군사들의 심정은 원망하고 배반하였으며, 변경의 방비는 소홀하니 사리를 아는 사람들은 한심하게 여긴다. 슬프다. 어찌 오직 6진만이 그러하겠는가.

8-9 과목科目

상고하여 보니 한漢나라 때에 사책射策이란 것이 있었다. 난문難問과 의의疑義를 과제科題로 한 여러 문제를 간책簡策으로 써 놓는다. 그리고 문제의 크고 작은 것을 참작하여 어느 문제는 갑과甲科, 어느 문제는 을과乙科라고 내정하고 비밀로 하여 발표하지 않는다. 응시하는 자는 자기가 선택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쓰게 한다. 이것이 사책이다. 그러나 조착晁錯 · 동중서董仲舒에게는 대책對策이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후세의 문책問策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전한前漢에서는 사책으로 과거 보러 온 사람을 시험했고,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의 초기에도 또한 책문策文과 잡문雜文으로 시험을 보게 하다가 천보天寶 연간에 이르러 문책 이외에 다시 시부詩賦를 시험하게 되어 3장場으로 되었다. 송나라 때에는 또 경서의의經書疑義를 더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규정과 방식이 되었다. 또 무과武科의 과거는 당나라의 무후武后 때에 처음 두었으니, 그 내력도 또한 오래되었다.

《석림연어石林燕語》에 말하기를, "당나라에서는 예부禮部에서 시부詩賦의 문제로 시험을 보았는데, 응시자들은 모두 나아가 문제의 뜻을 물어볼 수 있었다. 이 문제의 뜻을 물어보는 일을 상청上請이라고 했다. 송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시殿試 제도를 증설하고, 천자가 친히 전殿에 임어臨御하여 시험을 보였다. 그러나 진사進士의 시험은 오히려 예부에서 보았던 옛 일대로 좇았다. 경우景祐 때에는 조서를 내려, 시험문제가 나온 경서나 사기史記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 인쇄해서 나누어 주게 했다"라고 했다. 즉 지금의 해제解題가 그것이다.

《속사시續事始》에 말하기를, "개원開元 때에 처음으로 주현州縣의 공문서公文書

의 질의質疑와, 또 경서 · 사기史記의 의의疑義를 취하여 갑甲 · 을乙 · 병丙 · 정丁의 과科를 가설假設하고, 응시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했다"라고 했다. 이것이 후세의 의의疑義의 시초이다.

당唐나라의 장작張鷟이 지은 판어判語를, 용근봉수龍筋鳳髓라고 하는데, 그 글이 매우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과거문科擧文이다. 세상에서 작鷟을 청전靑錢이라고 불렀다. 청전은 청동전靑銅錢이니, 만 번 골라도 만 번 틀림이 없다는 뜻이다. 시속 말에 백발백중이라는 것과 같다.

상고하여 보니, 이하李賀가 책策을 지어 등과登科하게 되니, 예부에서 이하의 아버지의 이름이 진숙晉肅이어서, 진사進士라는 말과 음이 비슷하여 진사로 뽑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시배時輩들도 이하를 진사로 뽑는 것을 배척하여 이하는 마침내 급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창려韓昌黎의 휘변諱辨은 아마 이 일 때문일 것이다.

또 방간方干(당나라 때의 학자 · 시인)이 언청이였으므로, 담당관이 급제의 이름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온정균溫庭筠은 재주는 있으나 덕행이 없었으며, 나은羅隱은 성질이 경솔한 데가 많았으므로 이들은 모두 급제하지 못했다. 당나라 때에는 사람을 시취試取하는 데에 전적으로 재능만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장적張籍은 이여李餘가 급제하고 돌아가자 전별하는 시에서 말하기를,

歸去惟將新誥牒 돌아갈 때에는 다만 새로 받은 고첩誥牒만 갖고 가네
後來爭取舊衣裳 뒷사람들이 와서 다투어 그대의 옛 의상을 가져갈 것이기에

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니, 새로 진사가 된 사람이 자기의 옷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풍속

이 오래인가보다.

정곡鄭谷이 급제한 뒤에 평강리平康里에 유숙하면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好是五更殘酒醒 이 좋은 오경五更 밤에 술기운도 깨었는데
耳邊聞喚壯元聲 귓가에 장원 부르는 소리 들리는구나

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요산당기堯山堂紀》에 말하기를, "정곡은 8번째의 성적으로 급제했다. 그러나 당나라 때에 새 진사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황성에 나와서 급제한 성적 순위의 높고 낮은 것을 묻지 않고 다 장원이라고 불렀던 까닭이다"라고 했다.

저재褚載는 당나라 말기의 사람이다. 조관趙觀이 문과 중시重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시에 말하기를,

一枝仙桂兩回春 한 가지 선계仙桂에 두 번씩 봄이 드네
始覺文章可致身 비로소 알겠도다, 문장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적으로 병년丙年에는 문과 · 무과의 중시重試를 시행한다. 아마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리라.

당나라의 이덕유李德裕 · 권덕여權德輿는 모두 문음門蔭으로 벼슬길에 올라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며, 송나라 태종 때에는 이방李昉이 정승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종악宗諤이 진사에 뽑혔으나 그의 아버지가 중서中書[13]에 있다고 하여 그만두게 했고, 인종仁宗 때에는 한억韓億이 참정參政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유維

13 궁중에서 천자의 조명詔命 등을 맡은 벼슬. 후세에는 대정大政을 총리總理하는 내각이 되었음.

가 진사로써 이름을 아뢰었으나 대정大廷(외조外朝의 정廷)에서 시험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문음으로 벼슬에 나아갔다. 진회秦檜가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의 아들 희熺, 손자 훈塤이 모두 많은 선비들보다 수위首位로 급제하니, 사론士論이 그들을 영원히 등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에 과거제도가 엄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석림연어》에 말하기를, "후주後周 때부터 과거에는 책론策論 3편을 예부에서 시험하였는데, 매편에 3,000자를 표준으로 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하송夏竦의 시에,

縱橫禮樂三千字 자유자재하게 예악禮樂 삼천 자를
獨對丹墀日未斜 홀로 단지丹墀(일명 대궐)에서 답안을 쓰고 나니 아직 해가 기울지 않았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송나라 태종이 사람을 뽑을 때에, 나이 적은 사람은 그대로 쫓아버리는 일이 가끔 있었다. 구준寇準이 나이 19세 때에 과거를 보러 가니, 어떤 이가 나이를 더 보태라고 했다. 구준이 대답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진취進就하려고 하는데 임금을 속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미 입사入仕하여 나이 30여 세가 되었을 때에, 태종이 그를 크게 쓰고자 하였으나 그의 젊음에 난색을 보였다.
구준이 지황地黃[14]을 복용하고, 겸하여 무를 먹으니 얼마 안 되어 수염이 희게 되었다. 정위丁謂가 수염을 떨쳐버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품어 시로써 풍자하

14 현삼과玄蔘科에 속하는 숙근초宿根草. 잎은 두껍고 긴 타원형楕圓形이며, 솜털이 있고 꽃은 백색에 자색을 띤 순형화脣形花의 약초.

여 말하기를,

少年罷去任紛紛 나이 젊은 사람이 어지러이 쫓겨가건만
不忍增年惑上聞 차마 나이를 올려 임금을 속이지 못하더니
餌藥變鬚求速用 약이藥餌로 수염 빛 고쳐 속히 등용 바라다니
如何到此又欺君 이에 이르러선 어째서 또 임금을 속이려 하는고

라고 했다.
대체로 정위라는 사람은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구준이 이런 비난을 받는 것도 또한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의 주註에, "송나라 숭녕崇寧 때에 삼사三舍의 제도[15]를 시행하고, 벽옹辟雍(대학의 다른 이름)에서 군국郡國의 공사貢士와 회시會試하여 사마司馬에 올렸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왕제사마변王制司馬辨》에, "사마는 관리의 인재를 논하고 진사 중 현능한 자를 논하여 왕에게 보고한다"라고 했다.
지금 세상에서 생원生員이나 진사를 사마司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섭소온葉少蘊의 《피서록避署錄》에 말하기를, "숭녕崇寧 때에 인상여藺相如 · 염파廉頗 · 곽분양郭汾陽 · 이임회李臨淮 · 장보고張保皐 · 정년鄭年의 사적을 과제科題로 하여 진사 시험의 책문策文을 짓게 했다"라고 했다.

15 삼사지법三舍之法이라고 한다. 송나라 때의 관리 등용 시험의 제도. 신종神宗 때, 처음으로 학學에 들어온 자를 외사外舍라 하고, 그 수는 700인이다. 외사에서 내사內舍에 오르는 사람은 200인, 내사에서 상사上舍에 오르는 사람의 수는 100인이다. 사람마다 1가지의 경서를 공부하게 하여, 달마다 시험을 보여 순차로 사舍를 올려준다. 상사에 오른 사람은 발해發解나 예부시禮部試 · 소시召試를 면제하고 급제及第를 사賜했다.

또 송기宋祁가 말하기를, "진晉나라에는 기해祈奚가 있었고 당나라에는 분양汾陽이 있었으며, 신라에는 보고保皐가 있었다. 누가 오랑캐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가"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장보고는 신라 사람이다. 그의 사적이 당나라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다. 염파 · 인상여 · 곽분양 · 이임회와 함께 청사靑史에 병칭竝稱되고 있으니, 어찌 대단히 훌륭한, 세상에 드물게 나타나는 선비가 아니겠는가.

송나라 때의 성시省試에 응시자가 제출한 한 부賦의 문장이 매우 훌륭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에 "운주유장運籌帷帳"이라고 쓴 것이 있었다. 고시관考試官은 운주유악運籌帷幄이라고 써야 옳은 것인데 악幄 대신에 장帳으로 쓴 것은 잘못이라 하여 낙제를 시켰다. 그 뒤에 조사하여 보니, 《사기》에는 유악帷幄이 아니고 유장帷帳으로 되어 있었고, 《한서》에 비로소 유악이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아조我朝에서는 정사룡鄭士龍이 문장으로 한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오경五經의 글에는 익숙하지 못했다. 그가 일찍이 과거의 시험관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시험 답안 가운데, "이익은명以弋殷命(은나라의 명을 빼앗아 취한다는 뜻)"이라는 말을 쓴 자가 있었다. 시관試官은 그 글이 《서경》의 〈다사편多士篇〉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작대기를 그어 버렸다고 한다. 그러니 고시관의 직임이란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다.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붉은 종이에 이름을 쓴 합격 증서를 주는 것은 송나라 때부터 이미 그러했다. 그런데 상고하여 보니, 고려 충렬왕 때에 조간趙簡이 1등으로 급제하였는데, 누런빛의 합격 증서를 주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면 전조前朝 때에는 누런 종이를 사용한 것 같다. 다만 《고려사》에는 "모든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는 붉은 합격 증서(紅牌)를 준다"라고 하였으니, 누런빛의 증서를 준 것은 특별한 명령으로 한 일이 아닐까 한다.

명나라의 과거는 홍무洪武 초에 3년마다 대비과大比科(3년마다 보는 과거)를 실시하는 제도를 정했다. 그리고 역조歷朝(대대의 임금)에서 뽑는 사람의 수는 같지 아니했다. 많은 것은 470여 인, 적을 때는 20인이기도 하여 처음부터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명나라의 과거제도에 향시鄕試는 8월에, 회시會試[16]는 2월에 시행하였으니, 모두 초9일을 초장初場, 12일을 제2장, 15일을 제3장으로 했다. 초장에서는 사서의四書義(사서의 의미) 3편篇과, 오경의五經義 4편을, 제2장에서는 논문 1편, 제制 · 고誥 · 표表 중에서 선택하여 1편, 판判 5편을, 제3장에서는 치도책治道策 5편을 제술製述하게 했다.

비록 국가에 큰 사고가 있을지라도 과거의 기일은 연기하지 않는다.

정시廷試(과거에서 조고朝考 · 전시殿試를 이름)는 3월 15일로 정하고, 황제가 친히 임어하여 책策의 문제를 낸다고 한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경태景泰 신미년 정시廷試 때에 과거 응시자 왕월王越의 시험 답안지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다가 조선에 떨어진 것을, 다음해에 조선에서 돌려보내 왔다"라고 했고, 왕세정王世貞이 지은 《왕월전王越傳》에도 또한 이 일이 실려 있는데, 말하기를 "그해 가을에 조선의 공사貢使가 가지고 와서 올렸다"라고 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전하는 이야기가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패사》에서는 또 말하기를, "왕월이 이것으로 임금의 권애眷愛함을 얻어 갑자기 대관大官에 이르렀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과거 응시의 준비서를 주무 관청에서 대신 찬술하여 사방에 전포傳布한다. 그런 까닭에 만력 연간에 예부의 제본題本에 말하기를, "약속한 기한보다 앞서 시험하여 보는 것은 누설하는 것 같은 혐의가 있으나, 시험지를 앞

16 각 향시鄕試에 급제한 사람이 경사京師에 모여 다시 보는 시험. 이 시험에 급제하면 진사가 됨.

에 펴 놓고 알맞은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은 교열校閱의 용무를 방해함이 이보다 더 불편한 것은 없다. 금후로는 시험장 안에서는 찬문撰文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중에 규식規式에 맞는 문권文卷으로서 순수하고 올바르며, 전거典據에 의하여 일정한 법식이 될 만한 것은 제명制命에 의거하여 간각刊刻했다. 그중에 자구字句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글이 매우 타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조금 수식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보태고 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서 본뜻을 엄폐하게 되는 것은 용허하지 않는다. 전과 같이 대찬代撰하는 자가 있으면 임금께 아뢰어서 처벌할 것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말속末俗에서 문文을 숭상하는 폐단이 이와 같은 것이다.

《감산별집弇山別集》에는, 만력 13년 형부주사刑部主事 요신饒伸의 상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 소에 말하기를, "정권은 황제만이 홀로 다룰 수 있고, 명기名器(거복車服과 작호爵號)는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현량賢良을 뽑는 과거이겠습니까. 지금 간사한 신하의 하는 짓이 임금을 속이고 사私를 감행함이 과장科場의 폐단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과거라는 것은 국가가 천하를 고무鼓舞시키는 크나큰 권병權柄입니다. 임금도 과거에서는 신하에게 사私를 둘 수 없고,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사私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은 지극히 공평합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에도 간신은 많았으나 이 법을 파괴한 자는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들어 그 뒤를 논의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나라의 해순奚詢이 양국충楊國忠의 두 아들을 뽑았으며, 송나라의 탕사퇴湯思退가 진회秦檜의 아들과 손자를 뽑았으므로 역사책에 써 놓고 더럽다고 비방합니다. 또한 오랜 세대에 한 번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마다 함부로 어지럽게 함이 오늘날과 같이 심한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예부낭중禮部郎中 고계高桂는 상소하기를, "홍무洪武 3년에 유삼오劉三吾·백사도白思蹈 등이 과시科試를 주관하여 물의가 있으니, 고황제高皇帝께서 매우 성내어 한 사람은 변방으로 보내고 한 사람은 거리에서 사형하였습니다. 정말

로 과거를 보여 선비를 뽑는 것은 국가의 큰 법입니다. 이 일에 농간을 부린다면 무슨 농간인들 부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사私를 경영한다면 무슨 일엔들 사를 안 부리겠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중국은 법제의 엄중함이 저와 같건만 말류末流에서 사私를 부리는 폐단이 이에 이르렀으니, 하물며 우리나라이겠는가.

최해崔瀣의 글에 말하기를, "당나라 장경長慶 초년에 김운경金雲卿이라는 자가 있어서, 비로소 신라의 빈공賓貢으로 두사례방杜師禮榜에 급제로 제명題名되었으며, 당나라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빈공과에 급제한 신라 사람이 모두 58인이었다. 오대五代 때의 양梁나라와 당唐나라에 또 32인이었다. 고려에 이르러서도 또한 송나라에 공사貢士를 보냈는데, 왕림王淋 · 최한崔罕 · 김성적金成績 · 강무민康撫民 · 권적權適 · 김단金丹 등이 있었다. 그러나 빈공과라는 것은 매번 스스로 따로 시험을 봐서 합격자 명단의 말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었다. 원조元朝에 이르러 중국의 준수한 선비들과 나란히 응시하여 금방金榜(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는 방)에 이름을 열기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신라 때에 김이어金夷魚 · 김가기金可紀 · 최치원崔致遠 · 박인범朴仁範 · 김악金渥은 모두 당나라에 들어가서 과거에 급제했다. 그 성명을 상고할 수 있는 자는 다만 이들뿐이다.

고려 덕종德宗 때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설치하여 정공지鄭功志 등 60인을 시취試取하였는데, 시험은 부賦와 육운시六韻詩 · 십운시十韻詩로 보게 했다. 대체로 감시監試(국자감시國子監試의 약어)가 이것에서 시작되었으니, 소위 홍분방紅粉榜[17] 이라는 것도 역시 감시監試이다.

17 권문權門의 자제들이 많이 급제한 과거의 방목榜目. 고려 우왕禑王 11년 감시監試에서 시원試員 윤취尹就가 뽑은 99명 가운데 권세가의 젖내 나고 붉은 옷을 입은 애들이 많았던 까닭으로 비웃는 말.

고려 충숙왕忠肅王 때 비로소 과거 응시자로 하여금 율시律詩 100수를 읽게 하였으며, 《소학小學》·《오성자운五聲字韻》에 통달해야 비로소 응시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아조에서는 다만 이름만 기록하고 응시하게 한다. 그런 까닭에 근래에 시험장이 엄중하지 아니하여, 응시하는 자가 눈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수종인隨從人이라고 일컬으며, 과거의 응시가 용허되지 않는 서얼庶孼과, 이서吏胥와 비천한 무리에 이르기까지 또한 많이 함부로 들어가서 남의 것을 대서代書하는 일, 남에게 차작借作하는 일의 폐단을 금지할 수 없어 더할 수 없이 혼잡하다. 들으니 중국에서는 향거鄕擧가 있을 때마다 전임前任의 주州·부府의 관원이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보여 뽑아가지고 초거初擧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한다. 그것을 모방하여 시행하면 아마 좋을 것 같다.

고려 때에는 새로 급제한 사람으로서 갑과甲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전지田地 20결結을 하사하고, 그 밖의 합격자에게는 17결씩 주었으며, 임금이 그들을 인견引見하고 의복과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형제가 모두 장원급제한 자에게는 세 아들이 급제한 예에 준하여 해마다 그의 어머니에게 곡식 30석을 주었다. 또 충목왕忠穆王 때에는 김인관金仁琯이 3장을 잇따라 장원하니, 임금이 친히 홍패를 내리고 말과 붉은 띠를 하사하였으며, 금빛 모자를 착용하도록 허락했다. 또 세 아들이 급제한 자의 아버지에게는 벼슬을 주고, 어머니에게도 해마다 곡식을 주었으며, 이미 죽은 자에게는 증직贈職했다. 아조에 이르러서는 오직 다섯 아들이 과거에 합격한 자에게만 쌀과 벼슬을 준다. 그런 까닭에 아주 끊어졌다고 할 만큼 겨우 있을 뿐이다.

국초國初 이래로 다섯 아들이 모두 급제한 자는 겨우 두셋의 예가 있을 뿐이다. 이예장李禮長·지장智長·함장諴長·효장孝長·서장恕長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이기李芑·행荇·미薇는 문과에, 권菤·영苓은 무과에 합격했다. 근년에는 윤구尹昫·서曙·호晧·철撤·탁晫은 4년 이내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런데 다만 벼슬은 모두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 윤방尹昉 · 역暘 · 휘暉 · 훤暄은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아들로서 형제 네 사람이 문과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며, 서제庶弟 간旰은 무과에 급제하여 또한 당상관에 올랐다. 예전에도 없었던 훌륭한 일이다.

영순군永順君 부溥는 광평대군廣平大君의 아들이다. 세조조世祖朝에 등준시登俊試[18]를 설치하고 여러 경대부卿大夫와 대관과 종실과 부마駙馬[19]들에게 명령하여 다 응시하게 하고, 임금이 친히 임어하여 책문의 문제를 내었으며, 대신 정인지鄭麟趾 · 정창손鄭昌孫 · 신숙주申叔舟가 대독관對讀官이 되었다. 영순군永順君은 정1품으로서 응시하여 제5위의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니, 의정부에다 은영연恩榮宴[20]을 하사하고, 장원 김수온金守溫 이하에게는 각각 말과 안장을 하사했다.
또 온양溫陽에 행차하여서는 행재소에 과장科場을 설치하여 선비들을 시취試取하고, 아울러 중시重試를 설치하였더니 영순군이 제1위로 뽑혔다. 특히 하루를 더 유가遊街(과거에 급제한 이가 좌주座主 · 선배 · 친척 등을 찾아보던 일)하라고 명령하였으니 그것은 이례異例의 은전이다. 영순군은 차례로 4대를 섬겼으며, 두 번 책훈策勳(공훈 있는 사람을 책에 기록하는 것)하였으며, 《명황계감明皇戒鑑》과 《육전六典》을 맡아 찬술했다. 성묘조成廟朝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겨우 27세였다.

광묘조光廟朝에 종실宗室인 진례군進禮君 형衡은 문무文武의 재능이 있었다. 경상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들어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으며, 또 영순군

18 조선왕조 초기에 임시로 보던 과거. 1466년 세조 12년 7월에 처음으로 임금이 친히 제목을 정하고, 신숙주 · 한계희 · 노사신 등을 불러 종친들과 문신들 중에서 자원하여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 뒤 10월에는 무과의 등준시를 시행했다.

19 공주公主 또는 옹주翁主에게 장가든 사람을 일컫는 말.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약칭.

20 전시殿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방방放榜의 다음날에 예조에서 사연賜宴하니, 이것을 은영연恩榮宴이라 한다.

부溥는 중시重試와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했고, 춘양군春陽君 구綵는 식년시式年試에 참가하여 급제하였으며, 부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는 친시親試에 참가하여 제3위로 합격했다. 그 뒤로는 종실은 다만 재예才藝를 시험할 뿐이고 문무의 벼슬을 시키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부마는 비록 여성위礪城尉 송인지宋寅之와 같은 문재文才가 있을지라도 등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조조世祖朝에 무과에서 1,000명을 시취試取했다. 임금이 맨 끝으로 합격한 자를 불러서 묻기를, "지금 세상에 재주가 너보다 더욱 아래에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다음 무과에 장원하는 사람은 재주가 신臣보다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 사람을 발탁하여 임용하였더니, 뒤에 과연 재능이 직무에 알맞았다고 한다.

창경궁 집춘문集春門은 태학의 서쪽에 매우 가까이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조종조祖宗朝엔 가끔 임금이 간편한 행차로 대학에 거둥하여 경전을 강론했다고 한다. 성종成宗이 하루는 춘당대春堂臺에 임어하여 집춘문으로 성균관에 있는 유생을 불러서 강경講經하고 급제를 주었다고 하니,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 내려온다.

조종조에서는 간혹 사운시四韻詩로 인재를 시취하는 일이 있었다.
중묘조中廟朝에 김안로金安老가 추천鞦韆(그네)이라는 율시律詩로 장원하였으니 그 시는 이러했다.

東風初破小桃腮 봄바람이 처음으로 작은 복숭아의 아가미를 깨뜨리니
節迫秋千雨洗埃 절후는 추천鞦韆 할 때에 임박하고 비는 티끌을 씻었네
繡舃掠花紅露濕 비단 신이 꽃을 차니 붉은 이슬에 젖고
纖肢擘柳綠烟開 가는 팔다리가 버들을 헤치니 푸른 연기가 열리네

初疑弄玉吹蕭去 처음에는 농옥弄玉이 퉁소를 불며 가는 것 같더니
還訝飛鸞駕鶴來 도리어 한漢나라의 비연飛燕이 학을 타고 오는 것 같구나
堪笑半仙眞戱劇 견디어 우습다, 반은 신선 같은 멋진 이 유희가
景陽兵禍是成胎 진후주陳後主 경양정景陽井의 병화兵禍가 여기에서 배태되었으니

이 시에서 "절후가 추천에 임박했다"라고 한 것은,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경양병화景陽兵禍를 말한 것은 고사故事의 인용도 또한 잘못되었다. 입선하지 못할 것 같은 글이다.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 끝에 말하기를, "이것은 2세世의 잘못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소위 진秦나라를 허물한다는 것이다. 중묘조中廟朝에 김구金絿가 〈과진부過秦賦〉로 진사 시험에 장원했다.
처음에 온 시험장 안의 사람들이 과진過秦이라는 문제의 뜻을 알지 못하여 모두 진나라의 옛터를 지나가는 회포를 표현하는 글을 썼다. 한 군사가 가만히 김 공에게 말하기를, "시관試官이 말씀하기를 회고懷古의 뜻으로 지으면 제의題義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때 공이 글짓기를 막 끝내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아서 고쳐 지어서 드디어 첫째가 되었다고 한다.

김모재金慕齋(김안국)는 시관으로서 시험장에 들어간 때에는 번번이 자세히 살펴서 고사考査하고 인재를 얻기에 힘썼으며, 반드시 15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성적을 발표하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칭찬한다.
선왕조先王朝의 기해년 별시에 내가 완양부원군完陽府院君 이충원李忠元과 함께 시험관이 되었다. 이 공이 항상 말하기를, "국가가 선비를 선택하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맡겼으니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만약 싫어하고 게을리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고사하는 것이 자세하지 못하게 되어 인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모든 시권試券(답안) 가운데 아무리 거칠고 서툴러서 읽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전편全篇을 다 읽어 보고야 그만두었으며, 10여 일이 지나서야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니, 고시관으로서의 면목을 세운 것이다.

김범金範이 진사 시험의 회시會試에 응시하여 병생甁笙(생笙의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철병鐵甁 등의 물이 끓는 소리를 말함)에 대한 시를 지어 말하기를, "차라리 정천鄭泉[21]을 따라 술그릇이 되겠다(寧隨鄭泉作酒器)"라고 했다. 시관이 그것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 몰래 김모재金慕齋에게 편지를 보내어 물어서 안 뒤에 드디어 그 글을 장원으로 뽑았다. 정천鄭泉에 대한 일은, 《운부韻府》와 《사문유취事文類聚》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시관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널리 듣고 많이 기억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년式年의 과거에서는 전적으로 강경講經에서만 사람을 시취한다. 그 본의는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다만 강경하는 사람이 이미 그것을 활용하는 실천이 없고, 또 혹은 경서를 욀 뿐 글을 짓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세속에서는 자주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반드시 실학實學으로 급제한 사람이라야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중국의 제도에 의거하여 오로지 한 가지 경서만으로 시취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21 삼국시대의 오吳나라 사람. 자字는 원연元淵 · 박학博學. 손권孫權에게 벼슬하여 직간直諫을 잘했다. 술을 매우 좋아하여 말하기를, "생은 항상 술을 500곡斛이나 가득 채운 배를 얻어 타고, 감취甘脆를 두고 반복 통음하는데, 술이 줄면 또 채우곤 하면 얼마나 유쾌하랴"라고 했다. 죽을 때, "나를 질그릇 만드는 집 곁에 묻어라. 100세 뒤에 흙이 되어 술 단지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내 마음에 흡족하겠다"라고 했다.

과거科擧의 시험장에 들어가는 응시자가 서책을 끼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예전에는 지극히 엄중했다. 다만 운서韻書 이외에는 사사로이 한 권의 책도 가지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감시監試에 응시하는 어떤 수험생이 산립山立 · 옥색玉色의 뜻을 가는 글씨로 써서 콧구멍을 막고 들어갔으므로, 그때 세상에서 그 콧구멍을 의영고義盈庫[22]라고 했다. 지금은 법금法禁이 해이해져서 드러내 놓고 책을 짊어지고 들어가니 시험장이 온통 서점 같다. 진실로 놀랄 일이다.

유생儒生들이 글을 읽지 않는 폐단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적은 아직 없었다. 다른 사람이 지은 글을 표절剽竊하여 요행으로 합격하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다. 사서의四書疑[23]에 이르러서는 그것에 대한 답안을 스스로 작성하는 사람은 두어 사람에 불과하고 온 시험장 안이 모두 남의 것을 베껴 낸다. 어떤 이는 두어 자를 가감하고, 어떤 이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마치 등사한 것 같다. 시관도 또한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기엔 현혹될 뿐 아니라, 또 정원 수를 안 뽑을 수 없으므로 그대로 뽑아 버린다. 그런 까닭에 다투어 가며 서로 나쁜 짓을 본받아서 드디어 폐습을 이루어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논의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마땅히 '사서의'라는 시험 과목을 폐지하고 논문으로 대신해야 한다 하고, 어떤 이는, 생원 · 진사의 과거에는 다 시부詩賦만으로 시취하고 사서의는 폐지해야 한다고 하여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먼저 선비들의 풍습을 고치지 아니하면 아마 고쳐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근세에 급제한 사람으로서 가장 연소한 자는 곽간郭趕이 18세, 이대해李大海 · 이집李潗 · 이후李厚는 19세, 이정형李廷馨 · 이덕형李德馨 · 이경백李慶伯은 20세

22 조선조 때 꿀 · 기름 · 밀 · 후추 등을 맡아 보던 창고. 태조 원년에 설치함.

23 사서에 대한 의문을 해답하는 글. 의疑는 문체의 한 가지.

였다. 박지朴篪는 18세에 장원급제했고, 허봉許篈은 18세에 생원과에 장원하였으며, 윤훤尹暄은 18세에, 그리고 우홍적禹弘績은 19세에 진사 시험에 장원했다. 그중에서 다만 이덕형이 가장 현달했고, 이정형 · 윤훤은 명재상이 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현달하지 못했다. 옛사람들이 소년으로 높은 등급에 급제하는 것을 불행이라 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회시會試에 장원하는 것은 천하의 재주이고, 전시殿試에 장원하는 것은 천하의 복이다. 재복才福이 겸전兼全한 사람은 적다"라고 했다. 중국처럼 인재가 많은 곳에서도 과거에 세 번 장원한 자는 오직 상로商輅 한 사람뿐이다. 어찌 어렵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는 근세에 오직 이이李珥만이 생원시와 회시 · 전시에 모두 장원했고, 그 밖에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변변치 않은 나의 아들 민구敏求가 또한 진사시와 회시 · 전시에서 장원을 하였으니, 이것은 요행으로 된 일이다.

신잠申潛은 종호從濩의 아들이다. 문장에 능숙하고 서화書畫를 잘했다. 중종 때에 현량과賢良科에 급제하여 한림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합격을 취소하고 홍패紅牌를 회수당하였으며, 백패白牌는 견실遣失했다. 시를 지어 말했다.

紅牌已收白牌失 홍패는 이미 회수되고 백패는 잃었으니
翰林進士摠虛名 한림도 진사도 다 헛이름뿐이로구나
從此峨嵯山下老 지금부터 아차산 산 아래의 늙을 이름
山人二字孰能爭 산인의 두 글자를 누가 다툴 수 있으랴

뒤에 장형杖刑을 받고 멀리 귀양 갔다가 석방되어 여러 주군州郡의 수령을 역임하고 당상관으로 죽었다. 우리나라 제도에 대과에 급제하면 홍패를 주고,

사마시司馬試[24]에 합격하면 백패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선왕조 병술년의 알성시謁聖試[25]에 "이필李泌[26]이 형산衡山에 돌아가기를 빈다"라는 제목으로 표表를 짓게 했다. 차천로車天輅가 사관四館[27]에 있을 때에, 응시자 여계선呂繼先에게 표를 지어 주어서 장원이 되었다. 급제한 자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한 뒤에 일이 발각되어 옥사獄事 사건이 일어났다. 선왕先王이 매우 성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차의 일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만 귀양 보내라고 명령할 뿐이었다. 뒤에 경연經筵에서 임금이 시신侍臣들에게 말하기를 "차천로는 정말 놀라운 재사才士이다"라고 했다. 오래지 않아 석방되어 돌아왔다. 인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룩한 뜻, 아! 지극하도다.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시속의 문체가 경박하고 화려한 것을 깊이 염려하여, 과거의 응시자가 노자老子 · 장자莊子의 문자를 쓴 것은 일체 뽑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자년의 과거에 급제한 이함李涵이 장자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합격을 취소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관례를 이루어 지금까지 준행遵行한다.

24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의 시험.

25 임금이 문묘文廟에 참배한 뒤에 시행하는 과거.

26 당나라 사람. 자字는 장원長源. 7세에 글을 잘 지으니, 장열張說이 그를 기동奇童이라고 했다. 장성하여서는 널리 경사經史를 공부하였으며, 역상易象을 깊이 연구했고, 글을 잘 지었으며, 더욱 시詩에 뛰어났다고 한다. 또 신선의 설을 좋아했다. 천보天寶 연간에 상서上書하여 세무世務를 논하여서 불려 나와 한림 벼슬을 받았다. 숙종肅宗을 잠저潛邸에서 섬겼는데, 양국충楊國忠에게 미움을 받아 깊은 산중에 숨어 살다가 숙종이 즉위하매, 필泌이 행재行在에 달려가니 숙종이 매우 친중親重하였으나 관직을 굳이 사양하고 모든 중흥방략中興方略에 참여했다. 이보국李輔國에게 미움을 받게 되매 형산衡山에 가서 숨었다. 대종代宗이 즉위하여 불러서 비서감秘書監을 시켰으며, 덕종德宗 때에는 중서시중中書侍中 ·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에 임명했다. 임금을 보필하여 광구匡救함이 많았다.

27 사관소四館所를 일컬은 것으로, 성균관 · 예문관 · 승문원承文院 ·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회합하여 과거를 거행하는 임시의 직소職所.

세상에서 하는 말에, “우리나라의 공정한 도는 오직 과거에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세도世道가 날로 내려가고 간교姦巧한 것이 점점 불어나서 공평하지 않고 바르지 않음이 근래에 더욱 심하게 되었다. 과거의 방榜이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들이 어지러운 것을 견딜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중국과 같은 장옥場屋을 설치하면 이 근심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진실로 공도公道가 없는데 장옥이 있은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구구한 법제의 말절末節만으로는 간사한 것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 송나라 원풍元豐 연간에 예부의 공원貢院에 불이 나서 과거에 응시한 자들이 모두 죽었으며, 명나라의 천순天順 7년에는 회시장옥會試場屋에 화재가 나서 과거에 응시한 1,000여 명이 타 죽었다. 이것도 또한 생각해야 할 일이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려의 말기처럼 과거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 이것은 격정激情에서 하는 말이다. 목이 멘다고 하여 먹는 일을 폐지할 수는 없다. 오직 공도公道를 크게 개장開張하고 시관을 신중히 선택한다면 혹은 잘될 수 있을 것이다.

임진년의 난리가 일어난 뒤에 왜병倭兵의 머리 1개를 베어 오는 자가 있으면 공천公賤이거나 사천私賤이거나 묻지 않고 등과하는 것을 허락하니, 혹은 굶주린 백성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와서 왜병의 머리라고 하여 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었다. 영남嶺南의 한 사람이 머리를 베어 가지고 가서 급제한 자가 있었다. 고을의 수령이 잔치를 열어 영광을 축하하니,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조소했다.

飢民頭上桂花浮 굶주린 백성의 머리 위에 계화桂花가 뜨고
紅紙群中怨血流 쏟아져 나오는 홍패 뭉치에 원한의 피가 흐른다
太守慶筵知有酒 태수의 경축하는 자리 위에 술이 있을 테니
盍分殘瀝慰啾啾 남은 것 나누어 부어 귀신의 슬픈 울음 위로나 하오

임진왜란 뒤에 무과에서 사람을 매우 많이 뽑게 되어, 한 번 시험에서 많을 때는 간혹 수천 명에 이른다. 그중에 어떤 자는 활도 잡을 줄 모르는 자가 뽑히기도 하고, 혹은 천인賤人의 무리도 뽑히게 되어 통틀어 수만 명이나 되었다.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실용에는 보탬이 없었다. 과거라는 이름도 또한 지나치게 천해졌다.

8–10 치사致仕

70세가 되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조종조 이래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 벼슬에서 물러난 이는 드물다. 대신이 노퇴老退하기를 청하면 궤장几杖[28]을 하사할 뿐이다. 근세에 재신宰臣으로서 치사致仕한 이는 오직 팔계군八溪君 정종영鄭宗榮, 영부사領府事 심수경沈守慶 · 정탁鄭琢, 영원군寧原君 홍가신洪可臣 외에는 듣지 못했다.

왕희지王羲之가 말하기를, "내가 회조懷祖만 못할 것이 없는데, 지위와 대우가 지나치게 다르다"라고 하더니, 뒤에 회계태수會稽太守가 되었는데도 고을을 버리고 가서, 부모의 무덤 앞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후로 무리하게 탐내어 구차하게 승진한다면 이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며 어버이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한다.
상고하여 보니, 회조는 왕술王述의 자이다. 대체로 고금에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면서도 이름과 지위가 남보다 멀리 떨어진 자를 어찌 이루 다 셀 수 있겠는가. 왕희지가 이 점에 있어서는 마음이 넓지 못하다. 또 구차하게 승진하고 싶지 않다면 다만 마땅히 자신의 마음에 맹세하면 족할 것이다. 어찌 반드시 무덤에 가서 맹세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나 세상의 영화를 탐내고 승진을 즐겨

28 나이 70세 이상 된 대신에게 내려주는 지팡이와 안석.

하는 자에 비교하면 그의 고상한 뜻은 또한 칭상하기에 넉넉하다.

도연명陶淵明은 을축생乙丑生이다. 을사년乙巳年에 이르러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지었으니 그때의 나이는 41세였다. 대체로 한창 벼슬할 만한 나이이다. '귀거래歸去來'라는 말은 그의 벼슬을 돌려주고(歸其官), 그의 직임을 떠나서(去其職), 그의 집에 왔다(來其家)는 뜻이다.

당나라의 위표미韋表微가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니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작록爵祿은 맛 좋은 음식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하고자 하지만 나의 나이가 50세다. 거울을 닦고 흰 털을 뽑아가면서 함부로 나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교유交遊하여 1반班, 1급級을 진취하는 데에서는 맛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전예田豫는 치사致仕하기를 빌어 말하기를, "나이가 70세를 지났는데 벼슬자리에 있는 것은, 비유하면 종이 울리고 누수漏水가 다한 깊은 밤에 길을 가면서 쉬지 않는 죄인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하지장賀知章은 나이 86세에 병이 들어서야 비로소 치사하기를 빌고 돌아가 감호도사鑑湖道士가 되었다. 이것은 위표미나 전예田豫의 용퇴勇退에 비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당나라의 사기史記에서는 그를, 세상을 피해 숨은 사람으로 전하고 후세에서는 고의 고상함을 칭상하니 무슨 까닭인가.

좌윤左尹 이찬李澯이 만년에 병으로 벼슬을 사퇴하고, 집에서 살면서 녹을 받지 아니하니, 대신 심연원沈連源 · 상진尙震 등이 임금에게 아뢰어 봉조하奉朝

賀[29]를 삼아 종신토록 녹을 받게 했다. 그 뒤에 부윤府尹 이언경李彦憬은 나이 80세에 봉조하를 얻고자 하니, 이조吏曹에서 전례가 없다고 하여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고사故事를 알지 못함이 심하다.

상고하여 보니, 《오학편吾學編》에 말하기를, "명나라의 제도에는 치사致仕하기를 비는 모든 자에게는 연령에 제한 없이 들어준다. 경관京官은 70세, 외관外官은 65세에 치사하는 것이 염치를 기르는 길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사대부로 나이가 치사할 때가 다 되어서 물러가는 이는 매우 적다. 그리고 봉조하에 이르러서는 법전에 실려 있는 것도 또한 거행하지 아니하니 탄식할 만한 일이다.

29 종2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퇴임하는 이에게 이 칭호를 주어 종신토록 그 품계에 맞는 봉록을 주었다. 이들은 실제 사무엔 종사하지 않고, 국가에 의식儀式이 있는 때에만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한다.


권5

9. 유도부儒道部

9-1 학문學問

대체로 학문한다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 쏘는 사람은 마음을 과녁에 두어야 한다. 적어도 마음을 과녁에 둔다면, 비록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다지 멀리 어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학문하는 데에는 뜻을 세우는 일보다 앞서는 일은 없으며, 지향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없다.

《설부》에 말하기를, "모든 실은 모두 고치에서 나왔으며 구리쇠는 모두 돌에서 나왔건마는, 증繒(거친 비단)이 되면 천하고 금錦(채색이 고운 비단)이 되면 귀하며, 방울을 만들면 작고 종을 만들면 크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무릇 사람도 또한 만들어 이루기에 달렸을 뿐이다.
옛말에, "경서經書는 사람의 덕성을 함양하고 사서史書와 전기傳記는 사람의 재지才智를 더해 준다"라고 했다. 진실로 그러하다. 다만 경서를 업業으로 하여 그 덕성을 기르고, 사서를 읽어서 그 재지를 보태는 자는 대체로 드물다. 어찌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는 허물이 아니겠는가.

장횡거張橫渠가 말하기를, "학문하는 자가 뜻이 작고 기氣를 경솔하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뜻이 작으면 조그만 성공에 스스로 만족하기가 쉽다. 그런 까닭에 게을러져서 새로운 공功이 없고, 기氣가 경솔하면 스스로 존대尊大하게 여기기 쉽다. 그런 까닭에 허탄하여 실득이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다만 학문뿐만 아니라, 문장과 기예技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마음으로써 학문을 삼고 덕德으로써 정치했다. 그런 까닭에 풍속은 순후하고 일은 더욱 간소했다. 후세에서는 문장으로써 학문을 삼고 법률로써 정치한다. 그런 까닭에 풍속은 더욱 각박해지고 일은 더욱 번잡하게 된다”라고 했다. 지극히 훌륭하신 말씀이다. 오직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만 그러할 뿐 아니라 집안을 다스리는 일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학문한다고 해 온 것이 실은 밖을 향한 부허浮虛한 폐단이 있음을 요사이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을 그르칠 뿐 아니라 남을 그르침이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바야흐로 따로 한 사단事端을 찾아서 서로 같고 다른 간략한 단서를 발견한다면, 비로소 문자文字 · 언어言語 이외에 진정 따로 마음을 써야 할 곳이 있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주자가 사람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서, 지극히 명백하고 또 절실하다. 학문하는 자는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좋겠다.

주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꿈꾸고 잠자는 동안에도 또한 스스로 배운 유학儒學의 얕고 깊음을 점쳐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꿈이 어지러워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즉 그것은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하였으며 지조를 지킴이 굳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점을 배우는 자가 마땅히 반성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황면재黃勉齋가 말하기를,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에서는 학식이 높은 노성老成한 선비들이 훈고訓詁[1]에 얽매여 의리義理에 정통하지 않은 이가 많았다. 그런데 근세에는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모두 의리를 잘 말할 줄 안다. 그러나 말은 잘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한나라나 당나라 때의 여러 선비들만 못하다”라고 했다.

1 경서의 자구字句를 해석하는 일. 고증考證 · 해명解明 · 주석註釋을 통틀어 일컫는 말.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이 《사서장도四書章圖》를 보고 말하기를, "의리의 심오하고 난해한 것은 이 책을 한번 보면 마음과 눈에 명료하게 되니 자세함이 또 더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는 자가 처음부터 깊이 생각하고 힘써 연구하여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는 묘리를 얻음이 없고, 입과 말에 의지하여 알게 되니, 그 아는 것이 또한 오래도록 마음에 있을 수 없다. 아는 것이 이미 있지 아니하니, 또 무엇에 의거하여 힘써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후학後學의 폐단을 충분히 말한 것이다.

초횡焦竑이 말하기를, "비록 깊이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도 만약 스스로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 아님이 없고, 비록 허물을 쌓은 사람이라도 만약 스스로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道가 아님이 없다. 그런 까닭에 오직 그 병을 병으로 안다면 이는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람이 능히 이 병을 잘 제거할 수 있다면 바야흐로 도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이 병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깊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겨우 배우기를 시작하면 곧 힘쓰는 데가 있어야 하고, 이미 배웠으면 문득 득력得力한 데가 있어야 한다. 말을 마치면 바로 휴지休止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글씨를 배우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붓을 잡고 먹을 사용한다. 그렇게 한 뒤라야 글씨를 배울 수 있다. 목공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도끼를 잡고 날을 움직인다. 그렇게 한 뒤라야 목공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모든 학문을 하는 자들이 입으로 하는 말은 비록 정밀하나 마침내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기술을 배우는 자의 하는 일만 못한 것이다. 지금 또 입으로 말하는 일까지 아울러 폐지한다면 탄식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설문청薛文淸이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첫째 조건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만 그것은 강설일 뿐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경솔한 짓은 마땅히 중후하게 고쳐야 하고, 급한 것은 느린 것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편협한 것은 마땅히 너그러운 것으로 고쳐야 하고, 소란한 것은 고요한 것으로 고쳐야 하며, 폭악暴惡한 것은 마땅히 온화한 것으로 고쳐야 하고, 거친 것은 마땅히 정세精細한 것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그 단점을 살피고 이를 모두 교정하여 오래된다면 기질도 변하게 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배우는 자가 이 말을 가슴에 새겨 가진다면 아마 유익됨이 있을 것이다.

설문청이 말하기를, “자기 한 사람의 몸과 마음도 오히려 정리하지 못하면서 다시 무슨 정치를 논한단 말인가”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글을 읽을 때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 체첩體貼하여 공부하지 않는다면, 비록 온 천하의 글을 다 읽더라도 오히려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학문을 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얻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면, 소위 그 사업이라는 것은 소홀할 뿐이며, 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칠고 서투를 뿐이다. 어찌 말할 가치가 있겠는가.

설문청이 말하기를, “상산象山(송나라 육구연陸九淵의 호)의 말이, 독서할 때에는 글자의 뜻 이외의 공부를 하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 조용히 앉아서 먼저 이 마음을 얻게 하고자 한 말일 것이다. 만약 그의 설과 같다면 선禪에 흐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상산의 이 논설은 순수한 선禪의 맛이 있는 것이고, 다만 선에 흐른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왕수인王守仁의 치양지지설致良知之說[2]은 바로 본심을 가리킨 것으로서 가장 간이簡易하고 통절痛切하여 드디어 학문과 사변思辨의 공부를 모두 폐지하고자 하는 데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수인守仁이 문인門人에게 말하기를, 선善도 없고 악惡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질이고,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며,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良知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격물格物이니, 이것으로 일체의 종지宗旨를 삼는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왕수인은 상산의 학설을 미루어 높이고, 주자의 학설을 힘써 헐뜯었다. 그의 치양지의 설은 바로 불가佛家의 즉심견성卽心見性[3]이란 것이다. 그 뜻이 간이簡易하기 때문에 한때의 배우는 자들이 그리로 달려가는 자가 많으니, 이는 성학聖學(성인聖人이 진술한 학문, 즉 유학儒學)에 득죄得罪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자세히 변별辨別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장태악張太嶽이 말하기를, "이름난 공경公卿과 착한 보필의 신하로서 공훈의 기록이 빛나는 자는 대개 모두 몸을 정직하게 가지고 절조를 강경하게 하여, 공무를 받들고 법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런데 학문을 강론하는 자들은 번번이 그들을 헐뜯어 말하기를, '저들이 비록 이룩하여 세움은 있으나 학문을 알지 못하여 모두 혈기로써 일을 처리하였을 뿐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소위 학문을 알아서 세상의 종유宗儒(으뜸이 되는 선비) 된 자들이 이룩하여 세운 것을 살펴보니, 그들이 헐뜯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그러니 후생後生들은

2 명나라 왕양명王陽明이 맹자의 양지설良知說에 근본 하여, 양지라는 것은 마음의 허령명각虛靈明覺한 내용, 즉 마음의 본체라 보고 백행百行의 지침으로 삼는 학설. 이 양지는 미발未發한 가운데 곽연태공廓然太公 · 적무부동寂無不動의 본체로서, 사람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양지를 밝혀서 그것에 좇아 행동하면 된다는 것이 소위 치양지설이다.

3 마음이 곧 불성佛性이라는 불가佛家의 말. 견성見性이란 말을 불가에서는 성불成佛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자기의 심성을 사무치게 알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법을 깨달은 것이라는 말이니, 즉 심시불卽心是佛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어느 것을 스승으로 하고, 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학문을 한다는 자가 오직 입으로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기송記誦으로 경서에 통한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몸이 마칠 때까지 애써 노력할지라도, 필경에는 다만 한 소문난 사람을 이룰 뿐이고, 성현의 사업을 성취한 사람으로는 거의 아직 듣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말학末學의 폐단이다.

허국許國의 《논학서論學書》에 말하기를, “학문하는 데에 옳은 이치를 분변하는 것보다 급선무는 없다. 옛날의 성현들을 살펴보면, 일찍이 글을 읽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글을 읽은 것이 박학하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박학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利를 의미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부傅에 말하기를, “널리 배우고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는다”라고 했다. 대체로 널리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남 때문은 아니다. 지금 허국이 박학은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아마 적론的論이 아닐 것이다.

왕수인王守仁이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의 병통病痛의 대부분은 다만 오만傲慢뿐이다. 오만하면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옳다 하여 남에게 굽히거나 몸을 낮추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남의 아들이 되어 오만하면 반드시 효도할 수 없을 것이고, 아우가 되어 오만하면 반드시 공경하지 못할 것이며, 신하가 되어 오만하면 반드시 충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학문을 하려면 먼저 이 병근病根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방 한 치의 땅만 있어도 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오만의 반대는 겸손이다. 겸손이란 글자는 바로 이 병 증세에 대한 약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세상의 문장을 수습修習하는 자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

로 옳다고 생각하면, 마침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도리어 물러나 앉기를 꾀하게 된다. 이것이 병이다. 오만이 병이 되는 것은 어찌 학문하는 자만이 그러하겠는가. 소위 천 가지 죄와 만 가지 악이 다 오만에서 오는 것이다.

퇴계退溪 선생이 기고봉奇高峯(기대승)에게 주는 편지에 말하기를, “의리를 변별하여 분석하는 일은 본래부터 마땅히 정밀하고 해박함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논술한 것을 돌아보니, 조목條目과 단서端緖가 지나치게 번잡하고, 이따금 임시로 선유先儒들의 설을 찾아다가 자기의 부족한 데를 보태서 채우고 있으니, 이것은 과거科擧의 응시자가 시험장에 들어와서 문제를 보고, 고사故事를 사냥하듯 찾아내어 조목에 좇아 대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설령 그렇게 하여 전부가 마땅한 바를 얻게 되더라도, 실로 몸과 마음에는 터럭만큼의 보탬이 없고, 다만 쓸데없는 쟁경爭競을 이루어 성문聖門(공자孔子의 문하門下)에서 크게 금지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그 임시로 끌어다 보태어 채운 것이 반드시 참으로 마땅할 수 없음이겠는가”라고 했다. 선생의 이 말은 진정 후학의 약석藥石이 되는 논설이다.

왕양명王陽明이 말하기를, “군자가 눈을 바르게 하여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다른 것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닭이 알을 품을 때처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모여 엉겨서 융합한다면 다시 그 밖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한 뒤라야 뜻이 서고 신기神氣가 맑고 밝아질 것이다. 한 번 사사로운 욕심이 있게 되면, 문득 지각知覺이 있게 되어 자연히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하여도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양명의 이 말은 지극히 엄중하고 절실하다. 다만 약간 선禪의 기미를 띠고 있다. 배우는 자는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소년 시절에 선생과 연장자들의 여론餘論을 듣고, 학문하는 방법은 오직 지知 · 행行 두 글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大學》에서 제1장 〈대학지도大學之道〉의 글 '격물치지格物致知'[4]라고 한 것은 아는 것〔知之〕을 찾는 것이고, '성의誠意' 이상은 즉 행해야〔行之〕 할 조목이다. 《중용中庸》에 이르러 소위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명백하게 분변한다"라고 한 것은 알기 위한 것〔知之〕이고, '독행篤行'이라 함은 행해야〔行之〕 할 것을 말한 것이다.
성현聖賢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비록 천 가지 만 가지의 말을 하지만, 그 요점은 이 안다〔知之〕, 행한다〔行之〕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진성陳眞晟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학문에 있어서 만약 참으로 안다면, 행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배우는 자는 아는 것이 어렵지 않고 참으로 아는 것이 어려우며,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그 어떤 이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참으로 알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9–2 심학心學

순舜임금이 우禹에게 명령하기를, "오직 성실하고 전일專一하며, 진실로 그 중용中庸을 지켜라" 했고, 공자孔子는 증자曾子에게 말하기를, "나의 도道는 일관

4 《대학大學》의 격물格物 · 치지致知 · 성의誠意 · 정심正心 · 수신修身 · 제가齊家 · 치국治國 · 평천하平天下를 말한 8가지 조목 중의 격물 · 치지를 말한 것이다. 이 해석에는 예부터 이설異說이 많다. 주자朱子는 대략 이런 뜻으로 말했다. 즉 "격물이란 것은 궁리窮理이다. 나의 지知를 투철하게 하려면 사사물물事事物物에 대하여 그 이理를 궁극히 하여야 한다. 오늘에 한 가지 일을 구명究明하고, 내일에 또 한 가지를 구명하여 힘을 다해 연마하면 하루아침에 시원스럽게 개통하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했다. 격格이란 말은 이른다〔至〕는 뜻이고, 물物은 일〔事〕이라는 뜻이다.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지知를 투철하게 하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한 것이다.

一貫한 것이다"라고 했다. 전일하다는 것은 성인이 마음을 전하는 묘법이다. 이것을 미루어 말한다면《중용》의 "중화中和를 이룬다"라고 한 것은 전일한 것을 이루는 것이고,《대학》의 "지선至善에 머문다"라고 한 것은 전일한 데에 머문다는 것이다. 하늘이 건전健全하여 운행을 쉬지 않고, 땅이 고요하여 편안함을 얻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전일하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뼈와 함께 이미 썩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지나간 자취뿐이다. 그의 자취를 따라 그의 마음을 추구追究하니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시서詩書와 육예六藝[5]는 모두 성인의 지나간 자취이다. 옛사람의 마음을 책 속에서 찾으니 그것을 찾아 얻는 자는 드물다. 성인의 마음은 찾아 얻지 못하고 오직 자취만 찾고 있으니 의혹됨이 크다. 그런 까닭에 노자老子는 싫어하고, 석가모니는 비었다고 했다. 대체로 격激한 바가 있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요堯임금이 밭을 갈면 수해의 염려가 있고, 탕湯 임금이 밭을 갈면 한재旱災의 염려가 있지만, 마음의 밭을 가는 자는 근심도 염려도 없고, 날마다 풍년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안자顔子의 즐거움은 아마 그의 마음 밭이 성숙한 때문일 것이다.

소자邵子의《관물편觀物篇》에 말하기를, "그 관물이라고 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치(理)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소위 반관反觀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써 물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물物로써 물物을 보는 것이다. 이미 능히 물로써 물을 볼 수 있으니, 또 어찌 그 사이에 나(我)라는 것이 있겠는가. 이래서 안다. 나는 또한 남이고, 남도 또한 나이다. 나와 남은 다 물物이다"라고 했다.

5 선비 된 사람이 배워야 할 6가지 기예技藝. 즉 예禮 · 악樂 · 사射 · 어御 · 서書 · 수數. 예는 예용禮容, 악은 음악, 사는 궁술弓術, 어는 마술馬術, 서는 서도書道, 수는 산학算學이다.

나는 말한다. 성인聖人의 마음은 본래 만물을 갖추었다. 그런데 일물一物도 없다. 오직 물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능히 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물을 좇는 자는 물에 가려지고, 마음이 빈 자는 물을 비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말하기를, "옛날에 진열陳烈이 기억력이 없는 것을 고민하였더니, 하루는 《맹자》의 〈구방심求放心〉장을 읽고 깨닫고는, 드디어 문을 닫고 고요히 100여 일을 앉아서 방심放心을 거두어 찾고 드디어 글을 읽으니, 한 번 보고 잊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
나는 말한다.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이것으로 법을 삼아야 하겠다. 진실로 방심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어찌 다만 독서의 공功을 얻는 데에 그치겠는가.

장남헌張南軒이 말하기를, "남의 임금 된 자는 저 창창蒼蒼한 천상天象(천체의 현상)을 하늘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이에서 하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겨우 한 가지 생각이라도 옳지 못하면 곧 상제上帝는 크게 성낼 것이다"라고 했다. 훌륭한 말이다. 대체로 사람은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각기 하늘의 임금이 있는 것이다. 어찌 홀로 남의 임금만이 그러하겠는가. 《시경》에 말하기를, "의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상제가 너를 굽어보신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이다. 하나의 착한 생각은 상서로운 별이며, 경사스러운 구름이다. 하나의 악한 생각은 모진 바람이며 사나운 비인 것이다. 더군다나 남의 임금 된 자가 하는 일은 위에서 하늘과 더불어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양만리楊萬里의 말에, "임금의 마음에 요성妖星이 사라지면 다른 요성은 없다. 지금 마음에 있는 하늘에서 찾지 않고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니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있다.

송림방宋林昉이 말하기를, "신神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섬기는 것만 못하다. 마음이 있으면 신이 있는 것이다. 마음을 버리고 신을 섬기면 신이 신답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했다. 또 소자邵子는 말하기를, "사람의 신은 곧 천지의 신이다.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말이 더욱 엄중하고 절실하다.

황면재黃勉齋가 말하기를, "생각할 즈음에는 혹은 올라가 하늘을 날기도 하고, 혹은 내려가 심연深淵에 잠기기도 한다. 혹은 뜨거워서 불타고, 혹은 차가워서 얼음이 얼기도 한다. 무엇에 미치고 혹하여 마음을 잃은 사람 같아서, 비록 궁실宮室의 편안함이나, 의복의 쾌적함이나, 음식의 마땅함도 또한 아득하여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마음이 있건만, 그것을 갖고 지켜서 보존하지 못하고, 그 본심을 잃어버린 자가 많다. 두렵지 아니한가. 장자莊子가 말한, "그 뜨거움은 불을 태우고, 그 차가움은 얼음이 언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손진인孫眞人이 말하기를, "대체로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말며, 미워하는 것이 있어도 너무 깊이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다 심성과 정신을 손상시킨다"라고 했다. 또 양생서養生書에 말하기를, "작은 악惡은 해로움이 없다고 하여 버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고, 작은 선善은 유익됨이 없다고 하여 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비록 양생법養生法에 주안을 둔 것이지만, 바로 뜻을 정성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방법인 것이다.

황산곡黃山谷이 말하기를, "마음 지키기를 범을 묶듯이 하라"라고 했다. 세상에는 이 말을 외는 이가 많다.

나는 말한다. 마음을 잡아 보존하는 요점은 스스로 그 법칙이 있다. 어찌 속박으로 할 수 있겠는가. 황산곡은 심학心學[6]을 알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눈이란 것은, 드물게 보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고, 익게 보는 것은 정상正常으로 여긴다. 그런 까닭에 예전에 볼 때에는 옳다고 하던 것을 지금에 보고는 그르다고 하며, 지금에 보고는 악惡이라고 한 것을 뒤에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많다. 옳고 그르고, 아름답고 추악한 것은 익힘(習)에 있을 뿐이다. 오직 주재자인 마음이 정한 뒤라야 이 병이 없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마음을 믿고 눈을 믿지 않는다.

소자邵子가 말하기를, "대체로 사람의 선악은 말에 드러나고, 행동에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다만 마음에 싹트고, 생각이 발생하면 귀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이 군자가 그 기틀을 삼가는 까닭이다.

장자는 말하기를, "착하지 않은 일을 드러나고 밝은 데서 하는 자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고, 불선한 일을 숨겨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자는 귀신이 질책한다. 군자는 사람의 비난도 귀신의 질책도 없다"라고 했다. 임천臨川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군자는 사람을 말하고 귀신을 말하지 않으며, 시비是非를 말하고 화복禍福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장차 중인中人(중간 정도의 사람) 이하의 사람을 경계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경》에 말하기를, "상제가 너를 굽어보신다. 너의 마음을 두 가지로 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드러나지 않아서 보는 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신을 사람이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느니라"

6 마음의 본체를 인식하고, 몸을 수양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 육상산陸象山, 왕양명王陽明 등이 주창主唱하였음.

라고 했다. 장자가 말한 것은 대개 이 뜻인 것이다. 장자의 학문이 비록 허탄하나 그가 홀로 있을 때 삼가(謹獨)라고 말한 공功이 이와 같았다.

왕감주王弇州가 말하기를, "속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안도 겉도 둘 다 잊어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안이나 겉이나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매우 훌륭하다.

설문청薛文淸이 말하기를, "사람이 잠깐 동안이라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사납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비례非禮하게 되며, 잠깐 동안이라도 불화不和한 마음이 있으면 비꼬는 한 마음이 생겨서 즐겁지 않게 된다"라고 했다. 조정암趙靜菴(조광조)은 말하기를, "몸을 가짐은 마땅히 엄한 가운데에 태평함이 있고, 태평한 가운데에 엄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예악禮樂을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훌륭하다.

대체로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스스로 공경함을 가지는 공부가 있어야 한다고 한 선유先儒들의 말이 극진하다. 상채학파上蔡學派의 사량좌謝良佐[7]가 서암승瑞巖僧의 성성법惺惺法[8]을 취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 그 법이 간단하여 깨우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법으로써 배우는 자를 깨우치

7 송대宋代의 학자學者(1060 1103). 자字는 현도顯道. 정문程門의 고제高弟로서 상채학파의 조祖. 《상채어록上蔡語錄》 3권은 문인門人 호안국胡安國이 쓰고 주희朱熹가 수정한 것. 저서에 《논어설論語說》이 있다.

8 성성惺惺은 정신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니, 수도하는 법으로 항상 마음을 깨끗이 가지는 것. 《상채어록》에 "공경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라고 한 말이 있다. 유기劉基의 《성재명惺齋銘》에, "밝고 밝음은 깨끗한 마음에서 생기고, 심란함은 어둡고 어두운 데서 생긴다"라고 했다.

려 한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선습禪習(선禪의 풍습)에 물들 것을 두려워한다.

왕양명이 말하기를, "이 마음의 확연廓然(넓고 텅 빈 모양, 마음이 넓고 거리낌 없는 모양)하기가 태허太虛(하늘)와 본질이 같다. 태허의 안에는 없는 물건이 없다. 그러나 한 개의 물건도 능히 태허의 장애는 되지 못한다. 모든 부귀 · 빈천과, 얻는 것과 잃는 것, 사랑함과 미워함이 서로 마주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뜬 안개가 태허 속에서 오고 가면서 변화를 일으키지만, 태허 자체는 본래 항상 텅 비어 있어서 막힘이 없음과 같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진실로 훌륭하다. 다만 불가佛家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말에, "인간의 사사로운 말을 하늘은 우뢰처럼 크게 듣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는 것을 신神의 눈은 번갯불처럼 비춰본다. 사람이 항상 이 말을 생각한다면,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공부를 스스로 그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9-3 과욕寡慾

설문청이 말하기를, "욕심이 적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마음은 곧 맑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마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욕심이 있으면 남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오직 욕심이 없으면 저들이 먼저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했다. 이것은 접물接物(남과의 교제)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 말이 진실로 좋다.
나는 말한다. 욕심이란 것은 반드시 무엇을 즐겨하는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영위營爲하는 것이 있음은 모두 욕심이다. 욕심이 적

으면 능히 본심을 보존할 수 있고, 본심이 보존되면 욕심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여자呂子가 말하기를, "천하가 모두 형체 있는 도적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형체 없는 도적을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 욕심이 사람에게 도적질함이 전쟁보다도 심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형체 있는 도적은 밖에서 도적질하지만, 형체 없는 도적은 사람 속에서 도적질하는 것이다. 사람이 적어도 안과 밖의 구분을 안다면, 그가 두려워하여 그것을 막는 데에 반드시 지극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작용이 없다. 한 번 어느 것에 지나치게 애착하면, 도道에서 떠남이 멀게 된다. 모든 매사냥과 말달리기와, 글씨와 그림과, 거문고와 바둑과, 꽃과 풀 따위의 외물外物의 완호玩好도 모두 지나치면 본심을 잃기에 넉넉하다. 하물며 주색酒色이겠는가. 옛사람들이 완호하는 외물로 뜻을 상실할 것을 경계한 것이 이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선비가 능히 욕심을 적게 할 수 있다면, 맑고 담박한 것을 마음 편안하게 여겨 부귀富貴 때문에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외물을 가볍게 보게 되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자연히 바른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매우 옳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산에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한번 매혹하여 연연戀戀하게 되면 산도 또한 시정市井과 같은 것이다. 글씨와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한번 미칠 만큼 탐내면 또한 상인商人과 같은 것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조금만 한번 사람을 병들게 만들면 또한 지옥이 된다. 손(客)을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

운 일이다. 그러나 한번 속객俗客이 어지럽히게 되면 또한 고해苦海인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미의 말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 글 짓는 것은 고상한 일이다. 그러나 한번 어쩌다가 지나치게 즐겨하게 되면 이는 또한 고해인 것이다. 아, 나도 또한 고해 속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업장業障(전생에서 지은 죄)으로 인해 이승에서 받는 마장魔障을 벗어나서 피안彼岸에 도달할 수 있을지.

9-4 초학初學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에 말하기를, "오늘에 한 가지 일을 기억하고 내일에 한 가지 일을 기억하여 오래되면, 자연히 깊이 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에 한 가지 이치를 알아내고, 내일에 한 가지 이치를 알아내어 오래되면, 저절로 협흡浹洽(도리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해질 것이다. 오늘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실행하고 내일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실행하여 오래되면, 저절로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람이 매일 하루의 공부를 가질 수 있다면, 오래되면 마땅히 스스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니, 여씨의 이 말은 마음속 깊이 납득하여 실천하기에 적당하다.

이천伊川 선생이 말하기를, "부귀를 가지고 남에게 교만한 것은 본래부터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만, 학문을 가지고 남에게 교만한 것도 해害가 또한 적지 않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학문을 가지고 남에게 교만한 일도 그 해독이 또한 이러한데, 하물며 재예才藝를 가지고 남에게 교만한 자의 해독은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또 학문으로 하여 남에게 교만하다면, 그것은 학문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이천伊川의 말은, 특히 이것으로써 배우는 자를 경계한 것이다.

이천 선생은 남들이 전배前輩의 결점을 논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말하기를 “너희들은 남의 장점을 취하라”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남의 단점을 논평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인데, 더군다나 전배의 단점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배우는 자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송나라의 장무구張無垢가 귀양살이를 하는 곳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매일 먼동이 틀 때마다 책을 안고 그 앞의 밝은 곳에 가서 읽기를 무릇 14년 동안이나 하였으니 돌 위에 두 발을 놓았던 자취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한다. 옛사람들이 마음먹고 근고勤苦하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밝은 창문과 깨끗한 책상 앞에 온종일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도 한 줄의 글도 읽지 않는 자가 있다. 홀로 무슨 마음인가. 글공부가 이러하니 하물며 마음을 다스려 자기를 위한 학문을 삼는 일을 바랄 수 있겠는가.

《동몽수지童蒙須知》에 말하기를, “창이나 벽, 책상 · 의자나, 글자가 쓰여 있는 곳에 낙서落書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붓을 파괴하고 먹을 더럽히는 것은 자제子弟의 직분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책상에 글씨를 쓰고 벼룻집에 글씨를 쓰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낯에 자자刺字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산골에서 자제들을 훈계한 말이다. 자자한다〔黥〕고 한 것은 먹칠한다〔黔〕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배들이 말하기를, “글을 읽는 데에는 3가지가 거기에 이르러 있어야〔三到〕 한다. 즉 마음이 이르고, 눈이 이르고, 입이 이르러야 된다.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눈이 자세히 보지 않는다. 마음과 눈이 이미 전일하지 아니하면, 다만

함부로 외고 부질없이 읽을 뿐이고, 결코 기억할 수 없으며 기억하여도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바로 글을 읽는 요결要訣이다.

정자程子는 글자를 쓸 때에 매우 경건하게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다. 선배가 말하기를, "글자를 쓸 때에는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을 묻지 않고, 다만 한 번 붓을 대는 일과, 한 획을 긋는 일을 엄중히 바르고 분명하게 해야 하고, 지나친 초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러한 뜻일 것이다.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의 권학문勸學文에 말하기를, "아들을 길러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이고, 훈도訓導함을 엄하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승의 게으름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안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에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자가 드문 것이다.

《안씨가훈顔氏家訓》에 말하기를, "인생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업業으로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농민이면 농사짓는 일을 계획하고, 상인商人이면 재화를 토론하며, 공장工匠이면 기물과 용구에 정신을 모아야 하고, 무부武夫면 활 쏘고 말달리기를 익혀야 하며, 문사文士라면 경서를 강의해야 한다. 지금의 사대부들은 농사나 상업에 관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공업의 기술에 힘쓰는 일을 수치로 여긴다. 활 쏘는 재주는 이미 종이를 뚫지 못하고, 글씨는 겨우 자기의 성명을 기록할 뿐이다. 그러고도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돌보지 않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허송한다. 혹 가문의 덕택으로 조그만 벼슬을 얻으면, 문득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수학修學하는 일을 전연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길흉대사吉凶大事라도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의논하게 되면,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운무雲霧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흐리멍덩하고, 공사公私의 연회 자리에 모여서 옛일을 이야기하고 시를 짓는 때면, 입

을 막고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하품이나 하고 있을 뿐이다. 어찌 두어 해 동안 학문에 힘쓰기를 아껴서, 길이 일생 동안의 부끄러움과 욕됨을 받아야 한단 말이냐"라고 했다. 이 말은 진정 세상을 훈계할 만한 말이다.

《안씨가훈》에 말하기를, "남의 서적을 빌려오면 모름지기 아끼고 보호하여, 전부터 이지러지고 찢어진 데가 있으면 나아가 깁고 붙여야 한다. 이것도 또한 사대부의 온갖 행실 가운데 하나이다.
글을 읽다가 다 마치지 못하면, 비록 급박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책을 정제整齊해 놓은 뒤에 일어나야 한다. 혹이나 서적의 부질部秩이 흩어져서 어린아이나 비첩婢妾들이 더럽힌 데가 많게 되면 실로 덕德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런 까닭에 종이에는 오경五經의 글과 뜻이 있고, 명현달사名賢達士의 성명이 있는 것이니 감히 더럽게 쓰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진정 법으로 삼을 만하다.

《동몽수지》에 말하기를, "남자에게 3가지 바싹 죄어 묶어야 하는 것이 있다. 머리를 묶어야 하고, 허리를 죄어 묶어야 하며, 다리를 죄어 묶어야 한다. 머리라고 한 것은 갓을 쓴 사람이나 아직 갓을 쓰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상투를 짜고 머리털을 묶는 것을 말한다. 허리라고 한 것은 끈이나 띠로 허리를 묶는 것을 말한다. 다리라고 한 것은 신과 버선을 말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단단하게 죄어야 한다. 너그럽고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묶음이 너그럽고 느슨하면, 몸이 거리낌이 없고 흐느적거려 단정 엄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가볍고 천하게 보인다"라고 했다.
이 말은 가장 요긴하다. 지금 사람들은 이 한 구절에 대하여 개의하지 않는 이가 많다. 그러니 그들의 행실이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

9–5 격언格言

《관윤자關尹子》에 말하기를, "이해利害에 대한 마음이 너무 밝으면 친척과 화목하지 못하고, 현명하고 어리석음을 분간하는 마음이 너무 밝으면 벗을 사귀지 못하며, 옳다 그르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밝으면 일을 이룰 수 없고, 좋다 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밝으면 남이 계합契合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이 말에서 취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옛글에 말하기를, "좋기가 모책謀策을 넓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편안함은 욕됨을 참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이 없으며, 즐거움은 선한 것을 즐겨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고, 길한 것은 그칠 줄 아는 것보다 더 길한 것이 없다. 졸렬함은 구차하게 얻는 것보다 더 졸렬할 것이 없으며, 고독하기는 스스로 잘한다고 믿는 것보다 더 고독한 것이 없고, 위태하기는 의심이 많은 것보다 더 위태한 것은 없으며, 실패하는 것은 사私가 많은 경우보다 더 실패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 진실로 옳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유가 있어서 다하지 아니한 교묘巧妙를 조물주에게 돌리고, 여유가 있어서 다하지 아니한 복을 머물러 두어서 자손에게 돌린다"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매우 사랑한다. 그러나 항상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하지 아니한 복을 머물러 두기는 쉬우나, 여유 있는 교묘를 머물러 두기는 어렵다. 그러니 조물주의 시기를 면할 수 있는 자가 적다.

《설부》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욕심 때문에 몸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하며, 재화財貨 때문에 자손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하라. 정사政事로써 백성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학술로써 천하와 후세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했다. 진정 격언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병病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禍는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나는 이것을 바꿔서 말하고 싶다. 병은 눈으로 들어가고, 화는 눈에서 나온다고. 대체로 욕심날 만한 것을 보지 않는다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은 눈으로 들어간다. 미워할 만한 일을 보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는 눈에서 나온다. 대체로 눈이 앞장을 서고 입은 그것을 좇아가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역경逆境이란 것은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단련함이 더욱 정밀하면 성색成色(화폐貨幣 중에 함유한 순금의 양 · 품위 · 실질 · 성질)은 더욱 족할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역경이란 것은 하늘이 사람을 옥인玉人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순虞舜은 이것을 만나서 대효大孝가 되었고, 주공周公은 이것을 만나서 대충大忠이 되었다. 하물며 그보다 아래인 사람이겠는가. 사람이 능히 역경을 역경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는 좋은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어디에 가도 효자 아님이 없고, 부귀를 보전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긴다면 어디를 가도 충신 아님이 없을 것이며,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는다면 허물이 적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헛된 칭예稱譽를 즐겨하는 것은 하늘에게 들어보는 것만 같지 못하고, 화재貨財를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은 남의 급한 것을 구제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다. 진실한 말이다.

여본중呂本中의 《관잠官箴》에 말하기를, "참을 인忍 한 글자는 모든 미묘한 것의 문이다. 관官에 있어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더욱 이것을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만약 청렴하고 근신謹愼하고 부지런한 것 이외에 다시 참는다는 것을 더 보태어 실행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라고 했다. 두번천杜樊川(두목杜牧)의 시에, "참고 지나가니 일이 기뻐할 만하다"라고 했고, 황산곡은 말하기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한 번 참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조청헌趙淸獻의 좌우명에 말하기를, "입에 상쾌한 맛은 병을 가져오는 일이 많고, 마음에 통쾌한 일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재앙이 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좋은 밭이 만 경頃이 있어도 하루에 먹는 것은 서 되 뿐이며 큰 집이 1,000간間이나 되어도 밤에 눕는 것은 8자의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진실로 그러하다.

한위공韓魏公이 말하기를, "소인이 군자를 해치는 것은 벌이나 전갈의 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피하여 사람에게 독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매우 훌륭하다. 다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위공이 말하기를, "대체로 사람으로 하여금 선善하게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사람의 본질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의 성질 가운데에 본래부터 끌어낼 단서가 없는 자에게 강요하면 마침내 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은 기질에 대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만약 이 말과 같다면

성선설性善說[9]은 거짓말이 된다.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남의 은혜를 받고 차마 저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남의 아들이 되면 반드시 효도할 것이고, 신하가 되면 반드시 충신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을 한 자는 반드시 충효한 사람일 것이다.

공풍鞏豐이 말하기를, “춥지 않은 것으로 따뜻하다고 하고, 굶주리지 않은 것으로 배부르다고 하며, 욕됨이 없는 것으로 영광을 삼고, 화禍가 없는 것으로 복을 삼으라.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했다. 아름다운 말이로구나.

공풍이 말하기를, “저서著書는 빠른 것을 꺼리고, 일을 처리하는 때에는 시끄러운 것을 꺼리며, 조정에 서서는 교巧한 것을 꺼리고, 거처하는 방은 좋은 것을 꺼린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굶주리면 거친 음식에 의지하고, 여행에서는 하인에게 의지하며, 병들면 약에 의지하고, 늙어서는 서적에 의지한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다만 내가 보니, 세상 사람들은 늙어도 서적에 의지하지 않는 자가 많다. 어째서 그런가.

송나라의 무제武帝가 음악을 논하여 말하기를, “음악을 이해하면 그것이 좋아질 것이 진정 두렵다”라고 했다. 섭몽득葉夢得이 말하기를, “이 말에 매우 뜻이 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이다. 간소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찾

9 맹자가 주장한 설이다.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요순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단설四端說로써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은 거울에 먼지가 덮인 것처럼 물욕이 덮여 선성善性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단四端은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의 본성이 나타나는 단서라 하여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惻隱之心 仁之端, 羞惡之心 義之端, 辭讓之心 禮之端, 是非之心 智之端也”

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만 같지 않다. 무엇을 이해하여 그것을 좋아하게 된 뒤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끊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무지無知에서 유지有知 되기는 쉽지만, 아는 것이 있으면서 도리어 아는 것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말이 매우 옳다.

소동파蘇東坡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취중에 한 말이 술 안 취했을 때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명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소 공의 시에, “취한 때의 미치광이 같은 말이 술이 깨고 나면 두렵다(醉後狂言醒可怕)”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배우지 않은 것을 가난하다고 하고, 배워서 이룩함이 없는 것을 천하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고 천하지 않은 자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사현도謝顯道가 말하기를, “명리名利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바야흐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다. 백낙천白樂天의 시에,

擧世盡從忙裏老 온 세상 사람들 바쁜 속에서 늙어가네
何人肯向死前休 누가 죽음 앞에서 쉬기를 즐길 줄 알랴

라고 한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명리의 관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다.

《산거사요山居四要》에 말하기를, “일이 비록 미세한 것이라도 반드시 방어와 수비에 조심해야 하며, 일이 비록 의사疑似할 뿐일지라도 마땅히 남의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나를 해치는 것을 막고, 친근한 사람에게는 그가 나를 파는〔賣〕 것을 막아라. 탐오함을 경계하는 것을, 원수를 경계하는 것처럼 하고, 사알私謁(사사로이 찾아와 뵙는 것)을 막는 것을 도둑을 방비하는 것처럼 하라. 비리非理한 일로 침범하여 오는 자에게는 참는 것으로 대처하고, 예의 있는 체모로 대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태도로 대우하라"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관원으로서 백성의 위에 있는 자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을 수 있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자경편自警編》에 말하기를, "인생의 누리는 복이 후하고 박한 것은, 각기 그 정해진 분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지혜와 힘으로 인생의 행복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가끔 명분과 의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이 있다. 그들은 도무지, 인생의 분수는 다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어서, 털끝만큼도 거기에 보탤 수 없으며, 한갓 소인이라는 이름만 얻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람이 능히 이 말을 안다면, 분수에 맞는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송나라의 팽사영彭思永이 그의 자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대여섯 살 되었을 때에, 겨울에 이불 속에 있으면 천하의 추운 사람들을 생각했다"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매우 사랑한다. 사람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자연히 남에게 미침이 넓을 것이다.

조씨晁氏가 말하기를, "명예와 이익을 다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명예를 좋아하는 것은 이익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명예를 좋아하면 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이익을 좋아하면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은

진정 좋다.

섭소온葉少蘊이 말하기를, "아무개가 50세 이후에는 아들을 낳지 않았으며, 60세 이후에는 집을 짓지 않았으며, 70세 이후에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말이 그다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능히 실행하는 자가 드문 것은 무슨 까닭인가.

송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한 걸음 물러서서 걷는 것은 안락법安樂法이고, 3개箇가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은 희환연喜歡緣이다"라고 했다. 그 한 걸음 물러서서 걸어가라는 것은 좋으나 3개가 다 좋다고 말하라는 것은 너무나 분별이 없다. 말에, "한 걸음 나아가면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생각하라. 1전錢을 요구하면 1전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더욱 좋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이름난 원림園林과 훌륭한 저택은 재력이 그것을 가질 수 없고, 노래하는 아이와 춤추는 계집은 아내가 용납하지 않으며, 높은 글과 위대한 책은 재능이 그것을 지을 수 없고, 높은 벼슬과 후한 봉록은 운명이 그것을 이룩할 수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로구나.

송나라의 조계인趙季仁이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3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세상의 좋은 사람은 모두 알기를 원하고, 세상의 좋은 글은 모두 읽기를 원하며, 세상의 경치 좋은 산수山水는 모두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도 또한 3가지의 소원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이고, 또 세상의 좋은 경치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옛말에, "원컨대 하늘은 항상 좋은 사람만 낳아 주었으면, 그리고 원컨대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하였으면"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말한다. 이 말들은 다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은 하늘에 돌리고 자기를 반성하는 뜻이 없으니 아마 미진한 것 같다. 이제 그것을 고쳐 말하고자 한다. 원컨대 나의 뒤에 오는 세상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만 낳고, 나의 일생 동안에는 항상 좋은 일만 하기를 원한다.

《북몽쇄언北夢瑣言》에 말하기를, "착하지 않은 자제子弟는 세 번 변신한다. 첫 번째의 변신에서는 황충蝗蟲이 된다. 그리하여 전장田莊을 팔아먹는다. 두 번째의 변신에서는 좀벌레가 된다. 그리하여 서적을 팔아먹는다. 세 번째의 변신에서는 범(虎)이 된다. 그리하여 노비奴婢를 팔아먹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관원官員 된 자도 또한 3가지 먹는 것이 있다. 첫째는 황충이 되어서, 용렬하고 둔하고 어리석어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먹는다. 둘째는 좀벌레가 되어서, 탐욕스럽고 검어서 뇌물을 받아먹는다. 셋째는 대충大蟲(호랑이)이 되어서, 국정을 전단하고 위세를 세워 사람을 죽여서 먹는다.

《유자劉子》에 말하기를, "세 사람이 한 방에 있다가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면, 반드시 다투지 않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피차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다투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공평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투는 자가 반드시 편파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투는 자의 마음은 모두 자기가 이긴다는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내가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일에 당면하여 오직 이기는 길을 찾기에만 힘쓴다. 그리하여 다만 서로 다투지 않는 자에게서 시비를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다투지 않는 사람도 다투는 사람으로 보고 그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그 지혜가 위에서 말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만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거의 다툼은 그칠 날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장한상張翰翔이 말하기를, “조맹趙孟의 권모權謀를 가진 자라도 남의 벼슬은 파괴할 수 있으나, 남의 인격을 파괴하지는 못한다”라고 했다. 이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세상에는 아첨하고 남을 시샘하는 자가 있어서, 오직 남의 일을 훼방하고자 하여 온갖 방법으로 저해沮害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차라리 좋은 벼슬을 얻지 못할지언정, 자기의 명분과 절조를 깨뜨리고자 아니하여, 처음이나 끝이나 스스로 조촐하게 처신함이 천 길 절벽처럼 우뚝 서 있으면, 저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그 권모를 쓸 곳이 없을 것이다.

해서海瑞가 말하기를, “차라리 천하의 제1등인 사람이 될지언정, 한갓 천하의 제1품인 관원은 되지 말라”라고 했다. 이 말이 가장 좋다. 선비 된 자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연마한다면 제2등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일봉羅一峯이 말하기를, “습속이 사람을 빠지게 하는 것이, 마치 취한 자가 술에 곯아떨어지는 것과, 잠자는 자가 꿈에 깊이 빠지는 것과 같다. 군자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취해도 능히 깰 수 있고, 자면서도 능히 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습속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드는 일이 홀로 부귀를 위한 일만은 아니다. 시문을 반드시 잘하려 하고, 과거科擧와 명예를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일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라고 했다. 아! 나도 또한 취한 꿈속에서 겨우 잠을 깬 사람이리니 일봉一峯의 말에 단번에 각성했다.

오응빈吳應賓이 말하기를, “재능이라는 것은 교만의 그릇이고, 시기하는 마음이며, 재화災禍의 매개체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생에 통달한 선비는 재주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재능을 미워함이 아니라, 재주가 있으면 처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노자는 말하기를, “총명예지聰明叡智하면서도 이것을 어리석음으로써 지켜라”라고 했고, 장자는 말하기를, “나

는 재능이 있는 것과, 재능이 없는 사이에서 처신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부자父子의 관계는 욕정에서 생긴 것이고, 군신君臣의 관계는 이利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했다. 내 의견으로는, 이 말은 아마 폐단이 있을 것이다. 소위 욕정에서 생겼다고 한 말은 불설佛說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利에서 생겼다고 한 말은 공의 독자적인 견해인가. 만약 부자 관계가 욕정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함부로 정욕에 방종하여 그 유폐流廢는 반드시 어버이를 무시하는 데에 이를 것이고, 군신의 관계가 이利에서 생겼다고 한다면, 은혜를 잊고 의를 저버려 그 폐해는 장차 임금을 무시하는 데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이 말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할 것이다. "부자의 관계는 이理에서 생겼고 군신의 관계는 의義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왕양명이 말하기를, "무엇으로써 남이 비방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비방을 들을 만한 일이 없는 경우에 변명하면 이것은 스스로 비방하는 일이 되고, 비방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변명하면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더 보태고 남의 성냄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반성하여 스스로 수양하는 뜻이 없어서 극진하지 않은 것 같다. 위나라 왕창王昶이 말하기를, "남의 비방을 막는 데는 스스로 수양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훌륭한 말이다.

왕수인王守仁(왕양명)이 고을의 수령을 보내는 서문序文에 말하기를, "벼슬에 나아감에 있어 과거에 급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말며, 벼슬이 낮다고 하여 스스로 업신여기지 말라. 대체로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벼슬에 나아가면 남들이 그를 가볍게 대접하기 쉽다. 따라서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다. 벼슬이 낮으면 남들이 그를 업신여기기 쉽다. 따라서 스스로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했다.
지봉자芝峯子는 말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가볍게 여긴 뒤에야 남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야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진실로 지존한 도를 지니고 지귀至貴한 덕을 가졌다면, 그 어찌 가볍게 여기고 또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중重한 체하고 있으면 욕을 먹지 않는 자는 드물 것이다.

소보邵寶가 말하기를, “참다운 사부士夫가 되기를 원하고, 거짓 도학자道學者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것은 명언이다. 내가 보니, 근세에 사부가 된 자들은 스스로 사부라고 하지만, 참다운 사부는 적으며, 도학을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도학자라고 하지만 거짓인 자가 있다.

판서判書 홍담洪曇은 천성이 강강剛强하고 과감하며, 봉공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일찍이 병으로 휴가한 일이 없다. 항상 말하기를, “상등인 신하는 인격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중등인 신하는 몸으로써 임금을 섬기며, 하등의 신하는 재물로써 임금을 섬긴다. 나는 비록 상등의 신하는 되지 못할망정 중등인 신하의 자격은 잃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그 말은 본래 옛말이지만 임금을 섬기는 법으로 삼을 만하다.

명나라 사람이 자질子姪들을 훈계한 글에 말하기를, “남의 조상이 되고 부형父兄이 된 자는 오직 좋은 자제子弟가 있기를 원한다. 소위 좋은 자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지田地와 저택, 좋은 의복과 좋은 벼슬로 한때 향리鄕里에 자랑스럽고 빛나게 하는 것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좋은 명망과 절조節操가 있어서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사방의 다른 나라에 풍교風敎(덕행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함)를 미치며 백성들을 안정시켜 후세에 공을 남기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다만 배부르고 따뜻하기만 요구하고, 세력과 이득에 습숙習熟하여진다면 그것은 이른바 악자제惡子弟인 것이다. 그런 자제라면, 집에 있어서는 조상을 욕되게 하고, 자손에게는 재앙을 가져오기에 넉넉하며, 나아가서 벼슬하면 조정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에 화를 끼치기에 족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조상과 형제의 원하는 바이겠는가"라고 했다. 내가 보니 세상 사람들은 전택과 세력과 이익을 좋은 것이라고 하여 원한다. 복을 구하고자 하다가 도리어 화가 속히 오게 만드는 자가 많다. 어찌 의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10. 경서부經書部-1

10-1 역경易經

《역경》에 말하기를, "절정에 오른 용은 후회함이 있다"라고 하고, 또 용구用九[10]에 말하기를, "하늘의 덕은 머리(首)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절정에 오르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 뭇 용이 구름 속에 머리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도리를 본받은 위대한 덕행은 자신을 나타내어 우두머리임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인聖人이 남긴 훈계는 절실하다.

노자가 말하기를, "감히 천하의 선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 아마 《역경》에서 얻은 생각일 것이다. 《장자》에, "남의 선두가 되지 말고 일의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와 같은 뜻일 것이다.

《역경》에는 말하기를, "천도天道의 운행은 건전하여 순간도 쉬는 일이 없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고 노력한다"라고 했고, 《시경》에는 말하기를, "천명天命은 아름다워 그침이 없네. 아, 크게 드러나심이여, 문왕文王의 덕이 순수하도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역경》에서는 천행天行이라고 말하고, 《시경》에서는 천명天命이라고 말하였으나, 그것은 하나인 것이다. 순수하다고 한 것은 하늘에 순수하다는 것이다. 아마 문왕의 덕이 하늘과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설문청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한 번 숨 쉬는 사이의 게으름이라도 있으면

10 《역경》의 건괘乾卦에 한하여 육효六爻에 대한 6개의 효사 의외에 따로 용구用九라는 것이 있다. 용用은 작용 · 운용의 뜻이고, 구九는 역易에서 양효陽爻를 표시하는 말이다. 건괘는 순수한 양효만으로 이루어진 괘이므로, 용구는 모든 양효의 작용, 혹은 운용을 총설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설이 있다.

곧 천지의 조화가 순간도 쉼이 없는 것과는 서로 같지 않게 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역경》에 말하기를, 군자는 "온종일 쉼 없이 노력하고, 밤에는 조심하고 두려워함을 위태한 것처럼 한다(終日乾乾 夕惕若厲)"라고 했다. 《회남자淮南子》에 말하기를, "온종일 쉼이 없음은 양陽이므로 움직임이고, 밤에 두려워함을 위태한 것처럼 하는 것은 음陰이므로 쉬는 것이다. 낮에 움직이고 밤에는 쉬는 것은 오직 도道 있는 자만이 이것을 실행한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석夕'은 곧 밤이다. 밤새도록 잠자지 않는 것을 '통석불매通夕不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대체로 옛사람의 말에, 저녁이라고 한 것은 밤을 가리켜 말한 것이 많다. 또 옛사람들은 '위태한 것처럼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역경》의 중부中孚(괘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정성이 있음을 상징함)에 "정성스러움이 돈어에 미친다(信及豚魚)"라고 했다. 전傳에 말하기를, "돼지와 물고기는 미물 중에서도 감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성신誠信함이 능히 돼지와 물고기를 감화시킨다면 지극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돈豚·어魚를 2가지 동물로 해석한 것이다. 《본초몽전本草蒙筌》에 말하기를, "하돈河豚은 물고기다. 대개 동지冬至 이후에 난다. 중부가 괘상을 이루니, 이 물고기가 감응한 것이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돈어豚魚는 강돈江豚이니, 못 가운데서 산다. 매양 이 고기의 동작으로 바람이 오는 것을 안다. 이 동물에게는 자연의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본전本傳》을 상고하여 보니, "바람이 못 위를 지나가니 물속이 감응한다. 이것이 중부의 괘상으로써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어떤 이의 설에 이치가 있는 것 같다.

《역경》의 〈계사繫辭〉[11]에, "남녀의 정기精氣가 합한다"라고 한 글귀가 손괘損卦의 풀이에 보인다. 옛사람이 깊은 뜻이 있다고 말했다. 아마 나를 덜어서 저이에게 보탠다는 뜻일 것이다.

고요하면 항상 길하고, 움직이면 흉한 것이 많다. 그런 까닭에 《역경》에서 말하는 길흉회린吉凶悔吝은 대개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말했다. 그 훈계함이 크다.

《역경》에 3가지가 있다. 하夏나라의 것을 《연산역連山易》, 상商나라의 것을 《귀장역歸藏易》, 주周나라의 것을 《주역周易》이라고 한다.
하나라는 인통人統을 얻어서 인월寅月로 정월正月을 삼았다. 그런 까닭에 연산역에서는 간괘艮卦를 첫머리 괘로 했고, 상나라에서는 지통地統을 얻어 축월丑月로 정월을 삼았다. 그러므로 귀장역에서는 곤괘坤卦를 첫머리 괘로 하였으며, 주나라에서도 천통天統을 얻어 자월子月로 정월을 삼았다. 그런 까닭에 주역에서는 건괘乾卦를 첫머리 괘로 했다.
또 《주역》에는 10개의 보조 문헌인 《십익十翼》이 있다. 《십익》은 공자孔子가 지은 것으로서, 상단上彖·하단下彖·상상上象·하상下象·상계上繫·하계下繫·문언文言·설괘說卦·서괘序卦·잡괘雜卦가 그것이다.

10-2 시경詩經

《시경》에, "역여조기惄如調飢"라는 말이 있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엔 '조기朝飢'

11 《역경》에는 한 괘마다 그 괘의 총체의 뜻을 설명한 글이 있어 그것을 괘사卦辭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한 효 한 효에 대한 풀이가 있다. 그것을 효사爻辭라고 한다. 그 괘사와 효사를 통칭하여 계사繫辭라고 한다.

라고 썼다. 아침에 배고픈 것은 참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초연수焦延壽의 《역림易林》에, '단기旦飢(아침에 굶주림)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調飢(조기)는 朝飢(조기)임이 의심 없다는 것을 고증할 수 있다"라고 했다.

나는 상고하여 보니, 《운회韻會》에도 또한 '역여조기惄如朝飢'라고 했고, 《운부군옥韻府群玉》의 '조기調飢'의 주注에는, "조調는 조朝이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양신楊愼의 설이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주주朱註에, "조調는 주輖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다. 의심하건대 '주輖'라는 글자는 본래 '조朝'라는 글자의 잘못일 것이다.

《시경》의 〈감당甘棠〉편의 주註에, "소백召伯[12]이 남국南國을 순행하다가 어느 때 감당나무 밑에 머물렀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초씨역림焦氏易林》에 말하기를, "큰 나무의 곁가지들, 모든 가지는 한 나무에서 나와, 여름 6월을 당하면 가지와 잎은 무성하여 난봉鸞鳳을 덮어준다. 소백이 여기에서 피서避暑했다"라고 했다. 이것은 소백이 더위를 피하여 감당나무 아래에서 휴식한 것을 말한 것이다. 양승암楊升菴이 이것을 인용하여, '소백유서召伯遊署'라고 한 것은 아마 '피서避署'의 판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경》〈행로行露〉편에 대하여 예전의 주소註疏에는, 소백이 송사訟事를 듣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화곡華谷 엄씨嚴氏(엄찬嚴粲)는 말하기를 "이것은 여자가 스스로 호소하는 말을 기술한 것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옛글에서 옥송獄訟을 작

12 주周나라의 소공召公을 일컫는 말. 백伯은 방백方伯이니, 소공이 소召라는 땅을 채읍采邑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소공의 성은 희씨姬氏, 이름은 석奭, 시호는 강康이니, 성황 때에 주공周公과 함께 삼공三公이 되었다. 덕이 높고 어질며 백성을 잘 보살펴주었으므로 백성들 중에 실업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가 남국南國을 순시할 때에 감당나무 아래에서 쉬었더니, 뒤에 백성들이 소공의 덕을 사모하여 그 감당나무를 베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이 누구의 사람을 사모하는 것을 '소공감당召公甘棠'이라고 한다.

서雀鼠라고 한 것은 이 시 속에 작雀과 서鼠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주자朱子의 주註는 옛날의 주소註疏와는 같지 않다.

《시경》〈하피농의何彼穠矣〉편의 "당체唐棣의 꽃" 주해에, 당체는 산앵두나무〔移〕라고 했다.
《논어》〈자한子罕〉편의 "당체의 꽃 펄럭이네〔唐棣之華 偏其反而〕"의 주에, 당체는 욱리郁李라고 했다. 두 곳의 주註가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상고하여 보니, 《본초本草》에 "부체扶移는 나무 이름이니 강남에서 생산된다. 바람이 없어도 잎이 움직여서 뒤쳤다가 다시 합친다"라고 했다. 아마 바로 이 식물인 것 같다.

《시경》의 〈추우騶虞〉편에, "아! 추우騶虞(성인聖人의 덕화에 감격하여 나타난다는 영수靈獸)"라는 구절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예기禮記》의 사의射義에 말하기를, "천자는 추우騶虞로써 예절을 삼는다. 추우라는 것은 관원이 갖추어진 것을 즐겨한 것이다" 하고 주註에, "추騶는 구목廏牧을 맡은 관리이고, 우虞는 산택山澤을 맡은 관리이다. 이 2가지 직무에 다 인재가 결핍하지 않았으니 관원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이 시에 '뾰족뾰족 돋아나는 저 갈대〔彼茁者葭〕'라고 하였으니, 초목들이 무성하게 자라남을 알 수 있다. '화살 1개에 암퇘지 5마리'라고 하였으니, 새와 짐승이 번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아, 추관騶官과 우관虞官(산림소택山林沼澤을 맡은 관리)이여'라고 한 것은 초목이 무성하고 짐승이 번식한 공功을 두 관원에게 돌린 것이다"라고 했다.
《오대사五代史》에 말하기를, "가의賈誼가 말하기를, 추騶라는 것은 문왕文王의 어자御者(말을 모는 사람)이고, 우虞는 우관虞官이라고 했다"고 했다.
《설부》에도 또한 말하기를, "추우騶虞는 추어騶御와 우인虞人이고, 짐승의 이

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십삼경주十三經註》에서는 모두 추우를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다.
《주자어류》에는 말하기를, "추우를 만약 관명官名으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시경》〈하피농의何彼穠矣〉편의, "평왕平王의 손자이고 제후齊侯의 아들이다"의 주註는 바르다. 무왕武王의 딸이 제후齊候의 아들에게 시집가는 것을 읊은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평왕은 즉, 평왕 의구宜臼이고, 제후는 즉 제양공齊襄公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양신楊愼은 말하기를, "평왕은 주周나라의 평왕이 아니고, 제후齊侯도 강씨姜氏의 후손인 제후가 아니다. 《서경》에서 영왕寧王이라고 일컫고, 《역경》에서 강후康侯라고 일컫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과연 이것이 평왕 의구라면, 이 시는 마땅히 왕풍王風에 편입되었을 것이며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양용수楊用修(양신楊愼의 자字)의 말이 또한 견해가 있다고 하겠다.

《시경》〈위풍衛風〉에 "자지청양子之淸揚"이라는 글귀가 있다. 그 주註에, "청淸은 보는 것이 맑고 밝은 것이고, 양揚은 눈썹 위가 넓은 것이다"라고 했다.
〈정풍鄭風〉에는 "유미일인有美一人 청양완혜淸揚婉兮"라는 글귀가 있다. 그 주註에는, "청양淸揚은 눈썹과 눈 사이가 예쁘게 아름다운 모양이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이 〈위풍〉의 시와 〈정풍〉의 시의 주는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 〈정풍〉의 시의 그 아래 장을 보니, "유미일인有美一人 완여청양婉如淸揚"이라는 글귀가 있다. '여如'라는 글자는 옛날에도 '여與'라는 글자와 통용하였으니, 아마 "청양완혜淸揚婉兮"라는 말은 청양하고 또 완婉(예쁘다)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완여청양婉如淸揚"은 완婉하고 또 청양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리라. 이것은 나의 억견臆見이니 어떤지 알 수 없다.

〈위풍〉의 같은 시의 "양차지안揚且之顔"이라는 글귀의 주석에, "안顔은 이마의 각角이 풍만한 것이다"라고 했다. 《내경內經》[13]의 주를 상고하여 보니, "안顔은 즉 이마(額)다"라고 했고, 《운회韻會》에는 "안顔은 이마의 각角이다"라고 하였으며, 《한서》의 상안商顔은 "상산商山의 이마다"라고 했고, 상여相如의 부賦에는, "잔안孱顔은 또한 산의 이마가 잔연孱然히 높은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편액扁額을 안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시경》〈패풍邶風 · 종풍終風〉의 "원언즉체願言則嚔"라는 글귀의 주에, "원願은 생각한다(思)는 뜻이다"라고 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남에게 생각되어지면 재채기(嚔)한다"라고 했다. 소동파의 시에 말하기를, "백발창안白髮蒼顔을 누가 즐겨 기억하는가. 새벽에 자주 재채기하니 어느 사람 때문인가(白髮蒼顔誰肯記 曉來頻嚔爲何人)"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시경》〈패풍 · 간혜簡兮〉의 "공언석작公言錫爵"의 주소註疏에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것이 일산一散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산散은 술잔이다. 《운회韻會》를 상고하여 보니, "하夏나라에서는 잔琖(옥술잔)이라 했고, 은殷나라에서는 가斝(옥술잔)라고 하였으며, 주周나라에서는 작爵(술잔)이라 한다"고 했다.

《예기》의 주에는 "술잔으로서 1되들이를 작爵, 2되들이를 고觚, 3되들이를 치觶, 4되들이를 각角, 5되들이를 산散, 1섬들이를 호壺라고 한다"고 했다.

《잡설》에 말하기를 "《시경》〈진유溱洧〉편에 '작약을 꺾어준다(贈之以芍藥)'라는 구절이 있다. 대개 작약은 파혈破血하는 약용식물로서, 남자가 여자를 음란하게 하는 것이다. 〈동문지분東門之枌〉편에는 '나에게 산초山椒 한 줌을 쥐어준다(貽我握椒)'라는 구절이 있다. 아마 산초의 기운은 양기를 돋우는 약성藥性이 있

13 중국 최초의 의서醫書. 20권. 《소문素問》 · 《영추靈樞》의 양경兩經으로 나뉨. 황제의서黃帝醫書.

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음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일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나에게 산초를 한 줌 준다(貽我握椒)”라고 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인 “너를 금규화錦葵花처럼 곱게 본다(視爾如)”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잡설》의 풀이가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작약을 선물로 준다고 한 것은, 시주詩註를 상고하여 보니, “정鄭나라의 풍속에 3월의 상사일上巳日에는 상서롭지 않은 것을 물리친다. 그리고 작약은 3월에 꽃이 핀다”라고 했다. 그러니 선물로 준 것은 작약의 꽃이지 작약의 뿌리는 아니다. 이것은 아마 남녀가 서로 희롱하고 서로 선물을 주는 노래인 것 같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공자가 정성鄭聲(정나라의 음탕한 음악)은 배척하면서 위衛나라의 음악을 배척하는 데에 이르지 않은 것은, 위나라의 시는 모두 남자가 여자를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정나라의 시는 모두 여자가 남자를 음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정나라의 음악을 배척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세상에서 음탕한 음악을 말할 때에 정위鄭衛의 음音이라 하고, 위정衛鄭의 음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정鄭나라를 먼저 말하고 위衛나라를 뒤에 말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경》〈정풍鄭風〉에, “유녀동차有女同車”라는 글귀가 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을 상고하여 보니, 차車는 척차절尺且切이라고 했다. 그러니 ‘차’로 발음해야 한다. 지금 세속에서는 협음叶音(통용되는 음)의 관계로 ‘거’라고 읽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나오는 글귀인 “안여순화顔如舜華”를 보면, 화華·차車는 같은 운韻이니 운에 따라 차車로 읽는 것이 옳은 것이다.

《시경》〈풍우風雨〉의 주소註疏에, “풍우風雨에 군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난세가 되어서 군자가 그 절도를 고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선문選文》에는 말하기를, “풍우는 급하여도 그 소리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여어儷語》에 말하기를 “바람과 비는 서늘하건만, 닭은 홀로 울어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모두 이 뜻이다. 다만 주자朱子는 이 시를 음분淫奔의 시라고 단정했다. 또한 반드시 보는 바가 있어서 그리하였을 것이다.

《시경》〈계명鷄鳴〉에 말하기를 “닭이 이미 울었으니 조회朝會에 모이는 신하들이 이미 가득 찼겠습니다〔盈〕”라고 했다. 《예기》에 이르기를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옛날 후부인后夫人이 들어가 임금을 모실 때에 첫닭이 울면, 태사太史(나라의 법규 · 기록을 맡은 벼슬)가 폐하에게 닭이 울었다는 것을 보고한다. 그리하면 부인이 방 안에서 옥패물玉佩物을 울려 쟁그랑 소리를 낸다. 나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기를, “성인聖人은 천지에 순응한다. 음양의 이치로써 만물의 정장情狀을 관찰하여 밝으면 움직이고 어두우면 쉰다. 그런 까닭에 닭 울음으로 일찍 일어나는 절차를 삼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옛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닭이 울 때를 절차로 삼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경》〈권여權輿〉편에 “하옥거거夏屋渠渠”라는 구절이 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을 상고하여 보니, “하옥夏屋은 옛 주註에 제기祭器라고 하였으니, 음식을 담는 기구이다. 큰 집〔巨室〕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또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에는 “하夏는 크다는 뜻이고, 옥屋은 기구이다”라고 했다. 그 아래 장章의 “식사 때마다 사궤四簋(대그릇)를 주더니”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이 말이 유리有理한 것 같다. 그런데 주자가 옛 주註를 버리고 쓰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회남자》에, “대하성이연작하大厦成而燕雀賀〔큰 집이 이루어지더니 제비가 축하한다〕”라고 하였는데, 운서韻書에 “하夏는 큰 집이다”라고 했다. 양자楊子가 말하기

를, “하옥夏屋의 병몽帡幪(덮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하夏는 하厦와 통하는 글자가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기록해 말하기를, “하옥夏屋을 덮는다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시경》〈사철駟鐵〉편에 “재험헐교載獫歇驕”라고 한 구절이 있다. 김남창金南窓 현성玄成이 말하기를 “일찍이 《잡서雜書》를 보니, ‘그 험헐獫歇을 실으니 그 교驕가 빛난다(載其獫歇 其驕之文)’라고 한 것이 있어서, ‘험獫 · 헐歇 · 교驕는 다 사냥개의 이름이다’라고 한 주자의 주와는 다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를 상고하여 보니, “말(馬)이 6척이 되는 것을 교驕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도 또한 견해가 있는 것이다.

《시경》〈하광河廣〉편의 ‘일위항지一葦杭之’의 주에 “항杭은 건넌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운회韻會》에 “항航은 항杭과 통용하여 쓴다. 평성平聲이니 방주方舟(나란히 한 배)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제산항해梯山航海(산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며 바다에 배를 저어 건넌다)”라고 하는 항航과 같은 뜻이다.

《시경》〈황조黃鳥〉편에 “꾀꼬리가 날아서 관목灌木에 모인다(黃鳥于飛 集于灌木)”라는 글귀가 있고, 또 “날아서 오고 가는 꾀꼬리, 나무에 머무르네(交交黃鳥止于棘)”라고 한 글귀도 있다.
상고하여 보니 《금경禽經》에 말하기를 “육지의 새는 깃들인다고(棲) 하고, 물새는 잔다고(宿) 하며, 외로운 새는 머무른다고(止) 하고, 여러 새는 모인다고(集) 한다” 했다. 그렇다면 “꾀꼬리, 꾀꼬리야, 곡식밭에 모이지 마라(黃鳥黃鳥無集于穀)”라고 한 것은 여러 새를 일컬은 것이고, 《논어》에 “자는 새를 쏘지 않는다(弋不射宿)”라고 한 것은 물새를 가리킨 것이다.

《시경》에 나오는 "면만황조綿蠻黃鳥" 또는 "현환황조睍睆黃鳥"라는 글귀에 대해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옛 주註에 면綿은 문채가 나는 모양이라고 하고, 현환睍睆은 꾀꼬리의 빛깔이라고 했다. 현환은 두 글자가 모두 목目 변에 썼으니, 그것이 빛을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주註에 모두 새소리라고 한 것은 아마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운서韻書에 "환睆은 깨끗하고 좋은 모양이니, 《예기》에 빛나고 아름답다(華而睆)"라고 한 "환睆 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양신楊愼의 설이 유리有理한 것 같다. 다만 면만綿蠻은 왕균王筠의 시에 "여름새가 면만하게 운다(夏鳥鳴綿蠻)"라고 했고, 위응물韋應物의 시에는 "면면만만綿綿蠻蠻하고 우는 새소리, 정情이 있는 것 같다(綿綿蠻蠻如有情)"라고 하였으니, 옛 사람들은 본래부터 면만綿蠻을 새소리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시경》에 "동문의 못에 골을 축일 만하구나(東門之池 可以漚菅)"라고 한 구절의 주에 "관菅은 잎이 띠(茅) 같고, 부드럽고 질겨서 새끼 꼬기에 알맞다"라고 했다. 또 "백화관혜白華菅兮"라는 구절의 주에 "백화白華는 야생하는 골(菅)이다. 이미 축여 골(菅)로 만들었다"고 했다. 왕유王維의 사詞에 "물결이 놀라니 푸른 골(翠菅)이 쓰러진다"라고 하였는데, 《당시해唐詩解》에 말하기를 "수총水葱이니 속이 비었다. 또한 취관翠菅이라고도 부르며, 그것으로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당육전唐六典》에는 말하기를 "동모군東牟郡에서 해마다 수총석水葱席을 공납貢納한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완초莞草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시경》〈사간斯干〉편의 "하완상점下莞上簟(아래는 부들자리 위에는 삿자리)"이라는 글귀의 주에는 "완莞은 작은 부들로 만든 자리다"라고 했고, 《운회韻會》에는 "완莞을 관菅이라고 쓰기도 한다. 야관野菅과는 다르다"라고 했다.

《시경》에는 "과녁을 벗어나지 않음이여(不出正方)"라고 했고, 《주례周禮》에는

“사구司裘(왕의 제복을 맡은 관원)가 그 곡鵠(가죽에 새를 그린 과녁)을 설비한다”라고 한 주注에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에서는 견조肩鳥를 정正(활 쏘는 과녁, 베에 새를 그린 것)에 그렸다. 그 새는 빠르고 약아서 활로 쏘아 맞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곡鵠도 또한 작은 새로서 맞히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사기》에 말하기를,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곡은 작은 새가 아닌 것 같다.《맹자》에 말하기를 “기러기와 고니가 장차 이르니 줄 달린 화살을 잡아 쏘기를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마 곡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쏘아 맞히고자 하는 새인 까닭에 그 이름을 따서 과녁을 표시한 것이 아닐까.

《시경》〈칠월七月〉편의 “유월식울급욱六月食鬱及薁(6월에는 아가위와 머루를 먹는다)”의 주에 “욱薁은 영욱蘡薁이다”라고 했다.《본초本草》를 상고하여 보니, 영욱은 산포도山葡萄이다. 잎은 포도 같고, 열매는 작으며 맛은 시다. 즉 지금 세속에서 소위 산포도라고 하는 것이다.

《시경》〈칠월〉편에 “5월에 사종斯螽(메뚜기)이 다리를 움직이고, 6월에 사계莎鷄(베짱이)가 날개를 떨치며, 7월에는 들에 있고, 8월에는 처마 밑에 있으며, 9월에는 문간에 있고, 10월이 되면 귀뚜라미가 나의 침상 밑에 들어온다”라고 한 글귀의 주에 “사종斯螽 · 사계莎鷄 · 실솔蟋蟀은 한 가지 생물인데, 때를 따라 변화하여 그 이름을 달리한다”고 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세 가지는 모두 다른 생물이다. ‘7월에는 들에 있고’라고 한 이하는 실솔蟋蟀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 설도 또한 유리有理하다.

《시경》〈동산東山〉편 속에 있는 “관명우질鸛鳴于垤”이라고 한 글귀의 주에 “질垤은 개밋둑(蟻塚)이다. 장차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면 구멍에 사는 생물이 먼저 안다. 그런 까닭에 개미가 개밋둑에 나온다. 그리하면 황새가 그것을 먹고 드

디어 그 위에서 운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속박물지續博物志》에 말하기를, "황새가 고개를 숙이고 울면 흐리고, 고개를 들고 울면 갠다"라고 했다. 《운회韻會》에 "질垤은 흙의 높은 곳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개밋둑이 질垤과 같다는 것이다. 《맹자》에 "태산泰山이 구질丘垤에 대하여"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시경》의 말은 아마 본 것에 따라 지은 것일 것이다. 주자가 《맹자》를 주석하면서 질垤을 곧 개밋둑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지 알지 못하겠다.

《시경》〈동산〉편에 있는 "습요소행熠燿宵行"이란 글귀의 주에 "습요熠燿는 밝은 것이 일정하지 않고 깜박깜박하는 모양이다. 소행宵行은 벌레 이름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이백李白이 주註하되 "습요는 인燐이다. 인燐은 반딧불(螢火)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다만 습요가 나는 것을 놀랄 뿐이고, 섬여蟾蜍(달의 두꺼비)가 이미 고친 것은 깨닫지 못했다(但驚飛熠燿 不記所蟾蜍)"라고 하여 또한 습요를 반딧불이라고 하고 있다. 또 《본초》와 《대학연의》의 주에서도 습요를 반딧불이라고 했다. 아마 습요가 밤에 날아다니는 것을 말한 것이리라. 주자의 주는 아마 그 아래 장에 나오는 "습요기우熠燿其羽"라고 한 글귀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리라.

《시경》〈상체常棣〉편에, "상체지화常棣之華 악불위위鄂不韡韡"라는 글귀가 있다. 《운부韻府》를 상고하여 보니 "악鄂은 악蕚과 통용한다"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악鄂은 화포花苞(화관花冠 아래에 있는 비늘 같은 조각)이다. 지금의 글에는 악蕚(꽃받침)이라는 글자를 쓴다"라고 했다. 옛날의 주소註疏에는 "꽃 아래에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아래에 껍질이 있어서 꽃과 꽃받침이 서로 받들어 덮고 있다. 그런 까닭에 위위韡韡하게 광채가 나고 밝을 수 있다(華下有蕚 蕚下有跗 華蕚相承覆 故得韡韡而光明也)"라고 했다. 심약沈約의 시에, "기운이 왕성한 복사꽃과 오얏꽃 푸른 꽃받침에 흰 꽃받침 머금었네(氤氳桃李花 青蕚含素蕚)"라고 했

고, 당명황唐明皇 때에는 화악상휘지루花蕚相輝之樓가 있었으니, 이 뜻을 따서 쓴 것이다. 주자의 주에, 악鄂을 "악연鄂然(두려워하는 모양)하게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이라고 한 것은 아마 따로 근거하는 바 있을 것이다.

《시경》〈채미采薇〉편에 있는 "상미어복象弭魚服"이라는 글귀의 주에 "어수魚獸의 이름이니 동해에 있다. 그 껍질은 등 위에는 아롱진 무늬가 있고 배 밑은 순청純靑이니 활집이나 화살 넣는 통을 만들 만하다"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시속에서 소위 물소라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동해에 우어牛魚가 있으니 그 형체가 소와 같다. 그 가죽을 벗겨서 달아두는데, 조수潮水가 들어오면 털이 일어서고, 조수가 빠지면 털이 눕는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이것일 것이다.

《시경》의 "석아백붕錫我百朋"이라는 글귀의 주에 "오패五貝를 붕朋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운서韻書를 상고하여 보니 "패貝는 바다의 개충介蟲이다. 옛날에는 화패貨貝를 보귀寶龜라고 하였더니, 진秦나라 때에 패를 폐지하고 돈을 사용했다"라고 했다.

貨(재물 화)·寶(보배 보)·貲(재물 자)·財(재물 재)·貧(가난할 빈)·贓(장물 장)·賕(뇌물 구)·賄(뇌물 회)·賜(줄 사)·賚(줄 뢰)·贈(줄 증)·賞(상줄 상)·賈(팔 고)·販(판매할 판)·買(살 매)·賣(팔 매) 등의 글자들은 모두 패貝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소설小說》에 "패貝를 나누면(分) 가난하다(貧)"라고 하였으니 역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술이 없으면 내가 사오리라"라고 했다. 옛사람들도 모두 사온 술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홀로 공자孔子만이 먹지 않았던 것은 아마 특히 그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함이 아니고 구차하게 먹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경》 "근도여이堇荼如飴"의 주에 "근堇은 오두烏頭(독초毒草이며 약에 씀)이고 도荼는 씀바귀다.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식물의 독이 있는 것이나 쓴 것도 또한 달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사기》에 "여희驪姬가 고기에 근堇을 넣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예기》에 "근堇 · 훤萱 · 분枌 · 유楡"라고 했고, 운서韻書에는 말하기를 "근堇은 뿌리가 냉이 같고, 쪄서 먹으면 달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근堇이라고 한 것은 《시경》에서 말한 근堇과는 다른 것이다.

《시경》에 "화난옹옹和鸞雝雝"이라는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방울이 멍에(軛)에 있으면 난鸞이라 하고, 수레 앞 가로막이나무(軾)에 있으면 화和라고 한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말하기를 "푸른 봉鳳을 난鸞이라고 하는데, 암컷을 화和라 하고, 수컷을 난鸞이라고 한다. 상고上古 때에 임금의 수레가 순하게 움직이니, 이 새가 문득 수레 위에 모여서 수컷은 앞에서 울고, 암컷은 뒤에서 호응했다. 후세에 화和 · 난鸞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상징했다. 따라서 그것을 난장鸞仗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육기陸機의 시에 "우기羽旗에는 가벼운 난鸞이 깃들이고, 임금의 옥패玉佩는 화和 새의 울음에 조화된다(羽旗棲輕鸞 玉衡吐鳴和)"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시경》에 "딸을 낳으면 땅에 뉘어 기왓장을 가지고 놀게 한다(乃生女子 載寢之地 載弄之瓦)"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조대가녀계曹大家女誡》에 말하기를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 3일 만에 침상 아래에 뉘고, 기왓장과 벽돌을 놀리면서 재계齋戒하여 고했다"라고 했다. 주석註釋하는 이가 말하기를, "기와와 벽돌은 지금의 방전紡磚(방적紡績의 기구로 쓰는 벽돌)이다. 손으로 그 방전을 집어서 가지고 돌리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하여 노고勞苦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어찌 난 후 3일 만에 능히 손으로 기와와 벽돌을 가지고 노는 자

가 있겠는가. 대체로 옛 사람이 딸을 교양하는 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지금 부녀婦女들은 베 짜는 일을 친히 하지 않는 이가 많다. 그들이 평소에 그것에 대한 교양이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남자이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옛사람만 못한 것을 여기서도 또한 알 수 있다.

《시경》의 "삐걱삐걱 차축車軸의 걸쇠는 마찰한다(間關車之舝兮)"로 시작된 〈거할車舝〉편을, 전傳에는 신혼 잔치에 주악奏樂하는 시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혼례에 축하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질서이다. 또 신부를 맞이한 집에서 3일 동안 풍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은 승사承嗣한 어버이를 생각하기 때문이니, 신혼에 어찌 연악燕樂이 있겠는가. 《소서小序》에 말하기를 유왕幽王이 무도하니 시인이 어진 여인을 얻어서 군자에게 배우配偶 되기를 생각하여 지은 시라고 하였는데, 이 뜻이 좋다"라고 했다.
지금 그 시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는 말로 되어 있다. 양신의 설이 유리有理한 것 같다.

《시경》에 "저 높은 언덕에서 봉황이 우네. 저 조양朝陽에 오동나무가 났네(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는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산의 남쪽을 양陽이라 하고, 동쪽을 조양朝陽이라 하며, 서쪽을 석양夕陽이라고 한다. 《당사唐史》에 "봉황이 조양에서 운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여기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어떤 이가 조양朝陽을 '아침 해'라고 범연히 보아 넘긴다면 잘못일 것이다.

《시경》에 "명령螟蛉(나비 · 나방의 유충幼蟲으로서 빛이 푸른 것)이 새끼를 가지니 과라蜾蠃(나나니벌)가 업어 가네(螟蛉有子 蜾蠃負之)"라고 한 글귀의 주소註疏에 "과라蜾蠃는 포로蒲盧이다. 포로는 뽕나무 벌레의 새끼를 업어 가서 소중히 길러서 제 새끼로 만든다"라고 했다.

《시화詩話》에 말하기를, “허리가 가는 벌은 있는 곳이 일정하다. 매양 그 방房을 파괴할 때마다 어떤 때는 그 알이 다른 벌레와 함께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새끼는 이미 가버리고 다른 벌레가 빈 껍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떤 때는 다른 벌레가 번데기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열옹蠮螉(나나니벌)은 새끼를 낳으면 작은 좁쌀만 하다. 그것을 다른 벌레의 몸에 붙여 둔다. 그리하여 다른 벌레가 그 알을 깨뜨리지 않고, 변하여 번데기가 되면 그 새끼가 나와서 그 번데기를 먹는다. 번데기가 다 없어지면 새끼는 가버린다. 시를 설명하는 이는 이 글귀의 다음에 식곡사지式穀似之라는 말 가운데에 사似라는 글자를 같다는 뜻으로 하지 않고, 아마 사속似續(즉 사似는 사嗣와 같으니 후사後嗣로 한다는 뜻)의 뜻으로 잘못 알았던 것 같다. 그리하여 너와 같게(似) 만들라는 뜻인데, 잘못 생각하여 너의 사속似續으로 하라고 풀이하였던 것이다. 거기에서 드디어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러한 사리에 맞지 않는 설이 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장자》에 말하기를 “허리가 가는 벌이 변화한 것이다”라고 했고, 《설문說文》에는 말하기를 “세요봉細腰蜂은 순웅純雄(수벌뿐이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이 글 뜻을 가지고 본다면 주소註疏가 옳은 것 같다.

《시경》의 “경행행지景行行止”라는 글귀의 주에 “경행景行은 큰길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는 말하기를 “경景은 밝다는(明) 뜻이다. 밝은 덕을 밝게 행하는 것이다. 지금 경모景慕(우러러 사모함)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예기》에서 이 시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도道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하고, 그 주소註疏에 말하기를, “경景은 일영日影(햇빛)과 같은 뜻이니,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효경孝經》의 서序에 말하기를, “경행선철景行先哲이란 말은 그의 덕행을 경모景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경모라는 용어는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시경》에 "점점지석漸漸之石"이라는 글귀가 있다. 점漸의 발음은 참巉이다. 주註에, "점점漸漸은 산석山石이 높고 험준한 모양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운회韻會》에 "참巉은 참嶄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다. 《한상여전漢相如傳》에 "참암嶄巖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양이니 또한 점漸으로 쓰기도 한다. 《시경》에서 점점지석漸漸之石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참巉은 참嶄과 같은 글자이다. 한퇴지韓退之의 글에, "높다랗게 두각을 나타낸다〔嶄然見頭角〕"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이다.

《시경》〈진로振鷺〉편에 "저 서쪽 못에서 백로白鷺가 떼 지어 날아드네, 우리의 손님이 돌아옴에 또한 백로 같은 결백한 모습이로다〔振鷺于飛 于彼西雝 我客戾止 赤有斯容〕"라는 글귀가 있다. 주에 말하기를 "이것은 두 왕의 후예가 와서 제사를 돕는 것을 읊은 시이니, 용모의 정제함이 또한 백로와 같이 결백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홀로 용모가 깨끗하고 정제한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은殷나라에서는 흰빛을 숭상하였으므로 그의 의용儀容이 백로처럼 흰 것을 말한 것이리라. "손님 손님이 오는데, 그 말도 또한 희구나〔有客有客 亦白其馬〕"라고 한 글귀와 같은 뜻인 것 같다.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에 은殷나라의 왕족인 미자微子를 송나라의 왕으로 봉했고, 무왕武王 때에 하우씨夏禹氏의 후예인 동루공東樓公을 기杞 땅에 봉후하였는데, 그 두 왕의 후손이 주周나라에 제사를 도우려고 들어오는 모습을 노래한 시라고 한다.

《시경》〈비궁閟宮〉편에 "변두대방籩豆大房"이라는 글귀가 있다. 주註에 "대방大房은 반체半體의 조俎이다"라고 했다. 《예기》에 있는 "주이방조周以房俎"의 주에 "조俎의 위 · 아래 두 사이에 마루방〔堂房〕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국어國語》에 "왕공王公이 어飫가 성립되면 방증房烝이 있다" 하

고, 주註하여 말하기를 "예禮가 성립된 것을 어飫라고 한다. 방房은 큰 제기(大俎)이다. 증烝은 승升이니 올린다는 뜻이다.
즉 생牲의 반체半體를 분해해서 조俎 위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소위 대방이라는 것은 하옥夏屋이라는 것과 뜻이 서로 가까운 것이다.

《시경》에 "불일성지不日成之"라는 글귀가 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옛 주에는 '기일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주에는 '하루가 다 못 되어서'라고 했다. 기일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문왕文王의 어짊이 드러나고, 또 사리事理에도 맞는다. 그러나 만약 '하루가 다 못 되어서'라고 풀이한다면 어찌 하루 동안에 한 누대樓臺를 지어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나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그 위의 글인 "여러 백성들이 아들처럼 오니"라는 말을 받아서 그것이 성취되기 쉽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니, 말을 트집 잡아서 그 뜻을 해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경》에 "태왕太王에 이르러서 실로 상商나라를 전벌剪伐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했다. 《사기》에 문왕文王이 말하기를 "나의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吾太公 望子久矣)"라고 했다. 즉 이것으로 태공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상고하여 보니, 태백太伯(태왕의 맏아들)과 우중虞仲(태왕의 둘째아들)이 태왕의 계력季歷(태왕의 막내아들)을 임금으로 세워 창昌(뒷날의 문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고, 드디어 형만荊蠻으로 도망해 가서 계력季歷에게 지위를 양보했다고 한다.
그들은 반드시 태왕이 상나라를 제거하려는 의사를 엿보고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나라를 사양한다고 칭탁하고는 도망한 것이리라. 이것은 백이伯夷 · 숙제叔齊의 마음을 먼저 얻었던 것일까. 공

자가 그들을 지덕至德이라고 칭찬하였으니 그 뜻이 미묘하다.

《시경》〈상송商頌〉의 〈은무殷武〉편에 “빠르도다, 은왕殷王의 무용武勇하심이여! 발분하여 형초荊楚를 치시고, 깊숙이 그 험조險阻한 곳에 들어가서 형초의 무리들을 모아서 그 땅을 끊은 듯이 간추리셨네(撻彼殷武 奮伐荊楚 深入其阻 裒荊之旅 有截其所)”라고 한 글귀가 있다. 그 주에 “은殷나라의 도가 쇠약해지니, 초楚나라 사람이 배반했다. 은나라의 고종高宗이 그것을 정벌했다. 깊이 그 땅의 험조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모두 평정했다. 《역경》에 말하기를 고종이 귀방鬼方을 쳐서 3년 만에 이겼다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지금의 귀주貴州는 본래 나시귀지羅施鬼地이니, 이것이 옛날의 귀방鬼方인가. 그렇다면 《잡서雜書》에 북적北狄(북쪽 오랑캐)을 귀방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시경》에 “부드럽게 부는 동풍이 흐리게 하기도 하고 비 오게 하기도 한다(習習谷風 以陰以雨)”라고 했고, 또 “북동이 서늘하여 함박눈이 쏟아지네(北風其涼 雨雪其雱)”라고도 했다.

대체로 동북풍東北風이 불면 비가 오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동쪽이나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남쪽이나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동東과 북北은 양陽에 속한다. 양陽이 부르면 음陰이 화답하기 때문이다. 지금 장안長安에서 서풍이 불면 비가 오는 것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아마 그것은 산세山勢가 그렇게 하는 것이리라. 우리나라의 일을 말한다면, 동남풍이 불면 비가 오고, 서북풍이 불면 갠다. 그리고 또 철령鐵嶺 이북에서는 남풍이 불면 가물고, 북풍이 불면 비가 온다. 산세나 혹은 바다 기운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시경》에 “산에는 진榛(개암나무)이 있고, 진펄에는 영苓(감초)이 있다”라고 했고, 또 “수양산首陽山의 산정에서 영苓을 캔다”라고도 했다.
상고하여 보니, 《운회韻會》에 말하기를 “《설문說文》에 영蘦은 대고大苦이니 영苓과 통용한다” 했고, 또 “연蓮은 영苓과 통용한다”라고도 했다. 매승枚乘의 〈칠발七發〉[14] 속의 “만초방령蔓草芳苓”의 주에 “영苓은 옛날의 연蓮이라는 글자이다”라고 했고, 조자건曹子建의 〈칠계七啓〉에도 또한 말하기를, “방령芳苓에 깃들인 거북을 가져다가(搴芳苓之巢龜)라는 글귀의 ‘영苓’이란 글자는 ‘연蓮’이란 글자로 읽는다”고 했다. 그러니 《시경》의 “山有榛 隰有答 采答首陽之巓”이라고 한 글귀의 진榛·전巓과 같은 운韻인 연蓮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진펄에 나는 식물이니 “진펄에는 연꽃이 있다(隰有荷花)”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경》에 “척령脊令[15]이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난急難에 서로 구하네(脊令在原兄弟急難)”라는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할미새(鶺鴒)는 날면 울고, 걸을 때면 머리와 꼬리를 흔들어서 서로 호응한다. 그런 까닭에 형제에 비한 것이다. 또 《정씨시전鄭氏詩箋》에 말하기를 “척령鶺鴒은 물새다. 당연히 물에 살아야 할 것인데 그곳을 잃고 언덕에 있기 때문에 급난急難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 설이 논리에 맞는 것 같다.

《시경》의 〈주남周南〉·〈소남召南〉편은 문왕文王의 덕화德化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말한 것이다. 또 《시경》에 말하기를 “아雅로써 하고 남南으로써 한다(以雅以南)”라고 했다.

14 매승은 한漢나라 회음淮陰 사람. 자는 숙叔. 일찍이 양梁의 효왕孝王에게 벼슬하였는데, 효왕이 배반할 것을 염려하여 〈칠발七發〉이라는 글을 지어 간諫했다. 〈칠발〉은 《초사楚辭》 중에 동박삭東方朔의 〈칠간七諫〉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15 할미새. 걸어 다닐 때 항상 꽁지를 아래위로 흔들어 화급한 일을 알리는 것 같으므로 위급危急·곤란困難의 비유로 쓰임. 또 ‘척령재원鶺鴒在原’이라는 한 구句로 쓰이는 데 그 뜻은,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 비유로 쓰인다. 척령脊令과 척령鶺鴒은 같은 말이다.

상고하여 보니,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남南은 악곡樂曲의 이름이니, 구하九夏[16]와 같은 것이다. 남南과 하夏는 다 문명文明(빛나고 밝음)한 방위이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것이다. 〈주남周南〉·〈소남召南〉도 역시 악곡의 명칭이다. 기記에 말하기를, '북을 쳐서 아雅와 남南을 연주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이 설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 근본 출처를 알 수 없다.

《시경》의 〈아雅〉와 〈송頌〉은 모두 10편씩을 묶어서 습什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국풍國風〉[17]은 편수의 많고 적음이 같지 않으므로 습什으로 일컫지 않는다. 후인後人들이 드디어 시장詩章을 습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그러나 한두 편의 시는 습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것이다.

《시경》에 "연이신혼燕爾新昏"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새로 혼인한 자를 연이燕爾라고 한다. 또 "봉황우비鳳凰于飛"라는 글귀가 있다. 그래서 부부夫婦가 같이 다니는 것을 우비于飛라고 한다. "우우형제友于兄弟"니, "형제구이兄弟具爾"니 하는 글귀가 있다. 그래서 형제를 우우友于니, 구이具爾니 하고 말한다. "이궐손모貽厥孫謀"라는 글귀가 있다. 그래서 조고祖考를 이궐貽厥이라고 한다. 이런 등류가 많다.

《시경》에는 '탄誕'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했다. 그리하여 크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탄誕은 발어사일 뿐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다만 탄미궐월誕彌厥月(열 달이 다 차다)이라는 글을 근거로 하여 드디어 생일을 탄일誕日이라고 하는 것은, 탄誕이라는 글자의 옛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16 주대周代에 조정에서 연주하던 9가지 주악奏樂.

17 《시경》의 분류의 하나. 〈주남周南〉·〈소남召南〉 이하 열다섯 국풍國風이 있는데, 주로 여러 나라의 민요를 수록했다.

10-3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남교南交에 살게 했다”라는 말이 있다. 주에 “남교南交는 극남교지極南交趾이다”라고 했다.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말하기를 “남쪽으로 교지交趾(한漢나라 때의 군명郡名. 지금의 베트남을 통칭하며 하노이 부근)를 안무安撫한다”라고 했다. 그러니 교지라는 이름은 대체로 오래된 것이다.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요堯임금 때에 월상국越裳國이 천세구千歲龜라는 것을 바쳤는데, 천지개벽 이래의 일을 기록했다. 이름을 구력龜曆이라 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월상이 중국과 통한 것은 주周나라 때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윤자胤子 주朱가 열리고 밝으니(胤子朱啓明)”라고 했다. 주朱는 이름이다. 단주丹朱의 단丹과 상균商均의 상商은 아마 다 봉읍封邑의 이름일 것이다.

《서경》의 “종이조화宗彝藻火”라는 말의 주에 “종이宗彝는 호이虎彝(범을 그린 제기祭器와 술잔)와 유이蜼彝(꼬리가 긴 원숭이를 그린 제기와 물병)로써 그 동물들의 효도함을 취한 것이다”라고 했다. 《예기》에 “소종백小宗伯[18]은 육이六彝[19]를 맡는다”라고 한 주에 “호이虎彝·유이蜼彝를 종이宗彝라고 하니 이는 종묘의 상용常用 그릇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해편심경海篇心鏡》에 “유蜼의 음은 우又니, 짐승으로서 원숭이와 같다. 또 유蜼라고도 쓰는데, 음을 루壘라고도 하니, 원숭이의 족속으로 들창코에 꼬리가 길다”라고 했다. 《예부운禮部韻》에 “유蜼의 음은 유柚이니 짐승

18 주周의 벼슬 이름. 춘관春官에 속하며 종백宗伯의 다음임. 뒤에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고쳤다.

19 옛날 종묘에서 쓰던 6가지의 제기祭器이니, 즉 계이鷄彝, 조이鳥彝, 호이虎彝, 유이蜼彝, 가이斝彝, 황이黃彝를 말한 것.

이름이다"라고 했고,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유蜼와 유狖(검은 원숭이)는 같다"고 했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부賦에 "유확蜼玃과 비뢰飛蠝(박쥐)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했다.

《순전舜典》에 "문조文祖의 사당에서 수종受終[20]했다"라고 하고 주에 "문조는 요임금 시조의 사당이다"라고 했다. 또 "돌아와 예조藝祖에 이르러"라고 한 글의 주에 "예조는 아마도 문조일 것이다"라고 했다. 송나라 사람들이 조태조趙太祖를 예조藝祖라고 하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아마 역시 시조라는 일컬음일 것이다.

《서경》에 "백수솔무百獸率舞(온갖 짐승이 따라 춤추다)"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새와 물고기도 다 짐승이라고 한다"고 했다. 대체로 옛날에는 짐승이라고 하면 새까지를 통칭하였던 것이다. 궤우획금詭遇獲禽(빠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냥함)이니 화타오금희華陀五禽戲[21]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온갖 짐승이 복종하는 것은 기른 자에게 들이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만약 이 말과 같다고 한다면 당명황唐明皇이, 말과 물소와 코끼리에게 춤을 가르쳤다는 것이 이것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화和한 덕이 지극하여 온갖 짐승들이 스스로 능히 즐겨 춤추는 것이고, 가르쳐 익혀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봉황이 와 춤춘 것이 어찌 잡아매어 오게 한 것이겠는가.

20 제위帝位에 오르는 것. 요제堯帝가 마친 뒤를 이어받는다는 뜻이다.

21 화타華陀가 양생의 방법으로 범 · 사슴 · 곰 · 원숭이 · 새를 거느리고 즐겨 희롱했다는 고사. 화타는 후한後漢 때 초譙의 사람이니 자는 원화元化. 벼슬에 부름을 받았으나 가지 아니하고, 양성술養性術에 통하여 나이 100세가 되어도 오히려 장壯했다고 한다. 의술에 뛰어났다. 화타 · 편작扁鵲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명의名醫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서경》에 "방에 올라 드디어 죽다(陟方乃死)"라는 말이 있다. 양신이 말하기를 "《가어家語》에는 방악方嶽에 올라 창오蒼梧의 들에서 죽었다고 쓰여 있으니 방方을 방악方嶽으로 한 것이며, 이것은 《국어國語》에서 순舜임금이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여 들에서 죽었다고 한 글과 합치하며, 글의 뜻도 또한 순탄하다"라고 했다. 오도부吳都賦에 "양梁나라의 백성이 어찌 척방陟方의 관館과 행관行官의 터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대체로 천자가 순수巡狩하는 일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주에 승하昇遐로 풀이한 것은 그 아래에 나오는 글의 "드디어 죽다"라고 하는 말과 중복된다.

《서경》에 말하기를 "당우唐虞에서는 관제官制를 마련함이 오직 100뿐이었는데,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에서는 관원이 배倍로 늘어났다"라고 했다. 기記에 말하기를 "유우씨有虞氏는 관官이 50이었고, 하후씨夏后氏는 관이 100이었으며, 은殷나라에서는 200, 주周나라에서는 300이었다"라고 하여 그 설이 같지 않다. 지금 《주례周禮》를 가지고 고증하여 보니, 주나라 때의 관을 설치한 수는 매우 많아서 다만 300뿐만이 아니었다. 삼대三代 이후로 일이 점차 복잡해지고 관원은 더욱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서경》〈우공禹貢〉에 말하기를 "운雲이란 못에는 흙이 비옥하고, 몽夢이란 못은 잘 다스려져 편안하다"라고 했다.
《좌전左傳》에 "초자楚子가 강을 건너 운雲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또 "정백鄭伯이 초楚나라에 가서 강남江南의 몽夢에서 사냥했다"라고 했다. 운雲과 몽夢은 둘 다 못(澤)의 이름이다. 맹호연孟浩然의 시에 운몽택雲夢澤으로 악양성嶽陽城의 대구對句를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상서尙書》에 "우禹가 드디어 모든 제후들을 모아 놓고 무리에게 맹세했다"라고 했다. 《예기》에 말하기를 "고誥니 서誓니 하는 것이 오제五帝 때에는 없었

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고誥를 지어야 하고, 서誓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도가 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공禹貢〉 한 편이 천고千古의 서사문敍事文의 조종祖宗이 되었다. 그 다음은 《주서周書》의 〈고명顧命〉편일 것이다. 《마사馬史》〈화식전貨殖傳〉은 우공禹貢을 모방한 것이고 《반서班書》〈곽광전霍光傳〉은 〈고명顧命〉의 문체를 배운 것이다.

《서경》에 말하기를 "감히 궁실宮室 안에서 항상 춤추고 술 취해 노래 부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무당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악女樂이 일어난 것은 무당에게 근본이 있다"고 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서경》에 말하기를 "만약 국을 조미調味한다면 너는 오직 소금이며 매실梅實이 돼라(若作和羹 爾惟鹽梅)"고 했다. 《시경》에는 말하기를 "떨어지는 매화여, 그 열매는 7개로구나"라고 했다. 아마 옛사람들은 매실나무에 대해 그 열매를 소중히 여기고, 그 꽃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심상한 초목으로 보았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묘문墓門(산소山所의 경내로 들어가는 문)에 매실나무가 있으니 도끼를 써서 베어 버린다"라고 했고, 《이소離騷》에서도 매화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제齊나라 · 양梁나라 때에 이르러 음갱陰鏗 · 하손何遜이 매화를 음상吟賞한 뒤부터 드디어 꽃으로서 매실나무는 이름나게 되었으니, 대체로 알아주는 이를 늦게 만난 것이다.

〈태서泰誓〉에는 말하기를 "13년 봄에 크게 맹진孟津에 모였다"고 하고, 〈홍범

洪範〉[22]에는 "13사祀에 왕이 기자箕子를 방문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삼대에는 해〔歲〕에 대해서 각각 특별한 명칭이 있었다. 당우唐虞에서는 재載라 하고, 하夏나라에서는 세歲라 하며, 상商나라에서는 사祀라고 하고, 주周나라에서는 연年이라고 했다. 주나라가 이미 상나라를 멸망시켰는데, 〈홍범〉에서 연年이라고 쓰지 않고 사祀라고 한 것은 기자箕子 때문이다.

《서경》에 "그 몸이 강강康强하고 자손이 봉길逢吉하다"라고 한 글귀가 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옛 주에, 봉逢의 음을 방龐이라고도 하는데, 창성昌盛하다는 뜻이다. 강强과 운韻을 맞춘 것이고, 길吉이란 글자는 아래에 나오는 여러 길吉 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집선전集仙傳》의 방녀龐女를 어떤 책에서는 봉녀逢女라고 쓴 것이 있다. 아마 옛날에는 두 글자를 통용했던 것 같다.

《서경》에 명조鳴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鳴鳥不聞〕"라는 말이 있다. 주註에 "명조는 봉鳳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산해경》에 말하기를 "감주弇州의 산에 오채五彩가 찬란한 새가 하늘을 우러러 울었으므로 명조라고 한다"고 했다. 아마 명조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서경》에 "혜선환과惠鮮鰥寡"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鮮은 선先과 같으니, 옛날에는 통용하던 글자이다. 문왕文王이 서민庶民을 생각하여 보호하였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늙은 홀아비와 나이 많은 과부에게 은혜를 더욱 더하여 번번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미치게 했다. 맹자가 말하기를, '문왕이 정치를 시행하여 어짊을 베풀 때에는 반드시 이 환과고독鰥寡孤獨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우선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22 하夏나라 우禹임금 때에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구神龜의 등에 있었다는 9장의의 문장文章으로서,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대법大法으로 삼는 것.

《용재수필容齋隨筆》에 말하기를 “〈홍범洪範〉 4의 5기紀에, ‘첫째는 세歲, 둘째는 달, 셋째는 날, 넷째는 성신星辰, 다섯째는 역수曆數〔一曰歲, 二曰月, 三曰日, 四曰星辰, 五曰曆數〕’라고 했다. 이것은 곧 다음의 글에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임금이 오직 살펴야 할 것은 해요, 경사卿士가 살펴야 할 것은 달이며, 사윤師尹이 살펴야 할 것은 날이다〔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

그리고 ‘달이 별을 좇으므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느니라〔月之從星 則以風雨〕’라는 글은 곧 오황극五皇極에 붙여야 할 것이다. 오황극의 글 가운데에도 또한 구오복九五福의 글이 섞여 있다. 그것은 ‘이 오복五福을 거두어 펴서 뭇 백성들에게 주면〔斂時五福用 敷錫厥庶民〕 무릇 그 정인正人은 이미 부하게 하고서야 바야흐로 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凡厥正人 旣富方穀〕. 네가 능히 네 집에 좋게 하지 못하면 이는 사람들이 허물하리라. 그 덕을 좋아하지 않는 이에게 네 비록 복을 줄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허물되게 할 뿐이다〔汝不能使有好于家 時人斯其辜 于其無好德 汝雖錫之福 其作汝用咎〕’라고 하는 것과, 위의 글에서 ‘온화한 얼굴빛으로 백성을 대하라. 그리하여 나는 덕을 좋아한다고 하거든 너는 그에게 복을 주라〔而康而色 曰予攸好德 汝則錫之福〕’고 순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선유先儒도 또한 말하기를 “〈홍범洪範〉은 간편簡片(글을 새긴 대나무 조각)의 편차編次가 탈락脫落되고 잘못되어서 그 선후의 차례를 잃었다”고 했다. 이 설이 그런 것 같다.

또 말하기를 “〈무성武成〉편은 ‘임금이 아침에 주周나라로부터 걸음 하시어 상商나라를 치다〔王朝步自周 于征伐商〕’라는 대목에서 곧바로 ‘상나라의 죄를 들어 황천皇天과 후토后土에 고하고〔底商之罪 告于皇天后土〕’라고 한 글에 이어서 이하, ‘한 번 융의戎衣를 입어서 천하가 크게 정하여졌다〔一戎衣 天下大定〕’라는 대목에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곧 ‘그 4월 달의 밝음이 비로소 생기는 날에〔厥四月哉生明〕’라는 글에 잇고, 이하 ‘나 소자小子 그 뜻을 승계했다〔于小子 其承厥志〕’라는 대목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한 뒤에 ‘이에 상나라의 정사를 돌려받아서〔乃反商政〕’라는 대문에 잇고, 종편終篇에 이르게 한다면 차례가 또한 어지럽지 않을 것이

다”라고 했다. 그 설이 유리有理한 것 같다.

〈금등金縢〉편에 말하기를, “너 삼왕三王[23]은 비자丕子[24]의 책임을 하늘에 지고 있으니, 단주공旦周公의 이름으로 아무개(무왕武王을 가리킴)의 몸을 대신하게 하소서(若爾三王 是有丕子之責于天 以旦代某之身)”라고 했다. 채심蔡沈[25]의 주에, “무왕이 하늘의 원자元子가 되니, 삼왕은 마땅히 그를 보호할 책임을 하늘에 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무왕으로 하여금 죽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너 삼왕(若爾三王)이라고 한 것은 삼왕을 불러서 고한 말이고 ‘시是’는 무왕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무왕은 원자로서의 책임을 하늘에 대하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기》에 비자丕子를 부자負子라고 쓰고, 주에 말하기를 “삼왕이 상천上天의 책임을 졌다”라고 했다. 이 말은 옳지 않다.

장태악張太嶽이 말하기를 “《서경》에서는 백성을 말할 때에 모두 백관百官이라고 말했다. 옛날에는 세족世族[26]이 혹은 벼슬로 씨氏를 삼기도 하였으며, 아버지 · 할아버지의 이름 글자나 혹은 봉읍으로 씨를 삼기도 했다. 오직 벼슬을 살고 작록이 하사된 자라야 비로소 성姓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황제黃帝의 25인의 아들 가운데서 성을 얻은 자는 14인뿐이었다. 요임금은 구족九族[27]이 이미 화목하매 백성을 고르게 밝히시고, 백성이 소명昭明하니 만방萬邦의 여민黎

23 세 임금. 여기에서는 주周나라의 대왕大王 · 왕계王季 · 문왕文王을 가리킨 것.

24 태자太子. 임금의 적장자嫡長子.

25 남송南宋의 학자學者(1167 1230). 자字는 촉묵促默. 원정元定의 아들. 주희朱熹에게 사사師事함. 평생을 구봉九峯에서 은거했기 때문에 구봉선생九峯先生이라 불리고, 그 학파를 구봉학파라 일컬음. 《서경집전書經集傳》 6권과 《홍범황극洪範皇極》 내편內篇 2권 등이 있음.

26 대대로 국록을 타는 집안. 작록爵祿을 세습하는 집안. 곧 제후諸侯나 왕.

27 고조高祖 · 증조曾祖 · 조부祖父 · 부모父母 · 자기 · 아들 · 손자 · 증손 · 현손. 일설에는 부족父族 넷, 곧 고모姑母의 자녀 · 자매의 자녀 · 딸의 자녀 및 자기의 동족과 모족母族 셋, 곧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 이모의 자녀와 처족妻族 둘, 곧 장인 · 장모.

民과 협화協和하게 했다(堯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黎民). 이것은 종족에서부터 백관百官에 미루었으며, 백관에서부터 서민에게 미루어 확대한 것이다. 후세에서 서민庶民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공자가 말하기를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백성이 만족해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해 할 것인가"라고 한 것은 또한 서민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다만 《시경》에서는 "여러 여민黎民과 백성들이 모두 너를 덕으로 여긴다(群黎百姓 徧爲爾德)"라고 하고, 그 주에 "군려群黎는 검수黔首(검은 맨머리)라고 하는 말과 같다. 백성은 서민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의 의견으로는 이미 군려群黎(여러 서민)라고 말하였으니 마땅히 또 백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군려라고 한 것은 서민을 가리킨 것이고, 백성이라고 한 것은 백관서성百官庶姓을 가리킨 말일 것이다.

육상산陸象山이 말하기를 "당우唐虞 때에는 도道가 고요皐陶[28]에게 있었다"라고 했다. 장태악이 말하기를 "우虞나라 조정의 지극한 정치는 실은 고요皐陶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순임금이 그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함에 좇아 다스려서 사방이 바람 움직이듯 하는 것은 오직 너의 아름다움 때문이다'라고 했다. 우禹는 말하기를, '고요가 힘써 덕을 심었으므로 덕이 드디어 내려 여민黎民이 사모한다'라고 했다. 후인後人들이 다만 순임금이 그에게 사사士師[29]를 명한 것만을 보고, 드디어 고요는 죽을 때까지 형刑을 맡은 관원을 했다고 하나, 거의 그러하지 않다. 후세에서 오직 이윤伊尹의 사업만이 그와 나란히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주공周公에 비교하는 데 이르러서는 조금 지나치는 일이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28 순舜임금의 신하. 자字는 정견庭堅. 사구司寇, 즉 옥관獄官의 장을 지냄. 구요咎繇라고도 씀.

29 주관周官의 명칭. 추관秋官에 속하는 관원으로서, 송옥訟獄을 맡은 자. 재판관 · 사법관.

장태악이 말하기를, "은殷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우선하고 예禮를 뒤로 한다. 반경盤庚이 수도를 옮기고 그의 신하들에게 타이른 것은, 그 선세 조종祖宗의 좌명佐命, 성공의 사적事績을 대략 말하고, 만약 자손들이 국가에 충성하지 못하다면 그 선조의 신령이 반드시 하늘에 명을 청하여 재앙의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기자箕子는 은나라 사람이다. 그가 말한 오행五行의 징응徵應은 매우 깊고 그윽하고 어두워서 드디어 후세의 천착穿鑿(샅샅이 조사함)·부회傅會(억지로 이치에 맞춤)하는 잘못된 길을 열었으며, 계의稽疑(의심 나는 것을 점쳐서 생각함)·복서卜筮의 일을 팔주八疇와 동렬同列로 벌여 놓는 데에 이르렀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전욱씨顓頊氏의 사천속신司天屬神과 하우씨夏禹氏가 솥을 주조하여 물物을 상형象形한 것은 그 유래한 바가 오래이다. 은나라의 풍속에서 귀신을 숭상한 것은 예禮보다 질質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 복서卜筮와 같은 것은 복희씨伏羲氏가 이보다 먼저 했다.

《상서尙書》의 편 중에 소위 금문今文에 있는 것과 고문古文에 있는 것은 이것이 서로 다른 글인 것 같다. 〈윤정胤征〉·〈오자지가五子之歌〉·〈태갑太甲〉·〈열명說命〉의 여러 편을 위에 잇고 아래에 붙여서 읽으면 꽤 문리文理가 순탄하고 쉬운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가만히 이것을 의심한다. 그러나 감히 알지는 못한다.

《설부》에 말하기를, "평왕平王이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니 시詩에 아雅가 없어지고, 제환공齊桓公이 패자霸者가 되니 시에 왕풍王風이 없어졌으며, 초장왕楚莊王이 패자가 되니, 여러 나라의 국풍國風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부자夫子(공자孔子)가 《서경》을 산정刪定(글자나 글귀의 잘못을 깎아내어 개정함)하는데, 〈진서秦誓〉(《서경》·《주서周書》의 편명)를 제왕의 뒤에 계속하게 하였으니, 이미 주周나라가 반드시 진秦나라로 될 것을 알았던 것이다.

10-4 예기禮記

《예기》에 말하기를, "정오에 남은 밥을 먹는데 주악奏樂하면서 먹는다"라고 했다. 주에, "정오에 남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침밥의 남은 것을 정오에 먹고 따로 고쳐 짓지 않는 것이다. 주奏라고 한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주례周禮》에 말하기를, "선부膳夫는 임금의 먹고 마시는 것을 맡는데, 주악奏樂으로 먹기를 권한다"라고 했고, 주註에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기운과 신체의 보양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말하기를, "비위脾胃는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주례周禮》에 주악하면서 식사를 권한다는 것은 아마 비위가 음성사죽音聲絲竹(음악)을 좋아하여, 귀로 듣자마자 비위는 즉시 소화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記에 말하기를, "임금에게 선膳을 올릴 때에는 마늘과 도열桃茢(복숭아나무 가지로 만들었는데, 모든 부정을 쓸어버리는 비)이 있다"라고 했고, 그 주에 "선膳은 좋은 음식이다. 선을 올릴 때에 반드시 마늘과 복숭아나무 비를 사용하는 것은 상서롭지 않은 물건이 혹시나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임금에게 식사를 올리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바로 예禮였다. 그 복숭아나무의 비를 사용하여 상서롭지 않은 것을 방지한 것은, 대체로 또한 공경하고 근신함이 지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기》에, "선제先帝에게 국의鞠衣를 드린다"라고 했고, 주에 "국의는 옷인데, 빛이 국화鞠花처럼 누르다"라고 했다. 《주례周禮》의 주에는 "황상복黃桑服이다. 빛은 국진鞠塵 같으니, 뽕나무 잎이 처음 나올 때의 빛을 상징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국鞠은 국菊과 같다. 역시 "국鞠에 누른 꽃이 있다〔鞠有黃華〕"라

고 쓰기도 한다.

제의祭義에 말하기를, "군자는 어버이가 살았을 때에는 공경하여 봉양하고, 죽으면 공경하여 제향祭享한다. 그리하여 몸을 마칠 때까지 욕되게 하지 않기를 생각한다"라고 했다.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봉양하는 일, 제향하는 일이 다만 어버이를 욕되게 할 뿐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공경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욕되게 한다고 하면, 세상에는 그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는 자는 아마 드물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자신自身을 공경하여 그 어버이에게 이르게 한다.

〈곡례曲禮〉에 말하기를, "형벌은 대부大夫에게 올라가지 않고, 예禮는 서인庶人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 상上(올라간다), 하下(내려간다) 두 글자가 매우 좋다. 소위 예禮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서인庶人은 천하기 때문에 예를 갖추어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기》에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노담老聃에게서 들으니 말하기를, 천자가 붕崩하거나 국군國君이 훙薨하면 군묘群廟의 신주를 축취祝取하여다가 조묘祖廟에 감추어 두는 것이 예禮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주註에, "노담은 옛날 오래도록 장수한 자를 일컫는 것이고, 5,000언言으로 된 《도덕경》을 지은 노자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고찰하여 보니 공자가 말하기를, "전날 내가 노담을 좇아서 항당巷黨에서 장례葬禮를 도왔다" 운운했다. 나는 말한다. 노자는 예의를 절멸하려고 하였는데 어찌 예를 말하여 장례를 돕는 일이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고 한 것도 아마 노군老君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담일 것이다. 그러나 《예기》 가운데, "노담에게 들었다"라고 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가 들었다고 한 것은 곧 그가 물어본 예禮라고 할 수 있을지.

《예禮》에, “달아나면 첩妾이 된다[奔則爲妾]”라고 했다. 이것을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명령을 듣고 급히 달려가느라고 육예六禮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달아났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선왕先王의 제례制禮에 “중춘仲春에는 달아나는 것을[奔者] 금지하지 않았다. 때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奔과 음분淫奔의 뜻은 같지 않은 것이다.

〈학기學記〉에 “소謏로써 명성이 나기에 넉넉하다[足以謏聞]”라고 하고, “소謏의 음은 소小이고, 문聞은 거성去聲이다”라고 했다. 주註에 말하기를, “작은 것으로써 성예聲譽를 이룰 만하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조신曹伸이 ‘소문쇄록謏聞鎖錄’이란 말로 책의 이름을 삼은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점필재佔畢齋(김종직)의 시에, “산성山城의 민사民事로 작은 재능을 칭찬 받는다[山城民事稱謏才]”라고 하여 소謏를 낮은 소리[平聲]로 쓴 것도 또한 잘못이다.

〈단궁檀弓〉에 말하기를, “세인細人(식견이 짧고 얕은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고식적姑息的인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다. 주註에, “고姑는 구차한 것이고, 식息은 쉬는 것이다”라고 했다. 시자尸子가 말하기를, “주紂가 여로黎老(노인)의 말을 버리고 고식의 말을 채용한다”라고 했다. 주에, “고姑는 부인이고, 식息은 소아小兒이다”라고 했다. 양신楊愼은 후자를 옳다고 했다.

〈곡례曲禮〉에 말하기를, “대부大夫는 70세가 되면 치사致事(늙어서 벼슬을 사양함)한다. 만약 사직함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임금은 그에게 궤장几杖(안석과 지팡이)을 하사하여 복무하게 하고, 부인夫人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부老夫라고 일컫게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나이가 70세도 못 되어서 노부라고 일컫는 것은 잘못이다.

〈곡례〉에 “말을 잘 부리는 자는 오른쪽으로 몬다[牽]”라고 했다. 주에, “오른손

으로 모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모두 말을 오른손으로 몬다. 그것이 예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왼손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예기》에 말하기를, "승국勝國으로 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했다. 승국은 우리가 이긴 나라이다. 또한 상국喪國이라고도 한다. 명나라 사람의 문집 속에서 원元나라를 가리켜 승국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10-5 춘추春秋

《춘추》에, "춘왕정월春王正月"이라는 말이 있다. 주에, "주왕周王의 정월이다"라고 했다. 좌씨左氏가 말하기를 "주周나라 사람이 자월子月로 세수歲首를 삼았으니 주나라의 정월은 겨울 10월이다"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주나라의 정월은 봄이 아니다. 천시天時를 빌어서 의義를 세웠을 뿐이다"라고 했다.
왕석작王錫爵의 〈춘왕정월변春王正月辨〉을 고찰하여 보니, 대략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주나라 사람들이 비록 자월子月을 신년新年으로 정하였으나, 사시四時와 달〔月〕은 고치지 않았다'라고 했고, 《노사魯史》에 '겨울 11월이라고 한 것을 부자夫子가 고쳐서 춘왕정월春王正月이라고 하였으니 부자는 하夏나라 때의 세시歲時를 시행할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 두 설은 모두 잘못이다. 부자夫子는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주나라에 좇겠다〔吾從周〕'고 했다. 또 말하기를, '천자가 아니면 예를 의논하지 않으며, 제도를 세우지 않는다. 어찌 필부로서 천자의 정삭正朔을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서》〈율력지律曆志〉에, '주나라 정월 무자戊子에 군사가 맹진孟津을 건넜다. 이튿날 기미己未는 동지冬至이다' 했고, 《서경》에는 '13년 봄에 맹진에서 크게

모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1월 방사백旁死魄(2일) 임진일壬辰日'이라 했고, '무오일戊午日에 군대가 맹진을 건넜다'라고 했다.
주나라 사람들이 자월子月로 정월을 삼았다는 것을 고증할 수 있다. 《좌전左傳》에, '희僖 5년 정월에 해가 남지南至했다'라고 하였으며, 《춘추春秋》에는 '환桓 14년 춘정월에 얼음이 없다. 성成 원년 봄 2월에 얼음이 없다. 양襄 28년 봄에 얼음이 없다. 정定 원년 겨울 10월에 서리가 와서 곡식을 죽이다'라고 했다. 만약 인월寅月로써 정월을 삼았다면, 인월寅月 · 묘월卯月에 얼음이 없는 것과 해월亥月에 서리 오는 것이 어찌 이상異狀일 수 있겠는가.
대체로 주周나라의 정월은 양기陽氣가 처음 움트는 것에 근본 하였으니 하늘에 따른 것이다. 상商나라의 정월은 양기의 상승上昇에 근본 한 것이니, 땅을 본받은 것이다. 하夏나라의 정월은 양기가 이미 이르는 것에 근본 하였으니 사람을 좇은 것이다. 《상서商書》에서는 처음 즉위하여 원사元祀 12월이라고 했다. 그러니 달은 바꾸지 않은 것이다. 진서秦書에서는 처음 건국하고 원년 겨울 10월이라고 하였으니, 계절은 바꾸지 않은 것이다. 해월亥月의 양기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봄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은, 주나라의 정월과는 다르다"라고 했다. 이 논설이 매우 정확하다.

《춘추》에 "성운여우星隕如雨"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여如는 이而와 같다"라고 했다. 또 《예기》에 "실여현경室如懸磬"이라 하고, 《후한서》의 "관서여호시寬舒如好施"라고 한 '야如'는 모두 '이而'라는 뜻이다. 《한서》에 "백두여신白頭如新"이니, "경개여고傾盖如故"니 하는 말이 있는데, 《설원說苑》에서는 "백두이신白頭而新"이니 "경개이고傾盖而故"이니 하여 말뜻이 더욱 명백하다.

《춘추》에, "사록산沙麓山이 무너지니, 진晉나라 사관史官이 점을 쳐 말하기를, 645년 뒤에 마땅히 성녀聖女가 나올 것이라고 하더니, 한漢나라에 이르러 왕정군王政君이 그 땅에서 출생하여 원제元帝의 황후가 되었는데, 연수年數가 예언

과 서로 맞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씨가 한나라의 왕위를 찬탈한 것은 원후元后에게 원인이 있다. 그러니 사록산이 무너진 것은 요괴스런 징조이고 상서롭지 않다. 진나라 사관의 말은 아마 거짓말에 가까울 것이다.

왕충王充의 《논형論衡》[30]에 말하기를, "《춘추》에 백이伯夷의 사당에 벼락 친다고 했다. 벽력劈歷이 파괴한 것을 말한 것이다. 벽력霹靂은 속자俗字이다"라고 했다. 벽력劈歷이라는 글자가 본래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곡량전穀梁傳》에 말하기를, "위후衛侯의 형 첩輒이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천질天疾(선천적인 난치병)이 있는 자는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다. 첩輒이라는 병은 두 다리의 불구자이다"라고 했다. 제齊나라에서는 이 병을 기綦라고 하고, 초楚나라에서는 궐蹶이라고 하며, 위衛나라에서는 첩輒이라 했다. 첩은 병명이다.

강절선생康節先生이 말하기를, "《역경》은 복희씨伏羲氏 · 신농씨神農氏 때부터이고, 《서경》은 요순堯舜 때부터이며, 《시경》은 문왕文王 · 무왕武王 때부터이고, 《춘추》는 제환공齊桓公 · 진문공晋文公 때부터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복희씨 · 신농씨는 삼황三皇 시대이고, 요임금 · 순임금은 오제五帝 시대이며, 문왕 · 무왕은 삼왕三王에 속하고, 제환공 · 진문공은 오백五伯에 속한다. 《역경》에서 《서경》, 《서경》에서 《시경》에, 《시경》에서 《춘추》로 세대가 점차 강쇠降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0 후한後漢의 왕충王充이 지은 사상서. 잡가에 속함. 모두 85편. 구래舊來의 사상과 저작의 내부적 모순을 폭로하고, 특히 당시의 미신적 사상을 배격한 것이 특징임. 그 내용이 때로는 편벽과격偏僻過激한 바가 있으나, 당시의 풍교風敎에 적잖은 도움을 줌.

10-6 주례周禮

《주례》에, "전지田地와 살 곳을 주어 유맹流氓을 안정시키고 그 땅에 적합한 것을 가르친다"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맹氓이라는 글자는 도망 망亡에 백성 민民을 썼으니, 일정한 주거 없이 방랑하는 백성을 의미한다. 만약 본국의 백성이라면 이미 전지를 주었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전지로써 안정시켜야 하겠으며, 이미 전지에 안정하고 있으니 어찌 반드시 그 땅에 적합한 것으로 가르쳐야 하겠는가. 《맹자》에 진상陳相이, "한 전廛을 받아서 백성(氓)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또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즐거이 나라의 백성(氓) 되기를 원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것으로 고증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설이 옳다.

《주례》에 "소행인小行人은 천자의 6절節을 맡는다. 산국山國에는 호절虎節(범을 상형한 부절符節), 토국土國에는 인절人節, 택국澤國에는 용절龍節(옛날에 사신이 갈 때 지니던 부절인데 용을 그렸음)을 사용하는데 모두 금으로 만든다. 도로에는 정절旌節(나다니는 사람이 가지는 부절)을 사용하고, 문관門關에는 부절符節[31]을 사용하며, 도비都鄙에서는 관절管節을 사용한다. 모두 대나무로 만든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옛날에는 사신으로 나가는 자는 모두 정절旌節이 있었다. 한漢나라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했다.

《주례》에 "육이六彝는 모두 배가 있다"라고 했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배(舟)라는 것은 밑에 받치는 대臺이니, 지금의 승반承盤과 같은 것이다. 침면沈湎(주색에 잠겨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대개 속어에서 잔대琖臺라고 하는 것이다. 동파東坡의 시에 "내일이면 마땅히 두 사람에게 벌주罰酒를 먹이리라. 이미 2개의 옥잔대를 씻어 놓았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31 목편木片 또는 죽편竹片에 글을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후에, 두 쪽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자에게 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기가 보관했다가 후일에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는 것.


권6

11. 경서부經書部-2

11-1 논어論語

《논어》에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우는 것도 견고하지 못하다"고 했다. 주註에 "후중厚重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우는 것도 또한 견고하지 않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운서韻書에 고固는 집체執滯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맹자》에서 고재固哉라고 한 고固와 같은 뜻이어야 한다. 아마 군자는 배우면 고체固滯하여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근심은 없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했다.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상고하니,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배우면 유추해 알아서 통달한다. 그런 까닭에 가리고 고체하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주자는 그 설을 채용하지 않았다.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논어》에 "흉복凶服을 입은 자에게 굽히고, 판版을 지고 가는 자에게 굽힌다"라고 했다. 주註에, "판版을 짊어졌다는 것은 나라의 도적圖籍(지도와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도적圖籍은 반드시 짊어지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며, 또한 항상 한길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다. 상복부판喪服負版이란 것은 아마 벽령襞領의 쇠복衰服이 아닌가 의심된다. 공자는, 상복을 입은 자를 만나면 머리를 굽혀 경의를 표시한다. 그러나 가벼운 복을 입은 자에게도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반드시 중복重服을 입은 자에게만 굽혔을 것이다. 이 글의 '흉복자식지凶服者式之' 아래의 토吐를 고쳐야 할 것이다" 운운했다. 이 말이 유리有理한 것 같다. 어떻게 꿈에 정자程子·주자朱子 등 여러 부자夫子들을 만나서 함께 자세히 논정論定할 수 있겠는가.

《논어》에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면 악惡함이 없다"라고 했다. 명나라 이정암李漸庵이 말하기를 "이 악惡이란 글자는 증오憎惡한다는 오惡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진정 인仁에 뜻을 둔다면, 불선한 자를 보면 장차 슬퍼하고 가엾게 여겨 건져주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미워함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소견所見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앞의 장에 나오는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한 글을 가지고 보면 아마 옳지 않은 것 같다.

《논어》에 "망지명의부亡之命矣夫"라는 말이 있다. 지금 그 망亡이라는 글자를 사망의 망亡으로 풀이하여, '죽을 명이로구나' 하는 뜻으로 읽는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대하여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성인聖人은 말을 박절하게 하지 않음이겠는가. 또 주註에 말하기를 "마땅히 이런 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 망亡은 마땅히 무無로 읽어야 할 것이다. 망亡이라는 글자를 옛날에는 무無라는 글자와 통용했던 것이다. 다만 다른 경우로, 가령 '제하지망야諸夏之亡也'에서, 망亡이란 글자에 대해 모두 풀이한 것이 있는데, 이 문구에서는 홀로 풀이한 것이 없음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논어》에 "공자가 구이九夷에 살고자 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고사古史를 고찰하여 보니, "동방에 아홉 종류의 오랑캐가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군장君長이 없더니 단군檀君이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대체로 공자가 살아 있던 세상은 바로 우리나라 기왕箕王의 중엽인데, 구이九夷라는 일컬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또 동이東夷에 살고 싶다고 한 것은 어찌 우리나라의 서해西海가 제齊나라 · 노魯나라와 서로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논어》에 '속수束脩'라는 말이 있다. 주註에 "수脩는 포脯이다. 포脯 10개를 속束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전傳에 말하기를 "옛날의 대부는 속수하는 동안에는 지경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체로 모든 궤유饋遺(물건을 보냄)도 또한 속수束脩라고 하였던 것이다. 《후한서》에 말하기를 "왕 공王公은 속수하여 절도를 엄하게 지킨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속수하여 스스로 선다" 했다. 이것은 스스로 단속하고 수양하고 신칙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속수束脩라는 용어는 여러 경우에 사용되며 뜻은 각각 다르다.

공자가 제齊나라에 있어서 소韶(순舜의 음악)를 들으면서 석 달 동안을 고기의 맛을 모르며 말하기를, "음악이 이렇도록 훌륭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 소韶가 음악 중의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덕德이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공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소韶는 진미盡美하고 또 진선盡善하다. 그것을 듣고 즐거워함은 그 성운聲韻 때문이 아니고 또한 그 덕德 때문이다"라고 했다.

《논어》에 "재여宰予[1]가 낮잠을 잤다"는 대문이 있다. 《계신잡지癸辛雜識》를 고열考閱하여 보니 말하기를, "낮을 표현하는 글자인 주晝는 마땅히 그림을 표현하는 화畫로 써야 한다. 공자는 그림으로 장식한 재여의 침실의 화려한 것을 미워하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썩은 나무니, 분토糞土의 원장垣墻이니 하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또 《창려어해昌黎語解》에도 말하기를 "주침晝寢이라고 한 것은 마땅히 화침畫寢이라고 써야 할 것을 잘못 쓴 것이다"라고 했다.

《논어》에 "40, 50에 무문언無聞焉"이라는 대문이 있다. 명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무문언無聞焉이라고 한 문聞은 도道를 듣는다"는 뜻이다. 만약 이 문聞이

1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 공자의 문인門人으로서 10철哲의 한 사람. 보통 재아宰我라고 함. 언어에 뛰어났음.

라는 글자를 명문名聞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성인聖人의 뜻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특히 유리有理하다.

애공哀公이 재아宰我(재여)에게 입사立社(단을 세우고 토지의 신에게 제사하는 일)를 물으니, 재아가 대답하기를 "하후씨夏后氏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심었으며, 주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다" 운운했다. 주註에 말하기를, "옛날에 사社를 세울 때에는 각각 그 땅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서 신주神主로 삼았다"라고 했다. 《용재수필容齋隨筆》에 말하기를 "《공양전公羊傳》에 '우제虞祭 때의 신주는 뽕나무를 사용하고, 연제練祭(소상小祥 · 소기小忌) 때의 신주는 밤나무를 사용한다'라고 했다. 그러니 삼대三代 때의 봉사奉社에도 또한 소나무 · 잣나무 ·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었던 것이고 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옛날에는 군대가 행군할 때에는 사주社主를 싣고 다녔다. 소위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주의 앞에서 죽인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애공哀公이 사社를 물었다는 것은 입사立社하는 의미를 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전율戰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아래에 나오는 주註에서 말하기를, "당시의 임금에게 살벌한 마음을 계발啓發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용재수필》에 또, "백성으로 하여금 전율하게 했다"라고 한 말을 애공의 말이라고 하였으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성사成事는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수사遂事는 간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난 일은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성사成事라는 것은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것이니, 즉 입사立社하는 본의를 가리킨 것이고 수사遂事는 일이 장차 그렇게 되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즉 당시의 임금의 살벌해지려는 마음을 가리킨 것이다. 대체로 재아宰我는 입사의 본의를 말하지 않았으며, 임금의 살벌한 마음을 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책망하여도 무익하다는 것이다." 주註의 뜻이 이런 것인데, 읽는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

므로 이에 설명하는 바이다.

“이단異端[2]을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라고 한 것을 어떤 이가 말하기를, “공攻은 다스리는 것[治]이다”라고 했다. 공攻은 북을 울려서 공격한다는 공攻과 같은 것이다. 대체로 우리의 도道와 이단은 병립을 용허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하면 저것이 쇠하고, 저것이 성하면 이것이 쇠한다. 이때에 성인의 가르침은 밝혀지지 않고, 이단이 제멋대로 퍼지니, 오직 우리의 도를 밝게 하여 교화를 실행하면 저 이단은 장차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한갓 다스리고자 하기만 한다면 도리어 해가 될 뿐이다.
장횡거張橫渠가 말한 것이 있다. “물건이 괴이한 것은 반드시 변박辨駁할 까닭이 없으며, 이단을 반드시 공격할 것은 없다”라고 했다. 역시 이 뜻이다. 또 주註에 말하기를, “그런 까닭[故]에 공攻은 목석木石이나 금옥金玉을 다스린다는 공工인 것이다”라고 했다. 《당본唐本》을 조사하여 보니, 고故는 여如라는 글자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

《관자管子》에 ‘삼귀三歸’라는 말이 있다. 《십삼경주十三經註》를 조사하여 보니,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고 한다. 삼귀는 세 사람의 여성에게 장가든 것이다”라고 했다. 유향劉向의 《설원說苑》에는 “관중管仲이 삼귀대三歸臺를 쌓았다” 운운했다. 주자는 삼귀를 대명臺名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공자는 생강 먹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나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했다. 《본초本草》에 말하기를, “생강 먹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씹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양생서養生書에 말하기를 “생강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아

2 정통이 아닌 옳지 않은 도. 유교儒敎에서 다른 사상, 즉 노자老子 · 장자莊子 · 양자楊子 · 묵자墨子 등의 사상과 불교를 일컫는 말.

마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생강을 가리킨 말로 풀이한 것이니,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한 주자의 주註와는 뜻이 같지 않다.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날아 일어나더니, 한 번 날아올랐다가 다시 모이네(色斯擧矣 翔而後集)"라는 대문이 있다. 내 생각에는 얼굴빛을 보고 날아올랐다가 다시 모인다는 것은 꿩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공자가 꿩이 날아 모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제때를 만난 것을 말한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논어》의 원문에 '色斯擧矣 翔而後集 日 山梁雌雉 時哉時哉子 路共之 三嗅而作'이라 한 글귀의 산량자치山梁雌雉(산중 돌다리가의 까투리)라는 말은, 맨 처음의 색사거의色斯擧矣라는 말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군자는 날짐승에 대하여도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다만 냄새만 맡고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음식의 예절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당鄕黨〉편 끝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했다.

무악武樂[3]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가장 선하지는 못하다"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무왕武王이 정벌로써 천하를 얻은 것이, 순임금이 읍양揖讓으로 천하를 얻은 것만 못할 뿐 아니라, 무악武樂은 성음聲音의 가락도 또한 진선盡善하지 못한 것이 있다. 《악기樂記》를 살펴보니, '무악이 진선하지 못한 것은 담당 관원이 그 전해 내려오는 본래의 음률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 설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우중虞仲과 이일夷逸이 숨어 살면서 방언放言(그 말이 방사放肆하여 절제에 구애하지 않음)한다"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그 주註에 "우중은 즉 중옹仲雍이다"라고 했다. 《좌전左傳》에 말하기를 "태백泰伯과 우중은 태왕太王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3 무사武事에 쓰는 음악. 무무武舞에 쓰는 음악.

《사기》를 살펴보니,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중옹仲雍의 후손을 찾다가 주장周章을 만나니 이미 오吳나라의 임금이 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봉군封君하고 주장의 아우 우중虞仲을 우虞나라의 임금으로 봉하니 즉 중옹의 4세손이다"라고 했다. 주註하는 이가 말하기를, "주장周章의 아우의 자字는 중仲인데 우虞나라에 봉군하였기 때문에 우중虞仲이라고 한다. 중옹仲雍의 본래의 자는 중仲으로서 오吳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후세에 그도 또한 우중虞仲이라고 일컬었으니 조부와 손자의 호號가 같다"라고 했다. 방언이란 말은, 《십삼경주十三經經註》에 말하기를 "내버려두는 것이니 다시는 세상의 용무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漢나라 황충黃忠은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숨는 데 성문聲聞을 없애고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했다. 주註에 "방放은 폐廢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것은 아마 "정鄭나라의 음률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방放의 뜻과 같은 것일까. 어떤지 알 수 없다.

공자가 말하기를, "말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했다는 옛글을 나도 오히려 본 일이 있다"라고 했다. 이것이 비록 미세한 일이나 민속의 후하고 박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로子路가 뜻을 말하는 대답에 "거마車馬를 벗들과 함께하여 유감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일 것이다.

《논어》에 "정鄭나라의 음악은 음란하다"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음淫하다고 한 것은 음률이 지나치다는 뜻이다. 비가 절도를 넘으면 음우淫雨라 하고, 소리가 지나치게 즐거우면 음란하다"라고 했다. 정나라의 음악의 소리가 음란하리만큼 지나치다고 한 것은, 정나라의 시詩가 모두 음란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고찰하여 보니, "관저關雎는 즐거우나 음란하지 않다"라고 한 글귀의 주에 "음淫하다는 것은 즐거움이 지나쳐서 그 바름을 잃은 것이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이다.

《논어》에 "내가 왜 표주박(匏瓜)이란 말인가. 어찌 매달아진 채 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다. 주註에 "포과匏瓜는 포호匏瓠이다. 포과는 한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다. 양신이 말하기를 "포匏는 써서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고, 포匏가 마시고 먹고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식물의 열매가 어찌 마시고 먹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내가 운서韻書를 조사하여 보니, "호瓠는 달고 포匏는 쓰다." 《국어》에 말하기를 "쓴 포匏와 같은 재능 없는 사람이 남들에게 휩싸여 함께 지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양신의 설이 매우 유리有理하다. 그렇다면 《시경》의 "포유고엽匏有苦葉"이란 글귀의 주에, "포匏 중의 쓴 것으로서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또한 포가 본래 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말이겠다.

이동양李東陽의 시에, "정원의 박이 비록 크나 역시 외라고 일컫는다(園匏雖大亦稱瓜)"라고 했다. 아마 포과匏瓜는 한 물건인 것 같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포과匏瓜는 별의 이름이니, 그 모양이 포과가 하늘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비록 포과라는 이름은 있으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주자의 주註에 따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논어》에 "임상불애臨喪不哀"라는 말이 있다. 《운회韻會》를 살펴보니, "임臨은 거성去聲이니 곡哭한다는 뜻(상喪을 곡哭함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이다. 만약 임臨을 평성平聲으로 읽는다면, 곧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군림한다는 뜻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임사이구지臨事而懼之(일에 임하여 두렵게 여긴다)"에서의 임臨도 또한 평음이니, 대체로 "임상불애臨喪不哀"의 임臨과 같은 것이다.

《논어》에 말하기를 "대사지太師摯는 제齊나라로 가고, 아반간亞飯干는 초楚나라에 갔으며, 삼반료三飯繚는 채蔡나라에 가고, 사반결四飯缺은 진秦나라에 갔으

며, 고방숙鼓方叔은 하河에 들어가고, 파도무播鼗武는 한漢에 들어갔으며, 소사양少師陽과 격경양擊磬襄은 바다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한漢나라의 《고금인표古今人表》에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주紂임금 때의 사람들이다"라고 했고, 정현鄭玄은 "주周나라 평왕平王 때의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예악지禮樂志》에서는 말하기를 "은殷나라의 주紂가 선왕의 음악을 단절해 버리고, 드디어 음란한 성률聲律을 만들어 부인婦人을 써서 정성鄭聲을 즐기니, 악관樂官·악사樂師·맹인盲人들이 그의 악기를 안고 달아나 흩어져서, 어떤 이는 제후에게 가고, 어떤 이는 하해河海에 들어간 것이다. 제후라고 말한 것은 추후追後하여 그 땅에 붙인 말이고, 그때에 이미 이러한 국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대사지太師摯는, 즉 공자가 처음으로 사지師摯라고 일컬은 자이다. 격경양擊磬襄은 즉 공자가 그에게서 거문고를 배운 사람이다. 이러한 곳들은 모두 마땅히 주자朱子의 주註를 가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기록하여 여러 듣는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황제高皇帝가 《논어》의 "이적夷狄(오랑캐)에게 임금이 있는 것이 제하諸夏(중국)에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강론해 말하기를, "이적夷狄은 금수禽獸와 같은 것이다.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도가 없다. 공자가 '중국에 비록 군장君長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예의 있음을 아니, 오랑캐에게 군장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다. 송나라의 선비들이, '중국 사람이 이적만 못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또 "공호이단攻乎異端 사해야이斯害也已"라는 대문을 강설하여 말하기를, "공攻은 성을 공격한다는 공과 같은 뜻이고, 이已는 그친다는 뜻이다. 공자가 아마 이단을 공격하면 사설邪說의 해가 그치고, 바른 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일 것이다. 송나라 선비들이 도리어 '오로지 이단을 다스려서 바른 도에 정일精一하게 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라고 풀이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운운했다. 《황명대정기皇明大正紀》 등의 서적에 나온다.

11-2 맹자孟子

《맹자》에 '위장자절지爲長者折枝'라는 말이 있다. 주자가 주註하기를, "어른을 위하여 초목의 가지를 꺾는 것이다"라고 했다.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를 상고하여 보니, "손마디를 안마하여 지절肢節의 피로를 푸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문선文選》의 광절교론廣絕交論에, "절지지치折枝舐痔"라는 말이 있는데, 주에 "절지는 수족을 안마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주자의 주가 옛 소疏와 같지 않은 것은 아마 그렇게 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맹자》에, "계鷄·돈豚·구狗·체彘의 양축을, 그때를 잃지 않으면……" 하는 글귀가 있다. 돈豚과 체彘는 모두 돼지라는 글귀로서 한 가지 동물이니 마땅히 나란히 열거하여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염소와 양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잘못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맹자》에 "백이伯夷는 성인聖人 중의 맑은 자이고, 유하혜柳下惠는 성인聖人 중의 화순和順한 자이다"라고 했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백이는 청백한 점에 있어서는 성인이며, 유하혜는 화순한 점에서는 성인이다"라고 했다. 이 설도 또한 옳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맹자의 뜻은 진정 성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대강 백이는 성인과 같은 청백함을 체득했고, 유하혜는 성인과 같은 순화함을 체득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을 얻은 것 같다고 본다면 스스로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맹자》에 "일유일예一遊一豫가 제후들의 법도가 된다"라고 했다. 주註에 "예豫는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고시유원古詩類苑》의 주에 유희劉熙가 말하기를, "봄의 행차를 유遊라고 하고, 가을의 행차를 예豫라고 한다"고 했다.

《좌전左傳》에, “계씨季氏에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니 한선자韓宣子가 여기에 예譽했다”라고 했다.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예譽는 예豫와 같은 뜻이니, 나무 아래에 논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예豫는 논다는 뜻이고, 또 편안하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송지문宋之問의 시에, “봄에 영지靈池의 모임에 놀다〔春豫靈池會〕”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맹자》에 말하기를, “만 종鍾의 봉록으로 제자들을 기른다”라고 했다. 주에 “종鍾은 계량기의 명칭이니, 6곡斛 4두斗가 들어간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10만 종鍾을 사양하고 만 종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10만 종은 제齊나라 경卿의 봉록이다. 또 《사기》에 “위성魏成이 1,000종鍾의 봉록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곧 위魏나라 경의 봉록이다. 전국시대 봉록의 많고 적음을 이것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있다.

《맹자》에 “제나라에서는 왕이 겸금兼金(값이 배나 비싼 훌륭한 금) 100을 선물로 주니 받지 아니하고, 송나라에서는 70일鎰을 주니 받았으며, 설薛나라에서는 50일鎰을 주니 받았다”라고 했다. 주에, “옛날에 1일鎰은 1금金 20근斤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50일은 금 1,000근이 되고, 냥兩으로 계산하면 16,000냥이 된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은폐銀幣(은전)로 예물을 삼는 것은 대체로 옛날부터 그러하였던 것이다. “천금으로 장수長壽를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또 《마사馬史》의 주에는, “20냥을 일鎰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설이 옳은 것 같다.

《맹자》에 말하기를, “힘은 한 마리의 새 새끼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있다. 곡례〈曲禮〉를 고찰하여 보니, “서인庶人의 예물은 필匹이다”라고 했다. 주註에 “필匹은 무鶩로 읽는다. 들오리를 부鳧라 하고, 집오리를 무鶩라 한다”고 했다.

《맹자》에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烏是何言也)”라고 했다. 섭몽득葉夢得이 말하기를, “조鳥라는 말은 아마 제齊나라 · 노魯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일을 말할 때의 발어사일 것이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오烏라는 글자는 오惡라는 글자와 통용한다. 조능鳥能(어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이니 조가鳥可(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니 하는 것과 같다.

《맹자》에 말하기를, “봉몽逄蒙이 예羿에게 활쏘기를 배우더니, 예羿의 재주를 다 배우고 나서는 예를 죽였다”라고 했다. 주註에 “예羿는 유궁후예有窮后羿이다. 봉몽은 예의 집에 있는 여러 부하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사기》를 살펴보니, “예가 하夏나라를 찬탈하여 스스로 섰으며, 그의 신하 한착寒浞이 또 예를 죽였다”라고 했다. 그러니 이것은 서로 같은 것 같으나 같은 자가 아니다. 대체로 옛날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예羿라고 하였던 것이다. 요堯임금 때에 예羿가 9마리의 까마귀를 쏘아 떨어뜨렸다고 한다. 《천문지天文誌》에 말하기를, “예의 아내 항아嫦娥가 약을 훔쳐 가지고 달 속으로 달아났다”라고 하였는데, 그 소위 예羿라고 한 자와 유궁후예는 아마 동일인은 아닌 것 같다.

《맹자》에 “이루離婁의 눈 밝음과, 사광師曠[4]의 귀 밝음과, 공수자公輸子의 공교工巧함”이라는 글이 있다. 주註에 “이루離婁는 옛날의 눈이 밝은 사람이고, 공수자公輸子의 이름은 반班이니 노魯나라의 기교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했다. 《장자莊子》에 말하기를, “고광瞽曠의 귀를 틀어막고, 이주離朱의 눈을 봉해 버리고, 공수工倕의 기교한 손가락을 꺾어 버리면……”이라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을 상고하여 보니, “이주離朱는 즉 이루離婁이니 황제黃帝 때의 사람이고, 공수工倕는 황제黃帝 때의 기교가 뛰어난 사람이니 공수公輸는 즉 공수工倕가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했다. 《순전舜典》에는, “좋다, 수垂야 너는 공공共工(순임금 때의 백공百工을 맡은 관원) 벼슬을 맡아라”라고 했고, 〈고명顧命〉에

4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음악가로, 소리를 들으면 잘 분별하여 길흉을 점쳤다고 함.

는 "수垂의 과戈"라고 하였는데, 주註에 "공수工垂가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했다. 수垂와 수倕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맹자》에, "한 갈고리의 쇠[一鉤之金]"라는 말이 있다. 주註에, "구鉤는 띠의 갈고리다"라고 했다. 《사기》에, "황금을 띠로 두르고 치수淄水와 승수澠水[5]의 사이를 달린다"라고 했다. 옛날에는 가죽으로 띠를 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금으로 띠를 장식한 것도 또한 오래인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여기에 황금이라고 말한 것은 인印, 즉 황금으로 만든 인장印章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없다.

《맹자》에 말하기를, "그 맥貉이란 곳에는 오곡이 생산되지 않고 오직 기장만이 난다"라고 했다. 주에 "맥은 북방의 이적夷狄의 나라 이름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맥貊은 본래 맥貉으로 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맥국貊國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니, 지금의 춘천春川 · 낭천狼川의 경계에 맥국의 옛터가 있다고 한다. 소위 오곡五穀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한 말도 또한 그곳의 상황과 가깝다. 《예기》에 말하기를, "팔만八蠻 · 구맥九貊 · 오융五戎 · 육적六狄이 있다. 남쪽에 있는 것을 만蠻, 서쪽을 융戎, 북쪽을 적狄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구맥은 곧 동방의 구이九夷인 것이다, 《강목綱目》을 고열하여 보니, "한漢나라 4년에 북맥北貊이 효기梟騎(날쌔고 강한 기병)를 보내어 한나라를 도왔다"라고 했다. 주에 "맥貉은 맥貊과 같으니 동북방에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맹자》에 '추려追蠡'라는 말이 있다. 주에 "추追는 종鍾의 끈이고, 려蠡는 끊는

5 치수淄水와 승수澠水 모두 강 이름으로, 치수는 산동성山東省 내무현萊蕪縣에서 발원하여 동북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가는 강. 승수는 산동성에 있음. 승澠은 '민'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고을 이름인 경우에는 '민'이고, 강 이름으로 쓸 때에는 '승'이라 한다.

것이다"라고 했다. 조희곡趙希鵠이 말하기를, "추려追蠡는 추탁追琢이다. 《시경》에 '그 문채를 추탁追琢한다'고 했다.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분粉을 떨어뜨려서 철기凸起(볼록하게 솟아나옴)하게 만드는 것을 추분追粉이라고 한다. 려蠡는 박식剝食(오래되어서 벗겨지고 좀먹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기물을 오래 사용하여 벗겨지고 좀먹는 것을 려蠡라고 한다. 추려라는 것은 하우씨夏禹氏 종鍾의 관문款文의 추기追起한 곳이 벗겨져 떨어지고 좀먹은 것이다"라고 했다. 왕세정王世貞이 이 설을 유리有理하다고 했다.

《맹자》에, "사방 한 치 정도의 나무도 잠루岑樓보다 높게 만든다"라고 한 말이 있다. 주에, "잠루는 누樓의 높고 뾰족함이 산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운부韻府》를 고증하여 보니, "잠루는 산의 뾰족한 정상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설은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알 수 없다.

송나라의 진수은陳隨隱이 말하기를, "맹자가, '문왕의 땅이 100리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선왕齊宣王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사는 땅은 30리뿐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100리라고 한 것은 곧 그 처음 봉해진 땅을 말한 것이다. 문왕이 서백西伯[6]이 되었을 때에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서 3분의 2를 가졌으니 다만 100리뿐만은 아니었다. 또 맹자의 뜻은 그 크다는 것을 대강 말하였을 뿐이다. 말로써 뜻을 해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6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일컬음.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이 문왕을 명하여, 서방 제후의 장長으로 삼은 데서 이름.

11-3 중용中庸

《중용》에 말하기를, "사람의 도道는 정치에 민첩하고, 땅의 도는 나무에 민첩하다. 정치라는 것은 포로蒲盧[7]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주註에서 심괄沈括은, "포로蒲盧는 포위蒲葦이다"고 했다. 《이아爾雅》를 상고詳考하여 보니 과라蜾蠃(나나니벌)의 딴 이름이 포로蒲盧이니 바로 허리가 가느다란 벌〔細腰蜂〕이다. 시詩의 소疏에 말하기를, "평로萍盧가 명령螟蛉(빛깔이 푸른 나방)의 새끼를 가져다가 동화시켜서 제 새끼를 만든다"라고 했다.

《가어家語》에 말하기를, "하늘의 도는 살리는 데에 민첩하고, 사람의 도는 정치에 민첩하고, 땅의 도는 나무에 민첩하다. 그 정치라는 것은 포로蒲盧와 같은 것이다. 동화同化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했다. 백첩白帖이 말하기를, "뽕나무 벌레가 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에게 말하는 자가 성의誠意를 쌓지 않으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성인이 포로蒲盧를 가지고 비유하여 가르친 것은, 성의로써 감화시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포로蒲盧는 노위蘆葦(갈대)의 노蘆라는 글자가 아닌데, 심괄이 포위蒲葦라고 했다." 아마 위의 글인 땅의 도는 나무에 민첩하다는 것에 인하여 말한 것이 아닐까. 다만 주자가 정자程子의 설을 버리고 심괄의 설을 채택한 것은 아마 그러할 만한 뜻이 있을 것이다.

《중용》의 주에, "과인寡人이 실고實固하여서 그것을 알기에 부족하다〔寡人實固不足以知之〕"라는 말이 있다. 마땅히 《가어》의 본문에 따라 실고를 한마디의 어구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후학들이 아래 문장에 붙여서 읽는 수가 많으니 잘못이다. 전일에 강경講經 유생儒生이 《가어》에 좇아 강독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

7 부들과 갈대. 부들과 갈대는 잘 나고 잘 자라므로, 정치를 하기 쉬움의 비유.

시관考試官이 도리어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여 낙제를 시켰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11–4 대학大學

《대학》에, "편안한 마음이 된 뒤에야 생각할 수 있다(安而後能慮)"라는 말이 있다. 주자가 려慮라는 글자를 풀이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상精詳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회재선생보유晦齋先生補遺》에는, "려慮는 생각하는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한 '그 지知를 철저하게 하면 생각함이 날로 더욱 밝아진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대체로 사물의 이치를 구명究明하여 최선에 머무를 줄 알게 되면 사물의 당연한 법칙에 모두 정견定見이 있어서 마음에 망동이나 위태함에 얽히는 일이 없고, 그의 사려는 더욱 밝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공자孔子가,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흐리멍덩하게 된다"라고 한 말과, 맹자가,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라고 한 말들을 들어서 변증辨證했다. 노소재盧蘇齋(노수신)가 이것을, "전현前賢들이 발장發揚하지 못한 것을 개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한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다.

《대학》의 '격물格物'이란 말에 대하여 초횡焦竑은 말하기를 "사물에는 본말本末이 있는 것이니 사물에 대하여 선후를 아는 것이 즉 격물格物(사물을 철저하게 아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선文選》 이선李善의 주註에는, 《창힐편蒼頡篇》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격格은 양도量度하는 것이다" 했다. 《운회韻會》를 살펴보니, 역시 "격格은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명나라 사람은 말하기를, "정기격물正己格物이라는 것은 대체로 격정格正하다는 뜻이니,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면 사물이 바르게 된다는 말과 같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러한 여러 설들은 아마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병통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정명도程明道(정호程顥) 선생이 말한 바, '정기이격물正己以格物'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대학》의 '격물格物'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 말하기를, "위에서 어진 것을 좋아하는데, 아랫사람이 의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이것은 나라가 이利를 이利로 여기지 않고, 옳은 것을 이利로 여기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인의仁義가 있을 뿐이다. 어찌 반드시 이利라고 말하는가. 어진데 그 어버이를 견기遣棄하는 자는 없다"고 운운한 것은 역시 깊이 《대학》의 본뜻을 체득한 것이다. 맹자의 학문이 자사子思 · 증자曾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명나라 진진성陳眞晟이 말하기를 "《대학》은 성의誠意라는 것으로 철鐵의 관문을 삼고 있는데, 주일主一(전일專一하게 함)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그 옥 열쇠(玉鑰匙)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매우 좋다.

한漢나라의 가규賈逵가 말하기를, "공급孔伋(자사子思)이 송나라에서 빈궁하게 살면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학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선성先聖의 도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대학》을 지어서 날(經)을 삼고, 《중용》을 지어서 씨(緯)를 삼았다"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중용》은 바로 공문孔門에서 전수傳授하는 마음의 법이다. 자사는 그 차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글로 써서 맹자에게 전수했다"라고 했다. 《대학》의 주에 말하기를, "전 10장은 증자曾子의 뜻으로 문인門人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문인이라고 한 것은 아마 자사를 가리킨 것이리라. 그런데 정자는 또 맹자를 자사의 문인이라고 했다. 또 《사기》에는, "맹가孟軻는 자사의 문인에게 수업했다"라고 하는데, 왕소王劭는, "문인門人이라고 한 인人은 잘못 더 들어간 글자"라고 했다. 조씨趙氏

의 주註와 《공총자孔叢子》[8]의 말에는 모두 맹자가 친히 자사에게 배웠다고 했다. 그러나 맹자가 난 것은 공자의 몇 백 년 뒤이고, 자사는 공자가 졸하기 전에 났다. 그 시기를 가지고 고찰한다면 맹자가 자사의 문하에 직접 나아가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방정학方正學 효유孝孺가 《대학》에 제사題辭하기를, 동문정董文靖 괴槐, 섭승상葉丞相 몽정夢鼎, 왕문헌王文憲 백栢이 모두 말하기를, "《대학》의 전문傳文은 일찍이 없어진 일은 없고, 다만 편찬의 차례가 뒤섞여서 혼란하였으므로 고정考正하는 이가 그 순서를 잃었을 뿐이다" 했다. 따라서 경문의 "知止……" 이하 "則近道矣"까지의 42글자를 전문의 "聽訟吾猶人也"라는 대문의 위에 갖다 붙여서 전문의 제4장으로 삼아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해석한 것으로 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학》은 다시 완전한 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회재晦齋 선생이 일찍이 《대학보유大學補遺》를 지었는데, 그의 견해도 이것과 우연히 일치하고 있다. 다만 "聽訟……"의 한 구절을 전문傳文에 옮겨 놓지 않고 경문의 말미에 붙여 두는 데에 그친 것이 다를 뿐이다.

11-5 제전諸傳

《가어家語》에, "안회顔回가 오문吳門의 한 필의 바랜 명주를 바라보니 공자가 말하기를, '말〔馬〕이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말의 광경光景이 명주 한 필의 길이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후세 사람들이 말을 한 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풍속통風俗通》에 말하기를, "말이 밤길을 갈 때에는 눈의 밝음이 앞의 4장丈 거리를 비친다. 그런 까닭에 말을 1필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8 전한前漢 때 공자의 9대손인 공부孔鮒가 편찬한 책.

자사자子思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먹게 할 수는 있으나, 아들로 하여금 그 맛을 알게 할 수는 없다. 성인聖人이 남을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남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뜻(旨)을 즐기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다. 뜻 깊은 말이로다. 도道나 문장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좌전》에, "정자가鄭子家가 죽으니 자가子家의 관棺을 깎고(斲), 그의 가족을 쫓아 버렸다"라고 했다. 두예杜預가 주註하기를, "착斲이라고 한 것은 그의 널을 얇게 깎아서 공경公卿에 대한 예禮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했다.
소동파蘇東坡의 《묵보당기墨寶堂記》에는 말하기를, "책을 좋아하는 이가 묘를 파헤치고 널(棺)을 쪼개(斲)고 찾아냈다"라고 하였으니, 착斲은 그 뜻이 같지 않다.

《좌전》에, 공납하는 "포모包茅(띠 풀을 묶은 것)가 들어오지 않아서 축주縮酒(술을 거름)할 수 없다"라고 했다. 두예杜預가 주註하기를, "띠 풀을 묶어 놓고 거기에 술을 붓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말한 바, "옛날에는 술을 땅에 부어서 강신降神하는 절차를 했다. 그런 까닭에 띠 풀로 축작縮酌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예기》에, "축작용모縮酌用茅"라고 하였는데,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술에 띠 풀을 사용하는 것은 걸러서 찌끼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동파東坡의 시에, "사주기모축社酒期茅縮(신사神社에 쓸 술을 띠 풀로 거른다)"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을 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예기》의 "축작용모縮酌用茅"라는 말은 또한 띠 풀에 술을 부어서 강신한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현李齊賢의 《역옹패설櫟翁稗說》에, "띠를 엮은 것으로 술을 걸렀더니 술이 지극히 맑아서 명주나 비단 주머니로 거르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여, 술 거른다는 뜻임을 증명하고 있으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좌전》에, “저우단서著于丹書”라는 말이 있다. 주에, “죄를 범하여 관노官奴로 몰입沒入하면 그 죄를 단서丹書에 기록한다”고 했다. 단서라는 것을 상고하여 보니, “공경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는 왕자王者가 되고, 게으름이 공경하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망한다……”라고 했다. 《패사稗史》에는, “단서는 옛사람의 법률서의 이름이다. 대체로 사람의 게으름과 욕심을 경계하고, 공경함과 의로움을 권면한 것이다. 공경과 의로움을 잃으면 게으르고 탐욕에 빠져서 형벌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사기》에는 “왕계王季가 창昌을 낳았다”라고 한 주註에, “붉은 참새가 단서丹書를 물고 창昌의 집 문에 날아들어 왔다. 그 글에 말하기를, 공경함이 게으름을 이기는 자는 길하다……”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좌전》에서 말한 단서와는 같지 않다.

《좌전》에 말하기를, “화살이 나의 손을 관통하니, 때를 놓치지 않고 나는 그것을 꺾어 버리고 말을 몰았다”라고 했다. 들으니 근년에 평양의 싸움에서 한 명나라 군인은, 화살이 안면을 뚫었는데 뽑아버리면 피가 화살 구멍으로 쏟아져서 빈혈을 일으켜 쓰러질 것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그 화살의 반을 꺾어서 버리고 반은 안면에 남겨둔 채 계속 싸워서, 왜병 2명을 죽이고 진陣에 돌아와서, 그 활촉을 뽑아내고 상처를 약으로 막아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좌전》의 말과 같다. 전진戰陣에 나가는 자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좌전》에 “임초林楚가 말을 성내게 하여 네거리에서 마구 달렸다”라고 했고, 《장자莊子》에는, “큰 붕鵬이 성내어 날다”라고 했고, 또 “초목이 성내어 나다〔生〕”라고도 했다. 노怒라는 글자를 쓴 것이 매우 좋다. 왕개보王介甫의 시에, “산의 나무들은 슬피 울고 물은 성내어 흐른다〔山木悲鳴水怒流〕”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을 따다 쓴 것일 것이다.

진秦나라와 진晉나라가 정鄭나라를 포위하니 정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진秦나

라가 어찌 정나라를 여관旅館으로 정하여 동도東道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가"라고 했다. 대체로 정나라가 진秦나라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후세에 이것을 따라 주인主人을 동도東道라고 했다. 한漢나라의 광무제光武帝가 경감耿弇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북도北道의 주인이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 뜻이다.

《좌전》에, "임금의 위엄이 낯에서 지척咫尺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주에, "임금은 높기가 하늘같아서 위엄이 항상 안면의 앞에 있다"라고 했다. 낯이라고 한 것은 신하의 낯을 가리켜 한 말이다. 지금의 세상에서 위威·안顔 두 글자를 모두 임금에 속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잘못이다.

《좌전》에, "빙氷을 잡고 걸터앉다"라고 한 말이 있다. 두예杜預가 말하기를, "빙氷은 화살 넣는 통이다〔箭筩〕" 했다. 상고하여 보니 《시경》에, "억석붕기抑釋掤忌(전통의 마개를 덮게 하다)"라는 글귀가 있다. 《설문說文》에, "붕掤의 음은 빙氷이니 화살을 덮는 것이다"라고 했다. 《운략韻略》의 주에는, "붕掤은 전통箭筩의 덮개이니 붕掤은 빙氷과 통용한다"라고 했다.

주周나라의 단양공單襄公이 진陳나라를 지나다가 길에 가로수가 없는 것을 보고 말했다. "진후陳侯가 큰 허물은 없으나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했다. 주註에, "옛날에는 나무를 줄지어 심어서 도로를 표시하고, 또 성수城守의 용도로 했다"라고 했다. 내가 보니, 중국에서는 길가에 반드시 수목樹木을 열 지어 심어서 위의 가지는 베어서 땔나무로 하고, 아래 가지로는 행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 아마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도일 것이다.

《좌전》에 말하기를, "사마司馬가 절節을 손에 쥐고 죽었다"라고 했다. 주註에 "절節은 나라의 부신符信이다. 손에 쥐고 죽은 것은 임금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음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했다. 한漢나라의 글에 말하기를, “소무蘇武가 흉노에게 감금되어 있을 때에 한漢나라의 절節을 짚고 양羊을 쳤으며, 누워서나 일어나서나 잡고 있으니 절節에 달린 쇠고리가 다 떨어졌다”라고 했다.

또 장건張騫이 흉노에 10여 년을 억류되어 있는 동안, 아내와 아들까지 있었으나 한漢나라의 절節을 쥐고는 잃지 않았다고 한다. 동한東漢의 태부太傅 마일제馬日磾가 절節을 빌려 가지고 주군州郡을 순무巡撫하였는데, 원술袁術이 그의 절節을 빌려 보고는 그대로 빼앗고 돌려주지 않으니, 일제가 절 잃은 것을 근심하고 분하게 여겨 죽었다고 한다. 세상에서 실절失節했다고 하는 말은 아마 이것에 근본이 있을 것이다.

전傳에 말하기를, “높은 곳에 올라서 부賦를 할 수 있으면 대부大夫가 될 만하다”라고 했다. 《한서》에 말하기를, “노래하지 않고 외는 것을 부賦라고 한다”고 했다. 아마 옛날에 제후諸侯와 대부大夫들이 서로 맞이하면 시를 외워서 그 뜻을 보았던 것이다. 아마 《좌전左傳》에 부각궁賦角弓이니 부습상賦隰桑이니 하는 것들이 이것이다. 《등왕각滕王閣》 서序에, “등고작부登高作賦(높은 곳에 올라 부를 짓다)”라고 한 것은 바로 저작著作한다는 뜻이다.

초자楚子가 제사齊師에 묻기를, “그대는 북해에 살고 과인은 남해에 살아서 다만 풍마우風馬牛처럼 서로 만나지 못하였는데, 뜻밖에 그대가 우리 땅에 건너오다니”라고 했다. 송나라의 장세남張世南이 말하기를, “소는 순풍에 달리고, 말은 역풍에 달리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유원성劉元城은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추저醜詆(욕하고 비방함)하는 말이다. 제齊나라와 초楚나라는 서로 멀리 떨어지기가 이와 같으니, 마우馬牛의 병풍病風으로도 오히려 서로 만날 수 없다. 지금 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득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서경》의 “마우기풍馬牛其風”의 주註에, “말이나 소는 풍

일風佚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대개 소나 말이 벗어나 달아나면 풍광風狂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풍風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송나라가 진晉·초楚의 대부 조맹趙孟에게 음식 대접을 하여 손(客)으로 했다. 주에 "손은 온 좌중座中이 존경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마빙경馬氷卿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정면에 좌석을 잡은 이를 '객客'이라 하고, 늘어앉은 이들을 '여旅'라고 했다"고 했다. 《중용》에 소위 여수旅酬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초楚나라의 장왕莊王은 하늘에 요성妖星(재해의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 보이지 않고 땅에 요괴가 보이지 아니하니, 곧 산천에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늘이시여, 나를 잊으셨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초장왕楚莊王은 무적의 패주霸主이다. 그런데 그의 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그가 흥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성내는 하늘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나를 잊은 하늘에게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라고 한 것도 또한 이 뜻인 것이다.

《국어國語》에, "유왕幽王 2년에 서주西周의 개천 세 곳이 모두 벼락을 맞으니 백양부伯陽父가 말하기를, "주周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다"라고 했다. 유자후柳子厚가 이 말을 비난하여 말하기를, "산천이란 것은 다만 천지 사이에 있는 물체일 뿐이다. 저절로 싸우고 저절로 마르고 저절로 무너지고 저절로 이지러질 뿐이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아, 자후子厚의 이 말이 바로 후세의 "천변天變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설인 것이다. 《국어》가 그른 것이 아니고 자후의 말이 그른 것이다.

《전국책戰國策》에, "맹상군孟嘗君의 상등의 손(客)은 고기를 먹고, 중등의 손은 물고기를 먹고, 하등의 손은 나물밥을 먹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풍환馮驩이

소위 "식사에는 물고기(魚) 반찬이 없다"고 한 것은, 그가 바로 하등의 손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11-6 제자諸子

《도덕경》에 말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런 까닭에 상무常無에서 그 지극히 미묘한 것을 보고자 하고, 상유常有에서 그 귀착歸着을 보고자 한다. 이 유有와 무無 2가지는 같은 것에서 나와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 같은 것을 유현幽玄(도리가 깊어서 알기 어려움)이라고 한다. 유현하고 또 유현하여 모든 미묘한 것이 나오는 문이다"라고 했다.

내가 여러 학자들이 주역註譯한 것을 보니, 만족하고 타당한 것 같지 않다. 나의 망령된 의견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도道라는 것은 본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억지로 도道라고 이름한다. 그런 까닭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영원불변의 도(常道)가 아닌 것이다. 이름은 본래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억지로 이름을 세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닌 것이다. 무無라는 것은 고요함이니 본질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천지의 처음이라고 한다. 유有라는 것은 움직임이니 작용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다. 도道는 상무常無와 상유常有로서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상무에서 그 미묘한 것을 보게 하고, 상유에서 그의 귀착하는 것을 보게 하고자 한다. 이 유와 무 2가지는 같이 도道의 자연에서 나왔으면서 이름하는 것이 같지 않을 뿐이다. 유有와 무無, 동動과 정靜 사이의 천변만화千變萬化가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 까닭에 온갖 미묘한 것의 문인 것이다.

《도덕경》에, “寵辱若驚 貴大患若身 何謂寵辱 寵爲下得之若驚 失之若驚 何謂貴大患若身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無身 吾有何患 故貴以身爲天下 則可寄於天下 愛以身爲天下 乃可以託於天下”라는 글이 있다.
나는 이 글을 이렇게 풀이한다. “총욕寵辱”이란 말은, 총寵은 욕辱이라는 뜻이다. “귀대환貴大患”은 “귀貴라는 것은 큰 근심거리다”라고 말한 것이다. 약若이란 글자는 너(汝)와 같은 뜻이다. 총애가 욕되는 것은 너에게 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귀貴가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너에게 그 몸이 있기 때문이다. “총위하寵爲下”라는 말은 총寵이 욕되다는 뜻을 풀이한 말이다. 즉 남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은 욕되다는 뜻이다. 몸이 있는 자는 형체를 잊을 수 없지만, 몸이 없는 자는 그 형체를 잊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몸이 있으면 근심이 있고, 몸이 없으면 근심이 없다. 대체로 천하 사람들은 귀貴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몸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다만 천하에 그 자신의 목숨을 붙여 놓을 수 있고, 귀한 것이 근심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곧 천하天下로써 그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舜임금이나 우禹임금이 천하를 가지고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도덕경》에 말하기를, “적으면 얻고, 많으면 의혹한다”라고 했다. 주에, “재물이 많은 자는 지키기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의혹하고, 학문이 많은 자는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할까 의혹한다”고 했다. 노자와 같은 자는 말에 깊은 식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덕경》에 말하기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고,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라고 했다. 주에 “초목의 꽃은 가볍기 때문에 영락零落하고, 뿌리는 무겁기 때문에 오래 있다. 용은 고요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지만, 범은 조급하기 때문에 단명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이치를 깊이 살피면 동動과 정靜의 득실을 알 것이다.

노자는 말하기를, “도道로써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신神의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왕도가 밝게 닦아지면 부정한 기운이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했다. 또《문자文子》[9]에는 말하기를,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이다. 이 도道를 아는 자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군자가 이치를 알고 있으면 귀신도 저절로 미혹하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성인聖人이 도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경우이겠는가.

운서韻書를 살펴보니, “붕鵬이라는 글자가 경서經書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장자莊子》에서부터 처음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나는 말한다. 곤鯤은 물고기의 새끼이다. 그런데 장주莊周는 말하기를,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춘椿은 목근木槿(무궁화)인데 장주는 말하기를, “대춘大椿은 8,000년을 한 번의 봄가을로 한다”고 했다. 진정 이른바 우언寓言(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은근히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다.

《장자》에 말하기를, “얻는 것은 때이고, 잃는 것은 순리이다. 때에 편안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것을 주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소년에서 장년을 얻고, 장년에서 늙음을 얻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해의 수數가 오는 것을 물리칠 수는 없다. 잃는다는 것은 장년이 되므로 소년을 잃고, 늙은이가 되므로 장년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행년行年의 가는 것을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천하의 일이 모두 그러한 것이어서, 오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가는 것을 머물게 할 수 없다. 어찌 그 사이에서 얻고 잃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즈음에 슬픔과 즐거움을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장자莊子의 이 말을 달리達理(사물의 이치에 크게 통함)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9 책 이름. 2권. 저자 미상. 일설에는 노자의 제자이고 자字는 문자文子인 신근辛釿의 찬撰이라 함. 노자의 설을 13편에 나누어 해설하였음.

《장자》에 말하기를, "야마野馬라는 것은 티끌이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야마는 전야田野에 떠 있는 기체氣體이다. 오융吳融의 부賦에 말하기를, "양간樑間의 야마가 움직인다"라고 하였으니 티끌을 야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자》에 말하기를, "유類가 스스로 자웅雌雄이 된다. 그런 까닭에 풍화風化라고 한다"라고 했다. 주註하는 이가 유類를 물류物類의 유類로 해석하고 있으나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산해경》을 상고하여 보니, "단수산亶受山에 짐승이 있는데, 이름을 유類라고 한다. 제 스스로 암컷이 되고 수컷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장자》에 말하기를, "정程은 마馬를 낳고, 마馬는 인人을 낳고, 인人은 또 기구機口(우주의 신비)에 돌아들어 간다"라고 했다. 해의解義해 말하기를, "정程은 벌레이다. 마馬는 풀이름이니, 지금의 마치채馬齒菜와 같은 것이다. 인人도 또한 풀이름이니, 지금 인삼人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소설小說》을 참고하여 보니, "진秦나라 사람들은 표범을 정程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馬가 인人을 낳았다'고 한 것도 또한 《한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장사풍순司徒長史馮巡의 마馬가 인人을 낳았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인人은 또 기機로 도로 돌아들어 간다"라고 한 한마디를 가지고 본다면, 정程이니 마馬니 인人이니 하는 것은 아마 벌레 이름이나 풀이름은 아닐 것이다.

《장자》의 〈설검說劒〉편에 말하기를, "왕이 드디어 검사劒士들에게 7일 동안 검술을 시합시키니, 죽고 부상한 자가 60여 인이었으며 5, 6명의 훌륭한 검사를 얻었다"라고 했다. 들으니, 지금 왜인倭人의 풍속에는 패를 나누어 검술을 익혀서 승부를 결정하는데 죽는 자가 산처럼 쌓인다고 한다. 즉 이 법인 것이다.

《장자》에 "부열傅說이 기수箕宿(별 이름)의 꼬리를 타고 열성列星(벌여 있는 많은 별들)에 자리했다"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부열傅說이 죽어서 정신이 기수의 꼬리에 의탁했다"라고 했다. 《천문유취天文類聚》를 조사하여 보니, 기수는 별이 4개이고, 미수尾宿는 별이 9개인데, 미수의 동쪽 한 별의 이름을 부열성傅說星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열성의 하나가 된 부열이 기수의 꼬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장자》에 말하기를, "상망象罔이 현주도玄珠道의 본체를 찾았다"고 했다. 참을 얻는 것은 용심用心하지 않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능엄경楞嚴經》의 '망상罔象'의 주註에, "없는 것 같은 것을 망罔이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상象이라 한다. 그 체體는 정미精微하다. 그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다"라고 했다. 또 "상망象罔은 몽매蒙昧한 것이다"라고 했다. 주자의 시에, "밝고 분명하여 상망象罔하지 아니하다(昭晰非象罔)"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자》의 〈양왕讓王〉편 이하 4편을 동파東坡는, 장자의 저작이 아니라고 했다. 주자도 또한 이 두어 편은 매우 상스럽고 속되다고 말했다. 지금 〈도척盜跖〉편을 살펴보니, 전항田恆을 전성자상田成子常이라고 하였으니, 결코 선진先秦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한인漢人이 위찬僞撰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장자》의 〈거협胠篋〉편에 말하기를, "전성자田成子에게 도적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뒤 12세世에 제齊나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 글이 있다. 옛사람들은 장주莊周가 선왕宣王의 시대에 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왕건王建의 때에 이르기까지는 오히려 100여 년이나 된다. 어찌 이 늙은이로서 제齊나라가 망할 때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무양無恙(병이 없음)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기》를 고열하여 보니, 전성자로부터 왕건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10세이다. 그런데 지금 12세라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후세의 사람들이 위찬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화봉인華封人(화華는 땅 이름. 봉인封人은 봉강封疆을 지키는 사람)이 말하기를, "천세千歲 뒤에 세상이 싫어지면, 가서 신선이 되어 저 흰 구름을 타고 옥황상제의 나라(帝鄕)에 도달하면"이라고 했다. 선仙이라는 글자가 처음으로 여기에 보인다. 그리고 《장자》에는 '제향帝鄕'의 아래에 또 말한 것이 있으니, "3가지 근심(三患)[10]이 이르지 않고, 몸에는 항상 재앙이 없으니, 무슨 욕되는 일이 있겠는가(三患莫至 身常無殃 何辱之有)"라고 했다. 이것은 후세의 도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설이다.

《장자》에, "소인宵人(소인小人)이 외형外刑(외형外形)에 나타나는 형벌에 걸리면……"이라고 한 문구가 있다. 주석註釋하는 이가 말하기를, "공명정대하지 않은 무리를 소야宵夜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학기學記〉를 고찰하여 보니, "소아이삼宵雅肄三"이라 하고, 주註에 "소아小雅의 〈녹명鹿鳴〉·〈사모四牡〉·〈황황자화皇皇者華〉 등 3편을 노래하여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사기》에는 "소인宵人은 가까이하지 말라"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소宵는 소小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소宵는 소小와 같은 뜻이다.

"공자가 행단杏壇에 앉아 있다"라고 했다. 《사문유취事文類聚》를 상고하여 보니, "행杏은 홍행紅杏(붉은 꽃의 살구나무)이다"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근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강희맹姜希孟의 시에, "단 위의 붉은 살구 꽃송이가 반은 떨어졌다(壇上杏花半落紅)"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어떤 이는 은행나무가 아닌가 의심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10 두려운 일이 많고, 일이 많고, 치욕恥辱이 많은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듣고도 배울 수 없는 것, 배우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

전傳에 말하기를, “기일족夔一足”이라고 했다. 《장자》에 말하기를, “기夔는 현蚿(노래기)을 가엾게 여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기夔는 짐승의 이름이니, 용과 같이 생겼으며 발이 하나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한비자韓非子》에,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묻기를, ‘기夔(요임금의 신하의 이름)는 발이 하나뿐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기夔는 남과 다른 것이 없었으며, 유독 성률聲律에 통달하였으므로 요堯임금이 기夔 1인이면 족하다 하여, 악정樂正을 시켰던 것입니다. 발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왕감주가 이 이야기를 이용하여, 기夔가 외발이라는 설이 잘못인 것을 증명했다. 한漢나라의 《명제기明帝紀》에 말하기를, “요堯가 대악장大樂章을 짓는 데 한 사람 기夔만으로 족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양승암楊升庵이 말하기를, “《장자》의 말이 우연히 《중용》과 합치한다. 시거이용현尸居而龍見[11]이라고 한 말은 《중용》의 불현이장不見而章[12]이란 말과 같고, 연묵이뢰성淵默而雷聲[13]이란 말은 《중용》의 부동이변不動而變이란 말과 같다”고 했다. 나도 또한 말한다. 시거용견尸居龍見은 막현호은莫顯乎隱[14]이란 말과 같고, 연묵뢰성淵默雷聲은 막현호미莫顯乎微라는 말과 같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노자老子가 열자列子보다 높고, 열자가 장자莊子보다 높다”라고 했다. 아마 장자는 그 행적이 드러났으며, 열자는 그 행적이 희미하고, 노자는 그 행적이 민멸泯滅했기 때문에 한 말일 것이다.

11 시동씨(尸)처럼 다만 단정하게 앉아 하는 일 없이 있어도 그 덕은 용이 하늘에 날아오르듯이 드러난다는 말.

12 드러내지 않아도 빛난다. 저절로 빛이 드러난다는 말.

13 고요히 침묵하고 있어도 우뢰처럼 소리가 난다. 시거이룡현尸居而龍現과 같은 뜻.

14 은미隱微한 것이라고 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어떤 은미한 일이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

《열자》에 말하기를, “너의 현달함은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며, 북궁자北宮子의 궁곤함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다. 모두 하늘이 정한 것이다”라고 했다. 지봉자芝峯子는 말한다. 궁곤하고 영달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용렬한 사람들은 요행으로 벼슬을 한 자리 얻으면 곧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고, 어질면서 아래 지위에 있는 자를 도리어 비천하게 여기니 또한 괴이하지 않은가.

《열자》에 말하기를, “쇠를 잃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 속마음으로 이웃집 아들을 의심하였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니, 그의 걸음걸이가 쇠를 훔친 사람의 걸음걸이였으며, 그의 말하는 것이 쇠를 훔친 사람의 말씨였다. 그의 동작과 태도 어느 것이나 쇠를 훔친 사람의 그것 아님이 없었다. 얼마 뒤에 쇠를 도로 찾았다. 다른 날 그 이웃집의 아들을 다시 보니 동작이나 태도에 쇠를 훔친 것 같은 구석은 없었다”라고 했다. 지봉자芝峯子는 말한다. 아! 그런가 아닌가 의심 나는 것은 밝히기 어렵고, 사람의 생각이나 보는 것은 치우치기 쉽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하겠거니 하물며 쇠 도둑보다 더 큰일이겠는가. 상고하여 보니 철鐵이라고 한 것은 여물을 자르는 작두(斫刀)이다.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장자莊子를 높여서 남화진인南華眞人이라 하고, 열자列子를 충허진인沖虛眞人이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남화는 장자가 살던 마을의 이름이다.

《관자管子》에 말하기를,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목전目前의 계획은 학문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신후身後를 위한 계획은 덕德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관자》에 말하기를, “나라를 고갈枯渴하지 않는 창고에 두는 방법은 유덕有德한 인재에게 주는 것이고, 나라를 고갈하지 않는 마을에 보존하는 방법은 뽕나무와 삼을 재배하고 육축六畜을 사양飼養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것은 맹자가 말한, “다섯 이랑의 집터에 뽕나무를 심고 닭 · 양 · 개 · 돼지 사양의 제때를 잃지 말라”고 한 것이고, 유덕한 인재에게 준다는 것은 맹자가 “현능한 이를 임용해 써라”라고 한 말이 그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육축이란 것은 닭 · 양 · 소 · 말 · 개 · 돼지이다.

《관자》에 말하기를, “부釜(6두斗 4승升들이 용기容器)나 고鼓(곡斛의 다른 이름)가 가득 차면 사람이 평미레질하고, 사람이 가득 차면 하늘이 평미레질한다”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매우 사랑한다.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을 살펴보면, 하늘의 법칙도 또한 가득 차지는 않는다. 참고하여 보니, 부釜 · 고鼓는 다 양기量器의 이름이다.

《관자》에 말하기를, “무회씨無懷氏가 태산泰山을 봉封하고 돌을 새겨 공功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비碑의 시초이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단궁檀弓〉편에 말하기를, “공실公室(왕실)에 풍비豐碑[15]를 본다”라고 했고, 육구몽陸龜蒙의 글에는 말하기를, “비碑라는 것은 비悲이다. 옛날에는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서 장사하였는데 나무를 사용했다. 후인後人이 거기에 글을 써서 그의 공덕을 표시하고, 그대로 두고는 차마 치워 버리지 못했다. 진秦나라 · 한漢나라 이후로 이것을 돌로 바꿨다”라고 했다.

양허무梁許楙가 말하기를, “관이오管夷吾가 말한 72군君은 세상이 질박하고 백성들은 순후하였으며, 노끈을 맺어 정치를 했다〔結繩而治〕,[16] 어찌 글을 새겨 이

15 고대古代 장구葬具의 한 가지. “豐碑下棺具也”

16 아직 글자가 없는 상고上古 때에, 노끈을 맺어서 정치하던 일. 즉 큰일에는 큰 노끈을 맺고, 작은 일에는 작은 노끈을 맺어서 여러 일을 기억하였으며, 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룰 수 있었겠는가. 망언妄言도 심하다"라고 했다.

《관윤자關尹子》에 말하기를, "하늘도 겨울에 연꽃을 피우고 봄에 국화를 피우지는 못한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때를 위배하지 아니한다. 땅도 낙洛에 귤橘을 나게 하고, 문汶에 학貉(담비)이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풍속을 어기지 않는다. 성인聖人도 손으로 걷고 발로 잡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의 장점을 저버리지 않는다. 성인도 물고기를 날게 하고 새를 달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남의 장점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성인은 그 자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자연에 맡긴 것이 오래다"라고 말한 것이다.

《신자申子》에 말하기를, "질투하는 아내는 집을 파괴함이 어렵지 않고, 난신亂臣은 나라를 파괴함이 어렵지 않다.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여러 아내가 모두 어지럽게 되고, 한 사람의 신하가 임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전권專權하면, 여러 신하들에게 모두 폐단이 생긴다"라고 했다. 정말 격언이다.

《문자文子》에 말하기를, "음악이라는 것은 선왕先王들이 즐거움을 꾸민 것이고, 군려軍旅라는 것은 선왕先王들이 성남을 꾸민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꾸민다고 한 글자가 매우 좋다. 꾸밀 뿐이고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즐거움이 지나치면 슬프게 되고, 성냄이 지나치면 폭악暴惡하게 된다.

《문자》에 말하기를, "덕이 적으면서 총애를 많이 받는 자는 남이 비웃고, 재능이 아래이면서 지위가 높은 자는 위태하며, 큰 공로도 없으면서 후한 봉록을 받는 자는 비루하다. 그런 까닭에 사물은 어떤 경우에는 보태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덜어내는 것이 도리어 보탬이 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보태는 것만이 보탬 되는 줄 알고 덜어내는 것이 도리어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다만 덜어내는 것이 손損이라는 것만을 알고 보태는 것이 도리어 손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슬픈 일이다.

《문자》에 말하기를, "신사信士(신의가 두터운 선비)로 하여금 재물을 나누게 하는 것이, 분수分數를 정하여 산가지[17]를 움직여 계산하는 것만 못하다. 어째서인가. 사람이 마음을 먹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마음 없는 산가지가 공평하게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이 후세의 "재물을 나눌 때에는 산가지를 잡아라"라고 하는 설이 되었으니, 그 유래가 또한 오래이다.

《회남자》에 말하기를, "선비는 아래에 자리하여 높아지기를 다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편안하고 위태하지 않다. 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앞을 다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빠르고 더디지 않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도덕경》의 말과 같다. 유안劉安은 그 말을 실천하지 않았구나.

《회남자》에 말하기를, "마음은 작게 가져야 하고 뜻은 크게 가져야 하며, 지혜는 원만하기를 바라며 행동은 방정方正하기를 바란다. 능력은 많은 것이 좋고, 일은 적은 것이 좋다"고 했다. 격언이다. 손사막孫思邈이 그 두 글귀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담膽은 커야 한다"라고 하니,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담은 커야 한다는 말에는 병이 있다. 의지를 크게 가져야 한다고 한 말의 착함만 못하다"고 했다.

17 옛날에 셈하는 데 쓰던 물건. 대나 뼈 같은 것으로 젓가락처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로세로로 벌여 놓아서 셈을 표함. 그 방법은 1과 100만은 세로로 놓고, 십十 · 천千 · 억億(지금의 10만)은 가로 놓으며, 각각 5가 되는 수는 머리에다 1개를 수직으로 놓는다.

《회남자》에 말하기를, "둥근 자와 모난 자와 수준기水準器와 먹줄(矩準繩)은 기교를 나타내는 기구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교는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기교라는 것은 마음의 공장工匠이다. 이 기교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형이 아우에게 깨우쳐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타인에게랴.

《회남자》에 말하기를, "맛이란 것은, 단맛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5가지 맛이 조화되고, 빛이란 것은, 흰빛이 제대로 되면 오색五色이 이루어지며, 도라는 것은, 전일한 것이 서면 만물이 생성한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단맛은 오미五味의 주가 되고, 흰 것은 오색의 바탕이 되며, 1이란 것은 만물의 근본이 된다. 도道라는 것은 하나일 뿐이다. 정亭이라고 한 것은 단맛을 타는 것을 말한 것이다.

《회남자》에 말하기를, "호파瓠巴(춘추시대 초나라의 거문고 명인)가 거문고를 타니 음어淫魚가 나와 들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음어淫魚는 물고기의 이름이다. 성질이 음악을 즐겨하여, 음악소리가 일어나면 머리를 물 위에 내놓고 듣는다고 한다. 조식曹植의 시에, "음어가 물결을 타고 듣는다(淫魚乘波聽)"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혹 음어淫魚를 유어游魚라고 쓰는 이가 있으나 잘못이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예羿가 활을 쏘아 하루에 까마귀 9마리를 떨어뜨렸다. 까마귀는 가장 쏘기 어려운 것인데 하루에 까마귀 9마리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활 쏘는 솜씨가 민첩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서 드디어 해(日) 9개를 쏘아 떨어뜨렸다고 했다"고 했다. 그 말이 믿을 만한 것 같다.

《회남자》에 말하기를, "동쪽 집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아니하니, 서쪽 집의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사社여 속히 죽으십시오. 내

반드시 슬피 울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고찰하여 보니, 강회江淮의 사람들은 어머니를 사社라고 불렀다 한다.

정鄭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孔子는 상가喪家의 개 같다"라고 했다. 주註에, "상喪은 평성平聲이다. 초상난 집에서 주인은 정신이 없고, 사람들은 아득하여서 개는 음식을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파리한 것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상喪이란 글자를 잃을 실失 자로 풀이해야 한다. 집을 잃은 개라면 매우 파리하게 되었을 것이 당연하다. 상喪을 거성去聲으로 하여 읽어도 아마 무방할 것 같다. 마땅히 "장자약상환가莊子弱喪還家(장자가 잃은 집을 돌리는 것을 약하게 한다)"라고 한 상喪 자와 같은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황석공기黃石公記》에 말하기를, "옛날 어진 장수가 그에게 보내온 단簞에 담긴 술을 강물에 던지고는 장수와 군사들로 하여금 그 흘러오는 물을 마주 받아 마시게 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단簞은 작은 광주리로서 밥을 담는 그릇이다. 《맹자》에, "광주리의 밥과 병의 미음(簞食壺漿)"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제 단에 담은 술(簞醪)이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단簞은 술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의심스럽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단료簞醪는 도시락의 밥과 술이다"라고 한다.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없다.

《여씨춘추》에 말하기를, "주紂가 무도하여 매백梅伯을 죽여서는 젓을 담그고, 귀후鬼侯를 죽여서는 포脯를 떴다"라고 했다. 《회남자》에는 말하기를, "귀후의 딸을 죽여 젓을 담그고, 매백의 해골로 김치를 담갔다"라고 했다.
《마사馬史》의 주에는, "귀후는 즉 구후九侯이고, 매백은 즉 악후鄂侯이다"라고 했다. 《사기》를 참고하여 보니 "구후의 딸이 음란한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니, 주紂가 성내어 그를 죽이고 구후로 젓을 담갔다"라고 했다.

《여람呂覽(여씨춘추)》에 말하기를, "손(客)에게 무색武色이 있으니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무색은 아마 온화하고 공순한 빛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유향신서劉向新序》에 말하기를, 허도공許悼公이 학질을 앓다가 독약을 마시고 죽으니, 태자太子 지止가 약을 맛보지 않은 것을 자책하여 목구멍에 밥알 한 개도 넘기지 않았으니,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므로 《춘추》에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으로 보니 학질에 잡약雜藥을 쓰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하였던 것이다. 다만 《춘추》에는, "임금을 시해弑害했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고 하였으니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유향신서》에 말하기를, "노魯나라에 공순한 선비가 있었으니 기사機氾라고 했다. 나이가 70세가 되어도 그 공순함은 더욱 심했다. 겨울에는 그늘로 다니고, 여름에는 볕으로 다녔으며 항상 부질斧質(형구刑具)이 몸에 덮쳐질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했다. 나는 가만히 이 사람을 사모한다. 그러나 능히 배울 수는 없다.

대체로 요순堯舜은 대성인大聖人이다. 그렇건만 칭찬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공순하고 겸양을 잘한다" 했고, 또 "온화하고 공순하고 진실로 충실하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몸을 공순하게 하여 바르게 남면南面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중용》에서 그 극공極功을 말하여, "돈독하게 공순하면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라고 했다. 크게 공순함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설원說苑》에, "위문후魏文侯가 대부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공승불인公乘不仁(사람 이름)으로 하여금 상정觴政[18]을 시행하게 하니 말하기를, '만약 술잔을 다

18 술자리의 흥치를 돕기 위하여 마련하는 음주의 규칙. 상령觴令 · 주령酒令이라고도 한다.

비우지 않으면 대백大白(큰 술잔)을 띄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문후文侯가 다 마시지 못하니 불인不仁이 백白을 들어 임금에게 부浮했다"라고 했다.

또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장방張放 등과 함께 궁중에서 술잔치를 열었는데, 모두 잔 가득히 백白을 들었다"라고 했다. 《강목綱目》의 주에, "백白은 벌배罰杯의 이름이고, 부浮는 벌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일설에는, "거백음흘擧白飮訖이라는 말은, 잔을 들고 벌주를 다 마신 것을 고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법언法言》에 말하기를, "하늘을 잴 수 있다면 만물을 덮는 것이 얕을 것이며, 땅을 측량할 수 있다면 만물을 싣는 것이 얕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성인聖人은 이것을 마음으로 한다.

《포박자抱朴子》에 말하기를, "주周나라의 목왕穆王이 남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사졸들이 돌아오지 못한 자가 많았다. 그리하여 군자는 원숭이가 되고, 학鶴이 되곤 하였으며, 소인은 벌레가 되고 사沙가 되곤 했다"라고 했다. 사沙라고 한 것은 모래흙을 말한 것이 아니다. 아마 사슬沙虱[19] · 사공射工[20]의 등류일 것이다. 한창려韓昌黎(한유韓愈)의 《나지묘비羅池廟碑》에 말하기를, "봄에는 원숭이와 함께 읊고, 가을에는 학과 함께 날다(春與猿吟兮 秋鶴與飛)"라고 한 것도 은연중 이것을 쓴 것이다. 《한시韓詩》 주註를 살펴보니, 목왕이 아니고 곧 소왕昭王이었다. 《사기》에, "소왕이 남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아교풀로 붙인 배가 물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니 소왕이 옳은 것 같다.

《음부경陰符經》에 말하기를, "자연의 도는 고요하다. 그런 까닭에 천지만물이 생성한다"라고 했다. 주자가 말하기를, "이 두 글귀는 좋은 것을 말했다. 고요함은 능히 움직임을 낳는다. 만약 지극히 고요하지 않으면 천지만물이 나지

19 벌레의 이름. 물속의 모래에서 생기는 독충으로, 사람의 피부를 침범하여 해를 준다.

20 물여우의 다른 이름. 석잠과石蠶科에 속하는 곤충의 유충이니, 해충이다.

못한다"라고 했다.

위소주韋蘇州의 시를 살펴보니, "만물은 스스로 나서 듣건만, 태공太空은 항상 적요하구나. 도리어 고요한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문득 고요한 가운데를 향하여 사라진다(萬物自生聽 太空恒寂寥 還從靜中起 却向靜中消)"라고 했다. 이 시도 또한 도를 아는 이가 지은 것 같다.

11-7 제사諸史

《사기》에, "복희씨伏羲氏가 망고網罟(그물)를 만들어 사냥하는 일과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쳤다"고 했다. 《세본世本》에 말하기를, "구망句芒이 망고網罟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송충宋衷이 말하기를, "구망은 복희씨의 신하다"라고 했다. 시자尸子[21]가 말하기를, "수인씨燧人氏의 시대에 천하에 물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했다. 또 상고上古 때에는 털이 붙은 채로 먹고 피를 마시곤 하였으니,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일이 복희씨 때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아마 복희씨의 시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그물을 사용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복희씨가 만들었다고 한 것이다.

"복희씨가 희생犧牲[22]을 길러서 포주庖廚(푸주)를 채웠다"라고 한 글의 주에, "육축六畜의 종류도 처음에는 역시 다 야생동물이었다. 오직 성인聖人이 능히 그 성질의 길들일 수 있는 것을 살펴서 사람들에게 집에서 사양飼養하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털째로 먹고 피를 마시던 시대로부터 착한 임금이 이어 나와서,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고, 사양飼養하는 것을 가르치고, 희

21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이름은 교佼, 상앙商鞅의 스승. 상앙이 형刑을 받자 촉蜀으로 도망하여 책 20편을 지음.

22 천지天地 · 종묘宗廟에 제물祭物로 쓰는 짐승. 곧 산양이나 소, 혹은 돼지.

생犧牲을 길러서 잡아먹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유래가 멀다. 아마 상고 때 인류는 아직 성盛하지 않아서 새나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이 수수蒐狩(봄 사냥과 겨울 사냥)하는 제도와, 희생을 길러서 잡아 제물로 바치는 예禮를 제정한 것은 구복口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백성을 위하여 해害를 제거한 것이다.

"황제黃帝가 곰(熊)·큰곰(羆)·비貔(범 비슷한 맹수로, 수컷)·휴貅(범 비슷한 맹수로, 암컷)·이리(貙)·범을 교련시켜 가지고 염제炎帝와 더불어 판천阪泉의 들에서 싸웠다"라고 했다. 주에 "이 6가지 짐승들은 맹수이니 교련시켜서 전쟁에 쓸 만하다"라고 했다. 《주례周禮》에 "복불씨服不氏는 맹수를 교련시키는 일을 맡는다"라고 했다. 왕유정王維楨이 말하기를, "상고上古에 성인聖人이 능히 맹수를 길들였다는 것을 거짓말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은 왕망王莽이 범과 표범과 물소와 코끼리와 남만南蠻의 코끼리를 다루어서 싸움에 사용한 따위와 같은 것이다. 다만 짐승을 거느리고 사람과 싸우게 하는 것은 아마 성인聖人의 일이 아닐 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순舜임금의 신하에 주호朱虎니 웅熊이니 비羆니 하는 자들이 있었다. 《서경》에, "굳세고 강한 것을 숭상하여 곰 같고, 큰곰 같으며, 범 같고, 이리(貔) 같다"라고 했다. 그러니 황제가 웅熊과 비羆와 비貔와 휴貅와 추貙와 호虎를 교련했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또한 맹사猛士의 이름이거나 혹은 공전攻戰하는 법이 아닌지 의심된다. 후세에서 무사武士들을 가리켜 비휴웅호貔貅熊虎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에 근본이 있을 것이다.

《사기》에, 황제黃帝의 아들 창의昌意가 촉산제蜀山帝의 딸에게 장가들어 전제顓帝를 낳았다고 했다. 이때에 중국은 촉蜀나라와 서로 통호通好했다. 또 《우공禹貢》에, "양주梁州는 즉 촉나라 땅이니, 진秦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서로 통했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아마 진나라 때에 처음으로 촉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이다.

《통감외기通鑑外紀》에 공공씨共工氏라는 것이 나온다. 또 "공공씨가 성내어 불주산不周山에 부딪쳤다"라고 하였으며, 또 "순임금이 공공共工을 유주幽州에 귀양 보냈다"라고도 하였으니, 이는 아마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공공共工은 벼슬 이름이다"라고 한다. 이 설이 그럴듯하다.

《사기》에, "의적儀狄이 처음으로 술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전국책》을 살펴보니, "황제皇帝의 딸이 의적으로 하여금 술을 만들게 하여 우禹임금에게 올렸다"라고 했다. 그런데 왕찬王粲의 《주부酒賦》에는 말하기를, "황제의 딸 의적이 맛 좋은 술을 올렸다"라고 했고, 또 《소설小說》에는 말하기를, "의적儀狄은 바로 우임금의 누이다"라고 했다.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사기》에 "우禹가 고도皐陶를 추천하고 또 정사를 맡겼다. 그리했다가 고도가 졸하니, 익益을 등용하여 정사를 맡겼다"라고 했다. 《맹자》에 소위, "익을 하늘에 추천한 것이 8년이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대체로 우禹가 천자의 지위에 나아간 것이 겨우 10년이 되어서 붕崩했다. 그나마 고도가 죽은 뒤에 익을 등용하였으니 익이 우에게 정승 노릇을 한 것은 응당 오래지 않았을 것이다.

《사기》에, 성탕成湯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7년 동안 매우 가물었다. 태사太史가 점을 쳐 보고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바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탕湯이 말하기를, "내가 기구祈求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만약 반드시 사람을 써서 빌어야 한다면 청컨대 내 자신으로 그것에 충당하겠다"라고 했다. 주註에, "사람으로 기도한다(人禱)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이 설에 의문이 있다. 성인聖人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맹자는 허수아비(俑)(옛날에 시체와 함께 매

장하던 인형)를 처음 만든 자를 비난하였으며, 증鄫에서 제사에 사람을 제물로 쓴 것을 《춘추》에는 죄로 했다. 어찌 삼대의 태평성시太平盛時에서 사람을 죽여 하늘에 제사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또 옛날에 남의 신하된 사람은 임금을 마땅한 도리로 인도했다. 태사太史가 어찌 이런 것을 임금에게 보고하였겠는가. 설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탕은 반드시 성내고 거절하여 후세를 경계하였을 것이다. 어찌 그 말을 믿고 좇아 자신이 당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그 설이 상도常道에 어그러짐은 분명하다.

"열說이 부암傅巖의 들에 축築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이소離騷〉에 말하기를, "열說이 부암에서 조축操築하니, 무정武丁이 써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채씨蔡氏가 말하기를, "축했다고 한 것은 살았다고〔居〕 하는 말이다. 지금 복축卜築(땅을 가려서 집을 짓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채씨의 말이 옳다면 〈이소〉의 글은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사략史略》에 "주紂는 힘이 쇠갈고리의 새끼를 펼 수 있다"라고 했다. 《회남자》를 보니, "주紂의 힘이 갈고리 새끼로 된 쇠를 펼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마 쇠갈고리를 잡아당겨 펴서 곧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 같다"라고 했다. 새끼로 된 쇠라는 것은 꼬아서 새끼를 만든 것을 말한 것이니, 《시경》에, "밤에는 새끼를 꼰다〔宵爾索綯〕"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이가 이 새끼〔索〕란 글자를 그 아래에 나오는 글귀에 붙여서 "색벌유시씨索伐有施氏"라고 읽어서 구색求索(찾아서 요구함)의 색索으로 풀이하는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사기》에 "서백西伯은 구후九侯 · 악후鄂侯와 함께 주紂의 삼공三公이 되었더니, 주紂가 구후를 죽이고, 악후는 간쟁하다가 죽으니 서백이 듣고 모르는 체하여 다투지 아니했다"라고 했다. 그가 간쟁하지 아니한 것은 혹은 성인聖人의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헛되게 죽는 것이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까. 서백이 놓여 나오게 되어서는 낙서洛西의 땅을 바치고, 포락炮烙(불에 태워 죽임)의 형벌을 버리기를 청하였으니, 그의 어짊이 천하에 미친 것이 광대하다. 성인의 하는 일은 본래 보통 사람들의 심정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그가 유리羑里(은殷나라 주왕紂王이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유폐한 곳)에 갇혔을 때에는 굉요閎夭의 무리가 아름다운 여자와 기인한 물품과 좋은 말을 구하여 주紂에게 바쳤다고 운운했다. 이것은 무릇 불의한 일을 하여서 그의 악행을 조장助長한 것이 아닐까. 아마 굉요의 무리가 한 것이고, 서백은 몰랐을 것이다. 아니면 이 일은 혹은 기전紀傳(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문서의 잘못에서 나온 것일까. 거의 믿을 수가 없다.

기자箕子는 거짓 미쳐서 종〔奴〕이 되어 죽지 않았고, 비간比干은 떠나갈 수 없다고 하여 가지 않았으며, 미자微子는 그대로 가버렸다. 주紂를 간할 수 없음을 알고 간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죽지 않은 것이 의義인 것이다. 종국宗國을 저버릴 수 없음을 알고 가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가지 않은 것이 의義인 것이다. 그가 나와 조선에 봉군된 것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주周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미의微意가 있었던가. 먼 곳의 한 조각 땅으로써 상商나라의 이미 끊어진 계통을 이은 것이 1,000년을 넘었다. 그런데 희씨姬氏의 주周나라가 왕업을 누린 연수보다 더 멀리 되었으니, 그 일은 더욱 기이하다.

《사기》에, "무왕武王이 금도끼〔黃鉞〕로 주紂의 머리를 베어서 순백의 기〔大白旗〕에 달았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방효유方孝孺가 말하기를, "전국시대의 망령된 말을 사마천이 그대로 믿고 잘못 기록했다"라고 했다. 양신은 말하기를, "《가자賈子》에 말하기를, '주紂가 죽어 옥문玉門 밖에 버렸더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가서 발로 차므로, 무왕武王이 사람을 시켜서 장막을 치고 지

키게 하였으나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것이 사리事理에 가깝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기》에 위에서는 "주紂가 주옥珠玉을 꾸민 옷을 입고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했고, 아래에서는 주紂의 머리를 베어서 운운云云했다. 이미 불에 타 죽었다고 하였으니, 그 몸이 이미 불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어찌 또 머리를 베어서 달아 놓을 수 있겠는가.

《사기》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의義를 지켜 주周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체로 이 두 사람은 늙은이로서 주나라에서 부양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양곡은 국고에서 주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이때에 이르러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먹지 않은 것이다.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치는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백이 · 숙제가 말을 붙잡고 말리던 때에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무왕은 어째서 한마디의 말리는 말이 없었던가. 만약 태공이 아니었더라면 거의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태공이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용허하였으니, 이것은 두 사람을 아는 것이다. 상商나라를 이긴 뒤에 이르러, 그들로 하여금 굶어죽게 버려둔 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니, 혹은 태공이 참으로 두 사람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게 한 것일까.
무왕이 기자箕子를 찾아보고 비간比干을 봉군하였으면서, 홀로 백이와 숙제에게는 이렇게 하였으니 대체 무슨 까닭인가.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에 말하기를, "주周나라는 목덕木德(오행의 수水 · 화火 · 금金 · 목木 · 토土 가운데 목의 덕)으로 왕이 되었으므로 창희蒼姬라고 한다"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상서위尙書緯》에 말하기를, "붉은 새〔赤雀〕가 단서丹書를 물고 왔는데, '희창姬昌은 창제蒼帝의 아들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했고, 《춘추위春秋緯》에는 말하기를, "희창은 창제의 정精이다"라고 했다. 그 창희蒼姬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 《사략史略》에, “주나라는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여, 《마사馬史》의 기록과 같지 않다. 《마사》에 좇아 목덕으로 쓰는 것이 옳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사기》 〈세계해世系解〉에, 무왕武王이 사냥하여 범 200마리, 물소 12마리, 이우犛牛(들소) 720마리, 곰 150마리, 큰곰(羆) 110마리, 사슴(麈) 16마리를 잡았다 했고, 또 무왕이 사방을 정벌하여 대략 포악한 나라 99국을 치고, 사람 3억만億萬 230인을 포로로 하였으며, 나라를 복속시킨 것이 652국이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이 설은 또한 《급총주서汲冢周書》[23]에서 나온 것이다. 감주弇州는 이것을 가지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과장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맹자》에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무왕을 도와서 주왕紂王을 베어 죽이고, 엄奄을 정벌하였으며, 비렴飛廉을 바닷가로 내쫓아 죽였다. 나라를 토멸討滅한 것이 50이고, 범 · 표범 · 물소 · 코끼리를 몰아내어 먼 곳으로 쫓았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비록 천하가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겼으나, 복종하지 않은 자도 아마 많았을 것이며, 그때는 짐승의 발자국과 새의 자취가 중국에 교착交錯하였던 것도 또한 상상할 수 있다.

《사기》〈백이전伯夷傳〉은 서사체의 문장이어서, 말과 뜻이 뒤섞여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다. 나는 말한다. 태사공太史公의 문장이 질탕하여 구애됨이 없고, 상궤常軌를 일탈逸脫하고 있다. 이 전傳은 여러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다.

양용수楊用脩가 말하기를, “《사기》에, 청운에 붙은 선비(附靑雲之士)라고 한 것

23 책 이름. 모두 10권이니, 진晉나라 함녕咸寧 때에 급군汲郡 사람 불준不準이 위魏나라의 양왕襄王(일설에는 안리왕安釐王)의 고총古冢을 파서 발견한 것.

은 성현聖賢이 입언立言[24]하여 세상에 전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 후세에서 벼슬길에 오른 사람을 청운靑雲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방京房(옛날에 점치던 곳)의 역점易占(《주역》의 이치에 따른 점)에, 청운이 덮인 그 아래에 어진 사람이 은일隱逸해 있다고 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혜강嵇康은 일찍이 청운의 뜻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백李白의 시에, "그래서 청운인靑雲人이 높은 소리로 노래하면서 암호巖戶(바위틈)에 있는 집에 있다〔所以靑雲人 高歌在巖戶〕"고 했다. 나는 말한다. 용수用脩의 이 말은 본래 옳다. 다만 《황제기관黃帝紀官》을 살펴보니, 청운靑雲을 춘관春官이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왕발王勃이 비문碑文에 말하기를, "담자郯子는 청운의 품질品秩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공자가 담자에게 벼슬을 물은 일을 가리킨 것이다. 《한시韓詩》에, "아침에는 청운靑雲의 선비가 된다〔朝爲靑雲士〕"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용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본기周本紀〉의 주에, "소왕昭王이 남쪽으로 정벌을 나가서 한수漢水를 건너니, 배 부리는 사람이 미워하여 아교풀로 붙인 배를 임금에게 바쳤다. 중류에서 아교풀이 녹아서 배가 풀어지니, 왕과 제공祭公이 함께 물에 빠졌다. 신여미辛餘靡는 팔이 길고 또 힘이 세어서 헤엄쳐서 임금을 찾아냈다"라고 했다.
또 《습유록拾遺錄》에는, "소왕昭王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연연延娟과 연선延蟬이다. 티끌을 걸어가도 자취가 없었고, 낮에도 그림자가 없었다. 뒤에 왕과 함께 강한江漢에 노닐다가 두 딸도 모두 물에 빠졌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뱃사공이 미워한 것은 아마 왕의 음황淫荒한 것을 미워한 것이며, 같이 빠진 사람도 또한 여러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교풀로 붙인 배로 왕을 건너게 한 것은 초나라 사람의 짓이다. 목왕穆王이 이미 즉위한 뒤에도 초나라의 죄를 묻지 않고, 도리어 초나라 임금과 모의하여 견융犬戎을 정벌하게 하면서 아버지의 일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 쇠미해져서 떨치지 못함은

24 말이 훌륭하여 후세에 전할 만한 것.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의견을 세움.

대체로 동천東遷을 기다리지 않고도 결정지어졌던 것이다.

《사기》에, “월越나라 임금 구천句踐은 사람됨이, 목이 길고 까마귀의 부리 같은 입〔長頸烏喙〕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는 새의 부리〔鳥喙〕라고 쓰여 있다. 아마 우禹임금이 새의 부리 같은 입이었는데, 구천은 바로 그 후예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새의 부리와 같은 입은 성인聖人의 형상이다. 그래서 범려范蠡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사기》에 따라서 ‘오훼烏喙’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오훼가 독약의 이름이라고 의심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목이 길다’라고 한 말과 서로 맞지 않는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기》에, “위문후魏文侯가 복자하卜子夏로 스승을 삼았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자하는 공자보다 44세가 젊다. 공자가 졸한 때에 자하의 나이는 28세였으니, 문후가 처음으로 후侯가 되던 해에 자하는 103세가 된다. 의심할 만하다.

오자서伍子胥가 말하기를, “나의 무덤에 반드시 개오동나무〔檟〕를 심어라. 그 나무는 재목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주에, “재목이 된다는 것은 궁실을 지을 수 있고, 관곽棺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을 따라, 개오동나무는 재목으로 할 만하다고 풀이함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된다. 아마 “개오동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성장하여 재목으로 쓸 만큼 된 때면, 월越나라가 오吳나라를 멸망시킬 것이 틀림없다”라고 한 말이리라. 자서가 죽은 뒤 12년이 되어서 오나라가 멸망했다.

“오기吳起는 어버이의 상喪을 듣고도 달려가지 아니했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오기가 그의 어머니와 결별하면서 팔을 깨물고 작별하기를, “기起는 경

상卿相이 되지 않으면 다시는 위衛나라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얼마 뒤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으나 마침내 돌아가지 아니했다. 뒤에 위나라에 벼슬하여 서하西河의 수령이 되었다고 한다. 백낙천白樂天의 시에, "어머니가 죽어도 분상奔喪하지 않았다(母歿喪不臨)"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일은 오기가 아내를 죽여서 장수 되기를 바란 일(殺妻求將)[25]과 함께 모두 공명功名을 탐내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공명심의 탓이니, 오기에게 무엇을 나무랄 것인가.

《사기》를 살펴보니, 조趙나라와 진秦나라는 조상이 같다고 한다. 백예伯翳와 백익伯益은 동일인이라고 했다. 비렴蜚廉(간사하고 아첨을 잘하는, 은나라 주왕의 신하 이름)에 이르러 아들 2명을 두었으니, 악래惡來와 계승季勝이다. 악래는 주紂를 섬기다가 주周나라의 봉후封侯가 되었는데, 그의 후예가 진秦나라를 세웠다. 계승의 후예는 조趙나라를 세웠다. 그렇다면 진秦나라와 조趙나라는 모두 비렴의 후손이 제왕이 되기에 이르렀다. 혹은 음란한 자에게 화禍를 주는 법칙이 어그러졌음인가, 아니면 그 선조의 적덕積德한 것에 대한 징험인가. 또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진무공秦繆公이나 조간자趙簡子는 모두 제실帝室에서 꿈을 꾸었으며, 그 종말에는 조무령趙武靈·진시황秦始皇이 모두 사구沙丘에서 죽었으니 이상하다.

조양자趙襄子가 지백智伯의 두개골에 칠漆을 올려 가지고 음기飮器로 삼았다.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음기飮器는 술그릇이다. 손이 올 때마다 이것을 내놓아 지백에 대한 원한이 깊었음을 보인 것이다"라고 했다. 진작晉灼은 말하기를, "음기飮器는 편기便器이니, 대체로 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기》를 살펴보니, "흉노가 월씨月氏를 깨뜨리매, 왕이 그의 머리로 음기飮器

25 전국시대 위衛나라 사람. 오기吳起는 용병用兵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죽여서 자신의 결심을 보이고, 노魯나라의 장수가 되었다고 한다.

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왕유王維의 시에, "돌아오는 안장 위에서 함께 월지月支의 머리로 마신다(歸鞍共飮月支頭)"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음기飮器를 변기라고 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사기》에, "예양豫讓이 형인刑人으로 거짓 꾸며 양자襄子의 궁중에 들어가 뒷간 길에 숨었다(塗廁)"라고 했다. 주註에, "형인은 환자宦者이고, 도塗는 길이며, 측廁은 뒷간이다. 환자宦者라고 속이고 궁중에 들어가서 뒷간 길 옆에 숨어서 기다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도측塗廁이라는 말은 벽을 바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2가지 설은 다 타당하지 않다. 《장자전설莊子傳說》의 서미胥靡의 주註를 살펴보니, "형刑을 받을 사람들을 쇠사슬로 서로 이어 잡아매는 것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도塗는 니泥(진흙)이고, 또 오杇(흙손)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예양豫讓은 형도刑徒를 가장하고 궁중에 들어가서는 벽을 바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기》에, "초왕楚王이 말하기를, 삼가 사직社稷을 받들고 좇겠습니다(謹奉社稷以從)"라고 했다. 주註에,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군대가 출동할 때에는 사주社主를 싣고 다녔다. 여기에서 사社를 말하는데, 아울러 직稷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주에서 말한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예기》를 살펴보니, 천자가 순수巡狩할 때에는 종묘의 신주를 옮겨서 제거齊車[26]에 싣는다"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높임이 있음을 말한 것이리라. 공안국孔安國이 말하기를, "천자가 친정親征할 때에는 반드시 천묘遷廟[27]의 신주를 싣고 또 사주社主(토지의 신)의 신주를 싣고……"라고 했다. 지금 사社·직稷을 한꺼번에 말한 것은, 사직의 신주를 싣고 간다는 뜻이 아니다. 아마 온 나라를 들어 명령에 좇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소진전蘇秦傳〉에, "조왕趙王이 말하기를, 삼

26 황금으로 장식한 수레. "齊車金輅 王自整齊之車也"

27 신주神主를 조천祧遷한 사당. 종묘에서 내온 신주를 모시는 사당.

가 나라로써 좇겠습니다"라고 했고, 한왕韓王은 말하기를, "삼가 사직을 받들어 명령에 좇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노중련魯仲連이 동해를 밟고 죽었다고〔蹈東海而死〕 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바다를 밟았다〔蹈海〕"라고 한 것은 바다에 떴다〔浮海〕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아마 동해에 떠서 다른 곳으로 피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정말 바다에 몸을 던져 빠져죽은 것은 아니다. 《고악부古樂府》에, "옛날에는 창해滄海를 밟아 마음이 편안할 수 없었다"라고 했고, 고적高適이 심일인沈逸人을 보내는 시에, "배를 타고 창해를 밟으며, 칼을 사고 황금을 던진다〔乘舟蹈滄海買劍投黃金〕"라고 하였으며, 《왕세정기王世貞記》에는, "범려范蠡가 회계會稽의 땅에 돌아와서 비로소 그의 처자와 함께 바다를 밟았다"라고 말한 것도 또한 이 뜻이다.

《사기》〈노자전老子傳〉에 말하기를, "이이李耳(주周나라의 노담老聃, 곧 노자의 이름)는 작위함이 없이 저절로 화化하고, 맑고 깨끗하여 저절로 바르게 된다. 대체로 노씨老氏의 학문은, 체體는 있으나 용用이 없다. 그런 까닭에 스스로 화化할 뿐 남을 교화하지는 못하며, 스스로 바르게 할 뿐 남을 바르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태사공太史公이 노자를 잘 표현한 것이다. 고찰하여 보니, "작위함이 없이 백성이 저절로 교화된다〔無爲而民自化〕"라고 하는 말은 노자의 말에 근본이 있다.

《사기》에, "감라甘羅가 12살 때에 진秦나라의 정승 여불위呂不韋를 섬겼는데, 뒤에 조趙나라를 설득하여 공이 있었으므로 시황始皇이 상경上卿에 봉했다"라고 했다. 일찍이 정승이 된 일이 없는데 세상에서 감라가 12살에 진나라 정승이 되었다고 일컬어, 번천樊川이 시에, "감라가 옛날에 진秦 승상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사기》에, “좌사左師 촉룡觸龍이 말하기를, ‘노신老臣의 천한 자식 서기舒祺가 가장 젊습니다’라고 했고, 여공呂公이 말하기를, ‘신에게 어린 자식이 있으니 기추箕箒(소제하는 일)를 받드는 첩妾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양무제梁武帝의 사詞에 말하기를, “큰아들은 그림 그린 비단을 두르고, 중간아들은 육리陸離(아름다운 옥玉)를 차고, 작은아들은 깨끗한 비단옷차림으로 말고삐를 모아 남피南皮(땅 이름)에 유람하고, 세 아들이 함께 문에 들어오니 가신들이 문가에서 절한다〔大息組緗縕 中息佩陸離 小息尙淸綺 總轡遊南皮 三息俱入門 家臣拜門垂〕”라고 했다. 살펴보니, 식息은 아들이다. 그러나 시사詩詞에 자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마 아존雅尊하지 못할 것이다. 《맹자》에 말하기를, “일야지소식日夜之所息(밤낮의 식息하는 것)”이라고 했다. 식息은 난다〔生〕는 말이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양자를 삼는 것〔出錢生子〕을 또한 식息이라고 하니 그 뜻이 같다.

초楚나라는 춘추시대에도 역시 먼 곳의 오랑캐였다. 그런데 기걸奇傑하고 훌륭한 선비가 초나라에서 많이 나왔다. 노담老聃(노자) · 범려范蠡 · 굴원屈原 · 귀곡자鬼谷子 · 접여接輿 · 노래자老萊子 들은 모두 초나라 사람이다. 장주莊周(장자)와 순경荀卿(순자)은 초나라에 살았다. 초나라에서는 진실로 인재가 많이 나왔다. 진秦나라 때에 이르러 항우項羽와 한고조漢高祖도 역시 초나라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때에는, 초나라는 아직 혼돈 상태가 깨지지 않아서, 그 정영精英한 기운을 새나 짐승들만이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여불위呂不韋가 이인異人을 보고, “진기한 재물을 두어둘 만하다〔奇貨可居〕”라고 했다. 이것은 이인을 보기를 주머니 속에 있는 한낱 재화財貨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여씨呂氏로써 진秦나라의 왕통을 바꾸려는 계획이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기를 마치 어음의 왼쪽 조각〔左契〕을 가져가듯이 하였으니 정말 상인으로는 큰 상인이라고 하겠다. 사람

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秦나라가 6국國(춘추전국시대의 제齊 · 초楚 · 연燕 · 한韓 · 위魏 · 조趙의 여섯 나라)을 멸망시켰으나, 진나라는 이미 6국 이전에 멸망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여불위는 마침내 버려져서 죽었으니, 이것은 남의 나라를 취하는 데에는 교묘하였으나, 자기의 몸을 꾀하는 데에는 졸렬하였기 때문이다.

《사기》에, 진시황秦始皇은 수덕水德으로 왕이 된다고 하고, 수水의 수數는 6이므로 6으로 기紀를 삼고, 갓(冠)은 모두 6촌寸, 수레는 모두 6척尺이며, 6필의 말을 타고 다녔다. 후세에 천자가 타는 것을 6룡龍이라 하고, 또는 6자의 수레(六尺之輿)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사기》에 상군湘君이란 것은, 요임금의 딸이고 순임금의 아내라고 했다. 〈구가九歌〉[28]의 주註에 말하기를, “상군은 요임금의 맏딸로 순임금의 정비正妃이고, 상부인湘夫人은 요임금의 차녀로 순임금의 둘째 비妃가 되었다”라고 했다.
내가 〈상군湘君〉편을 살펴보니 첫머리에 말하기를, “군君은 가지 않고 주저하네(君不行兮夷猶)”라고 하였으며, 같은 편에 군君이라고 일컬은 곳이 세 번이나 있으나, 제자帝子라고는 일컫지 않았다. 〈상부인湘夫人〉편에서는 첫머리에 바로, “제자帝子가 북쪽 물가에 내려왔도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상군은 아마 상수湘水의 신이고, 상부인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것 같다. 또 《산해경》에는, “동정호洞庭湖 가운데에 제帝의 두 딸이 살았다”라고 하였으며, 곽박郭璞의 주註에, “천제天帝의 두 딸이 강에 살면서 신이 되었으니, 《열선전列仙傳》에서 말한 소위 강비이녀江妃二女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제帝라는 것은, 즉 상제上帝를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후인들이 잘못 요임금의 딸이라고 했다.

28 《초사楚辭》의 편명으로, 굴원屈原이 지은 것.

《마사馬史》에, “노생盧生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녹도서錄圖書》를 올리며 말하기를, 주秦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胡라고 했다”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주에, “호胡라고 한 것은 호해胡亥이다. 진秦나라에서 《녹도서》를 보고도 이것이 사람의 이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북쪽의 오랑캐(胡)를 대비했다”라고 했다. 내가 고찰하여 보니, 《초학기初學記》에 말하기를, “큰 물고기가 흰 그림에 붉은 글씨 쓴 것을 띄워 황제黃帝에게 주니, 이름을 ‘녹도錄圖’라고 했다”고 하였다. 《회남자》에는 말하기를, “하수河水에서 녹도가 나왔다”라고 하였으며, 또 “여람呂覽이 녹도를 저작했다”라고 한 말의 주註에는 참서讖書라고 했다. 정현鄭玄의 주註와 같다고 한다면, ‘주록도서奏錄圖書’라고 한 것은 주록이라는 두 글자와 도서라는 글자는 같은 뜻의 2가지의 말이 된다. 아마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기》에, “방사方士(방술方術을 아는 선비)인 후생侯生과 노생盧生이 시황始皇을 조롱하고, 인하여 도망하여 가버렸다”라고 했다. 아마 천하가 장차 어지러울 것을 알고, 칭탁稱托하여 달아나 숨은 것이다. 이것은 안기생安期生이 붉은 옥으로 꾸민 신 한 켤레를 진시황秦始皇에게 남겨 놓고 말하기를, “나를 봉래산蓬萊山에서 찾아라”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주머니 뒤지듯이 하였으나 이생二生(후생과 노생)을 찾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화풀이를 옮겨서 유생儒生들을 구덩이에 묻었다.

이생도 또한 이인異人이다. 10일 동안을 대수색을 하여도 붙잡지 못하였으니, 장량張良도 또한 이 술법을 배웠던가. 뒤에 한고조漢高祖가 후생侯生을 보내어 항우項羽를 달랬다고 한 것은 아마 동일인이 아닐 것이다. 《사기》에서 그의 이름을 잃었으니 한스럽다. 노생盧生은 즉 노오盧敖이니, 연燕나라 사람이다. 《회남자》의 주註에 보인다.

방사方士 서불徐市[29]이 동남동녀童男童女(총각과 처녀) 3,000명을 데리고 바다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은 조짐을 보고 떠나가는 것을 상산사호商山四皓[30]보다 먼저 했다. 소위 삼신산三神山 불사약不死藥이라는 것은 또한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가령 그 약을 캤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많은 총각과 처녀가 필요하겠는가. 아마 진시황은 동심童心이 고쳐지지 않아서 방사의 무롱舞弄하는 바 되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진정 크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사전李斯傳〉에, '금록시육禽鹿視肉'이란 말이 있다. 주註에 "금록禽鹿은 금수禽獸와 같다. 새와 짐승처럼 다만 고기를 보고 그것을 먹는 것만 안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말은 아마 잘못인 것 같다. 《산해경》에 말하기를, "시육視肉은 형상이 소의 간肝과 같고 두 눈이 있다"라고 했다.

《마사馬史》의 〈식화전殖貨傳〉에, "진秦나라의 문공文公·효공孝公·무공繆公은 옹雍 땅에 살면서 농隴·촉蜀의 대물貸物의 중간 지점에 처하여 상인商人이 많다(秦文孝繆居雍隙隴蜀之貨物而多賈)"라고 했다. 주註에 "땅이 농과 촉 사이의 요로要路에 있었으므로 농·촉의 틈(隙)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의 《당본唐本》에서는 모두 극隙이란 글자 밑에 구두점句讀點을 찍고 있으나, 나의 생각에는 극은 마땅히 아래 말에 붙여 읽어야 한다. 대체로 진秦나라는 옹 땅에 있어서 농·촉과 사이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29 진秦나라 낭사琅邪의 방사方士. 진시황의 명을 받아 동남동녀童男童女 3,000명을 거느리고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 동해東海의 봉래산蓬萊山을 목적하여 떠났으나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함. 서복徐福·서불徐市이 모두 같은 사람임.

30 진秦나라의 말기에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숨은 네 사람의 노인. 모두 머리털이 희었기 때문에 사호四皓라고 했다. 즉 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甪里先生·기리계綺里季의 네 사람을 일컫는 말.

《한서》〈진섭전陳涉傳〉에, "화섭지위왕夥涉之爲王"이라는 말이 있다. 섭몽득葉夢得이 말하기를, "화夥라는 말은 오吳나라 · 초楚나라에서 놀라 크게 부르짖는 발어사發語辭이다"라고 했다.

나는 이 설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따위의 글자는 후인後人이 자기의 의견으로 억지로 풀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두시杜詩에, "글을 읽다가 어려운 글자는 지나친다(讀書難字過)"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량전張良傳〉에, "동쪽으로 가서 창해군滄海君을 만나본다"라는 말이 있다. 주註에 "창해군은 동이東夷의 군장君長이다"라고 했다. 또 한무제漢武帝 원년에, "동이의 예穢 임금 남려南閭 등이 항복하자 창해군滄海郡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내가 고증하여 보니, 예국穢國은 옛날엔 강릉江陵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오대산五臺山에 창해군의 옛터가 있다고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단연 믿어야 할 것이다. 《마사馬史》에 말하기를, "효문孝文 때에 장군 진무陳武 등이 말하기를, '남월南越과 조선은 전진全秦 때부터 내속內屬하여 신하가 되었으며, 무제武帝 때에는 오가吳賈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창해군을 두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조선전朝鮮傳〉에 말하기를, "조선은 연燕나라 때로부터 진秦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속臣屬했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진秦 · 한漢 시대에 조선이 중국과 서로 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해군滄海君과 역사力士는 반드시 다 비범한 인물일 것이다. 그런데 문헌에 징거徵據가 없으니 아깝다.

장량張良은 5대代를 서로 이어 한韓나라의 정승을 지냈다고 한다. 고증하여 보니, 장량의 대부大父 개지開地는 소후昭侯 · 선혜왕宣惠王 · 양애왕襄哀王에게 정승을 지냈으며, 아버지인 평平은 이왕釐王 · 도혜왕悼惠王에게 정승을 지냈다. 그래서 5세世라고 말한 것이고, 장량의 집안 5세가 정승이었다는 것은 아니

다. 곧 한韓나라 임금의 5대를 말한 것이다.

《통감通鑑》에 "항우項羽의 사람됨이 표한慓悍(성질이 급하고 사나움)하고 활적猾賊하다"라고 했다. 《한고제기漢高帝紀》를 참고하여 보니, 활적을 화적禍賊이라고 쓰고, 주註에, "남에게 화禍와 해害를 끼치기를 좋아하는 잔적殘賊(잔인하고 남에게 해를 끼침)한 것이다"라고 했다.

《사기》에, "역생酈生이 군문軍門에 이르러 알謁을 올렸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역생이 눈을 부릅뜨고 사자使者를 꾸짖으니, 사자가 두려워하여 알謁을 떨어뜨렸다가 꿇어앉아서 알을 주워 가지고 도로 달려들어 가서 보고했다"라고도 했다. 주註에 "알은 자명刺名(명함)이다"라고 했다. 옛날의 문장門狀(명함)이니, 지금은 배첩拜帖이라고 한다. 알배謁拜니, 투알投謁이니 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 뜻이다.

〈한신전韓信傳〉에, "표모漂母(빨래하는 여인)가 말하기를, 내 왕손王孫을 가엾게 여겨서 음식을 올린다"라고 했다. 유덕劉德이 말하기를, "진秦나라의 말엽에는 나라 잃은 이가 많았다. 왕손이니 공자公子니 하고 말하는 것은 높이는 말이다"라고 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신信의 성이 한씨韓氏이므로 비록 한韓나라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왕손으로 일컬은 것일 것이다. 만일 한신이 한韓나라 왕실의 자손이었다면 어찌 한왕韓王으로 봉하지 않았겠는가.

〈번쾌전樊噲傳〉에, "항우項羽가 이미 군사들에게 잔치를 열어 중주中酒했다"고 했다. 주註에, "중주라는 말은 술에 취한 것(酒酣)이다"라고 했고, 또, "술을 마시는 중이라는 뜻이다. 취하지도 않고 깨지도 않았으므로 중中이라고 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후세의 중주中酒라는 말은 아마 이것에 근본이 있을 것이다.

《사기》에, “제齊나라 사람 안기생安期生이 헌책獻策을 갖고 항우에게 벼슬을 요구하니, 항우가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 안기생이란 사람은 진황秦皇에게 신(舃)을 남겨 두고 간 사람과는 아마 다른 사람이고, 다만 그 두 사람은 성명만이 같았을 뿐일 것이다.

《한서》〈한신전韓信傳〉에, “지척咫尺의 편지를 받들고”라는 것이 있다. 《설문說文》에 말하기를, “지咫는 8치(寸)이다”라고 했다. 〈진준전陳遵傳〉에 말하기를, “남과 주고받는 척독尺牘을 모두 거두어 가지고 갔다”라고 했다. 편지를 한 자(尺) 정도의 길이로 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였다. 지금 편지를 척독尺牘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또 《한서》에, “1척尺의 길이 되는 판자에 조서詔書를 쓴다. 그런 까닭에 척일조尺一詔라고 하고, 석 자 되는 대나무에 법法을 썼기 때문에 삼척법三尺法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사기》〈장량전張良傳〉에, “천하의 유세遊說하는 선비들이 그의 친척을 떠나고 조상의 분묘墳墓를 버리고(離其親戚棄墳墓)”라고 한 말이 있다. 《한서》에는, “좌친척左親戚”이라고 썼다. 좌左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도피한다는 뜻이다. 《사기》〈태사공전太史公傳〉에, “빈 주먹(空拳)을 휘두르며 흰 칼날을 무릅쓰고”라고 하였는데, 《한서》에서는 공권空拳을 공권空弮으로 썼다.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쇠뇌(弩)의 빈 시위(空弮)를 당겼다는 것이지, 빈 주먹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기》의 주註를 읽어 보니, 항우는 기사년己巳年에 태어났고, 죽을 때의 나이는 31세였다고 했다.

〈항우전項羽傳〉에, “대사마大司馬 주은周殷이 배반하니, 초나라가 구강九江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가劉賈를 따라 해하垓下에 모였다. 항우의 군대의 수는 적

고 양식은 다하였는데, 한나라가 여러 겹으로 포위했다. 밤에 들으니 한나라의 군대가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항우가 드디어 몹시 놀라면서 말하기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얻었단 말인가……'라고 했다"고 하였다. 이때에 항우가 비록 궁지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갑자기 망하지는 않을 것인데, 한 번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그의 부하 군대 전원이 배반하여 한나라에 돌아간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창황하고 놀라고 겁내어서 밤을 타고 뛰쳐나와 스스로 엎어지고 자빠지곤 하는 길을 택하였으니, 어찌 하늘이 그의 마음을 유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실은 주은이 한나라로 돌아간 공인 것이다. 항우가 해하에 있는 것은 범이 산굽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범은 산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항우로 하여금 나오지 않게 했다면 비록 한나라의 군대 100만 명이 있을지라도 감히 가까이 다가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미 나와 버리면 이것은 산에 있던 기세를 잃어버린 것이다. 범이 비록 날개까지 돋았다고 하더라도 한 칼 머리의 피가 될 뿐이다. 아깝다. 항우의 지혜가 산굽이를 등지고 있는 범만도 못하구나.

〈항적전項籍傳〉에, "한추급지漢追及之"라는 말이 있다. 최간이崔簡易가 말하기를, "한추급지漢追及之는 마땅히 한추가 따라간다고 구독句讀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나라가 뒤쫓아간다"가 아니고, 한나라의 뒤쫓는 군대가 따라왔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통감通鑑》에, "항왕項王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한나라에서 나의 머리를 천금千金과 만호萬戶의 고을을 상으로 내걸고 얻으려고 한다니, 내 너에게 덕德이 되겠다'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 베어 죽었다"라고 했다. 《한서》를 살펴보니, "너의 덕이 되겠다(爲若德)"라고 말한 것은 여마동呂馬童을 향해 한 말이다. 그런데 《통감》에서는 본문을 끊어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이 앞뒤가 이어지지 않아서 도무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것으로 글을 쓰고 지우기가 어렵다는 것

을 알겠다.

《사기》에, “관상觀相하는 사람 허부許負”라고 했다. 응소應劭가 말하기를, “부負는 하내河內(황하 이북) 온溫 땅의 사람으로, 늙은 여자이다. 고조高祖가 부負를 봉하여 정후亭侯를 삼았다. 이것으로 부인에게도 또한 봉읍封邑하는 일이 있는 것을 알겠다”라고 했다.

《고제기高帝記》를 참고하여 보니, 무부武負의 주에, “세속에서 늙은 대모大母를 아부阿負라고 한다”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한고제漢高帝 11년 봄 정월에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이 모반하였으므로, 그 삼족을 무찔러 죽였다고 했고, 장군 시무柴武가 한왕韓王 한신을 삼곡參谷에서 베어 죽였다고 했다. 두 한신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상한 일이다.

〈육가전陸賈傳〉에, “위타尉佗가 추결魋結(상투를 짜다) 했다”라고 했다. 주註에, “오랑캐 사람들은 본래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한다. 위타가 그들의 풍속과 같이하여 다만 그 머리털만을 북상투로 묶은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안남安南 사람들을 보니, 모두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있었다. 아마 그들의 풍속이 옛날부터 그러하였던 것 같다. 또 《사기》에, “수견불선數見不鮮”이라는 말이 있다. 주註에, “그 오래되어서 싫어함을 두려워함이다”라고 했다. 《한서》에, “수계선數繫鮮”이라고 쓴 것은 잘못이다.

《사기》에, “중위中尉 송창宋昌이 나아가 말하기를……” 운운한 것이 있다. 주에, “창昌은 송의宋義의 손자이다. 뒤에 송창은 위장군衛將軍에 임명되었으며, 또 창을 장무후壯武侯에 봉했다. 이것 이외에는 들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아마

문제文帝가 사인私人(가신)을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서》에, "천자天子도 균사鈞駟(사마駟馬의 빛이 순일한 것)를 갖출 수 없었다"라고 했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이때에는 천자도 또한 4필 말이 끄는 수레를 탔던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고증하여 보니, 진시황 때 제도에 천자는 6필 말이 끄는 수레를 탄다고 했다. 원앙袁盎이, "폐하께서 6필 나는 말을 달려"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그 균사라고 말한 것이나, 최식崔寔의 정론政論에, "4필 말이 마구 달리니 임금의 길이 험하고 기울다"라고 한 것은, 아마 옛날 제도에 따라 말한 것이리라.

진秦나라 때에는 비방죄에 대한 법이 엄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서는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률은 폐지했다. 그러나 안이顔異는 복비腹誹(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심으로 비방함)의 죄로 사형되었고, 사마천司馬遷은 간언한 죄로 형刑을 받았으며, 관요寬饒는 상서上書로 인하여 사형되고, 양운楊惲은 방언放言한 죄로 무찔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또한 가혹하다. 이것은 진나라가 남긴 폐정弊政 때문이던가.

〈이광전李廣傳〉에, "광廣이 수기數奇(운수가 불길함)하니 선우單于(흉노의 왕)에게 대치하지 말게 하라"고 했다. 주에, "수數의 음은 신각절身角切이다"라고 했다. 송경문宋景文이 말하기를, "강남에서 간행한 《한서》에는 수數의 음은 소구절所具切이라고 했다. 그러니 각角이라는 글자는 구具 자의 잘못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왕유王維는 시에서 수기數奇라는 말을 천행天幸이란 말의 대구對句로 썼으며, 두시杜詩에는, "수기數奇하여 관새關塞에 귀양 갔으며 도道가 넓어서 기산箕山·영수潁水를 생각한다(數奇謫關塞 道廣存箕潁)"라고 했고, 나은羅隱의 시에는, "수기하니 마땅히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때가 박한데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數奇當自愧 時薄欲何干)"라고 했다. 어찌 참고함이 없이 그렇

게 썼겠는가.
후한後漢의 풍연馮衍이 말하기를, “내가 수기하고 운명이 박하여서……”라고 운운하였으니 또한 증거로 할 수 있다.

태사공太史公 〈화식전貨殖傳〉에는 시정市井의 낮고 미천한 무리들을 아울러 기록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명은 천지가 남아 있는 동안은 같이 있을 것이다. 어찌 문장에 기탁寄托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소위 청운靑雲에 붙은 선비들을 어찌 후세에 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한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사기》에, “왕자王者가 장수를 내보낼 때에는 꿇어앉아서 그 수레의 바퀴를 밀고(推轂)” 운운했다. 또 정鄭나라 당시에는 선비를 추곡推轂하는 것은 항상 자기보다 어진 사람을 추인推引했다고 했다. 대체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차륜車輪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당시唐詩에, “만승천자萬乘天子가 몸소 쌍궐雙闕(망루가 있는 대궐 좌우의 문) 아래에서 밀다(萬乘親推雙闕下)”라고 했다. 이것은 장수를 보내는데 그 수레바퀴를 밀어준다는 뜻으로 쓴 것인데 문장을 생략하였을 뿐이다.

장군 기신紀信이 죽음으로써 한고조漢高祖를 위액危厄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장렬壯烈한 일이다. 그런데 고조는 다만 그의 아들을 후侯로 봉하였을 뿐이고, 다시 특이하게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이 없었으며, 《마사馬史》에는 그의 전기傳記를 따로 세우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로三老 동공董公과 사호四皓의 성명이 모두 사전史傳에 실려 있지 않으니 아깝다.

한신韓信의 권모웅략權謀雄略(권변 하는 꾀와 웅대한 책략)은 삼대 이후에 오직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소하蕭何[31]의 제한된 테두리의 밖을 벗어져 나가지 못했다. 대체로 그를 처음 추천한 사람이 소하이고, 그를 마침내 죽인 사람도 또한 소하이다. 소하가 한신을 저버림이 심하다. 그런데 한신은 죽음에 임하여 한 마디의 원망도 없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오직 여자의 속인 바 되었다고 하였으니, 혹시나 오히려 그가 속인 것을 알지 못하였던가. 신광한申光漢의 시에, "지혜와 힘은 마침내 아녀자 때문에 곤하게 되고, 한평생은 소하의 조종에 매달려 있었네(智力竟爲兒女困 一生操縱在蕭何)"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본 것이 있었던 것이다.

《사기》〈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는 그의 자字와 어릴 때의 이름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소하蕭何 · 조참曹參 · 진평陳平 · 동중서董仲舒의 전傳에는 그들의 자를 기록하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혹은 반표班彪가 말한, "글은 겹치고 생각은 번다하여 제일齊一하지 못한 것이 많다"라고 한 것일까.

《사기》에, "동언董偃이 푸른 팔찌(靑鞲)와 녹색의 머리 수건(綠幘)의 차림"이라고 했다. 위소韋昭가 말하기를, "구鞲는 모양이 사射[32]와 같은 것으로 노역하는 하인들의 옷이다. 그것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을 취하여 승여乘輿(천자가 타는 수레)에 식사를 올리는 자가 입는다. 아마 가죽으로 그 소매를 싼 것은 음식을 더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수갑袖甲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도이다.

《사기》에, "낙월駱越의 사람들은, 부자父子가 같은 냇물에서 목욕하니 무례하다"라고 했다. 《설부》를 살펴보니, "진랍국眞臘國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두려워

31 한대漢代 삼걸三傑의 하나. 고조高祖를 도와 천하를 다스리고, 찬후酇侯가 됨. 한漢나라의 율령律令은 주로 그가 제정한 것임.

32 활을 쏠 때 시위를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는 기구. 뿔로 대롱 모양으로 만들었음.

하여, 낮이면 어른 ·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떼를 지어 목욕하여서 서늘함을 취한다"라고 했다. 아마 남방은 땅이 덥기 때문일 것이다.

소무蘇武가 "굴야서거掘野鼠去 초실이식지草實而食之"라고 했다. 주註에, "거去라는 것은 저장貯藏한다는 뜻이다. 쥐가 저장해 놓은 풀 열매를 찾아서 먹는 것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유반劉攽이 말하기를, "북방에는 들쥐의 종류가 매우 많다. 땅을 파서 쥐를 찾아내어 식용하고, 그 쥐들이 저장한 풀 열매는 버렸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후설後說이 옳은 것 같다. 《고일서古逸書》에, "소무가 두더지(田鼠)를 먹어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안安이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만일 월越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요행히 집사執事의 안항顏行을 거스르게 한다면……"이라고 했다. 주에, "안항은 안항雁行과 같으니 행렬의 앞줄에 있기 때문에 안顏이라고 한다"고 했다. 항行의 음은 항이다. 본래 《관자》의 〈경중輕重〉편에서 나온 말이다.

〈곽광전霍光傳〉에, "애행감노愛幸監奴"라고 한 말이 있다. 주에, "감노監奴는 노복으로서 집안일을 맡아 보살피는 자이다"라고 했다. 옛 시에, "옛날 곽씨 집에 종이 있었으니, 성은 풍馮이고 이름은 자도子都였다. 장군의 권세에 의지하여 주가호酒家胡를 비웃었네(昔有霍家奴 姓馮名子都 依倚將軍勢 調笑酒家胡)"라고 한 것이 아마 곧 이 감노를 말한 것일 것이다. 지금 사대부 집의 종을 별감別監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하는 데가 있는 것이다.

《사기》에, "종의 손가락이 천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생각하건대, 사람의 수를 손가락의 수로 셈한 것이다. 천 손가락은 곧 100명이다. 가령 300손가락이라고 한다면, 바로 30명인 것이다.

또 “이채李蔡의 사람됨이 하중下中에 있다”라고 한 말이 있다. 주에, “사람을 9품으로 논한다면, 하下의 중中에 해당하여 여덟째가 된다”라고 했다. 아마《당서唐書》에 고중중考中中이니, 고하하考下下니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리라.

《한서》에서 〈곽광전〉의 글이 가장 아름답다. 그 창읍왕昌邑王을 폐위시킨 일의 전말顚末 같은 것을 그림 그리듯 묘사했다. 정말 하늘의 조화 같은 교묘한 수법이다. 〈창읍왕전昌邑王傳〉도 또한 제대로 좋다.

《전한서前漢書》〈전분전田蚡傳〉에, “수서양단首鼠兩端”이라는 말이 있다. 주에, “수서首鼠는 한 번 앞으로 나갔다가 한 번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라고 했다. 《후한서》에는 “수시양단首施兩端”이라고 했다. 또, “두 오랑캐가 수시首施하여 우리의 북쪽 변방에서 반항한다”라고도 했다. 이 시施라는 글자는 참고할 만한 주註가 없다. 그러나 수서首鼠라고 한 말의 뜻과는 다른 것 같다. 어떤 이는 “서鼠는 시施로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

한漢나라의 선제宣帝는 여태자戾太子의 손자이다. 그런데 담당 관서에서 태자太子의 시호를 여戾라고 지어 올리고 사량제史良娣를 여후戾后라고 하니, 선제가 윤가允可했다. 이것이 소위, “시호諡號는 비록 효자孝子나 자손慈孫일지라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의 시호를 정하는 법이 엄중하였음을 상상할 수 있다.

《한서》에, “창읍왕昌邑王 하賀는 아내가 16인이었다. 그 아내 중의 한 사람이 엄라주嚴羅紂이니 바로 집금오執金吾 엄연년嚴延年의 딸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주紂의 음은 부敷이니, 대체로 옛날에는 주紂와 부敷 두 글자는 서로 통용하였던 것이다. 엄연년은 창읍왕의 장인으로서 곽광이 임금의 폐립廢立(내쫓고 맞아들임)을 함부로 하는 것을 탄핵했다. 그러나 당시에 그를 존경하고 꺼

리어 죄를 주지 않고 등용하여 대관大官으로 삼았으니 옛날의 훌륭한 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에 피향박사披香博士 요방성淖方成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궁중의 여박사女博士이다.

《한서》에 적의翟義가 말하기를, "나랏일에 죽어 이름을 묻는 것(死國埋名)은 오히려 선제先帝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주註에, "몸은 땅에 묻히고 이름은 서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주는 옳지 않다. 아마 나랏일에 죽어서 이름이 드디어 매몰되는 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한서》〈왕망전王莽傳〉에, "자색紫色과 승성蠅聲을 찬양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승蠅은 사邪이니 와哇와 같은 뜻으로서 음란한 소리이다. 후세에서 승蠅(파리)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본뜻을 잃은 것이다.

한漢나라의 마태후馬太后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전일에 탁용문濯龍門 위를 지나다가 외가外家에 기거起居를 묻는(問) 자를 보니, 창두蒼頭(하인)가 녹색의 비의臂衣를 입었는데 옷깃(領)과 소매가 하얗다……"라고 했다. 아마 한나라 때부터 대체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지금 중국의 사대부들이 흰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둘렀는데, 서민庶民들은 옷깃에 선을 두르지 못한다고 한다. 《곡례曲禮》를 살펴보니, "갓(冠)과 옷을 순소純素하게 하지 않는다" 하고, 주에, "순純은 옷깃의 선이다"라고 했다.

한漢나라 〈양송전梁竦傳〉에 말하기를, "죽기를 맹세하고 스스로 진고陳告하는 것은, 하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고, 주에, "신하는 임금을 하늘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선시選詩에, "20세면 하늘로 여기는 바를 옮긴다(二十移所

天)”라고 했다. 주에, “여자는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하늘로 삼으며, 시집가면 남편을 하늘로 삼는다. 그런 까닭에 옮긴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 유문柳文이 말하기를, “이천숙상移天夙喪”이라고 했다. 이것은 하늘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후한서》〈안제기安帝紀〉에, “공신功臣의 후예를 봉작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장차 경풍景風(사시四時의 화창한 바람)에 이르면 구덕舊德을 빛나게 펴려고 한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경풍의 상賞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경방역점京房易占》의 ‘하지경풍용사夏至景風用事’의 대문을 살펴보니, “인군人君은 마땅히 유덕有德한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유공有功한 사람을 봉작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리라.

《한서》에 말하기를, “가부지친葭莩之親(아주 엷은 교분)도 있는 것이 없고”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부莩는 가葭(갈대)의 청靑, 즉 중피中皮이다. 그러니 매우 얇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가부지친葭莩之親”은 먼 인척姻戚이라는 뜻이다. 또 〈위청전衛靑傳〉에 말하기를, “신臣이 다행히도 폐부肺腑에 의탁함을 얻어서”라고 했다. 이것은 친척임을 말한 것이니, 마치 폐부가 서로 붙어 있음과 같다는 말이다. 일설에는, “폐는 나무를 깎은 얇은 조각이니, 그것이 가볍고 얇아서 큰 나무에 붙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한다. 운서韻書를 조사하여 보니, “나무를 얇게 깎아서 시枾(감)를 매만진다”라고 했다. 아마 이 설은 잘못일 것이다.

《한서》에, “벼슬이 통후通侯가 되어 동제東第(왕후의 부제府第)에 참열參列해 산다”라고 했고, 또 마융馬融은, 〈대장군서제송大將軍西第頌〉을 지었으며, 또, “하후영夏侯嬰에게 북제北第 제일의 저택을 하사하다”라고 한 기록도 있다. 그런데 홀로 남제南第만은 없다. 아마 남면하는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리라. 내가 들으니, 우리나라에서도 개국 초기에는 성안 사대부들의 집들은 모두 북향이

었다고 한다. 지리의 형편에 구애되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감히 남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한서》에서 소위 동제東第니 북제北第니 한 것은 방위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 어디를 향으로 하느냐, 배면으로 하느냐를 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관우關羽를 한수정후漢壽亭侯로 봉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한수漢壽는 땅 이름이다. 《진서晉書》에 말하기를, "유비가 촉蜀에 웅거하여 가맹葭萌을 고쳐 한수漢壽라고 했다"라고 했다. 유우석劉禹錫의 〈한수성춘망시漢壽城春望詩〉에 말하기를, "한수성漢壽城 가에 들풀이 봄이로구나(漢壽城邊野草春)"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정후亭侯는 향후鄕侯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해독정후解瀆亭侯라고 하는 따위와 같다. 한수정후를 어떤 이가, "한나라의 수정후"라고 풀이하는 것은 잘못이다.

위魏나라의 하안何晏은 백분白粉을 언제나 손에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한서》에, "혜제惠帝 때에 시중侍中들은 모두 분을 바르고 연지를 칠했다"라고 했다. 〈이고전李固傳〉에, 비장飛章이 거짓말로 모함하여 말하기를, "대행大行[33]이 비전殯殿에 있는데, 이고李固만이 홀로 분을 발라 얼굴을 꾸미고, 조용히 걸음걸이를 맵시 있게 다듬으면서 조금도 슬퍼하고 놀라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했다.
《안씨가훈顔氏家訓》에 "양梁나라 자제들은 분을 바르고 주朱칠을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라고 했다. 당唐나라의 유안劉晏이 8세 때 금중禁中에 불려 들어가니, "귀비貴妃가 무릎 위에 앉히고 분을 발라 주었다"라고 했다. 아마 옛날에는 남자들도 또한 분을 사용했던 것 같다.

조적祖逖이 한밤중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춤을 추며 말하기를, "이것

33 임금이나 후비后妃가 죽은 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존칭.

이 나쁜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황계荒鷄가 울면 천하가 어지러워진다고 한다. 울 때가 아닌 때에 우는 닭을 황계라고 한다. 사아士雅(조적祖逖의 자字)가 큰 뜻이 있었으므로 공업功業을 세우기에 급했다. 그가 일어나 춤춘 것은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니, 끝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사기》에, "환온桓溫이 평승루平乘樓에 올라서 북쪽을 바라보고……"라고 했다. 평승은 곧 누선樓船의 이름이고, 누樓는 즉 배 위의 누를 말한 것이다. 승乘자의 음은 평성平聲이다.

상고하여 보니, 도잠陶潛이 평택령彭澤令이 되었을 때에, 독우督郵[34]가 고을에 도착하니 아전이 아뢰기를, "마땅히 띠를 매고 만나봐야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것을 보니, 옛사람들은 관官에 출근하여 정사를 볼 때에도 또한 띠를 매지 않았던 것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띠를 매는 것은 예절을 지키기에 족할 만큼 하고, 띠를 푸는 것은 편안히 있을 수 있을 만큼 하면, 몸이 구속되거나 몸에 되감기는 염려는 면할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보니, 지금의 중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모두 띠를 매지 않는다. 그 유래가 아마 오래인 것 같다. 옛날에는 옷을 입고 띠를 매지 않는 것을 창피하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강목綱目》에, "양梁나라의 무제武帝가 종척宗戚들에게 향정후鄕亭侯를 내려주는데, 차등이 있게 했다"라고 했다. 주에, "향후鄕侯·정후亭侯를 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한漢나라의 고조高祖가 허부許負를 봉하여 정후를 삼았었다. 대체로 해독정후解瀆亭侯니, 북향후北鄕侯니, 고귀향공高貴鄕公이니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한漢나라 환제桓帝 때에는 천하에 3,682향鄕과 2,420정亭이 있었다고 한다.

34 관명官名. 군郡의 좌리佐吏로서, 속현屬縣의 감독을 맡는다.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이 수염을 깎아 이적李勣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직社稷을 꾀할 뿐이다”라고 했다. 태종은 영명英明한 임금이다. 사직을 위해 계책함이 이와 같이 지극했다. 그러나 마침내 당나라를 변혁하여 주周나라가 되게 한 것은 실로 이적李勣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하물며 세상의 임금으로서 당태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겠는가. 사람을 아는 일이란 매우 어렵구나.

사서史書를 쓰는 것은 역시 별다른 재주가 있는 것이다. 한퇴지韓退之(한유韓愈)의 문장으로 쓴 《순종실록順宗實錄》도 사한史漢(사기史記의 한서)에 비하면 멀리 떨어진다고 한다. 아마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진서晉書》·《남북사南北史》는 패관소설稗官小說[35]이고, 송宋·원元의 《사기》는 함부로 쓴 조보朝報이다. 《송사宋史》처럼 번잡한 것은 《요사遼史》의 간략한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서史書를 쓰는 사람의 문장은 기사체記事體이다. 의논議論은 성盛해지고 문체는 점점 떨어지는 상태를 사서에서 볼 수 있다.

35 패관稗官이 채집한 가설항담街說巷談을 소재로 하여 이루어진 소설. 패관은 옛날에 임금이, 민정民情·풍속·정사政事를 살피기 위하여 가설항담을 모아 기록하게 하던 관리이다.


권7

12. 경서부經書部-3

12-1 서적書籍

고증하여 보니,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주례周禮》·《예기禮記》·《춘추春秋》를 6경經이라 하고, 《역경》·《서경》·《시경》과, 《주례周禮》·《예기禮記》·《의례儀禮》의 3례禮와, 《좌씨전左氏傳》·《곡량전穀梁傳》·《공양전公羊傳》의 3전傳을 9경經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효경孝經》·《맹자孟子》·《논어論語》·《역경》·《서경》·《시경》·《주례》·《예기》·《춘추》를 9경經이라고 한다. 경經이라는 것은 떳떳이 지켜야 할 법(典)이라는 뜻이다.

고증하여 보니, 《역경》은 2만 4,107자字이고, 《서경》은 2만 5,700자이며, 《시경》은 3만 9,234자이고, 《예기》는 9만 9,010자이며, 《주례》는 4만 5,806자이고, 《춘추좌씨전》은 29만 6,845자이며, 《논어》는 1만 1,705자이고, 《맹자》는 3만 4,685자이다. 《중용》과 《대학》은 모두 《예기》 속에 들어 있다.

《위료자尉繚子》는 무경칠서武經七書 가운데 하나이다. 그 책 속에 양혜왕梁惠王과 문답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 진시황秦始皇 때에 이르기까지에는 마땅히 100여 년을 지나게 된다. 《시황기始皇紀》를 살펴보니, "대량大梁 사람 위료尉繚가 와서 진왕秦王을 달래니, 왕이 그의 헌책獻策을 채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는 공업功業이 드러난 것이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그가 말한 병법은 가장 가혹하다. 지금 왜노倭奴들이 그 법을 쓴다고 한다.

고금의 제자諸子(제가諸家의 저서)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전파되어 있는 것으로는, 《노자老子》·《열자列子》·《장자莊子》·《관윤자關尹子》·《문자文子》·《관자管

子》·《안자晏子》·《상자商子》·《묵자墨子》·《윤문자尹文子》·《항창자亢倉子》·《자화자子華子》·《시자尸子》·《순자荀子》·《신자申子》·《귀곡자鬼谷子》·《한자韓子》·《회남자淮南子》·《공총자孔叢子》·《갈관자鶡冠子》·《환자桓子》가 있다.
또,《여씨춘추呂氏春秋》·《육가신어陸賈新語》, 괴통蒯通의《준영雋永》, 동중서董仲舒의《옥배번로玉杯繁露》, 한영韓嬰의《한시외전韓詩外傳》, 유향劉向의《설원說苑》·《신서新序》, 양웅揚雄의《법언法言》·《태현경太玄經》, 응소應劭의《풍속통風俗通》, 조엽趙曄의《오월춘추吳越春秋》, 왕충王充의《논형論衡》, 왕부王符의《잠부론潛夫論》, 중장통仲長統의《창언昌言》, 장화張華의《박물지博物志》, 상거常璩의《화양국지華陽國志》, 왕가王嘉의《습유기拾遺記》, 갈홍葛洪의《포박자抱朴子》·《서경잡기西京雜記》, 간보干寶의《수신기搜神記》, 임방任昉의《술이기述異記》, 왕통王通의《원경元經》·《중설中說》, 두우杜佑의《통전通典》, 이석李石의《속박물지續博物志》, 백거이白居易의《육첩六帖》, 이용李冗의《독이지獨異志》, 소악蘇鶚의《두양잡편杜陽雜編》, 은성식殷成式의《유양잡조酉陽雜俎》, 유숙劉肅의《대당신어大唐新語》, 손광헌孫光憲의《북몽쇄언北夢瑣言》, 조린趙璘의《인화록因話錄》 등이 있다.
송나라 이후부터는 잡서雜書가 더욱 많아서 모두 기록할 수 없다.
또《백호통白虎通》은 한漢나라의 여러 선비들이 찬술撰述한 것이고,《초학기初學記》는 당唐나라 장열長說 등이 지은 것이며,《태평어람太平御覽》·《태평광기太平廣記》·《문원영화文苑英華》는 송나라 이방李昉 등이 찬술한 것이다.

《소전邵傳》에 말하기를, "《마사馬史》에는 경제景帝·무제武帝의 2대의 기사와 예악禮樂 등의 글은 없다. 이것은 곧 원성元成 연간에 선생이 보충하여 지은 것으로서 사마천의 글은 아니다. 보는 이들이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갈홍葛洪의《서경잡기西京雜記》에 말하기를, "홍洪의 집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

는 유자준劉子駿의 《한서》 100권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반고班固의 저작이다. 거의 전적으로 《유서劉書》를 그대로 채용했고, 약간 이동異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반표전班彪傳〉에 말하기를, "반표가 사마천을 계승하여 수십 편의 《사기》를 썼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니, 제帝가 그의 아들 고固에게 명령하여 계속하게 했다"고 하였다.

《반서班書》는 총 99편인데, 그중에 항적제전項籍諸傳은 《마사馬史》의 본문에 대하여 조금 산삭刪削을 가했고, 또 그의 아버지를 계승하여 일가언一家言을 이루었다. 만약 유흠劉歆의 《한서》에서 가져다가 옮겨 썼다면, 반고班固의 전문全文은 아마 얼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갈홍葛洪의 뒤로 한 사람도 이것을 언급하는 이가 없고, 모두 반고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일본에 《고문상서古文尙書》가 있으니, 바로 서복徐福이 바다에 들어갈 때에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했다. 구사공歐陽公의 시詩에, "서복이 갈 때에는 상서尙書는 타지 않아서 잃었던 옛 책 100편이 지금도 오히려 있다네. 금령禁令이 엄중해 중국에 전할 수 없어, 온 세상이 도道의 참된 것을 알지 못하네(徐福行時書未焚 逸書百篇今尙存 令嚴不許傳中國 擧世無人識道眞)"라고 했다. 근년에 왜국倭國의 사자使者에게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언傳言한 사람의 잘못이었던가.

《후한서》에 말하기를, "선비들이 다투어 도위圖緯를 배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도위의 도는 도참圖讖이고, 위는 칠위七緯이다. 서한西漢의 말년에 하하량夏賀良의 무리가 만들었는데, "경經이 있으면 반드시 위緯가 있다"라고 했

다. 칠위라는 것은 《역위易緯》[1] · 《서위書緯》 · 《시위詩緯》 · 《예위禮緯》 · 《악위樂緯》 · 《효경위孝經緯》 · 《춘추위春秋緯》이다. 《역계람도易稽覽圖》 · 《건착도乾鑿圖》 · 《곤령도坤靈圖》 · 《효경수신계孝經援神契》 · 《구명결鉤命決》 · 《춘추연공도春秋演孔圖》 · 《원명포元命包》 · 《운두추運斗樞》 · 《감정부感精符》는 모두 위서緯書이다.

《급총죽서汲冢竹書》의 내용이 괴이하고 허탄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다. "주周나라가 천명天命을 받은 때로부터 목왕穆王에 이르기까지가 100년이고, 목왕의 수명이 100년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유왕幽王이 이미 없어지니 공백共伯인 화和가 천자의 일을 섭행攝行했다"라고 했다. 그러니 소공召公 · 주공周公 두 정승이 함께 화합하여 정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이 또한 유리有理한 것 같다. 그러나 옛 기록에 "목왕은 임금의 자리에 있은 것이 100년이 아니고 수명이 100년이었다"라고 한 것은 믿을 만한 기록이다.

《역옹패설櫟翁稗說》에 말하기를, "《급총서汲冢書》의 내용은 6경經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순임금도, 우임금도 문왕도 모두 크게 악한 이름을 입고 있다. 나 혼자 생각으로는 조만曹瞞과 같은 자가 스스로 자신의 악덕한 것을 알고, 드디어 대성인大聖人들을 무함하여 그 비방을 나누고자 하여, 땅을 파고 위조한 글을 묻어 두어서, 후세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급군汲郡은 위魏나라의 수도에서 가깝다. 익재益齋의 이 말은 보는 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급총서》 가운데 〈목천자전穆天子傳〉 같은 것은

1 《역경》의 위서緯書 즉 중국 전한 말기부터 후한에 걸쳐서 유교 경전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책으로, 길흉화복 따위의 예언이 담겨 있다. 후에 금서가 되어 일부만 전한다.

후인이 찬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 없는 데가 있다.

《천자문千字文》은 양梁나라의 주흥사周興嗣가 편찬한 것이다. 무제武帝가 1,000자를 가져다가 한 글자씩 조각 종이에 써서 뒤섞어 놓고, 주흥사에게 명령하여 운문韻文으로 글을 만들라고 했다. 지금 그 《천자문》을 고찰하여 보면, 다만 "여모정결女慕貞潔"이라고 한 것과 "환선원결紈扇圓潔"이라고 한 것의 결潔이란 글자가 중복하였을 뿐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정결貞潔의 결潔은 마땅히 혈絜이란 글자를 써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진본기秦本紀〉를 살펴보니, "남녀혈성男女絜誠(남녀가 성의로 약속한다)"이라고 했고, 〈악의전樂毅傳〉에는 "불혈기명不絜其名(그 이름을 조촐히 여기지 않는다)"이라 하였으며, 《장자》에는, "이혈오행以絜吾行(나의 조행을 바르게 간추린다)"이라 했다. 아마 옛날에는 결潔과 혈絜을 통용하였던 것 같다. 지금 한호韓濩(한석봉韓石峯)가 쓴 《천자문》에는 정렬貞烈이라고 썼는데, 그 근거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강목綱目》은 주자의 문인門人 조사연趙師淵이 스승의 명령을 받들어 편찬한 것이다. 그 내용이 소루하고 어그러졌음은 당연하다.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주자에게서 나왔다고 하여 《춘추》에 맞추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주자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지었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많은 글을 지었기 때문에 정력精力이 미치지 못하여 반드시 완성할 수 있을지를 두려워한다"라고도 했다. 양신의 말이 따로 근거하는 바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역대의 사기史記로서 《자치통감資治通鑑》·《강목綱目》·《통감찬요通鑑纂要》·《강감대성綱鑑大成》 등의 서적은 모두 편년체編年體(연대를 좇아 사실史實을 열기列記하는 역사 편찬의 한 체재)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여조겸呂祖謙의 《십칠사상절十七史詳節》에는 세기世紀 · 열전列傳이 있다. 그런 까닭에 윤사문尹斯

文(윤담휴尹覃休)의 글 같은 것에 박흡博洽하다는 이름이 있는 자가 이 책을 매우 칭찬하여 여러 사서史書 중에 제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변란 이후로는 이 책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도 또 특히 좋아하는 이가 없다. 나는 가만히 애석하게 여긴다.

《옥대신영玉臺新詠》은 서효목徐孝穆이 편찬한 것이다. 규중閨中의 정원情怨에 관계되는 작품을 많이 수록하였기 때문에 유명하다. 후대의 《향렴집香奩集》[2]과 같은 것이다. 그 가사歌詞가 지나치게 아름답고 고우며, 말뜻이 상냥하고 아름다우며, 특히 시인의 운치가 있어서 당나라의 것보다 격이 높다. 효목孝穆은 서릉徐陵의 자字이다.

이동양李東陽이 말하기를, "당시唐詩를 뽑아 놓은 것 중에는 오직 《당음唐音》이 그럴듯하다. 그 다음으로는 주백周伯[3]의 《삼체三體》[4]이다. 고취鼓吹(악부樂府의 가사인 시詩)는 만당晩唐의 비루한 것을 입격入格시킨 것이 많아서 나는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선정된 당음이 세상에서는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는 겨우 1,341수일 뿐이고, 사율四律과 절구絕句도 매우 적다. 그것은 이백李白 · 두보杜甫 · 한유韓愈의 시집에 미치지 못하고 소략하다는 평을 면할 수 없다. 고취는 편찬된 것이 다만 칠언七言의 근체近體(근대의 형

2 책 이름. 《당서唐書》〈예문지藝文誌〉에는 한악韓偓의 찬이라고 쓰여 있으나, 《송조류원宋朝類苑》에는 화응和凝의 작으로서 한악의 이름을 칭탁한 것이라고 한다. 수록한 시가 모두 향렴체香奩體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향렴체라는 것은 시체詩體의 한 가지로서, 당나라의 한악은 즐겨 규녀閨女 · 궁녀들의 요조하고 연지 바른 맵시를 노래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를 향렴체라고 불렀다.

3 주백필周伯弼의 오기誤記인 듯. 백필은 주필周弼의 자字. 송나라 여양汝陽 사람. 또는 문양인汶陽人이라고도 한다. 묵죽墨竹에 능하였으며 저서로 《문양단평시준汶陽端平詩雋》과 《삼체당시三體唐詩》가 있다.

4 《삼체당시三體唐詩》의 약칭. 송나라의 주필周弼이 찬한 당시집唐詩集으로서 모두 6권이다. 삼체라고 한 것은 칠언절구七言絕句 · 칠언율시七言律詩 · 오언율시五言律詩를 가리킨 말이다.

식)뿐이고, 삼체三體에 고선古選의 장편長篇은 없다. 그것의 가장 우수한 점은 다만 분류를 잘했다는 것일 뿐이다.

양중홍楊仲弘이 말하기를, "《하악영령집河嶽英靈集》과 《중흥한기집中興閒氣集》은 모두 당나라 사람이 선정한 것인데, 만당晩唐 것을 주로 한 것이 많다. 왕개보王介甫의 《백가선百家選》은 고적高適 · 잠참岑參 · 왕유王維 · 맹호연孟浩然 등 몇몇 대가를 제외하고는 또한 모두 만당에서 뽑았다. 그 밖에 홍용재洪容齋 · 조자지趙紫芝 등의 여러 선집選集과 같은 것은, 성당盛唐의 것은 간략하게 하고 만당의 것은 자세하게 했다"라고 했다. 시속時俗의 숭상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시격詩格이 날로 낮아지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고병高棅이 찬한 《당시품휘唐詩品彙》에서의 구별은 무덕武德 이후를 초당初唐이라 하고, 개원開元 이후를 성당盛唐이라 하고, 대력大曆 이후를 중당中唐이라 하였으며, 개성開成 이후를 만당晩唐이라 했다. 또 초당을 정시正始라 하고, 성당은 정종正宗 · 대가大家 · 명가名家 · 우익羽翼으로 구분하였으며, 중당을 접무接武라 하고, 만당을 정변正變 · 여향餘響이라고 했다. 그가 진자앙陳子昂 · 이백李白으로 정종正宗을 삼고, 두보杜甫를 대가大家로 한 것은 가장 참작한 바가 있다. 명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고정례高廷禮의 《당시품휘》는 시교詩敎에 크게 공적이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당시唐詩의 선집은 너무 많다. 《당시정음唐詩正音》 · 《여휘呂彙》 · 《정성正聲》 · 《고취鼓吹》 · 《삼체시三體詩》 · 《백가시百家詩》 · 《당시류원唐詩類苑》 · 《십이가시十二家詩》 · 《당시기唐詩紀》와 같은 따위로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송나라의 시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음이 아닌데, 뽑아 모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혹은 진실로 송나라 때의 시가 당시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가.

《패설稗說》에 말하기를, "오대五代 때에 고려에서 《별효경別孝經》 한 권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공자의 부모와 자제와 학문에 종사하던 일을 기록하였으며, 또 《효경자웅도孝經雌雄圖》가 있어서 해〔日〕의 햇무리와 별의 혜패彗孛(혜성)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 책이 지금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혹은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일까.

《설부》에 말하기를, "주周나라 세종世宗 때에 수부랑水部郎 한언경韓彦卿이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한 서적을 보니 《박학기博學記》라고 했다. 그 가운데에 있기를, 안개는 미천보장迷天步障이라 하고, 서리는 위설威屑이라 하였으며, 이슬은 교수敎水라 했고, 우박은 빙자氷子, 무지개는 기모氣母, 별은 설금屑金…… 하여서 그 말이 매우 신기新奇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소위 《박학기》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전등신화剪燈新話》는 곧 양염부楊廉夫의 저작이다. 다만 《추향정기秋香亭記》만은, 구종길瞿宗吉이 찬술한 것이다. 그 글의 기세가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예나 지금의 서적으로서 이와 같이 남의 이름을 칭탁한 것이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또 《전등신화》 중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은 오로지 동파東坡의 《지림志林》에서 따온 것이고, 〈신양동기申陽洞記〉는 오로지 《자원전白猿傳》을 습용하고 약간 은괄隱栝[5]을 더하였을 뿐이다. 그 밖의 것도 모방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전등신화》는 효빈效顰[6]이 더욱 심하다.

5 은隱은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괄栝은 방형方形을 바로잡는 것이니,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6 남의 좋지 않은 것을 흉내 내는 것. 좋지 않은 것을 본받는 것. 옛날 미녀 서시西施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 눈썹을 찡그리니 그 때문에 얼굴이 더욱 예뻐 보였다. 그 마을의 추녀醜女가 그것을 보고 흉내 내어 자기도 눈썹을 찡그리니 보는 사람들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달려가 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앵앵전鶯鶯傳》은 원진元稹의 자서전인데, 장생張生이라는 가공인물을 빌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지금 그 책 가운데의 〈정씨묘지鄭氏墓誌〉와 〈몽유춘사夢遊春詞〉를 살펴보니, 소동파 시의 주에, 장생을 장적張籍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나라에는 시문선집詩文選集이 많지 않다. 점필재佔畢齋가 편찬한 《청구풍아靑丘風雅》·《동문수東文粹》는 비록 정선精選했다고 하나 너무 간략하다는 말을 면할 수 없고, 《동문선東文選》은 비록 널리 뽑아 모았다고 하나, 선택을 주관한 이가, 자기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에 따라 뽑고 버리고 한 것이 많다. 《속동문선續東文選》은 더욱 심하여 구미속초狗尾續貂[7]의 꾸짖음을 면치 못하니 식자識者들은 한스럽게 여긴다.

《운회韻會》는 모두 1만 2,652자이고, 《예부운禮部韻》은 다만 9,590자이다. 그런데 《용감수감龍龕手鑑》은 16만 글자를 넘는다. 이것은 글단契丹(거란) 때에 요승遼僧이 편찬한 것이다. 《삼운통고三韻通考》는 왜국倭國에서 나온 책인데, 《약운略韻》에 비교해도 더욱 적다. 그러나 한번에 곧 모두 볼 수 있어서 고열考閱에 편리하다. 그러므로 지금 그것을 사용한다.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서적을 거의 모두 손으로 썼다. 당나라 때부터 처음으로 판각板刻이 있게 되고, 송나라에 이르러서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대체로 나무가 재해를 입는 일이 여기에서 심하게 되었다.

7 담비(貂)로 꾸민 갓 뒤에 개 꼬리로 꾸민 갓이 뒤따라가는 것. 초貂는 초선관貂蟬冠이니 시중侍中의 갓이다. 벼슬을 함부로 주는 것을 비웃는 말. 또는 선미善美한 것의 뒤를, 거칠고 나쁜 것이 잇는 것을 비유한 말. 여기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말한 것.

12-2 저술著述

《가어家語》를 읽어보니, 공자는 68세 때에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에 돌아와서, 《시경》·《서경》을 간추리고 예악禮樂을 바로잡았으며, 《역경》을 서술하고, 《춘추》를 닦았으며, 71세 때에 기린을 포획한 것에 느낀 바 있어서 저술을 그쳤다고 한다. 성인聖人도 저술하는 일을 오히려 만년晩年에 하였으니 하물며 후인後人이겠는가.

옛날 사마천司馬遷은 한漢나라의 중엽 때에 《사기史記》를 지었다. 반고班固는 《한서漢書》를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니, 조대가曹大家에게 조서를 내려 계속하여 완성하게 했다.
진晉나라의 손성孫盛은 《진춘추晉春秋》를 지었는데, 시사時事를 바른 대로 말하였으므로 환온桓溫이 성내었다. 왕소王韶가 사사로이 《진사晉史》를 편찬하더니 즉시 그를 사관史官의 벼슬에 임명하여 뒷일을 계속하게 했다.
송나라의 이도李燾가 〈송백관표宋百官表〉를 지으니, 조서를 내려 붓과 종이를 주고 《통감장편通鑑長編》을 만들게 했다.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통기헌장록通紀憲章錄》·《대정기大政紀》·《소대전칙昭代典則》 등의 여러 가지 저서가 있어서, 모두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의 넓고 큰 기상을 볼 수 있다.

양자운揚子雲이 《태현경太玄經》을 지으니,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은 장딴지나 덮기에 알맞다"라고 말하였으나 홀로 환담桓譚만은, "그 책은 반드시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사람들의 심정은, 지나간 옛것은 사모하기를 좋아하고, 동배同輩의 것은 가볍게 여기며, 익히 보는 것은 믿지만 드물게 듣는 것은 해괴하게 여긴다. 자운子雲이 환담을 만난 것도 또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자운이 《법언法言》을 지으니, 촉蜀 땅의 부자 사람이 돈 10만을 싸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름을 실어주기를 원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

다. 그러니 그가 당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와 같았다. 어찌 후세의 선비들이 종이와 붓에 정력을 다하여도 곧 사라지고 들림이 없는 것과 같겠는가.

주흥사周興嗣가 하룻저녁 사이에 《천자문》을 만들어 올렸는데, 수염과 머리털이 다 희어졌으며, 돌아와서는 두 눈이 한꺼번에 실명되고, 죽을 때에는 마음이 단전丹田(도가道家에서 이르는 삼단전三丹田의 하나로, 배꼽 아래 한 치쯤 되는 곳)을 떠난 것 같았다.
사령운謝靈運은 반일半日 동안에 시 100편을 짓고서 갑자기 이(齒) 12개가 빠졌으며, 맹호연孟浩然은 눈썹이 모두 떨어졌다. 위상魏裳이 《초사楚史》 76권을 저술하고 심혈心血이 모두 닳아서 졸卒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으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색酒色으로 몸을 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을 짓고, 왕적王績은 《주경酒經》을 지었으며, 사광師曠은 《금경禽經》을 짓고, 상흠桑欽은 《수경水經》을 지었으며, 최호崔浩는 《식경食經》을 짓고, 왕적신王績薪은 《기경碁經》을 지었으며, 범려范蠡는 《종어경種魚經》을 짓고, 영척寗戚은 《상우경相牛經》을 지었으며, 백락伯樂은 《상마경相馬經》을 짓고, 부구백浮丘伯은 《상학경相鶴經》을 지었으니, 불서佛書 · 도서道書(도교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經이라고 일컬었다. 이들 가운데 많은 것은 후인들이 위찬僞撰한 것이다.

구양자歐陽子가 말하기를, "옛날부터 책을 저술한 선비는 이루 다 셀 수 없다. 그러나 흩어져 없어지고 닳아 사라짐이, 초목의 번성하고 꽃다움이 곧 가을바람에 떨어져 나부끼며, 새와 짐승들의 좋은 울음소리가 잠깐 귓가를 지나감과 다름이 없다. 말을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다"라고 했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당나라의 요숭姚崇과 번종사樊宗師는 평생에 저술한 것이 매우 많다고 한다. 그

러나 그의 문장은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지금 세상의 선비들이 문자에 부지런히 힘쓰고, 마음을 다하여 이름을 불후不朽에 붙이고자 하는 것은 모두 잘못인 것이다.

《벽운하碧雲騢》라는 책은 매성유梅聖俞가 편찬한 것이다. 그 가운데 몇몇 장은 범문정范文正을 헐뜯는 데에 매우 힘썼다. "공公은 종족宗族을 박대하였으며, 환시宦侍와 교결交結하여 벼슬을 얻었다"라고 했다.
내가 이상하게 여겼는데, 뒤에 다른 서적을 보니, "성유聖俞가 평생에 범공范公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을 지어서 세상에 전했다"는 말이 있었다. 그 사람의 박덕薄德한 행동이 이와 같았으니, 일생 동안 불우하였음은 당연하다. 아, 진작 범문정范文正이 우뚝하게 뛰어난 큰 절개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어찌 믿지 않는 자가 있었겠는가. 그런 까닭에 책을 다 믿으면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설부》에 말하기를, "위태魏泰가 성유聖俞의 이름을 칭탁하고 책을 지어, 이름을《벽운하》라 부르면서 당세當世의 거공巨公(대관大官)을 헐뜯었다"라고 했다. 이 또한 그런 것 같다.

한자창韓子蒼이《고금주古今註》의 뒤에 글을 붙여 말하기를, "최표崔豹는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사이의 사람이다. 전쟁으로 치고 빼앗고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문필文筆에 나타낼 수 있었다. 선비가 무사한 때에 나서 둥근 갓과 모난 신의 차림으로 배부르게 먹고 즐기면서 희롱이나 하고 지내는 것은 또한 부끄러워할 만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모든 선비 된 자로 누군들 글을 읽어서 한 세상에 도를 펴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있으랴마는, 이미 도가 행함을 얻지 못하면 혹은 공언空言에 붙이는 것은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최상은 덕德을 세우고, 그 다음은 말(言)을 세운다. 그것이 오히려 아무런 용심用心하는 바가 없는 자보다는 어질지 않은가. 고증하여 보니, 최표는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의 사람으로서 벼슬이 태부太傅에 이르렀으니 불우한 사람은 아니다. 자창子蒼이 그를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사이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고금주》는 최표의 저서의 이름이다.

《용재수필容齋隨筆》에 말하기를, "야사野史와 잡설雜說은 전해들은 데서 얻은 자료가 많으며, 호사자好事者들이 꾸민 것이 많다. 그런 까닭에 사실 아닌 것이 많다. 비록 전배前輩들일지라도 이런 실수를 면할 수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특히 잡설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옛날 사가史家들의 기전記傳도 반드시 다 사실은 아니다. 보는 자는 그 대개大槪만을 알면 그만인 것이다.

섭몽득葉夢得이 말하기를, "사대부가 소설小說이나 잡기雜記를 지을 때에 듣고 보는 것이, 장난삼아 하는 말에 근거하는 것이 많다. 그리하여 가끔 남의 단처短處를 폭로하여 놓고는, 사사로이 즐겨하고 성내곤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구문충歐文忠이 《귀전록歸田錄》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당唐나라 이조李肇의 방식을 법으로 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남의 허물이나 악惡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자의 마음 쓰는 것은 마땅히 이러하여야 하겠다"라고 했다. 이 말이 진실로 좋다.

《오학편吾學編》의 서序에 말하기를, "옛날의 작자는 반드시 웅걸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로서, 가슴 가운데에 본래부터 전서全書가 있으면서 시용試用할 수 없으면 드디어 저술로써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군자가 뜻을 얻으면 정기精氣가 나타나서 공功이 되고, 뜻을 얻지 못하면 정기가 거두어져서 말이 된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옛사람에게서 어찌 저술이 그칠 수 있었겠는가. 모두 재능과 학문이 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한 일이다. 그러나 소위 저술이라는 것이 또 어찌 패관소설稗官小說을 말한 것이겠는가.

명나라의 태종太宗 때에 선비 주계우朱季友가 자기의 저서를 올렸는데, 전적專的으로 염락관민濂洛關閩[8]의 학설을 배척했다. 임금이 성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선비로서 천賤한 자이다. 선현先賢을 헐뜯고 정도正道를 헐어서 말하였으니, 보통의 죄가 아니다. 이 죄를 처벌하는 것은 상례常例에 구애될 수 없다”라고 하고, 드디어 행인行人(벼슬 이름)에게 칙령을 내려서 계우季友를 구속하여 요주饒州로 돌아와서는, 포정부현관布政府縣官과 고을의 선비들을 모아 놓고, 그의 죄를 명백하게 타이른 뒤에 매를 쳐서 처벌하는 뜻을 보이고, 그 집을 수색하고 그의 저서를 찾아내어 여러 사람들을 모은 자리에서 불태웠다고 한다.
아, 문황文皇의 이 조처는 정도正道를 세우고 사도邪道를 억제하려는 뜻이 지극하다. 그러지 않았다면 육씨陸氏의 학설이 왕양명王陽明을 기다리지 않고도 세상에 성행하였을 것이다.[8]

송나라의 보전莆田 정후鄭厚가 말하기를, “맹자는 어진 사람이 아니다. 주周나라의 땅을 밟으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으면서 항상 주나라를 없애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중니仲尼에게서 배워 가지고는 그를 배반한 자이다. 당시當時로 하여금 위문威文(위무威武와 문치文治)의 조처를 선창先倡하는 자가 있었더라면 문왕文王 · 무왕武王 · 성왕成王과 같은 공업功業도 거의 바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맹가孟軻는 한갓 입과 혀로만 임금의 마음에 맞기를 구하여 스스로 이利와 녹祿을 꾀했다. 오늘에는 양혜왕梁惠王을 달래고, 이튿날은 제선왕齊宣王을 달래어 모두 그들로 하여금 탕무湯武[9]의 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데에 빠지게 했다. 맹가孟軻는 인심忍心(잔인殘忍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변사辯士이며, 소진蘇秦 · 장의張儀와 같은 세객說客 중의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를 시

8 염계濂溪 사람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 사람 정호程顥 · 정이程頤, 관중關中 사람 장재張載, 민중閩中 사람 주희朱熹를 일컫는 말. 즉 송나라 오자五子의 학문을 일컫는 말. 염락관민문학濂洛關閩文學을 뜻하는 말이다.

9 은殷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니, 둘 다 임금을 방벌放伐하여 천하를 얻었다. 이것을 탕무湯武의 방벌이라고 한다.

詩 · 예禮의 발매가發賣家라고 하여 시정市井의 판매부販賣婦에 비유하기에 이르러 성현을 더럽게 헐뜯음이 더할 수 없다. 그런데 송나라의 선비들이 배척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조我朝 200년 동안의 저서로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소설로서 볼 만한 것도 또한 얼마 없다.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동인시화東人詩話》, 이육李陸의 《청파극담靑坡劇談》,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 남효온南孝溫의 《추강냉화秋江冷話》, 조신曹伸의 《수문쇄록謏聞瑣錄》,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김정국金正國의 《사재척언思齋摭言》, 신광한申光漢의 《기재기이企齋記異》,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稗官雜記》, 이자李耔의 《음애일록陰崖日錄》, 심수경沈守慶의 《견한잡록遣閑雜錄》, 권응인權應仁의 《송계만록松溪漫錄》, 이제신李濟臣의 《후청쇄어鯸鯖瑣語》, 허봉許篈의 《해동야언海東野言》,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東閣雜記》·《황토기사黃兎記事》, 차천로車天輅의 《오산설림五山說林》이 있다. 그중에는 간행刊行하지 않은 것도 또한 많다. 오래되면 민멸泯滅하여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제 여기에 적어서 참고에 대비한다.

13. 문자부文字部

13-1 문의文義

《한서》에 위타尉佗가 말하기를, "노부老夫가 부모의 무덤이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을 풍문風聞으로 듣고"라고 한 구절이 있다. 심약沈約의 탄문彈文(탄핵하는 글)에는, "풍문에 들으니 동해왕東海王 원源이……"라고 했고, 위魏나라의 임성왕任城王의 표문表文에는 "어사御史의 예절은 풍문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통전通典》에 말하기를, "어사는 풍문을 듣고 탄핵하여 들춰낼 뿐이다"라고 했다. 《좌전左傳》을 살펴보니, "세상에 전해지는 말(臚言)을 시가市街에서 풍문으로 듣고"라고 했다. 주에, "풍風은 채采이니 상려商旅들의 말을 채청採聽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평전陳平傳〉에, "평平이 사과하여 말하기를, 주신主臣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주에, "주신이란 황공하다는 말과 같으니, 주主는 격擊(치다)이고, 신臣은 복服(복종함)이라는 말이니, 격복擊服은 겁내고 두려워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또 〈풍당전馮唐傳〉과 《진서晉書》를 보니, 한퇴지韓退之의 〈회서비서淮西碑序〉에, "실주실신悉主悉臣"이라고 한 주主·신臣도 또한 이와 같은 뜻이라고 했다.

'금착도金錯刀'라는 말에는 2가지의 뜻이 있으니, 돈(錢)이라는 뜻과 칼(刀)이라는 뜻이 그것이다. 《한서》의 〈식화지食貨志〉에, "왕망王莽이 다시 대형大型의 돈을 주조鑄造하고 황금으로 도금鍍金하여 말하기를, 이 돈 1도刀의 값이 5,000이다"라고 했다. 이 도刀는 돈을 말한 것이다. 《동관한기東觀漢記》에는, "등통鄧通에게 금착도를 하사했다"라고 했다. 이 도刀는 칼을 말한 것이다.
두시杜詩에, "주머니의 금착金錯은 다 떨어지려 하고(金錯囊垂罄)"라고 한 것이

나, 한시韓詩에, "어찌 모름지기 착도錯刀에 인색할 것이냐〔何須悋錯刀〕"라고 한 것은 돈을 말한 것이고, 맹호연孟浩然의 시에, "미인이 금착을 구사驅使하여 가냘픈 손으로 생선을 회 친다〔美人騁金錯 纖手膾紅鱗〕"라고 한 것은 칼을 말한 것이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회남자》에, '해가 천우泉隅(지명地名)를 지났으니 이것을 고용高舂(저녁 때)이라 한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시에, '비낀 그림자가 고용에 떨어진다〔斜景落高舂〕'라고 한 것이다. 설능薛能의 시에, '시내를 사이에 두고 멀리 석양용夕陽舂을 본다〔隔溪遙見夕陽舂〕'라고 한 것은 모두 《회남자》에 근거를 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석양용夕陽舂"이라고 한 용舂을 고용, 즉 저녁때라는 뜻으로 풀이한다면, 석양과 저녁때는 말이 중첩됨을 면치 못한다. "멀리 본다"라고 한 그 위의 말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석양용"의 용舂은 방아를 가리켜 말한 것 같다. 그러나 유자후柳子厚의 시에, "빈 집에 말없이 고용高舂에 앉았다〔空齋不語坐高舂〕"라고 한 것은 《회남자》의 고용이란 말을 사용한 것으로서 저녁때를 말한 것이다.

송나라의 마영경馬永卿이 말하기를, "서척書尺(편지)에 불녕不佞이라고 일컫는 것은, 아마 감히 아첨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재주가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좌전左傳》에, "여러 신하들이 불녕하여"라고 했다.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과인寡人이 불녕하여"라고 말하였는데, 주에, "녕佞은 재才이다"라고 하였으며, 《논어》〈옹야雍也〉장에 나오는 불녕도 주에, "녕佞은 구재口才(말재주)이다"라고 했다. 옛날에는 녕佞과 능能은 통용했다. 그런 까닭에 녕佞을 재능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그러니 마영경의 말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금호金虎’라는 말에 2가지의 뜻이 있다. 《문선文選》에 나오는 시에, “망서望舒[10] 이금호離金虎”[11]라는 글귀가 있으니 ‘달이 필성畢星에 붙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인데 필성은 서쪽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동경부東京賦〉에도, “금호에서 졸했다(卒於金虎)”라고 했다. 번천樊川의 시에는 말하기를, “금호金虎 같아서 움직이기 어려움을 안다(金虎知難動)”라고 했다. 소인小人의 덕의 탐욕함은 견고하기가 쇠 같고, 참소하는 말은 악하기가 범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전자의 금호는 서방西方을 의미하고 후자의 금호는 쇠와 범을 말한 것이다.

옛글 가운데에, “바다에 들어갔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바다 안의 섬에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이다. 가령 “경쇠를 치는 양襄은 바다에 들어갔다(擊磬襄入于海)”[12]라든가, “서불徐市이 바다에 들어가 삼신산三神山을 찾다(徐市入海求三神山)”라고 한 것이라든가, 두시杜詩에, “동쪽으로 장차 바다에 들어가 연기와 안개를 따르리라(東將入海隨烟霧)”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다만, “육수부陸秀夫[13]가 황제를 업고 바다에 들어가다(陸秀夫負帝入海)”라고 한 것은 바로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을 말한 것이다.

《초사楚辭》에, “기궐剞劂을 잡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기궐은 굽은 칼(曲刀)이니, 조각하는 칼이다”라고 했다. 옛글에

10 달을 앞에서 인도해 가는 구종驅從. 월어月御. 변하여 달을 일컫는 말.

11 금호金虎는 서방西方 백호신白虎神이니 금金을 주관하고, 금은 백白이니 서방을 의미한다.

12 경쇠를 치는 악사인 양襄이 바다의 섬에 들어가 숨었다는 말. 《논어》〈미자微子〉편에 나오는 말이다.

13 송나라 사람. 자字는 군실君實이다. 진의중陳宜中 · 장세걸張世傑과 함께 익왕益王을 복주福州에 세워 섬기다가, 익왕이 죽으니 위왕衛王을 세우고 좌승상으로서 보필하였는데, 원元나라 지원至元 때에 애산厓山의 싸움에 패하자, 수부秀夫는 자기의 처자妻子를 먼저 바다에 몰아넣어 죽게 하고 자신은 왕을 업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기궐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글자를 새긴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이오성李鰲城은 《청강집淸江集》의 서문에 말하기를, “나에게 기궐을 맡겼다……”라고 했다. 즉 산삭刪削(글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의 뜻으로 쓰고 있으니 잘못이다.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신광晨光의 희미함이 한스럽다(恨晨光之熹微)”라고 한 말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신광은 해의 그림자이다” 했고, 어떤 이는, “일광日光이다” 했다. 진晉나라 간문제簡文帝의 조서에는, “신휘晨輝를 우주에 빛내다(耀晨輝於宇宙)”라고 했고, 도연명陶淵明의 〈한정부閑情賦〉에는 “신희晨曦의 석양夕陽 됨이 쉬움을 슬퍼한다(悲晨曦之易夕)”라고 하였으며, 〈연창궁사連昌宮辭〉에는, “신광晨光이 아직 나오지 않아 주렴珠簾의 그림자는 검구나(晨光未出簾影黑)”라고 했다.
이런 것은 모두 일광日光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정원庭園을 날마다 거니니 취趣를 이루었다(園日涉而成趣)”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이아爾雅》에 말하기를, “마루 바깥의 길을 추趨라고 하니, 취趣는 추趨와 같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추趨는 또한 취趣로 쓰기도 하니, 《장자莊子》에 거군취擧群趣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했다.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낙하落霞는 고먹孤鶩과 더불어 함께 날아가고”라는 글귀가 있다. 《소설小說》을 참고하여 보니, “낙하落霞는, 즉 날아다니는 나방(蛾)이다. 목鶩(따오기)이 나방을 좇아 잡아먹고자 하기 때문에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만약 낙하를 노을(霞)이라고 풀이한다면, 노을은 날아다닐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설은 매우 곡해된 것으로서 취할 만한 가치가 없다. 또 《운부군옥韻府群玉》에는 말하기를, “낙하를 어떤 이는 새 이름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또한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익주益州의 부자묘비夫子廟碑에, "帝車南至 遁七曜於中階 華蓋西臨 藏五雲於太甲"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 두 글귀를 장열張說이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일행에게 물으니, 일행이 말하기를, "북두성北斗星이 오방午方에 있고, 칠요七曜는 남방南方에 있다. 이러한 상서가 있으면 임금의 지위를 갖지 않은 성인聖人이 나온다는 뜻이다. 화개華蓋 이하의 글귀는 마침내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글귀의 뜻은 옛사람도 이미 풀이하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후인後人이겠는가.

서릉徐陵의 《옥대신영玉臺新詠》의 서序에 말하기를, "영비태갑고천옥함靈飛太甲高擅玉函"이라는 글귀가 있다. 《열선전列仙傳》을 살펴보니, 상원부인上元夫人이 육갑영비치신지부六甲靈飛致神之符를 내어 무제武帝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태상太上이 찬술한 것으로서 청진소동靑眞小童이 이 신부神符(영묘한 부적)를 태갑太甲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는 대개 중원中元에서 사용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두시杜詩에, "오운고태갑五雲高太甲"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주해하는 이가 미상未詳이라고 했다. 근래에 차천로車天輅가 이 비문을 해석하여 주註를 내었다. 그러나 의심 나는 점은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평을 면치 못한다. 대체로 이러한 등류의 문장은 그 나온 곳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풀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태갑太甲은 즉 태을太乙이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양웅揚雄이 말하기를, "기러기가 먼 공중을 날아가니, 새 쏘는 사람이 어찌 잡을 수 있으라(鴻飛冥冥 弋者何篡)"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계략을 써서 물건을 탈취하는 것을 찬簒이라고 한다. 그런데 혹은 찬簒을 모慕로 쓰는 이가 있음은 잘못이다. 장구령張九齡의 시에, "이제 내가 멀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 노니니, 익자弋者(주살로 새를 잡는 사람)가 어찌 생각하겠는가(今我遊冥冥 弋者何所慕)"라고 했다. 하대복何大復의 시에는, "강가의 활 쏘는 사람이 한갓 기러기만 생각한다(江上弋人 徒慕鴈)"라고 했다. 이 글귀들은 모두 찬簒을 모慕로 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한 것이다.

《후한서》에, "월기越騎[14]로 오백五百을 영위하다……"라고 말한 주에, "오백五百은 본래는 오백伍百이라고 쓴다. 오백五百은 군의 벼슬 이름이니, 그들로 하여금 임금의 수레를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길거리에서 환난을 구제하게 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행장인行杖人(장형杖刑을 집행하는 사람)도 또한 오백五百이라고 부른다. 한시韓詩에, "당장에 적조賊曹를 소환하고 오백을 부른다(立召賊曹呼五百)"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환鰥·과寡·고孤·독獨[15] 네 종류의 사람은 그 가엾은 정상情狀에 있어서 선후先後가 없다. 그런데 늙은 홀아비를 첫머리에 들고 있으니 아마 여자로서 남편이 없는 자는 오히려 스스로 부양할 수 있으며, 어려서 아비 없는 자와 늙어서 자식 없는 자는 어머니와 아내가 있어서 부양할 수 있지만 오직 아내 없는 자는 부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례를 환과고독鰥寡孤獨의 순서로 정하였을 것이다. 《풍속통風俗通》에, "아내가 죽으면 배가 슬프다(婦死腹悲)"고 한 것은 또한 공궤供饋를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가 슬프게 된다는 뜻이리라.

《서도잡기西都雜記》에 말하기를, "건작乾鵲이 지저귀면 행인이 이른다(乾鵲噪行人至)"라는 말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말하기를, "까치는 양물陽物이기 때문에 건작이라고 한다" 했고, 《전가오행서田家五行書》에는, "까치가 지저귀어 이른 아침에 날씨가 청명晴明함을 알리기 때문에 건乾 자를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옛사람이 젖은 반딧불(濕螢)이라는 말을 가지고 마른 까치(乾鵲)라는 말과 대구를 삼았으니 후자의 설이 옳은 것 같다.

14 당唐나라 때에 마술馬術·궁술弓術에 능하고 용맹하여 장애물을 자유로이 뛰어넘는 군사로써 조직한 기병騎兵.

15 늙어서 아내 없는 홀아비, 늙어서 남편 없는 홀어미, 어려서 아비 없는 고아, 늙어서 자식 없는 자.

세상 이야기에 환온桓溫이 왕돈王敦을 ‘가아可兒’라고 했다고 한다. 가아는 즉 가인可人(쓸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또 도연명陶淵明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향리鄕里의 소아小兒를 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였는데, 소아는 즉 소인小人이다. 고찰하여 보니, 《송서宋書》에는, “향리소인鄕里小人”이라고 쓰여 있다. 아마 진晉나라의 말에는 인人이란 글자와 아兒라는 글자가 통용되었던 것 같다.

옛날에는 유희遊戲를 교쾌狡獪라고 했다. 왕방평王方平이 말하기를, “나는 교쾌狡獪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한시韓詩》의 주註에 “교쾌는 어린 아이들의 유희다”라고 했다. 혹 간악하고 교활한 것을 교쾌하다고 쓰는 이가 있으나 잘못이다.

오회吳會는 오吳와 회계會稽를 일컫는 말이다. 《남사南史》에 “제齊나라의 고제高帝가 손수 오吳 · 회會 두 고을에 조詔를 내렸다”라고 했다. 후인들이 도회都會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희虞喜의 《지림志林》에 말하기를, “‘제부齊斧’라는 말은, 모든 군대를 출동시킬 때에는 제계齊戒하고 사당에 들어가 부월斧鉞을 받기 때문에 제부齊斧라고 한다”라고 했고, 장안張晏은 말하기를, “부斧는 월鉞이니, 도끼로 천하를 정제整齊한다는 뜻에서 제부齊斧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며, 응소應劭는 말하기를, “제齊는 리利와 같으니 예리한 도끼라는 말이다”라고 하여 세 사람의 설이 서로 같지 않다.

옛날에는 산문散文을 필筆이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심약沈約이 말하기를, “사현휘謝玄暉는 시詩를 잘하고, 임언승任彦昇은 필筆에 능하다”라고 했다. 유견오庾肩吾는 문장을 논하여 말하기를 “시詩가 이미 이와 같은데 필筆이 또한 이와

같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는, "가필賈筆[16]은 고분孤憤(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여 분개함)을 논하였는데, 엄시嚴詩는 몇 편이나 지었던고〔賈筆論孤憤 嚴詩賦幾篇〕" 했다. 번천樊川이 "시름이 오려 하면 두시杜詩와 한필韓筆을 읽는다〔杜詩韓筆愁來讀〕"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삼국지三國志》에, "손권孫權이 아들을 위하여 관우關羽의 딸을 선택〔索〕했고, 원술袁術이 아들을 위하여 여포呂布의 딸을 선택했다"라고 했다. 후인들이 며느리 보는 것을 색부索婦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사기史記》에 말하기를 "서언왕徐偃王이 날 때에 반듯이 누웠기 때문에 '언偃'이라고 이름했다"라고 했다. 아마도 언偃은 이름이었을 것이다. 한퇴지韓退之의 비문碑文에, "언왕탄당국偃王誕當國"이란 말이 있으니, 후인後人들이 드디어 탄誕을 이름으로 하고 있다.
차천로車天輅가 일찍이 말하기를, "탄誕을 언왕偃王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옛 문헌에 출처가 없다. 마땅히 탄당국誕當國이란 3자를 한데 붙여서 한 구절로 해야 할 것이다. 탄誕이란 《시경》에 소위 '탄장천위誕將天威'라든가 '탄미궐월誕彌厥月'이라고 쓴, 아무 뜻 없는 글자인 탄誕 자와 같이 풀이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 견해가 근거 있는 것 같다.

〈평회서비명平淮西碑銘〉에 말하기를, "군대를 회곡洄曲(지명)에 상嘗했다"라고 했다. 상嘗은 시험하여 본다는 뜻이다. 《사기》에 진秦나라 군사를 시험하여 본다고〔嘗秦軍〕 한 상嘗이란 글자와 같은 것이다.

16 가의賈誼의 글. 가의는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문신. 낙양洛陽 사람. 문제文帝 때 박사博士에서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으며, 뒤에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양회왕梁懷王의 태부가 되었음. 저서에 《신서新書》·《가장사집賈長沙集》이 있는데 〈치안책治安策〉·〈과진론過秦論〉 등의 글이 가장 유명함.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태부賈太傅 또 연소한 수재라 하여 가생賈生이라 불렀음. 33세에 요절하였음.

야간射干이란 말에는 3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풀이름, 하나는 나무 이름, 하나는 짐승 이름이니, 야射는 '야'로 발음한다. 한인漢人들이 부賦나 사詞에 많이 쓴다. 야간초射干草는 지금도 의가醫家에서 약용으로 쓴다.

옛 시에, "숲을 뚫고 가는 데에는 한 쌍의 불차不借이고 물을 갖고 가는 데에는 한 개의 군지軍持이다(穿林雙不借 取水一軍持)"라고 했다. 불차를 《이아爾雅》에서는 짚신이라고 했다. 그것은 천賤하여 구하기 쉽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빌지 않는다는 뜻이다. 군지는 범어梵語로 병甁을 말한 것이다. 항상 물을 담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간干이란 글자를 많이 썼다. 가령 옛 시에, "북두칠성 가로 비껴 한해瀚海(사막 이름)에 미쳤네(北斗闌干及瀚海)"라든가, "가로 비낀 100척의 얼음(闌干百尺氷)"이라든가, "옥 같은 얼굴에 쓸쓸하게 눈물이 가로 비꼈네(玉容寂寞淚闌干)"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가로 비낀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석의釋義》에 또 말하기를, "난간闌干은 판자板子의 난간(檻)이다"라고 했다. 아마 역시 가로 비낀 뜻을 따서 이름 지은 것이 아닌가 한다.

동파東坡의 사詞에, "탐지유월청풍探支六月淸風"이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탐지探支는 미리 비는 것(預借)이다. 대개 어록語錄이다. 《진서晉書》에 "민회태자愍懷太子가 항상 2달치의 봉록을 미리 빌어서 총애하는 여자들에게 공급했다(愍懷太子 恒探二月 以供嬖寵)" 했고, 또 최치원崔致遠[17]의 사탐사료전장謝探賜料錢狀(봉급을 미리 준 것을 감사하는 서장書狀)에 말하기를, "3개월의 요전料錢을 탐급探給(미리 주다) 하여서……"라고 한 것도 또한 이 뜻이다.

세속에서 20을 염念이라고 하니, 당나라 때부터 이미 그러했다. 무슨 뜻인지

17 신라 말기 학자. 자字를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運이라 함.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의 저자.

알 수 없다. 《패사稗史》를 보니 불가佛家에서 20염念을 1순瞬이라 하고, 20순을 1탄지彈指라고 한다. 또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수주數珠는 120개다"라고 했다. 수주는 즉 염주念珠이다. 여기에서 염念을 20이라는 뜻으로 취한 것은 아닐까.

말에, 물건이 많은 것을 무려無慮라고 한다. 이 말은 본래 《한성제기漢成帝紀》에 나오는 말로서 계산하지 않아도 그 수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옛사람들은 무양無恙이니 무타無他니 하는 말을 쓰고 있다. 고찰하여 보니, 양恙이란 말을 응소應劭의 《풍속통風俗通》에는 말하기를, "양恙은 독충이니 사람을 무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풀 사이에 살면서 노숙露宿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여 묻는 말이다"라고 했다. 《이아爾雅》의 설문說文에는 모두 근심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설문에는 뱀이라고 했다. 아마 상고上古에는 뱀을 근심하여 서로 "다른 일 없는가〔得無他乎〕"라고 물었을 것이다. 지금 풍속에서도 편지의 첫머리에 무타無他라고 일컫는 것이 이것이다.

잡설에 말하기를, "책을 빌려주는 자도 치癡, 책을 돌려주는 자도 치癡"라고 했다. 치癡를 어떤 이는 치嗤라는 글자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비속鄙俗한 말이다.
운서韻書에는 치瓻라고 썼는데, 술을 담는 그릇이다. 소황蘇黃은 치鴟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같다. 어느 설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바보의 뜻인 치癡라는 글자가 특히 의의意義가 있다.

진나라 은선殷羨이 예장태수豫章太守가 되니, 도하都下의 사람들이 편지 전달을 부탁하는 것이 100여 상자나 되었다. 석두성石頭城 아래에 이르러 편지를 모두 물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가라앉는 것은 가라앉고, 뜨는 것은 떠라. 은홍교殷

洪喬(은선殷羡의 자字)는 남의 편지 우체부 노릇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상에서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부침浮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조高祖라고 일컫는 것은 높고 크나큰 뜻을 취한 것이고 현손玄孫이라고 한 것은 까맣게 멀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 말에, "고조高祖라는 말은 있으나 고손高孫이라는 말은 없으며, 현손玄孫이란 말은 있으나 현조玄祖라는 말은 없다"고 했다. 요사이 현손을 고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양陽이 음陰보다 먼저인데 양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음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가고 오고 교합하는 뜻일 것이다. 자웅雌雄이니 빈모牝牡(암컷과 수컷)니 하는 것과 같다.

육무관陸務觀이 말하기를, "〈양관곡陽關曲〉[18]을 세 번 거듭 부른다(陽關三疊)[19]라고 한 것은, 매구每句를 두 번씩 거듭 부른다. 그러나 첫째 글귀는 거듭 부르지 않는다. 만약 글귀마다 두 번씩 부르면 〈양관곡〉 전편全篇을 통해 보면, 네 번 거듭 부르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옛 시에 "〈양관곡〉 제사第四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聽唱陽關第四聲)"라고 했다. 제사성第四聲은 즉, "권근갱진 일배주勸君更進一杯酒"라는 글귀다.

옛사람의 시에 말하기를, "백로가 연기를 뚫고 술을 보내왔네(白鷺衝烟送酒來)"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북위北魏 때에 여러 조曹의 사환을 부압鳧鴨이라

18 가곡歌曲의 이름으로 〈위성곡渭城曲〉의 다른 이름이다. 변하여 송별의 가곡을 의미하게 되었다. 원래는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시送元二使安西詩(원이를 안서에 보내는 시)〉인 것을 악부樂府로 채용한 것이다.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이 그 가사이다.

19 〈양관곡陽關曲〉을 세 번 거듭하는 것. 〈양관곡〉을 부르는 법을 말한 것으로서, 첫 글귀인 "渭城朝雨浥輕塵"은 한 번만 부르고, 제2구부터 두 번 거듭 부르는 것이니, 이것을 양관삼첩이라고 한다.

부르고, 사찰관伺察官을 백로白鷺라고 했다. 이 시에서 아마 이 말을 사용한 것일 것이다.

《필기筆記》에 말하기를, "촉蜀나라 사람들은 경이스러운 물건을 보면 문득, '희희우噫噫吁' 하고 경탄驚嘆하는 소리를 낸다. 이백李白이 〈촉도난蜀道難〉이란 글을 지으면서 이 경탄사를 사용했다. 비로소 그 글 속의 '희희우'라고 한 세 글자가 좋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다. 지금의 책에는 희우얼噫吁嚱이라고 쓰고 있다. 말의 뜻은 같다.

《시평詩評》에,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와 한유韓愈의 시詩는 금치金鴟(황금 솔개)가 바닷물을 쪼개는 것 같고, 향상香象(향기를 풍기는 푸른빛 코끼리)이 하수河水를 건너는 것 같다고 했다. 불서佛書를 고찰하여 보니 말하기를, "부처의 설법을 듣고 인증印證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각각 얕고 깊음이 있다. 비유하면, 토끼와 말과 코끼리가 하수를 건너는 것과 같다. 토끼는 물 위에 뜨고 말은 반쯤 잠긴다. 오직 큰 향상香象만은 하수의 밑바닥에 발을 딛고 물결을 끊고 건너간다"라고 했다. 이 시평詩評에서 이 말을 인용한 것이다.

시인들은, "청등靑燈(푸른 등잔불)"이란 글자를 많이들 사용한다. 그러나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운부군옥韻府群玉》을 살펴보니 말하기를, "강녕현江寧縣의 절에 진晉나라 때의 장명등長明燈(항상 밝게 켜 있는 등잔불)이 있으니, 불빛이 푸른빛으로 변하였으며 뜨겁지 않다. 수隋나라가 진陳나라를 평정할 때까지도 오히려 꺼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청등이란 말은 불등佛燈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13-2 자의字義

기記에 "성인내이천하위일가聖人耐以天下爲一家"라는 말이 있다. 주에, "내耐는 옛날의 능能이란 글자이다"라고 했다. 또 〈조착전晁錯傳〉에는, "호맥胡貊의 사람들은 그 성질이 내한耐寒하고, 양월揚粤의 사람들은 그 성질이 내서耐署하다"라고 했다. 운서韻書를 고찰하여 보니, "내耐라는 글자는 본래는 능能이란 글자로 썼는데 그 뜻은 같다"라고 했다.

예禮에 "방상씨方相氏[20]가 예속隷屬한 모든 무리들을 거느리고 때로 난이구역難以驅疫[21]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난難은 나儺와 통용하고 평성平聲이다"라고 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황금으로 눈 4개를 만들고, 곰의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나儺儺의 소리를 낸다"고 했다. 지금의 풍속에 나자儺者(푸닥거리하는 사람)가 또한 나나儺儺를 부르는 것은 대체로 오래된 풍속이다.

《가어家語》에 "이서설도以黍雪桃"라는 말이 있다. 주에, 설雪은 씻는(洗) 것이라고 했다. 즉 기장으로 복숭아를 씻는다는 말이다. 두시杜詩에, "아름다운 여인이 연뿌리의 실을 씻는다(佳人雪藕絲)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사기》에, "패공沛公이 갑자기 설족雪足했다"라고 한 말이 있다. 주에, "설雪은 닦는 것이니, 즉 설족雪足은 발을 닦는 것이다"라고 했다. "눈물을 닦는다(雪涕)", "부끄러움을 씻는다(雪恥)"라고 말하는 따위와 모두 같은 뜻이다.

20 주周나라 벼슬 이름이니, 곰의 가죽을 쓰고, 황금으로 만든 4개의 눈이 있는 가면假面을 붙이고, 검정 옷에 붉은 치마를 입고, 창과 방패를 잡은 무서운 모습으로 역귀疫鬼를 쫓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21 난難은 나儺와 통용한다. 나儺는 푸닥거리하는 것이다. 즉 나나儺儺의 소리(귀신을 쫓는 소리)를 하여 역귀를 쫓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설문說文》에 말하기를, “독獨은 짐승의 이름이니, 원숭이 같으나 원숭이보다 크다. 원숭이의 성질은 떼를 지어 살지만, 독은 성질이 혼자서 산다. 원숭이는 세 번 울지만 독은 한 번 운다. 아마 홀로 독獨이란 글자는 여기에서 뜻을 따온 것이리라”라고 했다.

《이아爾雅》에 말하기를, “읍邑 밖을 교郊라고 하고, 교郊의 밖을 목牧이라고 하며, 목牧의 밖을 야野라고 하고, 야野의 밖을 임林이라고 하며, 임林의 밖을 경坰이라 한다”고 했다. 《시경》에, “중림中林에 펼쳐 놓았다〔施于中林〕”라든가, “평림平林에 버려두었더니〔置之平林〕”라든가 한 것과 같은 것은, 아마 모두 교야郊野를 가리켜 말한 것 같다.

저褚를 《설문說文》에는 “옷의 전대다”라고 했고, 《좌전左傳》에는 “나의 옷과 갓을 가져다가 전대에 넣었다”라고 했다. 또 “정가인鄭賈人이 가져다가 저褚 속에 두었다가 내놓았다〔將寘諸褚中以出〕”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자》에 “전대가 작은 자는 큰 것을 넣을 수 없다〔褚小者不可以懷大〕”라는 말이 있다. 주에, “저褚는 포布이다”라고 했다. 또 《한서》를 보니, “上褚五十衣 中褚三十衣 下褚二十衣라고 한 저褚는 솜 둔 옷이다. 상 · 중 · 하는 솜 둔 것이 두껍고 얇은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문선文選》에는 말하기를, “화려한 곤복袞服을 입은 자와 조악한 옷을 입은 자가 같이 돌아간다〔華袞與緼褚同歸〕”라고 하였는데, 이 저褚를 《운회韻會》에서는 저紵라고 썼다. 그러나 그 뜻은 위의 것과는 같지 않다.

《사기》〈신릉군전信陵君傳〉에 “굶주린 범에게 고기를 던져줌과 같다〔如以肉投餒虎〕”라는 말이 있다. 주에, “뇌餒는 노죄절奴罪切이니 굶주린 것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뇌餒는 위餧와 같다”고 했다. 〈장이전張耳傳〉에는, “고기로 범을 먹인다〔以肉餧虎〕”라고 하였는데, 고찰하여 보니, 《예월령禮月令》에 말

하기를 “짐승에게 먹이는 약藥은 9가지 부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고, 주에, “위餧의 발음은 ‘위’이니 먹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회흘回紇[22]이 포도궁에서 고기를 씹어 먹는다(回紇餧肉葡萄宮)”라고 했고, 또, 이어 “그의 아들을 먹였다(仍爲餧其子)”라고 한 말의 주에, “위餧는 어위절於僞切이니 기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위餧와 뇌餒는 아마 같은 뜻이 아닌 것 같다. 운서韻書나 혹은 《사기》에 잘못된 바가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

《사기》에 말하기를, “한 해를 살면 곡穀을 심고 10년을 살면 나무를 심는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곡穀은 닥나무(楮)이다”라고 했다. 곡穀은 화곡禾穀의 곡穀과는 다르다. 《시경》에 말하기를, “그 아래에는 곡穀이다”라고 한 것이나, 은殷나라 때에, “괴이한 뽕나무와 닥나무가 한 그루가 되어 함께 조정朝廷에 나다(祥桑穀[23]共生于朝)”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한서》〈방중가房中歌〉[24]에, “나는 용(飛龍)이 추유秋遊하여 하늘에 올라가다”라고 한 말이 있다. 주註에 “추秋는 나는 모양(飛貌)이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장자》에, “추가秋駕의 설이 있으니, 말에게 멍에를 하여 추추秋秋(훨훨)하게 날아오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순자》의 “봉황추추鳳凰秋秋”라는 말의 주에, “추추秋秋는 창창蹌蹌과 같으니 춤추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양웅揚雄의 부賦에, “추추창창秋秋蹌蹌(너울너울 춤추며) 서원西園으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22 수당隋唐 시대부터 송원宋元 시대에 걸쳐 감숙성甘肅省 등지에서 약 1세기 동안 세력을 잡은 터키 계통의 부족. 회흘回紇(위구르).

23 뽕나무와 닥나무 2그루가 합하여 1그루가 되어 나왔다는 고사. 임금 된 자의 불공不恭한 데 대한 벌이라고 한다. 상祥은 요괴妖怪 · 악惡의 징조이다. 곡穀은 닥나무이다.

24 사장詞章의 이름.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희姬 당산부인唐山夫人이 만들었는데, 모두 17장. 위로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아래로 신민臣民의 화락和樂을 서술하여 신神에 기도하는 가사. 고조의 기호에 따라 범어梵語로 노래했다고 한다.

"한문제漢文帝 임측臨厠"이라는 말에 대하여 위소韋昭는, "임측은 2수水를 끼고 그 언덕 위에 임어臨御한 것이다"라고 했다. "무제武帝가 측厠에 걸터앉아서 위청衛靑을 보았다"라고 한 말의 주註에는, "높은 곳에 있어서 구석 쪽에 임하는 것을 측厠이라고 하며, 또한 상床의 가쪽[邊厠]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무제武帝가 측厠에 걸터앉았다'라고 한 것이나, '신부인愼夫人이 측厠에 가다'라고 한 것은 모두 변소便所를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설이 옳은 것 같다. 상고하여 보니, 측厠의 발음은 초리절初吏切이니, 즉 '치'이다. 세속에서 입성入聲인 '칙'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또 측厠은 섞인다는 뜻이다. 〈악의전樂毅傳〉에 빈객들 가운데에 섞였다고[厠之賓客之中] 한 것이 그것이다.

《한서》에, "인印은 어찌 유류纍纍하고 인끈은 약약若若한가[印何纍纍綬若若耶]"라고 한 문구가 있다. 풀이하는 사람이, "관직을 겸임하고 세력을 부리는 일이다"라고 했다. 또 《예기》에는 "유류纍纍하기가 구슬을 꿴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니 유류纍纍라는 말은 대체로 여러 개가 겹쳤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상朴祥이 순천부사順天府使가 되었을 때의 시에, "유류纍纍한 도호부사都護府使의 인印을 차고 있는 동안 마침내 구레나룻이 실처럼 희구나[纍纍都護印了了鬢如絲]"라고 했다. 부사府使는 인印이 다만 1개뿐인데, 어찌 여러 개가 겹쳤다는 뜻인 유류纍纍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고사를 잘못 인용함이 이와 같다. 운서韻書에, "약약若若은 긴 모양이다"라고 했다. 약약若若은 입성入聲이니 '약약'으로 읽어야 한다. 어떤 이는 상성上聲으로 발음하여 '야야'로 읽는 이가 있다. 아마 잘못일 것이다.

《한서》에, "금니옥검金泥玉檢"[25]이라는 말이 있다. 주에, "검檢을 연미燕尾(책갑冊匣)라고 한다. 지금 세상의 서첩첨書帖簽(글씨를 모은 첩본의 표제)과 같은 것이다"

25 금니金泥는 아교풀에 금가루를 이긴 것. 검檢은 서함書函의 뚜껑이다. 금니옥검金泥玉檢은 옥으로 서함 위에 새기고 끈으로 봉함한 뒤에 금니로 채우고 글씨를 써서 찍은 것이다.

라고 했다. 《후한서》에, "조랑皂囊(검은 명주 주머니로, 상서를 봉하는 데 씀)에 검檢을 한다"라고 한 말의 주에, "지금의 속담에 배排[26]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맹광孟光이 안案을 눈썹과 같은 높이까지 들었다(擧案齊眉)"라는 말이 있다. 《설부》에 말하기를, "안案은 옛날에는 완盌이란 글자를 썼다. 밥그릇을 들어 눈썹 높이만큼 올린 것이다." 장평자張平子의 사수시四愁詩에, "어떻게 청옥안靑玉案에 보답할 것인가"라고 하였는데, "청옥안은 청옥완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설은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說文》을 상고하여 보니, "안案은 궤几(책상의 등속)이다"라고 했고, 《사기》에는, "한왕漢王이 여러 신하들에게 옥안玉案(옥으로 된 밥상)의 음식을 하사했다"라고 하였으며, 또 "초왕趙王 장오張敖가 자신이 안案을 들어 식사를 올렸다"라고 했고, "만석꾼은 자손에게 허물이 있으면 안案을 대하여 먹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니 안案을 밥상으로 보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 같다.

《신선전神仙傳》에 말하기를 "옥녀玉女가 투호投壺[27] 하니, 하늘이 함허啣噓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함啣의 음은 '함'이니, 입을 열고 웃는다는 뜻이다.

한漢나라 이래로 관청의 이름을 모두 무슨 시寺라고 했다. 홍로시鴻臚寺는 본래 사이四夷의 빈객을 접대하는 곳이다. 그런 까닭에 마등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은 흰 말에 불경을 싣고 홍로시에 머물렀던 것이다. 지금 낙중洛中의 백마시白馬寺가 바로 그곳이다. 그 뒤에는 대개 중이 사는 곳을 사寺(절)라고 일컬었다. 운서

26 누른다. 찍는다. 여기에서는 배인排印의 뜻으로 쓰고 있다. 즉 식자植字하여 인쇄하는 것.

27 옛날 예禮의 한 가지로서, 연회 때에 한 개의 병을 놓아두고 손과 주인이 화살을 던져 그 속에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유희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객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다. 이긴 자가 진 자에게 벌주를 먹인다.

韻書를 고증하여 보니 사찰寺刹의 뜻인 사寺라는 글자는 관청의 뜻인 시寺라는 글자와 같은 것이다.

난정蘭亭의 서序에 "숭산준령崇山峻嶺(높은 산과 험준한 재)"이라는 글귀가 있다. 《한서》에 "남쪽에 다섯 재가 있다(南有五領)"라고 한 글의 영領이란 글자에는 모두 산山이 붙어 있지 않다. 《설부》에 말하기를, "대체로 산에는 긴 등성마루가 있고 길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있으며, 말의 항령項領(굵은 목덜미)과 같기 때문에 영領이라고 이름한 것이다"라고 했다. 아마 옛날에는 영嶺과 영領을 통용했던 것 같다.

'여명黎明'이라는 말은 〈여후기呂后紀〉에서 나왔다.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여黎는 비比(가까움)와 같으니, 여명은 이제 막 밝으려고 하는 때이다"라고 했다. 이 설은 아마 잘못된 것 같다. 대체로 여黎는 검다는 뜻이다. 여명은 검은 것과 밝음이 서로 섞인 것이다. 매상昧爽(동틀 무렵)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송나라 정대창程大昌의 〈고고편攷古篇〉에 말하기를, "지명遲明은 아직 밝기에 이르지 않은 것이고, 궐명厥明이니 질명質明이니 하는 것은 이미 새벽이 된 것이다"라고 했다. 윤해평尹海平이 말하기를, "질명質明은 이제 곧 밝아지려는 때로서 아직 낯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질質이란 글자의 뜻풀이는 정正이다. 정대창程大昌의 설도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서계書契(문자, 문서)에 대나무를 많이 사용했고, 간혹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했다. 등우鄧禹가 "공명功名을 죽백竹帛에 남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습유기拾遺記》를 보니, "장의張儀와 소진蘇秦이 책 베끼기에 힘썼는데, 우연히 분전墳典(삼분오전三墳五典이니 삼황오제三皇五帝의 글, 고서古書 또는 성현의 책이란 뜻)을 보게 되었으나, 베껴 쓸 곳이 없었으므로 먹으로 손바닥과 다리 사이에 써가지고 밤에 돌아와서 대나무를 꺾어서 대쪽을 만들어 베껴 썼다"라고 했다.

대체로 간簡이니 책策이니 편篇이니 적籍이니 하는 글자는 모두 대나무 죽竹 밑에 썼다. 독찰牘札(편지)이니 상소緗素(서적)니 하는 것도 그 뜻은 모두 이것을 모방한 것이다. 즉 독찰은 나뭇조각을 의미하고 상소緗素는 비단을 상징한다.

옛사람은 글자를 다른 글자로 빌려 쓴 일이 많다. 《한서》에, "궁인에게 주다〔匃諸宮人〕"란 말이 있다. 주에, "개匃는 끼쳐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남에게 주는 것도 또한 개匃라고 일컬었다. 개匃는 본래 청구한다는 뜻이다.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임공령臨邛令이 날마다 상여相如에게 가서 조朝했다"라고 했다. 그러니 가서 남에게 알현謁見하는 것을 또한 조현朝見한다고도 말했다.
〈위문기魏文紀〉에 "시부詩賦를 손권孫權에게 보냈다〔餉〕"라고 하였으니, 증물贈物하는 것을 또한 향餉이라고 했다.
〈백이전伯夷傳〉에는 "중니仲尼가 홀로 안연顔淵을 천薦했다"라고 했다. 그러니 칭찬하는 것도 또한 천薦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범방范滂이 그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대인大人께서 차마 하지 못하시는 은혜를 베어서〔大人割不忍之恩……〕"라고 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도 대인이라고 일컬었다.
양수楊修가 조식曹植에게 주는 편지에, "성선聖善의 느낌이 있다"라고 했다. 주에, "무제武帝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아버지도 또한 성선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마원전馬援傳〉에 "술을 걸러 군대에게 먹이니 모두 엎드려 만세萬歲라고 일컬었다〔釃酒享軍士 皆伏稱萬歲〕"라고 하였으며, 반악潘岳의 〈한거부閑居賦〉에는, "만세를 부르며 잔을 드린다〔稱萬歲 以獻觴〕"라고 했다. 그러니 남의 신하에게 대하여도 또한 만세는 통용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아직 쇠를 부려서 만들지는 못하고, 돌로 침鍼을 만들었다. 그런 까

닭에 약석藥石이라고 말한다. 석石은 즉 돌침(砭)이다. 《설문說文》에, "폄砭이라는 글자는 돌로 병을 찌르는 것이다(砭字以石刺病)"라고 했다. 그렇다면 침鍼으로 폄砭을 대신한 것은 후세에 생긴 일이다.

고시古詩에, "장막에 구름이 두루 둘렀다(幕帳雲㿩匝)"라고 했고, 한산자寒山子의 시에는, "만 겹의 산이 두루 둘렀다(㿩匝萬重山)"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갑㿩은 암匼으로 쓰기도 하는데, 가득하다는(滿也) 뜻이다. 그러나 그 시의 뜻을 살펴보니, 겹쳐서 둘러 있다는 뜻인 것 같다.
두시杜詩에, "말 머리에 금이 갑잡㿩匝하다(馬頭金㿩匝)"라고 한 것은, 금으로 말머리를 장식하여 두른 것이다. 또 두루 두른 모양(周繞貌)이라고 했다. 하설下說이 옳은 것 같다.

한문韓文(한퇴지의 글)에, "세상과 더불어 말살한다(與世抹摋)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말살抹摋은 포살抛摋과 같은 뜻이니, 손으로 마찰하여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번천시樊川詩에, "형산荊山의 구슬을 횡橫으로 포살한다(荊璧橫抛摋)"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마사摩挲는 말살末殺과 같으니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여 마찰한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후청록侯鯖錄》에 말하기를, "산동山東 지방에서는 중다衆多(여럿이 많은 것)한 것을 양洋이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바다의 중심을 양洋이라고 한다. 역시 물이 많은 곳인 것이다. 전傳에, "양양하게 차 있다(洋洋乎盈耳)"라고 했고, "양양하게 만물이 발육한다(洋洋乎發育萬物)"라고도 했다. 아마 또한 이 뜻을 취한 것일 것이다.

《후청록》에 말하기를, "도인陶人(질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드는 데 주경酒經이 있다"라고 했다. 옛글에 '주일경酒一經'이니 혹은 '이경二經' 내지 '오경五經'이

니 하는 말이 있다. 경經은 곧 병甁이다.

《필담筆談》에 말하기를, "관직을 제배除拜(임명)한다는 제除는 역易과 같다. 역易은 바꾸는 것이다. 새것으로써 옛것을 바꾸는 것을 제除라고 한다. 새해와 묵은해가 서로 교체되는 것을 세제歲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계제階除라고 하는 제除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고쳐 바꾼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제除라는 글자는 아마 승제乘除[28]의 뜻을 말한 것일 것이다.

갓난아이를 적자赤子라고 한다. 안사고顏師古가 말하기를 "새로 난 아기는 아직 눈썹이나 털이 나지 않아서 그 빛이 붉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운회韻會》에, 척尺은 적赤과 통용한다고 했다. 적자赤子라고 하는 적赤이란 글자는 본래는 척尺이라는 글자였다. 갓난아기의 길이는 한 자 남짓을 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적자赤子 즉 척자尺子라고 한다. 성인成人은 길이가 한 길(丈)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장부丈夫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한 글자에 두어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있다. 《의방醫方》을 상고하여 보니, "4자字가 1전錢이 된다. 1자字는 곧 2푼 반이다"라고 했다. 또 향香을 말할 때에, 1자字라고 한다. 산곡山谷의 시에, "향香이 훈롱에 서늘하다(香字冷薰籠)"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몇 번이나 아침에 돌아올 때에 일자로 행하였던고(幾度朝回一字行)"라고 했다. 이 일자행一字行은 아마 나란히 걷는 것을 말한 것 같다.

취醉라는 글자에는 졸卒이 붙어 있고, 성醒이라는 글자에는 생生이 붙어 있다. 아마 취하면 죽고 깨면 산다고 한 것일 것이다. 후酗(주정하다)라는 글자엔 흉凶

28 소장消長의 뜻, 또는 알맞게 가감加減한다는 뜻. 여기에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자가 붙었다. 술 때문에 흉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치卮(술잔)·상觴(술잔)·작爵(술잔, 벼슬)이란 글자에도 모두 의의意義가 있다. 《강목綱目》을 살펴보니, 주註에 말하기를, "작爵은 새 이름이니, 그 새의 형상을 상형하여 그릇을 만들었다. 그것은 능히 날아다닐 수 있어서 술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용하여 경계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말로써 남을 꾸짖는 것을 양讓이라 하고, 분수 아닌 것을 얻은 것을 행幸이라고 하며, 남녀가 예禮로써 사귀지 않는 것을 음淫이라고 한다. 빈 관棺은 츤櫬이라 하고, 시체가 들어 있는 것은 구柩라고 한다. 죽은 자에게 궤향饋餉하는 것을 봉賵이라 하고, 죽은 자의 의복을 수襚라고 하며, 광壙을 취竁라고 하고, 하관下棺하는 것을 폄窆이라고 하며, 광중壙中을 메우는 것을 봉封한다고 한다. 임자 없는 귀신을 상殤이라고 한다.
또 말(馬)은 잘 놀란다. 그런 까닭에 경驚(놀라다)·해駭(놀라다)는 모두 마馬를 붙여 썼다. 여자는 질투를 잘하기 때문에 질투嫉妬라는 글자는 여女 변에 쓴다.

시詩의 용어에는, 쌍안雙雁(쌍쌍으로 다니는 기러기)이라고는 하지 않고 고안孤雁(외기러기)이라고 하며, 고연孤燕(외로운 제비)이라고는 하지 않고 쌍연雙燕이라고 한다. 《설부》에 말하기를, "기러기는 양陽에 속하고, 제비는 음陰에 속한다. 양陽의 수는 기수奇數이고 음陰의 수는 우수偶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호종扈從(임금의 행차에 수행하는 것)이란 말이 나온 뜻을 옛날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좌전左傳》을 고찰하여 보니, "장왕莊王이 정鄭나라를 칠 때, 시역호양廝役扈養(군중軍中에서 나무를 해 오거나 밥을 짓거나 하는 천한 일을 맡은 종)으로서 죽은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라고 했다. 주에, "말을 기르는 자를 호扈라 하고, 음식 만드는 자를 양養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니 호종이란 말의 호扈 자는 이 뜻이 아닐까. 말을 기르면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기설羈紲을 지고 임금을 따른다〔負羈紲從君〕”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운회韻會》에는 말하기를, “호扈는 꼬리이다. 뒤에 수행하는 것을 호扈라고 한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가지고 학식이 넓은 군자에게 물어보고자 한다.

세상에서 좋은 것에는 대大를 붙여서 말한다. 그런 까닭에 대마大馬니 대주大酒니 대미大米니 하고 말한다. 정수精粹한 것에는 세細를 붙인다. 그런 까닭에 세마細馬니 세주細酒니 세미細米니 하고 말한다. 또 대포大布 · 대백大帛이니 하는 말은 추하고 크다는 뜻이며, 세인細人이니 세작細作이니 하는 말은 즉 간세姦細(간사한 간첩)의 뜻이다. 그러니 글자는 같으나 뜻은 같지 않다.

입이라는 것은 화禍와 복福의 관문이다. 그런 까닭에 화禍니 복福이니 하는 두 글자는 모두 구口 자가 붙어 있다. 길흉의 길吉 자와 휴구休咎(즐거움과 재앙)의 구咎 자들도 또한 그래서 구口 자가 붙어 있는 것일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선비의 입〔士口〕이 길吉 자가 되고, 소인小人의 입〔小人口〕이 구咎(허물)가 되었다고 한다.

왕륜王綸이 말하기를, “병病에는 감感과 상傷과 중中이 있다. 감感은 병이 털과 피부에 있는 것으로서 가벼운 것이다. 상傷은 피부와 근육에 겸한 것으로서 병이 꽤 무겁다. 중中은 사람의 장부臟腑에까지 들어간 병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며, 중한中寒이니 중풍中風이니 중서中暑니 중습中濕이니 중기中氣니 중독中毒이니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중中이란 말은 사악한 것이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중병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中 자는 마땅히 평성平聲이 되어야 한다. 중주中酒니 중구中寇니 하는 중中도 그 뜻이 또한 같다.

불교의 용어에서, 글귀를 게偈라 하고, 도교의 서적은 한 권을 주弱라고 한다. 고찰하여 보니, 게偈의 음은 게, 주弱의 음은 주이니,《진고眞誥》·《설부說郛》·《철경록輟耕錄》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주弱를 어떤 이가 궁弓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양승암楊升菴이 말하기를, "《영남지嶺南誌》에, '만연蠻烟[29]과 신우蜃雨에, 새벽과 저녁의 구별이 없다'고 하였는데, 신蜃은 교신蛟蜃(교룡蛟龍과 큰 조개)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만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본다면 신蜃을 연蜒으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상고하여 보니, 연蜒의 음은 '탄'이니 만족蠻族으로서 남쪽에 있는 오랑캐이며 바다에 사는 종족이다.

《황화집皇華集》 속에, 원접사遠接使가 중국의 사신에 대하여 뇌람雷覽이라는 두 글자를 많이 쓰고 있다. 뇌雷라는 글자는 아마 전電이란 글자로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람電覽이란 문자는 본래 중국 사람의 간첩簡帖(편지를 모아 놓은 책자)에 나온 것으로서, 아마 잠깐 보았다는 뜻을 겸손하게 한 말일 것이다.

김시습金時習의《유금오록遊金鰲錄》에, "북명사北椧寺에서 목단牧丹(모란)을 본다"는 시詩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명椧이란 글자는 운서韻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세속에서 나무의 속을 파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명椧이라고 한다. 즉 방언方言에 소위 호음扈音(홈)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쓰는 한자漢字에는 수전水田을 답畓이라 하고, 미곡米穀의 섬이 차지 않는 것을 두斗, 땔나무 단의 큰 것을 겁迲이라고 한다. 모두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유 공柳公 조인祖訒의 상소上疏에 말하기를, "동이東夷 · 서융西戎 · 남만南蠻 · 북

29 만족蠻族이 사는 땅에 떠도는 연기 · 안개 따위로서, 사람의 몸에 해독을 끼치는 것.

적北狄이라고 한 글자에는 모두 뜻이 있습니다. 이夷는 대궁大弓, 즉 활이 크다는 뜻이고, 융戎은 십과十戈, 즉 창이 10개, 즉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며, 만蠻은 충虫(짐승)이 변한 것이라는 뜻이고, 적狄은 개(犭)가 화化(=火)한 것이란 뜻입니다. 왜倭는 인人의 도道를 위기委棄(버림)했다는 뜻입니다. 활이 크다(大弓)는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공公이 창조한 말인가.

13-3 자음字音

《역경易經》에 말하기를, "구름이 행하여 비를 베푼다(雲行雨施)"라고 했고, 또 "덕을 널리 베푼다(德施普)"라고 했다. 《논어》에는, "널리 베풀어 여러 사람을 건진다(博施濟衆)"라고 했다. 《사기》에는,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輕財好施)"라고 했다. 이 여러 시施란 글자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서경》에 말하기를, "합해서 받고 널리 펴서 베푼다(翕受敷施)"라고 했고, 《맹자》에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밖에서 오다(施施從外來)"라고 하였으며, 《사기》에는, "밖으로 인의를 베푼다(外施仁義)"라고 했다. 또 설시設施한다고 한 따위의 여러 시施는 모두 평성平聲이다.

《역경》에 "흰 띠 풀을 깔아서 쓴다"라고 했다. 《맹자》에는 말하기를, "돕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자藉'와 또 《사기》에 나오는 침자枕藉 · 온자醞藉 · 인자躪藉 하는 자藉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육가전陸賈傳〉에, "명성이 높다(聲名藉甚)"라고 한 자藉와, 또 낭자狼藉하다는 자藉은 모두 입성入聲, 즉 '적'으로 발음한다. 시속時俗에서 자심藉甚이니, 낭자狼藉니 하여 거성去聲으로 읽는 이가 많은 것은 잘못이다.

《역경》에 말하기를,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을 것이다(必有餘慶)"라고 했고, 《시경》에는, "농부의 경사(農夫之慶)"라고 한 말이 있다. 이 경慶은 모두 '강'으로 발음해야 한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경서經書 속에 있는 경慶이라는 글자는 그 음이 강羌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한 사람의 원량元良으로 모든 나라에 경사가 있다(一人元良 萬邦有慶)'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시경》에 나오는, "행인팽팽行人彭彭"의 팽彭은 방旁으로 발음한다. "출거팽팽出車彭彭"이니, "사원팽팽駟騵彭彭"이니 하는 팽彭은 글자 본래의 음대로 '팽'이라고 읽는다.

또 《시경》에 "기읍황황其泣喤喤"이니 "종고굉굉鍾鼓鍠鍠"이니 하는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굉鍠과 황喤은 통용한다. 모두 음은 '횡'이라고 읽는다.

또 《시경》의 "직문조장織文鳥章"이나, 《서경》의 "궐비직문厥篚織文"이나, 기記에 "사불의직士不衣織"이라고 한 따위의 직織은 모두 거성去聲이다. 즉 '지'라고 발음해야 한다. 직織은 비단 등속이다.

《시경》에, "중씨임지仲氏任只(중씨는 성실하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나의 무리를 믿는다(我任我輩)"라고 했다. 《맹자》에는 말하기를, "문인門人들이 짐을 꾸려 장차 돌아가려 한다(門人治任將歸)"라고 했다. 이 여러 임任은 모두 평성平聲이다. 그러나 《맹자》에, "그 임무를 이기지 못한다(不勝其任)"라고 한 것이나, 또, "이윤은 성인 중의 중임을 맡은 자이다(伊尹聖之任者)"라고 한 임任은 거성去聲이다. 다만 《논어》에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任重道遠)"라고 한 임任은 《맹자》의 "짐을 꾸린다(治任)"라고 한 임任과 한 뜻인 것 같은데 또한 거성去聲으로 읽어야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시경》에, "선창하면 화답한다(倡予和汝)"라고 했고, 《역경》에는 "학이 우니 새끼가 화답한다(鶴鳴子和)"라고 하였으며, 기記에는, "단것은 다른 조미調味를 받

는다(甘受和)"라고 했고, 또, "대갱에는 조미료調味料를 쓰지 않는다(大羹不和)"[30] 라고 한 등의 화和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또 조調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사기》에, "금실이 조화되지 않는다(琴瑟不調)"라고 했고, 또, "삼공三公(세 정승)은 음양을 조화시키는 일을 맡는다(三公典調陰陽)"라고 했다. 여기에 쓴 조調는 모두 평성平聲이지만, 음조音調니 재조才調니 운조韻調니 하는 등의 조調는 거성去聲이다.

'車'라는 글자에는 '거'와 '차' 2가지 음이 있다. 지금 세속에서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찰하여 보니, 《시경》의, "대거출거大車出車"나, "유거인린有車轔轔"이라고 한 것과, 《중용》에, "거동궤車同軌"[31]라고 한 것과, 서적徐績의 자字 중거仲車 따위의 거車는 어운魚韻에 속하는 것으로서, '거'라고 발음한다.
그러나 《시경》의 "유녀동차有女同車"라든가, 《사기》의 "오사만차汙邪[32]滿車"라든가, 《장자》에 있는 "혜시오차惠施五車"[33]라든가 하는 것과, 설차雪車 · 국차麴車 · 주차酒車 · 하차河車 · 보차輔車 · 조차釣車 따위와, 사람의 성명인 "이좌차李左車"라고 한 차車는 모두 마운麻韻에 속하는 것으로서, 척차절尺遮切, 즉 '차'로 발음해야 한다.
유우석劉禹錫의 시에, "정병원축리경차精兵願逐李輕車"라고 한 것도 또한 마운麻韻이다. 운韻을 다는 사람은 마땅히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30 대갱大羹에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갱은 고깃국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복口腹의 욕망을 극도로 만족시키지 않게 하고 질소質素한 심정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31 온 천하의 수레는 궤軌가 같다는 말이니, 즉 천하가 통일하여 모든 제도가 통일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32 오사汙邪는 오사洿邪로 쓰기도 한다. 움푹 파인 땅의 전지田地.
33 혜시惠施는 사람 이름이니, 《장자》에 혜시는 방술方術이 많아서 그 책이 다섯 수레이다(惠施多方其書五車)라는 말이 있다.

운서韻書를 고찰하여 보니, 자炙라고 하는 것은 구운 고기(燔肉)이다. 《시경》의, "혹번혹자或燔或炙"라든가, 《맹자》의 "회자膾炙"[34]나 "기진인지자嗜秦人之炙"라든가, 《장자》의 "견란이사효자見卵而思鴞炙"[35]라고 한 것과, 《사기》의 아자鵝炙 · 우자牛炙 · 냉자冷炙[36] · 행자行炙[37] 등의 자炙는 모두 거성去聲, 즉 '자'라고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시경》의 "번적분분燔炙芬芬"[38]이나 《서경》의 "분적충량焚炙忠良"[39]이나, 《사기》의 "순우적과淳于炙輠"나, 두시杜詩의 "적수가열세절륜炙手可熱[40]勢絕倫"이나, 한시韓詩의 "우림일적야화료雨淋日炙野火燎"[41]라고 한 적炙은 모두 입성入聲, 즉 '적'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그렇다면 친적親炙[42]의 적炙도 마땅히 입성인 '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다.

고찰하여 보니, 《상서尙書》는 상고上古의 서적이라고 하여, 《상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또 천자天子의 것을 주관하는 것을 상尙이라고 한다. 임금의 의약을 맡은 자를 상의尙醫, 식사를 보살피는 이를 상식尙食, 임금의 옷을 맡은

34 회 치고, 굽는 것. 변하여 널리 알려져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

35 《장자》〈제물齊物〉편에, 달걀을 보고는 곧 닭을 찾고, 탄환彈丸을 보고는 곧 올빼미의 불고기를 요구한다(見卵而求時夜 見彈而求鴞炙)라고 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을 조롱한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을 보고 올빼미의 불고기를 찾는다(見卵而思鴞炙)고 인용하여, 《장자》의 원문과는 다르다.

36 싸늘하게 식어버린 불고기.

37 불고기를 날라다가 나누어주는 것. "始皇營朝宮於渭南上林園庭中 可愛十萬人車行酒 騎行炙"라고 한 고사에서 나온 말.

38 불고기의 냄새가 향기롭다.

39 충성스럽고 어진 이를 불에 태워 구이를 죽인다. 《서경》〈태서泰誓〉편에, 주무왕周武王이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을 정벌할 때에 제후들을 모아 놓고 한 말에 "분적충량焚炙忠良"이라는 것이 있다.

40 손을 쬐면 화상火傷을 입을 만하다는 뜻. 권세가 매우 치성하여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비유한 말.

41 비에 젖고 해에 구워지고 들불에 탄다. 한퇴지韓退之의 〈석고가石鼓歌〉 속의 한 글귀다. 석고石鼓(돌을 북 같은 모양으로 다듬고 위에 전문篆文을 새겼다고 함)가 오랜 세월에 마멸된 상태를 읊은 것.

42 친히 그 사람에게 가까이하여 감화를 받는 것.

이를 상의尙衣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상尙은 거성去聲이다.

또 운서韻書에는 말하기를, "상서尙書는 벼슬 이름이니 상尙은 평성平聲으로 읽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위소韋昭는 말하기를, "상尙은 상上이란 뜻이다. 가장 위에 있어서 총리總理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여순如淳은 말하기를, "천자의 문서를 주관하는 자를 상서라고 한다. 공주의 남편을 상주尙主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성去聲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두시杜詩에 "사로상서랑已老尙書郞(이미 늙은 상서랑)"이라고 한 것이나, 왕감주의 시에, "벼슬길은 상서랑이 보내 온 자〔尺〕 남짓한 임금의 부르는 글이로구나〔靑雲尺檄尙書郞〕"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사기》에 "획읍畫邑 사람 왕촉王蠋"이라는 말이 있다. 주에, "획畫의 발음은 '획'이니, 제齊나라의 서남쪽에 가까이 있는 고을이다"라고 했다. 송나라의 형개邢凱는 말하기를, "《맹자》에 '사흘을 머무르고 주晝 고을을 나갔다'고 한 주晝는 마땅히 획畫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晝는 획畫이란 글자의 잘못이다. 또 《한서》에 '곽광이 획실畫室 안에 머물렀다〔霍光止畫室中〕'라고 한 것이 있다. 이 획실畫室은 마땅히 화실畵室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사기》에, "곽해郭解는 사람이 영명榮名(영화스러운 이름)으로 얼굴을 삼는 것을 칭찬했다〔贊人貌榮名〕"라고 했고 두시杜詩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산처럼 많았으나 그림이 실물과 같지 않다〔畵工如山貌不同〕"라고 하였으며 또, "자주 심상한 행인의 화상을 그렸다〔屢貌尋常行路人〕"라고 했고, 또, "산에 사는 중과 동자의 초상을 그렸다〔貌得山僧及童子〕"라고도 했다. 고찰하여 보니, 이 막貌이라는 글자들은 입성入聲이다. 즉 '막'으로 발음한다.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貌'의 음은 '묵'이라고 했다. 지금 운서韻書를 참고하여 보니, 마땅히 '막' 또는 '맥'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모떠서 그리는 것〔描畫〕이다. '인막人貌'라는 두 글자는 본래 《장자》에서 나왔다.

《장자》에 말하기를, "누가 이것을 주재하는가(孰主張是)"라고 했다. 장張이라는 글자를 《운부韻府》에는 평성平聲이라고 했다. 그런데 안숙원晏叔原의 시詩에, "봄바람이란 본래 인간의 손님이다. 번화를 얼마 동안이나 주재할 수 있겠는가(春風自是人間客 主張繁華得幾時)"라고 하여, 장張을 거성去聲으로 썼으니 어찌된 까닭인가. 《한서》에, "동도문 밖에 장막을 친다(供張東都門外)"라고 했고, 《좌전》에는, "우리의 삼군을 크게 벌여 놓았다(張吾三軍)"라고 했다. 이 장張은 모두 거성去聲이다. 한퇴지의 시에, "또한 우리의 군대를 벌여 놓기에 넉넉하다(亦足張吾軍)"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강목綱目》에 "대음인大陰人(음경이 큰 남자)규애(嫪毐)"이라는 말이 있다. '규애(嫪毐)'의 음은 규애(嫪愛)라고 읽어야 한다. 그런데 한림취재翰林取才(한림을 뽑는 시험) 때에 선조先朝의 박 판서判書 호원好元이 '毒'를 '독'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강講에서 낙제하여 한림에 임명되지 못했다. 요즘에는 장령掌令 황여일黃汝一이 '규애(嫪毐)'를 '규독'이라고 읽어서 온 강당講堂 안이 웃었다. 겨우 낙제를 면했다. 황여일은 글에 능숙한 선비이다. 그런데 《강목》에는 아마 미처 익숙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고열하여 보니, "천하가 이원례를 본보기로 한다(天下模楷 李元禮)"라고 한 해楷는 거성去聲이니, 즉 협운協韻(본래는 같은 운이 아닌 글자를 동일한 운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잘못 알고 평성平聲으로 쓰는 이가 많다. 조매계曹梅溪는 박식한 선비이다. 그런데 충청감사 손순효孫舜孝에게 내리는 교서敎書를 지을 때에, "맑은 풍도와 높은 절조는 이원례李元禮의 모범이요 큰 덕과 높은 이름은 한리부韓吏部처럼 산두山斗(태산泰山과 북두北斗)와 같다(淸風峻節李元禮之模楷 茂德高名韓吏部之山斗)"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심일송沈一松이 나에게 보낸 시에, "모해模楷는 이원례李元禮와 서로 맞고, 정영精英(뛰어난 문장)은 이백李白을 지나친다(模楷符元禮 精英邁謫仙)"라고 한 것은 옳다.

《진서晉書》에 말하기를, “평생에 장물이 없다(平生無長物)”라고 했다. 장長은 여餘(남음)와 같다. 거성去聲이다. 용장冗長(쓸모없이 긴 것)하다는 뜻과 같다. 장장공張長公이니, 급장유汲長孺니, 사마장경司馬長卿이니 하는 장長은 모두 상성上聲이다. 홍인재洪忍齋의 율시律詩에, “조단朝端(조신朝臣의 수석)에 다시 급장유 같은 이를 만날 수 없다(朝端不復逢長孺)”라고 하여 평성平聲으로 쓴 것은 잘못이다.

한漢나라, 진晉나라 사람들은 ‘아阿’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발어사發語辭이다. 아융阿戎(종제從弟)이니, 아함阿咸(조카)이니 하는 따위와 같은 것으로서 모두 음은 ‘알’이니, 입성入聲이다. 조조曹操를 아만阿瞞이라 하고, 진후陳后를 아교阿嬌라 하는 것도 또한 같은 뜻이다. 또 아수阿誰라는 글자는 〈방통전龐統傳〉에 나오고, 아난阿難이라는 말은 불서佛書에 보인다.

맥맥脉脉이라는 문자는 《수사隋史》에 나온다. 하야필賀若弼이 말하기를, “어찌 맥맥한가(何脈脈耶)”라고 했다. 주에, “맥맥脉脉은 할 말은 있으나 토설吐說하지 못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일설에는, “맥맥이란 것은 즐겨하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진제陳濟가 말하기를, “맥맥脉脉은 본래 맥맥脈脈이라고 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와 《설문說文》의 주를 참고하여 보니, “맥脈은 눈으로 대강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제陳濟의 설이 옳은 것 같다. 옛말에, “차가운 눈으로 서로 본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서로 친밀하지 않다는 뜻이다.

《심괄필담沈括筆談》에 말하기를, “《초사楚詞》의 〈초혼招魂〉편의 글귀는 끝에다가 사些를 붙였다. 지금 기주夔州 · 협주峽州 · 호주湖州 · 상주湘州 사람들이 모든 금주禁呪(금기禁忌하는 주문呪文)의 글귀 끝에는 모두 사些를 붙인다. 이것은 곧 초나라 사람들의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속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些’의 음은 소개반蘇箇反이니 ‘새’라고 읽어야 한다. 다만 사소些小하다는 사만이 평성平聲이다. 지금 사람들이 간혹 사些를 평성平聲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

못이다.

두시杜詩에, “손가락으로 밥을 뜨니 구름처럼 희다〔飯抄雲子白〕”라고 했고, 소동파蘇東坡의 시에는, “흰 머리털을 하고도 오히려 글을 초한다〔白首尙抄書〕”라고 하였으며, 간재簡齋의 시에는, “먼 곳에서 온 손님이 새로 육씨의 글을 초한다〔遠客新抄陸氏方〕”라고 하였으니 초抄는 모두 평성平聲으로 쓰고 있다. 상고하여 보니, 초抄는 또한 초鈔로 쓰기도 한다. 또 베껴 기록해 놓은 조목을 초抄라 하기도 한다. 저폐楮幣(지폐紙幣의 한 가지)도 또한 초鈔라고 하니, 이 경우의 초鈔는 거성去聲이다.

계수稽首(머리를 조아림)의 계稽는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중국의 사신 황홍헌黃洪憲의 시에, “동국의 의관衣冠을 갖춘 인사人士들이 모두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다〔東國衣冠盡拜稽〕”라고 하여 중국 사람도 또한 압운押韻에 실수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문장으로 이름난 용재容齋 · 호음湖陰 같은 이들도 이러한 실수를 면치 못하여 평성平聲 · 상성上聲 · 거성去聲을 구별하지 못한 채 율律에 쓴 것이 많으니, 대체로 글자의 연구에 정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학道學 이외에 경학經學 · 사학史學도 소중하다. 자학字學(문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에 이르러서도 또한 결여缺如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뜻을 두는 이가 드물다. 다만 글자의 뜻이나 음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글자의 고저高低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고도 더불어 시詩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양성재楊誠齋가 말하기를, “일이 없어서 운서韻書 보기를 좋아한다”라고 했고, 또 조경우晁景迂는 “일과日課로 하여 하루에 15자씩 기억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본받을 만하다.

‘差’라는 글자에는 5가지의 음이 있다. 한 가지는 지운支韻에 속하는 것으로서,

참치參差와 같다. 한 가지는 가운佳韻에 속하는 것으로서, 차사差使와 같다. 또 가운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린다는 뜻이다. 또 마운麻韻에 속하는 것으로서 차착差錯과 같다. 또 등차等差의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는 괘운卦韻이니 거성去聲이다. 병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쓴다.

'射'라는 글자에는 4가지의 음이 있다. 보통 말할 때의 음은 '사'이나, 물건을 쓴다고 말할 때의 음은 '석'이다. 벼슬 이름인 '僕射'의 음은 '복야'이다. 12율로 구분한 음률 중의 하나인 '무역無射'이나, 《시경》의 "신가역사矧可射思"의 '射'는 모두 음이 역이다. 《장자》중의 "邈古射之山"의 '射'는 음이 '역' 혹은 '야'이다.

'繆'라는 글자에는 4가지의 음이 있다. 시호諡號로 쓰는 경우의 음은 목穆이다. 진목공秦繆公이니, 노목공魯繆公이니 하는 따위와 같다.

성姓으로 쓸 때의 음은 묘妙가 된다. '綢繆'라고 쓸 때의 음은 '뮤'이고, '紕繆'라고 쓸 경우에는 류謬로 발음한다. 비류紕繆는 배려背戾(어김, 도리에 어그러짐)의 뜻이다.

또 '行'이라는 글자에는 4가지의 음이 있다. 한 가지는 경운庚韻으로서 걸어간다는 뜻이다. 한 가지는 양운陽韻이니 행오, 즉 대오隊伍이다. 한 가지는 경운敬韻이니 덕행이라고 쓰는 경우이다. 한 가지는 양운樣韻이니, 차례라는 뜻이다.

글자의 음이 본래의 음과 다른 것이 있다. 가령 '於戲'의 음은 '오호'이고, '子諒'[43]의 음은 '자량'이며, '齊衰'의 음은 자최咨崔이고, '從臾'[44]의 음은 종용縱勇이며, '陂池(물이 고인 땅)'의 음은 파타坡陀이고, '毒冒'[45]의 음은 대매代昧이며, '欸乃'의 음은 오애奧靄이고, '冒頓'[46]의 음은 묵특墨特이며, '休屠(흉노 왕의 칭호)'의

43 자애慈愛 깊은 마음과 성신誠信함.

44 좇아 아첨하여 불선不善한 데로 유도함. 또는 종용慫慂, 즉 부추겨서 그렇게 만듦.

45 거북의 한 종류. 껍데기를 대매갑毒冒甲이라고 한다. 대모玳瑁라고 쓰기도 한다. 근래에는 '대모'라고 읽는다.

46 중국 한漢나라 때의 흉노 선우單于의 이름.

음은 후제朽除이고, '閼氏'[47]의 음은 언지焉支이며, '万俟'[48]의 음은 묵기墨其이고, '可汗(서역의 나라 임금의 칭호)'의 음은 극한克韓이다. 이러한 종류가 매우 많다.

세속에서는 글자의 편偏(한문 글자의 왼쪽 부분)과 방旁(한문 글자의 오른쪽 부분)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협協 · 박博의 두 글자는 다 '十' 변에 써야 하고, 양주楊州라고 쓰고 있는 양楊은 '才' 변에 쓴 양揚이라야 옳다. 목욕沐浴한다는 목沐은 오른쪽 귀에 점點이 없어야 하고, 술양沭陽[49]이라는 술沭은 점이 있어야 하며, 음은 '술'이다. 사賜 · 척惕이란 글자와, 또 납이니 주석이니 하는 석錫과, 강역疆埸(밭두둑. 전지의 경계)이라는 역埸은 모두 가로 긋는 획이 없다. 양陽 · 역場과 누양鏤鍚(당노의 이마를 새김)의 양鍚은 특히 가로 긋는 획이 있다. 배우는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평성平聲 · 상성上聲 · 거성去聲 · 입성入聲을 사성四聲이라고 한다. 갑甲 · 엽葉 · 감甘 · 합含과 같은 따위를 합구성合口聲(입으로 닫는 소리)이라고 한다. 본조本朝의 최세진崔世珍이 가장 한음漢音을 환히 알아서, 《사성통해四聲通解》를 저작하여 세상에 전하고 있다. 내가 북경에 갔을 때에 안남국安南國 사람이 합구성을 쓰고, 중국의 남방 사람들도 또한 간혹 쓰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음과 서로 가까운 데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관화官話(중국의 표준말)에는 절대로 합구성을 쓰지 않는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대강大江(양자강) 이북은 점차로 오랑캐의 말에 물들어서 심약沈約이 발표한 사성四聲에 드디어 그 한 가지가 없어졌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성리대전性理大全》에 말하기를,

47 한漢나라 때 흉노가 자기네 군장君長의 적처嫡妻를 일컬어 연지閼氏라고 했다.

48 본래는 선비鮮卑의 부락이었으나 뒤에 성姓으로 됨.

49 중국의 현명縣名. 강소성江蘇省 술수沭水의 북쪽에 있다.

“호승胡僧 요의了義가 처음으로 36자로 번절翻切[50]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지금 자모字母 반절법反切法은 대체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운서韻書에, “해咳라는 글자를 혹은 해欬로 쓰며, 후喉라는 글자를 혹은 관款으로 쓰고, 탄嘆을 탄歎으로 쓰며, 분噴을 혹은 분歕으로, 소嘯를 숙肅로 쓰기도 한다. 희欷·허歔·구欨·가歌에 이르러서는 모두 ‘흠欠’을 붙여 쓴다.” 대체로 옛날에는 윤允과 구口는 같은 뜻이었던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오유吳歈라는 유歈는 마땅히 유喻로 써야 옳다”라고 한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다.

한翰(날개)은 우모羽毛(새의 깃)라는 뜻으로 평성平聲이다. 그러나 문한文翰(글짓는 일)·사한詞翰(사장詞章, 서한書翰)·병한屛翰(국가의 중신重臣)·번한藩翰(울타리와 기둥, 즉 어떤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의 한翰은 모두 거성去聲이니, 《시경》의 “지병지한之屛之翰”이라고 한 것과, 《선시選詩》에, “약관弱冠(20세 전후)에 유한柔翰(붓을 희롱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고적高適의 시에서는 이 “농유한弄儒翰”을 평성으로 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운부韻府》를 참고하여 보니 진晉나라 사람 장한張翰의 한翰은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장한張翰의 자字는 계응季鷹이니, 한翰은 우모羽毛의 뜻이다. 그러니 마땅히 평성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해瀚海는 북해北海의 이름이다. 《소설小說》에 “새들이 여기에서 알을 낳아 기르기 때문에 한해瀚海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했다. 지금 동북東北의 해도海島에는 물새가 알을 많이 낳아 호인胡人들이

50 반절反切이라고도 한다. 한자의 발음 부호의 한 방법. 두 글자의 음의 한 부분씩을 끊어서 합하여 한 글자의 음을 표현한다. 가령 공公의 음은 고홍절古紅切이니, 이것을 한글로써 설명한다면 고에서 ‘ㄱ’만을 취하고, 홍에서 ‘ㅗ, ㅇ’만을 취하여 합하면 공이 되는 것과 같다.

항상 가져다 먹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한瀚이란 글자도 또한 평성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운서韻書에는 거성去聲으로 되어 있다.

'瀧水'라는 '瀧'의 음은 '쌍'이고, '句讀'의 '讀'의 음은 '두'이며, '月氏'라는 '氏'의 음은 지支이고, '先零'(한漢나라 때 서쪽 오랑캐의 한 종족)의 '零'의 음은 연連이며, '獻尊(술 단지의 이름)'의 '獻'의 음은 하何이고, '寧馨'의 '寧'의 음은 '녕'이며, '選懦(유약해서 결단성이 없음)'의 '懦'의 음은 연軟이고, '盟津'의 '盟'의 음은 맹孟이며, '矰繳'의 '繳'의 음은 작勺이고, '枹鼓'[51]의 '枹'의 음은 부孚이며, '綸巾'의 '綸'의 음은 '관'이고, '犧尊(술 단지의 이름)'의 '犧'의 음은 사梭이며, '率更(글씨체의 일종)'의 '率'의 음은 율律이고, '落魄(뜻을 얻지 못함)'의 '魄'의 음은 척拓이며, '椎結(상투의 일종)'의 '結'의 음은 '계'이고, '戲下(대장의 기旗가 있는 곳, 대장의 직속 부하)'의 '戲'의 음은 휘麾이며, '受釐(제사에 쓴 고기를 받음)'의 '釐'의 음은 희僖이고, '旁魄(방바닥이 크다는 뜻)'의 '魄'의 음은 '박'이며, 旖旎(깃발이 나부끼는 모양, 성盛한 모양)의 旖旎의 음은 나儺이고, '玄端(예복의 일종)'의 '端'의 음은 '면'이며, '皐比(범의 가죽)'의 '比'의 음은 '피'이고, '涒漢(고갑자古甲子의 하나로서 신申과 같다)'의 '漢'의 음은 탄灘이며, '井幹(우물 위의 나무 난간, 누樓의 이름)'의 '幹'의 음은 '한'이고, '伍員(사람 이름, 즉 오자서伍子胥)'의 '員'의 음은 '운'이며, '隆準(우뚝한 코)'의 '準'의 음은 '졸'이고, '袒免'[52]의 '免'의 음은 '문'이다. 《완위여편宛委餘篇》을 고열하여 보니, 오운伍員의 운員을 거성去聲이라고 하였는데, 《운부군옥韻府群玉》에는 평성平聲이라고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간지干支 중 축丑이라는 글자의 음은 본래 상성上聲, 즉 '추'이다. 그런데 세속에서 입성入聲으로 읽으며, 임壬이란 글자는 평성平聲인데 세속에서 상성으로

51 북채와 북. 변하여 군대의 진지. 서로 호응하는 것의 비유.

52 상중喪中 복식服飾의 한 가지. 단袒은 왼쪽 소매를 벗는 것이고, 문免은 갓을 벗고 머리를 묶는 것. 곧 오복五服 이외의 친족에 대한 애도의 표시이다.

읽는 것은 잘못이다. 또 신辰이란 글자의 음은 신辛인데 세속에서 진으로 발음하는 것은, 신申과 음이 같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주례周禮》 안의 기이한 글자는 '法'이란 글자를 '灋(법法의 고자古字)'으로 쓰고, 병柄을 방枋으로, 사邪를 무衺로, 미美를 미媺로, 호呼를 호嘑로, 배拜를 배拝로, 소韶를 소磬로, 괴怪를 괴傀로, 포暴를 포虣로, 선鮮을 선鱻으로, 고槁를 홍薨으로, 라螺를 라蠃로, 어魚를 어鮁로, 취吹를 취龡로, 매埋를 매貍로, 해咳를 계械로, 적摘을 척硩으로, 해駭를 해駴로, 국掬을 허歔로, 간艱을 간囏으로 매魅를 매彪로 썼다. 아마 옛 글자인가 보다.

주지번朱之蕃이 지은 《해편海篇》의 〈심경론心鏡論〉 자의字義의 음률에 말하기를,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5음音에서 첫째 궁宮은 토음土音이니 혀가 가운데에 있다. 둘째의 상商은 금음金音이니 입을 벌린다. 셋째의 각角은 목음木音이니 혀를 옴츠린다. 넷째의 치徵는 화음火音이니 혀를 치齒에 세운다(舌柱齒). 다섯째의 우羽는 수음水音이니 입을 당겨 모은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동방東方은 후성喉聲이니 하何·아我·강剛·악諤·가謌·가可·강康·각各 따위의 소리다. 서방西方은 혓소리이니 정丁·적的·정定·니泥·녕寧·청聽·역曆·정亭 따위의 소리이다. 중앙中央은 어금니의 소리이니, 경更·경梗·아牙·격格·행行·행幸·향享·객客 따위의 소리이다. 남방南方은 치성齒聲이니, 시詩·요夭·지之·식食·지止·시示·승勝·지識 따위의 소리이다. 북방北方은 순성脣聲이니, 방邦·방龐·빈賓·벽壁·백白·묵墨·붕朋·밀密 따위의 소리이다." 여기에 따라서 연구한다면 성률聲律의 청탁淸濁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권8

14. 문장부文章部-1

14-1 문文(산문散文)

위문제魏文帝가 말하기를, “사람의 나이와 수명은, 어느 때가 되면 다하고, 영화와 즐거움도 자기 한 몸에 그친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떳떳한 기한이니, 문장이 무궁하게 전할 수 있는 것만 같지 않다”라고 했다. 이 말은, 한갓 문장을 귀중히 여길 줄만 알고 도학道學이 더욱 귀중하다는 것은 모르는 말이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예기禮記》〈단궁檀弓 · 고공기考功記〉에, 맹자와 사마천은 문文에 성聖인 자이며, 반씨班氏는 문文에 현賢한 자이고, 《장자莊子》 · 《열자列子》 · 《능엄경楞嚴經》은 문文에 귀신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나는 여기에 더 보태어 말하고자 한다. 《역경易經》과 《춘추春秋》는 문文에 성聖인 것이고, 《좌씨左氏》는 문文에 현賢인 것이고, 《노자老子》는 문文에 귀신인 것이라고.

왕감주가 말하기를, “모든 산문散文 이외에 《산해경》과 《목천자전穆天子傳》도 또한 고건古健하여서 법이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소문素問》의 문장도 또한 높고 예스럽다. 비록 기백岐伯[1]의 본경本經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선진先秦[2] 사람이 지었을 것인데, 옛사람들이 칭찬해 말한 이가 없음은 무슨 까닭일까.

1 황제黃帝의 신하. 명의名醫로서 황제와 서로 논의하여 《황제소문黃帝素問》이라는 의서醫書를 저작했다고 한다. 《황제소문》은 다만 《소문素問》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 진시황秦始皇 이전의 시대. 즉 춘추전국시대를 가리킨 말이다.

《남화경南華經》은 문文에 있어서 천지간天地間의 일종의 의논이고 체제이다. 변화하는 것은 용龍과 같고, 기괴하기는 환술幻術과 같으며, 헤아릴 수 없음은 귀신과 같다. 기이한 중의 기이함이요, 변화하는 것 중의 변화이며, 유현幽玄(도리가 깊어서 알기가 어려움)한 것 중의 유현함이요, 미묘한 것 중의 미묘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금古今의 어떠한 문장도 아직 그 체재體裁의 밖을 벗어난 것은 없다. 오직 부처의 언어가 또한 그러하다. 다만 그 문자가 아존雅尊하지 않다. 그것은 역해譯解를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국어國語》의 오吳 · 월越 등편等篇의 문장은 품격이 높고 예스러워서 비록 요堯 · 순舜 · 우禹 · 탕湯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더라도 반드시 아름답다고 칭찬할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쌍천雙泉 성여학成汝學이 말하기를, "시詩는 성당盛唐에 이르러서 다시 더할 수 없다. 비록 성인聖人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더라도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다"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명나라 사람들이, 서경西京(전한前漢)의 문장으로서 한고조漢高祖 · 혜제惠帝 · 문제文帝 · 경제景帝 시대의 것을 초한문初漢文이라 하고, 무제武帝 시대의 것을 성한문盛漢文이라 하며, 선제宣帝 · 원제元帝 이후의 것을 중한문中漢文이라고 한다. 마치 당시唐詩를 시당始唐 · 성당盛唐 · 중당中唐 · 만당晩唐의 시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체로 문장이란 것은 시대와 함께 상승도 하고 하강도 한다. 이삼백 년을 채 경과하지 않은 사이에 체식體式이 바뀌어 변하고, 기격氣格이 점점 쇠미해짐이 섬돌의 계단을 내려가는 것 같고,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배우는 사람들은 한漢나라와 당唐에 대하여 그 시와 문을 보고 나서 나아가 그 시대를 논한다면 변증辨證과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더디게 지어 교묘한 것이 빨리 지어서 졸렬한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매승枚乘은 글 짓는 것이 민첩하고 빨랐으며 상여相如의 글 짓는 것은 더뎠다. 그런데 갈홍葛洪은 상여相如가 잘한다고 했다. 안연顔延은 조명詔命에 응대하여 즉석에서 성편成篇하고 사영운謝靈運은 생각에 깊이 잠긴 뒤에 비로소 성취했다. 그런데 포조鮑照는 영운을 더 우수하다고 했다. 진소유秦少游는 손을 대하면서 붓을 휘둘렀고, 진무기陳無己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글귀를 생각했다. 그런데 후세의 사람들은 소유少游가 더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 소위 빨리 걷는 자에게 좋은 발자취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백李白의 악부고시樂府古詩[3]와 두소릉杜少陵 · 왕유王維의 오언율五言律[4]과, 심전기沈佺期 · 송지문宋之問 · 왕유王維 · 잠삼岑參의 칠언율시七言律詩[5]와 왕창령王昌齡 · 이백李白의 절구絕句[6]와 한퇴지韓退之 · 유자후柳子厚의 잡자雜者와, 좌씨左氏 · 반고班固 · 사마천司馬遷의 서사문敍事文과, 장주莊周의 우언寓言[7]과 굴원屈原의 부賦 · 소騷는 모두 문장이 매우 뛰어난 것이다.

3 가곡歌曲의 가사歌詞로 된 시를 악부樂府라고 한다. 고시古詩는 시체詩體의 일종이니 당나라 시대의 근체시近體詩에 대하여 수隋나라 이전의 시를 말한다. 다른 이름으로 고풍古風이니 고체古體니 하기도 한다. 그 시체詩體는 평측平仄(높고 낮음)이나, 글귀의 수에 제한이 없고, 오언五言 · 칠언七言 · 장단구長短句 등이 있다. 운韻을 다는 법은, 오언인 경우에는 제2구句에 운초韻礎를 두고 이하 한 구씩 건너서 운을 단다. 칠언인 경우에는 제1구 · 제2구에 운을 달고, 이하 한 구씩 건너서 운을 단다. 운을 달지 않는 글귀의 끝 글자는 운자韻字와 다른 소리인 것을 사용한다. 또 전운轉韻(시詩·사詞에 있어서 두어 글귀마다 운자韻字를 바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통운通韻을 용허하며 반운反韻도 용허한다.

4 오언五言은 다섯 글자를 한 구로 하는 것으로서, 오언율은 5언 8구로 된 율시律詩를 일컫는 것이다. 율시는 성율聲律이 있는 시라는 뜻이다.

5 한 글귀를 일곱 글자로 구성한 8구로 된 율시.

6 오언절구五言絕句와 칠언절구七言絕句가 있다. 오언절구는 5언 4구로 되고 칠언절구는 7언 4구로 성립한다.

7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은근히 나타내는 말. 우의寓意한 말.

조자건曹子建이 글에서 말하였기를, "세상 사람의 저술에 병病이 없을 수 없다. 나는 항상 남이 비평하는 것을 좋아하여, 좋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때에 곧 개정改定한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매우 좋다. 이규보李奎報가 말하기를, "남의 시詩의 병통을 말해주는 것은 영원히 부모와 같다"라고 했다. 하는 말이 비록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병을 숨기고 침 맞기를 꺼리는 자에게 비교한다면 또한 훨씬 나은 일이다.

명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서경西京 이전의 제자諸子의 글은, 문文은 남음이 있으나 도道가 부족하고, 송나라 이후의 글은 도는 남음이 있으나 문이 부족하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서경 이전의 글은 문이 남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質이 남음이 있으며, 송나라 이후의 글은 문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질이 부족한 것이다. 또 도道라는 글자보다는 이理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 더욱 꼭 들어맞을 것이다.

은번殷璠이 말하기를, "문文에는 신神에서 온 것이 있고, 기氣에서 온 것이 있고, 정情에서 온 것이 있다. 아체雅體(바르고 아존雅尊한 시체詩體)가 있고, 야체野體(전아典雅하지 않은 시체詩體)가 있고, 비체鄙體(비열한 시체詩體)가 있으며 속체俗體(비속鄙俗한 시체詩體)가 있다. 자세히 여러 체를 살피고 그것이 온 데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면, 바야흐로 그 우열優劣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詩에도 또한 그러하다. 성당盛唐 때의 시를 가지고 말한다면 왕유王維의 시는 신神에서 온 것이고, 고적高適의 시는 기氣에서 온 것이며, 맹호연孟浩然의 시는 정情에서 온 것이다. 송나라 이후의 시詩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체體가 비속鄙俗한 것이 많다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다.

옛사람의 문장에도 또한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많다. 양웅揚雄의 〈반리소反離

騷〉는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서 나왔고, 조식曹植의 〈칠명七命〉과 장협張協의 〈칠계七啓〉는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서 나왔으며, 동방삭東方朔의 〈답객난答客難〉, 양웅揚雄의 〈해조解嘲〉는 송옥宋玉의 〈답초왕문答楚王問〉이란 글에서 나왔고 한퇴지韓退之의 〈송궁문送窮文〉은 양웅揚雄의 〈축빈부逐貧賦〉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창작은 어렵고 모방은 조금 쉽다는 것을 알겠다.

한퇴지韓退之와 유자후柳子厚는 저술한 것이 서로 같은 것이 많다. 한퇴지에게는 〈평회서비명平淮西碑銘〉이 있으며 유자후에게는 〈평회이아平淮夷雅〉가 있다. 한韓에게는 〈송궁문送窮文〉이 있고 유柳에게는 〈걸교문乞巧文〉이 있다. 한韓에게는 〈장중승전張中丞傳〉이 있고, 유柳에게는 〈단태위일사장段太尉逸事狀〉이 있다. 또 한韓에게는 〈원도原道〉·〈불골표佛骨表〉·〈남출시南出詩〉가 있는데 유柳는 짓지 못하였으며, 유柳에게는 〈진문晉問〉·〈천대天對〉가 있는데 한韓은 또한 없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한문韓文은 역량力量이 한漢나라 때의 문文만 못하고, 한나라 때의 문장은 선진先秦과 전국시대의 문장만 못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고금古今의 인재가 서로 미치지 못한 것은 모두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이니, 어찌 오직 문文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문장은 기氣를 주主로 삼는다"라고 했다. 그 설은 오래이다. 유자후柳子厚에게 이르러 비로소 말하기를, "문文을 짓는 데에는 신神과 지志를 주로 삼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신神이라고 한 것은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고, 지志라는 것은 기氣를 거느리는 것이다. 이미 지志라고 하였으면, 기氣는 말할 값어치가 없으며, 이미 신神이라 하였으면 지志는 말할 값어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단정하여 말한다. 문장은 신神을 주로 삼는다.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대체로 시나 문을 짓는 데 반드시 많은 분량이라야 좋은 것은 아니다. 옛사람들은 말이 많은 것을 용허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나 문이란 것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대로 뜻에 따라 이루고, 뜻이 다하면 그치는 것이다. 한유韓愈의 〈원도原道〉나 두보杜甫의 〈북정北征〉은 그 많은 것이 싫지 않고, 한유의 〈획린獲麟〉과 맹호연의 절구絕句는 그 적은 것이 싫지 않다.

소동파蘇東坡가 말하기를, “문장은 정련精鍊된 금金과 같고 아름다운 옥玉과 같아서, 스스로 정해진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니 사사로운 구설口舌로 귀하니 천하니 하고 다투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설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문장은 본래부터 값이 붙어 있지 않으니, 진실로 안식眼識이 뛰어난 이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의 몽매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황雌黃(문장의 가부可否)를 논하는 일을 함부로 하여, 금과 옥을 보배라고 하지 않고 연석燕石(하찮은 돌의 일종)을 보배라고 하는 이가 많다. 그런 까닭에 문장의 알기 어려움은 금이나 옥을 감별하기보다도 어려운 것이다. 아!

증공曾鞏이 일찍이 말하기를, “물 위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채文彩를 이룰 뿐이고, 아로새기고 꾸미는 방법을 빌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데에는 칼날을 볼 수 없고, 누에가 고치를 지은 데에는 빈틈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문장은 자연스러움을 귀하게 여긴다. 사람의 힘으로 기교技巧를 꾸미지 않음이 이에 이르면 그 기교의 힘을 쓸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문사文詞를 짓는 이는 이 말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강기姜夔가 말하기를, “문장에 있어서 아로새기면 글의 기세氣勢를 손상하고,

부연하면 골자를 손상한다. 만약 비루하여 정수精粹하지 않으면 아로새기지 않음이 지나친 것이고, 졸렬하여 위곡함이 없으면 부연하지 않음이 지나친 것이 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아로새기지도 않고 부연하지도 않는다면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아로새겨도 기세를 손상하지 않고 부연하여도 골자를 손상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런 까닭에 문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기세와 골자뿐인 것이다.

진후산陳后山이 말하기를, "문文을 잘하는 이는 어떤 사물의 논술을 전개하여 기이한 경지로 몰고 가는 것이 마치 강물의 흐름과 같게 한다. 순하게 아래로 흘러가기만 하다가 그것이 산에 부딪치고 계곡을 내리달리게 되어서 바람과 마주치고 물건과 격돌하게 함에 이른 뒤에야 천하의 온갖 변화를 다 부리는 것이다. 그런데 자운子雲의 문장은 오직 기이한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기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후산后山은 진정 말을 아는 사람이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게을러져서 잠이 오려고 할 때에 소자첨蘇子瞻(소식蘇軾)의 소문小文과 소사小詞를 낭송하면 특히 정신이 왕성해짐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감주의 시문詩文이 소자첨과는 문호門戶가 같지 않은데 몹시 좋아함이 이와 같음은 무슨 까닭일까.

《문슬신화捫蝨新話》에 말하기를, "문장은 변화하고 돌아서 다시 돌아와 처음과 끝이 서로 호응하게 되어야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된다"라고 했고, 산곡山谷은 시를 논하여 또한 말하기를, "한 편의 시를 지을 때마다 먼저 대의大意를 세워야 하며, 장편長篇이면 모름지기 세 번은 곡절이 있게 만들어 가지고 뜻을 명

백하게 해서 성편成篇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상산사常山蛇[8]의 형세인 것이다. 두 사람의 소론所論이 서로 같다.

심약沈約이 말하기를, "문장은 마땅히 3가지 쉬운 것을 택해야 한다. 쉽게 볼 수 있는 일, 알기 쉬운 글자, 읽고 외우기에 쉬워야 한다"라고 했다. 또 강기姜夔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을 나는 적게 말하고, 남들이 어렵게 말하는 것을 나는 쉽게 말한다. 이것이 곧 글을 짓는 법이다"라고 했다. 지금 사람들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글을 잘 지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양배자梁裴子가 말하기를, "나는 글을 지을 때에 붓을 잡으면 곧 이루면서 다듬어 곱게 하는 것을 숭상하지 아니한다. 어떤 이가 그렇게 속히 지을 수 있는 까닭을 묻기에 대답하기를, 남들은 모두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홀로 마음에서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대체로 문장이란 것은 조화造化와 같은 것이다. 마음에서 이루는 자는 반드시 잘될 것이고, 손에서 이루는 자는 반드시 잘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는 글을 마음에서 짓는 자가 드물다. 그러니 잘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사문유취事文類聚》에 말하기를, "구양공歐陽公이 글을 지으면, 먼저 벽에다 붙여 놓고 때때로 고친다. 그 가운데에는, 마지막 성편成篇할 때에는 처음의 것이 한 글자도 남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노직魯直은 만년晩年에, 전에 지은 글을 고쳐 지은 것이 많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글을 이처럼 고치기를 싫어하지 않고 공부한다면 당연히 진보하여 보탬이 있을 것이니, 작자作者의 법으

8 각 부분이 서로 잘 호응하는 상태를 말한 것. 상산常山에 솔연率然이라는 뱀이 있는데,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며,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달려든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문장의 각 부분이 서로 잘 조응함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로 삼을 만하다. 다만 노직은 명예를 요구하는 데에 가깝다.

송자경宋子京이 말하기를, “나는 번번이 예전에 지은 문장을 볼 때마다 그것을 미워하여 반드시 불태워 버리고 싶어진다”라고 하니, 매요신梅堯臣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귀하의 문文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詩도 또한 그러합니다”라고 했다 한다. 이것은 작자가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조잡하게 겨우 글을 구성할 줄 알면 곧 스스로 만족하여 다시 전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조그만 성취도 없이 그치게 된다.

소자蘇子가 말하기를, “나의 문文은 썩 풍부한 수량水量을 가진 샘의 근원과 같아서, 땅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다 솟아 나와서 큰물이 도도하게 급히 흘러서 하루에 1,000리를 달리면서 물건에 따라 형상을 짓는 변화를 이루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오직 그의 자신自信이 두텁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와 같을 수 있다. 만약 지금 세상의 사람이 곧 이렇게 자부한다면 비웃고 배척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구양문충歐陽文忠이 말하기를, “사람이 시나 글을 지어 벽 위에 써 놓은 것을 보면, 그의 문장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옳다. 다만 벽에 제영題詠한 것을 보면 잘된 것이 드물다. 또한 문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겠다.

《육무관필기陸務觀筆記》에 말하기를, “송나라 고종高宗 건염建炎 이래로 소씨蘇氏의 문장을 숭상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일치하여 이에 좇는다. 세상의 말에, 소씨의 글은 익은 것은 양고기처럼 먹고 익지 않은 것은 채소처럼 먹는다고 했고, 이규보李奎報의 글에서는 말하기를, 금고今古 이래로 소동파蘇東坡의 문장처럼 크게 유행한 것은 없다. 사대부에서부터 신진의 후학들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잠시도 손에 떼지 않고 남은 향기를 씹고 있는 것은 모두가 동파의 글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진秦 · 한漢 이래로 숭상할 만한 문장이 많건만, 시속時俗에서 숭상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왕세정이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문장에 있어서 존귀한 지위에 힘입어 이름난 자가 있고, 과거에 급제한 일 때문에 이름난 자가 있으며, 한때 세상의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서 이름난 이가 있고, 선달先達에 의지해 붙어서 선전하고 칭찬해 주는 힘을 빌려 이름난 자가 있으며, 힘써 큰소리를 쳐 문호門戶를 세움으로 인하여 이름난 이가 있고, 널리 벗과 동배同輩들을 끌어들여 서로 드러내 칭찬하는 것으로 이름난 이가 있다. 요要는 이러한 것은 모두 오래갈 수 있고 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했다. 나는 말한다. 무슨 힘에 의하거나, 무슨 힘을 빌려 이름을 들날리는 자는 모두 한때의 이름일 뿐이다. 어찌 만세萬世에 전할 수 있는 이름과 함께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에 문장으로 이름난 자는 모두 무엇인가 의지해 힘입은 것이 있는 자들이다.

사람의 재질과 천품이 같지 않음이 그 얼굴 모양이 같지 않음과 같은 것이니, 일률적으로 논평할 수는 없다. 배우는 사람은 당나라의 것이든 송나라의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오직 자기의 성품에 가까운 것을 골라서 배우면 쉽게 능숙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견해는 각기 달라서 서로가 헐뜯는다. 당나라의 것을 좋아하는 자는 배우는 사람에게 당나라의 것을 권유하고 송나라의 것을 즐겨하는 이는 송나라의 것을 장려하여, 배우는 사람의 재질에 좇지 않고 오직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니 그들이 성취하기가 또한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몸은 마루 아래(堂下)[9]에 있고 눈은 살대 구멍 속(管中)[10]에 있으면서도 망령되이 옛사람들의 우열을 논하며, 혹은 남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옳고 그르다는 결론을 정한다. 이런 자는 참으로 알고 실지로 체득한 것이 있음은 아니다. 그의 자신이 지은 시나 산문에 이르러서는 다만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배우는 말 같고, 과거 수험생의 심상한 이야기 같은 것이 있다. 안식眼識이 있는 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찌 가엾고 또 우습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게으르고 느슨한 이가 많아서 모든 일들을 도무지 착실하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비록 말엽末葉의 기예技藝라도 중국 사람들만 못하다. 하물며 문장이겠는가. 비록 조그만 기술이라도 역시 일의 정밀한 것이면 힘을 쓰지 않고도 얻음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글 읽지 않고도 능숙하고 부지런하지 않고도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미혹迷惑한 생각이다. 이러하면서도 잘못 큰소리치기를, 당나라의 문장은 가냘프고 약하니 반드시 배울 것이 없다느니, 송나라의 문장은 비루하니 배울만한 것이 없다느니 한다. 그래서 될 수 있겠는가.

14-2 문체文體

문장에는 각각 독특한 체제體制가 있다. 그 체제 중에서 잠箴 · 명銘[11]이 가장 오래된 형식이다. 고증하여 보니, 순舜임금은 잠箴을 지었고, 우禹임금은 잠규箴

9 아직 아래 위치에 있다는 뜻. 승당입실升堂入室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문하는 순서의 위치를 말한 것이니, 먼저 당堂에 오른 뒤에야 실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몸이 당하堂下에 있다고 한 것은, 아직 학문의 진도가 마루에도 오르지 못할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10 보는 것이 좁고 작다는 뜻. 살대 구멍으로 하늘을 엿본다(管中窺天). 또 살대 구멍으로 표범을 엿본다(管中窺豹)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보는 것이 매우 좁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規(잠으로 된 훈계)를 들었으며, 요임금과 순임금은 반盤과 밥그릇에 명銘을 새겼으니, 이것이 그 처음이다. 그러나 《한예문지漢藝文志》에는 말하기를, “황제黃帝 때에 금궤金櫃에 명銘을 새긴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고일서古逸書》에도 또한 황제黃帝의 〈건기명巾機銘〉이란 글이 실려 있다. 아마 명銘이 가장 옛날의 문체일 것이다.

송頌[12]은 상商나라 때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서경》〈익직益稷〉편에 고도皐陶가 노래하기를, “원수元首가 밝으시매 고굉股肱(임금의 손 · 발 같은 신뢰하는 신하)이 어질도다. 모든 일은 태평하겠네”라고 한 말들은 이미 송頌의 문체와 같다. 송頌의 생긴 때와 뜻은 역시 그 유래가 멀다.

《사기》에, “장의張儀가 진秦나라의 정승이 되어서 격문檄文[13]을 지어 초楚나라의 정승에게 고했다”라고 했다. 아마 격檄의 시초일 것이다.

진시황秦始皇의 〈낭야대명瑯倻臺銘〉은 2구句에 1운韻이고, 〈지부각석명之罘刻石銘〉과 〈회계산비명會稽山碑銘〉은 모두 3구에 1운이다. 후세의 송頌을 짓는 법이 대체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협劉勰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유흠劉歆이 〈이태상移太常〉을 지었으니, 이 글

11 잠箴 · 명銘은 모두 문체의 한 가지다. 잠箴은 관官에서 송독誦讀하고 명銘은 기물器物에 새긴다. 명목은 다르나 경계하는 뜻은 같다. 잠箴은 전적으로 허물을 막으려는 것이고, 명銘은 허물을 경계함과 함께 드러내 칭찬하기도 한다.

12 문체의 한 가지로, 칭찬하는 글이다. 문체가 전아典雅하고 말은 반드시 맑고 아름다워야 하며, 늘리어 쓰는 것이 부賦와 같으나 화려하거나 사치한 데에 들어가지 않으며, 공경하고 삼감이 명銘과 같으나 규계規戒의 범위와는 다르다.

13 격檄이라는 것은 목간木簡에 글을 쓴 것이니, 길이가 1척 2촌이다. 징명徵名에 사용한다. 그중 급한 일이 있으면 새 날개를 꽂아서 빠르고 속하게 하라는 뜻을 표시한다.

이 이문移文[14]이 일어난 처음이다"라고 했다. 공덕장孔德璋의 〈북산이문北山移文〉은 이를 모방한 것이다.

유신庾信의 〈춘부春賦〉와 낙빈왕駱賓王의 〈탕자종군부蕩子從軍賦〉는 부賦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그 실지는 시詩다. 이백李白의 〈명고가鳴皐歌〉와 왕유王維의 〈송우인귀산가送友人歸山歌〉는 시가詩歌로 되어 있으나 실은 부賦이다. 육조六朝[15] 시대에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문文이라고 한 것은 기실은 사륙문四六文[16]이다. 당나라의 문체는 창려昌黎에 이르러 비로소 변하여 예스럽고, 당나라의 시체詩體는 창려에 이르러서 비로소 변하여 아름답다.

진후산陳后山이 말하기를, "한퇴지韓退之가 지은 기記는 그 일을 기술할 뿐인데, 지금의 기記는 곧 논문論文이다. 〈취옹정기醉翁亭記〉는 또한 부賦의 문체를 사용했다"라고 했다. 왕형공王荊公이 소자첨蘇子瞻의 《취백당기醉白堂記》를 보고 말하기를, "글의 용어는 비록 지극히 공교工巧하나, 이것은 곧 한기韓琦와 백낙천白樂天의 우열론優劣論일 뿐이다"라고 했다. 아아, 구양수歐陽修 · 소자첨蘇子瞻으로서도 오히려 이러한 비평이 있으니, 하물며 지금 세상의 글이겠는가.

변우문騈偶文(변려문騈儷文과 같은 사륙문四六文)의 근원은 동경東京(후한後漢)에서 시작되어 위魏나라 · 진晉나라에서는 아직 미약하다가 육조六朝에 이르러 극성하게 되었으며, 당나라 · 송나라 이후에는 모든 고칙誥勅[17] · 표전表箋[18] · 서계書

14 이첩移牒. 회장回狀. 이서移書.

15 고대 중국의 오吳 · 동진東晉 · 송宋 · 제齊 · 양梁 · 진陳의 육국六國.

16 육조시대六朝時代에 발달한 문체로, 네 글자와 여섯 글자의 구句로 된 문장. 변려문騈儷文.

17 고誥는 일러 경계하는 글이고, 칙勅은 임금의 명령을 반포하는 글이니, 칙령勅令이니, 조칙詔勅이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고칙誥勅은 고계告誡하는 임금의 명령을 반포하는 글이다.

啓[19] · 격문檄文 · 노포露布[20] · 상량문上樑文[21] · 상소문上疏文에도 이 체를 사용하는 것을 식式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장구章句를 수놓고 꾸민 것이 공교工巧하기는 하지만, 조각雕刻에 지나치며, 문장 때문에 생기는 폐단도 또한 심하다. 중국 사람들이 사부詞賦를 장기나 바둑이나 복서卜筮 따위와 같은 등류로 치는 것은 이 때문일까.

진秦나라 이전의 문文은 썩 옛일이어서 소급할 수 없다. 대체로 문文은 서경西京에 이르러서 특히 성盛했고, 시詩는 당唐나라에 이르러서 대성大成하였으며, 사륙문四六文은 송나라에 이르러서 더욱 완비되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의 문文은 진한秦漢의 것을 칭상稱尙하고, 시는 당조唐調를 칭상한다. 자못 송나라 · 원나라의 풍습을 변경하여 스스로 일종의 체격體格을 이루었다. 다만 사륙체四六體만은 송나라보다 조금도 낫지 않다. 그런 까닭에 명나라에는 사륙문四六文이 없다고 말한다.

산문散文에 속하는 문체로는, 잠箴 · 명銘 · 송頌 · 찬贊 · 조詔 · 고誥 · 제制 · 칙勅 · 책문册文[22] · 사문赦文[23] · 표表 · 전箋 · 계啓 · 장狀 · 서書 · 소疏[24] · 차箚[25] · 봉

18 표문表文과 전문箋文. 표문은 군주君主 또는 정부에 상표上表하는 문장. 표表라는 말은 표기標記하여 드러낸다는 뜻이니, 어떤 일을 명백하게 표기하여 나타내는 문장이다. 전문箋文은 나라에 경사慶事 혹은 흉사가 있을 때에 임금께 올리는 사륙체四六體의 문장.

19 관리官吏가 사사로이 자기의 소속 상사에게 올리는 글. 또는 봉명사신奉命使臣의 복명서復命書.

20 제서制書 등으로 봉함하지 않고 널리 일반에게 공포公布하는 것. 사령赦令, 속령贖令과 같음.

21 상량上樑은 집을 짓고 마룻대를 올리는 것이니, 상량문은 상량을 축복하는 글.

22 책립冊立 · 책봉冊封 · 상존호上尊號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글.

23 대사大赦 · 특사特赦 등 사령赦令을 내릴 때 반포하는 글.

24 상소문上疏文이니, 임금께 올리는 글.

25 차자箚子라고도 한다. 상소문上疏文의 간이한 형식.

사封事[26] · 의주議奏[27] · 자咨[28] · 게첩揭帖[29] · 격檄 · 노포露布 · 서序[30] · 기記[31] · 지志[32] · 전傳[33] · 발跋[34] · 인引[35] · 책策[36] · 논論 · 의義[37] · 제문祭文 · 축사祝詞 · 애사哀辭[38] · 뇌誄[39] · 청사靑詞[40] · 치어致語[41] · 상량문上樑文 · 부賦[42] · 사辭[43]가 있다. 시詩에 속하는 문체로는, 삼언三言 · 사언四言 · 오언五言 · 육언六言 · 칠언七言 · 연구聯句[44] · 절구絕句 · 율시律詩 · 배율排律[45] · 고시古詩 · 장단구長短句[46] · 가사歌詞 · 악부樂府가 있다. 고금古今을 통하여 문사文詞에 뛰어난 이가 많다. 그러나 각 체體를 모두 잘할 수 있는 이는 또한 적다. 상고하여 보니, 반포하여

26 신하가 비봉秘封하여 임금에게 일을 아뢰는 글.

27 어떤 일에 대하여 임금의 명령으로 관계 관원들이 논의하여 그 결과를 주답奏答하는 것.

28 자문咨文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과 왕복하던 문서를 말한다. 또는 자정咨呈이라는 것이 있다. 공문서의 한 가지로서, 동등의 관청 사이에 왕복하는 글.

29 게시揭示하는 문서.

30 서문序文이니, 저작자의 의취意趣를 서술한 글.

31 사물의 사실이나 전말을 기록하는 글.

32 사물을 기록하는 글. 지志는 지誌와 통용한다.

33 경서經書의 뜻을 해설한 글, 또는 전기傳記나 일대기一代記, 즉 인생 일대의 생애의 기록.

34 어떤 글이나 책의 뒤에 적는 글. 발문跋文.

35 악부樂府의 한 체體이니, 사물의 본말을 순서 있게 서술한 가사歌詞, 또는 서문序文과 비슷한 문체. "唐以後 始有此體 大略如序 而稍爲短簡 蓋序之濫觴也."

36 문체의 이름이니, 임금이 정치상의 문제를 책策에 적어서 인사人士의 의견을 묻는 것을 책문策問이라 하고, 이에 대답하는 글을 대책對策이라고 한다. 또 선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문제를 내어 시문試問하는 것을 시책試策이라 하고, 학사學士 · 대부大夫가 스스로 정책을 논하여 상진上進하는 것을 진책進策이라고 한다. 즉 정책, 또는 대책을 논술하거나 문의하는 글이다.

37 문체의 일종이니, 이理에 근거하여 해설해서 밝히는 글.

38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

39 조상弔喪하는 글. 사자死者의 생전의 공덕을 칭찬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 그 문체는 대체로 먼저 그의 세계世系와 행업行業을 서술하고, 끝에 애상哀傷의 뜻을 붙인다.

40 문체의 일종이니, 도교道敎의 제사에 사용하는 제문 · 축문의 문체와 그 문장.

41 송宋 · 원元 시대에 악인樂人이 올리는 송사頌詞를 말한다. 그 글은 모두 병려체駢儷體로서 문인文人이 대작代作했다. 서술의 끝에 구호口號라고 일컫는 시를 한 장 읊는다. 치사致辭라고도 한다.

42 일을 진술하여 풍송諷誦의 뜻을 붙여서 위의 감계鑑戒의 자료로 하는 글. 오로지 사물의 형세를 실질적으로 진술한다.

온 천하에 시행하는 것을 조詔라 하고, 한 나라에만 시행하는 것을 칙勅이라고 한다.

위魏·진晉 시대 이후로 모두 속대屬對[47]의 문장을 지었는데 당나라의 한창려韓昌黎에 이르러 이 버릇을 쓸어버렸다. 유자후柳子厚도 초년初年의 저작에는 또한 우작偶作(우어偶語를 사용하여 지은 글로, 우어는 대어對語)이 많다. 육선공陸宣公 같은 이는 전적으로 쌍관문법雙關文法[48]을 사용하여 섞어서 원만圓滿함을 이룸으로써 스스로 일가의 문체를 이루었으나, 조금도 천착穿鑿[49]하거나 모아 합한 것 같은 흔적이 없다. 또한 스스로 기묘하다.

도장道場[50]의 초제醮祭[51]의 제문祭文을 청사靑詞 또는 청표靑表라고 한다. 고증하여 보니, 한시韓詩의 주에, "천보天寶 4년에 조서를 내려 태청太淸[52]의 행사에 축판祝版을 정지하고 청사靑詞를 쓰게 하라" 했다. 대체로 배장拜章[53]·주표奏表

43 소騷의 변한 문체. 운을 달아 노래하기에 알맞게 지은 글. 추풍사秋風辭니 어부사漁父辭니 하는 따위와 같은 것.

44 두어 사람이 서로 이어가면서 글귀를 지어 한 편의 시를 구성하는 것, 또는 율시律詩에 있어서 대對가 되는 글귀를 말한다. 즉 중간의 제3구와 제4구, 제5구와 제6구를 말한 것.

45 시詩의 한 형식. 오언五言 또는 칠언七言의 대구對句를 6구 이상 우수偶數로 배열하는 것. 평측平仄의 방법은 율시律詩나 절구의 경우와 같고, 첫 글귀와 마지막 글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를 쓰며, 포치布置에 순서가 있고 수미首尾가 잘 관통해야 한다.

46 한 편의 시詩 안에 장구長句·단구短句를 섞어 지은 것. 시구에는 칠언七言, 오언五言, 사언四言, 삼언三言 등이 있다.

47 두 말을 이어 내려가면서 대구를 이루는 작시법作詩法.

48 문장 구성법의 한 가지. 상대되는 문구를 늘어놓아서 한 편, 한 문단의 골자로 하는 방법.

49 꼬치꼬치 캠. 대체로 의리義理가 통할 수 없는 것을 제멋대로 끌어다 붙여서 통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0 도교·불교도의 수련장. 제사하는 곳. 도량이라고 읽기도 한다.

51 성신星辰에 지내는 제사.

52 도가道家 삼청三淸 중의 하나이니, 40리의 상층의 공간空間을 일컬음. 또는 하늘을 일컫는 말.

53 관직을 임명받았을 때, 임금에게 삼가 받는다는 뜻을 아뢰는 글.

의 일은 당唐나라에서 일어나 송나라에서 성盛했다.

옛사람들의 표문表文이나 전문箋文 가운데에 "성황성공돈수돈수誠惶誠恐頓首頓首(진실로 황송하고 진실로 두려워서 머리를 조아리며 머리를 조아립니다)"라고 쓰는 문체가 있다. 이 여덟 글자를 약略하여 '중사中謝'라고 쓰기도 한다. 또 "성환성변돈수돈수誠懽誠忭頓首頓首(진실로 즐겁고 진실로 좋아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아립니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여덟 글자를 약하여 '중하中賀'라고 쓰기도 한다. 《패해稗海》에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첫 연구聯句의 아래에 짧은 글귀를 사용하여 두려워하고 경공한다는 뜻을 말하고, 다시 이어 중사中謝[54]라는 말을 쓰는 것은 중복됨을 면치 못한다"라고 했다. 대체로 지금 세상에서는 이러한 형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나라의 고황제高皇帝가 여러 신하들에게 타이르기를, "근대의 제制 · 고誥 · 표表 · 장章 등류는 그냥 옛 습관을 도습하고 있으나, 고대의 문체와는 매우 다르다. 또 지금의 문체는 사실이 쓸데없는 뜬 문장의 장식에 덮여지게 만든다. 지금부터 모든 주소표문奏疏表文에는 사륙체의 대구로 된 문체를 사용하지 말고 모두 전아典雅(바르고 아담함)한 문장을 사용하라"라고 했다. 또 유종원柳宗元의 〈대류공작사표代柳公綽謝表〉와 한유韓愈의 〈하우표賀雨表〉를 반포하여 천하에서 그것을 법식法式으로 삼게 했다. 그런 까닭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칙誥勅의 문장은 모두 전실典實(바르고 실질적임)하고 변화하지 않아서 송나라나 원元나라 때의 문체의 형식과는 전연 다르다.

우리나라의 과거科擧에서 사용하는 글은 그 폐단이 매우 많다. 사륙체의 문장은 지나치게 길기만 하여 행문行文과 매우 비슷한데, 소위 행문이란 것은 또 공사장公事場의 문서와 같다. 시부詩賦에는 입제入題(시詩의 첫째 구나 또는 부賦의

54 신하가 천자에게 올리는 표문表文에 "성황성구돈수돈수誠惶誠懼頓首頓首"의 여덟 글자를 쓴 것을 나중에 베끼는 경우에 이를 생략하는 표시로 쓰는 말.

넷째 구)이니 포서鋪敍(과거科擧의 시詩의 다섯째 구, 과시科詩의 부賦의 여섯째 구)이니 회제回題(과거科擧에 시험하던 시詩의 열두 번째 글귀, 또는 부賦의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의 두 글귀)이니 하는 등의 형식이 있어서 더욱 문장가의 문체나 양식과는 전연 다르다. 그런 까닭에 비록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글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어떻게 세상에 소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크게 체재體裁를 변경한 뒤라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문科文(과거科擧의 시험문) 중에 '사서의四書疑'라는 것은 문체文體의 형식이 지극히 무의미하다. 일찍이 중국의 서적을 보니, 그중에 사서의四書疑 한 편이 있었다. 바로 오랑캐 원元나라 때에 절강浙江의 향시鄕試에서 지은 것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과장科場에서 제술製述하는 글과 같다. 우리나라 과문科文의 폐단은 아마 여기에 근원이 있는 것 같다.

14-3 문평文評(문장의 평론)

《예원치언藝苑巵言》에 말하기를, "장경長卿(사마상여司馬相如)은 부賦로써 문文을 짓기 때문에 〈난촉봉선難蜀封禪〉의 문文은 약하고 고와서 뼈가 적으며, 가부賈傅(가의賈誼)는 문文으로써 부賦를 짓기 때문에 〈조굴원문弔屈原文〉이나 〈복조부鵩鳥賦〉는 솔직하여 운치가 적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태사공太史公(가의賈誼)은 천추千秋에 뛰어난 재사才士이다. 그런데 부賦 짓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의 〈사불우부士不遇賦〉는 전연 문리文理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가의賈誼와 사마상여의 재능으로도 오히려 이러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하물며 후세의 산문散文을 가지고 시詩라고 하는 자들이겠는가.

왕감주가 말하기를, "자운子雲이 장경長卿을 마음에 잊지 못하여 일찍이 말하기를, '장경의 부賦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신神의 조화가 이른 것인가' 하더니, 머리털이 백발이 되기까지 갈고 다듬어 보았으나 따라갈 수가 없게 되니 드디어 헐뜯어 말하여 남들을 속이기를, '벌레의 모양이나 새기는 것 같은 조잡스런 문장의 기교를 장부壯夫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드디어 천고千古에 졸렬함을 숨기는 단서를 열어서 송나라 사람들의 문호門戶가 되게 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감주가 여기에서 자운子雲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고 하겠다.

이능李陵이 소자경蘇子卿에게 답하는 글은 〈이능전李陵傳〉과 태사공太史公의 글을 따다가 지은 것으로서, 그것이 안작贋作(위조僞造)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글의 기氣를 보면, 육조 시대 사람의 수법이 아니고 한漢나라 · 위魏나라 사이의 사람이 지은 것 같다. 거기에 말하기를 "정년丁年에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되어 갔다가 백발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20세를 정년丁年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기》에 "처음에 강성한 장년壯年으로서 나갔다"라고 한 것과 서로 어그러진다. 온정균溫庭筠의 〈소무묘蘇武廟〉라는 시에서 "돌아오는 날의 누대樓臺는 갑장甲帳[55]이 아니로구나. 갈 때의 관대冠帶와 칼은 정년丁年이었는데(回日樓臺非甲帳 去時冠劒是丁年)"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蘭亭敍〉는, 그 안에 있는 관현사죽管絃絲竹이라는 것을 옛사람들이, 말이 부연되고 중복되었다고 하여 이것 때문에 문선文選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서敍가 진晉나라의 산문 가운데에 있어서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주옥珠玉을 잃어버린 한탄이 없지 않다.

55 갑을甲乙의 순위로 제작한 장막 중에 가장 좋은 것. 한漢나라 효무제孝武帝 때에 유리琉璃 · 주옥珠玉 · 명월明月 · 야광夜光 등 천하의 진기한 보물로 꾸민 최상의 장막.

〈귀거래사歸去來辭〉는 고금에 다시없는 뛰어난 글이다. 그 결어結語에 말하기를, "이 세상에 내 몸을 부쳐두는 것이 다시 얼마 동안이나 되겠는가. 어찌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머무르는 것을 맡겨 두지 않으랴. 모름지기 자연의 조화에 따라 살다가 돌아가 다하면 그만인 것을, 저 천명天命을 즐겨 할 뿐이다. 다시 무엇을 의심하리오"라고 한 것은 말의 뜻이 《장자》를 닮았으나 바르다. 또 돌아가 다한다(歸盡)라고 한 두 글자로 끝맺은 것이 매우 좋다.

문중자文中子가 말하기를, "사장謝莊과 왕융王融은 옛날의 성격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의 글은 섬세하다. 서릉徐陵 · 유신庾信은 옛날의 큰 체하는 사람들이다. 그의 글은 허탄하다. 유효작劉孝綽은 비루한 사람이다. 그의 글은 음탕하다. 상동왕湘東王은 탐욕스런 사람이다. 그의 글은 지나치게 꾸민다. 사조謝眺는 얕은 사람이다. 그의 글은 가볍고 빠르다. 강총江總은 속이는 사람이다. 그의 글은 공허하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문장이란 그 사람의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선배들은 3가지의 병이 있다고 했다. "사륙체四六體로 쓴 것이 첫째의 병이고, 자기의 일을 거듭 서술한 것이 둘째의 병이며, 말미에 4구의 운문韻文을 덧붙인 것이 셋째의 병이다"라고 했다. 대체로 자안子安(왕발王勃의 자字)이 진陳나라 · 수隋나라의 여파餘波에 따랐기 때문에 문체가 이러하다.

〈귀거래사〉에 말하기를, "만물이 때를 얻은 것을 좋게 여기고 나의 삶의 행휴行休를 느낀다(善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라고 했다. 만물과 즐거움을 같이하는 뜻이 있다. 어떤 이가 선善(좋게 여긴다)이란 글자를 선羨(부러워한다)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행휴行休라고 한 것은 그의 문집 가운데 시詩에 "새해가 되면 어느덧 50세로구나. 나의 삶도 장차 돌아가 쉬게 되겠구려(開歲倏五十 吾生行歸休)"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행휴行休의 행行이란 글자는 장차

(將)라는 뜻으로서 행휴는 장차 그친다는 말이고, 가고 그친다는 말이 아니다.

원결元結이 〈대당중흥송大唐中興頌〉의 첫머리에서, “얼신孽臣(서얼庶孽 출신의 신하)이 간사하고 교만하여 어둡고 요망하다”라고 한 것은 송頌의 문체에 결여缺如함이 있는 것 같다. 한퇴지의 〈평회서비명平淮西碑銘〉에는 말하기를, “지나간 현종玄宗 때에는 높음이 극에 이르러 무너졌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만물은 많고 땅은 넓어서 그 사이에 곁가지가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여 말이 원만하여 흔적이 없다. 훌륭한 문체라고 할 수 있다. 〈차산서사次山序辭〉에서는, “문학에 늙은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역시 자랑한 것 같다. 왕감주가 나무란 것이 이것이다.

옛 싸움터에 대한 글은 너무 많은 문자들을 허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唐詩의 “가엾다. 무정하無定河의 물가에 뒹구는 해골들, 일찍이 봄 규방의 꿈속에 즐기던 사람이라네(可憐無定河邊骨 猶是春閨夢裡人)”의 한 글귀는 간결하면서도 곡진하여 이것에 미치는 것이 없다.

한창려韓昌黎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 말하기를, “물건이 그 평정平靜함을 얻지 못하면 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고도皐陶와 우禹는 잘 운 자이다. 잘 우는 자는 잘 우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빌어서 운다. 기夔는 소韶라는 음악을 빌려서 울었다. 이윤伊尹은 상商나라를 울리고, 주공周公은 주周나라를 울렸다……”라고 했다. 전배前輩들이 말하기를, “이 문단은 소위 평정함을 얻지 못함을 표현한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흠으로 잡는다. 그런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다.

한퇴지의 〈황릉묘비黃陵廟碑〉에 말하였기를, “조주潮州는 전염병과 독기毒氣가 모이는 곳이니,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묘廟를 지나다가 기

도하고, 그해 겨울에 원주袁州에 옮겨서 사사 돈으로 사당을 개축하여 보답했다”라고 했다. 공이 혹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가. 조주에서 사임하기를 비는 상표上表(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 상소)를 보니 말뜻이 슬프고 괴롭다. 그리하여 봉선封禪[56]을 말하기에 이르러서는 매우 가엾이 여김을 비는 뜻이 있다. 〈불골표佛骨表〉와 비교하면 아주 다른 사람의 글 같다. 어찌 전번의 〈불골표〉에서 그 의젓하고 굳세던 기운이 갑자기 한 번의 내쫓김에 좌절되었단 말인가. 공이 혹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가.

진후산陳后山이 말하기를, “한퇴지의 〈상존호표上尊號表〉에 말하기를, ‘석목천가析木天街에는 별들이 맑고 윤택하며, 북악北嶽과 의려醫閭에는 귀신이 벼슬을 받아 신복臣服한다’라고 했고, 증포曾布의 〈하사표賀赦表〉에는 ‘구진鉤陳(성좌星座의 이름)과 태미太微(성좌의 이름)가 다 화순하고, 곤륜崑崙과 발해渤澥(바다 이름)에는 파도波濤도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세상에서는 능히 이 글을,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겁다고 평론하지 못한다. 후일에 마땅히 그 경중輕重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석목析木(성좌가 있는 하늘의 거리)이니, 북악北嶽(오악五嶽의 하나인 항산恒山을 말함)이니 의려醫閭(중국 북부의 의무려산醫無閭山)니 하고 말한 것은 아마 당나라의 헌종憲宗 때에 북하北河 지방이 처음 평정되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리라. 증포曾布의 표문表文에서 곤륜산과 발해 바다를 함께 들어 말하고는 파도도 놀라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곤륜은 산의 이름이니 아마 온당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진후산陳后山이 말하기를, “소명윤蘇明允은 시를 잘 짓지 못하고, 구양영숙歐陽永叔은 부賦를 잘 지을 줄 모르며, 증자고曾子固는 운문韻文에 졸拙하고, 황노직

56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봉封, 땅에 제사하는 것을 선禪이라고 한다. 흙을 높이 쌓아 제단을 만들고〔封土〕 천제天祭를 지내며, 땅을 정결하게 하여〔墠〕 산천의 신에게 제사한다는 뜻이다. 선禪은 선墠과 통용한다.

黃魯直은 산문散文에 짧고, 소자첨蘇子瞻의 사詞는 시詩 같고, 진소유秦少游의 시는 사詞 같다"라고 했다. 대체로 문장이란 것은 하나의 재주이다. 그래서 더러는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이 있다. 옛사람들도 이미 그러한데 하물며 지금 사람들이겠는가. 재주는 옛사람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솔하게 기氣에 맡겨서 스스로 능숙하지 않은 것이 없는 체하고자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가.

범문정范文正(범중范仲의 시호)의 《악양루기岳陽樓記》를 윤사로尹師魯가 읽고 말하기를, "전기체傳奇體[57]의 문장이다. 고증하여 보니 전기傳奇는 당唐나라의 배형裴硎이 지은 소설小說이다"라고 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 지은 글을 보니, 소설의 문체를 도습한 것이 많다. 그런데 문체를 알아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또한 드물다.

사첩산謝疊山이 말하기를, "한퇴지韓退之의 글은 바다 같고, 유자후柳子厚의 글은 샘 같고, 구양수歐陽修의 글은 물결 같고, 소자첨蘇子瞻의 글은 조수潮水 같다"라고 했다. 아마 진晉나라의 육기陸機의 글은 바다 같고, 반악潘嶽의 글은 강과 같다(陸海潘江)고 한 비유를 습용襲用하여 이렇게 말한 것일 것이다. 고찰하여 보니 양용수楊用修는 말하기를, "유자후는 샘과 같다고 한 것은 마땅히 유자후는 강과 같다고 고쳐야 한다"고 했다.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는 당唐·송宋 이래 이만한 작품이 없으나 말단末端의 말뜻은 전적으로 《장자莊子》를 배웠다.

소동파의 글에서 서사敍事는 그의 장점이 아니다. 〈사마온공비서司馬溫公碑序〉 같은 것도 또한 의논체議論體의 문장이다. 오직 표충관비表忠觀碑의 서序와 명銘

57 전기傳奇의 문체. 전기傳奇는 잡록체雜錄體의 소설, 공상空想·몽환夢幻 소설, 중국 원元나라 시대의 잡극雜劇, 희문戲文, 일사기담逸事奇談의 총칭이다.

만은 모두 잘 지었다. 〈한문공비후시韓文公碑後詩〉도 또한 가작佳作이다.

소동파의 〈조주비潮州碑〉에 말하기를, “서쪽으로 함지咸池를 유람하고, 부상扶桑을 수행했다”라고 했다. 《회남자》에 말하기를, “해가 양곡暘谷[58]에서 나와서 함지咸池[59]에서 목욕하고 부상扶桑[60]에 떨친다”라고 하였으니, ‘서쪽으로’라고 말한 것은 아마 잘못이다. 동쪽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왕언장王彦章의 초조草詔에 말하기를, “아홉 임금에게 왕위를 전하여 대대로 실덕失德함이 없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한漢나라 황실의 액운은 10세에 있었다”라고 했다. 글귀는 좋으나 말이 중첩된다. 온혁溫革이 말하기를, “한나라의 액운이 10세 운운한 두 글귀를 만약 옮겨서 위의 글귀를 아래 글귀로 한다면 더욱 좋겠다”라고 했다. 어떨지 알지 못하겠다.

용재慵齋 성현成俔이 말하기를, “최치원崔致遠이 비록 시를 잘 지으나 글귀의 뜻이 정미精微하지 않으며, 비록 사륙체四六體의 글에 뛰어나나 말이 정돈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반드시 통론通論일 수는 없다. 그러나 최치원의 시문이라고 하여 어찌 조그만 흠도 없겠는가. 다만 신라 때에는 아직 문풍文風(글을 숭상하는 풍습)이 떨치지 않은 것을, 최치원이 선창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문장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최치원을 칭찬하여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사람처럼 말할 뿐이다. 최치원이 선정選定한 《계원필경桂苑筆耕》은, 산문은 모두 대구對句를 사용한 문장이고, 시詩는 “창 밖에는 삼경三更에 내리는 빗소리, 등잔불 앞에서는 만 리를 달리는 마음일세(窓外三更雨 燈前萬

58 옛날 동쪽의 아득한 저 끝에 해 돋는 데가 있다고 상상한 곳.
59 해가 목욕한다는 천상天上의 못. 해가 지는 곳이라 한다.
60 동해東海 가운데에 있는 신목神木이니, 두 나무가 같은 뿌리에서 나서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부扶(붙들다)라고 한다. 해가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

里心〕"라고 한 한 절구와, "뿔피리 소리 속에 아침저녁 물결은 치고, 푸른 산 그림자 속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있네〔畫角聲中朝暮浪 靑山影裡古今人〕"라고 한 한 연구聯句가 가장 아름답다.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의 호는 이암頤菴이다. 해서楷書를 잘 쓰고, 글을 잘 짓는 것으로 세상에 명예가 있었으나, 지금은 유집遺集이 나와서 그 명성이 전일보다 떨어졌다. 혹시나 보는 것이 듣는 것만 못하기 때문일까.

임제林悌가 《수성지愁城志》를 지었는데 이별을 말하기를, "하늘 위로 피해 가서 견우와 직녀를 만나보고 돌아오고자 한다〔欲避之於天上 遇牽牛織女而返〕"라고 했다. 아름다운 표현이다.

윤계선尹繼善의 《달천몽유록達川夢遊錄》은 비록 우의寓意한 말에서 나왔으나, 말이 귀괴鬼怪에 관계되어 산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어 해를 지나지 않고 요사夭死하였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이 말하기를, "한씨漢氏가 천명天命을 받으니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한 것은 그 문장이 특히 뛰어난 것이다. 사마천司馬遷·가의賈誼는 필력이 웅대하고 호기스러우며, 의사意思가 구애함이 없는 것이 한고조漢高祖가 나라를 세운 규모와 서로 비슷하더니, 양웅揚雄·반고班固에 이르러 비로소 문장의 수식에 마음을 쓰게 되어 점차로 세밀한 데로 향하게 되니, 서경西京의 혼후渾厚한 기운은 떨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일찍이 보니, 세속 사람들은 구안具眼도 없고 또 구이具耳도 없으면서, 오직 보고 들은 것에 익숙해서 때의 선후先後와 멀고 가까운 것을 가지고 우열을 정하고, 가벼우니 무거우니 한다. 온 세상이 모두 이러하다. 비록 옛날의 문장 호

걸인 선비로서 양웅揚雄 · 사마천司馬遷 · 이백李白 · 두보杜甫로 하여금 지금 세상에 다시 나게 하더라도 세상에 어찌 알고 믿는 자가 있겠는가. 나는 가만히 느낀다.

최입문崔岦文이 말하기를, “유능한 자는 하고, 유능하지 않은 자는 의논한다. 아는 자는 말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가린다(擇)”라고 했다.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보니 세상에 유능하고 또 아는 자는 백 사람에 한두 사람도 없으며, 유능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는 모두다. 홀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물며 능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유능하다 하고,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이겠는가. 스스로 유능하다고 하는 자를, 남들도 또한 그를 유능하다고 하고,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를, 남들도 또한 그를 안다고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그런 까닭에 능하면서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자에게 몸을 낮추고, 알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에게 굽히는 것이 바로 군자가 처세하는 큰 방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시학詩學을 공부하는 이는 많으나 산문에 대하여는 전연 힘을 쓰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볼 만한 것이 드물다. 용재容齋 · 호음湖陰 같은 이도 또한 문文에는 뛰어나지 못하다. 점필재佔畢齋(김종직)는 우리나라의 거벽巨擘(뛰어난 선비)라고 부른다. 그런데 속되고 낮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하겠는가.

탁영濯纓과 같이 문文에는 웅보雄步인 사람도 시사詩詞에는 졸렬하다. 소위 시사詩詞에는 다른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보다. 유서경柳西坰은 평생을 스스로 문필에 힘써 〈천고최성발千古最盛跋〉을 지었는데, 아주 글 짓는 사람의 글 같지 않다. 아마 산문은 그의 장기長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14-4 고문古文

《패사稗史》에, 주무왕周武王의 16명銘 가운데 〈감명鑑銘〉이 실려 있다. 거기에 말하였기를, "너의 앞을 보고 너의 뒤를 생각하라"라고 했다. 〈궤명几銘〉에는, "조심조심 입을 공경하라. 입은 꾸짖음을 낳고, 입은 입을 죽이느니라"라고 하였으며, 〈반명盤銘〉에는, "사람에게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못에 빠져라. 못에 빠진 것은 오히려 헤엄칠 수 있으니, 사람에게 빠진 것은 구제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다. 이것이 가장 좋다.

《박물지》에 성왕成王의 관축사冠祝辭[61]가 실려 있다. 말하기를, "백성에게 가깝게 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라. 시간에는 인색하고 재물에는 혜택을 베풀어라"라고 했다. 이 축祝은 옹雍이 지은 것으로서, 말이 간단하고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굴원屈原이 〈천문天問〉을 지으니,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하늘이 존귀하여 하늘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 묻는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유자후가 〈천대天對(하늘이 응대한다)〉를 지었는데, 대對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위에 대하여 응대하는 말이니 용어가 온당하지 않다.

굴원의 〈천문〉에 말하기를, "그 이利가 무엇인가. 고토顧兎가 배에 있다(厥利維何 顧兎在腹)"라고 했다. 주에, "고顧는 바란다는 뜻이다. 고토顧兎는 달 속의 토끼다"라고 했다. 한퇴지의 달을 읊은 시에, "깨끗함은 견디어 고토를 나눌 만

61 관사冠辭라고도 한다. 관례冠禮 때에 사용하는 기도의 글. 옛날 관례를 거행할 때에는 선조에게 고유告由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에는 고하는 글이 있어서 신에게 복을 빌었다. 이것을 관축사라고 한다.

하다〔淨堪分顧兎〕”라고 한 것은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다만 고토顧兎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혹시나 토끼가 달을 바라보고 잉태한다는 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 말하기를, “양기陽氣가 미우眉宇(이마와 눈썹) 사이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주에, 즐거운 기운이 속에 쌓이면 반드시 드러나 보인다”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의 관상가觀相家들이 눈썹 사이의 누른빛을 즐거운 기운이라고 한다. 한퇴지의 시에는, “눈썹 사이의 누른빛이 돌아갈 기일을 나타낸다〔眉間黃色見歸期〕”라고 했고, 소동파의 시에는 “때로 누른빛이 천정天庭(이마의 한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본다〔時看黃色起天庭〕”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도정절陶靖節의 글에 말하기를, “이웃은 이중二仲[62]이 아니고, 방에는 내부萊婦[63]가 없다”라고 했다. 《통감通鑑》을 참고하여 보니, 도연명陶淵明의 아내 적씨翟氏는 또한 도연명과 뜻이 같아서 능히 부지런하고 노고勞苦하는 일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남편이 앞에서 밭을 갈면 아내는 뒤에서 풀을 매었다고 하니, 내부萊婦에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른바, “새벽에 일어나 거칠어진 밭을 매고, 달빛을 띠고 호미를 메고 돌아온다〔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62 한漢나라의 은사隱士 양중羊仲과 구중求仲을 일컬은 말. 집안에 3개의 작은 길이 있었는데, 다만 양중과 구중이 그 길로 다니며 서로 교유交遊했다. 이중二仲은 모두 청렴하고 이름을 피하는 선비였다고 한다.

63 노래자老萊子의 아내를 내부萊婦 또는 내처萊妻라고 한다. 또 양홍梁鴻의 아내도 내부萊婦라고 한다. 두 사람이 모두 옛날의 현부인賢婦人이다. 특히 노래자老萊子의 아내 내부萊婦는 남편에게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고 간하였으며, 청빈淸貧이 잘 안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송문제宋文帝 〈수명송受命頌〉에 말하기를, "남쪽으로 순오舜梧[64]에 통하고 북쪽으로 요류堯柳를 평정했다"라고 하였는데, 유류堯柳라는 두 글자가 어느 고사故事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고증하여 보니, 《소설小說》에 "요순堯舜의 땅은 동쪽으로는 부상扶桑의 끝까지 이르고 서쪽으로 세류細柳에 통했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이때에는 남북南北이 아직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요류를 평정했다고 한 것이다.

《문선文選》〈곡수시서曲水詩序〉에 말하기를, "용문龍文은 고삐를 장식하고 청한靑翰은 승어乘御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였는데, 주에, "용문은 말의 이름이고, 청한은 배(船)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또 《사기》에, "진무왕秦武王이 용문정龍文鼎을 들다가 힘줄(脈)이 끊어져 죽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용문은 솥의 이름이다. 낙빈왕駱賓王의 시에, "서리 같은 칼은 용문이 구르고(霜劍轉龍文)"라고 했다. 이것은 칼 이름이다. 《박물지》를 상고하여 보니, "구야자歐冶子[65]가 칼 2개를 만들었는데, 양陽(수컷)을 간장干將이라 하며 용의 무늬(龍文)를 새겼다. 음陰을 막사莫邪(옛날 명검名劍의 이름)라고 하며 무늬 없이(縵理) 만들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옛글에, "학문은 서옥鼠獄[66]에 부끄럽고, 지혜는 계비鷄碑 같은 착상이 없다"라고 했다. 서옥은 장탕張湯의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이고, 계비는 《패사稗史》에

64 고대에 우순虞舜이 남쪽 지방을 순행하다가 창오蒼梧의 들에서 붕어崩御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그 고사를 인용하여 남쪽 지방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65 구야歐冶라고도 한다. 옛날의 이름 높은 칼 만드는 기술자. 그가 만든 보검을 구야검歐冶劍이라고 한다.

66 한漢나라 사람 장탕張湯이 어렸을 때에 쥐에게 고기를 잃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더니, 탕湯이 수색하여 쥐를 붙잡았다. 탕이 드디어 쥐의 죄를 핵실覈實하고 신국訊鞫하여 형옥刑獄의 문서를 갖추어서 쥐를 책형磔刑에 처했다. 그 형옥 문서의 글이 노련한 옥리 같았다고 한다. 이것을 서옥鼠獄이라고 말한 것이다.

말한 바, "진晉나라의 대규戴逵가 소년 때에 계란즙鷄卵汁으로 흰 기와의 가루를 반죽하여 정현鄭玄의 비碑를 만들고, 비문을 지어 스스로 새겼는데, 문사文詞가 아름답고 비석도 기묘하니 사람들이 모두 경탄했다"는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이다. 대체로 서옥이나 계비가 모두 나이 어린 사람이 한 지혜 있는 일인 까닭에 대구對句를 만들어 쓴 것이다.

양소명梁蕭明이 왕승변王僧辯에게 보낸 글에, "서릿발 같은 창, 번개 같은 갈래창처럼〔霜戈電戟〕 정예精銳하고 빛나는 문장과 식견과 재능은 무고武庫의 병기처럼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붉은 번개 빛 같은 창, 푸른 서릿발 같은 칼날은 왕장군王將軍(왕승변을 가리킨 말)의 무고武庫(문장 식견. 재능이 무기고의 병기처럼 무엇이나 구비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로다"라고 한 글귀는 대체로 양소명의 이 글에서 나온 것으로서, '푸른〔靑〕, 붉은〔紫〕'이라고 한두 글자를 더 붙였을 뿐이다.

유신庾信의 글에 말하기를, "충성이 지극하니 마른 우물에 샘이 나오고, 효성이 극진하니 겨울 뜰에 죽순竹筍이 돋는다"라고 한 두 구절은, 아마 후한後漢의 경공耿恭이 소륵성疎勒城을 점거하였을 때에 흉노가 성을 포위하고 물길을 끊어 버려 성 안의 군사들이 목마르게 되었는데 이때 경공이 의관을 정제하고 우물을 향하여 빌었더니 샘물이 솟아 나왔다는 일과,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맹종孟宗이 효성이 지극했는데, 겨울철에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므로, 맹종이 대숲에 들어가 걱정하여 우니, 땅에서 죽순이 나왔다고 한 고사를 인용한 말이다. 또 그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는, "원통하니 서리가 밤에 떨어지고〔寃霜夜零〕,[67] 분노하니 샘물이 가을에 솟아 나온다〔憤泉秋沸〕"라고 했다. 이 글

67 원통하니 여름밤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다. 옛날 제齊나라 사람 추연鄒衍이 옥에 갇혔으므로 추연이 원통하게 여겨 원망하면서 슬피 울었더니 여름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소위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귀는 아마 이광李廣이 흉노와 싸울 때 군사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 이광이 칼을 빼어 산을 찌르매 샘물이 솟아 나왔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일 것이다.

〈등왕각서〉에 말하기를, "학정鶴汀(학이 모여 사는 물가)과 부저鳧渚(오리가 사는 삼각주)는 섬을 둘러서 없는 곳이 없고, 계전桂殿(계수나무)로 지은 궁전과 난궁蘭宮(목란木蘭으로 지은 궁전)은 언덕과 산봉우리의 형세를 따라 벌여 있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서경잡기西京雜記》에 "양효왕梁孝王이 토원兎園이라는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동산 안에는 낙원암落猿巖과 서용수棲龍岫가 있고, 또 안지雁池(기러기가 사는 못)가 있어서, 그 못 사이에는 학주鶴洲·부저鳧渚가 있었다" 운운했다. 또 계전桂殿이니 난궁蘭宮이니 한 것은 진사왕陳思王[68]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니, 모두 등왕에 비유한 것이다.

〈등왕각서〉에 말하기를, "수원睢園의 푸른 대〔綠竹〕는 기운의 맑음이 팽택彭澤의 술 단지를 능가하고, 업수鄴水의 붉은 꽃〔朱花〕은 광채가 임천臨川의 내사內史인 사영운謝靈運의 붓에 비친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수양睢陽은 양효왕梁孝王의 국도國都로서 대나무 동산〔竹園〕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옛 시에 "빼어난 대나무,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네"라고 한 것이 있다. 업鄴은 위魏나라의 수도이니, 조식曹植의 시에, "붉은 연꽃이 푸른 못을 덮었네〔朱華冒綠池〕"라고 한 글귀가 있다. 이것은 등왕을 양효왕과 위왕에게 비유한 것이다. 팽택의 술 단지라고 한 것은 도연명陶淵明의, "술이 있어 단지에 가득하다"라는 글귀를 인용한 것이고, 임천의 붓이라고 한 것은, 사영운이 임천의 내사가 되었을 때에 포조鮑照가 말하기를, "영운의 시는 처음 핀 연꽃 같아서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 것이 있다. 모두 이런 것을 인

68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무제武帝의 셋째 아들. 문제文帝의 아우. 자字를 자건子建이라고 한다. 진왕陳王에 봉하여졌으며, 죽은 뒤의 시호를 사思라고 하였기 때문에 진사왕이라고 부른다. 문재文才가 뛰어나서 글을 잘 지었다.

용하여 아름답게 말한 것이다.

〈등왕각서〉에, “동자童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라고 했고, 또 ‘삼척三尺의 작은 몸’이라고도 했다. 대체로 스스로 삼척동자三尺童子라고 말한 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등왕각서〉의 저자 왕발王勃의 그때 나이가 13세, 혹은 14세라고 한다. 사적事蹟이 《당서唐書》와 《패사稗史》와 《사문유취事文類聚》 등 여러 서적에 나온다.

〈등왕각서〉에 말하기를, “나이는 종군終軍과 같이 20세가 되었으나 종군처럼 영纓을 청할 길은 없다.[69] 회포가 있어 반초班超[70]처럼 붓을 던지고 긴 바람에 실려 만 리의 물결을 돌파하겠다고 한 종각宗慤[71]을 사모한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붓을 던진다’고 한 것은 반초의 고사이니, 이 글귀의 “회포 있어 붓을 던지고, 종각의 장풍長風을 사모한다”라고 한 말은, 반초와 종각 두 사람의 일을 아울러 말한 것이어서, 위 구절의 종군 한 사람만을 말한 것과는 서로 맞지 않는다.

또 주석하는 이가, ‘왕 장군王將軍의 무고武庫’라고 한 왕 장군은 왕준王濬을 지칭한 것이고, ‘맹 학사孟學士의 사종詞宗’이라고 한 맹 학사는 맹호연孟浩然을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맹호연은 포의한사布衣寒士(벼슬하지

69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종군終軍은 18세에 알자급사중謁者給事中에 임명되고, 20세 때에 남월南越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가게 되었다. 천자에게 기다란 갓끈(纓)을 청하여 받고 말하기를, “남월왕南越王이 나의 권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왕의 목을 이 갓끈으로 매어서 궐하闕下에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

70 동한東漢 안능安陵 사람. 젊어서 글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곧 붓을 던져 버리고 군인이 되었다. 명제 때에 서역에 사신으로 가서 서역 50여 국으로 하여금 모두 납공내속納貢內屬하게 하고, 서역도호西域都護가 되고 정원후定遠侯에 봉하여졌다는 고사.

71 남조송南朝宋의 사람. 어렸을 때에 그의 숙부叔父 병炳이 그의 뜻을 물으니 “긴 바람을 타고 만 리의 물결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뒤에 진무장군振武將軍이 되어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않은 사람)이니 이 연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적다. 또 후배들은 말하기를, "왕 장군이니 맹 학사니 하는 사람은 아마 그때 좌석의 상좌上座의 손님일 것이다"라고 한다. 또 《당서唐書》에는 맹 학사를 태수 염공閻公의 사위라고 했다. 그러나 《소설小說》에는 염공이 자기의 사위 오자장吳子章을 시켜서 미리 〈등왕각서〉를 짓게 하여 감춰 가지고 기다리게 했다고 하여 그 설이 같지 않다.

〈등왕각서〉에 말하기를, "맹상孟嘗은 고결한 인격자이지만 헛되게 나라에 보답할 마음을 품었을 뿐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맹상은 동한東漢 때에 합포태수合浦太守가 되었다. 예전부터 그 고을에는 곡식의 생산은 없고, 바다에 진주가 생산되므로 백성들이 진주의 채취를 업으로 하였는데, 전임 수령들이 탐욕을 부려 함부로 진주를 캐 오게 해서 빼앗았기 때문에 진주가 점차로 이웃 고을의 바다로 옮겨 가고 이 고을에서는 생산하지 않게 되었는데, 맹상이 태수가 되어 진주를 요구하지 않으니, 가버렸던 진주가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주석註釋하는 이가 말하기를, "〈등왕각서〉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 다만 고결하다고만 하고 맹상의 사적에 대하여 고증한 것이 없으니 합포태수 맹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 또 고찰하여 보니, 설포薛包라는 사람의 자字가 맹상孟嘗이다. 그는 동한東漢 순제順帝 때의 사람이니, 《도정절집陶靖節集》에 〈설맹상찬薛孟嘗贊〉이라는 글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등왕각서〉 본문 중에, "헛되게 나라에 보답할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 것과 "어찌 백발이 되었다는 마음을 알겠는가"라고 한 것은 말이 중첩된 것 같다. 그리고 한 편의 글 가운데에 맹씨孟氏 성을 가진 사람 셋을 말하였으니, 혹은 갑자기 생각하였기 때문일까.

〈등왕각서〉에 또 말하기를, "관산關山(관소關所가 있는 산)은 넘기 어려운 곳인데 누가 길 잃은 사람(왕발이 자신을 가리켜 말한 듯)을 슬퍼해 주랴. 물 위에 떠다니는 마름 같은 나그네 길에서 서로 만났으나, 모두가 타향의 손이로구나(關山難越

誰悲失路之人 萍水相逢 盡是他鄕之客〕"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수비실로지인誰悲失路之人"이라고 한 비悲는 비非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즉 "관산은 넘기 어려운 곳, 누군들 길 잃은 사람이 아니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왕발王勃이 지은 〈익주부자묘비益州夫子廟碑〉의 비문에 말하기를, "중거仲擧의 천하를 맑고 깨끗하게 하려는 뜻이 그 평탄한 길에 이르지 못했다〔仲擧澄淸之志未極夷途〕"라고 했다. 중거는 진번陳蕃의 자字이다. "말고삐를 잡고 개연慨然히 천하를 맑고 깨끗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범방范滂의 일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중거의 일로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원만경元萬頃[72]이 이적李勣[73]을 위해 격문檄文을 지어 가지고 고구려를 꾸짖기를, "압록강의 험난함을 알지 못하고" 했다. 고구려의 막리지莫離支는 도리어, "삼가 당신들의 명령을 듣겠다"라고 하고는 군대를 압록강으로 옮겨 굳게 지키니 당나라 군사가 건너올 수 없게 되었다. 당고종唐高宗이 드디어 원만경을 영남嶺南에 귀양 보냈다고 한다. 이때에 고구려에는 대체로 인물이 있었던 것이다. 소동파가 연개소문淵蓋蘇文을 영웅이라고 한 것은 또한 반드시 보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낙빈왕駱賓王의 글에 말하기를, "가볍게 목리木李(목과木果, 하찮은 과일)를 던져서 소마疏麻(과실의 일종으로, 훌륭한 과일)에 대신한다"라고 했고, 시詩에는 말하기

72 서기 667년,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26년에 당나라가 침노해 왔을 때, 원만경은 당나라 장수 이적의 휘하에 있던 행군관지통사사인行軍管知通事舍人이었다. 그가 이적을 위해 고구려를 꾸짖는 격문을 지었는데, "압록강의 요험要險을 지킬 줄 모르고……"라고 한 말이 있었다. 고구려의 막리지莫離支가 그 말을 듣고 도리어 압록강을 굳게 지켰으므로, 원만경은 당고종唐高宗에 의해 귀양 가게 되었다.

73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때에 고구려에 침입하였던 당나라의 장수 이름.

를, “소마를 헛되게 꺾었구나, 방계芳桂(향기 좋은 계수나무)의 이슬은 뜰(斟) 것이 없네(疏麻空有折芳桂湛無斟)”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초사楚辭》에 “소마疏麻를 꺾음이여! 꽃이 아름답구나, 장차 가져다 흩어져 사는 이에게 주리라”라고 한 글이 있다. 아마 여기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낙빈왕의 격문에 말하기를, “반마班馬(대열을 떠난 말)의 소리가 움직이니 북풍이 일어나고, 칼 기운이 찌르니 남두南斗(별 이름, 두수斗宿)[74]가 평정한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좌전左傳》에, “반마의 소리가 있으니, 제齊나라의 군사가 도망치나 봅니다”라고 한 것이 있다. 반班은 대열에서 떠나 제각기 흩어져서 서로 가깝게 있지 않은 모양이고, 북풍이 일어난다고 한 것은 아마 오랑캐의 말이 북풍을 좇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며, 아래 글귀는 칼 기운을 말하기 때문에 남두南斗라고 쓴 것이다.

〈대당중흥송大唐中興頌〉에 말하기를, “기일期日을 지정하여 다시 회복하다(復復指期)”라고 했다. 문헌을 살펴보니, 《한서》〈하무전何武傳〉에, “주청奏請하여 자사제도刺史制度를 폐지하고 주목州牧을 두었다가, 뒤에 다시 예전대로 회복(後皆復復)했다”라고 하였는데, 주에 “부복復復은 그 예전 제도에 따르는 것이니, 부복復復에서 위의 글자는 글자의 음대로 ‘부’로 읽고, 아래 글자는 ‘복’으로 발음한다”라고 했다.

74 《진서晉書》〈장화전張華傳〉에, “두우斗牛 28수宿 가운데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 항상 자기紫氣가 있으니, 예장豫章의 뇌환雷煥이 말하기를, ‘보검의 기운이 위로 하늘에 뻗쳤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화華가 묻기를, ‘어느 고을에 있는가’ 하니, 환煥이 말하기를, ‘예장의 풍성豐城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곧 환煥을 풍성령豐城令에 임명했다. 환煥이 고을에 이르러 옥터를 파니 땅속 4장丈 남짓 들어가서 한 석함石函을 얻었는데, 광기光氣가 비상하고 속에 2개의 칼이 있었으니 모두 새겨 있기를, 하나는 ‘용천龍泉’이라 하고 하나는 ‘태아太阿’라고 했다. 이날 밤부터 두우斗牛 사이의 붉은 기운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백李白의 글에 말하였기를, “청평青萍과 결록結綠이 설하薛下의 문에서 값이 높아진다(青萍結綠 長價於薛下之門)”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설하薛下는 설변薛卞으로 써야 옳다. 청평青萍은 칼 이름이고, 결록結綠은 구슬 이름이다. 설薛은 설촉薛燭이니 월越나라에 살았던 칼을 잘 감식하는 사람이며, 변卞은 초楚나라의 변화卞和(주周나라 때에 초왕楚王에게 보옥寶玉을 바친 사람)이다.

당숙종唐肅宗의 〈덕음조德音詔〉에 공이 있는 여러 신하들의 성명을 차례로 열거하였는데, 오직 곽자의郭子儀 · 이광필李光弼에게만은 그 성姓을 쓰지 않고, 삭방처치사朔方處置使 자의子儀, 소국공蘇國公 광필光弼이라고 했다. 아마 존경하는 뜻일 것이다.
《한서》에 소하蕭何를 승상丞相 하何, 곽광霍光을 승상 광光이라 일컫은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소하에게 칼과 신을 하사하고 이름을 쓰지 않았으며, 곽광은 이름을 쓰지 않고 ‘박륙후博陸侯, 성은 곽씨霍氏’라고 한 것은 이것과는 다르다.

한문韓文에 말하였기를, “형체가 있고 소리가 없는 것은 옥과 돌이 그러하고, 소리는 있고 형체가 없는 것은 바람과 우뢰가 그러하며, 소리도 있고 형체도 있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그러하고, 소리도 형체도 없는 것은 귀신이 그러하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귀신이 그러하고, 소리와 형체가 없을 수 없는 것은 물괴物怪(요괴)가 그러하다”라고도 했다. 나는 말한다. 귀신이란 것은 기氣일 뿐이다. 그런 까닭에 소리도 형체도 없는 것이다. 음양陰陽 2기氣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것이 상도常道에 어긋나면 괴이한 것이 된다.

한문韓文에, “학문으로 심고 글로 길쌈한다(種學績文)”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왕발王勃이 이르는 곳마다 글을 청탁하는 자가 많아서 사례로 주

는 돈과 명주가 산같이 쌓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혀로 짜서 입고, 붓으로 갈아서 먹는다(舌織而衣 筆耕而食)"라고 했다. 한퇴지가 아마 이 말을 사용하여, 간다(耕)고 한 것을 심는다(種)로 하고, 짠다(織)는 것을 길쌈한다(績)고 한 것일 것이다.

한창려韓昌黎가 유자후柳子厚를 제사하는 제문祭文에 말하기를, "그대는 남을 볼 때에 스스로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라고 했다. 이것은 대체로 그 사람됨의 결점을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지기知己로 한 것이 아니라, 실로 그대가 나에게 시킨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한창려가 일찍이 유자후를 지기지우知己之友로 허락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이 글을 쓸 때 구차하게 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한창려의 글에 말하기를, "오직 묵은 말(陳言)을 힘써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여러 사람들의 설을 살펴보니, 모두 전인前人의 작품을 도습하는 것을 진언陳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홀로 옛사람의 말이나 글귀를 가리킬 뿐 아니라, 아마 그때의 아름답게 꾸미는 변려문騈麗文을 진부한 말이라고 한 것 같다.

한창려가 〈동계지명董溪誌銘〉을 지어 말하기를, "부자父子 사이가 저절로 지기知己가 되었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매우 즐겨한다. 지금 착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 제 집에 어진 아버지와 밝은 스승이 있어도 능히 알지 못하고, 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물며 그가 지기知己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한 방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천 리의 먼 곳에서도 아는 자가 있는 것이며, 같은 때에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천 년 백년 뒤에서도 아는 자가 있는 것이다.

아, 선비가 당세當世에서는 지기를 만나지 못하고, 후세의 자운子雲을 기다리고자[75] 하니 어찌 어렵지 않은가. 《장자莊子》에 말한 바, "만세萬世 뒤에 한 번 알아주는 이를 만나는 것도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자와 같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유자후柳子厚가 장후여張厚餘를 곡哭하는 글에 말하기를, "하늘은 항상 선인善人을 죽이고 어질지 않은 자를 돕는구나. 장주莊周가 말하기를, '사람 세상의 군자는 하늘의 소인이다'라고 했다. 장군張君이 혹시나 하늘이 이르는 바 소인이라는 자인가"라고 하여 말이 매우 절박하다. 아마 격激한 바 있어서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차례로 고금의 선善을 복 주고, 음란한 것을 화禍 주는 이치를 살펴보면,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어긋남이 오래다. 자후子厚의 도량이 또한 매우 좁다. 한창려가 최군崔羣에게 보내는 글에 말하기를, "하늘이 사람에게 그 좋아하고 미워함을 사람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말이 매우 완곡함을 얻었다.

유자후의 표문表文에 말하기를, "한 번 용안龍顔을 뵈오니 일만 번 죽어도 오히려 족(猶足)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유猶는 짐승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니 용의 얼굴(龍顔)과 짐승의 발(猶足)은 묘한 대구對句가 되는 것이다. 후인들이 또 만 번 죽어도 족하다(萬死爲足)라고 쓴다. 《설문說文》을 참고하여 보니, 위爲는 어미 원숭이(母猴)라는 글자이기도 하다. 그러니 용안과 모후母猴는 더욱 묘한 대對가 된다.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말하기를, "유자후가 유주柳州의 수령이 되어서 용성龍城을 쌓다가 흰 돌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 새겨 있기를 용성은 유신柳神이

75 양웅揚雄이 《태현경太玄經》을 지었으나, 당시에 아무도 그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므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후세의 자운子雲을 기다린다"라고 했다. 자운은 양웅의 자이다.

지키는 곳으로서 여귀厲鬼를 구축하여 산의 왼쪽 끝으로 쫓는다. 지방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9가지 추한 것을 제어한다(龍城柳神所守 驅厲鬼山左首 福土氓制九醜)"[76]라고 했다. 한퇴지가 나지묘비羅池廟碑의 비문을 지어 말하기를,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수壽를 주며 여귀厲鬼를 산의 왼쪽으로 몰아내 쫓아버리소서"라고 했다. 아마 용성龍城의 흰 돌에 새겨 있는 글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당唐 학사學士 봉오封敖가 변장邊將이 부상한 것을 위로하는 조서詔書를 지어 말하기를, "상이傷痍는 너의 몸에 있고, 아픔은 짐朕의 몸에 있도다"라고 했다. 또 노여필盧汝弼이 지은 《전사방격傳四方檄》에는 말하기를, "주사朱邪(서돌궐西突厥 부족의 이름)의 낭패狼狽로부터 적자赤子의 유리流離함을 초래했다"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주야朱邪의 야邪는 음이 야爺이니, 야爺는 아비라는 뜻이다. 그러니 적자赤子라는 자子와 꼭 맞는 대對가 되고, 유리流離는 올빼미라는 말도 되는 것이니, 낭패狼狽와 좋은 대對가 된다고 하여, 당시의 세상에서 잘되었다고 했다.

나은羅隱이 전류錢鏐를 대신하여 소종昭宗이 이름을 엽曄이라고 고친 것을 칭하하는 표문을 지어 말하기를, "왼쪽은 희창姬昌의 반 글자이고, 오른쪽은 우순虞舜의 전문全文이다(左則姬昌之半字 右則虞舜之全文)"라고 했다. 즉, "엽曄이란 글자의 왼쪽은 일日이니, 주문왕周文王의 성명인 희창姬昌이란 창昌의 반 글자인 것이고, 오른쪽은 화華이니 우순, 즉 순임금의 문덕文德을 표현한 '중화重華'라는 말의 화華를 완전한 글자 그대로 쓴다"라고 한 것이다. 당시에 잘되었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76 9가지 더러운 것. 즉 용勇에 있어서 잊는 것(忘), 의지意志에 있어서 변하는 것(變), 다스림(治)에 있어서 어지러운 것(亂), 굳음(固)에 있어서 변천하는 것(轉), 믿음(信)에 있어서 간사한 것(奸), 사양함에 있어서 인색한 것(殘), 행동(行)에 있어서 완고한 것(頑), 어짊(仁)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亹).

나는 말한다. 아래 글귀인 우순의 전문全文이라고 한 것은 위 글귀만 못하다.

왕원지王元之의 〈대루원기待漏院記〉에 말하기를, "상군相君이 와서 기다리니, 밝고 밝은 불의 성城이로구나"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소설小說》에 말하였기를 "삼사사三司使와 대금오大金吾는 모두 화촉樺燭(자작나무의 껍질로 밀을 말아서 켜는 촛불)으로 옹위擁衛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불의 성이라고 한 것이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은촉銀燭으로 천자에게 조회하니 자맥紫陌(붉은 언덕, 즉 왕도王都)이 길다"라고 하였으니, 당나라 때에는 아마 은촉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 지금 중국 조정의 모든 관원들은 모두 구등篝燈(불 우리를 만들어 씌운 등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다만 그 구등의 크고 작은 것은 벼슬의 높고 낮은 차례대로 한다.

범중엄范仲淹이 처음에, 어머니가 주씨朱氏 집에 개가改嫁한 데에 따라가서 남의 성姓인 주씨朱氏를 성으로 삼았으며, 이름을 열悅이라고 하였더니, 과거에 급제한 뒤에 본성本姓으로 돌아가기를 비는 표문을 지어 말하기를, "범수范睢는 뜻이 진秦나라에 가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경 안에 들어가서는 드디어 장록張祿이라고 일컬은 것처럼, 나도 성명을 바꿨습니다. 이름이 월越나라를 패왕으로 만든 범려范蠡가 아니건만, 범려가 바다에 배를 띄우고 떠나가면서 도주陶朱라고 한 것처럼, 나도 우연히 그 본을 받아 주씨朱氏로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당唐나라 절도사節度使 성예成汭의 본성은 곽씨郭氏였다. 정준鄭準이 그를 대신하여 본성本姓에 돌아가기를 비는 표문을 지어 말하기를, "이름이 월나라를 패자로 만든 범려가 아니니, 배를 띄우고 도주를 본받기 어렵고, 뜻이 진나라에 가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범수가 그 경내에 들어가서 장록이라고 일컬은 것처럼 성명을 바꿨던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 있다. 대체로 범문정范文正이 이 글귀 전체를 그대로 따다가 쓴 것이다. 그런데 범씨范氏라는

성을 가진 이에게는 더욱 적절하다.

소동파가 연개명硯盖銘(벼루 뚜껑에 새긴 글)을 지었는데, 연硯이란 글자와 개盖라는 두 글자를 떼어 내고 합하고 하여 말하기를, “다듬은 돌은 오히려 있는데 재(峴)의 산은 이미 무너지고, 강녀姜女는 이미 갔는데 맹자는 오지 않는다(研石猶在 峴山已頹 姜女旣去 孟子不來)”라고 했다. 다시 설명하면, 연研이라는 글자에 석石만 남아 있고 현峴이란 글자에 산山은 없어졌다. 그러니 석石과 견見이 합하여 연硯이란 글자가 된다. 강姜이란 글자에서 여女는 떼어 버리고 맹孟이란 글자에 자子는 없다. 그러니 양羊와 명皿이 합하여 개盖라는 글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 세속에서 전하는 말에서는 김金 · 강姜 두 글자를 말하기를, “한 점 찍은 옥인玉人이 지나가고 쌍상투를 붙인 공주公主가 온다”라고 했다. 또한 파자破字(한문 글자의 자획을 떼고 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법)이다. 연석硯石은 어떤 책에는 갈석碣石으로 쓰여 있다.

소자첨蘇子瞻이 논하기를, “현왕顯王의 신성함과, 제후들이 복종하여 공헌함이 있었으나, 마침내 떨치지 못한 것은 수도를 동천東遷(주周나라 평왕平王이 수도를 풍호豐鎬 지방에서 동쪽 낙양洛陽으로 옮긴 일)한 잘못 때문이다”라고 했다. 자첨의 이 말은 반드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왕顯王을 상고하여 보니, 주周나라가 말기末期를 당하여 왕실王室이 쇠미衰微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企圖하여 한 일이 무엇인지 고증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시호諡號를 현성왕顯聖王이라 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신성神聖이라는 일컬음을 얻은 것이 아닐까.

소동파가 찬撰한 〈한문공비韓文公碑〉에 말하기를, “삶을 기다리지 않고 존재하며, 죽음에 따라 죽지도 않는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윽하면 귀신이 되고,

밟으면 다시 사람이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輪廻說[77]이다. 대체로 소동파는 만년晩年에 불교를 좋아하였으므로 그의 글이 이와 같은 것이다.

《소설小說》에서 홍호洪皓가 냉산冷山에서 휘종徽宗[78]을 제사하는 글에 말하기를, "말에 뿔이 나는 것(馬生角)[79]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혼魂은 눈구덩이(雪窖)에서 사라지고, 용의 수염(龍髥)[80]을 잡으려다가 미치지 못하니 눈물이 얼음 언 하늘에 비 오듯 한다"라고 했다.
세속에서 전하는 말에, 냉산冷山은 즉 지금의 별해보別害堡이니, 설한령雪寒嶺의 북쪽, 삼수三水의 지경에 있는데 땅이 가장 높고 가장 춥다고 한다. 그러나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또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살펴보니, 이것을 주변朱弁[81]이 오랑캐 속에 있을 때에 지은 것이라고 하고, "눈물이 비 오듯이 한다"고 한

77 사람이 죽었다가 나고, 났다가 죽곤 하여 몇 번이고 반복한다는 불가佛家의 설.
78 송나라 신종神宗의 제11째 아들 조길趙佶. 온갖 재예才藝에 능통하고 서화書畵에 가장 뛰어났다. 철종哲宗에 이어 제위帝位에 올랐으며, 도교道敎를 신앙하여 스스로 교주도군황제敎主道君皇帝라고 일컬었다. 정강靖康 말년에 금인金人에게 흠종欽宗 등과 함께 겁략劫掠되어 오국성五國城에서 붕崩했다.
79 말에 뿔이 난다는 말이니, 기적이 일어남을 말한다. 옛날 연燕나라 태자 단丹이 진秦나라에 인질人質로 갔을 때, 진왕秦王에게 돌려보내주기를 청하니, 진왕이 말하기를, "까마귀의 머리가 희게 되고 말에 뿔이 나면 돌려보내겠다"라고 했다. 단丹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니 곧 까마귀의 머리가 희게 되고 말에 뿔이 났다. 그래서 진왕이 놀라 그를 돌려보내 주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휘종에게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80 《사기》에 말하기를, "황제黃帝가 수산首山의 구리쇠를 채굴하여 형산荊山 아래에서 솥을 만들었는데, 솥이 다 이루어지니 용龍이 하늘에서 수염을 드리워서 황제를 맞이했다. 황제가 올라타고 여러 신하들과 후궁後宮 70여 명도 따라 탔다. 용이 드디어 올라가니 남은 아래 신하들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곧 모두 용의 수염을 잡으니 용의 수염이 빠져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백성들이 쳐다보니 황제가 이미 하늘에 올라갔으므로 드디어 그 활과 용의 수염을 안고 부르짖었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
81 송나라 사람. 자字는 소장少章, 호號는 관여거사觀如居士. 일찍이 점한粘罕에 사자使者로 갔다가 화의和議가 성립되어 돌아와서 봉의랑奉議郎이 되었다.

것을 "눈물을 뿌린다(灑)"라고 되어 있다.

원파방元播芳의 〈하표賀表〉에 말하기를, "하늘에는 상서로운 빛이 떨기처럼 모여 있고, 온 지역을 둘러싸서 환호하는 소리로다(叢霄瑞色 匝域歡聲)"라고 했다. 지금 사람들이 그 말을 습용襲用하는 이가 많으나, 그 총소叢霄라는 말의 뜻은 알지 못한다. 상고하여 보니, 장구령張九齡의 시詩에 말하였기를, "상서로운 구름은 떨기처럼 모여서 해(日)를 떠받치고, 꽃다운 나무들은 곡진曲盡하게 봄을 맞이하네"라고 했다. 비로소 총叢이란 글자가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이 말은 대체로 수풀이 떨기처럼 한데 모였다는 뜻이다.

14-5 사부辭賦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대인부大人賦〉에 말하기를, "내 오늘에야 비로소 서왕모西王母[82]를 보니 하얗게 센 머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산해경》에는 말하기를, "왕모王母가 머리의 꾸미개를 하고 범과 같은 이빨을 가졌으며, 휘파람을 잘 분다"라고 하였는데, 왕세정王世貞은 말하기를, "이것은 아마 왕모가 부리는 금방백호신金方白虎神(서방西方의 백호신)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 《소설小說》에는 말하기를, "서왕모는 부인婦人이 아니다. 곧 완왕모과宛王母寡의 등류인데 후인後人이 억지로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든 것이다"라고 했다. 내 생각에도 이 설이 매우 사리에 맞는 것 같다. 고증하여 보니, "순舜임금 때에 서왕모가 옥고리(玉環)와 《목천자전穆天子傳》을 바꾸었다" 운운했다. 그러니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왕모王母와는 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사마상여의 부賦에, "문익文鷁을 띄우다"라고 한 문익은 배를 말한 것이다. 《회

82 옛날의 선인仙人. 곤륜산崑崙山 위에 살고 있다고 한다.

남자》에 "용주龍舟(용 모양을 뱃머리에 조각하거나 그림을 그린 배)와 익수鷁首(익鷁이라는 물새의 그림이나 조각을 뱃머리에 장식한 배)는 천자가 타는 배다"라고 했다. 《사기》의 주에, "익鷁은 물새다. 그의 형상을 뱃머리에 그려 놓았기 때문에 그 배를 화익畫鷁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곽박郭璞이 말하기를, "강동江東에서는, 귀인이 타는 배는 배 앞에 푸른 새를 그려놓는다. 〈등왕각서〉에 푸른 새, 누른 용의 선미(靑雀黃龍之舳)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익鷁은 오역절五歷切이니 역鶂과 같다"라고 했다.

양웅揚雄의 〈반리소反離騷〉에 말하기를, "공경하여 초楚나라의 상루湘纍(굴원屈原이 원죄寃罪로 상수湘水에 투신 자살한 일)를 조상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나의 누纍의 많고 어지러움을 민망하게 여긴다(愍吾纍之衆芬)"라고 하였는데, 주註에 말하기를, "죄 아닌데 죽는 것을 누纍라고 한다" 했다. 번천시樊川詩에 말하기를,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 나의 누纍를 성낸다(勃鬱吾纍怒)"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감李甘이 죄를 받고 도찬逃竄(달아나 자취를 감춤)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한 것이다. 운서韻書를 고열考閱하여 보니, "누纍는 노끈이니, 누설縲紲(검은 끈으로 죄인을 묶음. 구속된 몸. 붙잡힌 죄인)의 누縲와 같다"라고 했다. 《사문옥설事文玉屑》에는 말하기를, "누신纍臣은 누수纍囚된 신하라는 말이니, 죄가 있을 때 스스로 일컫는 말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소위 상루湘纍라고 한 것은 아마 역시 누수纍囚의 뜻일 것이다.

양웅의 〈감천부甘泉賦〉에, "옥수청총玉樹靑蔥"이란 말이 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옥수玉樹라는 것은 무제武帝가 지은 것으로서, 여러 가지 보물을 모아 만들어 귀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했다. 좌사左思의 〈삼도부三都賦〉[83] 서序에 그 부당함을 조롱하여 말한 것은 잘못이다. 고증하여 보니, 한무漢武의 고사故

83 진晉나라의 좌사左思가 지은 〈촉도부蜀都賦〉·〈오도부吳都賦〉·〈위도부魏都賦〉를 총칭한 말. 이 부는 좌사가 10년이 걸려서 고심구상苦心構想한 것으로서, 완성한 때에는 호귀豪貴한 집들이 다투어 전사傳寫하니 낙양洛陽의 종이 값이 등귀騰貴하게 되었다고 한다.

事에, “위에 신대神臺를 일으키고 뜰 앞에 옥수玉樹를 심으니, 산호珊瑚로 가지를 만들고, 푸른 옥으로 잎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양신의 설이 아마 옳은 것 같다.

〈서도부西都賦〉에, “백간白間을 불러 한 쌍의 고니를 떨어뜨리고, 문간文竿(물총새의 깃, 즉 취우翠羽로 장식한 낚싯대)을 끌어당겨 비목比目(가자미)을 낚아낸다”라고 했다. 양신이 말하기를, “《풍속통風俗通》에, 백간白間은 옛 활(古弓)의 이름이니, 황간黃間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문선文選》에서 백간白間을 백한白鷳(황새)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또 “선부選賦에서 희고 흰 백간白間”이라고 한 말의 주註에는, ‘창窓을 흰 종이로 바른 것’이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백간白間에 벌레가 그림을 갉아 먹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자미子美가 소환蘇渙의 송시誦詩를 듣고 말하기를, “나의 모발이 기쁨 때문에 문득 변하여 백간白間(흰 털 사이)에 검은 실이 난다”라고 했다. 이것은 기뻐서 백발이 검은 털로 변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조자건曹子建의 〈낙신부洛神賦〉[84]는 복비宓妃[85]를 진후甄后[86]에 비유하여 지었다고 한다. 유자호柳子厚의 천대天對의 주에, “후예后羿가 꿈에 낙수洛水의 신神 복비宓妃와 교접交接했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복비宓妃는 복희씨伏羲氏의 딸로서 낙수에 빠져 죽어 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의산李義山의 시에 말하기를, “복비가 베개를 남겨둔 것은 위왕魏王의 재주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베개를

84 문장의 명칭. 위魏나라 조식曹植이 지은 것. 조식이 처음에 진씨甄氏를 얻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니 차마 잊지 못하여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침식寢食을 폐하기에 이르렀다. 황초黃初(위문제魏文帝의 연호) 중에 조정에 나가니 황제가 조식에게 진후甄后의 옥으로 조각한 금띠와 베개를 보여주었다. 식이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는 이미 곽후郭后의 참소로 진후는 죽은 뒤였다. 황제가 그 띠와 베개를 조식에게 주었다. 식이 돌아가다가 낙수洛水 위에 이르러 진후를 생각하고 드디어 옛날 복비宓妃의 일을 가탁하여 〈낙신부〉를 지었다고 한다.

85 복희씨伏羲氏의 딸로서 낙수洛水에 빠져 죽어 낙수의 신神이 되었는데, “후예后羿가 꿈에 낙수의 신 복비와 만나 교접했다”고 한다.

남겨둔 것(留枕)은 진후甄后의 일이다. 그러나 자건을 위왕이라고 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말하기를, "부로扶老를 짚고 여기저기에서 쉰다"라고 했다. 진대개晉戴凱의 죽보竹譜를 살펴보니 "지팡이(筇)를 부로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귀거래사〉에, "부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기약할 수 없다. 좋은 때를 아껴서 홀로 가고, 간혹 지팡이를 세워 두고 김을 맨다(耘耔)"라고 했다. 운서韻書를 참고하여 보니, 자耔는 상성上聲이니, 고저자高低字로 통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썼으니 의심할 만하다.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한정부閑情賦〉의 한정閑情은 그윽하고 한가한 뜻을 말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여색女色이란 것은 능히 사람의 심정을 방탕한 데로 옮겨서 돌아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방한防閑(방비, 금지하는 것)한 것이다. 그러나 말이 외설에 가깝다. 양소명梁昭明이 말하기를, "백옥白玉에 작은 흠 같은 실수는 오직 〈한정부〉 한 편에 있다"라고 했다.

《문선文選》의 〈설부雪賦〉에, "희만姬滿(주周나라 목왕穆王의 이름)이 거듭 황죽黃竹을 노래했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목천자전穆天子傳》에 말하였기를, "천자가 황대黃臺 위에 유람할 때, 매우 춥고 눈이 와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천자가 〈황죽시黃竹詩〉라는 시 3장을 지어 애도의 뜻을 보였다"라고 했다.

86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무극無極의 사람. 어려서부터 문자를 잘 알았으며 뛰어난 미인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원소袁紹의 중자中子인 희熙의 아내였으나, 조조曹操가 원소를 격파한 뒤에 문제文帝가 그를 부인으로 삼고, 이어 후后로 했다. 명제明帝와 동향공주東鄉公主를 낳았다. 뒤에 곽후郭后의 질투로 죽임을 당했다. 추시追諡를 문소왕후文昭王后라고 했다.

이상은李商隱의 시에는, “요지瑤池의 왕모王母가 비단 창을 열었는데 〈황죽가黃竹歌〉 노랫소리 땅을 움직여 슬프게 들려오네(瑤池阿母綺窗開 黃竹歌聲動地哀)”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목왕이 이미 왕모와 이별하고, 광야曠野에 사차舍次(숙박함)하다가 동쪽으로 돌아와서 황죽을 노래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과는 같지 않은 것 같다.
《동문선東文選》의 성간成侃의 〈신설부新雪賦〉에는 “황죽黃竹은 한나라의 노래에 거듭 불리었네(黃竹申於漢歌)”라고 하였는데, 목왕穆王을 한나라의 임금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잘못이다.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 말하기를, “무릉茂陵의 서적은 공연히 모았네”라고 한 구절이 있다.
고찰하여 보니, 《한무내전漢武內傳》에 말하기를, “무제武帝가 붕崩하였을 때에 유조에 따라 도서道書 30권을 관 속에 넣어 황금 상자에 저장했다. 뒤에 하동태수河東太守 장순張純이 서적을 올렸다. 선제宣帝가 좌우의 신하들에게 보이니, 무제 때의 전서중랑典書中郎이던 염등冉登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선황先皇의 장사 때에 부장품副葬品으로 썼던 것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선제宣帝가 슬퍼하고 놀라서 그 책을 문제武帝의 사당에 갖다 두었다. 그러나 무릉茂陵은 완연히 예전과 같았다”라고 했다. 유신庾信이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애강남부哀江南賦〉에 말하기를, “용도龍韜를 무장武帳에서 모시고, 아악雅樂의 곡을 문현文絃에서 들었다(侍龍韜於武帳 聽雅曲於文絃)”라고 했다. 차천로車天輅가 주해註解하기를, “음악에는 문무현文武絃이 있다. 몸이 문文·무武 사이를 병진竝進한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주註의 설명이 미진하다. 상고하여 보니, 무장武帳은, “한무제漢武帝가 무장武帳에 앉았다”라고 한 글의 주에, “무장이란 것은 무사의 형상을 짜서 수놓은 천으로 만든 장막이다”라고 했

고, 문현文絃은 악樂에 문왕조文王操라는 것이 있다. 또 《광아廣雅》에 말하기를, "신농씨神農氏의 거문고는 줄이 다섯이었는데, 문왕文王이 두 줄을 더했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하여 친밀하게 시종侍從했다는 뜻을 말한 것일 것이다.

〈애강남부〉에, "형염초무荊艶楚舞"라는 말이 있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해지는 맑은 강물 속에 형가荊歌와 초요楚腰가 곱다(落日晴江裡 荊歌艶楚腰)"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진秦나라 장양왕莊襄王의 이름이 초楚이다. 그런 까닭에 《사기》〈시황기始皇紀〉에는 초楚를 휘諱하여 형荊이라고 했다. 형荊은 즉 초楚이다. 그러니 이 시는 말이 중첩된 것을 면치 못한다.
또 《설부》에 말하기를, "오吳나라의 노래를 시詩라고 하고 초楚나라의 노래를 염艶이라 한다"라고 했다. 초요楚腰(초나라 여자의 춤추는 허리)라는 말은 온당하지 않다.

유자산庾子山의 〈화림부華林賦〉에, "떨어지는 꽃은 수놓은 일산日傘과 가지런히 날고, 양류楊柳는 봄 깃발과 함께 한 빛이다(落花與文盖齊飛 楊柳共春旗一色)"라고 했다. 제齊나라 · 양梁나라 사이에는 이런 격식의 문장이 매우 많아서,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왕자안王子安의, "저녁노을 떨어질 때 외로운 따오기가 가지런히 날아가고, 가을 물은 긴 하늘과 함께 한 빛이로구나(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長天一色)"라고 한 글귀는 실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당시 그를 기재奇才라 하고, 후세에서도 따라 뭇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유천庾闡의 〈양도부楊都賦〉에, "파도 소리는 땅을 흔들고 물결의 기세는 하늘에 닿는다(濤聲動地 浪勢粘天)"라고 했다. 한퇴지의 글에 "동정호洞庭湖가 한만汗漫(대단히 넓은 모양)하여 하늘에 닿아 벽壁이 없다(洞庭汗漫 粘天無壁)"라고 한 것이나, 장우張佑의 시에 "풀빛이 하늘에 닿으니 두견새 서러워라(草色粘天 鶗鴂恨)"

라고 한 것이나, 진소유秦少游의 사詞에, “산은 얇은 구름을 발랐고, 하늘은 쇠잔한 가을 풀에 닿았네〔山抹微雲 天粘衰草〕”라고 한 것은 모두 이 유천庾闡의 시어를 인용한 것이다.

양梁나라 소자운蕭子雲의 부賦에, “장경은 늦게 푸르고, 간자는 가을에 붉다〔長卿晩翠 簡子秋紅〕”라고 했다. 장경長卿은 약藥의 이름이니 서장경徐長卿이라는 풀이다. 《패사稗史》에 보니, “간자簡子는 등藤의 열매로서 붉기가 계관화鷄冠花와 같다”라고 했다.

안지추顔之推의 부賦에, “세정歲精은 한漢나라에 벼슬하고, 풍백風伯은 주周나라에 조회했다〔歲精仕漢 風伯朝周〕”라고 했다. 세정은 동방삭東方朔이다. 풍백은 《패사稗史》에 말하기를, “기성箕星이란 별은 바람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기자箕子를 풍백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말이 새롭다.

왕랑王朗의 〈회구부懷舊賦〉에는 말하기를, “장군이 출새出塞(변방에 수자리하러 나감)하던 대臺이고, 공주가 망향望鄕하던 관館이다”라고 했다. 왕발王勃의 시詩에는, “9월 9일에 망향대에 오른다〔九月九日望鄕臺〕”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장군 왕궤王潰를 보내어 변방을 지키게 하였더니, 왕망王莽이 역적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매, 왕궤가 왕망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감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해 들어갔다. 사졸들이 서로 이끌고 대臺를 쌓아 고향을 바라보는 곳으로 했다”라고 했다. 또 진晉나라 영가란永嘉亂 때에 안양安陽 · 평성平城의 두 공주가 달아나 양하兩河(하남河南과 하북河北)의 경계에 들어가서 민가民家의 아내가 되었는데,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대臺를 쌓고 살게 하면서, ‘공주가 고향을 바라보는 관館’이라고 했다 한다.

노두老杜(두보杜甫를 일컫는 말로, 두목杜牧은 소두小杜라고 함)의 부賦에 말하기를, "구천九天의 구름이 아래로 드리우고, 사해四海의 물이 서고자(立) 한다"라고 했다. 동파東坡의 시에, "하늘 밖 검은 바람이 불어 바다가 선다(天外黑風吹海立)"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의산李義山의 〈괴물부怪物賦〉에 말하기를, "활호씨猾狐氏는 까마귀로 학을 만들 수 있고, 쥐로써 범을 만들 수 있으며, 치우蚩尤[87]를 충성스런 신하로 만들 수 있고, 공공共工[88]을 어진 선비로 만들 수 있으며, 하희夏姬[89]로써 염치를 알게 할 수 있고, 축타祝鮀[90]로써 질박質朴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으며, 한착寒浞[91]에게 절의節義를 타이르고, 모모嫫母[92]에게 미美를 칭찬한다" 운운했다. 아, 괴물의 괴이함이 심하구나. 이의산의 글이 또한 괴이하다.

소자첨蘇子瞻의 〈추양부秋陽賦〉에 말하기를, "어진 공자公子가 있어서 땅 아닌 마을(不土之里)에 집을 짓고 말없는 시(無言之詩)를 된다"라고 했다. 공자는 조영

87 중국 황제黃帝 때 제후諸侯의 한 사람인데, 병란兵亂을 좋아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포학한 행동이 심하여 황제가 토벌하여 죽였다고 한다.

88 요순堯舜 때에 공공씨共工氏가 거칠고 음란하며 일을 게을리했다. 환도驩兜와 삼묘三苗와 곤鯀과 한께 사흉四凶(흉악한 네 사람)이라고 했다.

89 춘추시대 진陳나라 대부大夫의 아내이며 하징서夏徵舒의 어머니다. 정鄭나라 출신으로서 미인이었으나 음분淫奔한 여자였다. 진陳나라의 영공靈公과 그의 대부大夫 공녕孔寧 · 의행보儀行父를 동시에 통간하였으며, 초楚나라가 진陳을 멸망시키고 희姬를 연윤連尹 양로襄老에게 주었다. 양로가 죽으니 또 정鄭나라로 돌아갔는데, 초나라의 신공申公 무신巫臣이 정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하희에게 장가들어 진晉나라로 달아나게 했다.

90 축타祝佗로 쓰기도 한다. 춘추시대 위衛나라 사람. 벼슬이 대축大祝이었다. 공자가 그를 영간佞姦하다고 했다.

91 하夏나라 사람. 처음에 한후백명寒后伯明을 섬기다가 뒤에 예羿가 제위帝位를 찬탈하고 유궁씨有窮氏라고 부르니 착이 그의 정승이 되었다. 얼마 뒤에는 예를 도오桃梧에서 시해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그대로 유궁씨라고 했다.

92 황제黃帝의 제4비妃. 매우 추부醜婦였다. 그러나 현덕賢德했다. 변전하여 추부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치趙令時를 가리킨 것이니, 즉 송나라의 종실宗室이다. 그의 이름이 영치이므로 파자破字하여 말한 것이다. 전田은 리里에 토土가 없는 것이므로 불토지리不土之里이고, 사寺는 시詩에서 언言이 없으므로 무언지시無言之詩라고 한 것이다.

14-6 동문東文(우리나라의 글)

고려 때에 박인량朴寅亮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전대로 회복해 주기를 청하는 표문의 결구結句에 말하기를, "문양汶陽의 옛 밭을 돌려주어,[93] 작은 고을을 어루만져 보전하게 하고, 장사長沙의 좁은 소매를 휘둘러 태평한 때에 춤추게 하십시오(歸汶陽之故田 撫存褊邑回長沙之拙袖[94] 抃舞昌辰)"라고 했다. 또 세상에 전하는 말에, 황제의 복위復位를 축하하는 하표賀表에 말하기를, "넓은 하늘 아래에 해가 다시 중천中天에 비친 것 같다(普天之下 如日再中)"라고 했다. 가정嘉靖 연중年中에 궁인宮人이 모역謀逆하는 것을 체포하여 죽이고, 천하에 조서詔書를 반포했다.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하표賀表를 지어, "일식日食이 있었으나 이지러짐이 없고, 하늘의 그물이 성기건만 새지 않는다(日食旣而無虧 天網疎而不漏)"라고 했다. 대구對句하는 것이 또한 기묘하다.

《승수연담澠水燕談》에 말하기를, "고려 사신 김제金第와 박인량朴寅亮이 사명四明을 경유하여 장차 육지에 올라가려 하다가, 바다의 풍랑 때문에 표류하여 통주通州에 이르렀다. 태수太守에게 치사致謝하는 글에 말하기를, '북두성北斗星을

93 문양汶陽은 땅 이름. 춘추시대에 노魯나라에 속했다. 《좌전左傳》에, "희僖 원년에 공公이 계우에게 문양의 밭과 비땅을 주다(僖元年 公賜季友汶陽之田及費)"라고 한 고사를 인용한 말이다.

94 옛날 장사왕長沙王이 황제의 앞에서 여러 제후들과 함께 춤을 추는데, 팔을 뻗치지 않고 옹졸하게 추니 황제가 왜 소매를 휘두르면서 쾌활하게 추지 않느냐고 했다. 장사왕의 대답이, "장사는 땅이 좁아서 평소에 팔을 뻗치고 소매를 내저을 만한 여지가 없어서 버릇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그의 땅을 넓혀 주었다고 한 고사를 인용한 말이다.

바라보고 배에 올라 처음 우리나라를 떠나서 도원桃源을 지향하다가 길을 잃어 잘못 선향仙鄕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귀산사龜山寺의 시에 '문 앞에 손의 돛대에는 큰 물결이 급하고, 대나무 아래에 중의 바둑은 백일白日이 한가롭다〔門前客棹洪濤急 竹下僧棊白日閑〕'라고 한 등의 글귀는 중국 사람들도 또한 칭찬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김제金第가 김근金覲으로 쓰여 있다.

왕벽지王闢之의 《승수연담》에 말하기를, "고려 사신 박인량이 상산위象山尉 장중張中에게 답하는 시의 서序에 말하기를, '꽃 같은 낯이 곱게 불을 부는데 이웃 여자의 푸른 입술 움직이는 것이 부끄럽고, 상간桑間[95]의 더러운 곡조로 영인郢人 백설白雪[96]의 음률에 잇습니다〔續〕'라고 했다. 신종神宗이 '푸른 입술……'의 출처를 물으니 좌우에 있던 신하들 모두 대답하지 못했다. 장원로張元老가 아뢰기를,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불을 부는 것을 보고 시를 지어 주기를, 불을 부니 붉은 입술이 움직이고, 땔나무를 지필 때엔 옥 같은 팔이 비낀다. 멀리서 연기 속의 낯을 보니 꼭 안개 속의 꽃 같구려〔吹火朱脣動 添薪玉腕斜 遙看烟裏面 恰似霧中花〕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집의 여자가 그것을 본받으니, 남편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불을 부니 푸른 입술이 움직이고, 땔나무를 지필 때엔 검은 팔이 비낀다. 멀리서 연기 속의 낯을 보니 꼭 구반다[97] 같구나〔吹火青脣動 添薪黑腕斜 遙看烟裏面 恰似鳩盤荼〕 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니, 구반다鳩盤荼는 불교 용어로 옹기 모양〔甕形〕이란 말이고, 또 염귀魘鬼라는 말이다. 아내를 두려워함을 구반다처럼 한다는 뜻이다. 본래 당나라 배담裴談의 일이다. 나는 말한다. 박인량의 문사文辭가 비록 좋으

95 음란하고도 사치한 음악의 이름. 상간복상桑間濮上이라고도 한다. 정위鄭衛의 음악.

96 〈백설곡白雪曲〉을 말한 것. 거문고의 가곡으로서 고상한 곡조이다. 고래古來로 창화唱和하기 어려운 곡조로 일러 온다. 〈백설가白雪歌〉라고도 한다.

97 형체가 보기 싫은 일종의 악신惡神. 후세에는 추부醜婦를 일컬음.

나《소설小說》의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인용한 것은 좋지 못하다.

이규보李奎報의 〈광변狂辨〉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용모나 언어가 사람 같으며, 갓 쓰고 띠를 띠고 옷차림한 것이 사람 같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벼슬에 올라 공사公事를 처리하게 되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눈을 거꾸로 하고 듣는 귀를 바꾸어서 현란함이 서로 덮어서 마침내 굴러 넘어진 뒤라야 그치게 된다. 이것은, 겉모습은 비록 의젓하나 속은 실로 미친 자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미친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미친 사람보다 더 심한 데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겉모양만 보고 내면內面은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 자들의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 기리는 일, 헐뜯는 일들이 이 따위인 것이로구나.

고찰하여 보니, 이규보가 좌사간左司諫으로 나가서 계양부사桂陽副使가 되고, 1년 만에 예부낭중禮部郎中으로 소환되었다. 계양桂陽은 지금의 부평부富平府로서 개성開城에서 물 하나를 가운데에 둔 가까운 곳이다. 그런데 그의 〈사표謝表〉에 말하였기를, "과연 바람과 물결 같은 헐뜯음에서 빠져 나와 독기를 품은 산 기운과 바다의 기운이 서린 변방의 고을을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조강부祖江賦〉에서는 장사長沙의 비습卑濕한 풍토에 견주기까지 하여, 근심하고 슬퍼함이 대단하기가 마치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했다. 사람됨이 가볍고 조급함을 상상할 수 있다. 그가 마침내 권신權臣에게 아첨해 붙어서 높은 벼슬을 도박賭博질한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

김모재金慕齋(김안국)가 태묘太廟의 재災를 위문하는 표문에 "마땅히 인애仁愛한 마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倘出於仁愛之心)"라고 한 구절이 있었다. 평하는 이가 말하기를, "당倘이라는 글자가 타당하지 않으니 혹或 자로 바꾸라"라고 했다. 모재慕齋가 마지못하여 그대로 따랐더니, 중국의 예부관禮部官이 보고 말하

기를, “표사表辭가 매우 좋으나 오직 혹或이란 글자가 온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모재가 듣고 말하기를, “조정이 나의 말을 듣지 않더니 과연 어떤가”라고 했다. 선왕조先王朝의 〈사표류인표謝漂流人表〉에, “탈사脫死”라고 한 탈脫을 잘못 탈奪이란 글자로 써 넣었는데, 이미 발송한 뒤에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당해 관원과 사자관寫字官 등은 모두 처벌되고, 고쳐 써서 추송追送했다. 또 〈사은표謝恩表〉의 짧은 글귀에 말하기를, “직분이 번병藩屛을 지킨다(職守藩屛)”라고 하였는데, 병屛이란 글자를 평음平音(낮은 글자)으로 잘못 사용하였으므로 사신 신식申湜이 의주에 이르러서 품계하고 곧 번병을 병번屛藩으로 고쳐서 보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번병을 병번이라고 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의정議政 상진尙震이 죽은 아들에게 한 제문祭文에 말하기를, “전년에는 네가 아들을 잃더니, 금년에는 내가 너를 잃었으니 부자父子의 정情이란 것을 네가 먼저 알았을 것이다. 아아, 슬프다”라고 했다. 말은 간략하나 뜻이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병명甁銘(병에 새긴 경계하는 글)에, “너의 마음을 열어서 짐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啓乃心 沃朕心)”라고 한 것이 있다. 좋다.

임진년壬辰年에 임금의 행차가 의주義州에 가 있었다.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이 교서敎書를 지어 선비와 백성들을 타일렀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잠깐 움직이더니 변방의 땅에는 추위가 일찍 오는구나. 땅을 얽어 받드는 밧줄(地維)이 이미 다하였으니 나는 장차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저 장강長江 또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니,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한 가지 생각은 저 강물처럼 도도하구나” 했다. 말과 뜻이 간절하여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문장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쉬움이 이와 같다.

최입崔岦이 지은 〈하동지표賀冬至表〉에 말하기를, “땅 속의 양기陽氣가 드디어 움직이니 계절은 소춘小春이 돌아오고, 천하가 경사스러움을 같이하니 의식은 원회元會(설날 아침 조회朝會)에 비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춘은 10월이다. 구양공歐陽公의 사詞에 말하였기를, “시월 소춘에 매화 봉오리가 터진다(十月小春梅蘂綻)”라고 했다. 아마 매화의 눈이 처음 터진다고 해서 소춘이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최입이 동지를 소춘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회원檜原 황신黃愼이 병신년에 명나라의 장수 심유경沈惟敬의 접반관接伴官으로 부산釜山의 왜영倭營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적賊의 가운데에 있었으며, 또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가서 위태롭고 곤란함이 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금도 겁내는 빛이 없었으며, 마침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의 바다에 맹세한 글에 말하기를, “승냥이와 범의 소굴 속에서 이미 2년 동안 절개를 유지했고, 이무기와 용의 굴 위에 또 8월의 뗏목을 탄다. 몸을 버리는 것을 감심甘心하게 여김을 머리를 조아리며 스스로 맹세한다. 아무개는 나라가 어지러워 흔들리는 때를 만나서 나라의 부림을 받아 힘을 다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비록 험조險阻와 간난艱難을 갖추 맛보았으나, 주리州里와 만맥蠻貊에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충심衷心의 붉은 정성이 변하지 않음을 힘입어, 위로 하늘에 물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수천 리의 길을 다니는 고역苦役을 어찌 감히 한 터럭만큼인들 노고勞苦함을 꺼리겠는가. 30년 동안 공부한 것은 바로 오늘에 힘을 얻어야 마땅한 것이다. 진실로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이利 되게 할 수 있다면 죽음도 또한 사양치 않겠지만, 만약 왕명을 욕되게 하고 몸가짐에 절개를 잃는 일이 있다면, 살아서 또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운운했다. 말이 매우 정간精懇하고 공교工巧하다.

14-7 문예文藝

《예문치언藝文巵言》에 말하기를, “삼대三代 이후의 임금으로서 문장의 아름다움이 한무제漢武帝 · 위문제魏文帝를 넘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는 한문제漢文帝 · 광문제光武帝, 진晉나라의 간문제簡文帝, 송나라의 문제文帝, 원위元魏의 효문제孝文帝, 진陳나라의 후주後主, 당唐나라의 문황文皇 · 명황明皇 · 문종文宗, 남당南唐의 후주後主, 촉蜀나라의 왕연王衍 · 맹창孟昶, 송나라의 휘종徽宗 · 고종高宗 · 효종孝宗이다. 그리고 저작이 왕성하기는 소량蕭梁의 부자父子만 한 이가 없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양무梁武는 《경의통사經義通史》 등 2,000여 권을 지었고, 원제元帝는 《금루자金樓子》 등 400권을 찬술하였으며, 소명태자昭明太子는 《고금문선古今文選》 등 80권을 편찬하고, 간문簡文은 《노장대의老莊大義》 등 600여 권을 찬술했다. 역시 많기도 하다.

한漢나라 〈채옹전蔡邕傳〉에 말하기를, “옛날부터 글을 팔아먹기는 채옹蔡邕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했다. 또 당나라의 이옹李邕은 비송碑頌을 잘 지었는데, “글을 비는 사람들에게서 돈과 명주를 받아들인 것이 여러 만금萬金이 되었다”라고 한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간알干謁(사사로운 청탁으로 알현을 청하는 일)하는 자는 그의 문門에 달려가고, 비판碑板(빗돌에 새긴 글)은 나라의 사방 끝까지 비치네. 좋은 집에 산호 고리를 달았으며, 털로 짠 방석에는 기린을 수놓았네. 붉은 빛 준마駿馬에 칼과 책상도 따라오니 의로써 받는 것이 빈 해가 없네(干謁走其門 碑板照四裔 豐屋珊瑚鉤 麒麟織成罽 紫騮隨劒几 義取無虛歲)”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전후前後에 같은 옹邕의 일이나, 이옹李邕이 글을 판 것이 채옹蔡邕보다 더욱 더했다.

옛날에 왕융王融이 유효작劉孝綽에게 말하기를, “천하의 문장이 만약 내가 없었다면 당연히 아사阿士(유효작의 어릴 때 이름)에게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했다.

구영국丘靈鞠은 남들이 심약沈約의 문장이 진보한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나의 문장이 아직 진보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가"라고 했다. 두심언杜審言은 심무沈武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래도록 공公 등을 누르고 있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옛날부터 문인文人의 자긍이 이와 같으니 이미 그 자체가 가소로운 것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겨우 말을 붙여 만들 줄 알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앞설 사람이 없다고 하여 망령되이 옛사람에게 비교하니 또한 가소롭지 않은가.

진晉나라 유진劉臻의 처妻 진씨陳氏는 원일元日에 〈초화송椒花頌〉을 올렸고, 당唐나라의 진사進士 장창령張昌齡은 〈취미궁송翠微宮頌〉을 올렸으며, 두보杜甫는 〈삼례부三禮賦〉를 올렸고, 유안劉晏은 8세 때에 〈하청송河淸頌〉을 올렸으며, 유종원柳宗元은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평회서이아平淮西夷雅〉를 올렸다. 대체로 옛날에는 비록 부녀자나 어린이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나, 귀양살이하는 관원일지라도 모두 문장으로써 스스로 진달進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에 회남淮南에서 최숙청崔叔淸이 시 100편을 올리니, 덕종이 말하기를, "이 졸작拙作인 시를 어째서 올렸는가"라고 하니 그때 세상에서 그 시를 '칙명勅命에 의거한 악시惡詩'라고 했다고 한다. 그 악시도 오히려 임금께 바칠 수 있었으니, 하물며 좋은 시이겠는가. 들으니 우리나라 성묘조成廟朝에 조위曹偉 · 유호인俞好仁은 외임外任으로 있으면서 세초歲抄[98]에는 지은 시문을 올리도록 명령하니, 당시의 세상에서 영광으로 여겼다. 지금은 오직 독서당讀書堂의 관원만이 삭계朔啓(매월 초하룻날에 지은 글을 올리는 일)하는 일이 있는 이외에는 이러한 관례는 없다.

고찰하여 보니, 두자미杜子美는 나이 40세에 진사進士가 되었으나, 대과大科

98 해마다 6월과 12월에 관원의 정기적인 이동을 행하고, 관원의 죄과罪科를 징계하며 아울러 특히 권장 · 상찬할 만한 일도 조사 보고하게 하여 권장 · 표상하는 일.

에 급제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부賦 3편을 올려서 제대집현원制待集賢院이 되었다. 그의 불우함이 매우 심했다. 그렇건만 아뢰기를, "신臣의 저술이 비록 육경六經이 침울돈좌沈鬱頓挫한 데 이른 것을 고취하여 흥기興起시키는 데에는 부족하나, 때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양웅揚雄·매고枚皐에게 따를 만합니다. 신에게 이러함이 있으니 폐하께서 어찌 차마 버리시겠습니까"라고 했다. 스스로 허락함이 또한 매우 높다. 《당예문전唐藝文傳》에 말하기를, "두보杜甫는 성질이 조급하며 오만하고 방탄放誕하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이백李白은 거만한 뼈가 있어서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인에게는 거만한 예例가 많다. 그리고 이백과 두보는 더욱 심했다. 그들이 마침내 뜻이 크고 방탄하였을 뿐, 떨치지 못한 것은 대체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황보식皇甫湜이 복선사福先寺의 비문碑文을 지었다. 배도裴度가 수레와 말과 비단을 보내준 것이 매우 후하였건만, 식湜이 크게 성내어 말하기를, "비碑의 글자가 3,000자이다. 1자에 비단이 3필씩이니 어찌 나를 대우함이 이렇게 박하단 말인가"라고 하니, 배도가 비단 9,000필로 보수했다고 한다. 설령 지금 사람으로서 지은 글이 비록 한 글자에 만금萬金의 값어치가 있은들 누가 윤필潤筆(재물로 남의 글이나 그림의 노고를 보수하는 일)하겠는가. 선비가 지금 세상에 난 것은 박행薄行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본래 글을 팔아서 생활한다〔本賣文爲活〕"라고 했고, 소시蘇詩에는 "밭이 없어서 깨진 벼루로 먹고 산다〔無田食破硯〕"라고 했다. 대체로 옛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본래 세상에 쓰고자 한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몸을 길러 갈 자료로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풍습은 재화才華(뛰어난 재주)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 현존한 사람으로서 차오산車五山·임소암任疎菴 같은 이가 글을 지어도 1전錢도 벌지 못하여 항상 밥이 부족

한 한탄이 있으니, 비록 깨진 벼루가 있은들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한限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슬퍼한다.

온정운溫庭雲의 자字는 비경飛卿이니, 또한 정균庭筠이라고도 한다. 옛 이름은 기岐이다. 재주와 생각이 아름답고 고우며 소부小賦를 잘 지었다. 매번 과시科試에 들어가서 부賦를 짓는데, 무릇 여덟 번 손을 교차하면 팔운八韻이 이루어진다. 과거 응시자를 위하여 대작代作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진신搢紳(지위가 높고 점잖은 이들)이 그를 가볍게 여겼다. 대체로 율부律賦는 8운韻이므로 한 번 손을 교차할 때마다 1운씩 지었던 것이다.

영호도令狐綯가 고사故事를 물으려고 온정균溫庭筠을 찾으니 대답하기를, "그 일은 《남화경南華經》에 나오는 것입니다. 궁벽한 책도 아니니 상공相公은 정사政事하는 여가에 잠깐 고전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도綯가 성내어 임금께 아뢰기를, "정균은 재주는 있으나 덕행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마침내 급제하지 못했다. 도綯는 어진 정승으로서 남을 질투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건만 정균이 재주 때문에 배척당하였으니, 그 밖의 다른 사람이야 더욱 무엇을 말하겠는가. 전조前朝 때에 임춘林椿·오세재吳世才가 불우한 채 몸을 마친 것도 다 이 재주라는 것 때문이다.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고하여 보니, 정균이 영호도의 학문 없음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중서당中書堂 안에 장군이 앉아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 경박함이 지나치다.

두목지杜牧之가 《이하집李賀集》의 서문을 지어 말하기를, "이하李賀로 하여금 잠시 노복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여서 소인騷人으로 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마 소인騷人을 노복으로 명한다는 것 같다. 《북몽쇄언北夢瑣言》에, "노복소인奴僕騷人"이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더욱 명백하다.

범진范鎭이 말하기를, “구양영숙歐陽永叔은 문장을 자랑하지 않았고, 채군모蔡君謨는 글씨를 자랑하지 않았으며, 사마군실司馬君實은 청렴하고 검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대체로 가득 차면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보니, 세상 사람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 어찌 오직 옛사람만이 그러했겠는가.

《순자荀子》에 “재예才藝의 최선의 것은 2가지를 겸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詩와 문文과 서書(글씨)와 화畫(그림)의 4가지는 고금을 통하여 이것을 겸전한 이가 드물다. 오직 송나라의 소자첨蘇子瞻은 가장 잘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만 성당盛唐의 시詩와 서경西京(서한西漢)의 문文과, 진晉나라의 종요鍾繇·왕희지王羲之의 글씨와, 진晉나라 고개지顧愷之, 남송南宋의 육탐미陸探微의 그림과 비교하면 어떠할지 알지 못하겠다. 혹은 아마 환태위桓太尉(진晉나라 환현桓玄)가 유사공劉司空(송나라의 유유劉裕, 즉 무제武帝)과 매우 같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나의 병病은 뜻을 모두 말하고 고사를 인용할 때 교묘한 것을 좋아하는 데 있다. 뜻을 모두 말하고 고사를 인용하는 데 교묘하려면, 격식에 증감이 없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시詩는 당나라의 원진元稹·백거이白居易, 혹은 만당晩唐의 이상은李商隱이나, 근대의 시에 떨어짐이 있고, 문文은 육조六朝, 혹은 당唐·송宋의 문에 떨어짐이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감주 같은 이로서도 스스로 모자란다고 함이 이와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만에 하나 만큼도 왕감주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함이 너무나 지나친 것은 자기의 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서唐書》〈예문지藝文志〉에, 최치원崔致遠의 사륙문 1권,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 실려 있다. 주註하기를, "고려 사람이니 빈공급제賓貢及第[99]로서 고변高駢의 종사從事가 되었다"라고 했다. 아마 《당서唐書》가 송나라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라를 고려라고 하였을 것이다.
또 최치원이 장차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동년同年(같은 해에 함께 급제한 사람) 고운顧雲이 〈유선가儒仙歌〉라는 시詩를 지어 주었는데 그 시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 "열두 살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문장으로 중화국中華國을 감동시켰네." 그가 중국 사람들에게 추중推重됨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토황소격討黃巢檄〉이라는 글이 사적史籍에 실리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고증하여 보니, 최해崔瀣의 글에 말하기를, "최치원이 18세 때에 함통咸通 15년의 과거에 급제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상고하여 보니, 함통이라는 연호는 14년에 그쳤다. 그 설이 잘못이다.

전조前朝 때의 임춘林椿의 글재주는 한 시대의 거벽巨擘(엄지손가락, 즉 뛰어난 인물)으로서, 사륙체의 문장은 넓고 크고 웅장하고 건전하여 더욱 독보적이라고 일컬었다. 본조本朝에서는 오직 차천로車天輅만이 그와 나란히 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마침내 명성을 올리지 못했다. 그가 스스로 시를 지어 말하기를, "과거에 급제하는 일은 나은羅隱 같은 문장으로도 합격하지 못한 한恨을 해소하기 어렵고, 〈이소離騷〉의 훌륭한 문장도 공연히 굴평屈平의 슬픔만 부쳤네(科第難消羅隱恨 離騷空寄屈平哀)"라고 했다. 진실로 슬퍼할 만하다. 상고하여 보니, 이인로李仁老가 제문祭文을 지어 말하기를, "청춘 30살에 백의白衣(벼슬하지 않은 사람)로 영면하였네(靑春三十 白衣永沒)"라고 했다. 또한 일찍 죽었던 것이다.

부자父子가 일시에 드러난 벼슬을 한 사람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나 대대로 문장이 된 사람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반표班彪와 반고班固,

99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한 것. 빈공과는 당나라 과거제도의 하나로서, 외국인이 보는 것이다. 당시 신라 사람이 많이 응시했다고 한다.

유견오庾肩吾와 유신庾信의 부자, 그리고 두심언杜審言과 두보杜甫의 할아버지와 손자, 소순蘇洵과 소식蘇軾 · 소철蘇轍의 3부자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오직 이곡李穀과 이색李穡의 부자 이외에, 본조에서는 신숙주申叔舟와 그의 손자 용개用漑 · 광한光漢, 성현成俔과 성세창成世昌 부자가 서로 이어 문형文衡(대제학)을 맡았을 뿐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문인文人들이 서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하다. 백낙천白樂天(백거이)과 장우張祐가 서로 나무라고 헐뜯었으며, 김부식金富軾과 정지상鄭知常은 서로 시기하고 틈이 있었던 것은 모두 서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서사가徐四佳(서거정)는 강진산姜晉山(강희맹)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정호음鄭湖陰(정사룡)은 번번이 신기재申企齋(신광한)를 헐어서 말했다. 이아계李鵝溪(이산해)는 최간이崔簡易(최입)가 졸렬한 시를 짓는다고 말하고, 간이는 아계의 시를 뼈가 없다고 나무랐다. 혹시나 각기 보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고의로 서로 깎아 낮춘 것일까.

홍귀달洪貴達이 처음에 문한文翰의 벼슬을 하니, 남들이 그를 가볍게 여겨 말하기를, "천하에 가소로운 일은 홍귀달이 문장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뒤에 대제학大提學이 되었으며, 문집이 있어서 세상에 전한다. 그러나 그의 시문은 역시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김모재金慕齋(김안국)가 대학사大學士가 되었을 때, 나들이할 때는 반드시 책을 가지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의심 나는 뜻을 강론하여 그치지 않았다. 그가 묻고 배우는 일에 독실함이 이와 같았다. 매번 사대事大하는 표문表文을 찬술할 때엔 혼자 있으면서 구상하고 생각하여 한 좋은 글귀를 구성하게 되면 비록 밤중이라도 문득 일어나서 창문이나 벽을 손으로 두드리며 좋아서 뛰는 일을 마지않았다. 뒤에 병중病中에서 표문을 지어 내느라고 마음을 지나치게 써서

드디어 기력을 잃고 그대로 졸卒했다고 한다. 아, 글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족할 뿐이다. 생명을 손상하는 데 이르게 함은 또한 지나친 일이다.

임소암任疎庵 숙영叔英은 문장이 기고奇古(뛰어나고 예스러움)하다. 그의 〈정대책庭對策〉은 전대前代에 없는 바이며, 변려문騈儷文은 오로지 육조체六朝體를 배웠다. 일찍이 〈통군정야연서統軍亭夜宴序〉를 지었더니, 중국 사람이 등사해다가 중국에 전파하니, 각로閣老 섭향고葉向高가 보고 기이하게 여겨 그의 전집을 사 갔으며, 시랑侍郎 손여우孫如游는 서적을 기증하여 왔다. 그들의 추중推重함이 이와 같았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문장을 지으면 문득 곧 간행하여 세상에 편다. 대체로 좋은 일에서 출발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옛글을 보태고 빼고 하여 자기의 이름을 몰래 써 넣어 생활의 자료로 하는 것은 가장 가소로운 일이다. 전조의 이규보李奎報와 본조의 서거정徐居正·강희맹姜希孟의 문집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또한 중국 사람이 인간印刊하여 세상에 행하여졌다고 한다.

세상에서는 항상, 시詩는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당나라 때 사걸四傑과, 이백李白·두보杜甫·맹호연孟浩然·맹교孟郊·가도賈島, 이들은 진실로 시인으로서 궁한 자들이다. 문文에도 또한 궁한 자가 있다. 사마천司馬遷·양웅揚雄·반고班固의 무리가 그것이다. 혹시나 물상物象을 아로새기고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여 조물주의 깊이 꺼리는 바가 된 것이나 아닐까. 그러나 때로는 시인이나 문인으로서 궁하지 않은 자도 있다. 장열張說·소정蘇頲·이신李紳·권덕여權德輿 등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지은 시문詩文에는 스스로 부귀의 기상이 있기 때문인가. 또 혹은 궁한 자들처럼 전공專工하지 못하였기 때문인가. 아, 문장이 사람을 이利 되게 하지 않음이 이와 같건만 다시 뒤따르는 자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권9

15. 문장부文章部-2

15-1 시詩

《대대례大戴禮》에 말하기를, "황제黃帝의 악樂을 운문雲門이라 하고, 악장樂章을 시詩라고 한다. 《우서虞書》에 말하기를, '시詩는 뜻을 말한 것이고, 가歌는 말에 가락을 붙여 길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시詩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오언五言은 이능李陵과 소무蘇武에게서 시작되었고, 칠언七言은 한무제漢武帝가 백량대柏梁臺[1]를 낙성하고 군신群臣들과 함께 칠언시를 지은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사언四言은 한漢나라의 위맹韋孟이 처음 지었고, 육언六言은 한漢나라의 곡영谷永이 처음 지었으며, 삼언三言은 진晉나라의 하후담夏侯湛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오언五言은《서경》〈오자지가五子之歌〉편에서 시작되었고, 칠언七言은 〈모선지요茅仙之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

나는 말한다. 오언五言은 순가舜歌(제순帝舜의 노래, 태평의 노래)의 원수총좌재元首叢脞哉(임금이 자질구레하고 통일성이 없음)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고, 칠언七言은 〈격양가擊壤歌〉[2]의 "제력하유어아재帝力何有於我哉(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

1 대臺의 이름. 한무제漢武帝가 지은 것. 원정元鼎 2년 봄에 이 대를 지었는데, 장안長安 성중 북문 안에 있었다. 향백香柏으로 대마루를 했다고 한다. 이 대가 낙성되었을 때에 무제가 거기에 술잔치를 열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 시를 창화唱和하였는데, 칠언시七言詩를 지을 수 있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지은 시가 칠언연구七言聯句의 시초로서 칠언고체七言古體의 권여權輿이며 후의 연구連句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여기에서 시작된 시체를 백량체柏梁體라고 한다.

2 양壤이라고 하는 유희 도구를 치며 부른 노래. 중국 제요帝堯 때에 천하가 태평하니 한 노인이 배부르게 먹고 〈격양가〉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러하다. "해 돋으면 일어나고 해 지면 쉰다네.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 갈아서 밥 먹네. 임금의 힘이 내게 무엇을 준단 말인가."

가)"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시 300편에 이르러서는 그 가운데에 오언 · 칠언 · 사언 · 육언 · 삼언의 각 체體가 구비해 있다. 또 《시경》〈노령盧令〉편에 있는, "노령령盧令令 기인미차권其人美且鬈(사냥개 방울 소리 딸랑딸랑, 그 사람 아름답고 수염도 멋지네)"라고 한 글귀는 바로 삼오언三五言이다. 옛 시 가운데 삼오칠언三五七言은 또한 이것을 본받은 것이 아닐까.

서경西京의 문文은 무제武帝 때에 이르러 성대盛大했다.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사부詞賦로, 사마자장司馬子長(사마천司馬遷의 자字)은 《사기》를 지은 재주로, 동중서董仲舒는 유학儒學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그러나 시詩에 이르러서는 소무蘇武와 이능李陵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능은 이광李廣의 손자이고, 소무는 소건蘇建의 아들이다. 모두가 장군의 집안에서 나서 능히 오언시五言詩의 조사祖師가 되었으니 위대하다.

당唐나라 사람들은 시를 지을 때 《문선文選》에서 취재한다. 그런 까닭에 자미子美의 시에 《문선》의 말을 사용한 것이 많다. 그가 말하기를, "일찍부터 《문선》의 이치에 좇았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백李白 같은, 대적할 사람 없는 재주와 무리에서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러서는 마땅히 스스로 한 시격詩格을 만들어 낼 것이며, 예전 작품에 조금도 의지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고시유원古詩類苑》과 《옥대신영玉臺新詠》을 보면, 그 악부樂府의 제목은 거의 모두 그것을 본받았으며, 용어도 눌러쓴 것이 많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서경西京과 건안建安(동한東漢의 건안연간建安年間)의 시문은, 쪼고 다듬는 것으로써 그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는 익히는 데에 전심하고 생각을 모아 깊이 생각함을 오래하면 신神과 심경心境이 합치하여 홀연히 생각이 오고, 저절로 이루어져서 찾아야 할 갈림길이나 계제階梯도 없고, 지칭할 만한 소리도 빛도 없게 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홀로 서경西京 ·

건안建安의 시문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글은 다 그러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아니면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시법원류詩法源流》에 말하기를, "시詩라는 것은 덕성에 근원을 두고, 재주와 정情에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마다 심성心聲(마음의 소리)이 같지 않은 것은 얼굴 모습이 같지 않음과 같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시의 법도는 배울 수 있으나 신의神意(신령한 의사)는 배울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엄우嚴羽가 말하기를, "선도禪道는 오직 묘오妙悟(심상한 경지를 초월한 깨달음)에 있다. 시도詩道도 또한 묘오에 있다. 오직 깨닫는다는 것은 시 본래의 면목面目이다. 그러나 깨닫는 것에 얕고 깊음이 있고, 분수와 한계가 있다. 철저한 깨달음이 있고, 일지반해一知半解(아는 것이 적고 정확하지 못함)의 깨달음이 있다. 한漢나라 · 위魏나라의 일은 너무 오래니 그만두고라도, 사령운謝靈運에서 성당盛唐에 이르는 여러 시인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이다. 그 밖에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있으나 최선의 시인들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시평詩評에 말하기를, "맹양양孟襄陽(맹호연孟浩然)의 학력學力은 한퇴지韓退之보다 아주 멀리 아래에 있으나 그의 시가 홀로 한퇴지의 위에 뛰어난 것은 오직 한 가지 신묘한 깨달음 때문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학력이 풍부하기는 진실로 어렵지만 신묘한 깨달음을 지니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했다.

왕기王沂가 말하기를, "시가 당나라에 이르러서 고조古調(옛 곡조)는 없어졌다. 그러나 당나라의 가락이 있어서 오히려 관현管絃에 담아 노래할 만했다. 송나라 사람들은 시詩에서 이론을 주로 하고 곡조는 힘쓰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나라 가락도 또한 없어졌다. 황진黃陳의 시는 두보杜甫를 본받아서 대가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의 시는 곡조가 매우 어려워서 향기와 광채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신묘神廟에 들어가서 흙이나 나무로 해골을 만들어 앉히고 사

람과 같은 갓과 옷을 입혀 놓은 것 같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송나라 사람들이 이론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이理를 논한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뿐 사람들은 다시 시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 말은 마땅히 깊이 반성해야 하겠다.

섭몽득葉夢得이 말하기를, "시詩라는 것은 사물에 접촉할 때에 생기는 감흥에 붙여 자신의 성정性情을 음영吟咏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글의 짜임새와 수식에만 힘쓰는 이가 많다. 그런 까닭에 언어는 비록 교묘하게 짜여 있으나 담담하여 맛이 없어서, 사람의 의사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유공부劉貢父가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이 시를 짓는 것은 힘을 헤아려 공부에 힘쓰고 전심하여 생각하는 일을 수십 년 한 뒤라야 가家라고 이름한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은 시에 대해 오랜 동안의 공력을 쌓음이 없이 스스로 가家라고 이름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가소롭다고 하겠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시詩라는 것은 뜻을 주로 하고 또 모름지기 편篇 가운데서는 구句를 다듬어야 하고, 구句 가운데서는 글자를 다듬어야 비로소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은 이른바 '1,000번 다듬어 구句가 되고 100번 다듬어 글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다섯 글자의 한 글귀를 이루는 데 일생의 심력을 다 바쳤다(吟成五字句 用破一生心)" 하고, 또 "안安이란 글자 한 자를 얻기 위해 몇 낱의 수염을 비벼 끊었던고(吟安一箇字 撚斷幾莖髭)"라고도 했다. 시를 짓기 어려움이 이와 같은 것이다.

시詩는 함축含蓄(깊은 뜻을 간직함)이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상등上等이

고, 다듬고 새겨 괴이하고 험난한 것은 하등下等이다. 이의산李義山 같은 이는 그 시가 아름다우나, 깎고 찍음이 너무 심해서 이른바, "7일에 혼돈混沌이 죽었다"[3]라고 하는 것이다. 이장길李長吉의 시는 기묘하다. 그러나 현란하고 환혹幻惑(눈을 어리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함)이 너무 심해서 이른바 "낭묘廊廟에 베풀면 해괴하다(施諸廊廟則駭矣)"라고 하는 것이다.

엄우嚴羽가 말하기를, "율시律詩는 고시古詩보다 어렵고, 절구絕句는 팔구八句보다 어려우며, 칠언율七言律은 오언율五言律보다 어렵고, 오언절구五言絕句는 칠언절구七言絕句보다 어렵다"고 했다. 진실로 그러하다.

엄의嚴儀가 말하기를, "성당盛唐 때 제공諸公의 시는 오직 흥취만 있을 뿐, 찾아볼 수 있는 자취가 없음이, 공중空中의 소리 같고, 상중相中의 빛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물상物象 같다"고 했다. 잘 형용했다고 할 수 있다.

양만리楊萬里가 말하기를, "태백太白의 시는 선옹仙翁(신선인 늙은이)이나 검객劍客(굴원屈原 일파의 문사文士)의 말 같고, 소릉少陵의 시는 아사雅士(아존한 선비)나 소인騷人(굴원 일파의 문사)의 말 같다. 문文에 비한다면 태백의 것은 《사기史記》 같고, 소릉의 것은 《한서》 같다"라고 했다. 이 말은 잘 비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장자》의 〈응제왕應帝王〉편에 나오는 말이다. 남해의 제帝를 숙儵이라 하고, 북해의 제를 홀忽이라고 하며, 중앙의 제를 혼돈混沌이라고 한다. 숙儵과 홀忽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서로 만나니 혼돈이 매우 융숭한 대접을 했다. 숙과 홀이 혼돈의 은덕에 보답하기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쉬고 하는데, 이 혼돈만은 그것이 없으니 우리 시험 삼아 뚫어 주자" 하고,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더니 7일 만에 혼돈은 그만 죽어버렸다"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여, 시詩는 자연스럽고 천성天成으로 되게 해야 하고, 너무 깎고 다듬으면 도리어 죽은 시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시인옥설詩人玉屑》에 말하기를, "당나라 말기 사람들의 시詩는 격조와 운치가 비록 낮고 얕으나, 그것을 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사람들의 시는 비록 글귀의 말은 헌앙하나, 다만 멀리서 들어서 그럴듯할 뿐, 그 문리文理는 거의 고구考究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단안斷案이 되기에 넉넉하다.

송나라의 장계張戒가 말하기를, "유주柳州의 시는 정순精純하나 한퇴지의 변화하는 형태가 100가지로 나타나는 것만 못하다. 한퇴지로 하여금 변화를 거두고 유자후柳子厚처럼 하게 하라면 그것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유자후로 하여금 열고 터서 한퇴지처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의미는 배울 수 있으나 재기才氣는 억지로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전배前輩가 말하기를, "목전目前의 경물景物에 대하여는 예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몇 사람이나 읊고 지나간 길이 있다.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도습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전편全篇을 모두 읽어 보아야 한 구句도 알아볼 만한 것이 없다. 아마 새롭게 하고자 하여 도리어 깨우치지 못한 것일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 짓는 사람은 마땅히 이 병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나라 사람이 시를 지을 때에는 오로지 뜻(意)과 감흥感興을 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이 많지 않다. 송나라 사람이 시를 지을 때에는 오로지 고사를 인용하는 것을 숭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뜻과 감흥은 적다. 소황蘇黃(소식蘇軾과 황정견黃庭堅)에 이르러서는 또 불교의 용어가 많아서 힘써 신기新奇하게 했다. 그것이 시격詩格에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근세에는 이 폐단이 더욱 심하게 되어, 시 한 편 가운데에 고사를 인용한 것이 반을 넘으니, 옛사람의 글귀나 말을 표절한 것과 거리가 거의 멀지 않다.

시구 속의 어록에 노두老杜와 같은 이는 유저有底 · 차막遮莫 · 생증生憎 · 불분

不忿 등의 말을 사용했고, 이백李白은 내가耐可 · 아나阿那 · 사개似箇 등의 글자 따위를 썼으며, 백낙천白樂天에 이르러서는 더욱 즐겨서 사용했다. 이것을 가지고 더듬어본다면 다만 시詩만이 아니다. 《상서尙書》 속의 고문誥文에는 시속의 말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풀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대체로 고문의 문체가 본래부터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시를 지을 때 경서經書의 말 쓰기를 좋아하는 것도 또한 한 병이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서 《논어》〈자장子張〉에 있는 "치원공니致遠恐泥"라는 말을 인용하여 "고원高遠한 것을 이루는 데 생각이 이체泥滯(통하지 않는 것)할까 두렵다(致遠思恐泥)"라고 한 것이 있다. 소동파가 말하기를, "이 시는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평론은 지극히 공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옛사람의 작품에 대하여 그 흠이나 병을 감히 논의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옛사람의 작품에 대하여 결점을 지적하는 일이 있으면 당장에 그를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이라고 꾸짖는다. 무슨 까닭인가. 진후산陳后山은 말하기를, "구양영숙歐陽永叔은 두시杜詩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소자첨蘇子瞻은 사마천의 《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평론을 보면 소자첨은 홀로 사마천의 《사기》만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두시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대경羅大經이 말하기를, "옛사람은 학문으로써 시詩를 하고, 지금 사람은 시詩로써 학문을 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로써 학문을 하는 자는 시에 뜻이 있는 사람이고 학문으로써 시를 하는 자는 시에 뜻이 없는 사람이다. 의사가 있고 없는 동안에 우수하고 졸렬한 것이 판정된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성당盛唐 때에는 시詩에 있어서 그 기氣는 완벽하고, 그 소리는 또렷하고도 화평하며, 그 빛은 곱고도 아담하고, 그 뜻은 무르녹아서

자취가 없다. 지금의 문필文筆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화元和(당헌종唐憲宗의 연호)·장경長慶(당목종唐穆宗의 연호) 시대의 여상餘像을 훔쳐서 조술祖述하고 있어서 기氣는 박하고 뜻은 가느다랗게 드러난다. 노래해도 소리가 없고 눈으로 보아도 빛이 없건만, 저들은 오히려 스스로 후회하고 깨달을 줄 모르면서 또 높이 치켜들고 넓게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성당盛唐의 본을 받겠는가'라고 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정말 세상의 병폐에 적중한 말이다. 왕감주는 대체로 성당을 법칙으로 하였으나, 또한 최선에 이르지는 못한 자였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백李白은 시詩로써 문文을 짓기 때문에, '살아서 만호후萬戶侯를 봉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한 번 한형주韓荊州 알기를 원한다(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했고, 한유韓愈는 문文으로써 시詩를 짓기 때문에, '헐어진 집 두어 간뿐이로다(破屋數間而已矣)'라고 했다"고 하였다. 내가 고증하여 보니, 이백의 시에 "진秦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르기를, 우리들은 가야 하겠다(秦人相謂曰 吾屬可去矣)"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도 또한 시詩이면서 문文인 것이다. 한유의 문文에 "부자는 지금까지도 밝은 빛이 있다(夫子至今有耿光)"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은 또한 문文이면서 시詩인 것이다.

시평詩評은 옛사람이 다 하여 거의 남은 것이 없다. 만약 여러 대가들의 시평을 가져다가 깊이 생각하면서 완상하고 탐색한다면 마땅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신入神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돈오頓悟(문득 깨달음)할 뿐이다. 대체로 말하여, 시詩의 도道는 말로써 서로 깨우치기는 어렵다. 반드시 스스로 안 뒤에라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를 알기는 시를 짓기보다 어렵다"라고 한다. 이 말이 근사하다. 그러나 엄창랑嚴滄浪이 시를 평한 것은, 그 보는 것이 진실로 높고

뛰어나지만 그가 스스로 지은 시는 그저 평평할 뿐이다. 이것은 시를 짓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주후숙周後叔은 시를 잘하였으나, 그것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응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름을 얻기 위해 생각을 지어서 나로 하여금 몸이 허상虛喪하게 만드는 일을 나는 진실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뜻이 매우 옳다. 대체로 사람의 정신을 피폐케 하고 진기眞氣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은 시詩라는 마물魔物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간혹 감흥感興이 일어난 때에 짓는 것은 좋으나 어찌 마땅히 남에게 좇아 나의 심신의 알맹이를 손상하겠는가. 한창려韓昌黎가 말하기를, "슬프다, 유익함도 없는 일에 정신을 낭비한다(可憐無益費精神)"라고 했다. 다만 정신을 허비하고 또 무익하다는 것뿐 아니라, 또 심신心身을 해치는 것이다.

목은牧隱의 시에 말하였기를, "문文은 서한西漢이 아니면 옛 것이 될 수 없고, 시詩는 건안建安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높다(文非西漢未爲古 詩到建安方是高)"라고 했다. 이것은 공公이 진실로 본 바가 있는 것이다. 나는, 문文은 오경五經 외에는 《장자莊子》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가 좋고, 시는 건안建安에서부터 시당始唐 · 성당盛唐에 이르는 동안의 것이 좋다. 그리고 중당中唐 · 만당晩唐 이하는 오직 그 경구警句를 취할 뿐이다. 다만 나는 젊어서는 게을러서 공부를 폐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병으로 공부를 폐하였으며, 지금은 또 늙었으니 비록 마음으로 좋아하나 정신을 전일하게 하여 힘쓸 수가 없다. 슬픈 일이다.

이용재李容齋와 정호음鄭湖陰의 시는 대체로 소황蘇黃을 배운 것이다. 호음이 용재에게 묻기를, "사람들은 모두 내가 소황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공은 소황을 배웠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니, 용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그들의 문자를 인용하기 때문에 남이 보고 쉽게 알지만

나는 그들의 뜻과 격조를 취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호음이 그 말을 승복했다.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소황蘇黃을 높이 여기는 이가 많아서, 200년 동안에 모두 하나의 격식만 도습하여 오더니 근세에 이르러 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이 비로소 당나라의 시를 배워서 힘써 맑고 괴로운 시사詩詞를 지으니, 최백崔白이라고 불리어 한때 매우 본받는 이가 많아서 거의 종래의 버릇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숭상하는 것은 만당晩唐의 시풍詩風이고 성당盛唐의 경지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혹시나 그들의 시재詩才에 한계가 있었던 것일까.

시문詩文에는 반드시 고어古語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연히 서로 합치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일찍이 송도松都를 읊은 시에, "거친 빈터의 옛일은 노목老木이 알겠네(荒墟老木知)"라고 하였는데, 뒤에 살펴보니, 《여람呂覽》에 말하였기를, "교목이 옛 수도의 일을 알겠구나(喬木知舊都)"라고 한 글귀가 있었다. 또 나의 시에, "집이 남산에 가까우니 새소리가 많구나(宅近南山鳥語多)"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뒤에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를 보니, 왕검王儉이 피리를 불며 마부馬夫를 인솔하고 왕승우王僧佑를 방문하니, 승우가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은 채 시를 보내 말하기를, "너의 집은 시장市場의 입구에 있고 나의 집은 남쪽 성곽에 있다. 너의 집에는 손과 벗이 많지만, 우리 집에는 모두 새들뿐이다(汝家在市門 我家在南郭 汝家饒賓侶 我家皆鳥雀)"라고 한 것이 있었다. 또 서자西子(옛날 미인 서시西施)를 읊은 시에, "오吳나라를 평정한 것이 필경 누구의 힘인 것을 알겠구나. 대부종大夫種이나 범려范蠡의 공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마라. 실은 서시西施가 오왕吳王의 마음을 황음荒淫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을(平吳畢竟知誰力 種蠡休論第一功)"라고 하였는데, 뒤에 정해鄭獬가 범려를 읊은 시에서 말하기를, "만약 오나라를 깨뜨린 제일의 공을 논한다면, 황금인黃金印에는 마땅히 서시를 새겨야 할 것이다(若論破吳功第一 黃金

印合鑄西施)"라고 한 것이 있었다. 말과 뜻이 서로 부합했으니 이상한 일이다.

15-2 시법詩法

엄창랑嚴滄浪이 말하기를, "시를 배우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주主를 삼고, 문門에 들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바른 길을 택해야 하고, 뜻을 세움은 모름지기 높게 하여야 한다. 한漢나라 · 위魏나라 · 성당盛唐으로 스승을 삼고, 개원開元(당현종唐玄宗의 연호年號) · 천보天寶(당현종의 연호) 이하의 인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행하여 이르지 못함이 있거든 공력工力을 더해야 한다. 전진하는 도중에서 한 번 차착差錯이 있거든 더욱 힘써서 더욱 먼 곳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초학자의 법으로 할 만한 말이다.

시가詩家에는 왕체往體가 있고 근체近體가 있다. 왕체는 즉 고시古詩이고 근체는 즉 율시律詩이다. 또 2운韻의 근체는 지금의 절구絕句이고, 4운의 근체는 지금의 율시律詩이다.

옛날 시인들은 붓으로써 유희遊戲를 했다. 금金 · 석石 · 사絲 · 죽竹 · 포匏 · 토土 · 혁革 · 목木의 8자를 사용하여 8구의 운문을 만든 것을 팔음八音이라고 하였으며, 시에 건建 · 제除 · 만滿 · 평平 · 정定 · 집執 · 파破 · 위危 · 성成 · 수收 · 개開 · 폐閉 등의 12자를 사용하여 지은 것을 건제체建除體라 하고, 조수초목鳥獸草木(새 · 짐승 · 풀 · 나무)이란 글자를 사용하여 지은 것을 연아체演雅體라고 하였으며, 운자韻字를 되돌려가면서 지은 것을 회문시廻文詩라고 했다. 또 괘卦의 이름인 글자를 사용하여 지은 것이 있고, 약명藥名을 사용한 것이 있으며, 주명州名을 사용한 것이 있고, 육갑六甲의 글자를 사용하여 지은 시가 있고, 글자를 떼고 합하고 하여 지은 시 등이 있었다. 육조六朝 이전에 이 체가 가장 많았

다. 그러나 배우의 유희와 비슷한 것이어서 본받을 것이 못 된다.

절구絕句라고 하는 것은 한 구句가 한 절絕이다. 도연명陶淵明의 "춘수만사택春水滿四澤(봄 물이 사방의 못에 가득하다)"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고, 두자미杜子美의 "양개황리명취류兩個黃鸝鳴翠柳(2마리의 꾀꼬리가 푸른 버들에서 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남사南史》에 "유창劉昶이 글귀를 끊은 시를 지었다"라고 했다. 아마 절구絕句라고 한 것은 이것으로써 명목을 붙인 것일 것이다.

《고시유원古詩類苑》을 열람하여 보니, 〈춘수만사택春水滿四澤〉이라고 한 시는 도연명의 시가 아니고, 곧 고개지顧愷之의 작품이라고 했다.

〈칠애시七哀詩〉[4]는 조자건曹子建·왕중선王仲宣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오희五噫〉[5]·〈사수四愁〉[6]의 따위와 같은 것이다. 노두老杜의 〈팔애시八哀詩〉는 슬퍼하는 자가 여덟 사람인 것이다. 즉 왕사례王思禮·이광필李光弼·소원명蘇源明·이옹李邕·여양汝陽·왕진王璡·정건鄭虔·장구령張九齡·엄무嚴武이다. 대체로 옛일을 탄식하고 어진 이를 생각해서 지은 것이다.

진晉나라 부함傅咸이 집경시集經詩(경서經書에 나오는 자구字句를 모아서 시詩로 만든 것)를 지었으니 대략 이러하다. "그 덕을 사모하여 서술하니 끝 좋고 처음도 있

4 7가지의 슬픔을 읊은 시의 편명. 위魏나라 조식曹植·왕찬王粲·완우阮瑀와, 진晉나라의 장재張載 등에게 같은 제목으로 지은 시가 있다. 조식의 〈칠애시七哀詩〉는 부처별리夫妻別離의 비극을, 왕찬 이하의 시는 모두 사별死別의 슬픔을 읊은 것이다. 7가지 슬픔이란 조식의 칠애시의 서문의 주에 의하면, "七哀謂痛而哀, 義而哀, 感而哀, 怨而哀, 耳目聲見而哀, 口歎而哀, 鼻酸而哀也"라고 했다. 즉 아프게 생각하여 슬퍼함, 의롭게 여겨 슬퍼함, 느껴서 슬퍼함, 원망하여 슬퍼함,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슬퍼함, 입으로 탄식하여 슬퍼함, 코가 시큰하여 슬퍼함이라는 뜻이다.

5 다섯의 희噫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무한한 비통을 표현한 시. 후한後漢의 양홍梁鴻이 지은 슬픈 노래이다.

6 시편의 이름. 후한後漢의 장형張衡이 나와서 하간상河間相이 되었을 때에 그 불평을 노래한 것.

네. 너의 숨고자 하는 생각을 힘쓰나, 나의 말을 생각하고 있어라(聿修厥德 令終有勉爾遁思 我言斯服)"라고 했다. 모두가 《시경》의 여기저기에서 따온 글귀이다. 이것이 아마 후세의 남의 글귀를 모아서 시를 만드는 풍습의 시작일 것이다.

선대격扇對格이라고 하는 것은 제3구句로써 제1구에 대對가 되게 하고, 제4구로써 제2구에 대가 되게 하는 형식이다. 두시杜詩의, "죄를 짓고 태주台州를 가니 시대가 위난하여 큰 선비를 버리네. 벼슬을 봉각蓬閣(비서성秘書省)에 옮긴 뒤에 곡식이 귀해서 잠부潛夫(숨어 있는 사람)가 죽었네(得罪台州去 時危棄碩儒 移官蓬閣後 穀貴歿潛夫)"라고 한 것과, 이백李白의 시에, "나는 완계宛溪의 좋은 것을 어여삐 여긴다. 100척尺의 물이 마음을 비추어 밝구나. 신안新安의 물이 천 길이건만 그 바닥의 맑음을 볼 수 있음은 치사할 만하네(吾憐宛溪好 百尺照心明 可謝新安水 千尋見底淸)"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唐詩 가운데에는 이런 등류가 매우 많다.

《온공시화溫公詩話》에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들의 시를 짓고 화답和答하고 하는 것에 차운次韻이라는 방법이 있고, 용운用韻이 있고, 의운依韻이 있다. 차운은 남의 시의 차례대로의 운자를 좇아 짓는 것이고, 용운은 남의 운을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그 차례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의운은 동일한 운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임의로 사용하여 짓는 것이다"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차운하여 짓는 법은 원백元白(당나라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를 말함)에서 시작했고, 조나라, 송나라에 와서 성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국을 존중하고 있었으므로 다투어 가며 이 법을 숭상했다. 과거科擧에 응시하려는 자가 일과의 학업을 익히는 것 같은 일을 어찌 시詩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시가詩家에서 소위 정격正格(바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구의 둘째 글자를 높

은 글자로 하는 것이니, “천상추기근天上秋期近(하늘 위에 가을 계절이 가까웠다)”이라고 한 것과 같은 따위가 그것이다. 소위 편격偏格이란 것은 “사경산토월四更山吐月(사경에 산이 달을 토한다)”이라고 한 따위와 같은 형식이 그것이다. 당나라 사람들은 정격을 많이 사용했다. 두시杜詩에서도 편격偏格을 사용한 것은 10편 중에 2, 3편도 없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시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으니, 편격이니 정격이니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시에 가차격假借格이란 것이 있다. 맹호연孟浩然의 시에 “포인庖人(요리하는 사람)은 닭국에 기장밥을 갖추었고, 어린 아들은 양매楊梅(과일의 일종)를 딴다〔庖人具鷄黍 稚子摘楊梅〕”라고 한 것이 있다. 계鷄로써 양楊에 대하고 있다. 즉 양楊의 음音은 ‘양’이므로 양羊과 같은 것이니 양羊과 계鷄는 좋은 대對가 되는 것이다. 두자미杜子美의 시에 “구기枸杞는 나로 인하여 있는 것인데, 계서鷄棲(닭의 둥우리)는 너 어찌할꼬〔枸杞因吾有 鷄棲奈爾何〕”라고 한 것이 있는데, 구枸로써 계鷄에 대를 삼고 있다. 즉 구枸의 음은 구이니 구狗〔개〕의 음과 같다. 닭과 개는 좋은 대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자용張子容의 시에, “단지를 여니 백엽주栢葉酒(잣나무 잎으로 빚은 술)로구나. 등잔에는 9가지 꽃〔九枝花九枝花〕에 밝힌 등불이 떨어지네〔樽開栢葉酒 燈落九枝花〕”라고 한 것이 있다. 백栢으로 구九에 대를 삼고 있다. 즉 백栢의 음은 백이니 백百과 같다. 백百과 구九는 좋은 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유견오庾肩吾의 시에, “백엽주의 술 단지 열어서 시험 삼아 오신반五辛盤(5가지 신미辛味 있는 물건을 담은 반으로, 원조에 먹는 것)을 드린다〔聊開栢葉酒 試奠五辛盤〕”라고 한 것은 아마 장자용의 시를 습용한 것일 것이다.

두시杜詩의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는 선船 · 면眠 · 천天이란 글자를 중첩하여 사용했고, 전前이란 글자를 세 번 사용하고 있다. 해설하는 이가 말하기를,

“이 시가詩歌는 8편으로 나눈 것으로서 여덟 사람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이니 운자韻字가 겹쳐도 관계없다. 또한 주시周詩가 장을 나눈 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 그런 것 같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칠언배율七言排律은 두보杜甫로부터 창시되었다. 그러나 또한 아름답지 않다. 아마 일곱 글자로 한 구를 삼고, 성우聲偶(문장의 곡조와 대구)로 묶으려고 하니 기력이 이미 다하였는데 또 그것을 부연하여 길게 하니 곡조가 높으면 계속하기 어려워서 전편全篇의 원만을 손상하게 되고, 곡조가 낮으면 수다스럽고 좀스럽게 되기 쉬워서 글귀의 격조를 손상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화운和韻(남이 지은 시詩의 운자韻字를 사용하여 시를 지어 응답하는 것)하지 말 것이며, 험난한 운자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방운旁韻[7]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글을 지나치게 고고枯槁(생기生氣가 없음)하게 짓지 말 것이며, 이론을 따지지 말 것이며, 궁벽한 것을 찾지 말 것이며, 육조六朝 때의 억지로 만든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대력大曆(당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이후의 일을 인용하지 말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법으로 삼을 만하다.

오언율시五言律詩의 대련구對聯句 중에서 10자로써 1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십자격十字格이라고 한다. 당시唐詩에서 “우리집은 양수襄水의 굽이에 있어서 멀리 초나라 구름 가에 가로막혀 있다. 돌아가는 손님을 전송하노라니 다시 여기에서 고향을 바라보네〔我家襄水曲 遙隔楚雲端 聊因送歸客 更此望鄕關〕”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7　한 운통韻通 안에 있는 글자가 아니고, 발음이 비슷한 다른 운통의 글자를 가져다가 운자韻字로 쓰는 것.

엄창랑嚴滄浪이 말하기를, “오언절구五言絶句는 중당衆唐 사람들의 것이 한 양식을 이루고 두소릉杜少陵이 한 양식을 이루었으며, 한퇴지韓退之가 한 양식을 이루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다만 오언절구五言絶句뿐이 아니라, 칠언절구七言絶句 · 율시律詩 · 고시古詩에 있어서도 대체로 그러하다.

당여순唐汝詢이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의 시 가운데는 《초사楚詞》와 아주 비슷한 것이 있다. 이백李白의 〈명고鳴皐〉, 마힐摩詰의 〈산중인山中人〉과 같은 따위는 말이 이미 참착參錯(서로 얽힘, 고르지 못함)하고 곡조도 또한 떳떳하지 않다. 또 퇴지의 금조琴操에는 전편全篇이 사언四言으로 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씨高氏가 모두 칠언고시七言古詩라고 지목한 것은 체제의 분류를 그르침이 매우 심하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왕마힐王摩詰의 율시律詩에, “술을 따라서 그대에게 주노니 그대는 스스로 마음을 너그럽게 하라.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를 따라 물결처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을. 백발이 되도록 서로 사귀어 왔건만 오히려 칼을 손에 잡고 적대하는 일이 있고, 주문朱門에 일찍 벼슬하여 영달한 선배는 후진을 비웃네……(酌酒與君君自寬 人情翻覆似波爛 白首相知猶按劒 朱門先達笑彈冠)”[8]라고 한 것과, 잠가주岑嘉州의 시에 “교태 어린 노래와 급한 피리소리는 검은 머리에 섞였고, 은촛대와 황금의 술 단지에는 푸른 눈썹이 비치네. 사군使君과 지주地主(모인 곳의 땅의 주인)가 서로 전송하노니, 하윤河尹은 날이 샐 때까지 앉아서 사양하지 마라(嬌歌急管雜青絲 銀燭金尊映翠眉 使君地主能相送 河尹[9]天明坐莫辭)”라고 한 시를 왕세정王世貞은 요체拗體(일정한 평측平仄의 규칙에 따르지 않은 근체시近體詩로, 절구絶句와 율시律

8 벼슬에 나아갈 준비로 갓의 먼지를 털고 군주君主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 벼슬에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뜻.

9 여기에 예시한 시는 잠삼岑參이, 엄하남嚴河南이 하남윤河南尹에서 장수령長水令으로 전근하는 것을 송별하는 시다. 그러므로 하윤은 엄하남을 가리킨 것이다.

詩의 변격變格)라고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글자의 평측을 쓰는 것에 대하여는 요체가 되는 것을 알지만, 운율의 평측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요체가 되는 것은 알지 못한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마힐摩詰의 칠언율시七言律詩는, 한두 수首를 제외하고는 측운법仄韻法을 많이 쓰고 있어서 배울 것이 못 된다"라고 했다. 이 말이 그러할 것 같다.

옛 시詩에는 일곱 글자를 모두 평성平聲으로 한 것과 일곱 글자를 모두 측성仄聲으로 한 것이 있다. "배꽃 · 매실꽃이 어지럽게 피었네(梨花梅花參差開)"라고 한 것은 일곱 글자가 모두 평성이고, "손님이 있네, 손님이 있네, 자는 자미子美라네(有客有客字子美)"라고 한 것은 일곱 글자가 모두 측성이다.

한퇴지의 시 가운데에도 또한 이러한 체가 있다. 대체로 시의 변체變體인 것이다. 또 오평五平 · 오측五仄의 시가 있다. 이백李白의 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큰 꿈과 같은 것, 어째서 그 삶을 위해서 노고勞苦하는고(處世若大夢 胡爲勞其生)"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시가詩家에서 이러한 체를 많이 사용한다.

나대경羅大經이 말하기를, "시에 어조사語助辭를 쓰는 경우가 있다. 노두老杜는 '옛사람은 갔다고 일컬었고, 나의 도는 종언終焉을 미리 알겠다(古人稱逝矣 吾道卜終焉)'라고 하여 의矣니 언焉이니 하는 뜻 없는 글자를 쓰고 있다. 산곡山谷은 '더군다나 너에게 힘입었으니, 얻을 것을 스스로 알겠다(且然聊爾耳 得也自知之)'라고 하여 연然이니 이耳니 야也니 지之니 하는 조사助辭를 쓰고 있다. 한자창韓子蒼은 '굽은 난간 남쪽에는 푸른 봉우리가 합했고, 높은 마루 그 위에는 흰 구름 깊이 잠겼네(曲檻以南青嶂合 高堂其上白雲深)'라고 하여 이以니 기其니 하는 글

자를 조사助辭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3가지 글은 모두 자연스럽고 온당하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와 같은 구법句法을 후생後生들이 본받으면 아마 고니〔鵠〕를 새기다가 따오기〔鶩〕가 되었다는 조롱이 있을 것은 이미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나대경이 말하기를, “두릉杜陵은 전편全篇에 속어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뛰어나고 묘함을 해치지 않는다. 가령 ‘하룻밤에 물이 석 자 남짓 높아졌으니, 여러 날 동안 다시 견딜 수 없겠다. 남시南市의 나룻가에 파는 배가 있기에, 돈도 없이 즉시 사서 울타리 곁에 매 두었네. 강 위에는 꽃으로 덮여 있으니 고뇌苦惱는 거치지 않았는데 호소할 곳 없어서 미칠 것만 같구려. 백발 늙은이가 춤을 그치고 다시 노래를 부르노니, 여장藜杖을 짚은 채 잠 못 이루니 누군들 견딜 수 있으랴〔一夜水高三尺强 數日不可更禁當 南市津頭有船賣 無錢卽買繫籬傍 江上被花惱不徹 無處告訴欲顚狂 白頭老罷舞復歌 杖藜不寐誰能那〕’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양성재楊誠齋가 이 체體를 많이 본받고 있다. 통쾌하게 즐겨할 만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격詩格을 뛰어나게 묘하고 통쾌하다고 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두시杜詩에, “복숭아꽃은 고요히 버드나무 꽃을 쫓아서 떨어지고, 황조는 때로 백조와 함께 나네〔桃花細逐楊花落 黃鳥時兼白鳥飛〕”라고 한 것이 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이 시는 구법句法이 아존하지 못한 것인데, 후인들도 이것을 본받는 이가 많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매성유梅聖俞의 시에, “남쪽 언덕을 새가 지나가서 북쪽 언덕에서 울고, 높은 논에 물이 들어가니 낮은 논으로 흐른다〔南隴鳥過北隴叫 高田水入低田流〕”라고 했다. 아마 착상이 두시杜詩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러나 촌아이들의 속된 말 같다. 아마 반드시 본받을 것이 못 될 것이다.

왕유王維의 율시에, “문밖의 청산靑山은 집 속 같고, 동쪽 집에서 흘러나온 물이 서쪽 이웃으로 들어간다〔門外靑山如屋裏 東家流水入西隣〕”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을 당구대當句對라고 한다. 대체로 이 시에 있어서 문외門外와 옥리屋裏는 대對이고, 동가東家와 서린西隣도 대對인 것이다. 다른 시가詩家에서도 이 법을 사용한 것이 또한 많이 있다.

칠언시七言詩를 짓는 법은, 위의 넉 자〔上四字〕와 아래의 석 자〔下三字〕로써 한 글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창려韓昌黎의 시에는, “비록 후회하고자 하나 혀를 잡아 쥘 수는 없다〔雖欲悔 舌不可捫〕”라고 한 것이 있다. 또 말하기를, “도끼를 떨어뜨리고 큰 새끼로 끌어당긴다. 슬프다. 나의 도는 저절로 살찔 수 없다〔落以斧 引以纆徽 嗟我道 不能自肥〕”라고도 했다. 즉 위를 세 글자, 아래를 네 글자로 했다. 바로 변체變體의 변체이다. 아마 배울 만한 것이 못 될 것이다.

한창려의 시에는 험난한 운자韻字를 선택한 것이 많아서, 거의 한 글자도 빼놓은 것이 없다. 기이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오직 〈원화성덕시元和聖德詩〉에서는, 어語 · 어御 · 우麌 · 우遇 · 가哿 · 개箇 · 마馬 · 마禡 · 유有 · 유宥의 운자를 섞어서 사용했고, 〈차일족가석此日足可惜〉이란 시제詩題에서는 흩어서 동東 · 동冬 · 강江 · 양陽 · 경庚 · 청靑 등 각각 다른 운에 속하는 운자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치 병가兵家에서 기병奇兵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기습奇襲과 정공正攻이 뒤섞여 나오는 것은 기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인에게는 그 사람이 즐겨 쓰는 글자가 있는 것이 상례이다. 옛날 정곡鄭谷은 승僧〔중〕이란 글자를 즐겨 썼고, 허혼許渾은 수水라는 글자 쓰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위야魏野는 학鶴이란 글자 쓰기를 좋아했고, 지금의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는 검劒〔칼〕이란 글자를 즐겨 쓴다. 시인 가운데 열의 여덟, 아홉은 모두 그러하다. 이백李白은 유협시游俠詩(호협하게 노는 시) 짓기를 즐겨 하고, 왕건王建은

악부樂府 짓는 것을 좋아했으며, 온정균溫庭筠은 염체艶體(시어詩語가 아름답고 시정詩情이 풍부한 여성적인 시체詩體)를 즐겨 지었다. 또한 각자의 숭상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도연명陶淵明의 시에는 주酒라는 글자를 많이 썼고, 백낙천白樂天은 그의 시 2,800수 가운데서 주酒라는 글자를 사용한 것이 900수나 된다. 또한 사람됨이 낙연樂易(마음이 즐겁고 편안함, 쾌활하고 온화함)한 것을 알 수 있다.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인생 100년 동안에 장건壯健한 때는 많지 않다. 한 봄 동안에 며칠이나 맑고 밝은 날씨일 수 있을까(百歲無多時壯健 一春 能幾日晴明)"라고 했다.
번천시樊川詩(당나라 두목杜牧의 시)에는 말하기를, "1,000년 만의 제회際會(기회)이고, 3만 리에 뻗친 농상農桑(농업과 양잠)(一千年際會 三萬里農桑)"이라고 했다. 또 "400년 염한炎漢[10]이요, 30대 종주宗周(주나라의 왕도王都를 이름)로다. 2, 3리에 끼친 옛터에, 8, 9소 높은 언덕이 있네(四百年炎漢 三十代宗周 二三里遺堵 八九所高丘)"라고도 했다. 또 "영안궁永安宮에서 조서詔書를 받고, 주필역籌筆驛에서 생각에 잠긴다(永安宮受詔 籌筆驛沈思)"라고 한 것은, 또한 변체 중의 변체로서 중당中唐 이상 사람들은 하지 않던 것이다.

시詩에 있어서 글자가 중첩되는 것을 옛사람들은 꺼리지 않았으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뜻이 중첩되는 것이다. 가령 소자첨蘇子瞻의 율시나 절구에는 두어 글자를 중첩하여 사용한 것이 많다. 두시杜詩나 한시韓詩에 이르러서는 운자를 중첩하여 달고 있다. 이것은 병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지은 글귀의 잘되고 못된 것만을 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정순精純한 바를 말한다면, 아마 작은 흠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10 유방劉邦이 세운 한조漢朝. 한대漢代. 화덕火德으로 천자天子가 되었으므로 이름.

왕세정이 말하기를, “자첨子瞻은 고사를 많이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두보의 오언五言 · 고시古詩 · 배율排律 중에서 나왔으며, 노직魯直(황정견黃庭堅의 자字)은 요구법拗句法[11]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두보의 가歌 · 행行 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믿는다면 송나라 이후의 시는 대개가 두보를 조사祖師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집구시集句詩라는 것은, 옛사람의 시의 글귀를 모아서 시를 만든 것으로, 왕형공王荊公이 처음 시작했다. 그의 집구集句에, “서로 보고 차마 떠나지 못하여, 슬프게 저녁 조수가 바다에 질펀한 것을 바라본다. 이별하고자 하여 다시 손을 잡으니, 달은 밝은데 물가가 드러나네〔相看不忍發 慘惔暮潮平 欲別更攜手 月明洲渚生〕”라고 한 것이 있다. 매우 기뻐할 만한 글귀다.
황산곡黃山谷은 이것을 백가의체百家衣體[12]라고 했다. 그 법은 졸속拙速을 귀하게 여기고, 지교遲巧(더디게 하여 교묘하게 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문천상文天祥과 우리나라 전조前朝 때의 임유정林惟正이 이 체를 본받은 것이 많다. 그러나 법으로 할 만한 가치가 없다.

옛사람은 시를 지을 때에 첫 구에는 간혹 방운旁韻을 다는 일이 있으나, 편중篇中에서는 절대로 흩어서 다른 운을 다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비록 절구絕句일지라도 방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것을 매우 병으로 생각한다. 왕세정은 방운을 달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배우는 자는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11 시의 성률聲律이 상격常格에 좇지 않아서 평측平仄이 맞지 않는 것을 요체拗體라고 하는데, 요구법은 요체의 구법句法을 사용한 것이다. 근체시近體詩의 변격變格으로서 예를 들면, 전반前半은 평기식平起式으로 하고 후반은 측기식仄起式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2 옛사람들의 시구詩句를 모아서 시를 짓는 것.

시부詩賦에 있어서 모두冒頭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구에서 멀리 다른 고사를 인용하고 여러 글귀를 거친 뒤에 비로소 문제에 대한 말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라고 한다. 지금 사람들이 기구起句를 모두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시詩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 소중하다. 격格에 높고 낮음이 있고, 재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 억지로 될 수는 없다. 당나라 이상 사람들은 뜻과 취미가 저절로 높아서 낮고자 하여도 되지 않았으며, 송나라 이후의 사람들은 기격氣格이 저절로 낮아서 높고자 하여도 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천품의 자연自燃은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겠다. 윤해평尹海平 · 유서경柳西坰이 일찍이 말하기를, "시에 대하여는 전연 격률格律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의 격률을 버리고 무엇으로 시를 짓겠는가. 두 분의 말에 나는 적이 의심이 있다.

오언배율五言排律은 초당初唐 때에 처음으로 보였다. 두자미杜子美가 일백운一百韻을 지은 것이 있고, 고려의 이상국李相國 규보奎報에 이르러서 삼백운三百韻을 지은 것이 있다.
칠언배율七言排律은 성당盛唐 때에 처음 보였는데, 명나라의 사신 장녕張寧이 육십운六十韻을 지었고, 근세에 이르러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가 일백운을 지었으니,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비루한 글귀가 많아서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15-3 시평詩評

《시경》의 시 300편은 옛글이다. 한漢나라와 위魏나라의 시는 옛글에 가까워서 질박하다. 이진二晉 때의 시는 질박한 것이 변하여 아름답다. 양梁나라와 진陳

나라 때의 시는 아름다운 것이 변하여 수식에 치우친다. 당唐나라에 이르러서는 빈빈彬彬(수식과 내용이 알맞게 갖추어짐)하다. 송나라에서는 또 변하여 강쇠降衰해졌다.

시화詩話에 말하기를, “천생天生으로 얻은 시는 흔적이 없고, 인위人爲로 지은 시는 자취가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사강악謝康樂(사령운謝靈運)의, “지당池塘에는 푸른 풀이 나고, 원림園林에는 새 우는 소리가 변했다〔池塘生靑草 園林變鳴禽〕”라고 한 글귀를 자세히 음미하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왕적王籍의, ‘새가 우니 산은 더욱 그윽하다〔鳥鳴山更幽〕’라고 한 것은 뛰어난 소리다. 다만 그 위 글귀인 ‘매미가 시끄럽게 우니 숲은 더욱 고요하고’라고 한 글귀와 합하여 읽으면 드디어 문리文理가 성립되지 않는다. 새가 우니, 산은 더욱 그윽하다는 말은, 본래부터 새가 울지 않아야 산이 그윽하다는 뜻과 어긋나는 것이다. 왕개보王介甫가 그 본래의 뜻을 취하여 반대로 말하기를, ‘한 새도 울지 않으니 산은 다시 그윽하다〔一鳥不鳴山更幽〕’라고 하였으니, 시로서 무슨 맛이 있는가. 송나라 사람들의 하는 짓이 가소롭기가 대개 이와 같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은 자는데 꽃은 오히려 떨어지고, 새는 울건만 산은 다시 그윽하다〔風定花猶落 鳥鳴山更幽〕’라고 한 글귀는 고요한 가운데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고요함이 있어서 좋다고 했다. 이 말이 옳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왕적王籍은 소량蕭梁 때의 사람이고, “풍정화유락風定花猶落”이라고 한 시구는 또한 양梁나라 사정謝貞의 시다.

음갱陰鏗의 시에, “큰 강은 고요하나 오히려 물결친다〔大江靜猶浪〕”라고 했고, 두시杜詩에는 “강류江流는 고요하나 오히려 솟구친다〔江流靜猶湧〕”라고 했다. 음갱의 시에는, “엷은 구름은 바위 가에서 나오고 초승달은 물결 속에서 오른다〔薄雲巖際出 初月波中上〕”라고 했고, 두시에는, “엷은 구름은 바위 사이에 잠자고,

져가는 달은 물결 속에서 흔들린다(薄雲巖際宿殘月浪中飜)"라고 했다. 음갱의 시에는, "냇물 가운데서 뱃노래를 듣는다(中川聞棹謳)"라고 했고, 두시에는 "중류에서 뱃노래를 듣는다(中流聞棹謳)"라고 했다. 음갱의 시에는, "꽃은 산 아래의 바람을 좇아온다(花逐山下風)"라고 했고, 두시에는, "구름은 시내를 건너는 바람에 좇아간다(雲逐度溪風)"라고 했다. 두보가 옛사람의 작품을 습용襲用함이 이와 같았다.

장주莊周가 함부로 지껄여 공자孔子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는데, 후인들 중 그 말을 습용한 이가 많았다. 왕적王績 같은 사람은, "예악禮樂은 주단周旦(주공周公)을 가두었고, 시서詩書는 공구孔丘(공자孔子)를 묶어 놓았다(禮樂囚周旦 詩書縛孔丘)"라고 했고, 이백李白은, "봉구황鳳求凰의 노래는 공구를 비웃는다(鳳歌笑孔丘)"라고 하였으며, 두자미杜子美는, "공구도 도척盜跖도 다 함께 티끌이 되었구나(孔丘盜跖俱塵埃)"라고 했다. 거의 성인聖人을 모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중에서도 두자미는 더욱 심하다.

명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두심언杜審言의, '비능의 진택이 9주州로 통한다……(毗陵震澤九州通)'라고 한 시와, 심전기沈佺期의, '노가의 젊은 여인이 거처하며 울금향을 피우던 마루에……(盧家少婦鬱金堂)'라고 한 두 시편을 칠언율의 제일이다"라고 했다. 나의 사견으로는 심전기의 시, "동쪽 들에 잠깐 돌아 봄거둥의 행차를 맞이하니, 상원上苑에 처음으로 행경行慶(선善을 포상褒賞함)하는 술잔이 나네. 바람이 이무기 모양 같은 얼음을 쏘니 일천 조각으로 끊어지고, 봄기운이 물고기 형상의 쇄약鎖鑰을 찌르니 구중궁궐의 문이 열린다. 숲속에서 풀을 찾으니 겨우 혜초蕙草가 돋았을 뿐이고, 궁전 안에서 꽃 싸움을 하니 모두가 매화뿐이네, 가취歌吹(노래하고 피리를 부는 것)가 생각을 머금어 돌아가는 길이 늦으니, 깃들인 까마귀들이 반은 봉성鳳城으로 내려오네(東郊暫轉迎春仗 上苑初飛行慶杯 風射蛟氷千片斷 氣衝魚鑰九關開 林中覓草纔生蕙 殿裏爭花併是梅 歌吹銜思歸路晚

棲烏半下鳳城來〕"라고 한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엄창랑嚴滄浪이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들의 칠언율七言律은 마땅히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 시詩가 제일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품휘唐詩品彙》에는 말하기를, "최호의 율律은 아순雅純하지 않다"라고 했다. 어찌 어렵지 않은가.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당나라 중종中宗이 곤명지昆明池에 거둥했을 때에, 심전기沈佺期 · 송지문宋之問이 왕명에 응하여 지은 시를 상관上官 소용昭容으로 하여금 평하게 하니 말하기를, "두 사람의 시는 공부나 학력이 모두 필적匹敵합니다. 그런데 심전기의 시 끝구에, '미미한 신臣의 새기기 어려운 썩은 나무 같은 바탕은 예장대豫章臺의 재목을 보기에 부끄럽다〔微臣彫朽質 羞覩豫章才〕'라고 한 것은 글의 기운이 이미 고갈했고, 송지문의 시에, '밝은 달이 다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노니, 저절로 야광주夜光珠가 있어서 올 것을〔不愁明月盡 自有夜珠來〕'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건전합니다"라고 하니, 심전기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한다. 지금 전편全篇을 보니, 송지문의 작품이 매우 좋다. 더군다나 끝구는 뛰어나게 좋다.

맹호연孟浩然의 시에, "강이 맑으니 달이 사람에게 가깝다〔江淸月近人〕"라는 것이 있고, 두자미杜子美는, "강물 속 달이 사람에게서 겨우 두어 자 떨어진 곳에 있다〔江月去人只數尺〕"라고 했다. 나대경羅大經이 말하기를, "맹호연의 시는 원만하고 함축이 있으며, 두자미의 시는 정교하다"라고 했다. 나는 "자미子美의 이 글귀는 호연보다 매우 떨어진다"라고 말한다.

맹호연의 시에, "봄잠을 새벽에 깨지 못하여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를 듣는다. 밤사이 들려온 바람과 빗소리에서 떨어진 꽃의 많고 적음을 알겠다〔春眠不覺曉處處聞啼鳥 夜來風雨聲 花落知多少〕"라고 했다. 후인들이 이 시를 소경의 시라고

조롱한다. 나는 말한다. 맹호연은 이미 세상에 살아서는 불우했고 죽은 뒤에는 또 소경이라는 조롱을 받으니 또한 그의 궁함을 볼 수 있다.

이백李白의 악부樂府에 말하기를, “홀로 물속의 진흙을 거르리라. 물은 깊은데 달을 볼 수 없다. 보지 않아도 달은 그냥 있겠지만, 물이 깊어서 행인이 빠지겠기에(獨漉水中泥 水深不見月 不見月尙可 水深行人沒)”라고 했다. 이 시의 구법句法은 희롱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 있어서 기뻐할 만하다. 산곡山谷이 이것을 본받아 짓기를, “나는 돌을 매우 사랑한다. 소로 하여금 거기에 뿔을 갈지 말게 하라. 소가 갈더라도 뿔은 오히려 좋겠지만, 소가 싸우면 나의 대나무를 상하겠구나(石吾甚愛之 勿使牛礪角 牛礪角尙可 牛鬪傷我竹)” 하니 사람들이 잘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사랑한 것은 돌과 대나무뿐이다. 비록 시격詩格은 같으나 마음 쓰는 것이 서로 멀기가 이와 같다. 그들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다.

이백의 시에 “인연人烟(사람 집에서 나오는 연기)은 귤유橘柚(귤과 유자)에 차갑고, 가을빛은 오동에 늙었네(人烟寒橘柚 秋色老梧桐)”라고 한 것이 있다. 산곡山谷이 이것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집에는 귤유가 둘러 있고, 가을빛은 오동에 늙었네(人家圍橘柚 秋色老梧桐)”라고 했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만 두 글자를 고쳤을 뿐인데 추태醜態가 모두 드러난다. 정말 금金을 더럽혀서 철鐵을 만드는 손이로구나”라고 했다. 이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태백집李太白集》 가운데에 있는 〈소가행笑歌行〉·〈비가행悲歌行〉과 〈회색초서가懷索草書歌〉를 말하는 이는 이태백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고증하여 보니, 회소懷素는 전기錢起의 생질이다. 전기는 비록 천보天寶 때에 진사進士였으나, 회소는 반드시 그 뒤에 났을 것이니, 아마 태백과는 한때가 아닐 것이다. 〈소가笑歌〉·〈비가悲歌〉의 두 편은 더욱 이백의 작품과는 비슷하지도 않

다. 말하는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하다. 상고하여 보니, 《왕감주집》에 말하기를, "회소의 성姓은 전錢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전기본집錢起本集》에는 "외생外甥 회소상인懷素上人을 보낸다"라고 한 시가 있다. 그의 성을 전錢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좌전左傳》에, "요조繞朝가 채찍을 주었다(贈之以策)"[13]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백李白의 시에 말하기를, "떠나갈 즈음에 요조의 채찍을 주다(臨行將贈繞朝鞭)"라고 했다. 《사기史記》에, "부견苻堅이 말하기를 '채찍을 던지고 끊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두목杜牧의 시에 말하기를, "부견이 매(箠)를 던졌다고 한 것은 더욱 황당하다(苻堅投 箠更荒唐)"라고 했다. 책策을 채찍(鞭)이나 매로 풀이하는 것이 어떤가 알 수 없다.

이백의 〈봉황대시鳳凰臺詩〉는, 첫 글귀와 끝구는 전적으로 최호崔顥의 〈황학루시黃鶴樓詩〉의 구법句法을 그대로 습용했고, 제2연은 심상한 회고懷古의 말로서 오언시五言詩의, "옛 궁전에는 오나라의 화초이고, 깊은 궁중에는 진나라의 비단과 명주라네(古殿吳花草 深宮晉綺羅)"라고 한 글귀와 뜻이 같으며, 제3연은 최호의 "맑은 냇물에 비쳐 한양漢陽의 수목樹木들이 역력歷歷하게 보이고(晴川歷歷漢陽樹)"라고 한 것에 비하여 매우 떨어진다. 또 이미, "강이 스스로 흐른다"라고 말하였는데, "또 두 갈래의 물이 가운데가 나뉘어서"라고 한 것은 중첩重疊된 것 같다. 나는 망령되게 말한다. 이백의 이 시는 잘못 지었다고 말해도 좋

13 옛날 춘추시대에 진晉나라 사람 사회士會가 진秦나라에 가 있으니 진晉나라 사람들이 사회가 진秦나라에 등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수여魏壽餘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를 속여 진晉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니 사회가 그 말을 듣고 진晉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요조繞朝라고 하는 진秦나라의 대부大夫가 그에게 채찍을 주었다(贈之以策). 그리고 말하기를, "자네는 진秦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나의 계책이 쓰이지 않아서 그대를 등용하지 않았을 뿐일세"라고 했다. 책策을 준 것은 내가 진晉나라의 이간하는 계책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책策은 채찍이란 뜻이 있는 동시에 계책計策이란 뜻도 되기 때문이다.

을 것이다.

〈참고〉

최호崔顥의 〈황학루시黃鶴樓詩〉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日暮鄕關何處是 烟波江上使人愁

이백李白의 〈봉황대시鳳凰臺詩〉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丘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

이백이 영왕永王의 〈동순가東巡歌〉를 지었는데, 칭찬하고 추켜올리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거기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누함樓艦[14]은 진秦나라 · 한漢나라를 가볍게 여긴다. 문득 문황文皇[15]이 요遼에 건너가고자 함과 같다〔我王樓艦輕秦漢 却似文皇欲渡遼〕"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다만 동산東山의 사안석謝安石만이 임금을 위해 담소談笑할 뿐, 사막의 오랑캐 땅은 고요하네〔但用東山謝安石 爲君談笑靜胡沙〕"라고 하기도 했다. 아, 영왕永王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고 추허推許함

14 높고 큰 배. 다락이 있는 배. 2층 이상으로 된 배.

15 당명황唐明皇.

이 이와 같으니, 그가 뜻은 크고 재주는 소탈하여 추협追脅을 당하는 욕됨과, 야랑夜郎 땅으로 쫓겨 간 것은 대체로 그가 자취自取(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한 것이다.

두자미杜子美가 영양迎養(맞이하여 봉양함, 부모에게 효양함)하기 위해 돌아가는 사람을 보내는 시에, "푸르고 푸른 죽순은 배를 맞이하여 나오고, 희고 흰 강의 물고기는 반찬에 들어온다(靑靑竹笋迎船出 白白江魚入饌來)"라고 한 것이 있다. 양용수楊用脩가 말하기를, "이 글귀는 맹종孟宗[16]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청청靑靑이란 두 글자는 좋으나 백백白白이란 두 글자는 속된 것 같다. 위소주韋蘇州가 귀성歸省(돌아가 부모를 뵙는 일)하는 사람을 보내는 시에, '살찐 들에서는 붉은 벼를 거둬들이고, 긴 강물에서는 백어를 낚아 올린다(沃野收紅稻 長江釣白魚)'라고 한 것이 있다. 두자미의 시가 위소주의 시보다 매우 못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양용수의 말이 옳은 것 같다. 다만 위소주의 시의 붉은 벼, 흰 물고기는 모두 뜬소리일 뿐이니, 아마 두자미의 고사 인용이 아주 적절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두시杜詩에는, "붉은 빛이 드니 복숭아꽃이 곱고, 푸른빛이 돌아오니 버들잎이 새롭다(紅入桃花嫩 靑歸柳葉新)"라고 했고, 이백李白은, "차가운 눈은 매화 속에서 다했고, 봄바람은 버들 위에 돌아왔다(寒雪梅中盡 春風柳上歸)"라고 하였으며, 왕형공王荊公의 시에는, "푸른빛은 차가운 거친 잡초 사이를 교란해 나오고, 붉은 것은 다투어 따뜻한 나무에 돌아온다(綠攪寒蕪出 紅爭煖樹歸)"라고 했다. 이 세 사람의 시에 모두 돌아간다(歸)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 옛사람들은 왕형공의 시가 매우 뛰어나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두자미의 시는 교묘하나 힘을 써

16 삼국시대 오吳나라 강하江夏 사람. 자는 공부恭賦. 지극히 효도했다. 일찍이 겨울철에 어머니가 죽순竹筍이 먹고 싶다고 했다. 맹종이 대숲 속에 들어가 슬피 탄식하니 갑자기 죽순이 올라왔다고 한다.

서 지은 것이고, 왕형공의 시는 교묘하게 짓고자 하여 더욱 자세히 조사했고, 이백의 시는 자연에 가깝다.

《예원치언藝苑巵言》에 말하기를, “두시杜詩에, ‘회왕淮王의 문하에 객客이 있으니, 마침내 손등孫登[17]에게 부끄럽지 않다(淮王門有客 終不愧孫登)’라고 한 것이 있는데, 아무런 관섭關涉도 없는 것을 운자韻字로 달기 위해 억지로 갖다 붙였을 뿐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세상의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잘된 것과 병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대체로 옛 작품이면 모두 좋다고 하여 그 좋지 못한 것도 아울러 좋게 여겨 거의 그것을 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으니 의혹스러운 일이다. 이 시의 흠을 지금 사람이 지적했다면 반드시 믿는 자 없을 것이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강의 흐름은 천지 밖이고, 산 빛은 있는 듯 없는 듯한 중간이다(江流天地外 山色有無中)”라고 했다. 옛사람들이 이 시를 절창絕唱(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시)이라고 했다. 송나라 사람의 시에, “산은 평지로부터 있고, 물은 먼 하늘에 이르러 없다(山從平地有 水到遠天無)”라고 했다. 말뜻은 교묘한 것 같으나 기력이 건장하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 사람의 금강산시金剛山詩 한 구가 있는데, “땅의 형세는 북쪽이 높아서 산이 다함이 없고, 하늘의 얼굴은 동쪽이 넓어서 바다가 가없다(地勢北高山不盡 天容東濶海無窮)”라고 했다. 사람들이 간혹 잘되었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유치한 말일 뿐이다. 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왕유王維의 시에 ‘가다가 물이 다한 곳에 이르면, 앉아서 구름이 일어나는 때를 본다(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라고 한 것은 《문원영화집文苑英華集》 속에 있는 글귀이고, ‘수전水田에 백로가 날고 여름나무에 황리黃鸝

17 진晉나라 사람. 자字는 공화公和. 소문산蘇門山에 숨어 살면서 《역경》을 읽고, 거문고를 타고, 휘파람을 잘 불었다고 한다.

(꾀꼬리)가 운다(水田飛白鷺 夏木囀黃鸝)'라고 한 것은 이가우李嘉祐의 시이다"라고 하여, 남의 작품을 표절하기를 좋아한다고 꾸짖기에 이르렀다. 고찰하여 보니 이가우는 왕유보다 후배이다. 왕유가 어찌 날로 삼키고 산 채로 벗기는 일에 이르렀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양승암집楊升庵集》에서 청사자靑史子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버들은 여름 나무(夏木)이다"라고 했다. 이 시에 하목夏木이라고 한 것은 아마 버들을 말하였을 것이다.

두시杜詩에, "남쪽 마을의 뭇 아이들은 내가 늙고 힘없는 것을 업신여겨서 마침내 낯을 마주 대하여 도둑질을 한다(南村群童欺我老無力 忍能對面爲盜賊)"라고 한 것은 그 용어가 속된 것 같다. 근년에 홍지성洪志誠은 글에 박흡博洽하나 글을 잘 짓지는 못했다. 일찍이 시를 짓기를 "달이 환하게 밝으니 도둑이 누웠다(明月皎皎臥盜賊)"라고 하여 세상이 모두 웃었다. 아마 두시를 배우려다가 그르친 것일 것이다.

두시에 말하기를, "문장 천고千古의 일이 잘되고 못된 것은 한 치 마음이 안다(文章千古事 得失寸心知)"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슬프다. 곡조가 같은 자, 누가 있어서 서로 아낄 것인가. 글을 논평하는 일은 웃으며 스스로 안다(同調嗟誰惜論文笑自知)"라고도 했다. 이것으로 고금의 글하는 사람들이 지기知己를 소중히 여김을 알겠다. 나는 만년晩年에 더욱 이 글귀가 맛이 있다고 느껴져서, 번번이 한 번 외고는 세 번씩 감탄한다. 일찍이 소능少陵을 세대를 달리한 지음知音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백의 칠언율시, 두보의 절구를 옛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장기長技가 아니라고 했다. 맹호연과 같은 성당盛唐의 고수에 이르러서도, 오언율과 절구 이외의 칠언율은 두어 수首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다지 뛰어나지도 못하다. 장편長篇은 전연 전하는 것이 없다. 왕창령王昌齡의 칠언절구는 또한 독보적이지

만, 각체各體에 모두 잘하지는 못했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10수 이전에는 소릉少陵의 시가 비교적 이해하기 어렵고, 100수 이후에는 청련靑蓮의 시가 비교적 싫어지기 쉽다. 이 점은 두소릉杜少陵을 편들고 이청련李靑蓮을 누른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이백李白의 시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은 적지만 두보杜甫의 시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다. 이것은 이백의 편을 들고 두자미杜子美를 누른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태백太白의 칠언율과 자미子美의 칠언절구는 모두 변체變體여서 많이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양쪽을 모두 누른 것이다. 그러나 왕감주가 이백과 두보의 시에 대하여 추켜올린 것은 진실로 많다. 지금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두보의 〈북정시北征詩〉와, 이백의 〈천상백옥경시天上白玉京詩〉와, 한유韓愈의 〈남산시南山詩〉는 고금의 모든 장편 중에서 가장 걸작이다. 그런데 거듭거듭 자세히 음미하면, 이백의 시는 기력이 〈북정시〉만 못하고, 웅혼雄渾(크고 자연스러움)함은 〈남산시〉에 미치지 못한다. 마침내 자(尺)에도 짧음이 있음을 알겠다.[18]

두자미의 악양루시岳陽樓詩는 고금에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데, “친한 벗에게선 한 글자의 서신書信도 없고 늙고 병든 몸에 외로운 배가 있다(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라고 한 글귀는 위 글귀와 서로 연속이 되지 않고, 또 악양루와는 글이 서로 걸맞지 않는다.

진간제陳簡齋의 악양루시岳陽樓詩도 또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다

18 “척유소단尺有所短 촌유소장寸有所長”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이다. 자도 짧은 경우가 있고, 치(寸)도 긴 경우가 있으니 현명한 사람도 어느 사물에서는 졸렬하고, 어리석은 자도 어느 경우에는 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 "주렴과 깃발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석양은 더디다(簾旌不動夕陽遲)"라고 한 것은 어구가 빈약한 것 같고, 또 등림登臨이니 사의徙倚니 풍위憑危니 한 말들과, 석양夕陽이니 저물어 가려 한다느니 한 말들을 쓴 것은 중첩인 것 같다.

〈참고〉

두보杜甫의 〈등악양루登岳陽樓〉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
戎馬關山北 憑軒涕泗流

조조대명궁시早朝大明宮詩 중에서, 옛사람들은 잠삼岑參의 시를 제일이라 하고, 왕유王維를 제2, 두보杜甫를 제3, 가지賈至를 제4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네 사람의 시가 모두 뛰어나게 좋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그 조그마한 흠을 말한다면, 잠삼의, "앵전황주춘색란鶯囀皇州春色闌"이라 한 것은 빈약한 것 같고, 석曙 자와 효曉 자를 잇따라 사용하였으며, 또 "화영검패花迎劒珮……"의 한 1연은 좋으나, 성星·초初·낙落의 세 글자는 꼭 들어맞지 않은 것 같다. 왕유의 시는 의衣·색色의 글자를 거듭 사용했고, 또 취운구翠雲裘니 면류冕旒니 곤룡袞龍이니 하는 등의 말은 중첩된 것 같다. 두보의 시에 "오야루성최효전五夜漏聲催曉箭"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오야五夜라고 말했다면 새벽을 재촉한다는 말은 부당한 것 같다. 또 "정기일난용사동旌旗日暖龍蛇動 궁전풍미연작고宮殿風微燕雀高"라고 한 것은, 잘되었으나 다만 이른 아침에 있어서는 뜬소리 같다. 가지賈至의 시는 첫 구가 가장 좋다. 그러나 "검패성수옥지보劒珮聲隨玉墀步"라고 한 한 연구聯句는 거친(鬆) 것

같다. 대체로 네 사람의 시가 결구結句에는 모두 봉지鳳池[19]를 썼는데, 소위 화和라고 하는 것이다. 두보가 봉모鳳毛[20]를 써서 맺은 것이 가장 묘하다. 내가 참람하게 논평함이 이에 이르렀으나 감히 질언質言(딱 잘라 단언함)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그런 것 같다는 사似 자를 여섯 자 붙여 놓아서 아는 자(知者)를 기다린다.

성당盛唐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지장賀知章 · 저광희儲光羲 · 원결元結의 시가 가장 교묘하고 예스러워서, 같은 때의 여러 작품들에 비하여 아주 다르다.

권필權韠이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의 칠언절구는 허혼許渾의 '노가勞歌'[21] 한 곡조에 가는 배를 푼다(勞歌一曲解行舟)"라고 한 것이 제일이고, 오언절구에는 송지문宋之問의 '병들어 누워서 인사를 닦지 못한다(臥病人事絕)'라고 한 것이 제일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권생權生은 당시唐詩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원래 허정묘許丁卯는 만당晚唐에 있어서 고수가 아니고, 송지문의 이 시는 본래 오언율시인 것을 당음唐音에서 끊어서 절구絕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격氣格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고찰하여 보니, 이창명李滄溟 · 왕감주는 모두 왕창령王昌齡의, "진나라 때는 명월관明月關, 한漢나라 때는 옥문관玉門關……"이라고 한 시구를 제일이라고 했다. 반드시 보는 바가 있어서 한 말일 것이다.

19 금중禁中, 또는 금중에 있는 못 이름인 봉황지鳳凰池. 중서성中書省이 그 가에 있었으므로 변전變轉하여 중서성을 일컫는 말이 되고, 또 변하여 재상宰相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20 뛰어난 풍채. 뛰어난 문재文才. 봉황의 털. 아들이 부조父祖에 못하지 않은 소질이 있음을 말하는 것.

21 노역자勞役者의 노래. 손을 송별하는 노래.

옛날부터 시인들이 동작대銅雀臺[22]를 읊은 것이 많다. 그중에서도 당시唐詩의, "서릉西陵[23]에 날이 저물고자 하니 이것이 나의 창자를 끊게 하는 때랍니다(西陵日欲暮 是妾斷腸時)"라고 한 것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왕세정의 시에는, "누가 한무제漢武帝와 같이 돌아와 무릉茂陵[24]을 향하여 노니는고(誰同漢武帝還向茂陵遊)"라고 한 것이 있고, 우리나라 임자순林子順의 시에는, "필경은 서릉西陵에 무덤이 72곳[25]이니, 어느 곳에서 군왕을 바라볼지 알 수 없네(畢竟西陵七十塚 不知何處望君王)"라고 했다. 쓴 뜻이 새롭다.

두시杜詩에 말하기를, "채찍에 피 묻게 한 땅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한나라 신하의 옷을 젖게 하지 말라(莫令鞭血地 再濕漢臣衣)"라고 했다. 주註에 "《한서》에 말하기를, '금중禁中은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채찍에 피를 묻히는 곳은 아니다(禁中非刑人鞭血之地)'라고 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편혈지鞭血地라고 한 것은 금중禁中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한서》에서 편혈지지鞭血之地가 아니라고 한 것을, 고사를 인용하여 금중을 도리어 편혈지라고 일컬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두시 가운데는 이와 같은 억지로 조작한 곳이 많다.

왕창령王昌齡의 시에, "진秦나라 때의 명월明月, 한漢나라 때의 관새關塞(秦時明月漢時關)"이라 한 것이 있다. 후인들이 말하기를, "이 시는 뜻이 있는 듯 없는

22 대臺의 이름이니, 중국 삼국시대에 위魏나라의 조조曹操가 쌓았다. 구리로 1장丈 5척尺의 봉황을 만들어 대 위에 높이 올려놓았다고 한다. 악부樂府를 일컬을 때는 서로 화답하는 가사歌辭를 말한다. 위무제魏武帝가 임종에 기첩伎妾 등을 연연해한 일과 기첩들이 무제의 사후에 헛되게 임금의 은총을 추모하는 일을 서술한 것이다.

23 위무제魏武帝, 즉 조조曹操의 능陵.

24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능陵.

25 위魏나라의 조조曹操가 죽을 때에, 뒷날 자기의 무덤이 혹시나 발굴될 것을 두려워하여 72곳의 의총疑塚을 만들어서 어느 것이 진정한 무덤인지 알지 못하게 했다.

듯한 사이에 뛰어난 작품이 되었다"라고 한다. 고증하여 보니, 명월은 관명關名이다. 양경楊炯의 시에, "마음이 명월관으로 달린다(心馳明月關)"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명월루明月樓 · 명월협明月峽 · 명월계明月溪 따위와 같은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백李白은 신선의 재주이고, 이하李賀는 귀신의 재주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이백은 시의 성인이고, 두자미杜子美는 시사詩史이다"라고 했다. 호종유胡宗愈가 말하기를, "두자미는 모든 나온 곳, 거취去就 · 슬픔 · 즐거움 · 근심 · 기쁨의 모든 것을 그의 시에 나타내 보였다. 그의 시를 읽으면 그의 세상에서의 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사詩史라고 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시詩이면서 역사가 되니, 또한 시의 변체變體인 것이다.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로 능히 나의 시 〈여산고廬山高〉만큼 지을 사람이 없다. 오직 이백李白만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비곡明妃曲〉 후편後篇은 태백太白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두자미만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편前篇에 이르러서는 두자미도 또한 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운운했다. 이백의 〈촉도난蜀道難〉은 〈여산고廬山高〉에 비하여 월등하게 더 좋고, 이백의 악부樂府 여러 편도 또한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구양공이 스스로 허락함이 이와 같으니 혹시나 진실로 자아도취自我陶醉에서 나온 말일까.

엄창랑嚴滄浪이 말하기를, "대력大曆 이래로 높은 것은 오히려 성당盛唐에 들어갔으나, 낮은 것은 이미 만당晩唐에 들어갔다. 만당 이하의 것은 송나라의 기색이 있다. 당나라와 송나라는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물론이고, 곧 기상氣像이 같지 않다. 여러 유명한 대가들도 또한 각기 한 가지씩의 병病이 있다. 좋은 점이 크고 흠이 작으면 비교적 좋을 뿐이다"라고 했다. 엄창랑이 여기에 대해 안식眼識이 있는 것 같다.

《예원치언藝苑卮言》에 말하기를, “왕유王維의 ‘거용성居庸城 밖에서 천교天驕(흉노)가 사냥을 한다(居庸城外獵天驕)’라고 한 한 수가 매우 아름답다. 마馬라는 글자 2자를 중첩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압권壓卷(가장 잘 지은 글)이 되기에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마馬라는 두 글자는 모두 바꾸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것으로써 본다면, 시 가운데에 같은 글자를 중첩해 쓰는 것도 또한 흠이 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장자용張子容의 시에는, ‘바다 기운은 아침에 비를 이루고, 강 하늘은 늦게 노을을 짓는다(海氣朝成雨 江天晩作霞)’ 했고, 이가우李嘉祐의 시에는, ‘아침노을은 갠 하늘에 비를 짓고, 습기는 늦게 추위를 낳는다(朝霞晴作雨 濕氣晩生寒)’라고 했다. 두 시의 말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성당盛唐과 중당中唐의 구분이 있다. 유부喩鳧의 시에, ‘기러기 나는 하늘, 노을 다리(霞脚)에 비가 내리고, 물고기 잡는 밤, 갈대 가지에 바람이 분다(雁天霞脚雨 漁夜葦條風)’라고 했다. 위 구는 뛰어나게 묘하나 아래 구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당晩唐에 넣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옳다.

위응물韋應物의 시에, “몸에 병이 많으니 시골을 생각하고, 고을에 흘러 도망하는 백성이 있으니 봉급 돈이 부끄럽다(身多疾病思田里 邑有流亡愧俸錢)”라고 했다. 송나라 사람들이, 잘 지은 시라고 더할 수 없이 칭찬했다. 그러나 이반룡李攀龍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어째서인지 알 수 없다. 혹시나 격조가 당나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일까.

원미지元微之의 〈연창궁사連昌宮辭〉를 왕감주는 〈장한곡長恨曲〉보다 더 좋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감주의 이 설은 아마 기격氣格을 가지고 말한 것일 것이

다. 그러나 백낙천白樂天의 〈장한가長恨歌〉[26]는 묘사가 그림과 같아서 곡진曲盡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두 시의 우열은 아마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장한가長恨歌〉에, '육군六軍이 출발하지 아니하니[27] 어찌할 수 없구나. 아름답게 굽은 아미가 말 앞에서 죽었네(六軍不發無奈何 宛轉蛾眉馬前死)'라고 했다. 이것은 곧 당명황唐明皇이 군정軍情에 협박되어 부득이 양귀비를 베게 한 것인데, 표현하는 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북정시北征詩〉의, '작년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던 처음을 생각하니, 일은 옛일과 달랐네. 하夏나라와 상商나라가 쇠잔하였을 때, 안에서 스스로 포사褒姒[28]와 달기妲己[29]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네(憶昨狼狽初 事與古先別 不聞夏商衰 中自誅褒妲)'라고 한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그럴 것 같다. 다만 〈장한가長恨歌〉는 기사체記事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유우석劉禹錫이 말한, "관군官軍은 영행佞幸(아첨하여 임금의 총애를 얻은 자)을 죽이고, 천자는 요망한 희첩姬妾을

26 시편詩篇의 이름. 당唐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칠언장편七言長篇의 고시古詩이다. 당나라 현종玄宗이 양귀비楊貴妃를 탐애耽愛하여 정치를 게을리하니 천하가 어지럽게 되어, 드디어 촉蜀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마외馬嵬라는 곳에서 육군六軍의 강요에 따라 귀비貴妃를 죽였으나, 그때부터 밤낮 잊지 못하고 깊이 한을 품어 드디어 방사方士를 바다 가운데에 보내어 귀비의 혼을 부르는 일을 서술한 것이다.

27 당나라 현종의 난을 피하여 촉蜀으로 거둥하는 길에 마외馬嵬에 이르니, 육군六軍이 움직이지 않고 양국충楊國忠을 죽이라고 요구하매 현종이 그 요구에 응하였으나 모든 군대가 떠나지 않았다. 현종이 그 까닭을 물으니 화란禍亂의 근본이 아직 있다고 하면서, 양귀비를 죽이기를 요구했다. 현종은 부득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28 주周나라 유왕幽王의 총희寵姬. 임금이 그녀의 사랑에 빠져 밤낮으로 유연遊宴을 일삼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거짓 봉화烽火를 들어 천하의 제후를 희롱하는 일까지 있었다. 주나라는 이 여자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29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비妃. 주왕은 달기에게 정신없이 함빡 빠져 갖은 포학과 음란을 일삼다가 나라가 멸망했다.

버렸다. 뭇 관리들은 문병門屛[30]에 엎드렸고, 귀인貴人은 황제의 옷을 당겼다. 머리를 숙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눈을 굴리니, 바람과 햇빛이 저절로 광채가 없네(官軍誅佞幸天子捨妖姬 群吏伏門屛 貴人牽帝衣 低回轉美目 風日自無輝)" 라고 한 시가 더욱 지나치게 노골적이어서, 백낙천白樂天의 시가 오히려 혼전渾全(둥글고 모가 나지 않음)한 것만 같지 못하다.

또 두시杜詩에서 이미 포사와 달기를 말하였으니, 하夏나라와 상商나라라 한 것은 상商나라와 주周나라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위좌사韋左司(위응물韋應物)의 시詩는 평담平淡하고 화和하고, 아존해서 원화체元和體[31] 시인들 중에서 으뜸이 되지만, 고시古詩의 형식을 모방한 것에 이르러서는 감히 문통文通과는 같은 날에 논평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다. 송나라 사람들이 드디어 도연명陶淵明 · 사현휘謝玄暉와 필적한다고 논평하니, 그들이 어찌 시를 아는 자들이겠는가. 유주柳州(유종원柳宗元)의 시는 새기고 깎고 하는 것이 비록 교묘하다고 하나 고시古詩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졌으며, 근체近體는 낮고 평범해서 말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유주의 이 말은 실로 보는 바가 있는 것이다. 위좌사는 중당中唐의 작가로서 원화체元和體 시인들 중의 으뜸이라고 지목되는 자이다. 백거이白居易 · 원미지元微之 등 여러 시인들의 시를 원화체라고 부른다. 그런 까닭에 원화체 시인이라고 말한 것이다.

맹교孟郊(맹동야孟東野)의 급제시及第詩에 말하기를, "봄바람에 뜻을 얻으니 말굽이 빠르구나. 하루 동안에 장안長安의 꽃을 다 보았네(春風得意馬蹄疾 一日看盡長

30 대문大門이나 중문中門 등의 정면에서 조금 안쪽에다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가림.

31 원진元稹 · 백거이白居易 등이 중심이 된 당唐나라 원화元和 연간年間의 시풍詩風. 원화는 당나라 헌종憲宗의 연호이다.

安花)"라고 했다. 사람들이 전도前途가 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명나라의 양사기楊士奇가 젊었을 때에 시를 짓기를, "찬 기운이 사람의 뼈를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매화梅花 보기를 탐내어 들다리(野橋)를 지나가네(不嫌寒氣侵人骨 貪看梅花過野橋)"라고 하니, 사람들이 "반드시 장차 먼 데에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나는 말한다. 맹교孟郊의 시는 기상이 지나치게 긴박緊迫하여서 다시 남은 맛이 없음은 진실로 그러한 것임을 알겠다. 양사기의 시는 매우 영화를 탐내고, 함부로 전진하려는 저의底意가 있다. 어찌 또한 크게 관직官職에 견딜 수 있는 자이겠는가.

두목지杜牧之가 말하기를, "백거이의 시는 섬세하고 곱고 왕성하지 않아서 장중莊重한 사람과 단아端雅한 선비가 할 바 아니다. 그의 시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흘러 전파되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입을 맞대고 음탕한 말과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가르치는 일이 되어서 사람의 피부와 뼛속으로 파고 들어가 내버릴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소두少杜(두목지杜牧之)의 이 말은 대체로 보는 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지은 시에도 또한 염체艶體[32]와 외설스런 말이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왕감주가 말하기를, "허혼許渾과 정곡鄭谷의 시는 어둡고 가냘파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뜻이 있다. 허혼은 비교적 생각하는 글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낫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감주가 기상氣像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론이 이와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당盛唐 이상의 것을 버리고 허혼 · 정곡 이하를 추모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도 거의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가엾을 뿐이다.

32 염려艶麗한 문체. 곱고 나긋나긋한 말로 쓰는 시체詩體.

장적張籍의 절부음節婦吟에 말하기를, "그대의 구슬을 돌려주려니 두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내 시집가기 전에 만나지 못한 것 한스러워라(還君明珠雙淚垂 恨不相逢未嫁時)"라고 했다. 왕감주가 이것을 "원망하는 데에 능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는 말이 음탕한 데에 가깝다. 최여인崔女人의 시에 말하기를, "첩의 몸이 너무 늦게 나서, 단랑檀郎의 나이 젊었을 때에 보지 못한 것이 홀로 한스럽습니다(獨恨妾身生苦晩 不見檀郎年少時)"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이면 거의 원망에 능하다고 하겠다.

유몽득劉夢得의 〈금릉회고시金陵懷古詩〉에 말하기를, "조수潮水가 빈 성을 치고 적막하게 돌아가네(潮打空城寂寞回)"라고 했다. 백낙천이 매우 이 시구를 사랑하여 말하기를, "후세의 시인이 다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글귀가 그다지 썩 뛰어난 것이 아닌데, 그가 추중推重하기를 이와 같이 함은 무슨 까닭일까.

한창려韓昌黎의 대행왕후大行王后[33] 만시挽詩(죽은이를 슬퍼하는 시)에 말하기를, "봉이 날아가서 마침내 돌아오지 아니하니, 검화劒化[34]하여 만나서 상종하오리다(鳳去[35]終不返 劒化會相從)"라고 했다. 왕안석王安石이 말하기를, "이것은 신하

33 왕후가 죽은 뒤,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존칭.

34 칼이 이물異物로 변하는 것. 《진서晉書》〈장화전張華傳〉에, 뇌환雷煥이 "풍성豐城에서 한 쌍의 보검을 얻어, 한 자루는 장화에게 보내주고, 한 자루는 자신이 차고 있었더니, 뇌환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 칼을 갖고 가다가 연평진延平津을 지나게 되었는데, 칼이 허리에서 뛰어나와 물속에 떨어졌다. 사람을 시켜 물속에 들어가 찾으니 칼은 보이지 않고 다만 용 2마리가 있는데, 각각 길이가 수장數丈씩 되어 보였다"라고 한 고사에서 나온 말.

35 봉황을 타고 갔다는 말. 옛날 진목공秦穆公 때에 소사簫史라는 자가 있어서 퉁소를 잘 부니, 목공이 자기의 딸 농옥弄玉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퉁소를 가르치게 했다. 그들의 퉁소 소리를 듣고 봉황이 와서 그 집 위에 머무르므로 목공이 봉대鳳臺를 지어 주어 그들 부부를 살게 하였더니, 얼마 뒤에 두 사람이 모두 봉황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고 한 고사에서 온 말.

로는 할 수 없는 말로서 독란黷亂[36]에 가깝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과연 옳다. 한창려도 이러한 병폐가 있었으니 어찌된 일인가.

당유가唐劉駕의 조행시早行詩(일찍이 길가는 일을 읊은 시)에 말하기를, "말 위에서 남은 꿈을 계속하다가, 말이 울 때에 다시 놀란다(馬上續殘夢 馬嘶時復驚)"라고 했다. 소동파가 이것을 모방하여 말하기를, "말 위에서 남은 꿈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침 해가 올라온 것을 알지 못했다(馬上兀殘夢 不知朝日昇)"라고 했다. 온정균溫庭筠의 시에 말하기를, "달 밝은 시골 술집에 닭이 울고 서리 쌓인 판자板子 다리에는 사람의 발자취가 있네(鷄聲茅店月 人跡板橋霜)"라고 했다. 구양공歐陽公이 이 시를 매우 사랑하여 시를 짓기를, "시골 술집에 비는 내리는데 새 소리 들리고, 들다리 가에 버들 빛은 봄이 무르익었네(鳥聲茅店雨 柳色野橋春)"라고 했다. 자세히 음미하여 보면 잘됨과 졸렬함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리고 소동파의 "올잔몽兀殘夢"이라고 한 올兀 자를, 후인後人이 나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한창려의 〈원화성덕시元和聖德詩〉에 말하기를, "가냘픈 약한 아들이 발가벗고 구부려 서 있는 것을, 머리를 끌고 발을 잡아당겨서 먼저 허리와 등골뼈를 끊고, 차례로 그 무리에게 미치니, 몸과 뼈는 기둥을 버티네. 어지럽게 칼을 휘둘러 다투어 베어서 회膾를 치고 포脯를 뜨네(婉婉弱子 赤立傴僂 牽頭曳足 先斷腰膂 次及其徒 體骸撐柱 揮刀紛紜 爭剸膾脯)"라고 했다. 그 묘사가 이와 같이 극진하다. 아마 한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다만 주륙誅戮이 적자赤子에게 미친 것은 훈계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착한 임금의 덕을 형용하는 뜻도 되지 않는 것이다. 어찌해서인지 알 수 없다.

이승은李商隱의 시에 말하기를, "한밤중 연회에서 돌아오니, 궁중의 누수 소리

36 더럽히고 어지럽게 함. 더럽고 음란함.

길구나. 설왕은 몹시 취했고 수왕은 깨었네〔夜半宴歸宮漏水 薛王沈醉壽王醒〕”[37]라고 했다. 《학림옥로鶴林玉露》에서 말하기를, “그 말이 은미隱微하면서도 드러나서 풍인風人(시인)의 체體를 얻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수왕壽王의 심사心事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억지로 은미한 곳을 더듬어 찾아서 시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군자의 충후忠厚한 뜻이 아니다. 시인의 체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정곡鄭谷의 시에, “봄 그늘은 버들개지를 가리고 달이 어두우니 배꽃이 보인다〔春陰妨柳絮 月黑見梨花〕”라고 하였는데, 진간재陳簡齋의 시에는 “따뜻한 햇빛은 버들을 덥게 하고 봄바람은 해당海棠을 취하게 만든다〔暖日薰楊柳 春風醉海棠〕”라고 했다. 의미와 기교가 너무나 졸렬하여 서로 동떨어지게 차이가 있다. 이것이 당나라와 송나라의 차이인 것이다.

옛날과 지금에 〈망부석望夫石〉을 제목으로 한 시가 많다. 그러나 전배前輩들은 특히 고황顧況이, “산머리 숱한 세월에 바람은 비는 몇 번이던고, 가신 님 돌아오면 돌도 아마 말하리라〔山頭日月風和雨 行人歸來石應語〕”라고 한 시를 제일이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망부석은, 사람이 그 아래를 지날 때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가 온다”라고 했다. 이 시의 뜻은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퇴지韓退之는 문文으로써 시를 짓고 소자첨蘇子瞻은 시로써 사詞를 짓기 때문에, 비록 천하의 공교함이 극치를 다하였더라도 반드시 본색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두 사람도 오히려 그러하니 하물며

37 설왕薛王은 흠뻑 취하고, 수왕은 술이 깨었다는 말. 당명황唐明皇이 베푼 용지龍池의 연회에서 다 같은 명황의 아들인데 설왕은 취하고 수왕壽王은 깨었다고 한 것이다. 양귀비는 처음에 수왕의 비妃였다.

그 이하의 사람이겠는가.

이상은李商隱의 〈화청궁시華淸宮詩〉에 말하기를, “화청궁의 은혜로운 거둥이 예전에는 유례類例가 없건만, 오히려 고운 맵시 남보다 낫지 못할까 두려워하네. 저 포사의 웃음에는 지는 것을 면치 못하겠기에 삼가 천자에게 잠깐 몽진蒙塵(임금이 난리에 피난하는 일)하게 하였네(華淸恩幸古無倫 猶恐蛾眉不勝人 未免被他褒女笑 祗敎天子暫蒙塵)”라고 했다. 이 시의 뜻을 살펴보니, 반드시 주유왕周幽王[38]과 같은 화禍를 입게 한 뒤에야 속 시원해 하고 있다. 비록 시격詩格은 오히려 새로우나 말의 뜻은 온당하지 않다. 당唐나라 세상의 신하로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두시杜詩에는 말하기를, “조정朝廷에는 주유왕周幽王 같은 화禍는 없었으나, 두 번이나 몽진한 일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朝廷雖無幽王禍 得不哀痛塵再蒙)”라고 했다. 이것이 곧 인인仁人(군자)의 말이다.

이상은의 〈마외시馬嵬詩〉에 “바다 밖에 또다시 구주九州가 있다는 것, 한갓 말로만 들었을 뿐이다. 타생他生이 있다는 일 믿을 수 없는데, 차생此生은 끝났구나. 헛되게 말을 경계하는 호려虎旅(위사衛士)의 목탁木柝 소리만 들릴 뿐 계인鷄人(궁중의 누수漏水를 맡아 보고 시각을 알리는 관리)의 새벽을 알리는 일은 다시없네. 이날 육군이 함께 말을 세우고 전진하지 않으니……(海外徒聞更九州 他生未卜此生休 空聞虎旅鳴宵柝 無復鷄人報曉籌 此日六軍同駐馬)”라고 했다. 이 시는 세상에서 칭찬하여 외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글귀를 살펴보면, 말이 매우 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문徒聞과 공문空聞, 차생此生과 차일此日은 글자도 또한 중첩되어서 온당하지 않다.

온정균溫庭筠의 시에 말하기를, “향등香燈(향과 등불)이 꿈을 이끌어 초楚나라가

38 요희妖姬 포사褒姒를 총애하여 국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지더니, 뒤에 신후申侯가 견융犬戎과 함께 입구入寇하여 왕을 시해했다.

하늘 가에 있네. 달은 지고 두견의 울음도 그쳤는데, 뜰 가득 산살구꽃 피었구나(香燈伴殘夢 楚國在天涯 月落子規歇 滿庭山杏花)"라고 했다. 이 시는 꿈을 깨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고요하고 이욕利慾의 생각이 없이 자연스러운 정경이 완연히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뻐할 만하다.

조하趙嘏의 칠언율 가운데 오직, "긴 피리 한 소리에 사람은 누樓에 의지해 섰네(長笛一聲人倚樓)"라고 한 한 글귀가 예전과 지금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 밖에는 볼 만한 것이 없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만당晩唐 때의 시에, '산에 비가 오고자 하니 바람이 누樓에 가득하다(山雨欲來風滿樓)'라고 한 글귀나, '긴 피리 한 소리에 사람은 누에 의지해 섰네'라고 한 글귀가 있는데 모두 아름답다. 그러나 읽어보면 문득 장경長慶(당목종唐穆宗의 연호) 이전의 시어詩語가 아님을 알게 된다"고 했다. 또한 진실로 그러하다.

당나라 사람의 〈조행시早行詩〉에 유창劉滄의, "군루郡樓에 달그림자 희미한데, 관수關樹에 한 소리 닭이 우네(殘影郡樓月 一聲關樹鷄)"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말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온정균의, "닭 우는 소리, 모점茅店(띠로 지붕을 인 주막. 시골의 조그마한 주막)에는 달일세(鷄聲茅店月)"라고 한 것에 비하면 의미가 거의 하늘과 땅 같다.

장우張祜의 〈금산사시金山寺詩〉에 말하기를, "나무 그림자는 물 가운데 보이고, 종소리는 양쪽 언덕에 들리네(樹影中流見 鐘聲兩岸聞)"라고 했다. 사람들이 절창絶唱이라고 했다. 당나라 말기에 손방孫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윗글에 계속하여 짓기를 "하늘이 많으니 달 얻는 것이 넉넉하고, 땅이 적으니 티끌이 나지 않는다(多天剩得月 地少不生塵)"라고 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누가 장처사張處士의 시 뒤에는 다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는가"라고 했다. 아마 장우張祜의 시를 압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시도 역시 아름답지 않은 것

은 아니나, 자못 힘을 소비하여 애써 지은 것이어서, 장우의 시가 자연에 가까운 것만큼은 같지 못하다.

당나라 도옹陶雍의 〈노자시鷺鷀詩〉에 말하기를, "푸른 풀 앞에 서니 사람이 먼저 보고, 흰 연꽃 곁으로 다니니 물고기가 알지 못한다(立當靑草人先見 行傍白蓮魚未知)"라고 했고, 평당平唐의 〈백마시白馬詩〉에는 말하기를, "눈 속에 내보내니 자취를 찾으려는 것이 헛된 일이고, 달 아래에 몰고 오니 다만 안장만 보인다(雪中放去空尋跡 月下牽來只見鞍)"라고 했다. 명나라의 원개袁凱의 〈白鷰詩〉에는 말하기를, "달 밝은 한수漢水에서는 처음부터 그림자가 없고, 눈이 양원梁園에 가득하니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月明漢水初無影 雪滿梁園尙未歸)"라고 하였으며, 탕지중湯志中의 시에서는, "배꽃 핀 원락院落에서는 다만 울음소리만 들리고, 버들개지 날리는 지당池塘에서는 나는 것을 볼 수 없다(梨花院落只聞語 柳絮池塘不見飛)"라고 했다. 이 여러 편의 시어들이 비록 서로 같으나 우수한 것과 졸렬한 것이 있음은 덮을 수 없다. 또 원개의 시는 그 시제가 백연白鷰이 아닌 흰 기러기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나은羅隱의 〈목단시牡丹詩〉에 말하기를, "만약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응당 나라를 기울게 만들겠구나. 아무런 뜻(情)도 없건만 이다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若敎解語應傾國 任是無情也動人)"라고 했다. 조당曹唐은 말하기를, "이 시는 여자의 장애障礙됨을 경계하여 읊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왕건王建의 〈목단시牡丹詩〉에는 말하기를, "경국지색傾國之色이 아침에는 술 취해 있고, 하늘의 향기가 밤에 옷을 덮치네(國色朝酣雨 天香夜染衣)"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은 바로 미인을 읊은 것이다.

당시唐詩에, "옛 나무 반쪽이 봄이로구나(古樹半邊春)"라고 했고, 또, "늙은 나무 반쪽은 빈 배로구나(老樹半空腹)"라고 한 것도 있다. 진거비陳去非가 드디어 "늙

은 나무 반쪽이 젖었네(老樹半身濕)"라고 했다. 자세히 음미하여 보니, 스스로 선후先後와 공졸工拙의 차가 있다. 그런데 후인들이 홀로 진간재陳簡齋의 이 글귀만을 칭찬해 부르는 것은, 아마 이 시가 옛 시를 도습한 데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허정묘許丁卯의 시를, 송나라 사람들은 기격氣格이 비하卑下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경구警句인 글귀로서 "용이 돌못에 누워서 밤비를 듣고, 기러기는 모래물가에 옮겨서 가을의 호수湖水를 본다(龍臥石潭聞夜雨 雁移沙渚見秋潮)"라고 한 것은, 비록 만당晩唐에 있었으나 결코 송나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산보李山甫가 한漢나라 역사를 읊은 시에, "왕망王莽이 농권弄權(권세를 함부로 부림)해 오니 이미 반은 깨어졌고, 조공曹公이 장차 가니 문득 쉽게 침몰하였네(王莽弄來曾半破 曹公將去便平沉)"라고 했다. 사람들이 이것을 〈파선시破船詩〉라고 했다. 나은羅隱의, "구름 속의 계견鷄犬은 유안劉安이 지나가고, 달 속의 생가笙歌(생황과 노래)는 양제煬帝가 돌아온다(雲中鷄犬劉安過[39] 月裏笙歌煬帝歸)"라고 한 글귀는 귀신을 본 시라고 하고, 유장경劉長卿의, "가느다란 비가 옷을 적시니 보아도 보이지 않고, 한가한 꽃이 땅에 떨어지니 들어도 소리가 없다(細雨濕衣看不見 閒花落地聽無聲)"라고 한 글귀를 눈이 없는 시라고 한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보아도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눈이 없는 것이 되고, 들어도 들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귀가 없는 것이 된다.

한창려의 웅사雄肆(웅장하고 방자함)함과 두목지의 추호麤豪(크고 조잡하고 호방함)함과, 장길長吉의 궤탄詭誕함과 노동盧同의 괴기怪奇와, 맹교孟郊의 괴로워함과 가

39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선화仙化하여 갈 때에, 뜰에 남겨둔 약을 먹고 개와 닭이 모두 하늘에 올라갔다고 한 고사를 말한 것. 즉, "구름 속의 개와 닭소리는 유안이 지나가고"라고 한 것이다.

도賈島의 파리함과 상은商隱의 벽루僻陋(견문이 좁고 성질이 괴벽스러움)함과 백거이의 상스러움과 온정균의 섬세하고 고움이 각각 그 형태를 극진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당나라의 시체詩體는 이에 이르러 크게 변했다.

이의산李義山의 장편은 가장 어렵고 궁벽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세상에서는 항상 주註가 없음을 한恨한다. 대체로 문장을 쓰는 법이 군색하고 어렵고 매끄럽지 않으며, 또 고사를 많이 인용하고 글자를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흠이며 병이어서 본받을 것이 못 된다. 오직 〈평회서비시平淮西碑詩〉라는 한 편은 쉽고 노련하고 기운차서,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

장계張戒가 말하기를, "이의산 · 두목지는 대체로 율시律詩에는 능숙하나 고시古詩에는 능숙하지 못하고, 칠언七言에는 오히려 능숙하나 오언五言엔 좀 떨어진다"라고 했다.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당나라의 시인 중에서 이의산 · 두목지는 두보杜甫를 배웠다"라고 했다. 내가 보니, 세상의 시를 배우는 자들은 번천樊川(두목杜牧의 호)이나 의산義山(이상은李商隱의 호)을 주로 한다. 아마 그들이 칠언율七言律에 뛰어나고 또 두보를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말하기를, "오융吳融이 일찍이 시 100편을 이동李洞에게 보였더니, 이동이 말하기를, 100편 가운데에 오직 한 연구聯句가 절창絕唱이다. 즉 '따뜻한 물결이 출렁이니 물고기가 알을 남기고, 맑은 날에 노는 사슴은 새끼를 데리고 있다(暖漾魚遺子 晴游鹿引麛)'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융融이 낮추어 말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절창이라고 추허推許함을 기뻐했다고 한다. 지금 이 글귀를 보니 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글귀도 아니다. 시詩라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양대년楊大年은 두시杜詩를 좋아하지 않아서, 촌부자村夫子(시골 선비)의 시라고 말했다. 이 말이 비록 통론通論은 아니나 또한 반드시 보는 바가 있어서 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양대년이 노두老杜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홀로 이의산의 시만을 좋아함은 무슨 까닭인가.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한밤중에 종소리가 객의 배에 들려온다〔夜半鐘聲到客船〕라고 한 글귀의 야반夜半은 종이 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묵객휘서墨客揮犀》를 참열參閱하여 보니 말하였기를, "내가 고소姑蘇에 이르러 야반에 종소리를 듣고 물으니, 절의 중들이 모두 말하기를, '본래부터 분야종分夜鐘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이상한가'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는 진실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왕직방王直方이 말하기를 "《남사南史》에 '구중부丘仲孚가 글을 읽을 때에 항상 한밤중의 종소리를 한계限界로 했다'고 했다. 그러니 야반에 종을 울리는 것은 오중吳中의 옛일이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시를 평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한위공韓魏公의 희설시喜雪詩(눈을 기뻐하는 시)에 말하기를, "위태한 돌이 뚜껑이 깊으니 염호鹽虎(바위에 눈이 쌓여 범 모양으로 보인다는 말)가 빠지고 늙은 가지가 떠받드는 것이 무거우니 옥룡玉龍이 차갑다〔危石盖深鹽虎陷 老枝擎重玉龍寒〕"라고 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천하의 무거운 존재로 자임함이 이와 같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희우시喜雨詩(즐거운 비가 온 것을 읊은 시)에는 말하기를, "잠깐 사이에 삼농三農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위안하고는, 신기한 공적을 거두고 감추어 고요하기가 없는 것 같다〔須臾慰滿三農望 收斂神功寂若無〕"라고 했다. 나는 이 시가 더욱 훌륭하다고 말한다.

임포林逋의 시에, "풀이 덮인 진흙에 곽색郭索이 가고, 구름 덮인 나무에 구주鉤輈가 부르짖는다〔草泥行郭索 雲木叫鉤輈〕" 했다. 구양공歐陽公이 말하기를, "말

이 새롭고 대對 맞춘 것이 정절精切하다"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곽색은 게〔蟹〕가 기어가는 모습이니 《태현太玄》에 나온다. 구주鉤輈는 자고새의 울음소리다. 나는 말한다. 대對는 정절하지만, 구법句法은 외속猥俗하다. 당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형공荊公이 〈석우동石牛洞〉을 제목으로 한 시에, "물은 출렁출렁 북쪽에서 나오고, 산은 굽이굽이 곁에서 둘렀네. 그 근원을 찾으려다가 이루지 못하여, 마침내 쓸쓸히 바라보며 헛되게 돌아가네〔水泠泠以北出 山靡靡以旁圍 欲窮源而不得 竟悵望而空歸〕"라고 했다. 산곡山谷은 말하기를, "조물주는 무심히 물건을 만들었으며 조사祖師는 옷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네. 흰 구름은 가로 지른 채 지나가지 아니하고, 외로운 새는 게으르지만 오히려 날고 있네〔司命無心播物 祖師有記傳衣 白雲橫而不度 孤鳥倦而猶飛〕"라고 했다. 세상에서 모두 아름답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형공의 글은 그럴듯하나, 산곡의 글은 그렇지 않다.

전배前輩가 왕형공王荊公의 시를 평하여 말하기를, "연명淵明을 조祖로 하고 영운靈運을 종宗으로 하였으며, 자미子美를 체體로 했고, 태백太白을 용用으로 했다. 그가 지은 시에, '소나무를 땔나무로 하여 시냇물을 끓이고, 이미 먹은 뒤에는 거문고를 가져다 탄다〔樵松煮澗水 旣食取琴彈〕'라고 한 것은 청담淸淡하다. '달이 비치니 숲과 못이 밝고, 바람에 잠기니 웃음과 말이 서늘하다〔月映林塘淡 風涵笑語凉〕'라고 한 것은 곱고 묘하다. '땅은 외로운 섬에 머물러서 작고, 하늘은 오호五湖 속으로 들어가 깊다〔地留孤嶼小 天入五湖深〕'라고 한 것은 높고 아존하다. '기세가 합하니 문득 땅을 싸서 다하는가 의심되고, 공을 이루고는 마침내 봄을 내놓아 돌아오게 하고자 한다〔勢合便疑包地盡 功成終欲放春回〕'라고 한 것은 호일豪逸하고 조용하다. 법도가 매우 엄밀하여서 한 점도 교정할 곳이 없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형공의 시가 송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정교하고 뜻과 맛이 있다. "이미 배는 없건만 오히려 피리 소리는 들리고, 멀리 누대樓臺

가 있으니 다만 등불만 보인다. 산달이 솔 사이로 들어가니 금이 깨져 부서지고, 강바람이 물을 부니 눈이 무너져 날아오르네(已無船舫猶聞笛 遠有樓臺只見燈 山月入松金破碎 江風吹水雪崩騰)"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말이 교묘하지 않음이 아니나, 기격氣格은 오히려 만당晩唐 이하에 있다. 그를 도연명陶淵明 · 사영운謝靈運 · 이백李白 · 두자미杜子美에게 비하는 것은 진실로 지나친다.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말하기를, "산곡山谷이 일찍이 왕형공의 〈여객야좌시與客夜坐詩〉와, 소동파蘇東坡의 〈산사증승시山寺贈僧詩〉의 2가지 절구를 칭찬했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각각 마른 오동에 의지하여 같이 잠자지 못하더니, 우연히 빗소리를 듣고 섬돌 위에 떨어지네(各據槁梧同不寐 偶然聞雨落階除)"라고 한 것은 왕형공의 시다. "흰 재를 잠깐 돋우어 붉은 불을 통하게 하고, 누워서 바삭바삭 눈발이 창 두드리는 소리를 듣네(白灰旋撥通紅火 臥聽蕭蕭雪打窓)"라고 한 것은 소동파의 시다. 자세히 음미하면 왕형공의 시는 뜻이 없고, 소동파의 시는 뜻이 있다. 이것으로 그 우열을 알 수 있다.

후출后出이 말하기를, "소동파의 시는 유우석劉禹錫을 배웠다. 그런 까닭에 원자怨刺(남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함이 많더니 늦어서는 이백李白을 배웠다. 그리하여 뜻을 얻으면 그럴듯하나 뜻을 얻지 못하면 거칠다. 그것은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후산后山은 바로 그의 문하門下 사람이다. 그러나 평론이 이와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 공풍鞏은 소동파의 문인門人이다. 또한 말하기를, "동파의 평생의 시는 유몽득劉夢得을 배웠다"라고 했다. 그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소동파가 진리상陳履常 · 조경황趙景貺과 함께 사람을 찾아갔다가 지은 시에 이런 것이 있다. "꿈에서 돌아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 누군가, 진陳과 조趙와 나일세(夢回聞剝啄 誰乎陳趙予)." 당시의 사람들이, 구법句法이 매우 새롭다

고 했다. 나는 그 구법이 매우 속되다고 말한다.

소동파의 시집 중에서는 〈사시사四時詞〉가 가장 좋다. 그의 재주가 호방함을 볼 수 있다.

엄창랑嚴滄浪이 말하기를, “시詩는 소동파에서부터 스스로 자기의 의사대로 짓고, 거의 조금의 기미氣味도 본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당시唐詩의 일대 변혁이 되었다. 그리고 시가 여기에 이르러 또한 큰 재액을 만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엄창랑은 곧 만송晩宋 때 사람이다. 그런데 견해가 이러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왕감주가 말하기를, “시격詩格이 소식蘇軾 · 황정견黃庭堅에서부터 변한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황정견의 생각에는 소식이 불만스럽다. 곧 그를 능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식만 못하다. 어째서 그런가. 더욱 교묘하고자 하면 더욱 졸렬하게 되고, 더욱 새롭고자 하면 더욱 진부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으로 그들의 우열을 판정할 수 있다. 들으니 왕감주는 만년에 소동파의 시와 백낙천을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소동파의 시에 말하기를, “공公이 홀로 그 취지를 알지 못한다. 신臣이 지금 다시 한 번 맞추겠다〔公獨未知其趣耳 臣今時復一中之〕”라고 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대對가 기묘하다고 한다. 이것을 사륙문의 우대偶對로 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에 쓰는 것은 구법이 속된 것 같고, 천기天機(타고난 천진天眞)도 또한 얕다. 당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글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곡山谷의 시에, “악양樂羊이 마침내 파서巴西를 부끄러워한다〔樂羊終愧巴西〕”라고 한 것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진서파秦西巴는 사람의 성명이다. 그것을 거

꾸로 하여 파서巴西라고 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소동파의 시에, "그의 집 옛 성姓인 서씨西氏를 기록해 가졌다(記取儂家舊姓西)"라고 한 것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동시東施 · 서시西施는 시施가 성이다. 이에 성을 서씨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2월 진일辰日에 외를 심는 것이 좋다(二月辰日宜種瓜)"라고 했고, 또 월령月令에, "밭에 비료를 준다"라고 했다. 황산곡黃山谷의 시에 말하기를, "여름에는 취죽醉竹 천여 개를 심고, 봄에는 진과辰瓜를 비료 주어 백구百區에 가득하다(夏栽醉竹餘千箇 春糞辰瓜滿百區)"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또 말하기를, "땅에 비료를 주어 황옥화黃玉花를 피게 한다(糞壤能開黃玉花)"라고도 했다. 시에 분糞 자를 사용한 것은, 산곡山谷의 시에서만 두 번 볼 수 있다. 아마 지나치게 속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황산곡黃山谷이 말하기를, "천착穿鑿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큰 뜻을 버리고, 경물景物을 만나 의흥意興을 읊은 것을 가지고 모두 탁의托意한 것이 있다고 하여, 세상에서 은어隱語를 상탁商度(헤아려 생각함)하듯 한다. 그리하여 시는 땅에 떨어진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매우 좋다. 후인들이 시를 평론할 때에 오직 천착에만 힘쓰고 그 본뜻을 잃는 자가 많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함께 시를 말할 수 없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말하기를, "근세의 사람들은 산곡山谷을 배운다. 또 산곡의 좋은 점을 배우지 않고 다만 산곡의 좋지 않은 곳만 배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노직魯直은 두자미杜子美의 기주시夔州詩를 좋다고 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주시는 설명이 중첩되고 번거롭다. 지금 사람들은 다만 노직의 좋다고 말한 것만 보고, 문득 덮어놓고 좋다고 말한다. 마치 키 작은 사람

이 연극 구경하는 것과 같다(矮人看場)"[40]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바로 속학俗學의 폐단을 말한 것이다.

진후산陳后山은 즐겨 두시杜詩를 습용한다. 두시에, "어젯밤에 달과 동행했다(昨夜月同行)"라고 한 것을, 진陳은 "은근한 달이 있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간다(殷勤有月 與同歸)"라고 했다. 두시에, "가만히 나는 반딧불이 스스로 비친다(暗飛螢自照)"라고 한 것을 진은 "나는 반딧불은 원래의 비치는 것을 잃었다(飛螢元失照)"라고 했다. 두시에, "문장은 천고의 일(文章千古事)"이라고 한 것을 진은 "문장은 평일의 일(文章平日事)"이라고 했다. 두시에, "하늘과 땅 사이의 한낱 썩은 선비다(乾坤一腐儒)"라고 한 것을 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썩은 선비의 몸을 붙였다(乾坤着腐儒)"라고 했다. 두시에, "차가운 꽃이 다만 잠깐 향기를 피운다(寒花只暫香)"라고 한 것을 진은, "차가운 꽃이 다만 스스로 향기를 피울 뿐이다(寒花只自香)"라고 했다. 우수하고 졸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송나라 사람의 시에, "두곡杜曲(땅 이름)에는 꽃이 아름다워 술처럼 무르익었고, 패릉霸陵(땅 이름)의 봄빛은 사람보다 더 늙었네(杜曲花芳濃似酒 霸陵春色老於人)"라고 한 것이 있다. 당시의 사람들이 뛰어난 좋은 글귀라고 했다. 그러나 당唐나라 경위耿湋의 시에 "화和한 바람 취한 속에 은혜를 받든 객客이, 꽃다운 풀 돌아가는 길엔 실의한 사람일세(和風醉裏承恩客 芳草歸時失意人)"라고 한 것에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있다.

간재簡齋(송나라 진여의陳與義)가 묵매墨梅(묵으로 그린 매화)를 읊은 시에서, 사람들은 고皐라는 글자를 운자韻字로 한 것이 좋다고 한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락京洛에서 서로 만나니 모든 것이 예전과 같건만, 오직 치의緇衣(중의 옷)의

40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들의 뒤에서 연극을 보는 것과 같다는 뜻. 다만 앞 사람이 비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부화附和하여 비평하는 것. 자신의 견식이 없음을 비웃는 말.

티끌이 소의素衣(흰 옷, 즉 속인俗人의 옷)을 물들인 것이 한스럽다(相逢京洛渾依舊 唯恨緇塵染素衣)'라고 한 글귀만 못하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또, "병들어 혼화昏花[41]를 보는 것이 이미 여러 해로구나. 아마 매화의 꽃송이는 예나 다름이 없겠지. 누가 너로 하여금 진현陳玄(먹의 다른 이름)의 낯을 짓게 하여, 눈이 어지러워서 처음 만났을 때에 감히 어여뻐할 수 없게 하였는고(病見昏花已數年 只應梅蘂故依然 誰教也作陳玄面 眼亂初逢未敢憐)"라고 한 시가 더욱 좋다고 한다. 나의 견해로는, 이 시들은 모두 뜻과 맛이 있어서 읊을 만하다. 그러나 풍조風調와 운치韻致는 당시唐詩보다 훨씬 떨어진다.

간재簡齋의 시에, "만 리를 와서 노닐면서 도리어 먼 곳을 바라보며, 3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시 위태한 곳에 기대어 서네(萬里來游還望遠 三年多難更憑危)"라고 한 것이 있다. 내가 매우 좋아한다. 두시杜詩에는 말하기를, "만 리에 가을이 슬프다. 이 몸은 항상 나그네라네. 100년에 병이 많아서 대에 홀로 오른다(萬里悲秋常作客 百年多病獨登臺)"라고 했다. 이에 간재의 이 글귀가 오로지 두시에서 나온 것을 알겠다. 그러나 두시가 더 좋다.

고증하여 보니, 조조曹操의 의총疑冢이 장하漳河 위에 있는데 모두 72개의 무덤이라고 한다. 범석호范石湖가 시에 말하기를, "관棺은 1개인데 어째서 무덤을 수풀처럼 많이 만들었는가. 누가 다시 공과 같은 꾀가 있어서 공의 이 마음 헛되게 하랴(一棺何用冢如林 誰復如公負此心)"라고 했다. 나대경羅大經이 이 글귀를 절구絕句의 뛰어난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이 아마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하겠다. 송나라 유응부俞應符의 시에는 말하기를, "의심되는 무덤 72개를 모두 파헤친다면 반드시 한 곳에는 그대의 시체를 감춘 데가 있을 것이다(盡拔疑冢七十二 必有一處藏君屍)"라고 했다. 간사한 귀신의 담膽을 깨뜨리기에 가장 넉넉할 것이다.

41 눈의 시력이 약해져서 눈앞에 반점斑點이 어른거리는 것. 흐릿하고 어슴푸레한 것.

양신楊愼이 말하기를, "주문공朱文公의 감우시感遇詩를 진자앙陳子昂의 감흥시感興詩와 비교하면, 푸른 치마에 흰 머리가 된 절부節婦와 아름답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궁녀가 고움을 다투고 어여뻐함을 사려함과 같아서, 같은 날에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왕세정이 이 말을 그렇다고 했다.

《예원치언藝苑巵言》에 말하기를, "엄창랑嚴滄浪의 시에는 다만 '갠 강에 나뭇잎 떨어지니, 때로는 비인가 의심하네. 어두운 개펄에 바람이 이니, 조수潮水가 올라오려나 보다(晴江木落時疑雨 暗浦風生欲上潮)'라고 한 한 연구聯句가 잘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갤 청(晴) 자와 어두울 암(暗) 자를 사용한 것은 너무 기교를 부려서 유치하다. 갠 강(晴江) 대신에 빈 강(空江)이라 하고 어두운 개펄(暗浦) 대신에 다른 개펄(別浦)이라고 하면 온당할 것 같다"고 했다. 그 설이 옳다. 다만 다른 개펄(別浦)을 늦은 개펄(晩浦)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반룡李攀龍이 신하新河를 읊은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봄물은 흘러 도화수桃花水[42]에 이상이 없고, 가을빛은 호자궁瓠子宮[43]에 예전 그대로일세(春流無恙桃花水 秋色依然瓠子宮)"라고 한 것이 있다. 왕세정이 지극히 칭찬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왕세정도 또한 신하新河를 읊은 시가 있어서 말하기를, "산을 이어 모두 눌렀으니 지기支祈[44]를 봉쇄했고, 은하수에 핍근逼近하니 직녀織女의 베틀을 뚫을까 의심된다(連山盡壓支祈 鎖逼漢疑穿織女機)"라고 했다. 《요산당기堯山堂紀》에서는 이 연구가 창명滄溟의 시보다 위에 있다고 했다. 나는 말한다. 왕세정의 시는 기력이 굳고 꿋꿋하다. 그러나 구법은 자랑하는 것을 면

42 춘삼월春三月 도화桃花가 필 무렵에 풍부하게 흐르는 봄물.

43 궁宮의 이름. 옛날 한무제漢武帝 때 황하의 둑이 끊어진 것을 황제가 친히 호자瓠子라는 곳에 거둥하여 이것을 막아서 동남쪽으로 거야鉅野에 쏟아 회사淮泗에 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호자궁을 지었다고 한다.

44 지기정支祈井의 약칭. 옛날 하우씨夏禹氏가 홍수를 다스릴 때에 여기에서 물귀신 무지기巫支祈를 진압鎭壓하여 봉쇄했다고 하는 곳.

치 못한다. 아마 이반룡의 시가 전완全完한 것만 못한 것 같다.

중국 사신使臣 장녕張寧의 유한강시遊漢江詩(한강에 노니는 시)는 진실로 가작佳作이다. 그러나 오직, "멀리 바라보니 하늘이 다하였는지 의심되고, 허공을 헤치고 가니 땅이 뜨고자 한다(望遠天疑盡 凌虛地欲浮)"라고 한 한 연구聯句가 좋다. 또 제천정濟川亭에서는 "사방이 비어서 창호窓戶가 없다(四空無窓戶)"라고 하고는, 또 말하기를, "창에 들어오는 바람과 햇빛이 좋다(入窓風日好)"라고 한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중국 사신 허국許國의 시를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말하기를, "그 시는 해악海嶽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두목頭目 상공相公이 대신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오봉李五峰이 일찍이 말하기를 "중국의 시에 허국이 제1이고, 기순祁順이 제2, 장녕張寧이 제3이다"라고 했다. 나의 생각에는 장녕의 작품이 제2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능히 변별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중국 사신 당고唐皐가 길에서 말이 미끄러져 기울어 떨어지니, 부사副使 사도史道가 시를 지어 말하기를, "학사學士의 풍류는 산이 유희遊戲를 하고, 장원壯元의 성가聲價를 말이 견디어 지탱하지 못한다(學士風流山作戲 壯元聲價馬難支)"라고 했다. 산이 유희를 한다(山作戲)는 말은 아마 불경佛經의 말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당고가 과거에서 장원하였으므로 아래 글귀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매우 아름답다.

고려 때, 최사립崔斯立의 시에 말하기를, "천수문天壽門 앞에 버들개지 날리는데, 술 한 병 갖고 와서 벗을 기다리네. 눈이 뚫어질 듯 바라보는 긴 석양 길에 많고 적은 행인들, 가까이 오고 보니 딴 사람일세(天壽門前柳絮飛 一壺來待故人歸

眼穿落日長程畔 多少行人近却非)"라고 했다. 어떤 이가 "근각비近却非" 세 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은 곧 한퇴지의 시에, "풀빛이 멀리서는 보이더니, 가까이 가니 도리어 없네(草色遙看近却無)"라고 한 것과 같은 뜻으로서, 역시 아름다운 시다. 다만 인人이란 글자가 중첩되어 있다.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옛 돌은 물결이 방아질 하여 평평하게 숫돌이 되었고, 깨진 배는 이끼에 묻힌 채 누워서 다리를 이뤘네(古石浪春平作礪 破船苔沒臥成橋)"라고 한 것이 있다. 정사룡鄭士龍의 시에 말하기를, "못생긴 돌에 물결은 방아를 찧고, 굴은 껍질을 붙였네. 빈 징검다리에 해가 비치니 갈매기가 날개를 다듬는구나(波舂醜石蠔粘殼 日射空梁鷺刷翎)"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사룡의 시를 아름답고 묘하다고 칭송하면서, 그 말이 이규보에게서 처음 나온 것은 알지 못한다.

이규보가 처음 과거에 급제하고 통제원通濟院에 놀면서 지은 시의 한 연구에 말하기를, "다리 저는 나귀의 그림자 속에 푸른 산이 저물고, 끊어지는 기러기 소리 가운데에 붉은 나무들은 가을이로구나(蹇驢影裡碧山暮 斷鴈聲中紅樹秋)"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시가 송나라에 흘러들어 가서 그 나라 사람이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나는 말한다. 이 연구가 특별히 경구警句 될 것도 없는데 그러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익재李益齋(이제현李齊賢)의 시에, "종이 이불(紙被)에 추위가 나니 부처의 등불(佛燈)이 어둡구나. 어린 중이 하룻밤 종을 울리지 않네. 아마 유숙留宿하는 손님이 일찍 문 여는 것을 성낼 것이니, 암자 앞에 눈이 소나무를 누르고 있는 경치나 보고 있어야겠군(紙被生寒佛燈暗 沙彌一夜不鳴鐘 應嗔宿客開門早, 要看庵前雪壓松)"이라고 했다. 이 시는 아마 이상은李商隱의 시, "화로의 연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등잔은 어두운데 동자童子가 문을 여니, 눈이 소나무에 가득하네(爐烟銷

盡寒燈暗 童子開門雪滿松)"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말은 더욱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런 것을, "푸른빛은 쪽(마디풀과에 속하는 1년초)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靑出於藍而靑於藍)"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한 처사處士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자기의 집을 제목으로 한 시에, "주렴 밖에서 파초가 우니 산에 비 오는 것을 알고, 돛이 산봉우리의 위로 나오니 바다에 바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蕉鳴箔外知山雨 帆出峯頭見海風)"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방문하니 바람에 불리는 돛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시가 실화實話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작은 돛이 산봉우리에 나타나 보였다. 비로소 그 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것으로 본다면 시詩라는 것은 쉽게 평론할 수 없는 것이다.

여주驪州의 청심루淸心樓에는 제영題詠이 매우 많다. 그중에서 오직 목은牧隱의 시, "물을 막아내는 데는 마암석馬岩石[45]의 공功이 높고, 하늘에 뜬 것 같음은 용문산龍門山[46]의 형세가 크구나(捍水功高馬岩石 浮天勢大龍門山)"라고 한 것을 뛰어난 시라고 한다. 근세 이홍남李洪男의 시에는, "잠깐 흰 것 같더니 홀연히 푸르러 보이는 것은 바랜 피륙을 펼쳐 놓은 듯한 강물이고, 찌푸린 것 같다가 도로 펴는 것은 눈썹을 그린 듯한 산 모습일세(乍白忽靑拖練水 似顰還展畫眉山)"라고 했다. 또한 잘 지었다. 다만 이 시는 홀로 청심루淸心樓만이 아니고, 다른 곳의 제영에도 모두 쓸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좋지 않다.

부벽루浮碧樓 · 연광형練光亭 · 백상루百祥樓 · 통군정統軍亭은 모두 관서關西의

45 여주驪州의 읍내에서 동쪽으로 1리 되는 곳에 마암馬岩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馬岩在州東一里"라고 했다.

46 여주驪州 청심루기淸心樓記에, "동북쪽에 용문산이 높이 하늘에 솟아 있다……(鎭于東北則 有龍門之山 巍乎聳碧)"는 기록이 있다.

명승지로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못하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서 정론定論이 없다. 그러나 그 제영題詠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색李穡의 부벽루시浮碧樓詩인, “성은 비었는데 달이 한 조각이고, 돌은 늙었고 구름은 천추千秋일세(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라고 한 것과, 김황원金黃元의 등련광정登練光亭 구기舊基의 시, “위태한 성 한 쪽에는 용용溶溶(넓고 크게 조용히 흐르는 모양)한 강물이고, 큰 들의 동쪽 가에는 점점이 보이는 산이로구나(危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라고 한 것과, 고려 충숙왕忠肅王의 백상루시白祥樓詩, “풀이 멀리 이어진 긴 둑에는 한 면이 온통 푸른빛이고, 구름이 벌여선 산봉우리에 낮게 걸리니 일천一千 산의 머리가 모두 푸르구나(草遠長堤靑一面 雲低列峀碧千頭)”라고 한 것과, 유성룡柳成龍의 통군정시統軍亭詩에 “해는 청제靑齊의 지경에 떨어지고, 구름은 말갈靺鞨의 산에 가로질렀네(日落靑齊界 雲橫靺鞨山)”라고 한 것이 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알지 못하겠다.

홍춘경洪春卿의 부여회고시扶餘懷古詩에 말하기를, “나라는 깨지고 산과 강은 예전과 다르건만, 홀로 저 강에 달만이 남아 있어 몇 번이나 차고 기울었던고, 낙화암落花巖 가에 꽃이 아직 남았으니, 당년의 바람과 비가 모두 불지 않았던가(國破山河異昔時 獨留江月幾盈虧 落花岩畔花猶在 風雨當年不盡吹)”라고 했다. 말은 비록 좋으나 부진不盡이라고 한 두 글자는 아마 잘못일 것이다. 옛 시의 “다하지 아니한 장강이 곤곤히 온다(不盡長江袞袞來)”라든가, “들불이 타서 다함이 없다(野火燒不盡)”라고 한 말들을 자세히 연구하면 알 수 있다.

허종許琮이 중국 사신 동월董越을 송별하는 시에, “푸른 연기는 멀고 아득하며 풀은 헝클어져 어지러운데, 하필이면 이런 때에 강 머리에서 송별한단 말인가. 말없이 서로 보는 무한한 뜻은, 이생의 어느 곳에서 다시 따를꼬(靑烟漠漠草離離 正是江頭送別時 默默相看無限意 此生何處更追隨)”라고 했다. 중국 사신이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대체로 시격詩格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말의 뜻이 간

곡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벽權擘이 중국 사신 진陳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뒤에 만날 기회 어느 날에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다만 이생에서 멀리 서로 생각할 뿐이겠네〔不知後會期何日 祗是相思隔此生〕”라고 했다. 유근柳根이 중국 사신 웅熊을 송별하는 시에 “강서와 해외에서 전생前生의 인연이 있었으나, 천상天上과 인간에서는 뒤에 만나기 어렵구나〔江西海外前緣在 天上人間後會難〕”라고 했다. 어느 것이 더 잘 지었는지 알 수 없다.

〈금강산金剛山〉을 제목으로 한 시는 예전부터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정호음鄭湖陰의 시에 말하기를, “일만 이천봉 대강 보고 가는 길에 소소한 낙엽이 가을 옷을 두드리네. 찬 비 내리는 정양사正陽寺의 밤을 분향하고 앉았으니, 나도 거원蘧瑗[47]처럼 40세의 잘못을 알겠구나〔萬二千峰領略歸 蕭蕭落葉打秋衣 正陽寒雨燒香夜 蘧瑗方知四十非〕”라고 했다. 제2구는 심상한 말이고, 말의 기운이 매우 진부하며, 또 금강산과는 한 글귀도 서로 맞는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글이라고 하여 자주 외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정호음鄭湖陰이 〈사달정四達亭〉을 제題로 한 시에 말하기를, “주명朱明의 고운 경치 뜰 가운데 빛나는데, 주렴珠簾과 현액懸額에는 물결의 황금빛 뛰노네. 낮 베개에 싫증이 나서 자던 눈 뜨고 보니 꾀꼬리가 괴회나무 푸른 그늘에 날아내리네〔朱明麗景爍庭心 簾額波光亂躍金 午枕慵來開睡睫 黃鸝飛下綠槐陰〕”라고 했다. 생각하여 보니, 봄날을 여경麗景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서는 주명朱明(여름의 다른 이름) 여경麗景이라고 하였으니, 아마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끝구는 송나라 사람이 노래한 “꾀꼬리가 석류나무 그늘에 날아내리네〔黃鸝飛下石榴陰〕”라고 한 글귀를 완전히 그대로 쓰고 있는데, 혹은 경치와 뜻이 서로 맞기 때문에 남의 글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일까.

47 중국 춘추시대 위衛나라의 대부. 자는 백옥伯玉이다. 나이 50세가 되어서 49년의 잘못을 알았다고 한다. 어진 대부大夫라는 칭찬이 있었다.

정호음鄭湖陰의 칠언율시七言律詩는 세상에서 칭찬하여 외는 것이 많다. 〈전당만망錢塘晩望〉이라고 제목한 시 같은 것은 더욱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예나 다름없이 영서靈胥(물결을 맡은 귀신으로, 오자서五子胥의 영靈이라고 함)는 성내고 물결은 거센데, 소제蘇堤(제방의 명칭)에 꾀꼬리는 던지는 듯 날고 버드나무 그늘은 짙구나(依舊靈胥怒尙洶 蘇堤鶯擲柳陰濃)"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흉洶 자나 척擲 자는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야좌夜坐(밤에 앉았다)〉라고 제목한 시의 한 연구聯句에 말하기를, "산의 나무가 모두 우니 바람이 잠깐 일어나고, 강물 소리 갑자기 높아지는데 달은 외롭게 달렸네(山木俱鳴風乍起 江聲忽厲月孤懸)"라고 했다. 남이 따를 수 없는 뛰어난 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래 글귀에서 말한 "강물 소리 갑자기 높아진다"라고 한 말과, "달이 외롭게 달렸네"라는 말은 서로 연결이 없는 것 같다.

정사룡鄭士龍의 시에 말하기를, "아득히 넓고 먼 풀바다 위로 변방의 해는 지는데, 이별의 노랫소리 가는 이 보내는 이 함께 슬퍼하네. 평생에 눈물을 참는 건 내 제법 익숙하건만, 오늘 이 자리에선 아니 울지 못하네(寒草茫茫塞日沈 離歌均惱去留心 向來制淚吾差熟 今日當筵自不禁)"라고 했다. 아마 의산義山의 시 "사향루思鄕淚 참아온 지 이미 3년인데, 봄바람 다시 부니 못 참을까 두렵다(三年已制思鄕淚 更入東風恐不禁)"라고 한 글귀의 뜻을 인용하였을 것이다. 이 시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잠깐 보면 곧 당나라의 시체詩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이 당나라에는 특별한 격조가 있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신기재申企齋(신광한申光漢)가 죽서루竹西樓를 제題하여 말하기를, "산 밖과 외로운 마을에는 사람의 내왕來往이 적은데, 눈이 온 뒤 강가의 길은 가늘고도 아득하구나. 밭 사이에서 까마귀들은 빈 수풀을 쪼며 즐겨하고, 누 위의 사람은 짧은 난간에 의지하여 보네. 은세계銀世界는 멀리 바다에 이어져 넓고, 옥봉우

리는 저문 하늘을 높이 떠받쳐 차갑다. 앞 시내가 하룻밤 동안에 층층의 얼음집을 이루니, 어옹漁翁은 한가롭게 예전의 낚싯대를 버렸네〔山外孤村少往還 雪晴江路細漫漫 田間鳥啄空林樂 樓上人憑短檻看 銀界遠連滄海闊 玉峯高拱暮天寒 前溪一夜層氷閣 閑却漁翁舊釣竿〕"라고 한 것을 세상에서는 절창絕唱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연구聯句는 당시唐詩의, "꽃 사이에선 말이 금재갈을 씹으며 가고, 누 위에선 사람이 눈물〔玉筯〕을 드리우면서 보네〔花間馬嚼金銜去 樓上人垂玉筯看〕"라고 한 것을 습용했고, 아래의 연구는 두시杜詩의 "쪽〔藍〕 같은 푸른 물은 멀리 일천一千 계곡으로부터 떨어지고, 옥 같은 산은 두 봉우리가 높이 가지런히 차갑다〔藍水遠從千澗落 玉山高並兩峯寒〕"라고 한 글귀를 인용했다. 또 첫머리에서는 강이라 하고, 중간에서는 창해滄海라 하고, 끝에서는 전계前溪라고 했다. 이런 등등으로 완전히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임석천林石川의 시에 말하기를, "손이 처자를 이끌고, 멀리 해남海南을 향해 간다. 황혼에야 옛 나루터에 이르니 푸른 물은 새로 쪽을 풀어놓은 듯하다. 멀고 아득히 버들개지만 날리고, 소소하게 바람은 적삼 가득 불어오네. 평생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글귀를, 천성이 되고 고질이 되어 지금까지 탐하고 있다〔有客携妻子 迢迢指海南 黃昏來古渡 碧水染新藍 漠漠飛柳絮 蕭蕭風滿衫 平生驚世句 性癖至今耽〕"라고 했다. 세상에서 절창이라고 한다. 그 첫째 연구는 진실로 아름답다. 다만 아래 연구의 삼衫 자는 함咸 자의 운韻에 속하는 것인데, 통해서 운자로 단 것은 온당하지 않다. 끝 글귀는 말의 쓰임새에 병이 있고, 또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흠이다.

박사암朴思庵의 조대시釣臺詩 낚시터를 읊은 시에 말하기를, "도리어 삼부尙父(여망呂望을 말함)가 일찍이 일 많음을 싫어하여 한 번 낚시터에 내려가서는 문득 돌아가지 않는다〔還嫌尙父曾多事 一下漁磯便不歸〕"라고 했다. 말이 매우 진부하고 천박하다. 온정균溫庭筠이 위수渭水 위에서 지은 시에, "다리 위에 한 번 명리名

利의 발자취가 통하더니, 이제에 이르기까지 강새가 사람을 등지고 나네(橋上一通名利跡 至今江鳥背人飛)"라고 했다. 이에서 당나라 사람들의 말의 운치가 높고 뛰어남을 알겠다. 비록 성당盛唐의 시가 아닐지라도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이율곡李栗谷이 대사간大司諫의 벼슬로 시골에 돌아가 누워서 지은 시에 이런 것이 있다. "궁문(閶闔)에 세 번 소장疏章을 올려 착한 임금께 하직하고, 강호江湖의 조각배에 외로운 신하의 몸을 실었네(閶闔三章辭聖主 江湖一葦載孤臣)"라고 했다. 말 가운데에 화평和平한 뜻이 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직제학直提學으로 남쪽 고향에 돌아갈 때에 율곡에게 시를 지어 말하기를, "그대의 뜻은 산과 같아서 마침내 움직이지 않네. 나의 가는 길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어느 때 돌아올까(君意似山終不動 我行如水幾時回)"라고 했다. 아마 그때에 율곡과 논의가 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기상을 볼 수 있다.

종실宗室의 학림鶴林 정正 경윤慶胤이 그린 금강산의 화축畫軸에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가 그 위에 제화題畫 하니, 노소재盧蘇齋(노수신)가 시를 지어, "학을 탄 풍류[48]는 왼쪽 바다를 기울이고, 농아[49]의 문채는 동한東韓의 천장擅場(장중場中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독무대)일세(跨鶴風流傾左海 籠鵝文采擅東韓)"라고 했다. 사람들이 자주 외는 일이 많았다. 위 글귀는 학림鶴林을 가리킨 것이고 아래 글귀는 아계鵝溪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농아籠鵝의 두 글자는 단장취의斷章取意[50]한 농아문채籠鵝文采라고 하였으나 어구가 아마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48 학鶴을 탄다는 것은 선인仙人을 의미하며, 학을 탄 풍류라는 것은 신선의 풍류라는 말이다. 경윤慶胤의 호가 학림鶴林이므로 그렇게 쓴 것이다.

49 거위를 새장 안에 넣는 것.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가 한 도사道士를 위해 《도덕경道德經》을 필사筆寫하여 주고 보수로 거위를 얻어서 조롱에 넣어 가지고 돌아간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에서는 이산해李山海의 호가 아계鵝溪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다.

50 문장의 앞뒤의 문리文理나, 작자의 의사意思가 어떻다는 것은 안중에 두지 않고, 남의 글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의 말만을 따내어 자기의 뜻에 맞도록 쓰는 것.

이순인李純仁은 시에 있어서 오로지 중당中唐과 만당晩唐을 숭상했다. 그런 까닭에 말과 기운에 매우 맑은 운치가 있으나, 웅혼雄渾한 맛이 결핍한 것이 흠이다. 지평砥平에 그의 제영題詠이 있는데 말하였기를, “고을의 문은 봄이 다하도록 닫아 두고, 관리는 날마다 높이 아문에 앉아 있다(縣門春盡閉 官吏日高衙)” 라고 했다. 오직 이 한 글귀만으로도 또한 그것이 송나라 때의 시체詩體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남창南窓 김현성金玄成의 시에는, “아전이 흩어진 뒤의 한가한 뜰에는 처음으로 사슴이 내려오고, 객客이 빈 관館에 오니 까마귀가 깃들이고자 한다(吏散閑庭初下鹿 客來空館欲棲烏)”라고 했다. 또한 스스로 쓸쓸하고 한산하다.

간이簡易 최입崔岦은 시에 있어서 후산后山을 몹시 좋아했다. 항상 말하기를, “시는 모름지기 뜻이 있게 써야 잘 짓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가 삼일포三日浦에서 지은 시에 말하기를, “삼일三日의 말은 놀음도 오히려 두 번 하지 않았으니, 십주十洲[51]의 아름다운 곳이 많은 것을 비로소 알겠네(三日淸遊猶不再 十洲佳處始知多)”라고 했고, 해산정海山亭의 시詩에서는 말하기를, “네 선인(四仙)이 이름을 남긴 자취가 없으니, 아마 허공에 의지하여 잠깐 다녀가는 일을 저버렸는가 보다(四仙未有留名跡 應負憑虛暫往還)”라고 했다. 스스로 평생에 뜻을 얻었음을 만족한 글귀라고 말하겠다. 그러나 말뜻이 분명치 않은 것 같고, 또 구견拘牽됨[52]을 면치 못한다. 안식眼識이 있는 사람이면 마땅히 알 것이다.

간이 최입이 문文에 능숙하므로, 주청질정관奏請質正官에 임명되어 두 번이나

51 큰 바다 안에 있다고 하는 열 군데 신선이 사는 곳. 즉 조주祖洲 · 영주瀛洲 · 현주玄洲 · 염주炎洲 · 장주長洲 · 원주元洲 · 유주流洲 · 생주生洲 · 봉린주鳳麟洲 · 취굴주聚窟洲.

52 구애되고 견제됨. 자연스럽지 않음.

중국의 서울에 갔다. 대체로 종계변무宗系辨誣[53]의 일 때문이었다. 황정욱黃廷彧이 시를 지어 주기를, "만 리 길을 가는 일 한 번이면 좋을 것을, 5년 동안에 두 번 가니 어떻게 견디겠는가. 벼슬은 그대로 질정관이니 역시 추중推重함이요, 일은 의무疑誣를 시정함이니 모름지기 능숙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네. 붓이 떨어지면 문장은 천하에 뛰어나니, 마땅히 호표虎豹의 위험을 타개打開하고 조참朝參을 허락하리라. 돌아오면 보전寶典이 별과 해처럼 밝을 것이니, 성명聲名이 북두의 남쪽에 드높은 것을 보리라(萬里之行一可已 五年于此再何堪 官仍質正亦推重 事是疑誣須熟語 落筆文章妙天下 當開虎豹許朝參 歸來寶典昭星日 看取聲名北斗南)"라고 했다. 이 작품을 사람들이 잘 지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격률格律이 고아高雅하지 않다.

최간이崔簡易가 명나라 장수 이 제독李提督을 송별한 시에 말하기를 "글은 육해반강陸海潘江[54]으로부터 나오고 글씨는 안근유골顔筋柳骨[55]을 띠고 있다(文從陸海潘江出 字帶顔筋柳骨來)"라고 했다. 이 연구聯句가 좋은 것 같다. 다만 이여송李如松은 무인武人으로서 글과 글씨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칭찬하는 말이 지나치다.

박 참판朴參判 민헌民獻이 촉석루矗石樓 차운次韻에 말하기를, "누 앞에 따오기 지나가니 평면으로 그 등을 볼 수 있고, 물속에 새우가 노니 자세히 그 수염을 셀 수 있다(樓前過鷺平看背 水底游蝦細數鬚)"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운자를

53 조선 개국 이래로 선조宣祖 17년(1584)에 이르기까지 말썽이 되었던, 조선왕조의 조상이 명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에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치고자 주청하던 일. 즉 명나라의 기록에는 조선왕조의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을 선조 17년 5월 종계변무宗系辨誣 주청사奏請使 황정욱黃廷彧 등을 보내 고치게 했다.

54 재주가 많은 것을 비유한 말. 육기陸機의 재주는 바다 같고, 반악潘岳의 재주는 강 같다(陸才如海潘才如江)라고 한 옛말에서 나온 것.

55 글씨를 잘 쓴다는 말. 당나라의 뛰어난 서예가인 안진경顔眞卿의 힘줄과 유공권柳公權의 골격을 한데 갖춘 것 같은 훌륭한 글씨.

달았으나 모두 따라가지 못한다. 공公은 당세當世에 명성이 있었다. 시에 있어서 전적으로 두자미杜子美의 체體를 배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사고私稿 속의 여러 작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 보는 것이 듣는 것만 못하다더니 진실로 그러하구나.

근세의 시인들은 간혹 옛말을 잘못 인용한 것이 있다. 가령 번천樊川이 "별풍別風이 옥으로 꾸민 굴레를 하고 운다(別風嘶玉勒)"라고 한 별풍은 말(馬) 이름이다. 그런데 임자순林子順은 말하기를, "별풍에 자새紫塞[56]의 먼지가 일어나 돌아가는 기마騎馬가 푸른 실 고삐를 놓칠까 근심한다(別風愁紫塞 歸騎逸靑絲)"라고 하여 열풍烈風의 뜻으로 쓰고 있다. 진후산陳后山이 말하기를, "전날부터 한 조각의 향을 증남풍曾南豊(증공曾鞏)을 위해 바쳤다(向來一瓣香 敬爲曾南豊)"라고 했다. 판瓣이란 글자는 외(瓜) 속에 있는 알맹이다. "나공원羅公遠[57]이 감자를 냄새 맡더니, 뒤에 명황明皇이 1,000여 개를 가져다 먹는데 모두 알맹이 1개씩이 없었다(羅公遠嗅柑皆缺一瓣)"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순子順이 '청성묘전향가판淸聖廟前香可瓣'이라고 하여, 판瓣을 냄새 맡는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양봉래楊蓬萊가 사람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창힐蒼頡[58]이 쓸데없이 이별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을 진황秦皇[59]은 어째서 불태우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그 글자가 인간 세상에 남아 있어서, 길이 양관陽關[60]의 가는 사람, 머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가(蒼頡漫爲離別字 秦皇胡乃不焚之 至今留滯人間世 長見陽關

56 만리장성萬里長城의 이칭異稱. 흙이 자줏빛이므로 이름.

57 선인仙人의 이름. 《선전습유仙傳拾遺》에, "羅公遠 取柑嗅之 後明皇取食 千餘枚 皆缺一瓣"이라고 했다.

58 고대 중국 황제黃帝의 신하로서, 새의 발자취를 보고 착상하여 처음 글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59 진시황秦始皇. 그는 많은 서적을 불태웠다고 한다.

60 양관은 서로 송별하는 곳을 의미한다. 양관곡陽關曲이라고 하여 송별에 쓰는 가곡이 있다. 양관이 먼 변방에 있으며, 또 외국과 접경한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去住時)"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은 배우의 희롱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경斯慶 박문선朴文先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인간의 이별이란 글자를 창힐이 네가 만들었구나(人間離別字 蒼頡爾爲之)"라고 했다. 또 효빈效顰[61]한 것이다.

이달李達은 홍주洪州 사람이니, 부정副正 이수함李秀咸이 고을의 기생을 축첩蓄妾하여 낳은 자이다. 그의 시는 한때 여러 사람의 입으로 자주 외게 되었다. 그의 패강사차운浿江詞次韻에 말하기를, "연잎은 참치參差하고 연실蓮實은 많은데, 연꽃을 사이에 두고 여인과 유랑遊郎이 노래 부르네. 돌아갈 때에 횡당橫塘의 어귀에서 동행하기를 약속했기에, 애써 배를 옮겨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네(蓮葉參差蓮子多 蓮花相間女郎歌 歸時約伴橫塘口 辛苦移舟逆上波)"라고 했다. 횡당은 지명이니, 패강浿江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끝 글귀는 아마 두시杜詩의, "마을 배가 시내를 거슬러 올라간다(村船逆上溪)"라는 말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파波라는 글자는 적당하지 않다.
또 전가사田家詞에 말하기를, "농가農家의 젊은 여인이 저녁밥거리가 없어서, 빗속에서 보리를 베어 가지고 숲 속으로 돌아가네. 생나무가 습기를 띠어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문에 들어가니 어린 아이들 옷을 잡아당길 뿐일세(田家少婦無夜食 雨中刈麥林中歸 生薪帶濕烟不起 入門兒子啼牽衣)"라고 했다.
〈한식사寒食詞〉에는 말하기를, "흰 개는 앞서 가고 누른 개는 따라간다. 들밭 풀 사이에 무덤은 잇따라 있네. 늙은 할아버지는 밭 사이 길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날 저물어 취해 돌아가니 어린아이가 부축하네(白犬前行黃犬隨 野田草際塚纍纍 老翁祭罷田間道 日暮醉歸扶小兒)"라고 했다. 당시唐詩에 매우 가까워서 즐겁다.

61 남의 결점을 장점으로 알고 함부로 본받는 것을 비웃는 말. 옛날 월越나라의 서시西施가 불쾌한 일이 있어서 낯을 찡그렸더니 어떤 추부醜婦가, 미인은 찡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흉내 냈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

이달李達이 양봉래楊蓬萊를 좇아 안변安邊에 객客으로 가 있었더니 하루는 그가 싫어하는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나그네의 가고 머무는 뜻은 주인의 눈썹 사이에 달렸네. 아침부터 낯에 누른빛을 잃었으므로 밤에 앉아서 청산靑山을 생각한다. 노魯나라에서는 원거鶢鶋[62]에게 향응饗應했고, 남쪽에 가서는 의이薏苡[63]를 갖고 돌아갔다네. 가을바람에 소계자蘇季子[64]가 또 목릉관穆陵關을 나가네(行子去留意 主人眉睫間 朝來失黃色 夜坐憶靑山 魯國鶢鶋饗 征南薏苡還 秋風蘇季子 又出穆陵關)”라고 했다. 이 시는 아름답다. 다만 아래의 두 글귀를 떼어 버렸으면 더욱 좋겠다. 지금 본고本稿를 보니, 황색黃色은 황기黃氣로 되어 있고, 야좌夜坐는 미구未久로 되어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권응인權應仁이 〈촉석루矗石樓〉를 제題 하여 읊었는데, “구름을 흘러나온 가냘픈 달빛이 평평한 언덕을 비치는데, 자던 갈매기 낮게 날아 모래밭으로 내려가네. 강가 집에서 주렴을 걷고 사람이 기둥에 의지해 서니, 나루의 노 젓는 소리 밤에 많이 들리네(漏雲微月照平坡 宿鷺低飛下岸沙 江閣捲簾人倚柱 渡頭鳴櫓夜聞多)”라고 했다. 한때 임당林塘의 제공諸公들이 매우 칭찬하여 당시唐詩에 매우 가깝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뜻과 격格이 전연 당시唐詩와는 닮지 않았다. 또 시가 있어서 말하기를, “백조가 가는 가엔 오직 바다가 있고, 푸른 산 끊어진 곳엔 다시 마을이 없다(白鳥去邊惟有海 靑山斷處更無村)”라고 했다. 이 시는 비록 옛 글귀를 침범하고 있으나 또한 아름다운 것 같다.

62 바닷새의 이름. 노魯나라의 동문東門 밖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한 기록이 있고, “노나라에 머무른 원거가 후한 음식 대접을 부끄러워한다(止魯鶢鶋慙厚享)라는 글도 있다. 이 시는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63 율무. 옛날 후한後漢의 마원馬援이 교지交趾에서 돌아올 때에 율무를 종자로 하기 위하여 수레에 싣고 왔더니, 참소하는 자가, 그것은 모두 좋은 구슬이라고 임금께 무고하였던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사군使君의 청렴함을 말한 것이다.

64 계자는 소진蘇秦의 자字이다. 중국 전국시대에 합종合縱의 계책으로 육국六國을 유설遊說하고 그들을 동맹시켜 진秦나라를 견제하였으며, 자신은 육국의 정승이 되었던 웅변가.

전조前朝 사람의 시는 이규보李奎報의 웅장하고 여유가 있는 것과 정지상鄭知常·진화陳澕의 곱고 아름다움, 이인로李仁老·이제현李齊賢의 정순精純하고 치밀함, 이색李穡의 충수沖粹(화和하고 깊고 순수함)함, 정몽주鄭夢周의 호매豪邁(호탕하고 뛰어남), 이숭인李崇仁의 온자醞籍(깊이가 있음, 너그럽고 편안함)함은 뛰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규보가 가장 대가이고, 이제현의 시는 당시唐詩에 가깝고, 이색은 시와 산문을 모두 잘하였으며, 이규보의 산문도 또한 스스로 호건豪健(호탕하고 건장함)하다.

아조我朝의 개국 이래로 원접사遠接使의 시 가운데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은 용재容齋와 호음湖陰이다. 그런데 전년에 중국 사신 웅화熊化는 서사가徐四佳를 가장 훌륭하다고 추허推許했다. 혹은 그의 부섬富贍(풍부하고 넉넉함)한 문장 때문인가.

우리나라 사람의 시는 장편이 가장 옛 것에 가깝지 않다. 근세에는 오직 윤결尹潔의 〈반통투수사飯筒投水詞〉와 안수安璲의 〈피병편疲兵篇〉이 그럴듯할 뿐이다. 문文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다. 근세에서는 오직 최입崔岦의 서序·기記·지誌·명銘이 좋을 뿐이다.

최경창崔慶昌·이달李達은 한때 시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시가 가장 당시唐詩에 가깝다. 그런데 다만 글귀가 당나라 사람의 문구를 습용한 것이 많고, 간혹 전구全句를 그냥 따다가 쓴 것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면 마치 당나라 사람의 시를 읽는 것 같은 데가 있다. 그런 까닭에 갑자기 당시체唐詩體라고 하여 좋아한다. 그러나 천기天機에 얻은 바 있어서 스스로 조화를 운용하는 공功은 적은 것 같다. 만약 그들의 시를 환골탈태換骨奪胎(옛 사람의 시문의 취의趣意를 취해 어구語句·결구結構만을 바꾸어 자작自作하여 새것을 만드는 것)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본조本朝의 시인들로 송나라 · 원나라의 버릇을 벗은 자는 몇 사람 없다. 이주李胄 · 유호인俞好仁 · 신종호申從濩 · 신광한申光漢의 시를 당시唐詩에 가깝다고 부른다. 그러나 깊은 조예의 공功이 없는 것 같다. 박순朴淳 · 최경창崔慶昌 · 백광훈白光勳 · 이순인李純仁 · 이달李達은 모두 당시唐詩를 배워서 그들의 지은 시에는 칭찬해 욀 만한 것이 있다. 다만 절구 혹은 오언율에 그칠 뿐이고, 칠언율 이상에는 잘하지 못했다. 또 성당盛唐의 경지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재주와 학문의 연원淵源이 본래 작아서 그런 것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시唐詩를 배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지금 세상에선들 또한 어찌 한두 사람 여기에 힘을 써서 넉넉히 시당始唐 · 성당盛唐의 경지에 들어간 자가 없겠는가. 안식眼識을 갖춘 자는 능히 분별할 것이다.


권10

16. 문장부文章部-3

16-1 어제시御製詩

한고조漢高祖의 〈대풍가大風歌〉에는 말하기를, "큰 바람 일어남이여, 구름이 날아오르네(大風起兮雲飛揚)"라고 했고, 한무제漢武帝의 〈추풍사秋風辭〉에는 말하기를, "가을바람 일어남이여, 흰 구름 날리네(秋風起兮白雲飛)"라고 했다. 〈대풍가〉에는 말하기를, "어떻게 용맹스런 무사들을 얻어서 사방을 지킬꼬(安得猛士兮守四方)"라고 했고, 〈추풍사〉에서는 말하기를,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여 잊을 수 없구나(懷佳人兮不能忘)"라고 했다. 그들의 말은 같으나 생각하는 바는 같지 않다. 또 〈대풍가〉에는 마침내 편안한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않는 뜻이 있는데, 〈추풍사〉의 끝에는 말하기를, "젊고 건장한 때가 얼마 동안인가. 늙으면 어이하리(少壯幾時兮 奈老何)"라고 하여 삶을 탐내고, 늙은 것을 탄식하는 뜻이 있다. 여기에서 한고조漢高祖와 한무제漢武帝의 기상氣象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조명詔命(조서로 내리는 임금의 명령)은 모두 천자天子가 스스로 지었던 것이다. 한무제가 회남왕淮南王에게 내린 조령詔令의 초안草案을 상여相如가 보았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문제文帝가 위타尉佗에게 보낸 글에 일컫기를, "짐朕은 고황제高皇帝 측실側室(첩, 소실)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신하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으로 임금이 손수 지었음은 명백하다. 명나라 고황제의 유조遺詔에 말하기를, "짐은 한미寒微한 집안에서 일어나서……"라고 했다. 역시 문제文帝의 경우와 같이 신하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조曹操의 〈단가행短歌行〉에 말하기를,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오작烏鵲이 남쪽으로 날아서 나무를 세 바퀴 돌았으나 의지할 가지가 없다〔月明星稀 烏鵲南飛 繞樹三匝 無枝可依〕”라고 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적벽강赤壁江의 싸움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징조라고 한다. 그러나 아래 글귀에는 말하기를, “산은 높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물은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주공周公이 어진 선비를 맞이하기 위해 입에 든 밥을 토하니, 천하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갔다”라고 하여 매우 여운이 있다. 그의 손자인 위명제魏明帝는 〈보출하우문행步出夏憂門行〉에서 이것을 모방하여 말하기를, “날 저문 때에 절박하여 오작이 남쪽으로 날아가서 나무를 세 바퀴 돌았으나 어느 가지에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다만 두어 글자를 고쳤을 뿐인데 문득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또 아래 글귀에서는, “갑자기 바람과 비를 만나니, 나무는 부러지고 가지는 꺾인다. 달은 차면 비고, 꽃은 두 번 꽃답지 못하다”라고 했다. 그의 쇠망할 징조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양무제梁武帝의 사詞에 이런 글귀가 있다.
“낙양洛陽에 여인이 있으니 이름을 막수라고 한다. 15세에 시집가 노가盧家의 아내가 되니 노가의 방에는 난초의 향기가 나고 계수나무로 기둥을 삼았는데, 그 가운데에 울금소합향鬱金蘇合香이 있었네……〔洛陽有女名莫愁 十五嫁作盧家婦 盧家蘭室桂爲梁 中有鬱金蘇合香〕”라고 했다. 심전기沈佺期가, “노가의 젊은 아내 울금당에〔盧家少婦鬱金堂〕”라고 한 시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당堂이란 글자를 어떤 이는 향香 자로 쓴다. 그것이 옳을 것 같다. 또 상고詳考하여 보니, 막수莫愁는 석성石城의 여자로서 노래를 잘했다. 장자용張子容의 시에, “뛰어난 곡조는 노가의 여인을 만났다〔妙曲逢盧女〕”라고 한 것은, 그가 노래를 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막수라는 이름은 한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양무제梁武帝가 노래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동가왕東家王에게 시집가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恨不早嫁東家王〕”라고 했다. 왕은 아마 창왕昌王일 것이다. 최호崔顥의 시에, “15세에 왕창王昌에게 시집가서, 아담하고 고운 모양으로 그림 그린 마루에 들어가네〔十五嫁王昌 盈盈畫入畫堂〕”라고 했고, 이의산李義山의 시에는, “왕창이 또 있어서 동쪽 담에 머무르니, 반드시 금당金堂(절의 본당)에서 혐의를 면할 수는 없다〔王昌且在東墻住 未必金堂得免嫌〕”라고 하고, 또, “누가 왕창으로 더불어 소식을 전하였기에 서른여섯 원앙궁鴛鴦宮 안이 모두 아는고〔誰與王昌報消息 盡知三十六鴛鴦〕”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왕창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양간문제梁簡文帝의 비〔雨〕를 읊은 시에, “꽃을 적시니 가지가 무거운 것을 깨닫고, 새를 적시니 날개가 나는 것이 더디다〔漬花枝覺重 濕鳥羽飛遲〕”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꽃이 금관성錦官城에 무겁다〔花重錦官城〕” 하고, 또, “먼 공중에 새가 가는 것이 더디다〔冥冥鳥去遲〕”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양梁나라 문인천聞人蒨의 시에 말하기를, “숲에는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새가 있고, 동산에는 사람의 눈을 빼앗는 꽃이 많다〔林有驚心鳥 園多奪目花〕”라고 하였는데, 두시杜詩에, “이별이 서러우니 새 울음소리 마음 놀라게 하네〔恨別鳥驚心〕”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예원치언藝苑巵言》에 말하기를, 양원제梁元帝의 시에 “떨어지는 별은 먼 변방에 기대었고, 기울어진 달은 반은 숲과 평면이네〔落星依遠戍 斜月半平林〕”라고 했다. 진후주陳後主는, “해와 달은 하늘의 공덕을 빛내고, 산과 물은 황제의 궁실을 장壯하게 만든다〔日月光天德 山河壯帝居〕”라고 한 것이 《심송집沈宋集》 속에 있다. 마땅히 절창이라 해야 할 것이다.

수양제隋煬帝는, “까마귀는 천 점 만 점인데, 흐르는 물은 외로운 마을을 둘렀구나〔寒鴉千萬點 流水遶孤村〕”라고 했다. 이 시는 중당中唐의 시 중에 아름다운 것

이다. 내가 상고하여 보니 당명황唐明皇의 시에, “말의 빛깔은 아침 경치를 가르고, 닭소리는 새벽바람을 좇는다. 푸른 병풍 같은 천 길 산이 합하였으나, 붉은 산기슭을 오정五丁[1]이 열어준다〔馬色分朝景 鷄聲逐曉風翠屛千仞合 丹嶂五丁開〕” 라고 한 글귀가 있다. 말이 또한 아름답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알 수 없다.

수양제隋煬帝의 시에, “까마귀는 천 점 만 점인데, 흐르는 물은 외로운 마을을 둘렀구나〔寒鴉千萬點 流水遶孤村〕”라고 했다. 진소유秦少游의 사詞에, “까마귀는 두어 점, 흐르는 물은 외로운 마을을 둘렀네〔寒鴉數點 流水遶孤村〕”라고 했고, 소매蘇邁의 시에는 “잎이 물을 따라 흐르니 가는 곳 어디냐. 소가 까마귀를 띠고 별촌別村을 지나가네〔葉隨流水知何處 牛帶寒鴉過別村〕”라고 한 것은 모두 양제煬帝의 이 시에서 나온 것이다. ‘띠다〔帶〕’를 어떤 이는 ‘이다〔戴〕’로 쓰고, 어떤 이는 ‘싣다〔載〕’로 쓴다.

당태종唐太宗의 요동산시遼東山詩에 말하기를, “연산連山에는 놀란 새 어지럽고, 산기슭을 사이하여 단원斷猿이 울음 우네〔連山驚鳥亂 隔岫斷猿吟〕”라고 했다. 단원은 떼를 이루지 않은 원숭이이니, 단안斷雁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요遼에는 본래부터 원숭이가 없다. 그런데 원숭이 운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국 사신 동월董越의 개성부시開城府詩에 말하기를, “긴 공중에는 외로운 새가 침몰했고, 지는 해에는 들원숭이가 부르짖는다〔長空孤鳥沒 落日野猿啼〕”라고 한 것도 또한 잘못이다.

당현종唐玄宗의 조도포관시早渡蒲關詩에 말하기를, “말방울을 울리며 포판蒲坂

1 촉왕蜀王의 5인의 역사力士. 옛날 진혜왕秦惠王이 촉을 치고자 하였으나 길을 알 수 없었다. 돌로 5마리의 소를 만들어 놓고, 황금을 소의 꼬리 아래에 매달아 두고는 소가 황금의 소변을 본다고 말했다. 촉왕이 그 말을 곧이듣고, 역사 5명에게 시켜서 돌소〔石牛〕를 끌어갔다. 그것을 끌어간 자리에 길이 생겼으므로 진秦나라에서는 장의張儀 · 사마착司馬錯으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가서 촉나라를 토멸討滅했다고 한다.

을 내려가고, 깃발을 날리며 진중秦中에 들어간다(鳴鑾下蒲坂 飛旆入秦中)"라고 했다. 또 "말의 빛깔은 아침 경치를 가르고, 닭소리는 새벽바람을 쫓는다(馬色分朝景 鷄聲逐曉風)"라고 했다. 이것은 아마 양梁나라 안지추顏之推의 시, "말의 빛깔은 관새關塞(국경에 있는 관문關門과 요새要塞)의 아전을 아찔하게 하는데, 닭이 우니 지키는 사람이 일어난다(馬色迷關吏 鷄鳴起戍人)"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을 것이다. 송경宋璟이 포진영가시蒲津迎駕詩를 지어 말하기를, "말방울을 돌려 포판蒲坂을 내려가고, 깃발을 날리며 진경秦京을 지향한다(回鑾下蒲坂 飛旆指秦京)"라고 했고, 또 "노을 덮인 아침에 말의 빛깔을 보고, 달 기운 새벽에 닭 소리를 듣는다(霞朝看馬色 月曉聽鷄鳴)"라고도 했다. 곧 현종玄宗과 같은 때의 작품인데, 그 서로 침범함이 이와 같다. 그러나 송경宋璟의 시는 두어 글자를 바꿔 놓았을 뿐인데, 기상氣象은 문득 스스로 같지 않다.

백낙천白樂天이 죽으니, 선종宣宗이 시를 지어서 조상하기를, "옥을 꿰고 구슬을 잇는 듯 아름다운 문장 60년이더니, 누가 그로 하여금 저승의 시선詩仙이 되게 하였는고(綴玉聯珠六十年 誰敎冥路作詩仙)"라고 하고, 또 제3연에서는 말하기를 "아이들도 〈장한곡長恨曲〉은 읊을 줄 알고 오랑캐도 〈비파편琵琶篇〉은 부를 줄 아네(童子解吟長恨曲 胡兒能唱琵琶篇)"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비파琵琶는 본래 '批把'라고 쓴다. '琵'의 발음은 '필'이다. 그의 〈장한곡〉과 〈비파편〉의 두 작품이 한 시대에 널리 사람의 입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송휘종宋徽宗이 한 연구聯句를 지어 말하기를, "해가 늦은 노을을 쏘니 금의 세계이고, 달이 하늘에 군림하니 옥의 건곤乾坤일세(日射晚霞金世界 月臨天宇玉乾坤)"라고 했다. 다음 해에 금金나라 군대가 궁궐을 침범하였으니, 시참詩讖이라고 말했다.

명나라 고황제高皇帝의 신월시新月詩에 말하기를, "누가 옥손톱을 가지고 긴 공

중을 꼬집는고. 만 리 산하山河 어디에서 보아도 같은 한 모양이네. 물에 비치니 갈고리가 있어서 물고기가 낚시인가 겁내고, 산에 재갈 물리니 살이 없건만 학은 활인가 의심한다. 맑은 광채를 하늘밖에 내쏘지는 않으나 흰 그림자는 멀리 우주의 중간을 나누었네. 둥글고 가득 차기를 기다려 보름밤을 만나면, 구주九州와 사해四海를 막힘없이 비치리(誰將玉爪掐長空 萬里山河一樣同 映水有鉤魚怯釣 啣山無箭鶴疑弓 淸光未放雲霄外 素影遙分宇宙中 輪滿待逢三五夜 九州四海照無窮)"라고 했다.

명나라 고황제의 송도회고시松都懷古詩에 말하기를, "옮기고 남긴 정읍井邑의 시가市街는 황량하구나. 넓은 들, 퍼런 풀빛이 눈에 가득하여 지나는 나그네 마음 언짢다. 동산과 금원禁苑 터엔 꽃이 있어서 벌이 꿀을 빚고, 궁전과 누대엔 주인이 없어 토끼가 마을을 삼았네. 길 가는 상인商人들은 길을 돌아서 새 시가로 가고, 앉은 장수들은 옮겨 살면서 옛 마을을 생각하리라. 여기가 옛날 왕업王業의 땅이로구나. 단군檀君 가신 뒤로 몇 번이나 경장更張하였던고(遷遺井邑市荒凉 莽蒼盈眸過客傷 園苑有花蜂釀蜜 殿臺無主兎爲鄕 行商枉道從新郭 坐賈移居慕舊坊 此是昔時王氏業 壇君逝久幾更張)"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이 시는 권근權近이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갔을 때에 지어 준 것이다.

"너의 봉급과 너의 봉록은 백성들의 기름이다. 아래로 백성을 학대하기 쉬우나 위로 하늘은 속이기 어려우리(爾俸爾祿 民膏民脂 下民易虐 上天難欺)."
이것은 명나라 고황제가 경계하여 돌에 새겨서, 각 부府 · 주州 · 현縣에 반포한 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이 글은 본래 촉蜀나라 맹지상孟知祥의 사辭"라고 했다.

건문제建文帝[2]가 어릴 때에 초승달을 두고 읊었는데, “누가 옥손톱을 가지고 꼬집어 푸른 하늘에 흔적을 냈는가. 그림자가 강물과 호수 속에 떨어지니 이무기와 용이 감히 삼키지 못하네(誰將玉指甲 搯作碧天痕 影落江湖裏 蛟龍不敢吞)”라고 했다. 태조太祖가 그것을 보고 즐겨하지 않았다. 아마 영影 · 락落 두 글자를 불길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첫 구는 태조의 신월시新月詩, “누가 옥손톱을 가지고 긴 공중을 꼬집는고(誰將玉爪搯長空)”의 글귀를 습용襲用한 것이고, “영락강호影落江湖”는 그가 지은, “강호江湖에 유락流落함이 40년(流落江湖四十秋)”이라 한 것과 말뜻이 서로 같다. 그의 불길한 징조가 이미 여기에 드러난 것이다. 오직, 교룡불감탄蛟龍不敢吞의 한 말이 해를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건문제建文帝가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고, 사방을 유람하다가 정통正統 5년에 스스로 돌아와 호號를 노불老佛이라 했다. 시를 지어 말하기를, “강호江湖에 유락流落함이, 가을이 40년인데, 돌아오니 어느덧 머리는 백발일세. 하늘과 땅은 한恨으로 찼는데 내 집은 어디인고. 강한江漢(양자강楊子江과 한수漢水)이야 무엇을 알랴. 물만 스스로 흐르네. 장악궁長樂宮 안에는 구름 그림자 어둡고, 소양전昭陽殿 뜰에는 빗소리 구슬프다. 새 부들, 가는 버들은 해마다 다시 푸른데, 들 늙은이 소리를 삼키고 우는 울음 그치지 않네(流落江湖四十秋 歸來不覺雪盈頭 乾坤有恨家何在 江漢無情水自流 長樂宮中雲影暗 昭陽殿裏雨聲愁 新蒲細柳年年綠 野老吞聲哭未休)”라고 했다. 또 일찍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관단마款段馬 느린 말에 타고 앉아 오랫동안 비봉연飛鳳輦(날아가는 듯한 임금의 수레) 잊었노라. 가사袈裟를 곤룡포와 새로 바꿔 입었네(款段久忘飛鳳輦 袈裟新換袞龍袍)”라고 했다.

2 명나라의 혜제惠帝. 태조의 손자로서 이름을 윤문允炆이라 한다. 태조를 이어 즉위하고 정치에 힘썼으나 연왕燕王 체棣가 반란을 일으켜 경사京師를 함락시키매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건문建文은 그의 연호이다.

명나라 인종제仁宗帝가 장기〔象奕〕 두는 것을 보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두 나라가 힘을 다투어 제각기 군사를 부리는데, 대오隊伍를 가다듬어 승부를 결정짓네. 마馬는 굽은 길로 가서 적을 앞질러 기다리고, 장將은 깊숙이 궁을 지키면서 원정遠征을 경계하네. 험난한 지세를 타서 차를 내보내어 적의 패잔병을 거둬들이고, 강물을 사이하여 포를 쏘아 날려 적의 겹으로 쌓은 성에 떨어뜨린다. 심상하게 알아 얻은 군정軍情의 일을, 한 번 보고 공을 이루어 태평성세 보리라〔二國爭强各用兵 擺排隊伍定輸贏 馬行曲路當先道 將守深宮戒遠征 乘險出車收敗卒 隔河飛砲下重城 等閑識得軍情事 一看功成見太平〕”라고 했다. 제왕帝王다운 기상을 볼 수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명나라 가정황제嘉靖皇帝가 모백온毛伯溫을 보내 남정南征할 때에 시를 지어 주어 말하기를,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의 담기가 호걸스럽다. 허리에는 추수秋水 같은 안령도雁翎刀를 찼네. 쇠와 북을 울려 군대를 바람처럼 움직이니 산하가 진동하고, 번개같이 번쩍이는 깃발에는 해와 달이 높이 그려졌다. 하늘 위의 기린 같은 인물은 본래부터 씨가 있다. 구멍 속의 개미와 땅강아지 같은 오랑캐들, 도망하지 못하리라. 크게 평정하여 조서를 반포하고 돌아오는 날에, 내 친히 장군과 함께 전포를 벗으리〔大將征夷膽氣豪 腰懸秋水雁翎刀 風吹金鼓山河動 電閃旌旗日月高 天上麒麟元有種 穴中螻蟻莫能逃 大平頒詔回轅日 親與將軍脫戰袍〕”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는 이 시를 고황제高皇帝가 도독都督 양문楊文에게 내린 것이라고 했고, 왕세정王世貞은 송나라 철종哲宗이 대장大將을 보내어 오랑캐를 정벌하게 한 시라고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당휘唐彙》 안에 실려 있는 신라 진덕왕眞德王의 직금시織錦詩는 고고高古하고 웅혼함이 시당始唐의 여러 작품에 비하여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문풍文風이 성대盛大하지 않아서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절구絕句 한 수 외

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그런데 여자로서 그러하였으니 또한 뛰어난 일이다.

《요산당외기》에, “고려 국왕 휘徽가 글단契丹(거란)을 이웃하여 그들의 주구誅求(혹독하게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것)를 괴롭게 여기더니, 하루 저녁에는 꿈에 중국의 도성에 이르러 성과 궁궐의 성대함을 골고루 보고 잠이 깨어서 그것을 흠모하여 시를 지어 기록하기를, ‘악업惡業의 인연으로 글단에 가까이 있어서, 1년에 조공은 몇 번이나 많았던고. 몸을 옮겨 홀연히 중국의 도성에 이르니, 아깝게도 밤중의 누적漏滴(물시계에 남은 물방울, 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惡業因緣近契丹 一年朝貢幾多般 移身忽到京華地 可惜中宵漏滴殘)’라고 하고, 드디어 사신使臣을 보내어 송나라에 조공하였으니, 때는 원풍元豊 초初였다”라고 했다. 이 설이 본래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증하여 보니 휘徽는 고려 문종文宗의 이름이다.

태종대왕太宗大王이 둥근 부채를 읊은 시(詠圓扇詩)에 말하기를, “바람 부는 탑에 기대어 서면 밝은 달을 생각하게 되고, 달 밝은 난간에서 읊조릴 때엔 맑은 바람을 생각했더니, 대나무 깎아서 둥근 부채 만든 뒤부터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손안에 있다(風榻倚時思朗月 月軒吟處想淸風 自從削竹成圓扇 朗月淸風在手中)”라고 했다.

성묘成廟는 하루에 세 번씩 왕대비王大妃에게 조현朝見하고 하루에 세 번씩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그리고 매번 월산대군月山大君을 이끌고 궁내에 들어가 곡연曲宴(궁중의 내원內苑에서 베푸는 작은 잔치)을 열었으며, 나간 뒤에는 편지로 수창酬唱(시문詩文을 증답贈答함)하여 쉬는 날이 없었다. 대군에게 참외를 하사하는 시가 있는데 말하기를, “새 참외 처음 씹으니 수정처럼 차다. 형제간의 정친情親에 차마 홀로 보랴(新瓜初嚼水晶寒 兄弟情親忍獨看)”라고 했다. 대체로 그의 우애友愛가 천성天性이란 것이 글자 사이에 나타나 보인다.

만력萬曆 무자년戊子年에 주청사奏請使 유홍兪泓이 중국 황제의 칙서와 《종계개정회전宗系改正會典》[3]을 받들고 돌아오니, 산해관山海關 주사主事 마유명馬維銘이 시를 지어 주기를, "국왕이 황제의 명령에 공순하여, 조공朝貢과 진헌進獻에 정성을 바치니, 새벽의 기마는 진역秦驛으로 쫓아오고, 밤중의 참마驂馬[4]는 한영漢營을 지나간다. 상림계안上林繫雁[5]을 보고, 장악궁長樂宮[6]에서 꾀꼬리 울음을 들었네. 돌아가거든 번거롭게 칭송하지 말라. 황제의 조정은 스스로 성명聖明한 것이니(國王恭帝命 貢獻獨虔誠 曉騎隨秦驛 宵驂度漢營 上林瞻繫雁 長樂聽帝鶯 歸去無煩頌 天朝自聖明)"라고 했다. 사신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옥당玉堂과 은대銀臺와 승문제조承文提調에게 명하여 각기 회답하는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 오직 이상홍李尙弘이 지은 한 연구聯句, "즐거운 기운은 장릉長陵의 나무이고, 기쁜 소리는 태액지太液池의 꾀꼬리 소리로다(喜氣長陵樹 歡聲太液鶯)"라고 한 것 외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다. 드디어 어제御製를 내려주어 말하기를, "종방宗祊이 이제 비로소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정성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역대의 조상들이 일찍이 공을 쌓았으며, 여러 신하들은 얼마나 지성至誠을 기울였던고. 은총과 함께 큰 공덕에 잠겼으니, 다투어 찬가讚歌를 부름이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꾀꼬리에게까지 미치는구나. 원컨대 이 자그마한 정성의 뜻

3 국초國初에 조선왕조의 조상이,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재되어서, 조선왕조의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선조宣祖 17년(1584) 5월에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황정욱黃廷彧 등을 보내어 바로잡았다. 그 뒤 1587년에 유홍兪泓이 다시 들어가서 고쳐진 명나라의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개정된 《대명회전》을 《종계개정회전》이라고 말한 것이다.

4 곁말. 한 수레에 3필의 말에 멍에를 할 때, 앞에 나란히 세운 2필의 말 뒤에 1필의 곁말로서 멍에를 함. 3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말함.

5 상림계안서上林繫雁書의 약略. 상림은 임금의 동산. 한漢나라 때에 사신 소무蘇武가 흉노匈奴에게 유폐幽閉되었을 때에, 한나라의 다른 사신이 흉노에게 소무의 소재를 추궁하여 말하기를, "천자가 상림에서 기러기의 발에 매여 있는 명주에 쓴 편지를 얻었는데, 소무가 어느 못 가운데에 유폐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그를 돌려보내라"고 말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

6 궁전의 이름. 한고조漢高祖가 장안長安의 서북에다 이룩한 것으로서, 서쪽의 미앙궁未央宮과 함께 양대兩大 궁전을 형성함.

을 지켜서, 천추千秋에 성명聖明한 황제를 모시리(宗祊今始正 莫謂是予誠 列祖功會積 諸臣悃幾營 恩沾同大造 歌競及流鶯 願守區區志 千秋戴聖明)"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존호尊號 올리기를 청하므로 끝구를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만력萬曆 기축년己丑年에 민응기閔應麒가 왕자의 사부師傅가 되니,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손수 어제시御製詩 2수를 부채에 써서 하사했다. 시에 말하기를, "전주箋注(본문의 뜻을 풀이한 주석)가 이루어진 이래 변론도 해설도 번다繁多하여라. 얼마나 많은 고금의 속유俗儒들이 지껄였던고. 그대는 보게나, 한 조각 마음속을. 그것은 진공眞空일 뿐, 말을 기다리지 않는 것을(箋注成來辨說繁 幾多今古俗儒喧 君看一片靈臺裏 只是眞空不待言)"이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한밤중에 칼을 어루만지면 기氣가 무지개를 토하네. 장한 마음 일찍이 내 나라에 바치기를 허락했건만. 연래年來에 해 온 사업이란 남의 흉내만 내었구나. 가을바람에 머리 돌리니 한恨은 끝이 없네(撫劒中宵氣吐虹 壯心曾許奠吾東 年來事業邯鄲步[7] 回首西風恨不窮)"라고 했다.

임진년壬辰年에 임금의 행차가 서도西道로 피난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전하는 어제시御製詩가 있다. "나라는 깨지고 집은 망한 날에 누가 곽리郭李[8] 같은 충성을 바칠 것인가. 서울을 떠나는(거빈去邠)[9] 것은 큰 계책을 생각함이니,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제공諸公에게 믿노라. 통곡하며 관산關山 길을 가노라니 압록강 바람에 마음 더욱 상하네. 조신朝臣들, 오늘을 겪은 뒤에도, 또다시 동인東

7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려다가 자기 고유의 것마저 잃어버리는 것의 비유. 한단邯鄲은 조趙나라의 서울이다. 그곳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멋진 것을 배우고자 하여, 연燕나라의 시골인 수릉壽陵의 한 소년이 멀리 한단에 와서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본래의 걸음걸이까지 잃어버려 손으로 땅을 짚고 기어 돌아갔다고 한다. 《장자莊子》〈추수秋水〉편에서 나온 말.

8 당나라의 충신 곽자의郭子儀와 이광필李光弼.

9 서울을 떠나간다는 뜻. 주周나라 대왕이 빈邠에 도읍을 정하고 있다가 오랑캐가 침노하므로, 빈을 떠나 양산梁山을 넘어 기산岐山 아래에 도읍했다고 한 고사에서 생긴 말.

人이니 서인西人이니 하려는가(國破家亡日 誰能郭李忠 去邠存大計 恢復仗諸公 慟哭關山路 傷心鴨水風 朝臣今日後 尙可更西東)"라고 했다.

16-2 고악부古樂府

《고악부》에 장가長歌와 단가短歌가 있다. 사람의 수명은 길고 짧은 것이 이미 정하여 있으니, 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공후인箜篌引〉[10]에 또한 "공公은 강물을 건너지 말라(公無渡河)"라고 말했다. 악부樂府의 서序에 말하기를, "조선의 진졸津卒 곽자고霍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 가사歌詞가 《고악부》에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하는 것이 없으니 애석하다.

〈백구편白鳩篇〉은 오吳나라 사람들이 손호孫皓[11]의 학정虐政을 근심하여, 진晉나라에 돌아가기를 노래한 가사歌詞이다. 백부구白符鳩[12]라고 하기도 한다. 유우석劉禹錫이 단도제檀道濟[13]의 옛 군루軍壘를 지나가면서 지은 시에, "말릉의 여

10 악부樂府. 상화가相和歌의 하나. 고조선古朝鮮 곽리자고霍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었다고 함.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임이여, 강물 건너가지 마오, 임이여, 기어이 건너가십니까. 강물에 빠져 죽었구려. 임이여, 장차 어이할꼬."

11 중국 삼국시대의 오나라 손권孫權의 손자. 화和의 아들이다. 손휴孫休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성질이 더럽고 포학하고 교만하며, 주색에 빠져 있었다. 뒤에 진晉나라의 군사에게 항복하여 귀명후歸命侯가 되니, 오나라는 드디어 멸망하고 말았다.

12 〈백구편白鳩篇〉이라고도 한다. 악부樂府 무곡舞曲의 가사 이름. 오나라 사람들이 손호孫皓의 학정을 근심하여 진晉나라에 귀속하기를 바라는 뜻을 암시한 노래라고 한다.

13 남조南朝 송宋의 사람. 무제武帝를 좇아 진秦나라를 치고, 문제文帝를 좇아 위魏나라를 쳐서 가는 곳마다 전공戰功이 많았다. 벼슬이 강주자사江州刺史·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을 거쳐 사공司空에 올랐다. 팽성왕彭城王 의강義康이 두려워하여 드디어 죽여 버렸다.

러 사녀士女들은 지금도 오히려 〈백부구〉 노래를 부른다(秣陵諸士女 猶唱白符鳩)" 라고 했다. 《남사南史》를 살펴보니, 그때 사람이 노래하기를, "가엾어라, 백부구. 불법으로 단강주檀江州(단도제檀道濟)를 죽였네(可憐白符鳩 枉殺檀江州)"라고 했다.

《고악부》의 백저가白紵歌(흰 모시의 노래)에 말하기를, "바탕은 가벼운 구름 같고 빛은 은과 같네. 말라서 도포道袍를 만들고 나머지는 수건을 만든다(質似輕雲色似銀 製以爲袍餘作巾)"라고 했다. 두시杜詩에는, "빛나고 밝은 흰 담毯으로 만든 모자(光明白氈巾)"라고 했고, 백낙천의 시에는 "푸른 막대, 대나무 지팡이에 백사건이로구나(靑筇竹杖白紗巾)"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관녕管寧은 흰 모자를 썼고, 산간山簡은 백접리白接䍦[14]를 썼으며, 사만謝萬은 백륜건白綸巾[15]을 썼다. 《당육전唐六典》에 왕자의 의복 제도에 백사모白紗帽라는 것이 있다. 그 밖에 백갑白帢(네 귀 없는 흰 고깔)이니 백도白幍(백건모白巾帽)니 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옛 사람들의 통상적인 복식服飾인 것을 알 수 있다.

《고악부》에 말하기를, "척소尺素(편지 쓴 흰 명주)가 눈같이 흰 것을 쌍잉어의 모습으로 매듭을 지었네. 마음속의 일을 알고자 하거든 뱃속에서 나온 글을 보라(尺素如殘雪 結成雙鯉魚 要知心裏事 看取腹中書)"라고 했다. 《패사稗史》를 고열考閱하여 보니 말하였기를, "한漢나라 때에 세상에서는 편지를 흰 비단에 써서 한 쌍의 물고기 모양으로 맺어서 서로 보내곤 했다. 《선시選詩》에, '손님이 먼 곳에서 와서 나에게 쌍잉어를 주네(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라고 한 것이 즉 이것이다. 그 아래에 말하기를, '물고기를 삶아서 《소서素書》[16]를 얻었네(烹魚得素書)'라

14 접리接䍦는 두건頭巾의 일종. 백접리는 흰빛의 접리이다.

15 흰 비단으로 만든 윤건綸巾이니, 두건頭巾의 일종임.

16 책 이름. 1권. 황석공黃石公의 찬撰이라 함. 송나라 사람 장상영張商英이 주註를 내었는데, 대지大旨는 도道·덕德·인仁·의義·예禮의 오자五者를 일체로 삼았음.

고 한 것은 비유하는 말이고, 정말로 삶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설이 그럴 것 같다.

《고악부》에 〈답가행踏歌行〉이라는 것이 있다. 이백李白의 시에 말하기를, "홀연히 언덕 위의 답가 소리 들리네〔忽聞岸上踏歌聲〕"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고증하여 보니, 《설부》의 〈교방기敎坊記〉에 말하기를, "답요踏謠라는 것은 북제北齊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북제北齊의 곡율금斛律金[17]은 글을 알지 못하였으나, 〈칙륵가勅勒歌〉라는 노래를 지어 말하기를, "칙륵천勅勒川 음산陰山 아래 하늘은 궁형穹形의 집인 양 사방을 덮었네. 하늘은 창창하고 풀은 망망한데, 바람이 불어 풀이 낮아지니 우양牛羊이 보이네〔勅勒川 陰山下 天似穹廬蓋四野 天蒼蒼野茫茫 風吹草低見牛羊〕"라고 했다. 그 가사가 예스럽고 소박하여 즐겁다.

《고악부》에, "서로 떨어짐이 날로써 멀어지니 옷의 띠가 날로 느슨해 가네〔相去日以遠 衣帶日以緩〕"라고 했고, 또, "집을 떠남이 날마다 먼 데로 달음질치니 옷의 띠가 날마다 느슨함에 달음질치네〔離家日趨遠 衣帶日趨緩〕"라고도 했다. 왕감주가 말하기를, "이以라는 글자를 사용하니 글이 아존하고, 추趨라는 글자를 쓰니 험준하다. 모두 매우 맛이 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추趨라는 글자는 이以라는 글자보다 매우 못하다.

《고악부》에 초중경焦仲卿의 아내의 시가 있다. 말하기를, "신부가 푸른 집에 들

17 북제北齊 사람. 평平의 아우. 자는 아륙돈阿六敦이다. 제2령민領民 추장酋長으로서 가을에는 경사京師에 입조入朝하고 봄에는 부락으로 돌아가곤 하여, 세상에서 안신雁臣(기러기처럼 철을 따라 오고 가고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어가니(新婦入靑廬)"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초중경은 여강廬江의 작은 관리이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북쪽 지방의 혼례에는 푸른빛 장막을 둘러쳐서 집을 만들고, 그것을 푸른 집(靑廬)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교배례交拜禮를 거행한다"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초중경의 아내는 아마 북제北齊의 사람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북방의 혼례에 따른 것이다.

《고악부》를 고열하여 보니, "어느 때 큰칼 머리로 거울을 깨뜨려 하늘로 날아올라 가게 할꼬(何時大刀頭 破鏡飛上天)"라고 했다. 남편이 돌아올 기한이, 달이 깨진 거울과 같은 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옛글에, "변방의 달은 깨진 거울이 난다(邊月破鏡飛)"라고 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두시杜詩에, "멀리멀리 변방의 달이 깨졌네(悠悠邊月破)"라고 하였는데, 주註에 "달이 깨졌다고 한 것은 달이 장차 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시韓詩에는 말하기를, "새 달이 반은 깨진 것이 어여쁘다(新月憐半破)"라고 하였으니, 곧 달이 만월滿月이 되지 않은 때이다. 번천樊川도 또한, "반 깨진 앞 봉우리의 달(半破前峰月)"이라고 했다. 대체로 달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반이 이지러진 것을 말한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깨어진 거울은 반달이니 반달만 기다리면 마땅히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

《고악부》에 말하기를, "산에 올라가 미무蘼蕪(천궁의 싹)를 캐고, 산에서 내려와 옛 남편을 만나네(上山採蘼蕪 下山逢故夫)"라고 했다. 낙빈왕駱賓王의 시에 "그대의 마음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의 뜻을 기억하지 않네(君心不記下山人)"라고 한 것은 아마 이 《악부樂府》의 말을 이용한 것일 것이다. 또 《사문옥설事文玉屑》에는 말하기를, "시에, '이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홀로 미무를 향하여 슬퍼한다(以欲離別意 獨向蘼蕪悲)'라고 한 것은 가버린 아내가 옛 남편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고악부》에, “술을 잔에 부어 객客에게 주니 객은 주인께 드시라고 말한다. 간략히 두 번 절하고 꿇어앉아 한 잔을 든다(酌酒持與客 客言主人持 却略再拜跪 然後持一杯)”라고 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지금 세속에서 술을 마실 때에 먼저 주인이 잔을 드는 것은 아마 또한 오래된 풍속인가 보다.

《고악부》에 말하기를, “뜬 참외와 잠긴 붉은 자두(浮瓜沈朱李)”라고 했다. 《본초本草》를 보니, “참외가 물에 가라앉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다. 또 《연수서延壽書》에는 말하기를, “자두가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은 독이 있다”라고 했다. 아마 옛날에 “뜬 참외, 가라앉은 자두”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인가. 옛 부賦에는 “단 참외를 맑은 샘에 띄운다(浮甘瓜於淸泉)”라고 했고, 유우석의 시에는 “하사下賜한 얼음이 주발에 가득하고 붉은 과일이 잠겼네(賜氷滿盌沈朱實)”라고 했다. 주실朱實은 붉은 자두를 가리킨 것이다.

《고악부》에 말하기를, “인편이 있으면 자주 편지를 부치고 인편이 없으면 마음으로 서로 생각하세. 병이 우물에 떨어진 것처럼 한 번 가면 소식이 없게 하지는 말아요(有信數寄書 無信心相憶 莫作瓶墮井 一去無消息)”라고 했다. 신信이라고 한 것은 곧 사인使人(심부름꾼)이다. 요사이 편지를 신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악부》에 말하기를, “오구烏臼의 새를 흔들어 쫓고(彈去烏臼鳥)”라고 했고, 또, “바람이 오구 나무에 분다(風吹烏臼樹)”라고도 했다. 육귀몽陸龜蒙의 도채시挑菜詩에 말하기를, “가다가 쉬는 것은 번번이 아구鴉舅(옻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의 그림자에 의지하고, 뽑기를 자주 하니 때로는 서고鼠姑의 가시를 본다(行歇每依鴉舅影 挑頻時見鼠姑心)”라고 했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서고鼠姑는 목단牡丹이고 아구鴉舅도 또한 당시의 나무 이름이다”라고 했다. 황산곡黃山谷의 시에는 말하기를, “아구가 매우 세고 떠들썩하다(鴉舅頗强聒)”라고 하였는데, 《운부》

에서 까마귀(鴉)라고 했다. 《당류함唐類函》에는 말하기를, "형주荊州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을 오구烏臼라고 한다"라고 했다. 구臼는 구舅와 음이 같으니 아마 오구烏舅와 오구烏臼는 같은 뜻일 것이다.

이기李頎의 악부가樂府歌에 말하기를, "아침에는 좌씨左氏의 〈교녀편嬌女篇〉을 읊고, 저녁에는 상여相如의 〈미인부美人賦〉를 왼다(朝吟左氏嬌女篇 暮誦相如美人賦)"라고 했다. 상고詳考하여 보니, 좌태충左太沖에게 〈교녀시嬌女詩〉[18]가 있고, 사마상여司馬相如는 문군文君[19]을 좋아하다가 고질을 얻었으므로, 드디어 〈미인부美人賦〉를 지어서 스스로 경계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말하기를, "〈망강남望江南〉은 악부樂府의 곡명曲名이니 또한 〈몽강남夢江南〉이라고도 한다. 이위공李衛公이 찬撰했다"라고 했다. 또 《소설小說》에는 말하기를, "〈망강남〉은 이 태위李太尉가 죽은 희姬 사추낭謝秋娘을 위해 지었다"라고 했다. 위공衛公이니 태위太尉니 한 것은 모두 이덕유李德裕를 말한 것이다. 내가 고증하여 보니 수양제隋煬帝에게 〈망강남사望江南詞〉가 있다. 그러니 이덕유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엄창랑嚴滄浪이 말하기를, "퇴지退之의 금조琴操라는 가사는 지극히 높고 예스러워서 정히 본색이다. 당나라의 선현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복원車復元은 말하기를, "창려昌黎의 비명碑銘의 문장은 매우 뛰어나서, 진秦·한漢 이래로 일찍이 그만한 이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 말이 또한 옳다.

18 교태가 있는 여자를 두고 지은 시라는 뜻이다. 좌사左思가 지은 시편詩篇에 〈교녀시〉가 있다.

19 탁문군卓文君을 말함. 한漢나라 탁왕손卓王孫의 딸로서 과부가 되었는데 사마상여司馬相如는 문군文君이 음률音律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거문고를 타서 그를 유혹하여 서로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이동양李東陽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 위魏나라 사이의 악부가사樂府歌辭는 질박하면서 속되지 않고, 아름답지만 염려艷麗(어여쁘고 화려함)하지 않아서 고시古詩의, ‘뜻을 말하여 길이 전한다〔言志依永〕’고 한 말의 남긴 뜻이 있다. 그런 까닭에 환작還作(도로 옛 격식대로 지음)하는 자가 대대로 나왔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고상故常(진구陳舊하여 변하지 않은 것)을 거듭 습용할 뿐, 다시 옛 뜻은 없다. 이태백李太白의 재주는 비록 높으나, 제목과 뜻을 옛 것 그대로 한 것이 많다. 그 풍습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다. 이 학문이 폐지된 것이 오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이 옳다. 다만 그 스스로 의고악부擬古樂府라고 하는 여러 편도, 비록 혹은 경구警句도 있으나, 배우俳優가 억지로 짓는 태도 같은 모습을 면할 수 없을 뿐 결코 본색本色은 아니다.

왕세정王世貞이 말하기를, “이문정李文正이 고악부사古樂府史에 대하여 단정적인 논쟁을 했다”라고 말했다.

악부樂府에 있어서 한漢 · 위魏의 것은 오래이다. 제齊나라 · 양梁나라 이상의 것은 정미精美하다. 당唐나라에서는 오직 이백李白의 것이 가장 아름다울 뿐이다. 내려와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이 체體가 끊어지고 없으니 시도詩道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또 시여詩餘(사詞를 일컫는 말)는 이백이 시작하여 송나라에 이르러서 매우 성행했다. 진소유秦少游 · 유기경柳耆卿의 무리가 가장 작자作者로 일컬어졌다. 자첨子瞻 같은 이도 오히려 시詩로써 사詞를 짓는다는 비난이 있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하원랑何元朗이 말하기를, “악부樂府는 양력揚歷[20]한 것을 잘 지었다 하고, 시여詩餘는 완려婉麗(상냥하고 고운 것)한 것을 아름답다고 한다”고 했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고악부古樂府를 의작擬作할 때에는 힘써 본색을 찾아야 하고, 한 번

20 높이 발양發揚함. 높이 드날리게 함.

의논(논리論理)에 들어서면 그것은 문득 귀도鬼道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당인사집唐人詞集을 《난원蘭畹》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향기로우나 약하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한번 논리 하는 버릇에 빠지면 문득 그것을 귀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가 다 그러하다. 다만 악부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말하기를, “양용수楊用脩가 지은 악부樂府는 유행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방면의 대가들의 매우 추허推許하는 바는 되지 못한다. 대체로 양용수楊用脩는 본래가 촉蜀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천조川調[21]가 많아서 남북南北의 본강本腔(고유한 성조聲調)에 매우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중화中華의 사람으로도 음조가 서로 화합하지 않는데, 하물며 외국인인 우리나라 사람이겠는가. 근세에 오직 신광한申光漢이 소품小品의 사詞를 짓고, 윤춘년尹春年은 악음고樂音稿를 지어 스스로 성율聲律을 잘 안다고 했다. 지금 그 사詞를 보니 용어가 매우 아존하지 못하다. 어찌 그 음조가 해합諧合하기를 바라겠는가.

16–3 고시古詩

〈여구驪駒〉는 일시逸詩[22]의 편명篇名이다. 그 가사에 말하기를, “여구驪駒(송별가의 제목으로 검은 말이라는 뜻)가 문門에 있으니 하인도 함께 있네”라고 했고, 또 “여구가 길에 있으니 하인이 멍에를 정돈하네”라고 했다. 왕식王式이 말하기를, “손님이 여구를 노래하니, 주인이 손님은 돌아가지 말라고 노래한다(客歌驪駒 主人歌客無庸歸)”고 했다. 아마 여구라는 것은 장차 돌아가려는 노래일 것이

21 촉蜀나라 사람들의 음조. 중국 남북의 고유한 성조聲調와 맞지 않는 데가 많다고 한다.

22 지금의 《시경》 311편 속에 보이지 않는 고시古詩.

다. 그런 까닭에 객客이 가고자 하여 노래한 것이다. “객客은 돌아가지 마오”라고 한 것도 또한 일시逸詩의 편명이 아닌지 의심된다.

백량栢梁의 연구聯句 중에, 종정宗正 유안국劉安國이 말하기를, “종실宗室이 넓고 커서 날마다 더욱 붇는다(宗室廣大日益滋)”라고 하니, 좌풍익左馮翊 감선減宣이 말하기를, “삼보三輔[23]가 도둑이면 천하가 위태롭다(三輔盜賊天下危)”라고 했다. 그 말들이 매우 소박하나 또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다. 곽사인郭舍人의 한 글귀에는, “비녀妃女의 입술을 깨무니 달기가 엿 같다(齧妃女脣甘如飴)”라고 한 것은 음란하고 외설하여 무례함이 심하다. 그런데도 죄를 주거나 내쫓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요산당외기堯山堂外紀》에, “소무蘇武가 흉노에게 사신으로 갈 때 시를 지어 주어, 아내와 이별하여 말하기를, ‘머리카락을 맺어 부부가 되었으니 은정恩情과 애정으로 둘이 서로 의심하지 않는다(結髮爲夫婦 恩愛兩不疑)’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 시의 뜻을 살펴보니, 이 말이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고시유원古詩類苑》 등의 서적에서는 모두 소무가 이릉李陵과 이별할 때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漢나라 신연년辛延年의 시에, “실끈으로 옥술병을 매어 들었다(絲繩提玉壺)” 했고, 《고악부》에는, “푸른 실로 옥병을 매었다(靑絲繫玉壺)라고 하였으며, 이백李白의 시에는 “옥병을 푸른 실로 매었다(玉壺繫靑絲)” 했고, 잠참岑參의 시에는 “실끈으로 맨 옥 술병을 그대 위해 갖고 왔네(絲繩玉壺爲君提)”라고 했다. 아마 옛날에는 푸른 실로 술병을 매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고악부》에 말하기를, “푸른 실을 말 꼬리에 맨다(靑絲繫馬尾)” 했고, 또, “푸른 실로 농籠(묶는 끈)을 했

23 한漢나라 때에 경조윤京兆尹 · 좌풍익左馮翊 · 우부풍右扶風이 함께 장안長安의 성중을 다스렸는데, 이들을 삼보三輔라고 했다.

다(靑絲爲籠係)" 하였으며, 또, "내려주신 돈 300만을 모두 푸른 실로 꿰었다(賚錢三百萬 皆用靑絲穿)"라고 했다. 그러니 푸른 실은 유독 술병 매는 데에만 쓰는 것은 아니었다.

왕장王嬙의 자字는 소군昭君이다. 진晉나라에서는 문제文帝의 휘諱를 피하여 명군明君이라 고쳐 부른다. 또 명비明妃라고도 한다. 석숭石崇이 〈명비곡明妃曲〉을 지었으니 대략 이러하다. "유類가 다른 데서 마음 편안할 수 있는가. 선우單于의 아내, 흉노에선 비록 귀하나 영화스럽지 않네. 부자父子에게 능욕을 당하니, 그를 대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네. 몸을 스스로 죽인다는 건 진실로 쉽지 않아서, 묵묵히 구차하게 살아간다오. 구차하게 살아감은 또한 무엇을 원함인가. 한관漢官에 은혜 쌓은 것 생각하니 항상 분하고 원통하네. 원컨대 날아가는 기러기의 날개를 빌어, 그것을 타고 멀리 가고 싶구나. 기러기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멍청히 섰다간 방황하네. 내 몸 옛날에는 궤 속의 옥玉이더니, 지금은 똥 위의 꽃이 되었네. 아침 꽃 아름다운 것 즐거울 것 없다. 썩은 풀과 함께 함을 달게 여기네. 후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노니, 먼 곳에 시집가면 정들기 어렵다고(殊類非所安 雖貴非所榮 父子見凌辱 對之慚且驚 殺身良不易 默默以苟生 苟生亦何聊 積恩常憤盈 願假飛鴻翼 乘之以遐征 飛鴻不我顧 佇立以屛營 昔爲匣中玉 今爲糞上英 朝華不足歡 甘與腐草幷 傳語後世人 遠嫁難爲情)"라고 했다. 그 말이 순탄하면서 정情과 뜻이 곡진曲盡하다. 그 뒤로 이에 대한 가곡歌曲을 지은 것이 있으나 모두 따르지 못한다. 왕개보王介甫의, "한漢나라 은총은 스스로 얕고, 오랑캐의 것은 깊으니, 인생이란 뜻에 맞으면 남북이 없는 것(漢恩自淺胡自深 人生適意無南北)"이라고 한 것 따위는 본래 말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고려 안축安軸의 시에, "몸을 가져다 이미 오랑캐의 아들과 함께 늙어 가니, 오직 고운 홍안이 빨리 시들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네(將身己與胡兒老 憔恐紅顔凋不早)"라고 한 것은 뜻이 또한 좋다.

《선시選詩》에 말하기를, “쌍원앙 수를 놓아, 말라서 함께 덮는 이불을 지었네. 솜을 넣었으니 길이 서로 생각하리라. 가를 꿰맸으니 맺은 것이 풀리지 않으리〔文采雙鴛鴦 裁爲合歡被 著以長相思 緣以結不解〕”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이불 속에 솜을 넣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면면부절綿綿不絕(솜에서 실을 뽑듯 길게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것)의 뜻이고, 가를 꿰맸다고 한 것은, 사변四邊을 비단실로 꿰맸기 때문에 맺은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장화張華의 시에 말하기를, “석사昔邪가 지게문과 창문에 난다〔昔邪生戶牖〕”라고 했고, 양간문제梁簡文帝의 시에는, “처마에 의지하여 석사가 비친다〔依簷映昔邪〕”라고 했다. 《유양잡조酉陽雜俎》를 보니 이끼〔苔〕로서, “집에 있는 것을 석사昔邪라 부르고, 담에 있는 것을 원의垣衣라고 하며, 바위틈에 있는 것을 석발石髮이라 하고, 물에 있는 것을 척리陟釐라고 하며, 소나무 위에 입혀진 것을 애납艾納이라고 한다”고 했다. 《본초本草》에서는 기와에 입혀진 이끼를 옥유屋遊라 하고 와송瓦松이라고도 했다. 운서韻書를 참고하여 보니, ‘邪’의 발음은 ‘사’다. 위 명제魏明帝의 시에, “옛집에 사초邪草가 난다〔宿屋邪草生〕”라고 한 것도 또한 이것이다.

좌태충左太沖의 교녀시嬌女詩에 말하기를, “옷과 이불은 모두 2중의 피지被池라네〔衣被皆重池〕”라고 했다. 송자경宋子京의 시에는 말하기를, “아침 해는 염압簾壓(발의 동요를 제압하는 기구로, 염압簾押과 같음)을 침노하고, 봄추위는 피지에 도달한다〔曉日侵簾壓 春寒到被池〕”라고 했다. 《후청록侯鯖錄》에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이불 머리에 따로 명주로 가를 덧붙인 것을 피지被池라고 한다”고 했다.

도연명陶淵明이 산해경시山海經詩를 읽고 말하기를, “형천刑天이 간척무干戚舞(두 손에 방패와 큰 도끼를 들고 추는 춤)를 추니, 사납고 성냄이 짐짓 항상 있다〔刑天舞干戚 猛怒故常在〕”라고 했다. 《산해경》을 고찰하여 보니, “형천은 짐승 이름이니,

그 짐승은 방패와 큰 도끼를 들고 춤추기를 좋아한다"라고 했다. 여러 책 가운데를 어떤 책에는, "형천무간척刑天舞干戚"을 "형요무천세形夭無千歲"로 써서 다섯 글자가 모두 틀렸다. 이에서 옛 글에는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도연명이 아들에게 명령하는 시에 말하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서 네가 재주 있기를 원한다. 네가 재주가 없다면 또한 그만인 것이다〔夙興夜寐 願爾斯才 爾之不才 亦已焉哉〕"라고 했다. 대체로 맹자가, "부자父子 사이에는 책선責善[24]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육방옹陸放翁은 말하기를, "책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善을 지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좇으라고 책망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했다.

도연명의 시에 말하기를, "3마리의 푸른 새가 펄펄 난다〔翩翩三靑鳥〕"라고 했다. 낙빈왕駱賓王의 시에는, "3마리의 새가 가지런히 날아와서 소식을 알린다〔三鳥聯翩報消息〕" 하였으며, 이백李白의 시에는 어리고 고운 3마리 푸른 새〔婉孌三靑禽〕"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한무고사漢武故事》에 말하기를, "3마리 까마귀 같은 푸른 새가 왕모의 곁을 모시고 있다〔三靑鳥如烏 夾侍王母傍〕"라고 했고, 또 〈대인부大人賦〉의 주註에서 장읍張揖은 말하기를, "발이 3개 있는 푸른 새"라고 하여 그 설이 서로 같지 않다.

도잠陶潛의 걸식시乞食詩에 말하기를, "굶주림을 참지 못하는 불같은 마음〔饑火〕이 나를 몰고 가니, 마침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 가다가다 이 마을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말은 서툴렀다〔饑火驅我去 不知竟何之 行行至斯里 叩門言辭拙〕" 하고는, 끝구에서 말하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무엇으로 사례할까. 저승에서 은혜를 갚아 드리리다〔銜戢知何謝 冥報以相貽〕"라고 했다. 소동파가

24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 또한 착한 일을 하라고 꾸짖는 것.

말하기를, "도연명이 한 끼의 밥을 얻어먹고, 주인에게 저승에서 은혜를 갚고자 하기에 이르렀으니 가엾다. 이것은 거지의 입언저리에서 나오는 말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도연명은 식량이 여러 번 떨어졌으나 개의치 않았는데, 이 시의 말을 보니 다니면서 걸식한 가엾은 빛이 있으니 매우 의심할 만하다.

도연명이 아들을 꾸짖는 시에 말하기를, "비록 5명의 사내아이가 있으나, 모두가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는다〔雖有五男兒 總不好紙筆〕"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옹雍과 단端은 나이가 13세이건만 6, 7도 셀 줄 모른다〔雍端年十三 不識六與七〕"라고 했다. 아마 두 아들은 같은 해에 낳았는가 보다. 도연명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너희들은 비록 동복同腹 소생은 아니나……"라고 하였으니, 다섯 아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나지 않은 것을 알겠다. 또 말하기를, "집이 가난해서 너희들에게 매양 땔나무를 해오고, 물을 긷는 수고를 시켰다"라고도 했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양왕梁王 수秀는 원량元亮(도연명의 자字)의 손자가 이사里司가 된 것을 탄식하여 불러다가 서조西曹 벼슬을 시켰다"라고 했다. 이사里司라는 것은 아마 지금의 이정里正 같은 것일 것이다. 원량의 자손들이 떨치지 못한 것은 혹시 가난하고 궁핍해서 학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사현휘謝玄暉의 〈고취곡鼓吹曲〉에 "凝笳翼高蓋 疊鼓送華輈"라고 했다. 이선李善이 주註하기를, "천천히 소리를 길게 끄는 것을 응凝이라 하고, 북을 작게 치는 것을 첩疊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 피리 소리를 천천히 길게 끌면서 높은 일산日傘으로 호위하고, 북을 작게 치면서 화려한 수레를 보냈다는 것이다.

잠참岑參이 개가凱歌에서, "명가뢰고옹회군鳴笳擂鼓擁回軍"이라고 하였는데, 양신楊愼이 해설하기를, "소리를 급히 잡아당기는 것을 명鳴이라 하고 북을 빨리 치는 것을 뢰擂라고 한다" 했다. 그러니 피리를 급한 소리로 불고, 북을 빨리 쉴 새 없이 치면서 돌아오는 군대를 옹위한다는 뜻이다.

피리를 천천히 긴 소리로 불고 북을 작게 치는 것(凝笳疊鼓)은 길한 행차의 아름다운 거둥이고, 피리를 급한 소리로 불고 북을 빨리 쉴 새 없이 치는 것(鳴笳擂鼓)은 군대가 행진하는 때의 무비武備인 것이다. 시인의 글자 쓰는 것이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사조謝朓의 시에, "구름이 창오야를 간다(雲去蒼梧野)"라고 했고, 이백李白의 시에는, "구름을 바라보고 창오를 안다(望雲知蒼梧)"라고 하였으며, 또, "흰 구름 시름 빛이 창오에 가득하다(白雲愁色滿蒼梧)"라고도 했다. 이백의 주를 참조하여 보니 말하였기를, "《귀장역歸藏易》[25]의 점괘 풀이에, '흰 구름이 창오에서 나와서 대량大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이 있다. 시에 사용한 창오와 구름이란 말은 대체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했다.

《옥대신영玉臺新詠》에 말하기를, "원앙 72마리가 벌여 서서 스스로 행렬을 이루었다(鴛鴦七十二 羅列自成行)"라고 했고, 이백李白의 시에는, "70마리의 자줏빛 원앙"이라고 하였으며, 맹교孟郊의 시에는 꽃이 72줄로 되어 있다(花開七十有二行)"라고 했다. 그들이 72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4기氣는 72후候가 있고, 5행行은 4시時에 각각 72일씩 왕일旺日이 있다. 의심컨대 여기에서 따온 뜻이 아닐까"라고 했다. 《장자莊子》에 말하기를, "공자孔子는 시서詩書를 다스려서 72명의 임금을 간사한 자로 만들었다" 했고, 《관자管子》에는 말하기를, "봉선封禪[26]한 자로 72명의 임금이 있다"라고 했다. 또 공자의 제자는 72명이며, 《열선전列仙傳》·《고사전高士傳》·《은일전隱逸傳》 등에도 모두 72인씩이다. 이것은 모방하여 한 것일까.

25 세 가지 《역경易經》 중의 한 가지.

26 천자天子가 천지天地의 신神에게 제사하는 것. 봉封은 흙을 쌓아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고, 선禪은 선墠과 같으니 땅을 깨끗이 닦아 산천山川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목란사木蘭詞〉[27]에 말하기를, “문에 나가서 화반火伴을 보니, 화반이 비로소 놀라고 바빠했다〔出門見火伴 火伴始驚忙〕”라고 했다. 지금 중국말에 동행하는 사람을 화반이라고 한다. 아마 취사炊事를 같이한다는 뜻일 것이다.

안연년顔延年의 시에, “여러 번 추천하였으나 관官에 들어가지 않고, 일휘一麾로 드디어 출수出守한다〔屢薦不入官 一麾乃出守〕”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휘麾라는 것은 지휘해 나간다는 뜻이다. 두번천杜樊川이, “한 기旗를 잡고 강해江海에 가고자 한다〔欲把一麾江海去〕”라고 풀이한 것은 잘못이다.

손작孫綽의 시에, “벽옥파과년碧玉破瓜年”이라 했고, 여동빈呂洞賓의 시에, “공을 이루는 것은 마땅히 파과년에 있어야 한다〔功成當在破瓜年〕”라고 했다. 《소설小說》을 보니 “파과는 28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즉 파과는 16세이다.

양梁나라 유운柳惲의 시에, “정자의 언덕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밭둑 머리에는 가을 구름이 날린다〔亭皐木葉下 隴首秋雲飛〕”라고 했다. 왕융王融이 보고, 감탄하고 칭상하여 드디어 유명하게 되었다. “아, 지금 세상에 왕융 같은 사람이 있기는 어렵다.” 차천로車天輅는 매양 이 말 쓰기를 좋아했다. 아마 느낀 바가 있었던가 보다.

양梁나라 조경종曹景宗은 무인武人이다. 그런데 경병운競病韻을 한 번 지어서 고금의 절창이 되었다. 고사를 상고하여 보니, 송나라의 심경지沈慶之는, 눈으로는 글자를 알지 못하고 손으로는 글씨를 쓸 줄 몰랐다. 그런데 임금에게 치사致仕(나이 많아 벼슬을 그만두는 일)의 시를 올려 말하기를, “노쇠해서 근력이 다하였으므로, 걸어서 남쪽 언덕에 돌아왔습니다. 이 성대聖代에 영화榮華를 사

27 고악부古樂府. 작자 미상. 여장부인 목란木蘭이 남장男裝을 하고 전쟁에 출정했다가 무사히 고향에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서술한 노래의 가사.

양함이니 무엇이 장자방張子房에게 부끄럽겠습니까〔衰朽筋力盡 徒步還南岡 辭榮此聖代 何愧張子房〕”라고 했다. 그 말이 매우 아름답다. 아마 중국 사람들은 언어가 곧 문장이 되는 까닭에 능히 이와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양梁나라 사람의 시에, “장안長安의 밤에 자규刺閨하기를 오랑캐의 군대가 동제銅鞮를 침범했다〔長安夜刺閨 胡騎犯銅鞮〕”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자규라는 것은 밤에 급한 보고가 있어서 궁문에 가서 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남사南史》에, “진문제陳文帝가 밤마다 자규로 바깥일을 청취하여 나누어 판정하고……”라고 했다. 동제銅鞮를 운서韻書에서는 진晉나라 궁궐의 이름이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땅 이름인 것 같다.

옛 시에, “장일금도소障日錦屠蘇”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진晉나라 태강太康 때에는 천하의 상인商人과 농민이 모두 큰 장일障日(해를 가리는 너울 같은 것)을 착용했다고 한단. 동요童謠에, “도소장일屠蘇障日로 두 귀를 덮었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두시杜詩의, “달려가서 비단 도소를 마련한다〔走置錦屠蘇〕”라고 한 것의 주에, “도소는 집 이름이다”라고 한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도소에는 두어 가지의 뜻이 있으나 이 뜻과는 같지 않다.

유신庾信의 〈하일夏日〉이라는 시에 말하기를, “이른 마름에 연한 모가 생기니〔早菱生軟角〕”라고 했다. 유우석劉禹錫의 〈채릉행採菱行(마름 캐는 노래)〉이란 시의 주에 말하기를, “무릉武陵의 풍속에는 매년 가을에 여랑女郎들이 마호馬湖에 많이 모여 놀면서 마름을 따 손을 접대한다”라고 했다. 대체로 가을이 되면 마름의 모가 익어서 캐서 먹을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 백광훈白光勳의 탐릉곡探菱曲에서는 말하기를, “나루 어귀에서 서로 만나 마름 캐러 가노라면, 마름 잎은 처음 나고 조아기잎〔荇葉〕은 푸르네〔相邀渡口採菱去 菱葉初生荇葉靑〕”라고 했고, 이달李達의 시에는, “남호南湖에 마름의 모가 이미 가시를 이루었는데, 3월에 가

신 님 가시고 돌아오지 않네〔南湖菱角已成刺 三月行人歸未歸〕"라고 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마름을 봄에 캐는 것으로 다루고 있어서 모두 잘못이다.

유견오庾肩吾의 시에, "천금千金으로 우선禹膳을 올리고, 만년수萬年壽를 빌어 큰 종을 바친다〔千金登禹膳 萬壽獻堯鐘〕"라고 했다. 당唐나라 이예李乂의 시에, "물가 집에는 우선을 열고 산 집에는 요종을 바친다〔水堂開禹膳 山閣獻堯鐘〕"라고 하여, 유견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사용했다. 우선이란 것은 대개 수족水族을 말한 것이다.

《옥대신영玉臺新詠》의 소자범蕭子範의 시에, "떨어진 꽃이 한갓 집안에 들어왔을 뿐이니, 어찌 나〔妾〕의 침상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랴〔落花徒入戶 何解妾床空〕"라고 했고, 당시唐詩에는 말하기를, "나는 꽃이 문 안에 들어와서 침상 빈 것을 웃는다〔飛花入戶笑床空〕"라고 했다. 유견오의 시에는, "진흙을 물고 다니는 제비가 서로 쫓아 나는 것만 못하다〔不及銜泥燕 從來相逐飛〕"라고 했고, 당시唐詩에는, "한스럽다, 이 몸도 제비처럼 몸이나 가벼웠다면, 봄마다 궁궐의 주렴을 돌며 날아나 볼 것을〔自恨身輕不如燕 春來還繞御簾飛〕"이라고 했다. 유효작劉孝綽의 시에, "푸른 실로 굴레 한 말 탄 사람 보지 못하고, 헛되게 붉게 단장하느라고 수고만 하네〔不見靑絲騎 空勞紅粉粧〕"라고 했고, 이백의 시에는, "그대의 집 가에는 구름이 푸른 실로 굴레 한 기마騎馬처럼 둘러 있고, 첩의 곳에는 붉은 분단장 하던 누대에 이끼가 끼었네〔君邊雲擁靑絲騎 妾處苔生紅粉樓〕"라고 했다. 옛사람들이 남의 글을 도습함이 이러했다.

옛 시에, "도곡度曲하니 푸른 눈썹 다소곳 숙여지고〔度曲翠眉低〕"라고 한 것이 있다. 상고하여 보니, 노래를 마치고 다시 그 다음 곡조를 지정하여 주는 것을 도곡이라고 한다. 심전기沈佺期의 시에, "도무度舞하여 가만히 행렬을 이룬다〔度舞暗成行〕"라고 했다. 이 도무라고 한 것도 또한 도곡처럼 춤이 끝나고 다음

춤을 지정한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된다.
옛 시에, "35에는 밝은 달이 가득하고, 45에는 두꺼비도 토끼(蟾兎)도 없다(三五明月滿 四五蟾兎闕)"라고 했다. 두시杜詩에는 말하기를, "없어진 달이 아직 하늘에 나오지 않네(闕月未生天)"라고 했다.
《예운禮運》에 말하기를, "달은 35에 차고 45에 없어진다(月三五而盈 四五而闕)"라고 했다. 주에, "보름에 차고 그믐에 죽는다"라고 했다. 그러니 궐월闕月(달이 없어지는 것)은 그믐이다. 즉 백낙천의 시에 말하기를, "미월微月 초사흘 밤에(微月初三夜)"라고 했다. 미월이란 것은 초승달을 가리킨 것이다.

강총江總의 시에, "전해 들으니 합포合浦의 나뭇잎이 멀리 낙양에 가서 날린다네(傳聞合浦葉 遠送洛陽飛)"라고 했다. 황보염皇甫冉의 시에는, "마음은 합포의 나뭇잎을 따르고, 목숨은 수양산首陽山의 고사리에 의탁하였네(心隨合浦葉 命寄首陽薇)"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교주기交州紀〉에 말하기를, "합포에 한 삼杉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어진 잎이 바람을 따라 낙양洛陽에 들어가니, 한漢나라 때에, '이것은 길한 징조이다. 그곳에 마땅히 왕자王者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나무를 베어 버렸다"라고 했다.

《고시유원古詩類苑》에 실려 있는 강총江總의 시에 말하기를, "마음은 남쪽 구름을 쫓아가고, 몸은 북쪽 기러기를 따라왔네. 고향 울타리 밑의 국화, 오늘은 몇 송이나 피었는지(心逐南雲逝 身隨北雁來 故鄕籬下菊 今日幾花開)"라고 했다. 《요산당외기》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이 시는 강총이 장안長安으로부터 양주楊州에 돌아가서 9월 9일에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품휘唐詩品彙》에서 이것을 허경종許敬宗의 시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또 두시집杜詩集 속에 있는, "괵국 부인이 임금의 은총을 받들고, 늦은 아침에 말을 타고 금문에 들어가네. 분과 연지가 도리어 낯빛을 더럽힐 것을 싫어하여, 깨끗이 아미를 씻어 버리고 지존께 조현하네(虢國夫人承主恩 平明騎馬入金門

却嫌脂粉汚顔色 淡掃蛾眉朝至尊〕"라고 한 시를, 《당시품휘》에서는 장우張佑의 작품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런 것 같다.

윤식尹式의 시에 말하기를, "수심愁心에 머리칼은 서리를 머금어 하얗게 되었고, 노쇠한 낯은 술을 힘입어 붉어진다〔愁髮含霜白 衰顔倚酒紅〕"라고 했다. 두시杜詩에는, "터럭이 짧으니 하얗게 되는 데 무엇이 힘들겠는가. 얼굴이 노쇠하였으니 다시 붉지 못하리라〔髮短何勞白 顔衰肯更紅〕"라고 했고, 정곡鄭谷은, "노쇠한 구레나룻에는 서리가 흰빛을 제공하고, 수심 어린 얼굴에는 술이 붉음을 빌려주네〔衰鬢霜供白 愁顔酒借紅〕"라고 하였으며, 백낙천은 말하기를, "살쩍(귀 앞에 난 머리털)은 시름 때문에 먼저 하얗게 되고, 낯빛은 취한 뒤라야 붉어지네〔鬢爲愁先白 顔因醉後赬〕"라고 했고, 진후산陳后山은 말하기를, "살쩍이 짧으니 수심은 하얗게 되기를 재촉하고, 낯이 노쇠하니 술이 붉은빛을 빌려주네〔鬢短愁催白 顔衰酒借紅〕"라고 했다. 이 시들은 말이 서로 비슷하나, 반드시 그 우열을 평정評定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아조我朝의 노수신盧守愼의 시에는 "살쩍은 세상을 근심하여 하얘지고, 낯은 술을 즐김으로 인해 취한 얼굴이 된다〔鬢爲憂時白 顔因嗜酒酡〕"라고 했다. 전적으로 백낙천의 시를 도습했다. 그런데 운서韻書를 참조하여 보니, '타酡'라는 글자는 '취한 낯〔醉顔〕'이라는 뜻이다. 타酡 자를 그런대로 쓸 수는 있으나 뜻도 맛도 없다.

고시古詩에 무명씨無名氏의 시가 실려 있다. "양류楊柳는 푸르고 푸르러 땅에 닿도록 드리웠는데, 버들개지(버드나무의 꽃)는 멀고 아득하고 어지럽게 하늘에 날리네. 버들가지 꺾어 다하고, 꽃은 날아서 없어졌는데, 묻노니 가신 님은 가고 못 오시는가〔楊柳靑靑着地垂 柳花漫漫攪天飛 柳條折盡花飛盡 借問行人歸不歸〕"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최경崔瓊이 말하기를, "이 시는 대업大業 말년末年에 지어진 것

으로서, 위의 두 글귀는 양제煬帝의 순유巡遊함이 절도가 없으매 간사한 사람의 벌주고 복 주는 임금의 권한을 농간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고, 아래 글귀는 백성들의 재산이 곤궁해서 그의 귀국을 바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의 의견으로는 첫 글귀는 그 왕성함을 비유했고, 둘째 글귀는 그 어지러움을 비유하였으며, "버들가지는 꺾어서 없어지고"라고 한 이하는 나라가 망하여 임금이 돌아올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6-4 당시唐詩-1

우세남虞世南의 〈전병치월만하조청全兵値月滿賀朝淸(완전한 군대가 만월 때를 만나 조정이 깨끗함을 축하함)〉이라는 시에, "북방 오랑캐가 달 밝은 때를 노려 변성邊城을 침구한다(朔胡乘月寇邊城)"라고 했고, 장구령張九齡의 시에는, "달을 엿보아서 죽여 끊어버리기를 꾀한다(候月期戡剪)"라고 했다. 《강목綱目》의 주에, "오랑캐가 용병用兵하는 것은, 달을 표준으로 하여 달이 차면 들어와 도둑질하고, 달이 이지러지면 물러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양형楊炯의 시에, "적토류생검赤土流星劍 오호명월궁烏號明月弓"이라고 했다. 고사를 고증하여 보니, 장화張華가 칼을 얻어서 붉은 흙(赤土)으로 닦으니, 배倍나 더욱 빛이 나고 밝았다고 했다. 유성流星은 칼 이름이다. 오호烏號는 활이다. 상고하여 보니, 자수柘樹(산뽕나무)는 가지가 모질고 길어서 까마귀들이 모였다가 장차 날아가려고 할 때, 가지가 탄력으로 까마귀를 튕기니, 까마귀가 곧 울부짖는다. 그래서 자목柘木으로 만든 활을 오호烏號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회남자》에 '오호의 자목'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황제黃帝가 하늘로 올라가니, 백성들이 활을 안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도 한다. 그러니 이 시의 뜻은, "붉은 흙으로 닦은 유성검流星劍이고, 자목으로 만든

명월궁明月弓이로구나”라고 한 것이다.

양형楊烱의 시에, “야옥夜玉으로 수레의 속바퀴를 장식하고 추금秋金으로 말채찍을 주조鑄造한다〔夜玉粧車軸 秋金鑄馬鞭〕”라고 하였는데, 야옥이니 추금이니 하는 말이 나온 곳을 알 수 없다. 아마 야옥이란 것은 밤에 빛난다는 야광주夜光珠이고, 추금이란 것은, 추秋는 서방西方에 속하고 서방은 백색이므로 백금白金을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왕자안王子安의 시에 말하기를, “해내海內에 지기知己가 있으니 천애天涯도 가까운 이웃과 같다〔海內存知己 天涯若比隣〕”라고 했다. 비린比隣의 비比는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두시杜詩에, “거위와 오리로 하여금 가까운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다〔不敎鵝鴨惱比隣〕”라고 하여, 비比를 평성平聲으로 썼기 때문에 후인後人들이 그것에 따라 평성으로 쓴 이가 많다. 그러나 상고하여 보니, 《주례周禮》에 “다섯 집을 비比로 한다〔五家爲比〕”라고 한 비比는 거성去聲이었다.

왕발王勃의 도관시道觀詩(도교의 사원寺院을 제목으로 한 시)에 말하기를, “옥급玉笈에는 〈삼산기三山記〉가 담겼고, 금상자에는 〈오악도五嶽圖〉가 들어 있다〔玉笈三山記 金箱五嶽圖〕”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에, “서왕모西王母가 무제에게 구슬함〔瓊笈〕에 든 붉은 책과 〈오악진형도五岳眞形圖〉를 주었다……”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시의 용어는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으로서 경급瓊笈을 옥급玉笈으로 고쳤을 뿐이다.

왕발의, “등왕滕王의 높은 누각은 강물 가에 서 있는데, 패옥과 수레의 방울을 울리며 즐기던 가무歌舞는 없네〔滕王高閣臨江渚 珮玉鳴鑾罷歌舞〕”라고 한 것을, 당여순唐汝詢은 말하기를, “이것은 번화한 것은 다하기 쉬운 것을 슬퍼하여 ‘등왕滕王이 패옥珮玉을 쟁그랑거리며 수레의 방울을 울리던 땅에 노래와 춤은 이미

파했고, 주렴과 기둥은 쓸쓸하여 구름과 비만 오락가락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해설이 옳은 것 같다. 다만 글로서 성립되지 않을 것이 두렵다.

노조린盧照隣의 시에, "바위 가의 가지에 제상帝桑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산해경》을 보니 "선산宣山 위에 뽕나무가 있으니 크기가 50척尺이고, 그 가지는 교차하여 네 갈래로 뻗었으며, 나뭇결은 붉고 푸른 꽃이 핀다. 이름을 제녀상帝女桑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낙빈왕駱賓王의 시에 말하기를, "높은 땅 벼루에서 성루星樓(별처럼 아름다운 누각)를 바라본다(地圯望星樓)"라고 했다. 《이아爾雅》를 조사해 보니, 벼루(陬隅)의 높은 곳을 이圯라고 한다. 그러니 이 이圯라고 한 것은 무너질 비圮 자는 아닌 것이다. 또 운서韻書에, "이圯의 음은 이怡이니, 평성平聲이다. 흙다리(土橋)이다"라고 했다. 장량張良에게 이상圯上에서 병서兵書를 주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아爾雅》에 나오는 이圯와는 음도 뜻도 같지 않다.

낙빈왕의 시에 말하기를, "보배로운 비파로 중부中婦의 가락을 맞추고, 금술잔으로 상빈上賓을 인도한다(寶瑟調中婦 金罍引上賓)"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중부中婦의 가락에 봉루鳳樓가 차갑다(中婦鳳樓寒)"라고도 했다. 상고하여 보니, 《고악부》에 〈삼부염사三婦艶辭〉라는 가곡이 있는데, 말하기를, "대부大婦가 현악絃樂을 처음으로 시작하면, 중부中婦는 관악管樂을 연주한다. 소부小婦는 어여쁜 얼굴과 몸맵시로 웃음을 머금고 바싹 다가와서 맑은 술잔을 올린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 같다.

낙빈왕의 시에 말하기를, "용운은 옥엽이 올라가는 듯하고, 학같이 흰 눈은 상서로운 꽃이 새롭구나(龍雲玉葉上 鶴雪瑞花新)"라고 했다. 《천문지天文志》를 보니,

"월越나라 구름이 용의 형상 같다"라고 했다. 당시唐詩에는 말하기를, "비가 드물어 구름잎(雲葉)이 끊어졌다(雨稀雲葉斷)"라고 했다. 학鶴이라고 한 것은 눈빛(雪色)이 흰 것을 말한 것이고, 눈은 풍년의 상서이므로, 상서로운 꽃(瑞花)이라고 한 것이다.

낙빈왕이 미인을 읊었는데, "달처럼 그린 눈썹이 새롭구나(眉頭畫月新)"라고 했고, 또 "달처럼 그린 눈썹에 누른빛을 그리고 그만둔다(寫月圖黃罷)"라고 했다. 대체로 눈썹을 그리는 모습이다. 번천樊川의 시에는 "곱고 고운 반달눈썹"이라 했고, 장갈章碣의 시에는, "가늘고 긴 달 같은 눈썹, 한恨에 잠겨 펴지 않네(眉月連娟恨不開)"라고 하였으며, 또 "두 굽은 달이 눈썹 가에 비친다(兩痕彎月照眉邊)"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심전기沈佺期가 〈안악공주신택安樂公主新宅〉이라는 시에 말하기를, "산이 뻗어 나온 것은 모두 봉황이 울던 봉우리 같고, 못이 이루어지니 용이 물을 마시던 내에 양보하지 않는다(山出盡如鳴鳳嶺 池成不讓飮龍川)"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안악공주安樂公主[28]가 곤지昆池를 만들었는데, 49리이고, 돌을 쌓아 화악華嶽(오악五嶽의 하나)의 형상으로 산을 만들었으며, 물을 끌어다가 도랑을 만들어 천진天津(은하수銀河水)을 상징했다. 위 글귀는 아마 기산岐山[29]에 비유한 것이다. 아래 글귀는 《사기史記》를 고열考閱하여 보니, "진秦나라 때에 흑룡黑龍이 남산南山에서 나와서 위수渭水를 마셨는데, 그 용이 지나간 길이 산을 따라 자취를 이

28 당나라 중종中宗의 딸. 무삼사武三思의 아들 숭훈崇訓에게 시집갔으나, 또 무연수武延秀와 난행亂行했다. 무삼사가 공주의 생모인 위후韋后와 통간하고 조정의 정사를 전단專斷하니, 공주가 그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횡포하여,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곤 하더니, 삼사의 부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자, 공주도 즉시 무연수와 재혼했다. 뒤에 위황후로 하여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자신은 황태녀皇太女가 되려고 하여 위후와 공모하고 황제를 독살했다. 임치왕臨淄王 융기隆基, 즉 현종玄宗이 군사를 일으켜 쳐서 모녀가 모두 죽었다.

29 산 이름. 주周나라의 대왕이 그 아래에 도읍을 정하였던 곳이다. 여기에 봉황이 와서 울었는데, 이 시에서 명봉령鳴鳳嶺은 기산岐山을 가리킨 것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루었는데, 길이가 60여 리나 되었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 같다.

심전기의 〈종행향산사從幸香山寺(향산사의 거둥에 수행하여 지은 시)〉에 말하기를, “선단으로 지은 새벽의 불전佛殿에 금수레가 지나가고, 앵무의 갠 숲을 채색한 모의毦衣가 가르네(旃檀曉閣金輿度 鸚鵡晴林采毦分)”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전단旃檀은 향나무의 이름이니, 불경佛經에 나온다. 모毦는 마땅히 이毦로 써야 한다. 음은 ‘이’이다.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이毦라는 것은 날개를 짜서 옷을 만든 것이니, 다른 이름을 두兜라고 한다. 무鍪(투구) 위의 장식이다”라고 했다. 앵무의 갠 숲(鸚鵡晴林)이라고 한 것은, 상고하여 보니, 불경에, “보살菩薩이 앵무왕鸚鵡王이 되니, 무리가 3,000이었다”라고 했다. 고려 최홍윤崔洪胤의 글에 말하기를, “앵무원鸚鵡園 가운데서 석림釋林(불교계佛敎界)의 좋은 과실을 모두 따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심전기의 〈백학사白鶴寺〉라는 시詩에 말하기를, “푸른 구름이 안당에서 일어난다(靑雲起雁堂)”라고 했다. 운서韻書에 말하기를, “비사니毗舍尼(중인도에 있던 나라의 이름)가 부처를 위하여 불당을 지으니 그 형상이 기러기 안雁 자와 같았다”라고 했다. 또 안탑雁塔이라는 것이 있으니 《서역기西域記》에 말하기를, “옛날에 비구比丘는 기러기 한 마리가 몸을 던져 내려와서 스스로 죽는 것을 보고 드디어 매장하여 주고 거기에 탑을 세웠다. 안탑이라는 말은 본래 이 일에 근본이 있다”라고 했다.

심전조沈佺潮의 시에 말하여, “꽃다운 봄에 평중平仲이 푸르고, 맑은 밤에 두견새 운다(芳春平仲綠 淸夜子規啼)”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평중은 나무 이름이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자연히 옷 띠가 느슨해진 것이고 요신腰身 때문은 아니다〔自然衣帶緩 非是爲腰身〕”라고 했다. 요신이라는 두 글자의 출처를 몰랐더니, 뒤에 《옥대신영玉臺新詠》을 보니, “소매가 작은 것을 요신이라고 한다”고 한 것이 있었다. 또 말하기를, “가을이 오면 응당 모두 여위어질 것이니, 치우치게 스스로 요신腰身만 착용하리라〔秋來應瘦盡 偏自着腰身〕” 했다. 이 시의 요신이란 말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영은사靈隱寺〉 시에 말하기를, “계수나무 열매가 달 속에서 떨어지니, 하늘 향기가 구름 밖에 나부끼네〔桂子月中落 天香雲外飄〕”라고 했다. 《소설小說》을 보니, 항주杭州의 영은산靈隱山에 8월 15일 밤이면 일찍이 달 속의 계수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절의 중이 주웠다고 했다. 백낙천의 시에, “높다랗게 솟은 달 속의 계수나무, 뿌리를 맺고 푸른 하늘을 의지해 섰네. 하늘 바람이 달을 둘러 일어나서, 열매를 불어 인간에 떨어뜨렸네〔偃蹇月中桂 結根依靑天 天風繞月起 吹子下人間〕”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송지문宋之問의 시에, “감우紺宇(절의 다른 이름, 감원紺園이라고도 함)가 하늘의 궁전에 닿아 있는데, 거가車駕를 돌려 제휴帝休를 향하네〔紺宇臨天室 回鑾指帝休〕”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장자》에, “지리숙支離叔이 곤륜의 옛터 황제黃帝의 쉬던 곳을 보고〔支離叔 觀於崑崙之墟 黃帝所休〕……”라고 한 것이 있다. 제휴라는 말은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또 《산해경》에 말하기를, “소실산小室山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을 제휴라고 하는데, 누른 꽃이 피고 검은 열매가 연다. 그 열매를 먹으면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도 있다.

송지문의 〈상조랑시傷曹娘詩(조랑을 슬퍼하는 시)〉에 말하기를, “홀로 연지와 분의 기운이 아직도 무의舞衣에 남아 있는 것이 슬프구나〔獨憐脂粉氣 猶着舞衣中〕”라고 하였는데, 두심언杜審言의 상미인시傷美人詩에는, “연지와 분의 기운이 아직도

무의에 남아 있음을 응당 슬퍼하리라〔應憐脂粉氣 尙着舞衣中〕"라고 했다. 그 글귀를 서로 침범한 것이다. 다만 한 글자 독獨을 응應으로 바꿨을 뿐인데, 송지문의 글만 못하다.

송지문의 시에, "황작黃雀의 말이 야장冶長의 재화를 면하게 한 것만 같지 못하다〔不如黃雀語 能免冶長災〕"라고 했다. 백낙천白樂天의 금충시禽蟲詩의 서序에 말하기를, "내가 야장이 아니니 그 뜻을 통할 수 없다"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공야장公冶長이 새의 말〔鳥語〕을 들을 줄 알았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에, 《천자문千字文》의 주를 보니 "야장은 참새들이 '살찐 고기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가 보니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었다. 드디어 야장은 살인자로 잘못 몰렸다." 운운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그 책을 다시 볼 수가 없다. 《패사稗史》를 보니, 《논어》의 주소註疏를 인용하였는데, "야장이 새의 말을 알아듣고 말하기를, '수레에 조〔粟〕를 엎지르면 새들이 서로 불러서 같이 먹겠다고 한다'고 하기에, 실험하여 보니 과연 그러했다"라고 했다. 이 시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 같다.

송지문의 시에, "재〔嶺〕 밖의 음서音書가 끊어진 것이 겨울을 지나고 또 봄을 넘겼건만, 고향이 가까워오니 심정이 다시 겁이 나서 감히 오는 사람에게 묻지 못하네〔嶺外音書斷 經冬又涉春 近鄕情更怯 不敢問來人〕"라고 했다. 내가 중국 도성에 세 번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번번이 이 시를 외면서, 일찍이 그 뛰어나게 잘 지었음을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송지문의 시에, "말 위에서 한식寒食을 만났으니〔馬上逢寒食〕"라든가, "푸른 나무 늘어선 진경秦京의 길〔綠樹秦京道〕"이라든가, "병들어 누웠으니 나가 전별도 하지 못하네〔臥病人事絕〕"라든가, 왕유王維의 시, "만 리에 봄은 돌아가 다하였네〔萬里春歸盡〕"라든가, 이의산李義山의 시, "멀리 온 나그네, 긴 밤을 앉아 새우

네(遠客坐長夜)”라든가 하는 글귀는 본래는 모두 오언율시인데, 당음唐音에서 반을 잘라 절구絕句로 만들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당시唐詩에, “글은 북두北斗에 옮겨 천상天象을 이루고, 술은 남산南山에 미쳐서 헌수배獻壽杯가 되었다(文移北斗成天象 酒遞南山作壽杯)”라고 한 것을, 요사이 체遞라는 글자를 근近이라는 글자로 쓰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당시唐詩에, “다시 명월明月로 하여금 유황流黃에 비치게 한다(更教明月照流黃)”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이 유황流黃은 대자리(竹席)의 이름이다. 또 시에 말하기를, “유황색流黃色 비단을 짜는 베틀을 근심한다(愁思流黃機)”라고 한 것이 있다. 《설부》에, “누른빛의 간색間色을 유황이라고 하며, 고금의 시인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라고 했다.

교지지喬知之의 시에, “풀은 원앙전에 푸르고, 꽃은 비취루에 붉다(草綠鴛鴦殿 花紅翡翠樓)”라고 했다. 이백李白의 시에는, “남훈전에 물은 푸르고, 북궐루엔 꽃이 붉다(水綠南薰殿 花紅北闕樓)”라고 했다. 또, “옥루에 비취가 깃들이고, 금전에 원앙을 가두었구나(玉樓巢翡翠 金殿鎖鴛鴦)”라고도 했다. 아마 모두 교지지의 시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이적李適의 〈흥경지희경도응제시興慶池戲競渡應制詩(흥경지에서 경도할 때 임금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에 말하기를, “급히 달리는 배는 나는 듯 다투어 마름 풀을 헤치며 지나가고, 가벼운 돛은 포구浦口를 끊고 연꽃에 부딪치며 온다(急舸爭標排荇度 輕帆截浦觸荷來)”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제경공齊景公이 연주蓮舟(연꽃 따는 배)를 만들어 궁녀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빨리 달리기를 다투게 하니, 경도競渡라는 것이 이것이다. 또 형초荊楚의 풍속에는 굴원屈原이 단오일端午日에 멱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었으므로, 그날 배를 빨리 저어 가서 그를 건지는 시늉

을 한다고 한다.

이교李嶠의 시에, “하늘 술로 유화榴花(석류꽃)를 잔질한다[天酒酌榴花]”라고 했다. 또, “유화로 태화를 기른다[榴花養太和]”라고도 했다. 낙빈왕의 글에 말하기를, “조도祖道(송별의 술잔치)에 유화榴花를 띄운다[泛榴花于祖道]” 했다. 상고하여 보니, 유화는 술 빛을 말한 것이다. 《소설》에 “당나라 사람들은 붉은 술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교李嶠의 시에, “서북西北에 구름 살이 일어나고, 동남에는 빗발이 온다[西北雲膚起 東南雨足來]”라고 했다. 우족雨足이란 말은 우각雨脚(빗발)과 같은 것으로서 시인들이 많이 쓴다. 운부雲膚라는 말은 《공양전公羊傳》에 “태산의 구름이 부촌膚寸(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합한다[泰山之雲 膚寸而合]”라는 말이 있다. 혹은 이것을 인용한 것일까. 또 이백의 시에 말하기를, “햇발이 해변의 험준한 산에 빽빽하다[日足森海嶠]”라고 했다. 일족日足은 또한 일각日脚과 같다.

위원단韋元旦의 〈송금성공주적서번시送金城公主適西蕃詩(금성공주가 서번에 가는 것을 전송하는 시)〉에 말하기를, “나라의 명령으로 비단 수레를 전하네[國命錦車傳]”라고 했다. 이교李嶠의 시에는, “조서를 내려 비단 수레를 타게 하였네[絲言命錦輪]”라고 했고, 당원철唐遠悊의 시에는, “여구驪駒(송별의 노래)를 부르면서 비단 수레를 송별하네[驪駒送錦輪]”라고 했다. 《한서》〈서역전西域傳〉을 보니, “풍부인馮夫人의 이름은 요嫽이니, 한漢나라의 궁녀로서 오손공주烏孫公主의 시녀侍女가 되었다. 비단 수레에 타게 하고, 한漢나라의 부절符節을 갖고 가서 오랑캐와 화호和好를 맺고 돌아오게 했다”라고 했다. 여기 시의 뜻은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또 낭칠원郎七元의 〈송양중승화번시送楊中丞和蕃詩(양중승이 번국蕃國을 화순和順케 하러 감을 송별하는 시)〉에 말하기를, “비단 수레가 농隴에 올라가는 날에[錦車登隴日]”라고 했다. 아마 번국을 화순시키러 간다고 하여 비단 수레[錦車]라는

말을 인용한 것 같으나, 여기에 인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기모잠綦母潛의 시에, “탑의 그림자는 청한淸漢(은하수)에 걸렸고, 종소리는 흰 구름에 섞였다(塔影掛淸漢 鐘聲和白雲)”라고 한 것을 《문원영화文苑英華》에는, “종소리는 흰 구름을 두드린다(鐘聲扣白雲)”라고 했다. 왕기王沂가 ‘구扣’가 옳다고 했다. 나는 감히 그렇다고 믿지 못한다.

위승경韋承慶의 〈남중영안南中詠雁〉이라는 시에, “사람은 만 리 남쪽으로 가고, 삼춘의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가네. 어느 세월에 내 너와 함께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구나(萬里人南去 三春鴈北飛 不知何歲月 得與爾同歸)”라고 했다. 해설하는 이가 말하기를, “돌아가기를 생각하나 돌아갈 수 없으므로,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부러워한 것이다. 너(爾)라고 한 것은 기러기를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품휘唐詩品彙》에서 이것을, 아우(弟)를 이별한 시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30]

노선盧僎의 시에 말하기를, “옥玉을 안고 세 번 초楚나라에 조회朝會하고, 글을 품고 가서 열 번 진秦나라에 올렸건만, 해마다 해마다 낙양洛陽의 저자에서 꽃과 새가 돌아가는 사람을 조롱하네(抱玉三朝楚 懷書十上秦 年年洛陽陌 花鳥弄歸人)”라고 했다. 이것은 과거科擧에 낙제하고 돌아가니 꽃과 새와 조롱하는 바가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조롱한다는 농弄이란 글자 하나를 놓았을 뿐이고, 괴롭고 궁한 형상을 하지 않은 것이 취할 만하고 매우 뛰어나다. 다만 세 번 초나라에 조회했다고 한 조朝라는 글자를 놓은 것이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唐詩에, “봄바람에 한 곡조 〈두위낭杜韋娘〉을 부른다(春風一曲杜韋娘)”라고

30 안鴈은 형제를 의미하는 안항鴈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러기를 가리킨 것이다.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두위낭〉은 가곡歌曲의 이름이다.

곽원진郭元振의 시에, "바람은 대부나무〔大夫樹〕[31]에 불고, 이슬은 장군초將軍草에 내렸네〔風吹大夫樹 露下將軍草〕"라고 했다. 《본초本草》를 보니, 대황大黃을 장군將軍이라고 부른다. 지금의 풍속에서도 장군초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수라고 한 것은 아마 소나무를 가리킨 것 같다.

유희이劉希夷의 시에, "못에 비친 달은 가선歌扇(노래하는 사람)이 갖는 부채처럼 어여쁘고, 산의 구름은 춤추는 옷자락을 닮았네〔池月憐歌扇 山雲學舞衣〕"라고 했다. 저광의儲光義는 말하기를, "대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가선에 머물고, 연꽃 향기는 춤옷에 들어오네〔竹吹留歌扇 蓮香入舞衣〕"라고 했고, 이의산李義山은, "달 모양을 수놓아서 가선을 만들고, 구름 자락처럼 말라서 춤옷을 짓네〔鏤月爲歌扇 裁雲作舞衣〕"라고 했다. 또 음갱陰鏗의 시에는, "꾀꼬리는 가선歌扇 뒤에서 울고, 꽃은 춤추는 소매 앞에 떨어진다〔鶯啼歌扇後 花落舞衫前〕"라고 했고, 두보杜甫는 말하기를, "강은 가선歌扇 밑에서 맑고, 들은 춤옷 앞에 비었구나〔江淸歌扇底 野曠舞衣前〕"라고 했다. 이 여러 시의 시어들은 서로 습용하고 있으나, 우열이 있다.

진자앙陳子昻의 시에, "치효鴟鴞[32]의 시를 지어, 주공周公은 동국東國에서 슬퍼했고, 오자서伍子胥는 미록麋鹿(고라니와 사슴)이 고소대姑蘇臺에 놀 것을 울었다

31 소나무를 말함. 옛날 진시황이 태산泰山에 올라 돌을 세우고 제사한 뒤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바람과 비가 닥쳤으므로 큰 소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다. 그로 인하여 그 소나무를 오대부五大夫의 작위에 봉했다고 하는 고사에서 시작된 말.

32 《시경》〈빈풍豳風〉의 편명.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주공이 이 시를 지어 성왕에게 보냈다고 한다. 치효鴟鴞는 나쁜 새다.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을 성심껏 보필했으나, 그 동생 관숙管叔 · 채숙蔡叔이 이를 도리어 중상하면서 은殷의 왕자 무경武庚을 추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에 주공은 동정東征하기 2년에 반란을 평정하였으나 성왕은 아직도 의심을 풀지 않기 때문에 〈치효鴟鴞〉라는 시를 지어 자기의 심정을 호소한 것이라고 한다.

(鵾鶪悲東國 麋鹿泣姑蘇)"[33]라고 했다. 위 글귀는 주공이 동쪽에 있으면서 치효의 시를 지어 슬퍼한 것을 말한 것이고, 아래 글귀는 오자서가, "장차 고라니와 사슴이 고소대에서 놀게 될 것"이라고 울면서 간하였던 일을 말한 것이다. 만약 미록이 운다고 풀이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용종龍種이라는 말에는 두어 가지의 다른 뜻이 있다. 진자앙陳子昂의 시에, "용종이 남쪽 재에 나서 외로이 푸르게 울창하고 우뚝하네(龍種生南嶺 孤翠鬱亭亭)"라고 했다. 이것은 긴 대(脩竹)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두시杜詩에는 말하기를, "고제高帝의 자손은 모두 콧대가 높으니 용종은 스스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네(高帝子孫盡隆準 龍種自與常人殊)"라고 했다. 이것은 임금의 자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또 《북사北史》에, "토곡혼吐谷渾[34] 청해靑海 속에 작은 산이 있다. 빈마牝馬가 망아지를 낳았는데, 하루에 천 리를 가므로 용종이라고 불렀다"라고 했다. 두시에, "비로소 신룡은 따로 씨가 있는 것을 알겠다(始知神龍別有種)"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효성스러운 죽순竹筍이 제녀帝女의 가지를 뻗쳤다(孝笋能抽帝女枝)"라고 했다. 효순孝笋[35]이란 것은, 유신庾信의 제왕헌齊王憲의 비명碑銘

33 고라니와 사슴이 고소대姑蘇臺에서 놀 것을 생각하고 운다는 뜻이다.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월越나라를 쳐서 깨뜨리니, 월나라에서 서시西施라는 미인을 바쳤다. 오왕이 그를 위해 고소산姑蘇山에 대를 쌓으니 높이가 300길이나 되었다. 왕은 서시와 매일 그 위에서 술잔치를 열고 즐기니, 신하 오자서伍子胥가 간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신은 이제 고소대 위에 고라니와 사슴이 와서 노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슬퍼합니다"라고 했다 한다.

34 나라의 이름. 그들의 선조 토곡혼吐谷渾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돌욕혼'이라고도 읽는다. 음산陰山 방면에서 서쪽으로 이주하여 대체로 감숙성甘肅省 조수洮水 유역에서 청해성靑海省 방면에 근거를 두고 유목생활을 주로 하고 다소의 농경도 하던 종족.

35 중국 삼국시대에 오나라의 효자인 맹종孟宗이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이 먹고 싶다 하였을 때 대숲에 들어가 탄식하니 죽순이 땅에서 솟아올랐다고 한다. 그 죽순을 효성스러운 죽순이라는 뜻으로 효순孝笋이라고 한 것이다.

에, “효성스런 죽순이 뜰에 난다(孝笋生庭)”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고, 제녀지帝女枝라고 한 것은 아마 반죽斑竹[36]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

맹호연孟浩然의 시에, “중양일重陽日 오기를 기다려서 돌아와 국화菊花에 나아간다(待到重陽日 還來就菊花)”라고 한 것이 있다. 옛날 각본刻本에 취就라는 글자가 탈락되어서 어떤 이는 취醉 자를 쓰고, 어떤 이는 상賞 자를 쓰고, 범泛 자를 쓰기도 하고, 대對 자를 쓰기도 하였으나, 꼭 들어맞는 글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것으로 보아 취就라는 글자가 이 글귀에 뛰어나게 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영李郢의 시에, “고향에 향기로운 벼가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배로 돌아가서 농어와 친근해진다(聞說故園香稻熟 片帆歸去就鱸魚)”라고 하여, 취就를 쓴 것은 아마 이 시에서 따다 쓴 것일 것이다.

맹호연의 시에, “내일 아침 배가경拜家慶 때엔 모름지기 노래자老萊子의 옷[37]을 입어야겠다(明朝拜家慶 須着老萊衣)”라고 했다. 고증하여 보니,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들이 어버이와 이별했다가 다시 돌아와 뵙는 것을 배가경이라고 한다” 했다. 《운부韻府》에 말하기를, “가경家慶이란 말은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대체로 요사이 구경具慶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맹호연의 시에, “재주가 없어서 밝은 임금이 버리시네(不才明主棄)”라고 하니 명황明皇이 말하기를, “짐朕은 일찍이 경卿을 쓴 일도 없노라”라고 했다. 이백李白

36 줄기의 표면에 자갈색紫褐色 등의 반점이 있는 대나무. 상비죽湘妃竹이라고도 한다. 옛날 중국의 순舜임금이 남쪽을 순시하다가 창오蒼梧의 들에서 죽으니, 그의 두 비妃가 뒤를 좇아 상수湘水에 이르러 눈물을 대나무에 뿌렸더니 반문斑紋이 생겼다고 한다. 여기에서 제녀지帝女枝라고 한 것은 순임금의 두 비는 요임금의 딸이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37 노래자老萊子는 초楚나라 사람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나이가 70세나 되었건만, 오색이 찬란한 채색한 옷을 입고 어린아이들의 유희를 하여 어버이를 기쁘게 했다고 한다.

이 맹호연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홍안소년으로 헌면軒冕(존귀한 벼슬)을 버리고(紅顔棄軒冕)"라고 했다. 맹호연은 본래 벼슬한 일이 없고, 일찍이 벼슬을 버리고 물러와 숨은 일도 없는데, 버렸다는 기棄 자를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왕유王維의 시에, "약간 흐리더니 누각에 가는 비 뿌리는데, 깊은 사원寺院의 문을 낮에 게을리 여네. 앉아서 푸른 이끼 빛을 보노라면, 어느덧 그 빛이 사람의 옷에 옮겨오려 하네(輕陰閣小雨 深院晝慵開 坐看靑苔色 欲上人衣來)"라고 했다. 또, "사람의 집이 선장仙掌(화산華山의 두 봉우리가 마주 선 곳)에 있으니, 구름 기운이 옷에서 일어나려 하네(人家在仙掌 雲氣欲生衣)"라고 했다. 맹호연의 시에, "조각구름은 하한河漢(황하黃河와 한수漢水)에 맑고, 성긴 비는 오동에 방울진다(微雲淡河漢 疏雨滴梧桐)"라고 했다.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런데 본집本集에 실리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맹호연의 시는 읽는 데 염담恬淡(마음이 편안하고 담백함)함을 주로 하고 있으나, 왕유의, "구름 기운이 옷에서 일어난다"라고 한 글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름을 헤치고 훨훨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왕유의 시에, "은낭과 사모(깁으로 만든 모자. 옛날 군주나 귀현貴顯한 이가 썼음)로 앉아서 바둑을 둔다(隱囊紗帽坐彈碁)"라고 했다. 《패사稗史》를 보니, "진晉나라 이후로 청담淸談[38]을 숭상하여 진미麈尾 · 은낭隱囊의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안씨가훈顔氏家訓》에 말하기를, "양梁나라 때에 귀족의 노는 자제들이 모난 요에 앉아서 반사은낭斑絲隱囊에 기대었다(坐方褥 憑斑絲隱囊)" 했고, 양신楊愼은 말하기를, "육조六朝 때의 사람들은

38 고상高尙한 담론. 육조 시대에 유행한 자연주의적 사상가의 일파로서 노장老莊의 사상을 조술하여 유교儒敎를 경시하고 도의道義를 무시하며, 감정이 갈리는 대로 맡겨 유유자적하면서, 세상의 일과 속된 것을 떠나서 청정淸正하고 고상하나, 공리공론을 담론한 것을 세상에서 청담파淸談派라고 했다. 완적阮籍 · 혜강嵇康 · 산도山濤 · 왕융王戎 · 향수向秀 · 유영劉伶 · 완함阮咸의 이른바 죽림칠현竹林七賢이 그 대표적 존재였다.

은낭을 만들었는데, 부드럽고 폭신하여 기댈 만했다”라고 했다. 왕세정이 말하기를, “옛날에 은隱이란 글자를 온穩(편안하다)으로 썼다. 그러니 은낭隱囊이란 것은 온낭穩囊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했다.

왕유王維의 시 〈노장행老將行〉에, “위청衛靑(한대韓代의 무장武將)이 패하지 않은 것은 천행이었다〔衛靑不敗由天幸〕”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사기史記》에 “군사軍事에도 또한 천행天幸이 있어서 아직 일찍이 곤절困絕(아무 것도 없어서 아주 곤경에 빠짐)함이 없었다”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곽거병霍去病[39]의 고사이다. 그런데 지금 왕유가 위청이라고 한 것은 아마 잘못일 것이다. 또, “월越나라의 병기로 하여금 우리 임금 앞에서 울게 한 것을 부끄러워한다〔恥令越甲鳴吾君〕”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설원說苑》에, “월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 제齊나라에 이르니, 옹문적雍門狄이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임금이 금원禁苑에서 사냥할 때에, 왼쪽 수레바퀴가 우니 거우車右가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수레바퀴가 우리 임금 앞에서 우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월나라의 군대가 이르렀으니, 그것이 우리 임금 앞에서 우는 것이 어찌 수레의 왼쪽 바퀴가 우는 것보다 덜하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하였다. 아마 이것을 인용했을 것이다.

왕유의 〈사백관앵두시賜百官櫻桃詩〉에 말하기를, “포식하더라도 모름지기 뱃속에 열이 생김을 근심할 것은 없다. 태관太官[40]에게 도리어 사탕수수에서 짜낸 차가운 즙액이 있으니〔飽食不須愁內熱 太官還有蔗漿寒〕”라고 했다. 《본초本草》를 보니, “앵두는 먹으면 사람을 열熱하게 한다”라고 했다. 이 시가 그것을 말

39 한漢나라 평양平陽 사람. 곽광霍光의 형이고, 위청衛靑의 맏누이의 아들이다. 무제武帝 때에 흉노를 토벌하여 많은 군공을 세워, 관군후冠軍侯에 봉작되고, 벼슬은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에 이르렀다.

40 벼슬 이름. 진秦나라에서 처음 설치했고, 한漢나라가 계승했다. 소부小府의 소속으로서 궁중宮中의 식사를 맡는다.

한 것이다.

왕유의 〈금설천金屑泉〉이란 시에 말하기를, "날마다 금설천을 마시니 젊음이 마땅히 천년을 넘으리라. 취봉翠鳳의 깃발은 문리文螭(문채 있는 뿔 없는 용)가 호위하고, 우절羽節(날개로 꾸민 부절符節)은 옥황상제에게 조현朝見한다〔日飮金屑泉 少當千餘歲 翠鳳翊文螭 羽節朝玉帝〕"라고 했다. 아마 왕유는 망천輞川에 있으면서 날마다 이 샘물을 마셨을 것이다. 그런데 천여 살을 살지도 못하였으며, 또 옥황상제에게 조현하지 못하고, 안록산安祿山에게 조현하여 거짓 벼슬을 받고 겨우 죽음을 면하는 것으로 마쳤으니, 그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

왕유의 시에, "나그네 되어서 황금은 모두 써 버리고 돌아오니 백발만 새롭구나〔爲客黃金盡 還家白髮新〕"라고 했다. 송나라의 당자서唐子西는 말하기를, "땔나무와 쌀 때문에 황금은 모두 없어지고, 풍진 세상 탓으로 백발만 새롭구나〔桂玉黃金盡 風塵白髮新〕"라고 했다. 고려의 정포은鄭圃隱(정몽주)이 이것을 모방하여 말하기를, "유세하느라고 황금은 모두 없어지고, 돌아가기를 생각하니 백발만 나는구나〔遊說黃金盡 思歸白髮生〕"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의 시는 왕유의 시의 맛이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열의 차이인 것이다.

왕유의 시에, "칼을 뽑아 이미 천교天驕[41]의 팔을 베고, 돌아오는 안장 위에서는 함께 월지月支[42]의 두개골로 술을 마신다〔拔劍已斷天驕臂 歸鞍共飮月支頭〕"라고 했다. 산곡山谷이 이것을 습용하여, "장막 속에서는 이미 흉노의 팔을 베고, 군대의 앞에 다시 월지月支의 두개골로 술을 마신다〔幄中已斷匈奴臂 軍前更飮月支頭〕"라고 했다. 악중幄中과 군전軍前이라는 네 글자만을 바꿨으나 우열이 스스

41 흉노匈奴를 일컫는 말. 천교天驕라는 말의 뜻은 하늘이 그의 모질고 교만한 것을 용허한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42 옛날 서역의 나라 이름. 월씨月氏라고도 한다.

로 판이하다. 산곡의 시에 또, “돌아오는 안장에 월지를 달았다(歸鞍懸月支)”라고 한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았다.

왕유의 시에, “붉은 비단 수건을 머리에 쓴 계인鷄人이 새벽 시각을 보고하네(絳幘鷄人[43]報曉籌[44])”라고 했다. 《주례周禮》를 상고하여 보니, “계인은 밤 시각을 부르고 아침 시각을 부르짖는 일을 맡는다”라고 했다.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계인은 사람에게 날 밝는 때를 고하는 자이니, 닭에서 형상을 취했다”라고 했다. 또 왕수王洙가 말하기를, “붉은 비단 수건을 머리에 쓴 계인(絳幘鷄人)이라고 한 것은, 붉은 갓을 쓰고 닭을 상형象形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의산李義山의 시에 “다시는 계인이 새벽 시각을 알리는 이 없다(無復鷄人報曉籌)”라고 한 것은 왕유의 시를 그대로 습용한 것이다.

왕유의 〈칠원시漆園詩〉에 말하기를, “옛사람이 오만한 아전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다스릴 역량이 없었던 것이다. 우연히 한 작은 벼슬에 붙었으므로 두어 나뭇가지가 춤추듯 서성거렸을 뿐이다(昔人非傲吏 自闕經世務 偶寄一微官 婆娑數枝樹)”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장주莊周가 칠위漆園의 관리가 된 일이 있다. 시詩의 뜻은 아마, 장주는 오만하게 세상을 가벼이 여긴 사람이 아니고, 본래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재능이 없었는데, 우연히 작은 벼슬자리에 종사하게 되어 칠원漆園 가운데에서 소요逍遙했다고 말한 것 같다.

왕유의 최구崔九를 송별하는 시에, “산중에 계수나무 꽃이 있으니, 꽃이 싸락눈 같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돌아오시구려(山中有桂花 莫待花如霰)”라고 했다. 시의 뜻은 대체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

43 주周나라의 벼슬 이름. 춘관春官에 속한다. 궁중을 호위하고 제사祭祀가 있는 밤에는 새벽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44 새벽의 시간. 주籌는 시간을 셈하는 데에 쓰는 산算가지를 의미한다.

다는 것이다. 동지同知 윤휘尹暉가 중국 서울에 갔을 때, 9월에 계수나무 꽃이 한창 핀 것을 보았는데, 꽃의 작기가 싸락눈 같았다고 한다. 이 시에서 꽃이 싸락눈 같다고 말한 것은 이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산자寒山子의 시에, 날아다니는 꽃잎이 싸락눈처럼 나부낀다〔飛花飄似霰〕라고 하였으니, 이 시는 바로 꽃이 떨어질 때를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의감醫鑑》을 보니, "계수나무는 3, 4월에 꽃이 핀다"라고 했다. 왕유의 시에, "인간에 계수나무 꽃이 떨어지는데, 밤은 고요하고 봄 산은 비었네〔人間桂花落 夜靜春山空〕"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양승암집楊升庵集》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춘화추영春華秋英에 말하기를, '계수나무로서 가을에 꽃이 피는 것은 곧 암계巖桂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왕유의 〈문춘계시問春桂詩(봄 계수나무에게 묻는 시)〉에 말하기를, "봄빛이 도처에 가득한데 어째서 홀로 꽃이 없는가〔年光隨處滿 何事獨無花〕"라고 했고, 구단丘丹의 시에는, "가을바람에 계수나무 꽃이 핀다〔秋風桂花發〕"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윤 공이 본 것은 아마 암계巖桂라는 것이었던가 보다.

왕유의 〈노장행老將行〉에 말하기를, "오늘 수양垂楊(수양버들)이 왼쪽 팔뚝에 났다〔今日垂楊生左肘〕"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장자》에, 지리숙支離叔이 명백의 언덕〔冥伯之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팔뚝에 유柳가 났다〔俄而柳生其左肘〕라고 했다. 이 시는 아마 그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다만 《장자구의莊子口義》에 말하기를, "유柳는 유瘤(군살로 생겨난 혹)이다"라고 했다. 이제 왕유가 유柳를 수양垂楊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근세에 홍지성洪志誠은, 이 왼팔에 유柳가 났다고 한 것을 풀이하여 말하기를, "왼팔을 거두지 못함은 드리운 버들가지처럼 힘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마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 것이니, 가소로운 일이다.

왕유의 시에 말하기를, "상의尙衣가 바야흐로 취운구翠雲裘(푸른 구름의 모양을 수

놓은 갖옷)를 드린다(尙衣方獻翠雲裘)"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월령月令에, "첫 겨울에 천자天子가 처음으로 갖옷을 입는다"라고 하였는데, 주에 "《주례周禮》에, 끝 가을에 공구功裘(주나라 때에 경대부卿大夫들이 입던 가죽옷)를 바치고, 이 달에 이르러 비로소 입는다"라고 했다. 가지賈至의 여러 작품을 보면 모두 봄철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시는 잘못된 것이다.
취운구라는 말은 본래 송옥宋玉의 부賦에서 나온 것이다. 상의尙衣는 궁중에 있는 여관女官의 명칭이다. 이달李達의 〈궁사宮詞〉에 말하기를, "궁녀가 상의를 바치라고 재촉해 부른다(宮女催呼進尙衣)"라고 하였으니 상의를 옷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이며 가소로운 일이다.

왕유의 〈유감화사시遊感化寺詩〉에 말하기를, "안왕雁王은 과일을 물고 와 바치고, 녹녀鹿女는 꽃을 밟으며 간다(雁王啣果獻鹿女蹈花行)"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불경佛經에 "500의 기러기가 떼를 지으니 안왕이 포수가 되어 잡았다……" 했고, 《서역기西域記》에는, "미록麋鹿(사슴)이 감응하여 여자를 낳으니, 그 여자가 밟은 자국에는 모두 연꽃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천축天竺(중국에서 말하는 인도印度의 고칭古稱)의 사문沙門(출가하여 수도修道하는 사람) 지가智伽에게 뭇 새가 과일을 물고와 던져준 일이 있다고 한다. 대체로 절의 이름이 '감화感化'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응에 관계된 고사들을 인용한 것이다.

왕창령王昌齡의 〈유방장사시遊方丈寺詩〉에 말하기를, "향기로운 배자褙子(소매 없는 옷)로 도휴稻畦를 만들었다(香帔稻畦成)"라고 했다. 또 왕유의 〈간반승시看飯僧詩(중들에게 음식 대접 하는 것을 보고 지은 시)〉에는 말하기를, "옷을 말라서 수전水田을 배운다(裁衣學水田)" 하였는데, 《양승암집楊升庵集》에 말하기를, "도휴피稻畦帔와 수전의水田衣는 모두 가사袈裟 이름이다"라고 했다.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왕창령의 〈춘궁시春宮詩〉에 말하기를, “어젯밤 바람에 노정露井(지붕 없는 우물)에 복숭아꽃 피었는데, 미앙궁未央宮 앞 궁전에 달이 높이 떠 있네. 평양平陽의 노래와 춤으로 새로 총애를 입었는데, 주렴 밖에 봄이 차가우니 금포錦袍(비단 도포)를 내리네(昨夜風開露井桃 未央前殿月輪高 平陽歌舞新承寵 簾外春寒賜錦袍)”라고 했다. 그 시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궁중의 밤잔치가, 주렴에 달이 높이 솟아 보일 때까지 이르렀는데, 가무歌舞로 총애를 얻은 자에게 금포를 하사한다고 한 것이다.

왕창령의 〈서궁춘원시西宮春怨詩(서궁에서 봄을 원망하는 시)〉에 말하기를, “운화雲和를 비껴 안고 깊은 곳에서 달을 보니, 농롱朧朧(흐릿한)한 나무 빛이 소양궁昭陽宮을 가렸네(斜抱雲和深見月 朧朧樹色隱昭陽)”라고 했다. 《당시해唐詩解》에 말하기를, “반첩여班婕妤[45]가 장신궁長信宮에 있었는데, 그 궁이 서쪽에 있었으므로 서궁西宮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내가 고찰하여 보니, 《한서漢書》에 “장추長秋는 황후궁皇后宮의 이름이다. 서쪽에 있는 것은 가을을 상징한 것이다”라고 했다. 조비연趙飛燕[46]이 황후가 되었다가 총애를 잃었는데 그의 집이 소양궁昭陽宮에 있었다. 이것을 서궁西宮이라고 했다. 조비연을 가리킨 것이고 반첩여는 아니다.

《주례》의 “운화雲和의 거문고와 비파”에 대한 주에, “운화는 땅 이름이니, 금슬琴瑟의 좋은 재목을 생산한다”라고 했다. 비연飛燕이 거문고를 잘 탔기 때문에 운화에서 생산된 거문고라고 한 것이다. 깊이 달을 본다(深見月)고 한 것은 궁전 깊숙한 곳에서 달을 본다는 뜻으로서, 역시 원망하는 말인 것이다.

45 첩여婕妤는 한漢나라 때 여관女官의 명칭. 아름답고 좋다는 뜻이라고 한다. 반황班況의 딸로, 현명하고 시가詩歌를 잘하여 성제成帝에게 총애를 받았으나, 뒤에 조비연趙飛燕에게 참소되어 물러나와 장신궁長信宮에서 태후太后를 모시고 있었다.

46 한漢나라 성양후成陽侯 임臨의 딸이다. 처음 춤을 배우는데 몸이 가볍기가 제비 같았으므로 비연이라 했다고 한다. 성제成帝 때에 궁중에 들어가 은총을 독점하였는데, 성제가 후사後嗣 없이 갑자기 죽고 애제哀帝도 죽은 뒤에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강등하매 자살했다.

왕창령의 시에, "오희吳姬(오나라의 미인)가 춤을 늦추어 그대를 머물러 취하게 만드노니, 마음껏 푸른 신나무에 흰 이슬이 차가운 운치나 즐겨보세(吳姬緩舞留君醉 隨意靑楓白露寒)"라고 하였는데, 왕세정이 말하기를, "이 시에 늦춘다(緩)는 글자는 수의隨意라는 말과 서로 호응한다. 이 구안句眼(시에는 한 글자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 그 글귀의 눈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글자)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했다.

왕창령의 〈채련곡采蓮曲(연 캐는 노래)〉에 말하기를, "오나라 여인도, 월나라 미인도, 초나라 왕비도 다투어 연꽃을 구경하노라니, 물에 옷이 젖네(吳姬越艶楚王妃 爭弄蓮花水濕衣)"라고 했다. 대체로 연꽃을 구경하는 놀이가 이 세 나라에서 성하였으므로 통틀어 말한 것이다. 월염越艶(월나라 미인)이라고 한 염艶은 오유吳歈(오나라의 노래), 초염楚艶(초나라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의 염艶과는 그 뜻이 같지 않다.

당시唐詩에, "그윽한 사잇길에 심을 뽑아버렸던 풀이 다시 나네(幽徑還生拔心草)"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권시초卷施草라는 풀은 심을 뽑아버려도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권시초의 시施는 '시葹'로 쓰기도 한다. 이백李白의 시에 말하기를, "그대에게 권시초를 보냈는데, 마음이 끊어지면 마침내 무엇을 말하겠는가(贈君卷施草 心斷竟何言)"라고 했다. 주에 말하기를, "《이소離騷》에서는, 자薋·녹菉·시葹[47]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한 시葹가 그것이니, 《시경》에 말한 소위 권이卷耳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백의 〈심옹존사은거尋雍尊師隱居〉 시에 말하기를, "꽃이 따뜻하니 푸른 소가 누웠고, 소나무가 높으니 흰 학이 잠자네(花暖靑牛臥 松高白鶴眠)"라고 했다. 주에, "푸른 소(靑牛)라 한 것은 꽃잎 위에 있는 푸른 벌레다. 두 뿔이 있어서 와

47 모두 풀이름. 자薋는 남가새, 녹菉은 녹두, 시葹는 권이卷耳, 즉 권시초卷施草라고도 하는데 씀바귀다.

우蝸牛(달팽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여기에서 푸른 소라고 한 것은 아마 노자의 고사故事(노자는 푸른 소를 타고 다녔음)를 인용하여, 존사尊師가 숨어 살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청우靑牛가 한가하게 누웠다고 말한 것이다. 주설註說에 푸른 벌레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우곡于鵠이 왕존사王尊師에게 준 시에, "푸른 소는 나무 그늘에 잠자고, 흰 개는 원숭이 소리로 짖는다〔靑牛眠樹影 白犬吠猿聲〕"라고 한 것도 또한 이러한 뜻이다.

이백의 시에, "북락北落 밝은 별이 광채를 움직인다〔北落明星動光彩〕"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마사馬史》에, "북락은 군사軍事를 맡은 한 별이니, 우림성羽林星의 서쪽에 있다. 이 별이 밝으면 군사가 편안하고, 빛이 약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금성金星 · 화성火星이 지키는 자리에 병兵의 징조가 나타나면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한다"라고 했다. 《사문옥설事文玉屑》에 말하기를, "북락은 벽루성壁壘星이다"라고 했다.

이백의 시에, "비록 의협한 해골로 하여금 향기롭게 될지언정 세상의 영준英俊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縱使俠骨香 不慙世上英〕"라고 한 사使는 사死 자가 아닌지 의심된다. 장화張華의 시를 보니, "죽어서 의협스런 해골의 향기를 맡는다〔死聞俠骨香〕"라고 하였는데, 아마 이 시를 인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왕유王維의 시詩에도 또한 말하기를, "비록 죽더라도 오히려 의협스런 뼈의 향기로움을 맡을 것이다〔縱死猶聞俠骨香〕"라고 했다.

이백의 시에, "목란木蘭의 돛대에 사당沙棠의 배〔木蘭之枻沙棠舟〕"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옛 글에 말하기를, "노반魯班(춘추시대, 노나라의 뛰어난 기술자 반班)이 목란木蘭(나무 이름)으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또 "한성제漢成帝가 비연飛燕과 함께 태액지太液池에서 희롱할 때 사당沙棠으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소설》에 말하기를, "사당은 나무 이름이니 곤륜崑崙에 있다. 누른 꽃이 피고

붉은 열매가 열며, 배를 만들면 가라앉지 않고, 그 열매를 먹으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백의 〈별동림사승시別東林寺僧詩〉에 말하기를, "웃으며 여산의 원遠을 이별하노니, 어찌 번거롭게 호계虎溪를 지나랴(笑別廬山遠 何煩過虎溪)"라고 했다. 원遠은 여산廬山의 중 혜원惠遠을 가리킨 말이다. 호계삼소虎溪三笑[48]의 고사를 인용하여 재치 있게 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혹 멀고 가깝다는 원遠으로 보는 이가 있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백의 〈곡조경哭晁卿〉의 시에, "일본의 조경晁卿이 제도帝都를 하직하고, 구름 속 한 조각 돛으로 봉호蓬壺[49]로 돌아갔네. 밝은 달이 돌아가지 못하고 푸른 바다에 잠기니, 흰 구름 근심하는 빛이 창오蒼梧에 가득하네(日本晁卿辭帝都 雲帆一片遶蓬壺 明月不歸沈碧海 白雲愁色滿蒼梧)"라고 했다. 이 시를 자세히 음미하여 보니, "밝은 달이 돌아가지 못하고 푸른 바다에 잠겼다"라고 하였으니, 아마 조경晁卿이 바다에 빠져 죽고 돌아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찰하여 보니, 조경은 즉 조신朝臣이다. 《당서唐書》에, "장안원년長安元年에 일본이 조신을 보내어 방물方物(토산물)을 바쳤는데, 조신이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지을 줄 알았다. 여러 선비들과 종유從遊하여 경서經書 배우기를 청하므로, 사선원외랑司膳員外郞으로 임명했다"라고 했다.
왕유王維에게도 또한, "〈송조감환일본送晁監還日本〉이라는 율시律詩와 서序가 있다. 아마 벼슬이 경卿·감監이 되었으므로 조경晁卿이니 조감晁監이니 한 것

48 진晉나라의 혜원법사慧遠法師는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 살면서 일찍이 호계虎溪를 건너간 일이 없었더니, 하루는 모처럼 찾아온 도연명陶淵明·육수정陸修靜을 송별하느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호계를 건넜다. 범의 우는 소리를 듣고, 안거금족安居禁足의 맹세를 깨뜨린 일을 깨달아 세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웃었다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말.

49 봉래산蓬萊山을 일컫는 말. 바닷속의 신선이 산다고 하는 세 선산仙山 중의 하나. 산 모양이 병처럼 생겼다고 하여 병이라는 글자인 호壺를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다.

이백의 〈오야제시烏夜啼詩〉에 말하기를, “베틀 위에서 비단 짜는 진천秦川의 여인, 푸른 비단은 연기 같은데 창문을 사이하고 까마귀와 말하네. 북(梭)[50]을 멈추고 슬픈 모습으로 멀리 가신 님 생각하고, 홀로 빈 방을 지키려니 눈물이 비오듯 하네(機中織錦秦川女 碧紗如烟隔窓語 停梭悵然憶遠人 獨宿空房淚如雨)”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성 위에 까마귀 홀로 자다가 밤이면 공연히 우노매라(城烏獨宿夜空啼)”라고 했다. 고서古書를 보니, “까마귀가 자웅雌雄을 잃으면 밤에 운다”라고 했다. 이 시의 뜻은 아마 이것을 쓴 것일 것이다.

이백의 시에, “천자天子께서 9 · 9, 즉 81만 세歲를 수壽하시어 해마다 길이 만수배萬壽杯 기울이소서(天子九九八十一萬歲 歲歲長傾萬壽杯)”라고 한 글귀가 있다. 상고하여 보니, 《혼원성기混元聖紀》에 말하기를, “태상太上은 생후生後 81만 세歲에 1기氣를 낳는다”라고 했다. 이 시의 용어는 거기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에 말하기를, “아미산 가을 달은 반달인데, 달빛이 평강강에 들어가 물과 함께 흐르네. 밤에 청계를 출발하여 삼협三峽으로 향하노니, 그대를 생각하나 보지 못하고 유주로 내려가네(峨眉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 夜發淸溪向三峽 思君不見下渝州)”라고 했다. 당여순唐汝詢이 말하기를, “그대라고 한 것은 달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삼협三峽의 사이는 하늘이 좁기가 선線과 같아서 반 조각 달도 또한 다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유주渝州에 내려가서 찾아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나는 말한다. 이 시는 고금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으로서, 아미산峨眉山 · 평강강平羌江 · 청계淸溪 · 삼협三峽 · 유주 등 땅 이름을 중첩해 사용하고 있다. 만약 후인後人이 이렇게 썼다면 어찌 흠으로 지적되지 않겠는가.

50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이백의 시에, "날마다 동산東山에 나아가 달빛을 세내어서, 온 밤을 취하고 노래 불러서 천명泉明처럼 보내네(日就東山賒月色 酣歌一夜送泉明)"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천명은 즉 연명淵明이다. 당나라 사람들은 고조高祖의 휘諱를 피하여 연淵을 천泉으로 고쳐 썼다. 한굉韓翃의 시에, "들으니 천명이 거처하는 곳이 가깝다기에, 남여籃輿[51]를 타고 찾아가서 모여 오래 머물러 체류滯留하네(聞道泉明居止近 籃輿相訪會淹留)"라고 한 것도 또한 그것이다.

이백의 시에, "어떻게 밝은 달을 타고, 꽃을 보며 술 실은 배에 오를꼬(耐可乘明月 看花上酒船)"라고 했고, 또, "어떻게 흐르는 물을 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갈꼬(耐可乘流直上天)"라고도 했다. 내가耐可라는 말은 《운부韻府》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如何可也)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내耐라는 글자가 옛날에는 능能자와 통용했다. 특히 가능可能하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백의 시에, "독작도영석獨酌陶永夕"이란 글귀가 있다. 주註에 "《이아爾雅》에 도陶는 희喜(즐겨 한다)의 뜻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홀로 잔질하여 긴 저녁을 즐긴다고 한 것이다. 도잠陶潛의 시에 말하기를, "탁주濁酒로 또한 스스로 즐긴다(濁酒且自陶)" 했고, 사혜련謝惠連의 시에, "배를 출렁거려서 아름다운 달을 즐긴다(漾舟陶嘉月)"라고 하였으며, 《선문選文》에는, "윤반尹班이 긴 밤을 화락하게 즐겼다(尹班陶陶於永夕)"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하였을 것이다.

이백의 시에, "거문고를 안고 깊은 대밭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곤계鵾鷄를 타네(抱琴出深竹 爲我彈鵾鷄)"라고 했다. 주에 "〈곤계〉는 가곡歌曲의 이름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상고하여 보니, 비파의 줄은 곤계의 힘줄을 시용한다. 유신庾信의 시에, "한 곡조 곤계의 줄(一曲鵾鷄絃)"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촉도부蜀道

51 대나무를 결어서 만든, 뚜껑이 없고 의자같이 생긴 가마. 주로 산길에 쓰이는 것.

賦〉에 말하기를 "파희巴姬가 줄을 퉁긴다[巴姬彈絃]" 했고, 이백李白의 시에도 또한 "현絃을 타고 황금 술잔에 취한다[彈絃醉金罍]"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면 "탄곤계彈鵾鷄"라고 한 것은 바로 비파의 줄을 타는 것이고, 곡명曲名은 아니다.

이백의 시에, "비는 떨어지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물은 엎지르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雨落不上天水覆難再收]"라고 했다. 주註에서 진림격陳琳檄이 말하기를, "비가 하늘에서 끊어진 것이다[雨絕于天]"라고 했다. 왕찬王粲의 시에는 말하기를, "한 번 이별한 것이 비와 같다[一別如雨]"라고 했다. 비가 한 번 내리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독고급獨孤及의 시에는, "세월이 천연遷延하여 비와 같은 이별을 이루었다[荏苒成雨別]"라고 했다. 또한 같은 뜻이다.

이백의 악부樂府에 말하기를, "숙상鷫鸘의 털로 만든 갖옷으로 좋은 술을 바꾸고, 춤옷으로 조룡雕龍이 피로하다[鷫鸘換美酒 舞衣罷雕龍]"라고 했다. 주에 "조룡은 춤옷 위에 수놓은 용의 문채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시의 압운押韻은 동東이다. 같은 운이 아닌 용龍 자를 압운으로 통용하지 않았을 것이니, 주註의 설명은 너무 곡해하고 있다. 용龍 자는 농櫳으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백의 시에, "동풍東風은 일본에서 오고, 흰 꿩은 월상씨越裳氏가 가져왔다[東風日本至 白雉越裳來]"라고 했다. 《십주기十洲記》를 고열考閱하니, "한무제漢武帝 때에 월씨月氏의 사자가 말하기를, '신臣의 나라는 여기에서 30만 리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라에는 항상 동풍이 화하게 부는 것을 점유하여 100순旬에 쉬지 않습니다……'라고 운운했다"라고 했다. 《삼재도회三才圖會》[52]에 "일본국은 동북으로 모인국毛人國의 경계에 이르고, 동남으로 여국女國의 경계에 이르

52 책 이름. 명나라 왕기王圻가 찬撰한 것이다. 그 종목種目은 천문天文 · 지리地理 · 인물人物 · 시령時令 · 궁실宮室 · 기용器用 · 신체 · 의복 · 인사의제人事儀制 · 진보珍寶 · 문사文史 · 조수鳥獸 · 초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림을 그려 설명했다. 모두 106권.

며, 남쪽으로 유구국琉球國의 경계에 이르고, 서남으로 복건福建의 경계에 이르며, 서북으로 조선 국경에 이르고 북으로 월지국月氏國의 경계에 이른다"라고 했다. 월지는 아마 동북방에 있는 나라인 것 같다. 다만 《한서漢書》에는 "흉노匈奴가 월지왕月氏王을 깨뜨렸다" 했고, 또, "장건張騫이 월지에 사신으로 갔다"라고 하였는데, 《통전通典》에는 말하기를, "대월지국大月氏國[53]은 대완大宛의 서쪽에 있다. 또 소월지국小月氏國이 있으니, 모두 서역의 나라 이름이다"라고 하여 이것과는 아마 같지 않은 것 같다. 월지月氏를 혹은 '월지月支'로 쓰기도 한다.

이백의 시에, "누구 집 옥피리 가만히 소리를 날리는가. 흩어져 봄바람 타고 낙성洛城에 가득하네(誰家玉笛暗飛聲 散入春風滿洛城)"라고 한 글귀가 있다. 당여순唐汝詢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듣기 때문에 '가만히'라고 한 것이고, 낙성에 가득하다고 한 것은 그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여순은 명나라 사람이니, 5살 때에 소경이 되었으나 기억력이 강해서 《당시해唐詩解》를 지었다. 그가,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듣는다"라고 한 것은 진정 스스로 경험해 얻은 말일 것이다.

이백의 〈청평조淸平調〉에 말하기를, "구름은 의상衣裳을 생각케 하고, 꽃은 얼굴을 생각케 하네. 봄바람 헌함에 부는데 이슬 빛도 고와라. 만약 군옥群玉의 산머리에서 보지 못한다면, 꼭 요대瑤臺의 달 아래서 만나리(雲想衣裳花想容 春風拂檻露華濃 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라고 했다. 《당시해唐詩解》를 보니 말하였기를, "명황明皇이 무비武妃가 죽은 뒤에 구름을 보고는 그의 의상衣裳을 생각하고, 꽃을 보고는 그의 얼굴을 생각했다. 봄바람에 이슬 떨어지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정을 이기지 못한다. 만약 이 여자가 군옥산群玉山(신선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산)의 왕모王母가 아니면 곧 요대瑤臺(선인仙人이 살고 있다는 곳. 선궁仙

53 중국의 전국시대에서 한대에 걸쳐 중앙아시아에서 활약하던 터키계 민족이 세운 나라.

宮)의 일비佚妃(아름다운 여자)일 것이다. 어찌 인간에게서 쉽게 볼 수 있으랴. 아직 태진太眞을 얻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것은 곧 귀비貴妃를 아름답게 칭찬한 말이다. 생각한다고 한 것은 그와 닮았음을 의심하는 말이다. 귀비의 의상은 구름 같고, 얼굴은 꽃 같은데, 봄 이슬이 한창 곱게 빛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아래 글귀는 여러 선녀에 비하여 인간 세상에 있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백의 〈청평조〉에 말하기를, "꽃 한 가지 무르익게 곱고, 이슬은 향기에 어렸구나. 무산巫山의 운우몽雲雨夢[54]은 부질없이 애만 타게 하였네. 또 묻노니 한漢나라 궁중에서 누가 귀비와 같을 수 있을까. 조비연趙飛燕은 새 단장에만 의지한 것이 가엾구나(一枝濃艶露凝香 雲雨巫山枉斷腸 借問漢宮誰得似 可憐飛燕倚新粧)"라고 했다. 당여순唐汝詢이 말하기를, "귀비貴妃는 얼굴빛이 꽃과 같다. 초양왕楚襄王의 무산운우몽巫山雲雨夢은 한갓 부질없는 수고로움일 뿐인 것을 알겠다"고 한 것이다. 부질없이 애태운다고 한 것을 어떤 이가 수왕壽王(명황明皇의 아들, 양귀비의 첫 남편)에게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이백의 본뜻이 아닐 것이다. 또 《패설稗說》에 말하기를 "의신장倚新粧이라고 한 의倚는 뇌賴(힘입다)와 같은 뜻이니 조후趙后 비연飛燕이 한궁漢宮의 은총을 독차지한 것은 다만 연지분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의倚라고 한 것은 시恃(믿는다)와 같은 뜻이다. 고시古詩에서 장군의 세력을 의지해 믿고(依倚將軍勢)라고 한 의倚와 같은 것으로서, 그가 화장의 힘만 믿고 스스로 잘난 체한다는 뜻이다. 이백의 시에 말하기를 "스스로 낯이 꽃 같음을 믿는다(自倚顔如花)"라고 한 것도

54 남녀의 교정交情을 말함. 옛날 초楚나라 임금이 고당高唐에 유람하다가 낮잠을 자니, 꿈에 한 부인이 말하기를, "첩妾은 무산巫山의 여인입니다. 고당의 손이 되었더니, 그대가 고당에 유람한다는 말을 듣고 동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서로 교정한 뒤에 여자가 하직하며 하는 말이 "첩은 무산의 남쪽 높은 언덕의 험준한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비가 되어 아침마다 밤마다 양대陽臺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송옥宋玉의 〈고당부高唐賦〉 속에 있는 옛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또한 같은 것이다.

이백의 시에, "달이 5마리 용으로 변하여 뒤쳐날아 푸른 하늘로 올라간다(月化五白龍 翻飛上靑天)"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마 그때의 요참謠讖(미래를 예언하는 노래)의 말일 것이다. 고려高麗 이백순李百順의 〈어양시漁陽詩〉에 말하기를 "다만 닭 머리의 고기를 빼앗고자 함에 인유因由할 뿐이다. 어찌 달이 용으로 변하는 것을 다투는 것이겠는가(只因欲奪鷄頭肉 豈是爭爲月化龍)"라고 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계두육鷄頭肉을 상고하여 보니, 양태진楊太眞(양귀비의 이름)이 술에 취하여 옷이 벗겨져서 약간 유방乳房을 드러내니 황제가 문지르며 말하기를, "보드랍고 따뜻한 것이 새로 벗겨 놓은 닭 머리의 살점 같다"라고 하니, 안녹산安祿山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매끄럽고 기름기 있는 것이 새상塞上(변방)의 응고凝固한 우유 같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백의 시에, "거울 같은 호수 300리 함담菡萏에서 연꽃이 핀다(鏡湖三百里 菡萏發荷花)"라고 했다. 대개 연꽃이 함담에서 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부거芙蕖는 그 잎을 하荷라고 하고, 그 줄기를 가茄라고 하며, 그 꽃으로서 아직 피지 않은 것을 함담菡萏이라 하고, 이미 핀 것을 부용芙蓉이라고 하며, 그 열매를 연蓮이라고 하고, 그 뿌리를 우藕라고 하며, 속을 적菂(연밥)이라 하고, 적菂 속에 있는 푸른 것을 의薏(연자蓮子)라고 하며, 부거芙蕖는 그 전체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이백이 숭산초련사嵩山焦鍊師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삼화三花에 흰 연기가 밝다(三花明素烟)"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한漢나라 때에 도사道士가 외국으로부터 패다貝多[55]의 씨를 가져다가 숭산 아래에 심었더니, 1년에 세 번 꽃이

55 나무의 이름. 인도에서 생산된다. 그 잎을 물에 축여서 종이 대신에 경經을 베낀다.

피었다고 한다. 형거실邢居實의 시에, "머리 수건은 즐겨 삼화수三花樹에 걸었다[頭巾好掛三花樹]"라고 한 것도 아마 또한 숭산을 가리켜 말하였을 것이다. 또 《선경仙經》에 말하기를, "곤륜산의 서북쪽에 용지龍池가 있고, 그 위에 삼화수三花樹가 있다. 삼주수三珠樹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이백의 시에, "임이여, 지금 건너고자 함은 무슨 일 때문인가. 이 같은 바람과 물결에는 갈 수 없어요[郎今欲渡緣何事 如此風波不可行]"라고 했다. 나는 항상 이 글귀를 즐겨 왼다. 그런데 양梁의 간문제시簡文帝詩에 말하기를, "임이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니, 바람과 물결이 두렵구나[郎今欲渡畏風波]"라고 했다. 비로소 이백의 시가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

이백의 시 〈촉도난蜀道難〉을 《당시해唐詩解》에서 말하기를, "현종玄宗이 촉蜀에 거둥하니, 이백이 이 시를 지어, 첫머리에 촉나라의 길이 험난하여 천자가 거둥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끝에는 촉중蜀中의 험악한 것을 말하여 왕자王者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대체로 임금의 행차를 속히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말한다. 이 말은 옳은 것 같다. 이백의 〈검각부劍閣賦〉에 말하기를, "가인佳人을 보내어 여기에 가네. 다시 어느 때에 돌아오려는가. 임 기다리는 마음 어찌 가히 있으랴. 내 생각에 잠겨 탄식하네[送佳人兮此去 復何時兮歸來 望夫君兮安極 我沈吟兮歎息]"라고 한 것도 또한 이와 같은 뜻이다. 본주本註에 자미子美가 촉蜀에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지은 것이라고 한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이다.

이백의 시에 말하기를, "5월에 서시西施가 연을 캐니 사람들이 보느라고 약야계若耶溪가 좁다[五月西施採 人看隘若耶]"라고 했다. 아마 5월은 연 따는 때인가 보다. 백광훈白光勳의 시에 말하기를, "강남江南의 연 따는 여인들 강물이 산을 치며 흐르네. 연이 짧아서 물 밖에 나오지 않으니 뱃노래에 봄은 수심이라네

〔江南採蓮女 江水拍山流 蓮短不出水 櫂歌春正愁〕"라고 했다. 대체로 연이 아직 물 밖에 나오지 않으면 연 따는 때가 아니니 이 시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세남虞世南의 시에, "어깨에 드리운 넓고 두꺼운 소매 모습 크게 어리석구나〔垂肩嚲袖大憨生〕"라고 했고, 이백의 시에는, "묻노니, 어째서 그렇게 몹시 여위었는가. 오직 종전에 시 짓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겠지〔爲問如何太瘦生 只爲從前作詩苦〕"라고 하였으며, 유창劉滄의 시에는, "달은 높이 오르고 바람은 자는데 괴롭게 읊조리네〔月高風定苦吟生〕"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최호崔浩가 시 짓기를 좋아하였는데 하루는 병이 나니 벗들이 놀리기를, "자네의 병은 곧 시를 애써 읊는 데서 야위었기 때문이야"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 같다. 여기에 쓴 생生이란 글자는 어조사다. 어록에 호생好生(좋아한다)이니 즘생怎生(어떤가)이니 심생甚生이니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불가의 용어에 태속생太俗生(속되다)이니 가련생可憐生(가엽다, 불쌍하다)이니 하는 것도 또한 같은 뜻이다.

이백의 시에, "공가空歌에 구름과 달을 바라보니, 가락이 모두 긴 소나무 소리더라〔空歌望雲月 曲盡長松聲〕"라고 했다. 주에 말하기를, "보허사步虛辭에 벽락공가碧落空歌"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상고하여 보면, 당나라 사람들이 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다. "공가동이분空歌迴易分"이라든가 "자부공가벽락한紫府空歌碧落寒"이라든가 하는 것과 같다. 대체로 공중空中의 음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백의 시에 말하기를, "미친바람이 고월古月에 불어서 가만히 장화대章華臺[56]를 희롱한다〔狂風吹古月 竊弄章華臺〕"라고 했다. 또, "바다가 진동하고 산이 기울어져 고월古月이 꺾였다〔海動山傾古月摧〕"라고도 했다. 고월이라는 말의 출처를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월은 호胡(오랑캐)의 파자破字다"라고 한다.

56 대臺의 이름. 여양대汝陽臺라고도 한다. 하남河南 여녕부汝寧府 여양현汝陽縣에 있다.

《진서晉書》를 보니, 〈유총기劉聰記〉에 말하기를, "월月은 호왕胡王이다"라고 했다. 또 〈부견기符堅記〉에는 말하기를, "참서讖書(예언서)에 말하기를 고월古月의 종말에 중주中州를 어지럽힌다"라고 했다 한다.

이백의 시에, "문을 나서니 처자들이 굳이 옷을 당기면서 나의 서쪽 행각이 몇 달이면 돌아오느냐고 묻네. 돌아올 때는 혹시 황금인黃金印을 차고 올지도 모르니 소진蘇秦이 베틀에서 내리지 않던 일은 배우지 말라〔出門妻子强牽衣 問我西行幾日歸 來時倘佩黃金印 莫學蘇秦不下機〕"라고 했다. 고찰하여 보니, 베틀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한 말은 바로 소진의 아내의 일[57]을 말한 것인데, 바로 소진이 베틀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쓴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백의 〈여산폭포시廬山瀑布詩〉[58]에 말하기를, "처음에는 은하銀河가 떨어지는가 놀랐다〔初驚銀河落〕"라고 했고, 또, "은하가 9만 리 장천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疑是銀河落九天〕"라고 했다. 대체로 잘 형용했다. 진박陳摶의 시에 말하기를, "은하가 쏟아져 내리니 푸른빛이 서늘하다〔銀河瀉落翠光冷〕" 했고, 석만경石曼卿의 시에는, "옥무지개가 땅에 드리운 빛이고,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리다〔玉虹垂地色 銀漢落天聲〕"라고 한 것은 모두 이백의 시를 습용한 것이다. 아조我朝의 정순붕鄭順朋의 〈박연폭포시朴淵瀑布詩〉에 말하기를, "길이 한스러운 일은 당년當年의 이적선李謫仙이 일평생 여산 폭포에만 끝까지 눈이 치우쳐서 구슬 같은 글귀로 잘못 은하수 떨어지는 데에 비유하였으니, 나는 다시 무슨 말로 박연폭포를 말할 것인가〔長恨當年李謫仙 一生廬嶽眼終偏 瓊詞錯譬銀河落 更把何言賦朴淵〕"라고 했다. 차천로車天輅의 시에는 말하기를, "갠 날 무지개는 거꾸

57 소진이 벼슬도 하기 전에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와도 베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58 이백李白이 여산에 있는 폭포를 바라보고 지은 시詩로 다음과 같다. "해가 향로봉에 비치니 자색의 연기가 나네. 멀리 바라보니 폭포가 기다란 냇물처럼 걸려 있구나. 날아 흘러서 곧바로 삼천척을 내려오니, 은하수가 구만리 장천에서 떨어지는 것 같구나〔日照香爐生紫烟 遙看瀑布掛長川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

로 걸렸는데, 못의 마음은 검고, 백련白練(마전한 흰 명주)은 비스듬히 돌뼈의 푸른 것을 갈라 놓았네〔晴虹倒掛潭心黑 白練斜分石骨靑〕"라고 했다. 비록 '은하'라는 두 글자는 쓰지 않았으나, 갠 무지개니, 백련이니 하는 것은 또한 옛 시에 있는 말이다.

이백의 시에, "닭이 울고 바다 빛이 움직이니, 황제에게 뵈려고 공후가 벌여 섰네〔鷄鳴海色動 謁帝羅公侯〕"라고 했다. 주에, "바다 빛〔海色〕은 새벽빛〔曉色〕"이라고 했다. 일설에는 해색海色은 해 돋는 광명이라고 한다. 이용반李龍攀의 시에, "바다 빛은 가을 하늘에 높은데, 날마다 산봉우리를 본다〔海色秋高日觀峯〕"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백의 〈첩박명시妾薄命詩〉에 말하기를, "옛날에는 부용꽃이러니 지금은 단장초斷腸草가 되었네〔昔日芙蓉花 今成斷腸草〕"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단장초는 그 꽃이 아름답고 좋아서 부용芙蓉이라고 이름하지만, 그 뿌리는 먹지 못한다. 먹으면 창자가 끊어진다고 한다.

이백의 시에, "봉생과 용관이 가기를 서로 재촉한다〔鳳笙龍管行相催〕"라고 했다. 《열선전列仙傳》을 보니, "주周나라 왕자교王子喬가 생황笙簧(관악기의 한 가지)을 잘 불어서 봉鳳의 울음소리를 냈다"라고 했다. 옛 글에 말하기를, "낙포에서 봉취를 듣는다〔聞鳳吹於洛浦〕"라고 했다. 《당시唐詩》에 말하기를, "봉취 소리 채하彩霞(아름다운 노을) 저편에서 들려오는 듯〔鳳吹聲如隔彩霞〕"이라고도 했다. 모두 생황을 말한 것이다. 이백의 시에 또 말하기를, "쌍으로 자란의 생을 분다〔雙吹紫鸞笙〕"라고 했다. 대체로 봉鳳이란 글자 대신 난鸞을 쓴 것이다. 또 《열선전列

仙傳》에 소사簫史[59]가 퉁소를 잘 불어서 봉의 울음소리를 내더니, 뒤에 농옥弄玉과 함께 봉을 타고 날아갔다. 그래서 봉소鳳簫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허혼許渾의 〈구산묘시緱山廟詩〉에 말한, "옥퉁소 소리 맑게 구르는데 학이 배회하네〔玉簫淸轉鶴徘徊〕"라고 하고, 또 "구산이 머무는 곳이 취소묘에 가깝다〔緱山住近吹簫廟〕"라고 하였는데, 아마 이 소簫 자는 잘못 쓴 것일 것이다.

이백의 시에, "동창의 푸른 옥玉나무 아마 대여섯 가지 자랐을 것이다〔東窓綠玉樹 定長三五枝〕"라고 하고 또, "손에 녹옥綠玉의 지팡이를 갖고〔手持綠玉杖〕"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서도부西都賦〉에, "산호 푸른 나무가 언덕을 둘러서 났다〔珊瑚碧樹 周阿而生〕"라고 했고, 《회남자》에는 말하기를, "곤륜산에 벽옥수碧玉樹가 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왕정백王貞白의 시에 말하기를 "이슬이 붉은 옥나무에 향기롭다〔露香紅玉樹〕"라고 한 것도 또한 근거한 데가 있는 것일까.

이백의 〈녹수곡시綠水曲詩〉에 말하기를, "녹수에 가을달이 밝다〔綠水明秋月〕"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녹수綠水는 옛날의 거문고 곡조의 이름이다. 《회남자》에 말하기를, "객客은 녹수의 운치〔趣〕를 이해한다"라고 했고, 혜강嵇康의 〈금부琴賦〉에는, "처음 녹수를 건넜다"라고 했다. 심전기의 시에 말하기를, "노랫소리 녹수를 따르다〔歌聲隨綠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백의 시에 말하기를, "집이 청산에 가까우니, 사조謝眺(남조南朝 남제南齊의 시인)와 같다〔宅近靑山同謝眺〕"라고 했다.
《요산당외기》를 보니, "사조謝眺가 청산靑山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산 남쪽에 집을 지었다. 청산은 산 이름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이백이 우저기牛渚

59 소사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람. 퉁소를 잘 불어 봉鳳의 울음소리를 내니,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그의 딸 농옥弄玉으로 그의 아내를 삼고, 퉁소를 가르치게 했다. 두 사람은 봉대鳳臺라는 훌륭한 집에서 퉁소를 불더니, 뒤에 두 사람이 모두 봉황을 타고 신선이 되어 갔다고 한다.

磯[60]에 이르러 사가謝家의 청산을 좋아하여 거기에서 생을 마치고자 했다. 죽은 뒤에 드디어 그 산의 기슭에 장사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백의 시에 말하기를, "흰 기러기, 상림上林에 날아갈까 하여 헛되게 한 장의 편지를 전하네(白雁上林飛 空傳一書札)"라고 했다. 《설부》를 보니 말하였기를, "북쪽에는 흰 기러기가 있어서 가을이 깊으면 온다. 이것을 상신霜信(서리 소식)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두시杜詩에, "고국故國의 서리에 앞서 흰 기러기 오네(故國霜前白雁來)"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시는 대체로, "기러기는 오는데 편지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천자가 부르는데 배에 오르지 않는다(天子呼來不上船)"라고 한 글귀는 바로 이백에게 실지로 있었던 일이다. 이른바, "임금의 배 옮겨 가는 것이 늦어졌다(龍舟移棹晩)"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고문대전古文大全》의 주註에 "옷끈으로 배를 매었다(以衣紐爲船)" 했고, 《냉재야화冷齋夜話》에서도 또한 옷깃 끈(襟紐)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웃을 만하다.

이기李頎의 노 원외盧員外 송별시에 말하기를, "진秦나라 땅의 입춘立春은 태사太史에게 전해지고, 한漢나라 궁전의 제주題柱는 선랑仙郎을 생각케 한다(秦地立春傳太史 漢宮題柱憶仙郎)" 했다. 위 글귀는, 아마 옛날에는 태사가 천문天文 · 역상曆象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아래 글귀는 어떤 이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고하여 보니, 한漢나라의 전봉田鳳이 상서랑尙書郎이 되었을 때에 얼굴과 몸가짐이 단아하고 곧으니, 영제靈帝가 목송目送(작별한 사람이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보며 보냄)

60 남경南京의 남쪽. 우저牛渚라는 호수 가에 있는 낚시터. 일찍이 사상謝尙이 이곳에 진鎭을 정하고 있으면서, 미복微服으로 달 밝은 강을 순행하다가 원굉袁宏을 만나 그의 시에 감탄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하고 기둥에, '당당하게 몸을 폈구나, 경조전랑이여(堂堂乎張 京兆田郎)' 하고 썼다 한다. 전기錢起가 왕 원외王員外에게 화답하는 시에, "기둥에 제서題書한 훌륭한 명성에 뛰어난 시재詩才까지 겸했으니, 풍류로 누가 한나라 전랑田郎을 이을 수 있으라(題柱盛名兼絶唱 風流誰繼漢田郎)"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잠삼岑參의 시에, "오랑캐를 쫓아선 서쪽으로 바다를 넘고, 호지胡地를 평정하여 북으로 천산天山에 이른다(逐虜西踰海 平胡北到天)"라고 하고, 또, "말을 달려 서쪽으로 와서 천산에 이르고자 한다(走馬西來欲到天)"라고도 했다. 여기에 천天이라고 한 것은 대개 천산을 가리킨 것이다. 두보杜甫의 〈송인종군시送人從軍詩〉에, "양관陽關은 이미 하늘에 가깝다(陽關已近天)"라고 한 것이나, 여온呂溫의 〈수강성비서受降城碑序〉에, "동쪽으로는 바닷가 맨 끝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하늘의 막다른 곳까지 평정했다(東極于海 西窮于天)"라고 한 것도 이것이다.

두보의 〈별찬상인시別贊上人詩〉에 말하기를, "양지楊枝가 새벽에 손에 있다(楊枝晨在手)"라고 했다. 소동파의 사詞에 말하기를, "단지의 물에 푸른 버들가지(盆水靑楊枝)"라고 했다. 불서佛書를 상고하여 보니, "새벽에 치목齒木(이를 닦을 때 쓰는 버드나무로 만든 칫솔)을 씹는다(晨嚼齒木)"라고 한 말의 주에, "양지楊枝로 이를 깨끗이 한다"라고 했다. 또 《수서隋書》에 말하기를, "진랍국眞臘國(캄보디아) 사람은 매일 아침에 몸을 씻고, 양지楊枝로 이를 깨끗이 닦고 나서 경經과 주문呪文을 왼다"라고 했다. 지금 세속에서 치목을 양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어떤 이는, "술가術家에서 버드나무 가지로 물을 뿌린다"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두시杜詩에, "등잔불 앞 가는 비에 처마의 꽃이 떨어진다(燈前細雨簷花落)"라고 했다. 상고하여 보니, 서치徐穉가 진번陳蕃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처마에 꽃이 피고 가는 비는 내리는데, 어찌 하룻저녁 가르침 받기를 원치 않을 수 있

겠습니까"라고 했다.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유장경劉長卿의 〈제가의택시題賈誼宅詩〉에 말하기를, "가을 풀에 홀로 찾으니 사람은 이미 간 뒤로구나. 차가운 수풀에서 헛되게 해 비끼는 때를 보고 있네〔秋草獨尋人去後 寒林空見日西時〕"라고 했다. 바로 가의賈誼의 부賦 속에 나오는, "주인이 장차 가려 하는데, 경자일庚子日의 해는 비끼네〔主人將去庚子日斜〕"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읽고 있으니 즐겁다.

옮긴이 소개 | 이수광 李睟光 1563~1628

조선 중기의 명신名臣. 실학實學의 선구자. 본관은 전주全州, 호號는 지봉芝峰이다. 1585년(선조 18)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호조 · 병조좌랑, 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주청사奏請使로 연경燕京에 내왕하였는데 당시 명나라에 와 있던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천주실의天主實義》 등을 가지고 돌아와 조선에 서양 문물을 소개했다. 폭넓은 학식과 견문을 바탕으로 백과사전류의 효시인 《지봉유설芝峰類說》을 저술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도승지 · 대사간 등을 역임했고 이조판서로 재임하던 중 별세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됐다.

옮긴이 소개 | 남만성 南晩星

경북 영양英陽 출생. 연희전문학교 문과. 민족문화추진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번역위원,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정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역서로 《경국대전經國大典》《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사송유취詞訟類聚》《징비록懲毖錄》《역옹패설櫟翁稗說》《목민심서牧民心書》《반계수록磻溪隧錄》 외 다수가 있다.

지봉유설1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Olje Classic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4 **고운집**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소크라테스의 변명 외**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7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저 | 주요섭 역
08 **청성잡기** 성대중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09 **한글중용 · 대학**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10 **팡세** 파스칼 저 | 정봉구 역
11 **군주론** 마키아벨리 저 | 임명방 역
12 **기측체의** 최한기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13 **우서** 유수원 저 | 한영구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14 **채근담** 홍자성 저 | 송정희 역
15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저 | 김정진 역
16 **천로역정** 존 버니언 저 | 주요섭 역
17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18, 19 **계원필경집1, 2**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20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장병길 역
21 **명심보감** 추적 저 | 이민수 역
22 **서경** | 권덕주 역
23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24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황문수 역
25 **택리지** 이중환 저| 이민수 역
26, 27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28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 최재서 역
29 **유혹자의 일기** 쇠렌 키에르케고어 저 | 황문수 역
30 **에밀**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31 **땅의 양식** 앙드레 지드 저 | 박은수 역
32 **격몽요결** 이이 저 | 정후수 역
33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34 **방법서설** 르네 데카르트 저 | 김형효 역
35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 이정식 역
36 **역옹패설** 이제현 저 | 남만성 역
37 **유리알유희** 헤르만 헤세 저 | 노태한 역
38, 39 **국부론1, 2** 애덤 스미스 저 | 최임환 역
40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41 **마음** 나쓰메 소세키 저 | 김성기 역
42~45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46 **난중일기** 이순신 저 | 이은상 역
47 **징비록** 유성룡 저 | 구지현 역
48, 49 **쇄미록1, 2**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50 **장자** 장자 저 | 신동준 역
51 **열자** 열자 저 | 정창영 역
52 **바가바드 기타** | 정창영 역
53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
54 **산해경** | 장수철 역
55 **박물지** 쥘 르나르 저 | 손석린 역
56, 57 **춘추좌전1, 2** 좌구명 저 | 신동준 역
58~61 **서유기1~4** 오승은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62 대당서역기 현장 저 | 권덕주 역

63 손자병법 손무 저 | 임용한 역

64 오자병법 오기 저 | 임용한 역

65 전술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 이영남 역

66 포화 앙리 바르뷔스 저 | 정봉구 역

67 시경 | 신동준 역

68 문심조룡 유협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69 시학 · 데 아니마 아리스토텔레스 저 | 김완수 역

70 주홍 글씨 너대니얼 호손 저 | 최재서 역

71, 72 지봉유설1, 2 이수광 저 | 남만성 역

73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저 | 이민재 역

74 비글호 항해기

찰스 다윈 저 | 권혜련 · 김정석 · 박완신 · 이혜진 역

75~78 홍루몽1~4 조설근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79~83 동주 열국지1~5 풍몽룡 저 | 신동준 역

84, 85 카라마조프네 형제들1, 2 도스토옙스키 저 | 이동현 역

86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스 저 | 조순 역

87, 88 법, 입법 그리고 자유1, 2 하이에크 저 | 양승두 외 역

89~93 금병매1~5 난릉 소소생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94, 95 한비자1, 2 한비 저 | 신동준 역

96 상군서 상앙 저 | 신동준 역

97, 98 회남자1, 2 유안 저 | 이석명 역

99 금강경 동봉 역

100 동의수세보원 이제마 저 | 이을호 · 홍순용 역 | 주종천 보補

101, 102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1, 2

조르조 바자리 저 | 이근배 역 | 최병진 감수

Olje Selection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04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최재서 역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0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8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09~12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13, 14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15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 황문수 역

16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